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홍승현 · 송진 · 최진열 · 허인욱 · 이성제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가 발간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작년 6월의 일로 기억합니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역대 장성의 총길이가 21,196.18km이며 그 유적은 모두 43,721곳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우리가 보인 관심은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파악한 장성 유적에 고구려와 발해의 성곽이 포함된 것은 아닐까, 또 만리장성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황당한 주장과 같은 다른 역사왜곡의 사례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의 발표 내용에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재단은 중국의 장성 발표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고 중국 학계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계가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장성은 무엇인가’를 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성 연구의 현재적 의미를 짚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자칫 선부른 판단으로 인한 오해와 분란을 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관련 연구자들을 모아 중국의 역대 장성은 어떤 것인지 당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피도록 했습니다. 재단의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의 연구자들은 각 시대의 장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그 시대의 장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이 책의

발간으로 장성 연구의 현황을 모두 정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장성은 무엇이다'라고 명쾌한 답변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들은 이 책의 한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획과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천착하고 새로운 이해를 마련하기 위해 애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단 밖에서 김정열 교수가 많은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으로 우리의 장성 연구에 미진한 바가 대강 드러나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밝혀진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이를 한 단계 뛰어넘는 향후의 작업을 기대해 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2014년 10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책머리에	9
------	---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와 국가 성격 | 홍승현

I. 머리말	15
II. 연 장성의 축조 시기	21
III. 연 장성의 위치와 주향	34
1. 기존 연구의 검토	34
2. 장성 개념의 변화와 연 장성의 분포	46
IV. 연 장성의 역할과 의미-오군 설치와 관련하여	53
V. 연의 요서·요동으로의 확장과 국가 성격	63
VI. 맺음말	72

한 장성의 존재 형태와 그 특징 | 송진

I. 머리말	85
II. 한 장성 연구의 개황과 그 실제	89
1. 한 장성 축조 시기와 위치	89
2. 한 장성 연구의 문제점	119
III. 국경으로서 한 장성과 그 관리	132
1. 제국의 국경과 장성	133
2. 장성의 출입 관리와 그 특징	136
IV. 맺음말	155

북조 장성 축조와 그 배경 | 최진열

I. 북조 시대 장성 연구사	167
1. 북조 장성 연구사	167
2. 북조 장성 연구의 분석	218
3. 중국 학계의 장성관	221
II. 북위 시대 장성 축조의 배경	225
1. 유연의 방어와 신제 공격	225
2. 호인의 통제와 도망 방지	234
3. 평성 일대의 목축 경제 보호	243
III. 동위 북제 시대 장성 축조의 배경	252
1. 장성 축조의 군사적·외교적 배경	252
2. 선비·고차와 기축의 보호	265
IV. 서위 북주의 장성 축조 부진과 그 배경	277
1. 서위 북주와 돌궐의 화의	277
2. 북주 통일 이후 돌궐의 침입과 장성 축조	286
V. 맺음말 - 이민족 왕조의 장성 축조의 의의	289

금대 계호 연구와 그 내용 | 허인욱

I. 머리말	299
II. 금계호와 연구 성과	300
1. 금계호의 분포 현황	300
2. 연구 성과	306
III. 금계호의 축설 시기와 설립 목적	314
1. 금계호의 축설 시기	314
2. 시기별 계호의 설치 의도	338
IV. 계호 연구의 논쟁점	354
1. 계호 혹은 장성	355
2. 파로화의 계호 준설과 그 위치	358
3. 연변 지역 변장과 고려	361
V. 맺음말	365

중국 장성자원조사 사업과 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 이성제

I. 머리말	373
II. 중국의 장성자원조사 사업과 장성보호조례	376
III. 중국장성학회와 새로운 장성 개념의 창출	380
IV. 장성의 새로운 정의와 유적의 재해석	386
V. 맺음말 - 중국의 장성학과 우리의 과제	394
찾아보기	402

그동안 장성은 지상의 구조물이며 일정한 거리에 걸쳐 연속해서 쌓은 방어 시설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해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규정한 <장성보호조례> 및 장성조사를 위한 지침인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에 따르면 장성은 연속된 벽뿐 아니라 성보(城堡), 관애(關隘), 봉화대(烽火臺), 적루(敵樓) 등을 포괄하며 산험장(山險牆)과 같이 자연 지형을 이용한 것이나 참호(塹壕)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장성 범주의 확대를 말미암아 장성 개념은 무한한 확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군현의 거점을 외곽에서 둘러싼 성보, 점재한 봉수와 초소가 과연 장성의 일부일 수 있을까. 자연적인 지형지물까지도 장성에 포함시킨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그러면 과연 장성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네 명의 연구자가 각각 전국시대, 진한, 북조, 금대의 이른바 ‘장성’에 대해 검토한 이 연구는 각 시대의 ‘장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그간의 연구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시대의 ‘장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가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기초적 검토에 해당한다. 한편 말미에 들어간 글은 ‘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보이는 특징과 그 문제점을 살핀 것으로, 『한국성곽학보』 24(2013.10)에 소개된 바 있지만 장성 연구의

현재적 의미를 짚어본다는 점에서 수록하였다.

이번 연구에는 필자를 포함하여 모두 5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필진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열 교수가 검토회의 때마다 참석하여 귀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논제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지만, 연구진의 구성은 생각 외로 힘들었다. 또한 한 시대가 아니라 각 시대를 다룬 만큼 각 시대의 ‘장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기에도 벅찬 작업이었다. 그 결과 각 연구자들은 장성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이처럼 각 연구자가 장성의 개념을 공유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장성 개념의 정의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작업을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하나는 전국시대 이래 각 시대마다 ‘장성’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에 혼란이 있었다는 점이다. 단순한 용어의 혼란뿐 아니라 장성의 형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각 시대의 일관되지 않은 인식이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근래에 들어 발생한 것으로, ‘장성’에 대한 의도적인 개념 조작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이다. 변경에 들어선 모든 유구를 장성에 포함시켜 새로운 의미의 장성을 창출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한 지금 장성의 개념을 역사적 기록에 의해 확인하거나 혹은 유적을 통해 복원하려는 시도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수행된 연구의 고유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향후의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

첫째, 장성의 개념 변화에 대한 통시대적인 연구다. ‘장성’이 본디부터 불변하는 어떤 것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며,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이 부여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중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장성의 개념 변화를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성 유적으로 상정되는 유적에 대한 관찰이다. 유적의 내용을 살펴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중국의 새로운 '장성' 개념 설정과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4년 10월
필자를 대표하여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와 국가 성격

I. 머리말

II. 연 장성의 축조 시기

III. 연 장성의 위치와 주향

IV. 연 장성의 역할과 의미-오군 설치와 관련하여

V. 연의 요서·요동으로의 확장과 국가 성격

V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홍승현(洪承賢)

중국고대사 / 서강대학교 사학과 대우교수

대표논저: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공저, 2012, 주류성), 「중국과 일본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2012, 『동북아역사논총』 35), 「魏晉南北朝時期 中華思想의 변용과 동아시아 국제질서」(2013, 『동북아역사논총』 40) 등.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와 국가 성격

I. 머리말

일반적으로 장성(長城)의 축조 목적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체계’라는 데 일치한다. 특히 전국시기(戰國時期) 진(秦) 장성·조북(趙北) 장성·연북(燕北) 장성은 중원 제후국과는 구분되는 이적(夷狄)에 대한 방어 체계로 이해되었다. 이는 사마천(司馬遷)의 서술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사기(史記)』 「흉노열전(匈奴列傳)」의 “진(秦)이 농서(隴西)·북지(北地)·상군(上郡)을 설치하고, 장성을 설치하여 호(胡)를 막았다.”¹ “연(燕) 역시 장성을 축조하였는데, 조양(造陽)으로부터 양평(襄平)에 이르렀다. 상곡(上穀)·어양(漁陽)·우북평(右北平)·요서(遼西)·요동군(遼東郡)을 설치하고 호를 막았다.”²라는 기사가 근거가 되었다.

1 『史記』 卷110, 「匈奴列傳」, “秦有隴西·北地·上郡, 築長城以拒胡.”

2 『史記』 卷110, 「匈奴列傳」, “燕亦築長城, 自造陽至襄平. 置上穀·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그런데 청목부태랑(靑木富太郎)은 이에 대해 다소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전국시기 북방에 축조된 몇몇 나라의 장성들이 명대(明代) 장성보다 상당히 북쪽으로 치우쳐 올라가 있다는 점에 의문을 가졌다. 그는 장성선을 북방 유목민의 거주 지역과 남방 농경민의 거주 지대의 경계로 인식하는 일만론에 근거할 경우 연과 조의 장성이 지나치게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당시 농경 기술에 따른다면 두 나라 장성선 아래 지역은 농경보다 유목에 유리한 지역이었다고 하였다.³ 그렇다면 연과 조의 북방 지구 장성이 북쪽에 치우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전국시기 연의 장성 축조가 가진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전국시기 연의 국가 성격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 역시 살펴봐야 할 것이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 글에서는 우선 연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을 먼저 고찰하는 것은 연북 장성의 주향(走向)과 동단(東端) 문제가 한국사와 관련이 깊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현재 중국 학계에서 진행되는 연북 장성 및 진 장성선 확정 작업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서북 지구 장성 연구보다 동북 지구 장성 연구가 활발하다. 그것은 서쪽의 장성과는 달리 동쪽의 장성들이 가진 유지의 불완전함 때문이다. 건조하여 유적과 유지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서쪽과는 달리 동쪽의 경우 실체를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불완전한 유지들이 많아 주향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국시기 연 장성·진 장성, 통일 진 장성, 한(漢) 장성 등이 엉켜 있으므로 정확한 주향 확정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복잡하기 그지없는 문헌 기록 역시 주향 확정에 어려움을 더하는

3 靑木富太郎(1972), 『萬里の長城』, 東京: 近藤出版, 14~15쪽.

요소다. 또한 이곳이 역사적 국경 확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도 외면하기 힘들다. 그 결과 동쪽 장성은 역사적 경험뿐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로 인해 동쪽 장성의 주향과 종단(終端)을 확정하는 작업에는 복잡한 문제와 다양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다.

변화된 장성관도 작업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선 장성을 이어진 벽, 즉 선이 아닌 점의 종합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전국시기 또는 진·한대 유물이 발견되는 모든 유지를 장성선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 전국시기나 진·한대 유물 발견지 모두를 곧 장성 유지로 파악할 수 있는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다음으로는 2006년 10월 국가국무원령 476호로 제정되어 그해 12월 1일자로 시행된 장성보호에 관한 법령인 <장성보호조례(長城保護條例)>로부터 발생한 문제다. 이 <장성보호조례>는 모두 31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5조·9조·11조·13조·14조·15조다.⁴ 이들 조항들은 장

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中國國家文物國·中國國家測繪局(2007), 「長城保護條例」,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3~8쪽.

- 5조: 장성 소재 현급(縣級) 이상 지방 정부는 장성 보호 경비를 재정 예산에 책정해야 한다.
- 9조: 장성 소재 성(省)·자치구·직할시 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11조: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장성보호총체규획(長城保護總體規畫)>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장성의 보호 범위와 규제 지역을 획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 13조: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해당 장성선 연변의 교통로 입구와 기타 필요한 지역에 장성 보호 표지를 세워야 한다.
- 14조: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장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물 주관 부서는 장성 보고서를 국무원 문물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 15조: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장성 구간을 위해 보호 기구를 확정해야 한다.

성 조사와 보호를 현급(縣級)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 중 장성 보호 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5조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라는 의미를 가지며,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내 장성의 보호 범위와 규제 지역을 확정하게 하는 11조와 장성 보호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15조는 장성이 정부에 의해 보다 책임 있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장성 조사 및 보호가 정부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은 학문 발달과 인류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체계성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은 지방 정부가 진행되는 장성 조사가 장성선을 확정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어 학문적 객관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각 성, 자치구, 직할지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장성에 대한 조사와 구간의 확정이 진행되었다.⁵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지역별로 장성의 흔적을 찾고, 주향을 자신들의 경내로 끌어들이는 조사와 연구들을 통합하는 학계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연 장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의 장성 축조 시기와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연이 어떤 목적에서 장성을 축조하였는지는 물론 장성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장성을 소극적인 의미의 방어선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연의 장성이 유목 지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면 장성의 의미는 소극적인 방어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연의 장성 축조가 전국시기 변법기(變法期)에 행해졌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렇다면 연의 장성을 국가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축조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

5 자세한 사항은 홍승현(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총』 35 참조.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의 변법과 장성의 축조를 관련시켜 탐구해 보고자 한다.

한편 두 국가의 장성이 단순히 유목민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라는 소극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목민의 토지까지 뺏어나가고자 했던 적극적인 영역 확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면 장성선 이남의 공간은 어떤 의미를 지녔던 것일까? 이미 연구자들 중 백음사간(白音查幹)은 장성을 중원 농경 세력의 북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았으며,⁶ 겸자웅보(兼子雄輔) 또한 장성은 획득한 생산지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영역 확장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⁷ 심지어 줄리아 로벨(Julia Lovell)은 장성은 ‘외국 영토를 점령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그는 북방 장성은 유목민들을 그들 영토에서 몰아내고 이 지역 전체 주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군사적 거점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이것은 장성의 용도가 항상 방어적인 것만은 아니고, ‘팽창주의적 식민주의의 거점’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성이 유목 집단으로부터 중국 문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이는 니콜라 디 코스모(Nicola Di Cosmo)다. 그는 장성을 무력 침략의 표현이자 낯선 영역에 대한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중원의 제후국(諸侯國)들은 유목 집단을 추방하고 그 점거한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그로

6 白音查幹(1999), 「戰國時期燕·趙·秦長城新論」,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117-5, 54쪽.

7 兼子雄輔(2006), 「萬里의長城-古代萬里의長城의建築意義について」, 『國際文化研究紀要』 16, 360쪽.

8 Julia Lovell 지음·김병화 옮김(2007), 『장성, 중국사를 말하다』, 웅진 지식하우스, 64~65쪽.

인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한다는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 장성을 건설하였다.⁹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장성을 건설한 제후국들은 엄청난 비농경 지역을 점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장성에 의해 확보된 공간은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오언 라티모어(Owen Lattimore)는 연과 조는 농경성과 유목성이 혼재된 혼합 국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농경민도 존재할 뿐 아니라 유목민도 존재하는 국가였다는 것이다. 라티모어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국가는 유목 생활을 위한 국가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¹⁰ 그곳은 코스모의 주장처럼 말 사육을 위한 공간일 수도 혹은 교역의 지대 또는 병력과 노동력 공급원으로도 이용되었을지도 모르겠다.¹¹ 이와 관련한 라티모어의 ‘저수지론’¹²은 변경 지대를 이르는 고전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작업은 장성에 의해 연의 영역이 확대되었는가와 확대되었다면 그곳은 어떤 성질의 공간이었는데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설정해 보았다. 이 작업은 연의 국가 성격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이라는 국가가 주변 지역에 어떠한 의미를 가졌을까 하는 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요컨대 연이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연이 동이(東夷) 지역의 급격한 사회 진화

9 Nicola Di Cosmo(2004[2002]), *Ancient China and its enemies: the rise of nomadic power in East Asi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49.

10 Owen Lattimore 著·後藤富男 編譯(1940), 『農業支那と遊牧民族』, 東京: 生活社, 100~101쪽.

11 Nicola Di Cosmo, op. cit, pp. 156~157.

12 Owen Lattimore(1975[1935]), *Manchuria: cradle of conflict*, New York: AMS Press, pp. 38~42.

를 가져온 원동력이었다는 주장이 있었다.¹³ 이 문제는 지면의 한계를 떠나 이 글의 목적상 깊이 고구(考究)할 문제는 아니나, 연이 한반도, 더 나아가 일본 국가와 관련을 맺은 것이 사실이라면 연이 중국사 안에서 담당했던 역할뿐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안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진한 통일 제국 이전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단서를 얻기를 기대한다.

II. 연 장성의 축조 시기

연 장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동북 지역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성과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학계의 연 장성 관련 중요 연구 일람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던 연 장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 들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연 장성의 구체적 주향을 확정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초기 연구들이 주로 장성의 축조 시기에 대해 관심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1980년대 이후 연구는 장성의 주향에 관한 연구가 대중을 이루게 되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지

13 宮本一夫(2007), 「漢と匈奴の國家形成と周邊地域」, 『東アジアと日本: 交流と變容: 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 統括ワークショップ報告書』(福岡: 九州大學 21世紀COEプログラム(人文科學)「東アジアと日本: 交流と變容」), 119쪽; 宮本一夫(2011), 「東アジア地域社會の形成と古代國家の誕生」, 『東アジア世界の交流と變容』, 福岡: 九州大, 16쪽; 石川岳彦·小林青樹(2012), 「春秋戰國期の燕國における初期鐵器と東方への擴散」,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67, 32~35쪽.

〈표 1〉 1980~2012년 발표된 연 장성 관련 연구 일람

연번	저자	발표연도	논문·저서 제목	수록지	내용
1	項春松	1981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 文物)	① 장성 유지의 분포와 주향, ② 장성 축조 및 지형, ③ 장성의 구성 요소, ④ 장성 축조 연대
2	布尼阿林	1981	「河北省圍場縣燕秦長城調查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 文物)	① 장성 유지의 분포와 주향, ② 장성 선 위의 고성지(古城址), ③ 장성 축조 연대
3	李殿福	1982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1	① 연북 장성의 위치와 주향, ② 연북 장성과 진 장성의 관계, ③ 연북 장성의 동단
4	馮永謙·何溥滢	1986	『遼寧古長城』(沈陽: 遼寧人民)		① 연 장성의 축조 연대, ② 연 장성의 위치, ③ 연 장성의 내선(內線), ④ 연 장성의 외선(外線)
5	李慶發·張克學	1988	「遼西地區燕秦長城調查報告」	『遼海文物學刊』 12	① 연북·연남(燕南) 장성의 주향, ② 장성의 축조 형식 ③ 장성선 상의 성지(城址)·기주지(居住址)·부속 시설, ④ 장성 축조 연대
6	馮永謙	1991	「東北古代長城考辨」	『東北亞歷史與文化』(沈陽: 遼沈書社)	① 연 장성의 축조 연대, ② 연 장성의 주향과 동단, ③ 연 장성 유지의 현재 상황
7	徐浩生	1992	「燕國南長城的調查及其建築年代考」	『京華舊事存眞』(北京古籍出版)	① 연남 장성 조사 상황-주향, 구조, 부속 시설 ② 축조 연대, ③ 연남 장성의 역사적 역할
8	劉志一	1994	「戰國燕地長城調查」	『內蒙古文物考古』 1	① 연 장성의 위치, ② 형태와 분포, ③ 장성의 주향과 장지(郵址), ④ 연 장성의 축조 연대
9	閻忠	1995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2	① 내선(內線) 장성의 서단(西段), ② 동선(東線) 장성의 동단(東段), ③ 외선(外線) 장성의 위치와 주향
10	陳可畏	1995	「論戰國時期秦·趙·燕北部長城」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長春: 吉林人民)	① 연 장성의 축조 목적, ② 연 장성의 위치, ③ 연 장성의 역할, ④ 연 장성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적 가치

연번	저자	발표연도	논문·저서 제목	수록지	내용
11	孫傑	1997	「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	『遼海文物學刊』 24	① 연 장성에 대한 문헌의 기술, ② 연 장성 축조 방식, ③ 연 장성의 위치, ④ 연 장성의 주향
12	白音查幹	1999	「戰國時期燕·趙·秦長城新論」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117-5	① 연 장성 축조 시기, ② 연 장성의 주향, ③ 연 장성의 축조 배경과 목적
13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63	① 연 장성에 대한 기존 연구사 정리, ② 연요동(燕遼東) 장성의 장세(障塞)의 분석, ③ 연 장성의 주향
14	許志國	2007	「遼北境內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博物館研究』 98	① 연 장성에 대한 기존 연구와 확인된 주향, ② 요북(遼北) 지구 내 장성 유지의 분석-철령(鐵嶺)·개원(開原) 지역을 중심으로 ③ 연·진 장성의 위치와 주향, ④ 발굴 유지의 문제점과 연·진 장성 주향 확정을 위한 제언(提言)
15	馮永謙	2010	「東北燕秦漢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	『遼寧考古文集』 2	① 서북 지구(허북(河北)·내몽고(內蒙古)·요녕(遼寧)) 내 연북 내선 장성의 위치, ② 연북 내선 장성의 유지 조사 결과, ③ 연북 내선 장성의 축조 연대, ④ 서북 지구 내 연북 외선 장성의 위치, ⑤ 연북 외선 장성의 유지 조사 결과 ⑥ 중부 지구(심양(沈陽)·철령) 내 장성 유지 조사 결과 ⑦ 동부 지구(무순(撫順)·본계(本溪)·단둥(丹東)) 내 장성 유지 조사 결과
16	裴耀軍	2010	「遼北地區燕秦漢時期遺存的發現與研究」	『遼寧考古文集』 2	① 요북 지구에서 발견된 지방성(地方性) 유적과 유물 조사 결과, ② 중원성(中原性) 유적과 유물 조사 결과, ③ 유적(물)의 특징·연대·족속(族屬), ④ 요북 지구 내 연진 장성의 주향과 형태
17	許志國	2010	「遼北燕秦長城及相關遺迹遺物的發現和研究」	『遼寧考古文集』 2	14의 2007년 연구와 동일

연번	저자	발표연도	논문·저서 제목	수록지	내용
18	李樹林·李妍	2011	「燕秦漢遼東長城障塞遺址的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5	① 요동 장성의 구축 형식과 장새·성지에 대한 통계와 총괄 분석, ② 요동 장성의 군사류(軍事類) 장새 시설에 대한 통계와 분석, ③ 요동 장성의 중추적 행정류(行政類) 성지의 통계와 분석
19	李樹林·李妍	2011	「吉林省燕秦漢遼東長城考古調查概述」	『社會科學戰線』10	① 통화(通化)·백산(白山) 지구 현장 고고 조사 성과, ② 유적의 유형별 분류와 표본 유지의 소개
20	李樹林·李妍	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3	① 새로 발견된 장새 유지-봉수망 후지(烽燧望候址), 장후성보(障候城堡), ② 재조사 시 확인된 주요 장새 유지-장후성보, 관애(關隘)

역 내 존재하는 유지의 발굴 조사와 그 보고가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가 연 장성의 주향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연 장성의 축조 시기와 주향이라는 두 측면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본격적인 장성 연구는 왕국량(王國良)의 연구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⁴ 현재 중국인의 장성에 대한 관심이나 열광과는 달리 중국 학계의 초기 장성 연구는 저조하였다.¹⁵ 왕국량의 연구 후에도 본격적인 장성 연구는 이문신(李文信)에 의해 1979년에나 개시되었다. 왕국량의 연구는 전통 시기 동아시아 역사 연구가 그랬던 것처럼 문헌 사료에 대한 고증을 통

14 王國良(1931), 『中國長城沿革攷』, 上海: 商務印書館 참조.

15 1930년 왕국량의 『中國長城沿革攷』가 나온 후 1979년 이문신(李文信)의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下」, 『社會科學輯刊』 1·2가 발표되고 1979년 장유화(張維華)의 『中國長城建置考 上篇』(北京: 中華書局)이 출간될 때까지 장성 연구로 이야기할 만한 것으로는 1941년에 자비 출간된 수봉비(壽鵬飛)의 『歷代長城考』만 있다.

해 장성의 축조 연대와 주향을 고찰한 것이었다. 적지 않은 오류가 있지만 중국 최초의 장성 관련 전서(專著)라는 점에서 이후 연구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기본 자료로 이용되었다.

그중 연 장성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그는 연 장성 중 북쪽에 구축한 연북 장성에 대해서 축조 시기를 효왕(孝王) 말년으로 추정하였다.¹⁶ 연효왕은 기원전 257~255년까지 재위하였으니, 대략 효왕 말년이면 기원전 255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효왕 말년으로 추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료에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연북 장성의 경우 구축 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추정에 도움이 되는 사료는 『사기』와 『삼국지(三國志)』에서 인용한 『위략(魏略)』의 다음 기사들이다.

[11] 또 조(趙)의 무령왕(武靈王) 역시 풍속을 바꾸어 호복(胡服)을 입고 말타며 활 쓰는 것을 익혀, 북으로 임호(林胡)와 누번(樓煩)을 격파하였다. 장성을 쌓음에 대(代)와 음산산맥(陰山山脈)의 기슭에서 고궐(高闕)에 이르기까지 새(塞)를 만들었다. 그리고 운중(雲中)·안문(鴈門)·대군(代郡)을 설치하였다. 그 후 연의 현장(賢將) 진개(秦開)가 호에 인질로 가 있었는데, 호가 그를 매우 신뢰하였다. (진개가) 귀국하여 동호(東胡)를 격파하여 도주하게 하니, (이때) 동호는 천여 리를 물러났다. 형가(荊軻)와 함께 진왕(秦王)을 암살하려던 진무양(秦舞陽)이 진개의 손자다. 연 역시 장성을 축조하였는데,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렀다.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을 설치하여 호를 막았다.¹⁷

16 王國良(1931), 앞의 책, 23쪽.

17 『史記』卷110, 「匈奴列傳」, “而趙武靈王, 亦變俗胡服, 習騎射, 北破林胡·樓煩, 築

[2] 처음 연의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眞番)과 조선(朝鮮)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고 장새(鞞塞)를 쌓았다.¹⁸

[3] 연이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 동쪽으로 땅을 침략하여 빼앗고자 하였다. 조선후(朝鮮侯) 역시 스스로 왕으로 칭하고 군대를 일으켜 연에 맞서 공격함으로써 주실(周室)을 받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은) 대부(大夫) 예(禮)가 간언(諫言)하여 그쳤다. 대부 예를 서쪽으로 보내 연을 설득하게 하니 연 역시 계획을 그치고 공격하지 않았다. 후에 조선의 자손이 점차 교만하고 포학해져서, 연이 이에 장수 진개를 보내 서방을 공격하게 하고 땅 이천여 리를 얻어, 만번한(滿番汗)을 경계로 삼으니 조선이 마침내 약해졌다.¹⁹

왕국량은 기사 1을 근거로 하여 연의 장성이 조의 장성보다 나중에 축조되었다고 보았다. 조의 북장성은 임호와 누번을 격파하고 쌓았기에 축조 시기는 무령왕 26년(기원전 300년)의 일이다. 따라서 연 장성의 축조 연대는 기원전 300년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다음인데 기록상으로는 진개가 언제 호로부터 귀국하였는지, 또는 언제 호와 전투를 행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여기서 왕국량은 진개가 연의 장수가 된 것은 장년이었을 것이니, 호로부터 귀국한 것은 이미 나이가 든 후의 일이라고 보았다. 한편 형가가 진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연왕(燕王) 희(喜) 28년(기원전 227년), 진무양의 나이를 20세 전후로 보았다.

長城，自代竝陰山下，至高闕爲塞，而置雲中·鴈門·代郡。其後燕有賢將秦開，爲質於胡，胡甚信之。歸而襲破走東胡，東胡卻千餘里，與荆軻刺秦王秦舞陽者，開之孫也。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穀·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18 『史記』卷115, 「朝鮮列傳」,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爲置吏，築鞞塞。”

19 『三國志·魏書』卷30, 「東夷韓傳」引『魏略』, “燕自尊爲王，欲東略地，朝鮮侯亦自稱爲王，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其大夫禮諫之，乃止。使禮西說燕，燕止之，不攻。後子孫稍驕虐，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番汗爲界，朝鮮遂弱。”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누군가를 암살할 수 있는 나이로 왕국량이 추정된 것이다. 연왕 희 28년, 손자가 20세 전후라면 그 조부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왕국량은 당시 추정을 통해 조부인 진개의 나이를 70세 전후로 계산하였다. 그렇다면 가령 진개가 50살 전후에 귀국했다면 연왕 희 시기에 장성이 축조되었을 것이고, 진개가 마흔 전후에 귀국했다면 연왕 희의 부친인 효왕 시기에 장성이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왕국량은 연북 장성의 축조 연대를 효왕 말년~연왕 희 시기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은 정확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²⁰ 그러나 사료상으로는 더 이상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1979년 이문신도 “조가 장성을 축조한 후에 연의 장수 진개가 동호를 격파하였다.”는 기사에 근거하여 연북 장성의 축조 시기를 추정하였는데, 대략 조 장성이 축조된 후 3~5년 사이가 연 장성의 축조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²¹ 이문신 이후 중국 학계는 연북 장성 축조 연대를 대체로 소왕(昭王) 시기로 보고 있다.²² 화하자(華夏子)는 진개의 손자였던 진무양이 형가와 함께 진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사기』 「자객열전(刺客列傳)」의 기사를 근거로 연 장성 축조 시기를 소왕 시기로 추정하며, 전국 시기 열국 장성 중 가장 늦게 축조되었다고 보았다.²³ 왕육민(王育民) 역시 『사기』 「흉노열전」에서 연 장성의 축조 기사가 무령왕 시기 조의 장성 축조 기사

20 그러나 항춘송(項春松) 역시 손자와 조부 사이의 세대 간 시간을 50년으로 보아 연북 장성의 축조 시기를 소왕(昭王) 중·말기로 이해하였다. 項春松(1981),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18쪽.

21 李文信(1979),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 『社會科學輯刊』 1, 148쪽.

22 劉建華(1993), 「張家口地區戰國時期古城址調查發現與研究」, 『文物春秋』 4, 21쪽. 유건화는 연의 경우 소왕 이전 동호나 제(濟), 중산국(中山國)에 대해 무력으로 맞설 수 없었다고 분석하였다.

23 華夏子(1988), 『明長城考實』, 北京: 檔案, 10쪽.

이후에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연 장성이 소왕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며 연 장성의 축조 연대를 가장 늦은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⁴ 풍영겸(馮永謙) 역시 연북 장성의 축조 연대를 동일하게 소왕 시기로 추정하였지만, 가장 늦게 축조된 장성으로 보지는 않았다.²⁵ 최근 백음사간은 연 장성의 축조 연대에 대해 연 남 장성은 소왕 이전에 시작하여 소왕 시기에 완성하였으며, 연북 장성의 경우 소왕 즉위 후에 축조하기 시작했다는 견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²⁶ 결국 이 문제는 진개의 동호 격파가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조의 장성 축조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의 장성 축조는 기사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임호와 누번 격파의 성과물이고, 운중·안문·대군을 설치한 시기와 근접한 어느 때에 이루어진 일이다. 우선 임호와 누번 격파의 시기를 살펴보자. 현재 임호와 누번 격파와 그에 따른 신군(新郡) 설치와 관련해서 무령왕 26년 설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²⁷ 이것은 『사기』 「조세가(趙世家)」의 기술에 근거한 것으로, 기사에는 무령왕 26년 다시 중산국(中山國)을 공격하고, 땅을 북으로 연·대까지 그리고서로는 운중·구원(九原)까지 넓혔다고 나와 있다.²⁸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임호와 누번 격파는 그 유명한 ‘호복기사(胡服騎射)’ 개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이는 26년보다는 앞선 일이란 생각이 든다. 호복 착용과 기사 전술의 채용은 무령왕 19년, 즉 기원전 307년의 일이다. 그리고 『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의

24 王育民(1988), 『中國歷史地理概論 下』, 北京: 人民教育, 427쪽.

25 馮永謙(1991), 「東北古代長城考辨」, 『東北亞歷史與文化』, 沈陽: 遼沈書社, 21~22쪽.

26 白音查幹(1999), 앞의 글, 51~52쪽.

27 배진영(2009), 『고대 北京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324쪽.

28 『史記』 卷43, 「趙世家」, “二十六, 復攻中山, 攘地北至燕·代, 西至雲中·九原.”

기사에 의해 그 다음 해인 기원전 306년에는 유유지문(遺遺之門)을 나가 서쪽의 호지(胡地)를 공격하여 그 땅 천 리를 넓혔다는 기사가 나온다.²⁹ 따라서 임호와 누번을 격파한 것은 무령왕 20년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실제로 『사기』의 기사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대의 경우 조 건국 이전 조양자(趙襄子) 통치기에 조의 영역이 된 곳이고,³⁰ 구원 또한 『고본죽서기년(古本竹書紀年)』에 따르면 무령왕 20년,³¹ 혹은 늦어도 24년에는 조의 소유였다.³² 그러므로 무령왕 26년의 기사는 그 때 비로소 영토를 연·대·운중·구원까지 넓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이르러 연·대·운중·구원에 이르는 판도가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성이 수축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무령왕 20년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연 장성은 최소한 무령왕 20년, 즉 기원전 306년보다는 후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연소왕 6년이 되는 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언제 진개가 동호를 격파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평(陳平)은 연소왕 28년 이후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연소왕 28년, 즉 기원전 284년은 연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제(齊)를 공격하여 격파한 해로, 이때까지 연은 대제(對齊) 공략에 집중하느라 동호를 공격할 여유가 없었다.³³ 실제로 연은 기원전 314년 자지(子之)의 난(亂) 당시 제의 공

29 『戰國策』, 「趙策二」, “至遂胡服率騎入胡, 出於遺遺之門, 踰九限之固, 絕五徑之險, 至榆中, 辟地千里.”

30 『史記』卷43, 「趙世家」, “遂興兵平代地. …… 遂以代封伯魯子周爲代成君.”

31 『古本竹書紀年』, 「魏紀」, “(魏襄王)十三年, 邯鄲命吏大夫奴遷於九原, 將軍·大夫·適子·代史皆貂服.”

32 『水經注』, 「河水」引 『紀年』, “魏襄王十七年, 邯鄲命吏大夫奴遷於九原, 又命將軍·大夫·適子·戍吏皆貂服.”

33 陳平(1995), 『燕史紀事編年會按 下冊』, 北京: 北京大, 212~213쪽.

격을 받아 대패하며, 연왕(燕王) 쾌(噲)와 자지가 모두 피살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당장 제에 복수할 수 없었던 연은 연소왕 즉위 후 절치부심하여 제를 공격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한다. 그래서 소왕은 ‘몸을 낮추어 현자(賢者)를 초빙’하였는데,³⁴ 그 현자들이란 ‘제를 깨뜨리고자 하는 사(士)’들이었고 ‘제의 협준한 지형과 요새를 잘 아는 사’들이었다.³⁵

따라서 이러한 기사들을 종합하면, 연소왕 28년 이전 연이 제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동호를 공격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 시기는 남쪽으로 군대를 집중시키기 위해 후방의 동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러한 필요로 인해 진개를 동호에 인질로 보냈을 것이다.³⁶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사기』에 기술된 연의 장성은 제를 공격한 후인 연소왕 28년 후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³⁷

한편 연의 장성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장성의 존재를 알려 주는 다음의 기사가 있다.

장의(張儀)가 진(秦)을 위해 합중(合縱)을 깨고 연횡(連橫)을 이루고자 연왕(燕王)에게 말하였다. “…… 지금 조왕(趙王)은 이미 민지(澠池)의 회합에 참가하여 진왕을 조현(朝見)하고 장차 하간(河間)의 땅을 바쳐 진을 섬기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왕께서 만일 진을 섬기지 않으신다면 진은 군사를 풀어

34 『史記』 卷34, 「燕世家」, “燕昭王於破燕之後卽位, 卑身厚幣以招賢者.”

35 『呂氏春秋』, 「應言」, “日者大王欲破齊, 諸天下之士, 其欲破齊者, 大王盡養之; 知齊之險阻要塞君臣之際者, 大王盡養之.”

36 배진영(2009), 앞의 책, 326~327쪽.

37 대표적으로 동동(修冬)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연소왕 30년(기원전 280년) 경에 진개가 동호를 격파하고 만변한, 즉 지금의 압록강까지 장성을 축조했다고 보았다. 修冬 主編(1987), 『中國東北史 第一卷』, 長春: 吉林文史, 234쪽.

윤중과 구원을 공략하면서 조를 몰아 연을 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수(易水)와 장성은 대왕의 것으로 남지 못할 것입니다. ……”³⁸

위의 기사는 장의가 연소왕을 만나 유세(遊說)하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유세 속에 장성이 등장한다. 이른바 연의 남 장성이다. 현재 남아 있는 사
료의 한계로 인해 연남 장성이 정확하게 언제 축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
만 장의가 유세했던 순서를 고려하면 최소한 소왕 12년 이전에는 이미 연남
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³⁹ 그러나 『역대통감잡람(歷代通鑑輯覽)』의 기록은
장의가 연소왕을 만나는 것을 연소왕 원년으로 적고 있다. 장의가 연소왕에게
합종을 끊고 진을 섬기지 않는다면 “진은 군사를 윤중과 구원으로 내려 보내
조를 압박하여 연을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수장성(易水長城)
은 대왕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⁴⁰라고 『전국책』 「연책(燕策)」의 기사와 동일
한 내용을 전하는 『역대통감잡람』은 이 일을 주나라(周) 4년, 즉 연소왕 원
년의 일로 적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남 장성이 소왕 이전에 축조되기 시작하여 늦어도 소
왕 시기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거나,⁴¹ 소왕 즉위 이전 이미 완성된 것

38 『戰國策』, 「燕策一」, “張儀爲秦破從連橫, 謂燕王曰: …… 今趙王已入朝澠池, 效河
間以事秦. 大王不事秦, 秦下甲雲中·九原, 驅趙而攻燕, 則易水·長城非王之有也,
…….”

39 『史記』 「張儀列傳」에 따르면 장의가 연소왕에게 가서 유세하는 것은 제민왕(齊湣王)
을 만난 후였다. 따라서 장의가 연소왕을 만난 것은 아무리 빨라도 기원전 300년 이후,
즉 연소왕 12년 이후가 될 것이다.

40 『歷代通鑑輯覽』卷9, 「周赧王」, “(赧王 庚戌 四年) 張儀謂燕王曰, 趙已效河間, 大
王不事秦, 秦下甲雲中·九原驅趙攻燕, 則易水長城非王之有矣.”

41 鄭紹宗·鄭立新(2009), 「河北古代長城沿革考略(上)」, 『文物春秋』 3, 33쪽.

으로 본다.⁴² 이러한 추정에 힘을 더하는 것은 『수경주(水經注)』의 “『사기』에서 소진(蘇秦)이 ‘연(의 영역은) 장성 이북, 역수 이남’이라 하였다.”⁴³라는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기원전 317년 이전 이미 연에는 장성이 수축되어 있어야 한다.⁴⁴ 그러나 『수경주』에서 인용한 『사기』의 기사는 현행 『사기』에서는 찾을 수 없어, 그 기사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과연 연남 장성의 축조 시기는 언제 일까?

이 장성은 현재 하북성(河北省) 서부 태행산(太行山) 아래서 시작되어 역현(易縣)과 서수(徐水), 안신(安新)을 경유하여 동으로 문안현(文安縣)에 이르는 것으로 별 이견 없이 추정되고 있다.⁴⁵ 따라서 이 주향에 따른다면 연의 남장성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조와 제에 대한 방어선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국시기 최약소국이었던 연은 수시로 열국(列國)의 공격을 받았는데, 특히 제와의 전쟁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따라서 제에 대한 방어선이 가장 절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와 연 사이의 갈등은 전국시기 들어 기원전 380·378·373·354·314년 전쟁으로 표출된다. 이 중 기원전 380~기원전 373년에 있었던 세 차례 전쟁의 경우 시기적으로 아직 전쟁 방어선으로서 장성이 등장하기는 이르다. 그렇다면 기원전 354년, 기원전 314년 전쟁을 전후해서 장성이 수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우선 기원전 354년 전쟁을 살펴보자. 이 시기 제는 위왕(威王, 기원전 356~기원전 320년)의 재임 시기로 추기(鄒忌)를 비롯하여 손빈(孫臏), 순

42 馮永謙·何溥滢(1986), 『遼寧古長城』, 沈陽: 遼寧人民, 10쪽.

43 『水經注』, 「易水」, “『史記』蘇秦曰, 燕長城以北, 易水以南, ……”

44 소진이 사망하는 것이 기원전 317년이니, 연소왕이 즉위하기 6년 전이다. 소진이 연의 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면 연소왕 즉위 이전 연에는 장성이 수축되어 있어야 한다.

45 王國良(1931), 앞의 책, 23~25쪽; 馮永謙·何溥滢(1986), 위의 책, 10쪽; 白音查棟(1999), 앞의 글, 51쪽.

우곤(淳於髡) 등을 기용하여 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던 시기였다. 인재를 등용하여 이치(吏治)를 정돈하고,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기치 아래 경제 개혁과 군사 개혁을 진행하며 제는 위왕 시기 위(魏)가 접하고 있던 전국시기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⁴⁶

따라서 이 시기 제는 기원전 353년의 계릉전(桂陵戰)을 필두로 기원전 352년의 양릉전(襄陵戰), 기원전 342년의 마릉전(馬陵戰)을 통해 위를 약화시키며 기원전 334년, 즉 위왕 23년에는 서주(徐州, 지금의 산둥성 등현(滕縣) 부근)에서 위와 한(韓)을 비롯한 약소국들의 조회를 받게 된다. 요컨대 제의 위왕 시기는 위와의 대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전쟁은 억제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전 354년 연과의 전쟁은 연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전쟁은 아니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314년의 제와 연의 전쟁은 연에게 상당한 타격을 준 전쟁이다. 당시 연에서는 내란이 발발하였고, 이틈을 탄 제와 중산국이 연을 침공하여 연은 멸망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가까스로 연이 멸망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연의 능력만은 아니었다. 연의 존속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제를 견제하고자 한 제후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후 제와 더불어 이제(二帝)로서 전국시기 중기⁴⁷를 이끌게 되는 진은 연과 적극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으며 연을 지지하였다.⁴⁸ 이 어려움 속에서 즉위한 소왕은 현군(賢君)으로 평가받던 이

46 王闊森 主編(1992), 『齊國史』, 濟南: 山東人民, 376~378쪽 참조.

47 서중서(徐仲舒)에 따르면 전국시기는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기원전 475~기원전 370년-위강(魏強) 시기, ②기원전 369~기원전 334년-위제(魏齊) 쟁패(爭霸) 시기, ③기원전 333~기원전 288년-제진(齊秦) 칭제(稱帝) 시기, ④기원전 287~기원전 260년-제조(齊趙) 쇠약(衰弱) 시기, ⑤기원전 259년~진 통일 시기. 徐仲舒(1964), 『論《戰國策》的編寫及有關蘇秦諸問題』, 『歷史研究』 1, 139쪽.

48 배진영(2009), 앞의 책, 223~224쪽.

로 변법을 시행하여 연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다. 따라서 전쟁의 심각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현실적인 대응력 등을 생각하면 조와 제를 방어하기 위한 연남 장성의 축조 시기는 314년 이후로 봐야 할 것이다.⁴⁹

III. 연 장성의 위치와 주향

그런데 확실히 방어선으로서의 성격을 보이는 연남 장성과는 달리 연북 장성은 『사기』의 호를 막기 위해 쌓았다는 기술과는 달리 탈취한 동호의 고지(故地)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연북 장성의 위치와 주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⁵⁰

1. 기존 연구의 검토

연 장성과 관련하여 가장 복잡한 문제는 바로 연북 장성의 위치와 주향 문제다. 우선 연북 장성의 서단과 동단이 어디인가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사기』와 『위략』의 기사를 살펴보자.

[1] 연 역시 장성을 축조하였는데, 조양에서부터 양평에 이르렀다. 상곡·

49 연남 장성의 상한을 연이 처음으로 왕호(王號)를 사용한 기원전 332년[역왕(易王) 원년]으로 보고 있는 서호생(徐浩生)은 연남 장성의 역할을 연하도(燕下都)의 방비로 보았다. 徐浩生(1992), 「燕國南長城的調查及其建築年代考」, 『京華舊事存眞』, 北京: 古籍出版, 74쪽.

50 이 절의 내용은 제시된 논문의 분석과 더불어 홍승현(2012), 앞의 글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을 설치하여 흉노를 막았다.

[2] 연이 이에 장수 진개를 보내 그 서방을 공격하여 땅 2천여 리를 취하고,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로 삼으니 조선이 점차로 약해졌다. 진이 천하를 병합한 후 몽恬(蒙恬)을 보내 장성을 쌓게 하였는데, 요동에 이르렀다.⁵¹

[3] 처음 연의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었으며 장새를 쌓았다. 진이 연을 멸망시키고, 요동외요(遼東外徼)에 속하게 하였다.

‘거호(拒胡)’하기 위해 쌓았다는 연북 장성은 기사 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양에서 양평까지’로 그 위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현재 이 두 지역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 우선 조양을 살펴보면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회래(懷來),⁵² 하북성 장가구(張家口) 동북,⁵³ 상곡의 북쪽 경계 즉 지금의 하북성 선화(宣化)의 북쪽 독석구(獨石口)에서 내몽고 정난기(正蘭旗) 난하(灤河) 일대,⁵⁴ 장가구와 선화 일대⁵⁵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양평에 대해서는 그 주향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⁵⁶ 대체로 요녕성(遼寧省) 요양(遼

51 『三國志·魏書』 卷30, 「東夷 韓傳」 引 『魏略』,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52 劉金柱(1985), 『萬里長城』,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7쪽.

53 羅哲文(1982), 『長城』, 北京: 文物, 20쪽.

54 李文信(1979), 앞의 글, 『社會科學輯刊』 1, 150쪽; 李殿福(1982), 「東北境內燕秦長城考」, 『黑龍江文物叢刊』 1, 60~61쪽; 馮永謙·何溥滢(1986), 앞의 책, 24~25쪽; 王育民(1988), 앞의 책, 426쪽; 閻忠(1995b),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2, 184~185쪽.

55 王灰(1976), 『中國歷史地理 上冊-歷代疆域形勢』, 臺北: 學生書局, 157쪽.

56 유금주(劉金柱)는 연북 장성의 주향을 조양(현 하북성 회래현) → 난하 → 요하(遼河) → 양평(현 요녕성)에 이르는 천여 리로 파악하였고, 나철문은 하북성 장가구 동북 → 내몽고 다룬(多倫)과 하북성 독석구 경계 → 하북성 위장현(圍場縣)·요녕성 조양(朝陽)

陽)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연북 장성의 기사 2, 3을 보면 연북 장성은 양평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새로 연결되어 만변한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만변한이 어디일까? 이에 대해 김한규는 만변한을 천산산맥(千山山脈) 부근으로 이해하였다.⁵⁷ 그러나 중국 측 연구자 중에는 만변한을 청천강(淸川江)으로 이해하여 장새가 압록강을 넘어 한반도 서북부 지역까지 축조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⁵⁸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현재 학자들이 주장하는 연북 장성의 노선을 확인해보자. 현재 중국 학계의 가장 유력한 연북 장성의 노선은 북쪽 독석구에서 내몽고 정란기 난하 일대 → 위장(圍場) → 적봉(赤峰) → 건평(建平) → 오한기(敖漢旗) → 북표(北票) → 부신(阜新) → 창무(彰武) → 법고(法庫) → 개원(開原) → 신빈(新賓) → 관전(寬甸) → 압록강(鴨綠江) → [청천강(靑川江) → 용강(龍岡)]이라는 노선이다. 처음에 연북 장성의 동단은 중국과 일본 학계 모두에 의해 요동 양평 즉 요양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다 1976년 왕희(王恢)에 의해 독석구 → 위장 → 적봉 → 오한기 → 부신 → 개원 → 봉성(鳳城) → 압록강 → 안주(安州) → 대동강(大同江) → 평양(平壤)이라는 주장이 주장되었고,⁵⁹ 뒤이어 1979년 이문신은 독석구 난하 일대 → 위장 → 적봉 → 오한기 → 나만(奈曼) → 고륜(庫倫) → 부신 → 창무 → 법고 → 개원 → 신빈 → 관전 → 압록

→ 의무려산(醫巫閭山) → 요하 → 요양(遼陽)의 2천4백여 리로 추정하였다. 이의 육사현(陸思賢)은 연북 장성이 난하를 건너 하북성 위장현을거쳐 내몽고 소오달맹(昭烏達盟) 남부를 지나 요녕성으로 들어간 후 요하 평원 북부를 돌아 요양 이동 양평에 이르는 것으로보았다. 차례대로 劉金柱(1985), 앞의 책, 7쪽; 羅哲文(1982), 앞의 책, 20쪽; 陸思賢(1986), 『長城話古』, 呼和浩特市: 內蒙古人民, 30~31쪽.

57 김한규(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79쪽.

58 譚其驤(1991), 『中國歷史地圖集 元始社會·夏·商·西周·春秋·戰國時期』, 香港: 三聯, 지도 41-42.

59 王恢(1976), 앞의 책, 173쪽.

강이라는 주향을 주장하였다.⁶⁰ 1982년에 이진복(李殿福)은 여기에 더해 압록강을 넘어 수성현(遂城縣) 즉, 평안남도 용강까지 이르는 주향을 주장하였다.⁶¹

그렇다면 이 주향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발굴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고 발굴에 의해 확인된 장성 유적은 문헌 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문헌과는 달리 비교적 분명하게 장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요서다. 장성의 동단을 한반도에서 찾고 있는 연구자들 대부분도 유적에 의한 장성의 확인은 요서까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⁶² 따라서 초기 장성의 동단을 찾는 연구는 문헌의 기록에 따르거나, 고고 자료를 이용한다 해도 지역적으로 요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⁶³

이렇게 확정된 연 장성의 주향은 그 뒤로도 한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러다 1979년 중국 국가문화사업관리국(國家文物事業管理局) 주재로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호화호특(呼和浩特市)에서 장성보호연구공작(長城保護研究工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장성 전문가와 문물고고공작대(文物考古工作隊)들이 장성 유지를 조사하여 최신의 고고학 성과를 종합하였고, 2년 후 출간된 연구 보고서 『중국장성유적조사보고집(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은 장성 연구의 일종의 지침이 되었다.⁶⁴ 그 중 항춘송(項春松)의 「소오달맹연진장성유지조사보고

60李文信(1979), 앞의 글, 150쪽.

61李殿福(1982), 앞의 글, 62쪽.

62장성의 동단을 평안남도 용강에서 찾는 이진복도 나만·고륜 이후의 주향에 대해서는 장성의 유지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발견된 연의 도예(刀幣), 철기공구 및 진과(秦戈) 등의 유물을 근거로 확정하였다. 李殿福(1982), 위의 글, 61~62쪽.

63李文信(1979), 「中國北部長城沿革考下」, 『社會科學輯刊』 2, 130쪽.

64여기에는 전국시기 장성부터 명 장성까지 고대 장성에 관한 총 14편의 논문이 실렸다. 14편의 글은 다음과 같다. 項春松, 「昭烏達盟秦長城遺址調查報告」; 蓋山林·陸思賢, 「陰山南麓的趙長城」; 蓋山林·陸思賢, 「潮格旗朝魯庫倫漢代石城及其附近的長城」; 鄭紹宗, 「河北省戰國·秦·漢時期古長城和城障遺址」; 布尼阿林, 「河北省圍場縣燕秦長城調查報告」; 寧夏自治區博物館, 「固原縣文物工作站, 寧夏境內戰國秦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는 연진 장성의 주향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항춘송은 1965년과 1975년 두 차례의 고고 조사를 통해 요하(遼河) 상류 소오달맹지역에서 장성선 세 개를 발견한다. 그것들은 각각 적북(赤北) 장성, 적남(赤南) 장성, 노호산(老虎山) 장성으로 불리는데, 적북 장성과 적남 장성의 경우 동으로 주향이 나있다. 두 장성은 적봉시 북쪽과 남쪽을 지난다 하여 각각 적북 장성과 적남 장성으로 불리는데, 항춘송은 그 중 적남 장성을 연북 장성으로 추정하였다. 적남 장성은 적봉시 남쪽에서 동서로 뻗어 있는데, 진 장성으로 추정되는 적북 장성과 평행으로 축조되었다. 대략적인 장성의 분포 지역은 객라심기(喀喇沁旗), 적봉현 남쪽 경계, 건평현 북쪽 경계, 오한기 중부 등이다. 그가 추정한 주향은 객라심기 누자점공사(婁子店公社) → 산전공사(山前公社) → 적봉현 미려하공사(美麗河公社) → 건평현 외무장(外貿場) → 노관지공사(老官地公社) → 열수공사(熱水公社) → 소과영자공사(燒鍋營子公社) → 이십가지공사(二十家子公社) → 오한기 신혜진공사(新惠鎮公社 → 신지공사(新地公社) → 도격량풍수공사(倒格郎豐收公社) → 극력대공사(克力代公社) → 패자부공사(貝子府公社) → 왕가영자공사(王家營子公社)다.

적남 장성의 서단은 객라심기 강가만자촌(姜家灣子村)의 하투(河套) 즉 오르도스 지역 부근으로 추정되는데, 항춘송은 이곳에서 장성이 하북성(河北省) 위장현 경내로 들어간다고 보았다. 동단은 오한기 왕가영자와 보국토(寶國吐) 일대

漢長城遺迹」; 史念海, 「黃河中流戰國及秦時諸長城遺迹的探索」; 史念海, 「鄂爾多斯高原東部戰國時期秦長城遺迹探索記」; 賈洲傑, 「金代的長城」; 龐志國, 「金東北路臨潢路吉林省段界壕邊堡調查」; 羅哲文, 「山海關關城的布局與建築勘查記」; 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古建隊, 「山西省境內長城簡記」; 嘉峪關市文物管理所, 「嘉峪關及其附近的長城」; 高鳳山, 「一塊珍貴的“長城工牌”」.

로 추정되었다. 왕가영자와 보국도의 남부는 북표현과 경계 지역인데, 이 일대에서는 장성의 정확한 주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북표현 남산(南山)에서 끊어졌던 장성의 유적을 발견하여 왕가영자와 보국도 일대를 빠져나온 장성이 북표현 경내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⁶⁵

이상과 같이 항춘송의 연북 장성 주향과 동단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장성 유적의 발견은 북표에 그치고 있어, 고고 자료를 통해 연의 장성이 한반도에 미친 것은 고사하고 요서를 넘어 요동까지 설치된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북표 이후의 장성 노선, 즉 요동의 장성선은 방증에 의해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고 1990년대까지 지속되어, 1994년 장성국제학술회에서 발표된 일련의 연구들은 모두 연 장성의 동단을 북표와 부신 경계에서 찾았다.

대표적으로 진가외(陳可畏)는 연북 장성의 서쪽 기점인 조양을 현재 허북성 강보현(康保縣)과 내몽고 태복사기(太僕寺旗) 일대에서 찾았고, 이후의 주향은 내몽고 흥화현(興和縣) 북부 → 장북현(張北縣) 남쪽 → 장가구시 북쪽 → 선화현과 적봉현 경계로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후 장성은 적봉현의 서변을 따라 동북쪽으로 진행하여 위장현 북쪽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연 장성의 남쪽 지선이라고 표현하여, 연북 장성의 또 다른 지선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다른 선은 용화현(隆化縣) 서북 삼도영(三道營) → 난하 동남부 → 용화현 남쪽 → 칠노도산(七老圖山) → 내몽고 적봉시 곤도하(坤都河) → 오한기 서남쪽이라는 주향을 갖는다. 이 장성은 오한기에서 자취가 사라지는데, 그에 따르면 오한기 동북쪽에서 나만기와 고륜기를 지나 창무현에

65 項春松(1981), 앞의 글, 8쪽.

서 그치는 장성선은 연 장성이 아닌 통일 진 장성이다.⁶⁶

조화성(趙化成)의 연구도 이와 큰 차이가 없다. 조화성은 하북성 북부, 내몽고 소오달맹, 요녕성 서부 지역에서 진행된 장성 발굴 조사를 기초로 이 지역에 3개의 장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최북단에 진 장성이 위치하고 있고, 최남단에는 한 장성이 위치하고 가운데 연북 장성이 위치한다. 그가 추정된 연북 장성의 주향은 내몽고 소오달맹 객라심기 강기만지촌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진행하여 적봉시 남부를 지나 노합하를 건너 건평현 북부로 들어가고 다시 오향기 중부까지 연장되어 북표현 최북단을 경유하여 부신현으로 들어간다.⁶⁷ 조화성 역시 진가와 같이 연북 장성의 동단을 북표현 이상, 즉 요서 이상으로 연장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구연(甌燕) 역시 고고 자료를 이용하여 연 장성의 주향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연 장성은 하북성 장가구 지구의 독석구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고원(沽原), 위장, 객라심기, 적봉시 남부, 건평현 북부, 오향기, 북표를 경유하여 부신에 이른다. 그 역시도 북표 이후의 주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는 북표 이후에서 어떠한 봉수(烽燧)와 성장(城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토로하였다.⁶⁸ 따라서 1994년까지 고고 자료를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는 연진 장성의 동단을 요서 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풍영겸과 하부영(何溥瀾)은 두 갈래의 연진 장성 중 내선의 경우 부신이, 외선은 북표가 동단이라 추정하면서 부신으로 들어간 외

66 陳可畏(1995), 「論戰國時期秦·趙·燕北部長城」,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101~102쪽.

67 趙化成(1995), 「中國早期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240쪽.

68 甌燕(1995), 「我國長城的考古發現與研究」,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255쪽.

선 장성의 경우 분명하지 않지만, 최근에 행해진 고고 조사에 의해 요북과 요동 지역에 일련의 연 유적이 발견되어 북표 이동으로 장성선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든 것은 철령성(鐵嶺城) 남쪽 50리 떨어진 신대자진(新臺子鎭)에서 발견된 유지로, 두 연구자는 이를 연·진·한 시기의 성지로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장성의 주향을 동으로 연장하였다. 그렇게 연장된 장성은 청원(淸原), 신빈, 환인(桓仁)을 지나 관전에 도달한다고 추정되었다. 장성선 연장의 근거로는 환인 아하향(雅河鄉) 망강루(望江樓)에서 출토된 전국시대의 농기구와 철도끼 등의 유물과 관전 쌍산자(雙山子)·태평초(太平哨)·하로하(下露河) 등에서 발견된 명도전(明刀錢)과 농기구 등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두 연구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장성이 이후 동남으로 연장되어 압록강까지 연결된다고 보았다.⁶⁹

염충(閔忠)은 고고 자료를 이용하여 이상과 같이 연장된 풍영검과 허부영의 장성 주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하고자 하였다. 그는 연북 장성의 주향이 남북 두 갈래 즉 내선 장성과 외선 장성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풍영검의 설을 계승하였다.⁷⁰ 염충이 주장하는 내선 장성의 주향은 다음과 같다. 그는 우선 연 장성의 서단인 조양을 하북성 독석구와 난하 일대로 추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장성은 독석구 북쪽 난하의 남쪽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풍녕현(豊寧縣) 북쪽을 지나 위장현으로 진입한 후 위장현을 돌아 적봉시 남부를 지난다. 적봉

69 馮永謙·何溥濤(1986), 앞의 책, 25쪽.

70 풍영검은 연북 장성의 두 갈래 중 북쪽의 것을 외선 장성, 남쪽의 것을 내선 장성이라 하였다. 그중 외선 장성은 적봉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적북 장성이라 하였고, 내선 장성은 적봉시 남쪽을 통과한다고 하여 적남 장성이라 하였다. 馮永謙·何溥濤(1986), 위의 책, 14쪽. 그러나 처음 적북(남) 장성이란 용어를 사용한 항춘송은 적남 장성이 연북 장성이라고 보았고, 적북 장성은 진 통일 후 건설된 진 장성이라고 보아 풍영검과는 다른 견해를 제출하였다. 項春松(1981), 앞의 글, 18쪽.

시 남부를 지난 장성은 노합하를 건너 건평현 북부와 오한기 남부 사이를 지나 요녕성으로 들어간다. 요녕성으로 들어간 장성은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과 같이 북표현으로 들어간다. 이 주향은 항춘송에 의해 처음 보고된 것인데, 항춘송은 장성선을 북표 이상으로 확장하지는 못하였다.⁷¹ 고고 자료로서는 북표까지만 장성의 명확한 흔적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충은 장성이 부신의 북쪽을 지나 요하를 건너 요양시 노성(老城) 북쪽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⁷²

그러나 연구자 자신도 인정하듯이 이 주향은 대부분 추정에 불과하다. 부신 경내로 들어가 불분명한 장성선을 확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역시 부신 경내로 들어간 장성선은 불분명하다고 고백하였다. 하지만 불분명한 장성의 주향이 압록강을 건너 대령강(大寧江)에 이르면 다시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근거로 1980년대 북한에서 확인된 장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잠시 살펴보자.

1984년 조선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와 역사연구소, 문화보존연구소는 대령강과 그 지류인 창성강(昌城江) 동안(東岸)에서 고대 장성 유지를 발견하였다. 이 장성 유지는 평안북도 박천군 중남리로부터 시작하여 같은 군 원남리를 지나 영변군 고성리를 경유하여 태천군 용흥리 → 학당리 → 덕화리 → 풍립리 → 양지리(이상 태천군) → 동창군 학복리 → 학승리 → 봉용리 → 학성리 → 신안리(이상 동창군)로 이어지는 300여 리(약 120km)의 길이로 보고되었다.⁷³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 대령강을 자연 해자(核字)로 삼아 길게 뻗은 이 장성은 주로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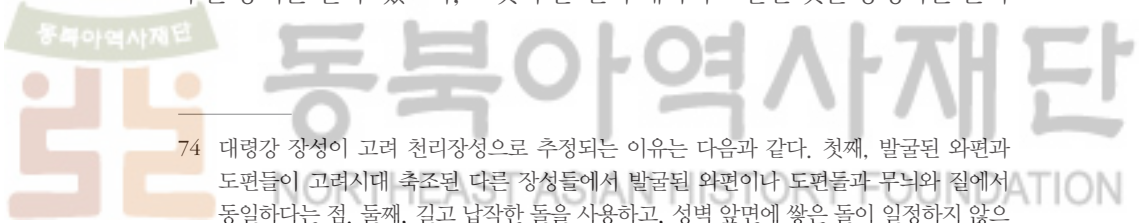
71 項春松(1981), 위의 글, 8쪽.

72 閻忠(1995a), 앞의 글, 182쪽.

73 손영중(1987), 「대령강반의 옛장성에 대하여」, 『역사연구』 122, 24~25쪽.

과 흙을 섞어 쌓아 만든 것으로 축조 방식과 출토된 와편(瓦片)들과 도편(陶片)들의 무늬나 질을 통해 고려 천리장성(千里長城)으로 추정되었다.⁷⁴

염충은 이것을 연북 장성의 동단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는 만번한까지 연의 장성이 이어졌다는 문헌 사료와 대령강 유지에서 발견된 고와편(古瓦片)과 고자기편(古瓷器片)들을 연북 장선 연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령강 유지에서 발견된 회청색·연홍색·적색·흑회색의 자기편과 적목엽문(赤木葉紋)·포면문(布面紋)·파랑문(波浪紋)·직선문(直線紋)이 새겨진 와편은 모두 전국시기 연 유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연의 유물이 대량 발견된 이 장성 유지를 연의 장성 유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⁵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연 유물이 발견된다는 것이 그 지역에 연 문화가 전파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연의 세력이 도달한 것을 증명하는 근거



74 대령강 장성이 고려 천리장성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굴된 와편과 도편들이 고려시대 축조된 다른 장성들에서 발굴된 와편이나 도편들과 무늬와 질에서 동일하다는 점. 둘째, 길고 납작한 돌을 사용하고, 성벽 앞면에 쌓은 돌이 일정하지 않으며 성벽 밑에 큰 돌을 사용한 축조 방식이 다른 고려의 장성과 동일한 점. 셋째, 장성 부근 읍성이 연결된 지점마다 진성이나 보성을 쌓은 것. 손영중은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이 고려시기 천리장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았다. 孫永鍾(1987), 「대령강장성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2, 44~45쪽.

75 閔忠(1995a), 앞의 글, 183~184쪽. 염충 이외에도 대령강 유역에서 발견된 장성 유지를 연북 장성의 그것으로 추정한 연구자로는 풍영겸이 있다. 그는 대령강 장성의 주향이 연북 장성의 주향과 일치하고, 축성 방법과 구조가 연북 장성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대령강 장성을 연북 장성의 일부로 파악하였다. 이에 더하여 정군뢰(鄭君雷)는 대령강 장성이 문헌에서 말하는 연 장성의 동단 즉 변계(邊界)라고 주장하였으며, 대령강 장성 외측을 연에 의해 점유되었던 연의 기미(靑麩) 지역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자민(劉子敏)은 대령강 장성이 『사기』 「조선열전(朝鮮列傳)」에 등장하는 위만(衛滿)이 넘었던 새(塞)라고 해석하고, 대령강 장성을 기록에 나온 '요동고새(遼東古塞)'라고 해석하였다. 馮永謙(1991), 「東北古代長城考辨」, 『東北亞歷史與文化』, 沈陽: 遼沈書社, 26쪽; 鄭君雷(1997), 「大寧江長城的相關問題」, 『史學集刊』 1, 70쪽; 劉子敏(1996),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 5, 133쪽.

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⁷⁶

부신 경내로 들어갔다고 주장되는 장성의 주향은 이후 손걸(孫傑)에 의해 확인된다. 1980년과 1986~1987년 두 차례에 걸쳐 부신의 장성과 창무의 장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내선 장성의 주향을 추정하였다. 그는 현장 조사에서 부신현 이색대대촌(二色大隊村) 서북 4km 지점 망우하(牾牛河) 동안 황토 사구(沙丘) 지역에서 북표시로부터 뱀처럼 이어진, 지역민들이 ‘토룡(土龍)’으로 부르는 토도(土道)를 발견하였다. 이 토도는 곧 연북 장성의 일부로 추정되었고, 손걸에 의해 토도는 악차구(岳叉溝)와 호두구(胡頭溝) 사이를 지나 사가자남산(四家子南山)을 경유하여 계관산(鷄冠山) 남쪽 기슭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곧 주향이 불분명해지기에 손걸은 토도를 통한 주향 확인을 포기하고, 대신 부신시에 산재되어 있는 대(臺), 장(障), 성보(城堡) 등의 장성 시설물의 분포를 가지고 주향을 추정하게 된다. 발견된 성지(城址)는 하신구남산성지(下新丘南山城址), 사가자남산성지, 화자산성지(靴子山城址), 쌍정자성지(雙井子城址), 고가둔성지(高家屯城址), 관재산성지(關才山城址), 서이룡산성지(西二龍山城址), 후와보성지(後窩堡城址), 대해서마권자성지(代海西馬圈子城址), 남사리성지(南沙利城址), 사금소남량성지(沙金小南梁城址), 사금성지(沙金城址), 후사대성지(後查臺城址), 대해사합성지(代海四合城址), 소사가성지(小四家城址) 등이다. 손걸에 의하면 이들 성지는 모두 일직선상에 위치하여 창무현 경내로 이어진다.⁷⁷ 그러나 손걸이 장성 시설물이라고 주장한 이곳 유지에서는 전국시기의 통와(筒瓦), 판와(板瓦), 수면와당(獸面瓦當), 도정(陶鼎), 두(豆), 호(壺), 관(罐) 등만이 출토되어, 이

76 佟柱臣(1956), 「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的東北疆域」, 『考古學報』 1, 39쪽. 설사 이러한 현상을 연의 세력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해도 그것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77 孫傑(1997), 「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 『遼海文物學刊』 2, 37쪽.

유지들이 명확히 장성의 유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이곳이 장성의 시설물이라면 최소한 변경 방어선의 최말단을 구성하던 봉수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봉수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이것을 가지고 장성의 주향을 연장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무현 경내로 들어갔다는 장성의 주향에 대해서도 확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손걸은 창무현 경내로 들어간 장성이 사보자향(四堡子鄉)에서 흥륭구(興隆溝)와 오가점(吳家店)·호외둔(壕外屯)·석문자(石門子)를 경유하여 동남쪽으로 방향을 꺾어 만당홍향(滿堂紅鄉)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십가자(十家子)·사가(沙家)를 경유하여 행산(杏山)·왕가(王家)·어가(於家)·후가(侯家)·후공가(後孔家)·언가(鄢家)·소산둔(小山屯)·소왕가(小王家)·서왕가(西王家)·동왕가둔(東王家屯)을 지나 오가자(五家子)·임가(任家)·호외둔을 거쳐 남으로 연장되어 소관가(小關家)·소양가점(小楊家店)을 지나서 창무현 경내를 빠져나간다고 하였다.⁷⁸ 그러나 이 역시 증거가 없어 장성의 주향을 확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⁷⁹ 한편 손걸은 내선 장성과 외선 장성이 부신의 동북 끝에서 만나 하나의 선으로 합쳐진 후 창무현으로 들어간다고 보았다. 그렇게 창무현으로 들어간 장성선은 신민(新民) → 법고 → 개원 → 철령(鐵嶺)을 지나 요하를 넘은 후 동쪽으로 청원과 신빈을 지나 압록강을 넘어 갈석산(竭石山)에 이르게 된다. 손걸은 연북 장성의 동단을 한반도 서북부에서 찾은 것이다.

78 孫傑(1997), 앞의 글, 37쪽.

79 손걸이 창무현으로 들어간 장성의 주향을 확정하기 위해 제시한 증거는 지역에서 발견된 토도인데, 당해 지역 주민이 이 토도를 ‘토룡’ 또는 ‘석룡(石龍)’, ‘변장(邊牆)’이라고 부르는 것이 장성 확정의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손걸은 그 주변에서 명도전이 발견된 것을 장성 유지의 근거로 들지만 명도전을 결정적인 장성의 근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2. 장성 개념의 변화와 연 장성의 분포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연북 장성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은 변화된 장성관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장성이라 하면 연속된 벽을 연상한다. 연구자들 안에서 조차 문헌에서 장성이라고 규정한 벽에 한에서만 장성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⁸⁰ 이들은 장성과 장새를 분리하고, 장새의 경우 장성과는 별도의 것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장성을 연속된 벽이 아니라 요새나 초소와 같은 거점의 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역시 생겨났다. 팽희(彭曦)는 장성 개념의 범주를 확정할 필요를 역설하며, 장성은 벽인 성(障), 봉(臺), 장(臺)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불가결한 장성의 구성 요소라고 하였다.⁸¹ 이후 이 입장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수용되었다.⁸²

그 결과 연속된 벽을 비롯하여 모든 요새를 장성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극적으로 2005년 말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 2005~2014)’이 시작

80 진가위는 연 장성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이 그 동단을 북한의 중부 지역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문헌상 장성의 동단은 양평현(襄平縣)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문헌 기록에 어디에도 조선과 진번 경내에 장성을 축조했다는 기사가 없음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문헌에는 그저 새와 장을 축조했다는 기사가 나올 뿐이다. 陳可畏(1995), 앞의 글, 102쪽. 장성을 연속된 벽으로만 이해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경애(景愛)를 들 수 있다. 그는 2006년 출판한 『中國長城史』, 上海: 上海人民, 26쪽의 ‘長城의 定義에 관하여(關於長城的定義)’에서 장성을 ‘흙[土]·돌[石]·벽돌[磚]을 쌓아 구축한 연속된 벽’이라 규정하였다. 이후에도 그는 동일한 주장을 발표하였다. 景愛(2010), 「長城的內涵及其相關問題」, 『東北史地』 6, 21쪽.

81 팽희의 주장에 의하면 이 문제는 이미 1988년 발표된 「從文化區系關係看長城的歷史」, 『慶陽師專學報』 1에서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글은 구해 보지 못하였다. 彭曦(1995), 「十年來考察與研究長城的主要發現與思考」,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277쪽.

82 염충은 장새(障塞), 새(塞)가 모두 장성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았다. 閻忠(1995a), 앞의 글, 184쪽.

되면서 장성에 대한 규정은 종래의 벽, 즉 선에서 점으로 변화하였다. 프로젝트의 주관 부서인 중국 국가문물국(國家文物國)과 중국 국가측회국(國家測繪局)에서 2007년에 발표한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長城資源調查工作總體方案)」에 규정된 장성의 구성을 살펴보자.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표 2>를 작성해 보았다.

사실상 군사 시설 전체를 장성이라고 보고 있는 이 규정은 『장성자원조사공작수책(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에 수록되어 있는 관련 법규인 <장성보호조례(長城保護條例)>의 규정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게 장성을 규정하고 있다. <장성보호조례> 2조에는 장성을 “장성의 장체(牆體, 성벽), 성보(城堡), 관애(關隘), 봉화대(烽火臺), 적루(敵樓) 등을 포괄한다”⁸³고 규정하여, 담장 및 그 부속 시설로 장성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에서는 ‘관련 유지’라는 항목이 부과되어, 특정 군사 시설을 장성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 놓았다. 물론 사료에도 장성이 길게 연결된 장벽 뿐 아니라 방어용 토담이나 홍벽과 같은 장애물이나 성채 또는 요새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⁸⁴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성벽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방어 시설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혹 관련 유적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장성의 존재를 추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⁸⁵

뿐만 아니라 성벽의 경우도 토장(土牆), 석장(石牆), 전장(甄牆) 뿐 아니라, 산험장(山險牆), 산험(山險), 목장장(木障牆), 호참(壕塹) 등으로 구별하고, 다시 그것

83 中國國家文物國·中國國家測繪局(2007), 앞의 글, 3쪽, “本條例所稱長城, 包括長城的牆體·城堡·關隘·烽火臺·敵樓等”

84 홍승현(2012), 앞의 글, 347쪽.

85 장성은 이제 방어물 전체를 이르는 용어가 되었고, 중국 학계에서는 이를 종종 ‘완정적 종합성군사방어체계(完整的綜合性軍事防禦體系)’라고 부른다. 梁建宏(2010), 「甘肅境內長城保護工作回眸」, 『絲綢之路』 6, 37쪽.

〈표 2〉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에서 규정한 장성 구성

분류	내용	소분류	내용	참조
장성 본체	성벽 및 성벽 상의 시설	적대 (敵臺)	적루(敵樓), 둔대(墩臺). 성벽 위에 돌출된 높은 대	
		마면 (馬面)	성타(城墩), 장대(牆臺), 장 타(牆墩). 성벽 외측에 붙어 있는 것으로, 성벽과 같은 높 이의 대	모양이 말의 얼굴처럼 길다 해서 붙여진 이 름. 장방형 또는 반원형으로 주로 성벽에 부 속되어 축조. 위에서 아래의 적을 공격하는 용도
부속 시설	장성과 함께 방어 체계를 이루는 관련 시설	관보 (關堡)	성 또는 성 주변에 축조한 둔 병지	관: 일반적으로 성벽을 의지하여 세워져 구 (口)라고도 불림 보: 장성 방어 체계의 중요한 구성성분. 성장 (城障), 장성(障城), 진성(鎭城), 장새(障塞), 성보(城堡), 채(寨), 수보(戍堡), 변보(邊堡), 군보(軍堡), 둔보(屯堡), 민보(民堡)로도 불림
		봉화대 (烽火臺)	장성선을 따라 연기로 중요 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지어 진 높은 대	장성 방어 체계의 중요한 구성 성분. 봉수(烽 燧), 둔대(墩臺), 봉후(烽墩), 낭연대(狼煙臺), 낭연둔(狼煙墩) 등으로도 불림
관련 유지	성벽 양측 으로 장성 방어 체계와 관련 있는 유적	호구 (濠溝)	적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판 깊은 도랑	
		당마장 (擋馬牆)	장성 성벽 밖에 성벽 또는 해 자와 평행으로 쌓은 성벽.	일반적으로 성 밖으로 십 보 떨어진 해자 안 에 쌓은 성벽. 양마월(羊馬垣), 부장(副牆), 소장성(小長城)으로도 불림
		품자교 (品字街)	성벽 밖에 방어용으로 파 놓은 함정	품자(品字) 형태로 분포. 함마갱(陷馬坑)으로 도 불림
		역참 (驛站)	문서 전달 장소, 왕래하는 병 사들이 도중에 묶는 숙소, 보 급 및 환마(換馬)의 장소	체포(遞鋪), 역관(驛館), 역체(驛遞) 등으로도 불림
		창저 (倉儲)	양식과 사료를 쌓아두는 장소	양창(糧倉)으로도 불림
		거주지	장성선을 따라 분포한 군민 거주 유지	
		전와교 (磚瓦窖)	장성을 축조할 때 사용된 전와를 굽던 유지	
		채석장	장성을 축조할 때 소용되는 석재를 채취하던 유지	
적신(積薪)		땀감을 쌓아두었던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		

을 방법에 따라 세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장의 경우 다시 향축(尙築), 퇴토(堆土), 홍류로위가사(紅柳蘆葦加沙), 토배루체(土壞壘砌)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에서 규정한 장성 성벽 분류

(1) 토장: 축성 시 성벽 외관을 주로 흙으로 쌓은 성벽

- ① 향축: 흙을 다져 세운 성벽
- ② 퇴토: 흙을 쌓아 세운 성벽
- ③ 홍류로위가사: 위성류와 갈대 등의 식물을 진흙 모래와 섞어 쌓아 올린 성벽
- ④ 토배루체: 굽지 않은 흙벽돌을 쌓아 올린 성벽

(2) 석장: 축성 시 성벽 외관을 주로 돌로 쌓은 성벽

- ① 모석간루(毛石鞞壘): 흙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큰 돌을 사용하여 쌓아 올린 벽
- ② 토석혼축(土石混築): 흙과 돌을 혼합하여 쌓은 벽
- ③ 체축(砌築): 가늘고 긴 돌이나 가공한 돌을 이용하여 쌓은 벽

(3) 전장: 축성 시 성벽 외관을 주로 벽돌로 쌓은 성벽

- ① 포토(包土): 벽의 내부를 흙을 다져 만들고, 외부를 내화(耐火) 벽돌로 싸서 쌓은 벽
- ② 포석(包石): 벽의 내부를 흙과 잘게 부순 돌로 만들고, 외부를 내화 벽돌로 싸서 쌓은 벽
- ③ 전석혼체(甃石混砌): 가늘고 긴 돌로 기초를 놓고, 가늘고 긴 돌과 가공한 돌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은 후 윗면을 다시 내화 벽돌로 쌓아 성벽의 상층을 구성한 벽

(4) 산험장: 지세가 험한 곳에 사람이 가공하여 장애물을 만든 것

예) 산을 깎아 만든 산삭장(鎗削牆), 산을 갈라 만든 벽산장(劈山牆)

(5) 산험: 지세가 험한 요해처(要害處)에서 성벽과 함께 방어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산, 하류, 계곡과 같은 자연물

(6) 목장장: 목제 울타리를 이용하여 제작한 벽

(7) 호참·계호(界壕): 벽과 참호(塹壕)로 조합된 방어체. 한대(漢代)의 호참,

금대(金代)의 계호

장성을 지금까지 흙[土], 돌[石], 벽돌[磚]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류하던 것과는 달리 산험장, 산험, 목장장, 호참이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그 중 산험(수험(水險) 포함)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적을 막는 것이어서 인공적인 장벽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⁸⁶ 또한 호참이나 계호의 경우도 참호를 의미하기에 종래 장성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한대의 호참은 기존 연구에서 장성이 아닌 참호로 규정되었던 것들이다.⁸⁷ 말할 것도 없이 금대 계호 역시 호참과 같은 참호로 분류되던 것들이다.

목장장은 목제 울타리를 이용하여 수축한 장벽을 말한다.⁸⁸ 지금까지 중국

86 『全遼志』 卷2, 「邊防志·障塞」에서는 산험에 대하여 “산험무장(山險無牆)”, “험산무장(險山無牆)”이라고 하여, 장성과는 다른 범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에는 장성은 인공 건축물이어야 하기에 산험이나 산험장은 장성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景愛(2010), 앞의 글, 23쪽. 판창독수(阪倉篤秀) 역시 장성이 반드시 인공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하안(河岸)에 인력을 가해 낙차가 생기도록 깎아낸 진(秦)의 참락(塹洛) 장성은 장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阪倉篤秀(2004), 『長城의中國史-中華vs遊牧六千キロの攻防』, 東京: 講談社, 40~41쪽.

87 吳祁驤(1990), 「河西漢塞」, 『文物』 12, 51~53쪽.

88 中國國家文物局·中國國家測繪局(2007), 「長城資源調查名稱使用規範」,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42쪽.

학계의 일반적인 규정은 목책을 장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장성을 흙·돌·벽돌을 쌓아 만든 연속된 군사 방어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중국 학자로는 경애(景愛)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애의 견해를 기초로 목책으로 경계를 세운 요동변장(遼東邊牆)의 경우 장성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⁸⁹ 그러나 중국 정부의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목책 역시 장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장성 규정이 올바른 것인지를 상론하는 것은 이 글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 인식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장성은 연속된 선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고대 중국의 장성은 많은 경우 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⁹⁰ 주로 교통이나 전투의 요충지에 최대한 자연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해당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했으며 지형에 적합한 방식을 취하였다.⁹¹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에서 규정한 장성의 요소들 중 설득력을

89 남의현(2012), 「만리장성 동쪽 기점, 山海關인가, 鴨綠江인가」, 『중국의 역대 長城 발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 동북아역사재단, 13쪽. 남의현은 요동 변장은 벽돌로 축조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성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요동 변장은 강과 산 등 자연적인 험세를 주로 이용하면서 적이 들어올 만한 중요한 길목과 거점에 작은 규모의 성(城)인 보(堡)를 설치하고 그곳에 소수의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남의현(2011),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 변경지대 성격 연구-변경지대의 변화를 통해 본 만리장성 동단기점설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34를 참조.

90 『史記』 卷110, 「匈奴列傳」, “於是漢遂取河南地, 築朔方, 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 因河爲固”; 『後漢書』 卷90, 「鮮卑列傳」, “天設山河, 秦築長城, 漢起塞垣, 所以別內外, 異殊俗也”; 『魏書』 卷4下, 「世祖紀」, “丙戌, 發司·幽·定·冀四州十萬人築塞上塞圍, 起上穀, 西至於河, 廣袤皆千里”; 『晉書』 卷42, 「唐彬傳」, “復秦長城塞, 自溫城泊於碣石”; 『通典』 卷178, 「州郡八 古冀州」, “東北到長城障塞一百十里”; 『史記』 卷88, 「蒙恬列傳」, “吾適北邊, 自直道歸, 行觀蒙恬所爲秦築長城亭障, 塹山堙穀, 通直道, 固輕百姓力矣”

91 『史記』 卷88, 「蒙恬列傳」, “秦已并天下, 乃使蒙恬將三十萬衆北逐戎狄, 收河南, 築

갖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장성관을 수용함에 주의해야 할 요소는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다른 아닌 시대별로 장성의 구성 요소에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역대 장성이 현재 규정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진대의 경우 최대한 자연물과 지형을 이용한 것이 장성으로 구분된 것과는 달리 『전요지(全遼志)』에서는 산험은 담장이 없기에 장성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명대 장성에 성보가 부속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진·한대 장성엔 행정적인 성격의 성보는 부속되어 있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⁹² 따라서 변화된 장성 규정을 전 시대에 걸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장새까지를 장성의 범주로 본다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고 장새를 쌓았다.”는 기사는 연 장성이 요서를 넘어 요동으로 들어왔음을 알려준다. 또한 ‘만변한을 경계’로 삼았다는 기사에 따르면 연의 장성은 최소한 현재 한반도와 중국의 접경 지역까지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연북 장성은 당시 연의 국경선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장성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가와 깊은 관련을 가질 것이다.

長城，因地形，用制險塞，起臨洮，至遼東，延袤萬餘里。”；『漢書』卷52，「韓安國傳」，
“及後蒙恬爲秦侵胡，辟數千里，以河爲竟，累石爲城，樹榆爲塞，匈奴不敢飲馬於河，置然後敢牧馬。”

92 그러나 이수림(李樹林)·이연(李妍)의 경우 진·한대 장성에 군사적 성격의 성보(城堡)는 물론이고 행정적인 성격의 성보까지 부속되었다고 보며 진·한대 장성을 종합성 방어 체제로 이해하고 있다. 李樹林·李妍(2011b), 「吉林省燕秦漢遼東長城考古調查概述」, 『社會科學戰線』 10; 李樹林·李妍(2011a), 「燕秦漢遼東長城障塞遺址的量化統計分析」, 『北方文物』 5; 李樹林·李妍(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 3.

IV. 연장성의 역할과 의미 - 오군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장성을 방어선으로 이해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국경선으로 받아들여졌다.⁹³ 그렇다면 연북 장성 역시 국경선으로 파악해도 좋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호를 격파하고 설치했다는 다섯 개의 군,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의 위치와 장성의 위치를 연동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제일 먼저 인식한 연구로는 1956년 동주신(修柱臣)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동북 지역에 설치되었던 한의 요동군, 요서군, 우북평의 강역을 추정하는 중, '세 군의 외연을 둘러싸고 있는 연·진·한 장성'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장성선이 곧 세 군의 경계, 즉 국경선임을 주장하였다. 이후 이러한 입장에 따라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일반적이 되었고, 연북 장성 역시 설치된 5군의 북부에 서에서 동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⁹⁴

그러나 5군 설치의 유력한 근거가 되는 『사기』 「흉노열전」의 기사를 역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소왕(秦昭王) 때, 의거(義渠)의 용왕(戎王)과 선태후(宣太后)가 사통하여

93 宋眞(2012), 「中國 古代 邊界 出入과 그 性格 變化-通過祭儀에서 通行許可制度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40쪽. 송진은 주로 진·한 시기, 특히 그 중에서도 한대 간독자료에 등장하는 관소(關所)와 통행증(通行證)을 근거로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하였다. 요컨대 진한 시기의 경우 변경에 설치된 관문과 그를 연결한 봉수선이 국경의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는 명확한 국경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선진(先秦) 시기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94 陳慧(2007a), 「戰國之燕對遼東的經營開發」, 『遼寧大學學報(哲社版)』 35-5, 102쪽.

두 아들을 낳았다. 선태후는 감천궁(甘泉宮)에서 의거 용왕을 속여 살해하고,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 의거를 정벌하여 멸망시켰다. 이로써 진은 농서(隴西)·북지(北地)·상군(上郡)을 차지하게 되었고, 장성을 쌓아 호를 막았다.⁹⁵

위의 기사는 연의 5군 설치 기사 앞에 기술되어 있는 진의 3군 설치 기사다. 의거를 멸망시키고 획득한 땅에 농서·북지·상군을 설치한 후, 그 세 군의 외연을 연결하는 장성을 쌓아 북적(北狄)의 침입에 대비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연이 동호를 패퇴시키고 그들로부터 얻은 천여 리의 땅에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의 다섯 군을 설치하고, 그 다섯 군의 외연을 연결하는 장성을 쌓아 적의 침입에 대비한 것과 같은 구조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의 세 군 설치의 실상은 이 기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진이 의거를 멸망시킨 것은 기원전 271년의 일이고 농서군을 설치한 것은 기원전 279년,⁹⁶ 북지군을 설치한 것은 기원전 271년의 일이다. 또한 상군의 경우 기원전 304년에 설치되어⁹⁷ 의거 멸망 이전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것은 세 군의 설치가 의거 멸망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적의 격퇴, 그 결과로 획득한 지역에 신군(新郡) 설치, 신군을 둘러싼 국경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장성의 축조라는 일련의 서술은 도식화된 수사에 불과할 것이다.⁹⁸ 따라서 연의 동호 격퇴, 5군의 설치, 장성의 축

95 『史記』 卷110, 「匈奴列傳」, “秦昭王時, 義渠戎王與宣太后亂, 有二子. 宣太后詐而殺義渠戎王於甘泉, 遂起兵伐殘義渠. 於是秦有隴西·北地·上郡, 築長城以拒胡.”

96 『水經注』, 「河水二」, “漢隴西郡治, 秦昭王二十八年置.”

97 『水經注』, 「河水三」, “秦昭王三年置, 上郡治.”

98 이것은 漢武帝時期 국경이 만들어지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김병준은 진·한 제국이 스스로 국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시 그것을 선진 시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

조로 이어지는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렇다면 연의 5군 설치와 장성 축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재 연이 설치한 5군에 대한 정보는 위의 기사를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진과 한이 연 5군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설치하였다는 것이 통설이기에⁹⁹ 우리는 진한의 5군을 통해 그 실체를 우회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서쪽으로부터 상곡군에 대해 살펴보자. 『전국책』 「진책(秦策)」에 따르면 상곡군 아래에는 36개 현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나온다.¹⁰⁰ 그러나 당시 연은 군 아래 현(縣)이 아닌 도(都)를 설치했다는 주장이 있어,¹⁰¹ 『전국책』의 기록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유물의 출토와 문헌 기록들을 통해 연의 고지(故地)에 설치된 진의 상곡군 휘하의 현을 확인할 수 있다. 진대 상곡군 휘하의 현으로는 지양(沮陽, 현 하북성 회래현(懷來縣)), 이어(夷輿, 현 북경시 연평현(延慶縣) 동북), 영성(寧城, 현 하북성 장가주시(張家口市) 서북), 군도(軍都, 현 북경시 창평현(昌平縣) 부근), 상란(上蘭, 현 북경시 연경현 불욕구(佛浴口) 부근), 거용(居庸, 현 북경시 연경현 동), 만현(潘縣, 현 하북성 탁록현(涿鹿縣) 보대(保岱)), 여현(茹縣, 현 하북성 탁록현 동북), 차거(且居, 현 하북성 선화현(宣化縣) 동남), 하락(下落, 하북성 탁록현)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² 이에 따르면 연의 상곡군은 장가구시 남쪽, 선화·회래·탁록의 동쪽, 연경의 서쪽, 창평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발굴된 조사를 통해서 전통적인 산용(山戎)의 거주 지역임을 알 수 있다.¹⁰³

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김병준(2013), 「진·한 제국의 변경 이민족 지배-部都尉와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동아시아사 학술회의 傳統時代 東아시아의 外交와 邊境 機構 발표집』, 12쪽.

99 馬非百(1982), 『秦集史』, 北京: 中華書局, 654쪽.

100 『戰國策』, 「秦策五」, “趙攻燕, 得上穀三十六縣, 與秦什一.”

101 后曉榮(2012), 「燕國縣級地方行政稱“都”考」, 『首都師範大學學報』 6, 25~28쪽.

102 后曉榮(2009), 『秦代政區地理』, 北京: 東方, 374~377쪽.

다음은 어양군이다. 진대 어양군의 현으로는 어양^현 북경시 화유구(懷柔區) 북방진(北房鎮) 이원장촌(梨園莊村), 천주(泉州, 현 천진시(天津市) 서북), 백단[白檀, 현 하북성 난평현(灤平縣) 북]이 파악되고 있다.¹⁰⁴ 그렇다면 당시 어양군은 대략 승덕(承德)의 서남쪽, 천진의 동북쪽, 북경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이다. 이 지역 역시 증원문화권과는 구별되는 산용문화 지역이라 할 수 있다.¹⁰⁵

다음은 우북평군. 진대 우북평군의 현으로는 무종[無終, 현 천진시(天津市) 계현(薊縣)], 창성[昌城, 현 하북성 풍남현(豐南縣) 서북], 석양[夕陽, 현 하북성 준화현(遵化縣)], 자현[賚縣, 현 요녕성(遼寧省) 건평현(建平縣) 삼가향(三家鄉) 서호소대촌(西胡素臺村)], 광성[廣成, 현 요녕성 건창현(建昌縣)], 백랑[白狼, 현 요녕성 객좌현(喀左縣) 황도영자(黃道營子)], 서무(徐無, 현 하북성 준화현 등), 자현[字縣, 현 하북성 평천현(平泉縣) 동북], 석정[石城, 현 요녕성 능원시(凌源市) 안장자촌(安杖子村)]이 확인된다.¹⁰⁶ 이에 따르면 연의 우북평군은 대략 적봉(赤峰) 남쪽, 하북성 준화현 동쪽, 요녕성 건평현과 객좌현·건창현을 잇는 선 서쪽에 해당할 것이다. 이 지역은 대릉하(大凌河)와 소릉하(小凌河) 일대의 하가점상층문화(夏家店上層文化)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지역의 주인공들에 대

103 北京市文物研究所山戎文化考古隊(1989), 「北京延慶軍都山東周山戎部落墓地發掘紀略」, 『文物』 8, 24쪽. 당시 산용(山戎)의 활동 지역은 연북(燕北) 지구로 지칭되는데, 이 지역의 범주는 노합하(老哈河)와 대릉하(大凌河)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요녕(遼寧) 서부와 내몽고(內蒙古) 동남부와 하북성(河北省) 경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북 지구의 지역 범주에 대해서는 吳鵬(1988), 「試論燕北地區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兼談燕南地區所謂“夏家店下層文化”性質及相關問題」, 『華夏考古』 4, 78쪽.

104 后曉榮(2009), 위의 책, 377~378쪽.

105 陳平(1995), 「略論“山戎文化”的族屬及相關問題」, 『華夏考古』 3을 참조. 진평은 이 지역 문화를 ‘산용문화’라고도 하였지만, 한편 ‘옥황묘문화(玉皇廟文化)’라고도 표현하였다. 배진영 역시 이 지역 문화를 ‘옥황묘문화’로 지칭하였다. 배진영(2009), 앞의 책, 157~163쪽.

106 后曉榮(2009), 위의 책, 371~373쪽.

해서는 산융, 동호(東胡), 예맥(濊貊), 조선 등으로 이견이 존재한다.

요서군은 우북평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진대 그것은 통일 후 변군(邊郡)의 하나로 설치되었다. 관할 현으로 파악되는 것은 양락(陽樂, 현 요녕성 의현(義縣) 서남), 주하(徒河, 현 요녕성 금주시(錦州市)), 유성[柳城, 현 요녕성 조양시(朝陽市) 서남], 영지[令支, 현 하북성 천안시(遷安市) 서], 안평[安平, 현 하북성 난현(灤縣) 서], 해양(海陽, 현 하북성 난현), 비여(肥如, 하북성 천안시 동북) 등이다.¹⁰⁷ 따라서 요서군의 범위는 당산(唐山) 동쪽으로 천안시와 난현을 연결한 선의 서쪽부터 동으로는 금주시까지, 동북으로는 조양시까지가 될 것이다. 이 지역의 일부는 옛 고죽국(孤竹國)의 고지(故地)였으며, 영지(令支)와 도하(屠何)의 고지로 알려져 있다.¹⁰⁸

마지막으로 요동군 역시 진이 통일 후 설치한 변군이였다. 요동군의 위치와 범주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요동군의 지망(地望)과 관련한 문헌 기록들의 순차와 관련되어 있다. 『사기』 「흉노열전」의 기록만으로 요동군의 범주를 추정한다면, 요동군은 지금의 요녕성 요양(양평)을 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출토 문물 자료와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진대 요동군 예하현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요동군은 양평, 험독(險犢), 후성(候城)의 세 현을 휘하에 두고 있었고, 그 범주는 지금 요녕성 요양시, 대안현(臺安縣), 심양시(瀋陽市) 일대였다고 한다.¹⁰⁹

그러나 『위략』과 『사기』 「조선열전(朝鮮列傳)」의 기록을 보면 ①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을 설치하고 조양에서부터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축

107 后曉榮(2009), 앞의 책, 379~380쪽.

108 陳慧(2007b), 「兩周時期的北燕與山戎·東胡等族的關係」, 『社會科學戰線』 5, 155쪽.

109 后曉榮(2009), 위의 책, 380~381쪽.

조한 일과 더불어 ②진개가 조선의 서쪽을 공격하여 천여 리를 취하고, 만반한을 경계로 삼은 일, 그리고 ③연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한 후 관리를 두고 장새를 쌓은 일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상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 일인지,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 요동군의 위치와 범주 확정이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동만륜(董萬倫)은 ①을 선행하는 사건으로 ②를 후속 사건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①의 사건 후 연북 장성이 축조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연북 장성이 현재 하북성 독석구(조양)에서 요녕성 요양(양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문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석구 → 위장 → 적봉 → 오한 → 나만 → 고륜 → 부신 → 창무 → 법고 → 개원에 이른다 고 보았다. 동만륜이 연북 장성의 주향을 이렇게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문헌에 기록된 ‘양평’을 요동군 경내(境內)의 범칭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개원까지 축조된 연의 장성이 사건 ②에 의해 장새로 더 연장되었다고 보았다. 장새는 그에 따르면 후에 변장(邊牆)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장새는 만반한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학자들 간에 청천강(淸川江)인지 대동강(大同江)인지 이견이 있지만 한반도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다. 즉 개원에 이른 연 장성이 장새로 신빈과 관전을 지나 평안도까지 연장된 것이다.¹¹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건 ②와 ③은 같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된다.¹¹¹

110 董萬倫(1987), 『東北史綱要』, 哈爾濱: 黑龍江人民, 28~29쪽.

111 이들 사건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또 다른 연구자로는 석본리평(石本利宏)을 들 수 있다. 그는 연소왕 시기에 연의 영역이 요동 반도에까지 미치고, 이후 요동 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진번과 조선을 침공하여 연의 관리를 설치하고 장새를 설치하여 그 땅을 지배하였다고 보았다. 石本利宏(2009), 『戰國燕の國家的性質-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經濟大國」』, 『研究論集(河合文化教育研究所)』 7, 47쪽.

김육불(金毓黻)은 ①·② 두 사건을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①을 ‘1차 국토 개척’이라하고, ②를 ‘2차 국토 개척’이라 하여 순차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하고는 있지만, 1차 국토 개척의 승세를 타고 2차 국토 개척을 진행했다고 하고 모두 연소왕 13년(기원전 300년) 발생한 일로 설명하여,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았다. 그는 경계가 되는 만변한은 압록강으로 이해하였다. 그에 따르면 상곡·어양·우북평·요서 4군은 동호로부터 획득한 땅에 설치한 것이지만, 요동군은 조선으로부터 획득한 땅에 설치한 것이다.¹¹²

이 중 김육불의 주장은 연소왕 시기 변법에 의해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연의 대외 확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무리 없이 해석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을 설치하고 조양에서부터 양평에 이르는 장성을 축조하였다는 기술과는 다소 상충한다. 김육불의 주장에 따르면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는 장성은 5개 군의 외연을 둘러싼 국경선의 개념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동만륜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1차로 축조된 연의 장성이 개원까지 이르렀다고 하여 『사기』 「흉노열전」의 기사와 상충되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개원에서 연장되는 장성은 장새라고 하여 기존 양평까지 이른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렇듯 요동군의 범주에 대해서는 상충하는 주장들이 있어 그 영역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사기』 「흉노열전」의 기록과 진의 요동군 예하의 현들을 추적하면 당시 연의 5군 영역은 요하를 건너 요동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112 김육불 지음·동북아역사재단 번역(2007), 『東北通史』, 동북아역사재단, 145~149쪽. 김한규는 『鹽鐵論』, 「伐攻」의 “燕襲走東胡, 闢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요서군과 요동군은 조선의 옛 땅에 설치한 것이라 보았다. 김한규(2004), 앞의 책, 79쪽.

그러나 문제는 연이 다시 만만한까지 장새를 쌓았다는 기록이다. 장성과 장새가 구분되어 서술되고는 있지만 연의 확장과 관련하여 등장한 장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의 5군 설치와 그에 따른 장성 축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진개의 이름이 『사기』 「흉노열전」에 단 한 번 출현하는 것을 근거로 진개가 동호를 격파했다는 기사가 전한 이후에 삼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¹³ 물론 연의 5군 설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5군이 일거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고고 발굴 자료에 의하면 문헌 사료에서 말하는 기원전 300년 전후 연의 영역이 확대되기 이전부터 연의 북방 경역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는 하남성(河南省) 난평현(濼平縣) 호십합(號什哈) 포대산묘(炮臺山墓)와 요녕성 능원현(凌源縣)의 오도하자묘(五道河子墓)를 들 수 있다. 이 두 묘는 모두 연대가 춘추말~전국초로 비정되는 것인데, 발굴된 동기(銅器)와 무기, 묘장(墓葬)은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는 재지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북방 계통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중원 계통의 것으로 주로 연산(燕山) 이남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¹¹⁴ 이것은 전국 초기 이미 대릉하 유역까지 연의 문화가 전파된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¹¹⁵

그러나 연의 문화가 전파된 것을 가지고 이 지역이 연에 군사적으로 병합

113 吉本道雅(2008), 「東胡考」, 『史林』 91-2, 101쪽.

114 河南省文物研究所·承德地區文化局·濼平縣文物管理所(1983), 「濼平縣號什哈炮臺山戎墓地的發現」, 『遼海資料叢刊』 7, 73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1989), 「遼寧凌源縣五道河子戰國墓發掘簡報」, 『文物』 2, 80쪽.

115 宮本一夫(2000), 『中國古代北方史の考古學的研究』, 福岡: 中國書店, 231쪽.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의해 문화 병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문화 전파를 우호적인 관계로만 설명할 수도 없기에, 이들을 근거로 전국 초기 연이 자신의 근거지로부터 적극적으로 북방으로 진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닐 듯 싶다. 따라서 연의 북방 진출을 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닌 시간을 두고 점층적으로 일어난 사실로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최근의 한 연구는 연의 요녕 지역 진출이 이미 기원전 6세기 후반경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계(燕系) 철기의 보급을 근거로 하는 이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400년경에는 요서와 요동 반도를 제외한 요동의 평야 지대의 대부분은 연의 영역 지배가 미치는 공간이었고, 기원전 4세기 후반에는 요동 반도의 선단부(先端部)까지 연의 영역에 포함되게 된다.¹¹⁶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 역시 기원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는 연산 이남의 요서 서부는 연의 직접 지배를 받은 지역이 되었으며, 연산 이북 또한 재지 주장이 연에 복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연의 비호하에 있어 간접적으로 지배를 받는 지역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특별히 기원전 5세기를 연화시기(燕化時期)로 명명하였다.¹¹⁷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기』 「흉노열전」의 기사는 최종적인 상황, 즉 연이 연소왕 시기(대체로 기원전 300년경)에 중앙집권화를 이룬 영역 국가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일거에 일어난 일을 기술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연의 북방 진출이 점층적으로 진행된 일이라면 연은 북방으로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전진기지를 배치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 전진기지는 벽이 아닌

116 石川岳彦·小林青樹(2012), 앞의 글, 12쪽.

117 宮本一夫(2007), 앞의 글, 119쪽.

선, 즉 봉수와 같은 거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연이 동호를 몰아내고 영토를 획득하였다 해도 그 지역에 곧바로 군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후대의 일기기는 하지만 한대 거연(居延) 지역의 경우 처음에 차로장(遮虜障)을 쌓은 후(기원전 102년) 15년가량 지난 한무제(漢武帝) 말년에 이르러서야 현성(縣城)이 쌓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¹⁸ 즉 정복지에 거점을 우선 설치하고 둔전(屯田)에 의해 농지를 조성한 후에 현성을 설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 역시 동호나 조선 지역을 차지하고 우선 거점을 설치한 후 나중에야 행정구역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이 지역에 현성이 조성되고, 이주에 의한 농경지 개척 등 일련의 행위가 뒤따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선 구축이 뒤를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는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처음의 장성이라는 것은 선이 아닌 점의 형태로 구축되었을 것이고, 방어선이 아닌 전진기지의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이것은 5군이 설치된 지역을 일별해도 알 수 있다. 연이 주변 집단의 거주지를 탈취하면서 구축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기』 「조선열전」에는 연이 전성기에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장새를 쌓았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아마도 이것은 거점을 조성한 상황을 그린 것이리라. 그러나 이후 진이 연을 멸망시킨 후 그 지역은 중원으로 부터 멀다는 이유로 요동외요(遼東外徼)에 속하게 된다. 이는 전성기에 장새를 쌓은 지역이 연의 지역으로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 기사는 타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에 설치한 최초의 장새가 국경선이 아님을 말

118 榑山明(2001), 「漢代エチナ=オアシスにおける開發と防衛線の展開」, 『流沙出土の文字資料: 樓蘭・尼雅出土文書を中心に』, 京都: 京都市, 464쪽.

해 주는 것이며, 거점 안의 지역이 본래의 국가로 화학적 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V. 연의 요서·요동으로의 확장과 국가 성격

연의 장성이 쌓인 지역을 궁본일부(宮本一夫)는 장성 지대라고 표현하였다. 그에 따르면 그곳은 기원전 3000년경 기후의 건조냉량화(乾燥冷凉化)에 의해 농경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목축형 농경사회로 변화하였다. 목축형 농경사회란 목축을 기반으로 하면서 농경을 영위하는 방식의 사회로, 목축이 특화된 사회를 말한다. 지금의 내몽고 중남부와 연산 지역(=요서)에서 감숙(甘肅)·청해(青海) 지구를 포함하는 그곳은 농경사회와의 접촉 지대의 성격을 지닌다.¹¹⁹ 특히 그중에서도 연의 영역으로 병합되는 요서 지역은 궁본일부에 따르면 중국 고대 문헌에서 산융(山戎)이란 호칭으로 불리던 곳이다.¹²⁰ 따라서 연이 산융의 고지였던 요서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농경사회와 성격이 다른 목축사회와의 융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농경사회 북한(北限)에 위치하고 있던 연¹²¹의 요서로의 확장이 진행되는 것은 기원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로 알려져 있다. 연 문화의 요서로의 진입을 보여주는 유적으로는 요녕성 이십대영자(二十臺營子) 유적,¹²² 남동구(南洞溝) 유

119 宮本一夫(2005), 『中國の歴史 1 神話から歴史へ』, 東京: 講談社, 110쪽.

120 宮本一夫(2007), 앞의 글, 117쪽.

121 宮本一夫(2011), 앞의 글, 13쪽.

122 朱貴(1960),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

적,¹²³ 삼관전(三官甸) 유적¹²⁴ 등을 들 수 있다. 기원전 500년을 중심으로 한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기원전 5세기 전반의 연대를 가진 이들 묘군(墓群)에서는 요녕식(遼寧式) 동검(銅劍)과 같은 재지성 강한 유물이 나옴과 동시에 연식(燕式) 중원 청동기가 출토되어 이 시기 이미 요서에 연 문화가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재지성 강한 유물과 연 계통 유물이 함께 출토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은 연 계통 유물이 재지 세력과 연국의 교전에 의한 약탈품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¹²⁵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현상은 이곳이 연에 의한 강제 지배 공간이기보다는 연에서 재지 지배자들에게 위신재(威信財)를 사여함으로써 연의 영향하에 포섭한 공간임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¹²⁶

홍산문화(紅山文化)로부터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 하가점상층문화(夏家店上層文化)의 독자적인 문화 배경을 갖고 일정한 세력권을 가진 토착 세력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식된 연으로서 이들과의 공존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 동안 이들과의 평화공존을 위한 연합 혹

123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1977), 「遼寧喀左南洞溝石郭墓」, 『考古』 6.

124 遼寧省博物館(1985), 「遼寧凌源縣三官甸青銅短劍墓」, 『考古』 2.

125 김정열은 하가점상층문화 유적들 안에서 출토된 중원식 청동 예기가 서주 후기~춘추 초를 하한으로 하는 시기에 용계(戎係) 세력과 중원 제후국 간의 교전 당시 약탈되어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시기는 다르지만 춘추 말~전국 초 역시 연과 용계 세력의 교전 속에서 요서 지역으로 연계 청동 예기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김정열(2011),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 예기의 연대와 유입 경위」, 『한국상고사학보』 72, 80쪽.

126 심재훈은 중국 변경 지역의 묘나 교장갱(窖藏坑)에서 토착 세력에게는 이질적인 서주 청동 예기가 출토되는 것은 이들 최고위층 귀족들이 주의 문화적 정수로서 청동 예기에 대한 기호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렇다면 연은 이들의 기호를 이용하여 청동 예기로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을 것이다. 심재훈(2012), 「서주 청동예기를 통해 본 중심과 주변, 그 정치 문화적 함의」,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교류와 국가형성』, 학연문화사, 229쪽.

은 갈등, 폭력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을 경우 토착 세력에 의해 연의 청동 예기가 약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연은 회유의 방식으로 이들에게 위신재를 사여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4세기 초부터는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대표적인 요서의 묘군들로는 요녕성 객좌현(略左縣) 대성자(大城子) 미안구(眉眼溝) 유적¹²⁷과 내몽고 적봉시(赤峰市) 홍산구(紅山區) 경내의 전국묘(戰國墓)들¹²⁸을 들 수 있다. 이들 전국묘에서는 연국 중심부와 완전히 조성(組成)이 동일한 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약탈의 결과나 위신재의 사여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를 두고 석천악언(石川岳彦)은 이들 지역이 연의 엄격한 부장품 조성 규제 대상 지역이 된 것으로 보았고, 이는 곧 이곳이 연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배되는 지역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²⁹ 요컨대 이 시기는 연의 강력한 힘에 의한 영역 지배 확대라는 측면이 나타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이 요서 지역으로 확장을 지속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흔히 연산 지구로 불리는 요서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400mm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건조 지구와 건조-반습윤 지구의 과도 지구로 알려져 있다.¹³⁰ 이곳은 중국 농업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존 로싱 벅(John Lossing Buck)에 의해

127 朝陽地區博物館·略左縣文化館(1985), 「遼寧省略左大城子眉眼溝戰國墓」, 『考古』 1.

128 張松柏(1996), 「赤峰市紅山區戰國墓清理簡報」, 『內蒙古文物考古』 1·2.

129 石川岳彦(2011), 「青銅器と鐵器普及の歴史的背景」, 『彌生時代の考古學 3 多樣化する彌生文化』, 東京: 同成社, 206쪽.

130 陳勝前(2011), 「燕山-長城南北地區史前文化的適應變遷」, 『考古學報』 1, 1쪽.

춘소맥(春小麥)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다.¹³¹ 이 지역은 초원이 펼쳐져 유목에 적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경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내몽고자치구 동남부의 서랍목륜하(西拉木倫河)와 노합하가 만든 충적 지구와 대릉하와 요하가 만든 충적 지구는 지세가 평탄하고 수원(水源)이 풍부하여 농업 생산에 적합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¹³² 따라서 이 지역은 연이 전국시기 들어 다른 중원의 열국과 경쟁하기 위한 강 한 군주권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실재를 뒷받침하는 것은 연의 각 지역에서 출토된 철기 농기구다. 늦어도 전국시기 전기에는 연에서 철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¹³³ 농기구의 경우 출토된 양은 물론이거니와 종류도 많고 다양하였으며 분포 지역도 광범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³⁴ 이러한 철기 농기구의 대량 생산과 보급은 농업 생산력의 향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¹³⁵ 결국 강력한 군주권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사기』 「소진열전(蘇秦列傳)」에 등장하는 “군량은 10년을 버틸 수 있다.”¹³⁶는 묘사는 이로부터 가능했

131 John Lossing, Buck 著·三輪孝·加藤健 共譯(1938), 『支那農業論: 支那に於ける土地利用』, 東京: 生活社, 70쪽.

132 石永士(1985), 「戰國時期燕國農業生產的發展」, 『農業考古』 1, 113쪽.

133 村上恭通(2008), 「東アジアにおける鐵器の起源」, 『新彌生時代のがじまり 第3巻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東京: 雄山閣, 148쪽. 석천악언도 기원전 5세기에서 늦어도 기원전 4세기에는 연에 철기가 존재하거나 사용했다고 보았다. 石川岳彦(2011), 앞의 글, 200쪽. 한편 閻忠은 연은 양은 적지만 연하도에서 춘추 말~전국 초의 철기들이 출토되었다고 하여 연의 철기 사용을 춘추 말까지 끌어올렸다. 閻忠(1995b), 「從考古資料看戰國時期燕國經濟的發展」, 『遼海文物學刊』 2, 43쪽.

134 閻忠(1995b), 위의 글, 43~44쪽.

135 석영사는 연 각지에서 출토된 철제 농구를 분석하여 당시 연의 농업 생산력이 높았음을 증명하였다. 石永士(1985), 위의 글, 116~117쪽.

136 『史記』 卷69, 「蘇秦列傳」, “地方二千餘里, 帶甲數十萬, 車六百乘, 騎六千匹, 粟支數年.”

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농업 지구인 요서를 차지하는 것은 연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관건이 되었을 것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따르면 연은 어(魚)·염(鹽)·조(棗)·울(栗)의 풍요로움을 가진 국가로 묘사된다.¹³⁷ 이들 산림수택(山林藪澤)의 물산들이 전국시기 전제군주권을 강화하고 지탱하던 기반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³⁸ 이 중 조·울의 경우는 『사기』 「소진열전」에도 등장하는 연의 특산물로 농경에 종사하지 않는 인민마저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것으로 나와 있다.¹³⁹ 어염(魚鹽)은 발해(渤海)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이 발해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즉, 열국들이 경쟁하는 전국시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연 역시 영토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군주권 강화는 이렇듯 요서로의 진출 속에서 모색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변법에 의해 군주권을 강화해 나가던 연소왕 시기의 일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산림수택의 풍부한 자원과 높은 농업 생산력은 상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염철론(鹽鐵論)』 「통유(通有)」에서는 전국시기 손꼽히는 경제 도시를 거론하고 있는데, 조(趙)의 한단(邯鄲)·위(魏)의 온지(溫軹)·한(韓)의 형양(滎陽)·제(齊)의 임치(臨淄)·초(楚)의 완(宛)과 진(陳)·정(鄭)의 양적(陽翟) 등과 함께 연의 탁(涿)과 계(薊)가 거론되고 있다.¹⁴⁰ 이를 통해 군사적 도읍이었

137 『漢書』 卷28下, 「地理志下」, “上穀至遼東, 地廣民希, 數被胡寇, 俗與趙·代相類, 有魚鹽棗栗之饒.”

138 增淵龍夫(1996), 「先秦時期的山林藪澤と秦の公田」, 『新版 中國古代の社會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352~363쪽.

139 『史記』 卷69, 「蘇秦列傳」, “北有棗栗之利, 民雖不佃作而足於棗栗矣.”

140 『鹽鐵論』, 「通有」, “燕之涿·薊, 趙之邯鄲, 魏之溫軹, 韓之滎陽, 齊之臨淄, 楚之宛·陳, 鄭之陽翟, 三川之二周, 富冠海內, 皆爲天下名都, 非有助之耕其野而田其

던 연하도(燕下都)와는 달리 계는 경제적 성격이 강한 도읍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¹⁴¹ 이렇듯 연은 계를 중심으로 교역을 행하였고, 이 교역의 상황은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吉林省), 내몽고는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서북부에서 출토되는 명도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명도전 출토 지역을 연의 지배 영역으로 보기도 하지만¹⁴² 명도전이 출토된 길림성 지역의 경우 연의 강역이 아니었다는 견해를 고려하면¹⁴³ ‘명도전 출토지=연의 지배 영역’보다는 ‘명도전 출토지=연의 경제권’이라는 도식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연은 지리적 위치에 의해 당시 조선과의 동방 무역을 독점했을 가능성이 높아,¹⁴⁴ 한반도 북부의 명도전의 출토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상업 발달 역시 연의 강성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¹⁴⁵ 이러한 군주권 강화와 그에 연동한 연의 강성에 의해 연은 요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요동에서 발견되는 유적들에 따르면 연의 요동 진출은 늦어도 기원전 4세기 중엽에 이루어졌다. 요동 반도 대련시(大連市) 윤가촌(尹家村) 2기(2期) 유적

地者也, 居五諸之衝, 跨街衢之路也.”

- 141 배진영은 연하도를 군사 기지의 역할을 담당한 배도(陪都)로 보고, 계를 정치 중심지로 보았다. 배진영, 앞의 책, 351쪽.
- 142 石本利宏(2009), 앞의 글, 47쪽.
- 143 董高(1995), 「東北地區燕文化遺存及其有關問題」, 『燕文化研究論文集』, 北京: 中國社會科學, 93쪽.
- 144 어사면(呂思勉)은 『史記』 「封禪書」의 “自威·宣·燕昭使人入海, 救蓬萊·方丈·瀛州”라는 기사를 토대로, 선진 시기 제(齊)와 연인(燕人)들이 발해(渤海)를 항해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呂思勉(1982), 『先秦史』, 上海: 古籍, 371쪽. 이것은 당시 해상 동방 무역이 제와 연에 의해 과점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육로에 의한 동방무역은 연에 의해 독점되었을 것이다.
- 145 이강철(李江浙)은 제에 의해 멸망 직전까지 갔던 연이 소왕 시기 제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 연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李江浙(1995), 「燕國破齊的背景及準備」, 『燕文化研究論文集』, 北京: 中國社會科學, 48쪽.

에서는 그 지역 토착 유물인 요녕식 동검¹⁴⁶과 함께 연 계통의 두(豆)가 출토되어,¹⁴⁷ 기원전 4세기 중반에는 요녕식 동검을 사용하는 이 지역에 연의 문화가 유입되었음을 말해준다.¹⁴⁸ 고배(高杯)라고도 불리는 이 두는 연하도 유적인 낭정촌(郎井村) 10호 공방(工房) 유적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¹⁴⁹

한편 요동군의 중심부로 알려져 있는 요하 평원의 동부인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은 늦어도 기원전 4세기 전반에는 연의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요동군의 치소(治所)로 알려진 양평, 즉 지금의 요양 일대에서는 기원전 4세기 전반, 이르면 기원전 400년 전후의 연대를 가지고 있는 연하도에서 발굴된 전국시기 묘와 부장품 구성이 동일한 묘가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심양시 심하구(瀋河區) 열료로(熱鬧路) 열애리(熱愛里) 1호에서 발견된 열애리 전국묘(戰國墓)가 그것인데, 정(鼎)·호(壺)·반(盤)·이(匱)의 조합은 두류(豆類)를 제외하고 연하도의 조합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⁵⁰ 따라서 이 지역은 기원전 4세기 전반에는 연에 의해 지배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금의 요녕성 무순(撫順)과 본계(本溪) 지역인 이른바 요동 산지(山地)의 동쪽이다. 이 지역에서는 요동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146 궁본일부는 윤가촌(尹家村) M12에서 발견된 청동 단검을 기원전 400년 후반부터 기원전 300년 초에 요동에서 유행하던 요녕식 동검 4식으로 분류하였다. 宮本一夫(2008), 「遼東の遼寧式銅劍から彌生の年代を考える」, 『史淵』 145, 170쪽.

14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96), 『中國田野考古報告集 考古學專刊 丁種第四十九號 雙砬子與崗上-遼東史前文化的發現和研究』, 北京: 科學, 138쪽.

148 오강원(吳江原)은 윤가촌 M12에서 발견된 두를 연나라 토기 공인이 제작한 것으로 보았고, 이것이 토착 집단의 무덤에 부장된 것은 연의 요동 진출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吳江原(2011), 「기원전 3세기 遼寧 地域의 燕나라 遺物 共存 遺蹟의 諸 類型과 燕文化와의 關係」, 『韓國上古史學報』 71, 10쪽.

149 石川岳彦(2011), 앞의 글, 208쪽.

150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1993), 『瀋陽市文物志』, 瀋陽: 瀋陽出版, 71쪽.

연국 부장품 규정에 부합하는 모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¹⁵¹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국의 안정적인 직접 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셈이다. 다만 이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로 비정되는 계현(溪縣) 상보촌(上堡村)에서 발굴된 석관묘(石棺墓)에서 연식 토기와 연식 철기인 착(鑿)이 출토된 것은 이 시기 연의 문화가 이곳에 진출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묘에서는 재지성 강한 요녕식 동검도 2자루 출토되었다.¹⁵² 이것은 이 지역이 여전히 강력한 재지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곳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즉, 연식 토기와 연식 철기, 명도전의 출토를 연의 지배를 증명하는 지표로 사용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일대에서 연의 성지나 취락지, 고분군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 지역을 연의 영역 바깥으로 보는 연구가 제출된 것은 이 때문이다.¹⁵³

기원전 3세기는 대체로 앞서 살펴본 『사기』에 기술된 진개가 의해 동호의 땅이 탈취된 후 5군이 설치되고, 장성이 축조된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만변한을 경계로 연의 요동 동부가 연의 일부가 되었다는 『위략』의 기사는 고고학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 지역에 연의 진출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고성(古城) 유적들¹⁵⁴은 연국의 전진기지 혹은 거점의 성격을 가졌을 가

151 石川岳彦(2011), 앞의 글, 211쪽.

152 魏海波·梁志龍(1998), 「遼寧本溪縣上堡青銅短劍墓」, 『文物』 6, 22쪽.

153 오강원은 연 요동군의 북방 계선을 철령 구대(邱臺) 취락지로부터 무순 연화보(蓮花堡) 취락지를 잇는 선의 북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지점으로 비정하였다. 吳江原(2011), 앞의 글, 16·25쪽 참조.

154 대표적으로 요녕성 철령시의 구대 유적, 요녕성 봉성시(鳳城市)의 유가보자고성(劉家堡子古城) 유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유적에 대해서는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1996), 「遼寧鐵嶺市邱臺遺址試掘簡報」, 『考古』 2와 馮永謙·崔玉寬(2010), 「鳳城劉家堡子西漢遺址發掘報告」, 『遼寧考古文集』 2를 참조.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츰 이 지역으로도 연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을 것이다.¹⁵⁵

기존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전국 연의 경우 그 이전의 청동기시대와는 달리 영역으로 확대한 지역에 대해서 군사 및 행정, 취락 시설 등 전국 연의 문화를 상징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였다.¹⁵⁶ 이것은 비단 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당시 전국시기 중원의 제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연의 성장과 그에 따른 요서·요동으로의 진출은 전국시기 영토국가로 전화하며 타국과의 대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국시기 국가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팽창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다. 한편 이러한 팽창주의 정책에 의해 요서·요동 지역은 강력한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철 제련 기술의 혁신과 발달된 중화 농법이 이루어지게 된다.¹⁵⁷ 즉 이 지역에는 군사적 긴장 관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회·문화적 자극 또한 존재하며 사회 변동 또는 진화를 이끌어 냈던 것이다.¹⁵⁸

155 오강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국시기 연의 문화가 성숙한 국가 단계에 도달한 사회의 문화였기에 이 지역에 준 문화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연이 전국시기 여타 제후국이 그랬던 것처럼 내지화한 지역에 대해 군사적 시설은 물론이고 행정적 시설의 설치, 인간의 이동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했기에 요동 지역 역시 연의 영향력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吳江原(2013),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상호 작용 및 족속」, 『高句麗渤海研究』 46, 57쪽.

156 吳江原(2010),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173~190쪽의 〈표 遼寧~西北韓 지역의 燕나라 유적〉과 吳江原(2013), 위의 글, 57쪽을 참조.

157 김한규(2004), 앞의 책, 144쪽.

158 宮本一夫(2007), 앞의 글, 119쪽; 이성주(2011), 「巨視의 觀點에서 본 東北亞 社會文化體系의 變動」, 『동북아역사논총』 33, 331쪽.

VI. 맺음말

이 글은 전국시기 연에 의해 축조된 장성의 실제 및 그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전국 연의 국가 성격의 일단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분석되었다.

호를 방어하기 위해 축조되었다는 연의 장성 중 연북 장성은 사료에 축조에 관한 정확한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①효왕 말년~연왕희 시기, ②소왕 시기 이전 축조~소왕 시기 완성, ③소왕 시기 등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기록에 근거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연북 장성이 조 장성 축조 이후라는 기록에 따라 최소한 무령왕 20년, 즉 기원전 306년보다는 후에 축조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왕 6년이 되는 이때는 연이 자지(子之)의 난의 뒷수습을 하며 제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던 시기로, 동호를 공격하고 또 그 땅을 획득하여 천여 리의 땅에 신군을 설치하고 그 외연에 장성을 쌓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연북 장성은 연소왕 20년 이후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북 장성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의견이 분분한 것은 연북 장성의 주향과 동쪽 종단에 관한 것이다. 장성이 ‘조양에서부터 양평에 이르렀다.’는 『사기』 「흉노열전」의 기록과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고 장새를 쌓았다.’는 『사기』 「조선열전」의 기사, 그리고 ‘연과 조선의 경계가 만번한 이었다.’는 『삼국지』의 상이한 기사들로 인해 연북 장성의 위치와 주향에 관해서는 합일된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고고 발견에 의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지만, 현재 남아 있는 확실한 장성의 유적이 요서를 넘지 못하면서 장성의 동단을 둘러싼 문제는 해결될 줄 모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중국 국가문물국에서 규정한 <장성보호조례> 및 장성 조사를 위한 지침인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에 따르면 장성은 연속된 벽뿐 아니라 성보, 관애, 봉화대, 적루 등을 포괄하게 되어 군사적 방어 시설들은 대부분 장성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 통상적으로 장성을 흙, 돌, 벽돌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던 것과는 달리 산험장, 산험과 같이 자연 지형을 이용한 것들과 목장장, 호참도 포함되어 장성의 범주는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 장성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¹⁵⁹ 성 또는 시 단위로 장성의 주향을 확정하거나 추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그 복잡함을 더하고 있다. 물론 고대 문헌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장성은 연속된 선이기보다는 경우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대한 자연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장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사실의 복원이란 측면에서 주목할 점이 많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시대별로 장성의 구성 요소에 차이가 존재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연북 장성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변화된 규정과 관련 있는 것은 양평 이후 축조되었다는 장새일 것이다. 그동안 장성과 별개의 성분으로 이해되었던 장성은 변화된 규정에 따라 장성으로 파악되게 되었는데, 기록에 의한다면 이 장새는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한 후’ 쌓은 것이고, ‘만번한’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의 땅을 획득하고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동군의 위치도 어디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연의 북

159 <장성보호조례>의 9조와 11조는 각각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장성보호총체규획>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장성의 보호 범위와 규제 지역을 획정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성의 조사·확정 등이 모두 지방정부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 4)참조.

방에 5군을 설치하고 그것의 국경선으로 장성이 축조되었다는 기사에 근거하여 5군의 설치와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찰 결과 5군은 일거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결과 5군의 외연을 이루고 있다고 여겨지던 즉 국경선의 역할을 하였다는 장성 역시 후대인의 관념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5군 설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이 주변 집단의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점의 형태로 전진기지를 설치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후대인들에 의해 국경선의 성격으로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는 요녕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연의 경우 차츰 요서와 요동 반도로 진출해 나갔다. 이러한 점층적인 진출의 결과로 일종의 전진기지가 배치되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 「조선열전」의 기록도 거점이 조성되는 것을 알려 주는 기사가 아닐까 한다. 이렇듯 연의 장성은 방어물이 아닌 요서·요동으로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전진기지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연의 요서·요동으로의 확장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늦어도 기원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이르는 시기, 연은 요서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묘군에서 나오는 재지성 강한 유물에서 알 수 있듯이, 연은 이 지역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유희적인 태도로 재지 집단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4세기 초로 비정되는 이 지역 전국시기 묘에서 연 중심부와 조성이 동일한 토기들이 출토되는 것은 이들 지역이 연에 의해 지배받게 되었음을 알려 준다. 연의 요서로의 적극적인 진출은 연이 다른 중원의 열국과 경쟁하기 위해 필요했던 강한 군주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비옥한 농업 지구였던 요서와 어염을 얻을 수 있는 발해의 획득은 생산력의 증대와 상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다른 열국과의 경쟁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군주권 강화와 그에 연동한 국가 강성에 의해 연은 영토국가로 발전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군주권의 실현이자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근거가 되었다. 요서를 넘어 요동으로의 진출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기원전 4세기 중엽에 요동으로 진출한 연의 흔적을 살펴보면 요동 반도로의 진출은 4세기 중반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요하 평원 동부의 경우는 기원전 4세기 전반에 연에 의해 지배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동 산지의 동쪽 지역에서는 연의 안정적인 직접 지배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원전 3세기 만변한을 경계로 연이 요동의 동부까지를 지배했다는 문헌의 기록은 고고학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고, 다만 연의 진출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전국시기 연은 확대한 지역에 대해서 군사 및 행정, 취락 시설 등 연의 문화를 상징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였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영토국가로 전화하며 타국과의 대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국시기 제후국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팽창주의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적들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던 연의 경우 팽창주의 정책에 의해 복합 사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한편 연의 진출에 의해 요서·요동 지역은 강력한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제련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발달한 중화 농법이 전파하게 된다. 즉 연의 진출은 이 지역에 군사적 긴장관계만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사회 변동 또는 진화의 강한 자극이 되었던 것이다.

자료

- 『古本竹書紀年』(2008), 上海: 上海古籍.
『史記』(1997), 北京: 中華書局.
『三國志』(1997), 北京: 中華書局.
『水經注』(1999), 南京: 江蘇古籍.
『呂氏春秋』(1996), 上海: 學林.
『歷代通鑑輯覽』(1972), 臺北: 商務印書館.
『鹽鐵論』(1996), 北京: 中華書局.
『戰國策』(1996), 北京: 中華書局.
『全遼志』(1987), 遼海書社.
中國國家文物局·中國國家測繪局(2007),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漢書』(1997), 北京: 中華書局.

저서

- 김한규(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김육불 지음·동북아역사재단 번역(2007), 『東北通史』, 동북아역사재단.
Lovell, Julia 지음·김병화 옮김(2007), 『장성, 중국사를 말하다』, 웅진 지식하우스.
배진영(2009), 『고대 北京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賈洲杰(1981),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景愛(2006), 『中國長城史』, 上海: 上海人民.
羅哲文(1982), 『長城』, 北京: 文物.
譚其驤(1991), 『中國歷史地圖集 元始社會·夏·商·西周·春秋·戰國時期』, 香港: 三聯.
佟冬 主編(1987), 『中國東北史 第一卷』, 長春: 吉林文史.
董萬侖(1987), 『東北史綱要』, 哈爾濱: 黑龍江人民.
馬非百(1982), 『秦集史』, 北京: 中華書局.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1993), 『瀋陽市文物志』, 瀋陽: 瀋陽出版.

- 呂思勉(1982), 『先秦史』, 上海: 上海古籍.
- 王闓森 主編(1992), 『齊國史』, 濟南: 山東人民.
- 王國良(1931), 『中國長城沿革攷』, 上海: 商務印書館.
- 王育民(1988), 『中國歷史地理概論 下』, 北京: 人民教育.
- 王灰(1976), 『中國歷史地理 上冊-歷代疆域形勢』, 臺北: 學生書局.
- 劉金柱(1985), 『萬里長城』,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陸思賢(1986), 『長城話古』, 呼和浩特: 內蒙古人民.
- 張維華(1979), 『中國長城建置考 上篇』, 北京: 中華書局.
- 陳平(1995), 『燕史紀事編年會按 下冊』, 北京: 北京大.
- 馮永謙·何溥滢(1986), 『遼寧古長城』, 沈陽: 遼寧人民.
- 華夏子(1988), 『明長城考實』, 北京: 檔案.
- 后曉榮(2009), 『秦代政區地理』, 北京: 東方.
- 宮本一夫(2000), 『中國古代北方史の考古學的研究』, 福岡: 中國書店.
- 宮本一夫(2005), 『中國の歴史 1 神話から歴史へ』, 東京: 講談社.
- 阪倉篤秀(2004), 『長城の中國史-中華vs遊牧六千キロの攻防』, 東京: 講談社.
- Buck, John Lossing 著·三輪孝·加藤健 共譯(1938), 『支那農業論: 支那に於ける土地利用』, 東京: 生活社.
- Lattimore, Owen 著·後藤富男 編譯(1940), 『農業支那と遊牧民族』, 東京: 生活社.
- Di Cosmo, Nicola(2004[2002]), *Ancient China and its enemies: the rise of nomadic power in East Asi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ttimore, Owen(1975[1935]), *Manchuria: cradle of conflict*, New York: AMS Press.

논문

- 김병준(2013), 「秦漢帝國의 변경 이민족 지배-部都尉와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동아시아사 학술회의 傳統時代 東아시아의 外交와 邊境機構 발표집』.
- 김정열(2011),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 경위」, 『한국상고사학보』 72.

- 남의현(2011),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 변경지대 성격 연구-변경지대의 변화를 통해 본 만리장성 동단기점설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34.
- 남의현(2012), 「만리장성 동쪽 기점, 山海關인가, 鴨綠江인가」, 『중국의 역대 長城 발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
- 손영중(1987), 「대령강반의 옛장성에 대하여」, 『역사연구』 122.
- 孫永鍾(1987), 「대령강장성 조사보고」, 『조선고고연구』 87-2.
- 宋眞(2012), 「中國 古代 邊界 出入과 그 性格 變化-通過祭儀에서 通行許可制度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심재훈(2012), 「서주 청동예기를 통해 본 중심과 주변, 그 정치 문화적 함의」,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교류와 국가형성』, 학연문화사.
- 吳江原(2010),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先史와 古代』 33.
- 吳江原(2011), 「기원전 3세기 遼寧 地域의 燕나라 遺物 共伴 遺蹟의 諸 類型과 燕文化와의 關係」, 『韓國上古史學報』 71.
- 吳江原(2013), 「청동기~철기시대 중국 동북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상호 작용 및 족속」, 『高句麗渤海研究』 46.
- 이성주(2011), 「巨視의 觀點에서 본 東北亞 社會文化體系의 變動」, 『동북아역사논총』 33.
- 홍승현(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총』 35.
- 嘉峪關市文物管理所(1981), 「嘉峪關及其附近的長城」,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 蓋山林·陸思賢(1981a), 「陰山南麓的趙長城」,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 蓋山林·陸思賢(1981b), 「潮格旗朝魯庫倫漢代石城及其附近的長城」,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 景愛(2010), 「長城的內涵及其相關問題」, 『東北史地』 6.
- 高鳳山(1981), 「一塊珍貴的“長城工牌”」,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
- 甌燕(1995), 「我國長城的考古發現與研究」,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

- 春：吉林人民。
- 羅哲文(1981)，「山海關關城的布局與建築勘查記」，《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
- 董高(1995)，「東北地區燕文化遺存及其有關問題」，《燕文化研究論文集》，北京：中國社會科學。
- 寧夏自治區博物館(1981)，「固原縣文物工作站，寧夏境內戰國秦漢長城遺迹」，《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
- 李樹林·李妍(2012)，「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東北史地》3。
- 龐志國(1981)，「金東北路臨潢路吉林省段界壕邊堡調查」，《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
- 裴耀軍(2010)，「遼北地區燕秦漢時期遺存的發現與研究」，《遼寧考古文集》2。
- 白音查干(1999)，「戰國時期燕·趙·秦長城新論」，《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117-5。
- 北京市文物研究所山戎文化考古隊(1989)，「北京延慶軍都山東周山戎部落墓地發掘紀略」，《文物》8。
- 史念海(1981a)，「鄂爾多斯高原東部戰國時期秦長城遺迹探索記」，《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
- 史念海(1981b)，「黃河中流戰國及秦時諸長城遺迹的探索」，《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
- 山西省文物工作委員會古建隊(1981)，「山西省境內長城簡記」，《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
- 徐仲舒(1964)，「論《戰國策》的編寫及有關蘇秦諸問題」，《歷史研究》1。
- 徐浩生(1992)，「燕國南長城的調查及其建築年代考」，《京華舊事存真》，北京：古籍出版。
- 石永士(1985)，「戰國時期燕國農業生產的發展」，《農業考古》1。
- 蕭景全(2000)，「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北方文物》63。
- 孫杰(1997)，「阜新地區燕北長城調查」，《遼海文物學刊》24。
- 梁建宏(2010)，「甘肅境內長城保護工作回眸」，《絲綢之路》6。
- 閻忠(1995a)，「燕北長城考」，《社會科學戰線》2。
- 閻忠(1995b)，「從考古資料看戰國時期燕國經濟的發展」，《遼海文物學刊》2。

- 吳祁驥(1990),「河西漢塞」,『文物』12.
- 吳鵬(1988),「試論燕北地區夏家店下層文化的分期-兼談燕南地區所謂“夏家店下層文化”性質及相關問題」,『華夏考古』1988-4.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1989),「遼寧凌源縣五道河子戰國墓發掘簡報」,『文物』2.
- 遼寧省博物館(1985),「遼寧凌源縣三官甸青銅短劍墓」,『考古』2.
-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1977),「遼寧喀左南洞溝石郭墓」,『考古』6.
- 魏海波·梁志龍(1998),「遼寧本溪縣上堡青銅短劍墓」,『文物』6.
- 劉建華(1993),「張家口地區戰國時期古城址調查發現與研究」,『文物春秋』4.
- 劉子敏(1996),「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社會科學戰線』5.
- 劉志一(1994),「戰國燕地長城調查」,『內蒙古文物考古』1.
- 李江浙(1995),「燕國破齊的背景及準備」,『燕文化研究論文集』,北京:中國社會科學.
- 李慶發·張克學(1988),「遼西地區燕秦長城調查報告」,『遼海文物學刊』12.
- 李文信(1979),「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下」,『社會科學輯刊』1·2.
- 李樹林·李妍(2011a),「燕秦漢遼東長城障塞遺址的量化統計分析」,『北方文物』5.
- 李樹林·李妍(2011b),「吉林省燕秦漢遼東長城考古調查概述」,『社會科學戰線』10.
- 李樹林·李妍(2012),「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東北史地』3.
- 李殿福(1982),「東北境內燕秦長城考」,『黑龍江文物叢刊』1.
- 張松柏(1996),「赤峰市紅山區戰國墓清理簡報」,『內蒙古文物考古』1·2.
- 鄭君雷(1997),「大寧江長城的相關問題」,『史學集刊』1.
- 鄭紹宗(1981),「河北省戰國·秦·漢時期古長城和城障遺址」,『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
- 鄭紹宗·鄭立新(2009),「河北古代長城沿革考略(上)」,『文物春秋』3.
- 朝陽地區博物館·喀左縣文化館(1985),「遼寧省喀左大城子眉眼溝戰國墓」,『考古』1.
- 趙化成(1995),「中國早期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長春:吉林人民.
- 朱貴(1960),「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考古學報』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96),『中國田野考古報告集 考古學專刊 丁種第

- 四十九號 雙砣子與崗上-遼東史前文化的發現和研究』,北京:科學.
- 陳可畏(1995),「論戰國時期秦·趙·燕北部長城」,『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長春:吉林人民.
- 陳勝前(2011),「燕山-長城南北地區史前文化的適應變遷」,『考古學報』1.
- 陳平(1995),「略論“山戎文化”的族屬及相關問題」,『華夏考古』3.
- 陳慧(2007a),「戰國之燕對遼東的經營開發」,『遼寧大學學報(哲社版)』35-5.
- 陳慧(2007b),「兩周時期的北燕與山戎·東胡等族的關係」,『社會科學戰線』5.
- 鐵嶺市文物管理辦公室(1996),「遼寧鐵嶺市邱臺遺址試掘簡報」,『考古』2.
- 佟柱臣(1956),「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的東北疆域」,『考古學報』1.
- 彭曦(1995),「十年來考察與研究長城的主要發現與思考」,『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長春:吉林人民.
- 布尼阿林(1981),「河北省圍場縣燕秦長城調查報告」,『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
- 馮永謙(1991),「東北古代長城考辨」,『東北亞歷史與文化』,沈陽:遼沈書社.
- 馮永謙(2010),「東北燕秦漢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遼寧考古文集』2.
- 馮永謙·崔玉寬(2010),「鳳城劉家堡子西漢遺址發掘報告」,『遼寧考古文集』2.
- 河南省文物研究所·承德地區文化局·灤平縣文物管理所(1983),「灤平縣號什哈炮臺山山戎墓地的發現」,『遼海資料叢刊』7.
- 項春松(1981),「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
- 許志國(2007),「遼北境內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博物館研究』98.
- 許志國(2010),「遼北燕秦長城及相關遺迹遺物的發現和研究」,『遼寧考古文集』2.
- 后曉榮(2012),「燕國縣級地方行政稱“都”考」,『首都師範大學學報』6.
- 兼子雄輔(2006),「萬里の長城-古代萬里の長城の建築意義について」,『國際文化研究紀要』16.
- 宮本一夫(2007),「漢と匈奴の國家形成と周辺地域」,『東アジアと日本:交流と変容: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統括ワークショップ報告書』,福岡:九州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人文科學)「東アジアと日本:交流と変容」.
- 宮本一夫(2008),「遼東の遼寧式銅劍から彌生の年代を考える」,『史淵』145.
- 宮本一夫(2011),「東アジア地域社會の形成と古代國家の誕生」,『東アジア世界

- の交流と變容』, 福岡: 九州大.
- 吉本道雅(2008), 「東胡考」, 『史林』 91-2.
- 石本利宏(2009), 「戰國燕の國家的性質-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經濟大國」」, 『研究論集(河合文化教育研究所)』 7.
- 石川岳彦(2011), 「青銅器と鐵器普及の歴史的背景」, 『彌生時代の考古學 3 多様化する彌生文化』, 東京: 同成社.
- 石川岳彦・小林青樹(2012), 「春秋戰國期の燕國における初期鐵器と東方への擴散」,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67.
- 糴山明(2001), 「漢代エチナ=オアシスにおける開發と防衛線の展開」, 『流沙出土の文字資料: 樓蘭・尼雅出土文書を中心に』, 京都: 京都大.
- 増淵龍夫(1996), 「先秦時期の山林藪澤と秦の公田」, 『新版 中國古代の社會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 青木富太郎(1972), 『萬里の長城』, 東京: 近藤出版.
- 村上恭通(2008), 「東アジアにおける鐵器の起源」, 『新彌生時代のがじまり 第3卷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東京: 雄山閣.



한 장성의 존재 형태와 그 특징

I. 머리말

II. 한 장성 연구의 개황과 그 실제

III. 국경으로서 한 장성과 그 관리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송진(宋眞)

중국고대사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대표논저: 「漢代通行證制度與商人的移動」(2010, 『簡帛』 5輯, 武漢大學), 「戰國時代 邊境의 出入管理와 符節」(2012, 『중국고중세사연구』 27), 「前漢時期 帝國의 內部 境界와 그 出入 管理」(2012, 『동양사학연구』 121) 등.

한 장성의 존재 형태와 그 특징

I. 머리말

중국에서 장성(長城)은 전국시대에 보편적으로 출현하였다. 물론 춘추시대 이전에도 방어용 성을 건축하였으나, 전국시대 초(楚)·위(魏)·연(燕)·조(趙)·진(秦)·중산국(中山國) 등 각국에서 변경에 성벽을 길게 연결하여 쌓으면서 변경 수비 시설인 장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 장성은 ‘만리장성(萬里長城)’이라 칭한다. 만리장성은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전국시대 각국의 장성을 연결하여 새롭게 축조한 장성이다. 흔히 진대 만리장성은 역대로 계승되어 오늘날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고, 진대 이후 중국의 영토와 북방 왕조를 구분하는 경계로서 대체로 기능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 장성이 후대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 것은 아니며, 모든 왕조에서 변경에 장성을 쌓지도 않았다. 만리장성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기본적으로 장성 관련 문헌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 역대 장성의 존재 형태와 그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

다.¹ 가령 한(漢) 장성의 경우 진 장성을 일부 계승하였지만, 무제(武帝) 때 음산(陰山) 이남인 오늘날 내몽고 하투(河套)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외(塞外) 장성을 건설하는 등 그 노선이 진 장성과 달랐다. 진대 형성된 이른바 만리장성이 역대 중국 왕조에 그대로 계승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별 장성의 성격과 그 변화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진의 장성을 계승하되 하서주랑(河西走廊)을 비롯한 내몽고 지역에서 새롭게 장성을 건설하였던 한(漢) 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래 한 장성 관련 연구는 역대 중국의 장성을 개괄하면서 언급되는 경우를² 제외하면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장성 축조 기록과 그 위치를 확인하는 연구다. 이는 다시 장성이 축조된 시기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문헌 기록에 보이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과 장성 유지를 답사하여 현지 조사하는 방향으로 구분된다. 둘째 한대 변새(邊塞) 연구의 일환으로 그 형태 및 관리 제도를 고찰한 연구다. 문헌 기록을 기초로 한대 변새 설치 시기와 위치를 검토하거나,³ 하서(河西) 지역에 축조된 유지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⁴ 셋째 한대 흉노 정

-
- 1 Arthur, Waldron(1990), *The Great Wall of China: from history to my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7.
 - 2 景愛(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181~212쪽; 來村多加史(2003), 『萬里の長城攻防三千年史』, 講談社, 82~138쪽; Arthur, Waldron(1990), 위의 책, 22~29쪽; 塚本靖(1933), 「萬里の長城に就いて」, 『建築學報』 昭和 8-7; 村田治郎(1943), 「秦·漢の北長城東端」, 『建築學會論文集』 30, 21쪽; 趙化成(1995), 「中國早期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44~247쪽; 甌燕(1995), 「我國長城的考古發現與研究」,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55~256쪽; 史念海(1995), 「論西北地區諸長城的分布」,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72~178쪽.
 - 3 張維華(1941), 「漢置邊塞考略」, 『齊魯學報』 1.
 - 4 이런 변새 유지 관련 연구를 기초로 한대 서북 변경의 수비 기구와 방위선의 정리 작업도 진행되었다. 片野龍太郎 著·粗山明·佐藤信 編(2011), 「漢代邊境的都尉府と防衛線-長城防衛線遺構の基礎的研究」, 『文獻と遺物の境界-中國出土簡牘史料の生態的研

책이나 대외 관계 관련 주제를 고찰하면서 장성 문제를 다룬 연구다. 이들은 주로 흉노와의 관계를 다루거나⁵ 주변 민족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검토하면서 장성이 갖는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⁶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장성은 진 장성 연구에 비해 장성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적으며,⁷ 주로 한 장성의 축조 시기와 위치를 확인하여 그 실재를 밝히는 데 연구 관심이 집중되었다. 문헌 기록과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한 장성 축조 과정과 관련 사실을 밝히고, 변세로서 장성이 갖는 기능이나 장성을 둘러싼 주변 민족과의 관계 양상을 검토하는 일은 장성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다만, 지금까지 한 장성 연구는 문헌에 보이는 장성 관련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축조 시기와 위치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장성 유지의 현지 조사 역시 각 지역별로 나누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장성의 개념이나 존재 형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대 장성이 갖는 시대적 특징과 당시 사회에서 갖는 기능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역시 필요하다.

진대(秦代) 만리장성은 수비 시설이자 제국의 지배 범위를 표시한 일종의 국경이었다. 필자는 제국의 국경으로서 장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전국시대 각국은 목책(木柵)이나 호구(壕溝)를 만들어 지배 영역의 한계인 봉강(封疆)을 표시하였는데, 진 장성 역시 자연 지형과 새(塞)·목책 등으로 제

究, 『東京外國語大學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 5 白音查干(1998), 「長城與漢匈關係」, 『內蒙古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6; 莫任南(1992), 「匈奴對漢王朝的政策」, 『中國邊疆史地研究』 4.
- 6 舒振邦(1988), 「前漢時期長城內外的民族關係」, 『內蒙古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陳江(1995), 「秦漢長城的建築與漢民族的形成」, 『東南文化』 1; 王子今(1995), 「漢代河西長城與西北邊地貿易」,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A·A·科瓦列夫 外(2008), 「蒙古國南戈壁省西夏長城與漢受降城有關問題的再探討」, 『內蒙古文物考古』 2.
- 7 진 장성 연구 현황은 徐衛民(2012), 「秦始皇長城研究綜論」, 『秦漢研究』 第6輯.

국의 봉강을 표시한⁸ ‘국경선’에 해당하였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아 서북 변의 한계를 표시함과 동시에 동해 상에 비석을 세워 진의 동문(東門)을 표시하였다.⁹ 즉, 천하 통일 후 진시황은 동해를 제국의 동쪽 경계로 획정하고, 만리장성을 쌓아 제국의 서북쪽 국경을 획정하였다. 이런 점은 한 장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장성은 한 제국의 지배 범위를 표시한 일종의 ‘국경선’이었다. 그렇다면 장성이 세워지지 않은 국경과 달리 장성으로 이루어진 국경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국경으로서 장성은 어떻게 관리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우선 II장에서 문헌 기록과 고고 현지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장성 연구의 대략적 경향과 그 실재를 정리하고, 이어 III장에서 국경으로서 장성이 갖는 특징과 장성 관리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대 간독자료의 상당수는 서북 변경을 수비하던 후관(候官)이나 관소·봉수 유지에서 보관 혹은 폐기된 문서로서, 당시 서북 지역 변경 관리의 실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 준다. 이 자료들을 활용하면 문헌 기록에 없는 장성 주변 사회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만리장성이 처음으로 세워진 시기는 진대다. 그렇지만 한제국의 국경으로서 증축되었고, 장기간 다양한 기능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의 고찰은 고대 제국의 국경으로서 초기 장성이 갖는 특징을 밝힘으로써, 후대 장성이 갖는 기능과 의의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8 당시 만리장성을 건설한 구체적인 방법은 확인할 수 없지만, 진의 장성은 전국시대 조·연의 장성을 하나로 연결한 방위 시설이자 선진시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강을 표시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국의 봉강을 표시한 ‘국경선’이었다. 만리장성의 형태와 경계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辛德勇(2005), 「陰山高關與陽山高關辨析—並論秦始皇萬里長城西段走向以及長城之起源諸問題」, 『文史』 3, 20~41쪽.

9 『史記』(中華書局 標點校勘本, 이하 正史 통일) 卷6, 「秦始皇本紀」 始皇 35年, 256쪽, “於是立石東海上胸界中, 以爲秦東門.”

II. 한 장성 연구의 개황과 그 실제

1970년대까지 중국의 장성 연구는 주로 문헌 기록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비록 1950년대 산해관(山海關)·팔달령(八達嶺)·가옥관(嘉峪關) 장성의 보수 작업과 건축가들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장성 관련 연구는 주로 문헌 중심이었고 실제 장성 유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에 속한 각 부서는 전국을 범위로 장성 관련 고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1979년 국가문물사업관리국(國家文物事業管理局)에서 장성보호연구공작(長城保護研究工作)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단위의 장성 유지 조사가 이루어지자, 종래 각 지역별 혹은 개인별로 수행되었던 고고 발굴 성과는 점차 종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발굴 조사 결과가 출판되면서¹⁰ 이전과 달리 장성 연구는 문헌 기록과 현지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였다.

우선 한 장성에 대한 종래 연구와 관련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중국 학계에 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한 장성의 축조 시기와 위치를 살펴보기로 하자.

1. 한 장성 축조 시기와 위치

한 장성 축조는 주로 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무제 때 본격적인 대외 원정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¹¹ 한 장성은 축조 시기에 따라

10 1970년대 이후 진행된 장성 유지 고고 조사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은 景愛(2006), 앞의 책, 10~20쪽.

11 白音查干(1987), 「漢長城攷察與研究」, 『內蒙古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 95~99쪽; 張榮芳·王川(1995), 「漢長城的修繕及其意義」,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05~108쪽.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우선 진 장성을 수보하여 변세 시설을 정비하는 단계다. 다음은 무제 시기 변경 수비 시설을 확충하면서 장성을 신축하는 단계다. 끝으로 무제 이후 주변 민족과의 관계 양상이 변하면서 장성을 관리하는 단계다.

한 장성 유지 중 진 장성과 노선이 겹치는 지역은 진 장성 조사와 동시에 진행되었다.¹² 그리고 한대 신축한 하서주랑과¹³ 소록하(疏勒河) 유역을¹⁴ 포함한 하서 전체 지역 장성 유지에¹⁵ 대한 자세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졌다.¹⁶ 여기서는 한 장성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축조 시기별 각 단계로 나누어 관련 문헌 기록과 고고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진 장성의 수보와 노선의 계승

한 장성은 기본적으로 진 장성을 계승하였다. 진이 망한 후 한왕(漢王)이었던 유방은 기원전 205년에 관중 지역을 장악하고 이어 관중 밖에 하남군(河南郡)을 설치한 후 황하 유역에 설치된 진의 변세를 수선하였다.¹⁷ 한왕 유방은 이

-
- 12 예를 들어, 唐曉峰(1977), 「內蒙古西北部秦漢長城調查記」, 『文物』 5는 내몽고 서북부에 남아 있는 장성 유지에 대한 연구다. 진 장성 관련 연구는 徐衛民(2012), 「秦始皇長城研究綜述」, 『秦漢研究』 第六輯.
 - 13 이에 대해서는 李并成의 일련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李并成(1994a), 「河西走廊中部漢長城遺跡考」, 『敦煌學輯刊』 1; 李并成(1994b), 「河西走廊東部漢長城遺跡考」, 『西北史地』 3; 李并成(1995), 「河西走廊西部漢長城遺跡及其相關問題考」, 『敦煌研究』 2; 李并成(1996), 「河西走廊東部新發現的一條漢長城—漢才胥次縣至媯圍縣段長城勘察」, 『敦煌研究』 4.
 - 14 岳邦湖·鍾聖祖 著·甘肅省文物局 編(2001), 『疏勒河流域漢代長城考察報告』, 文物出版社.
 - 15 吳初驥(2005), 『河西漢塞調查與研究』, 文物出版社.
 - 16 기타 '외장성(外長城)'에 관한 문헌 기록 검토 및 현지 조사에 대해서는 李逸友(1984), 「漢光祿城的考察」, 『內蒙古文物考古』 3.
 - 17 『史記』 卷8 「高祖本紀」 2年, “漢王東略地, 塞王欣·翟王翳·河南王申陽皆降. ……”

어 진의 사직을 없애고 한의 사직을 세웠는데, 이는 진을 대신하는 새로운 왕조의 성립을 의미하였다. 즉, 한왕 유방은 진의 북방 변경을 수보(修補)하여 한조(漢朝)의 북쪽 경계로 삼았던 것이다. 여기서 황하 유역에 설치된 새는 바로 몽염이 수축한 진 장성의 일부를 의미하는데, 이는 당시 한왕이 차지했던 농서(隴西) 지역에¹⁸ 속한 장성이었을 것이다.¹⁹

한 성립 이후 진 장성의 일부를 수보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7년부터 허북성(河北省) 문물공작(文物工作) 담당자들은 승덕(承德)·융화(隆化)·난평(灤平)·풍녕(豐寧) 등지에서 전한 시기 장성 유지를 발견하였다. 이 유지에서는 다량의 승문 와편(繡紋瓦片), 동방륜(陶紡輪) 및 기타 도기의 잔편(殘片)이 출토되었는데, 유물의 시기로 미루어 전한 초기 유지에 해당한다.²⁰

비록 한 초에 진 장성의 일부를 수보하였지만, 본격적인 수보는 흉노 원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무제는 원삭(元朔) 원년(기원전 128년)에 위청(衛靑)과 이식(李息)을 보내어 각각 안문군(雁門郡)과 대군(代郡)에서 흉노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 이듬해 위청은 다시 운중군(雲中郡)에서 출정하여 서쪽으로 농서 지역에 이르렀고 흉노의 누번왕(樓煩王)·백양왕(白羊王)을 하남(河南)에서 격파하여 포로 수천 명과 백여만 마리의 소·양을 얻는 승리를 거두었다.²¹ 진 장성의 수보는

關外置河南郡。……繕治河上塞。”

18 『漢書』 卷1上 「高帝紀」, 33쪽, “(2年) 漢王如陝 …… 漢王還歸, 都櫟陽, 使諸將略地, 拔隴西。以萬人若一郡降者, 封萬戶。繕治河上塞。”

19 오늘날 고난(阜蘭)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영하(寧夏)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張維華 (1941), 앞의 글, 61~63쪽.

20 張榮芳·王川(1995), 앞의 글, 105쪽. 다만, 이 유지를 한왕 유방이 수보했던 진 장성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당시 유방이 차지했던 지역 범위를 고려할 때 그 이후 시기로 보인다.

21 『漢書』 卷94上 「匈奴傳」, 3766쪽, “於是漢使將軍衛靑將三萬騎出雁門, 李息出代郡, 擊胡, 得首虜數千。其明年, 衛靑復出雲中以西至隴西, 擊胡之樓煩·白羊王於河南, 得胡首虜數千, 羊百餘萬。”

바로 이 승리 이후 진행되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가-①] 이에 한나라는 마침내 하남 땅을 빼앗아 삭방군(朔方郡)을 (설치하고 성을) 쌓고 다시 옛날 진의 장군 몽염이 구축했던 장성을 수리하여 황하를 따라 (방비를) 굳게 하였다. 한은 또한 상곡군(上谷郡)의 (중심과) 떨어져 있는 현(縣)인 조양(造陽) 땅을 버리듯이 흉노에게 내주었다. 그 해가 원삭 2년(기원전 127년)이었다.²²

원삭 2년에 위청 등은 하남 땅을 수복하였고, 이어서 그곳에는 삭방군이 설치되고 진 장성이 다시 수축되었다. 위청 등이 수복한 지역은 오늘날 내몽고 자치구 하투 일대로서, 이때 수선한 진 장성은 내몽고 집녕(集寧) 동남 지역에서 시작하여 대체로 북위 41도의 음산 남쪽 기슭 서쪽으로 오란포화(烏蘭布和) 사막까지 이어진다.²³

고고 조사에 따르면 음산 남쪽 기슭에 있는 전국시대 조 장성 부근에서 한대 성(城)·장(障)이 다수 발견되었고, 음산 북쪽 기슭의 진 장성 안쪽 유지에서 한대 고성(古城)이 다수 발견되었다. 예컨대 증룡창(增龍昌) 고성의 경우 둘

22 『漢書』 卷94上 「匈奴傳」, 3766~3767쪽, “於是漢遂取河南地, 築朔方, 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 因河而爲固, 漢亦棄上谷之斗辟縣造陽地以予胡, 是歲, 元朔二年也.” 이는 『史記』의 기록과 같다. 『史記』 卷110 「匈奴列傳」, 2906~2907쪽, “於是漢遂取河南地, 築朔方, 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 因河爲固, 漢亦棄上谷之什辟縣造陽地以予胡, 是歲, 漢之元朔二年也.” 이 글에서 인용한 『史記』·『漢書』·『後漢書』 外國傳 번역은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1-3), 동북아역사재단을 따랐다.

23 張榮芳·王川(1995), 앞의 글, 105~106쪽. 진 장성을 수복하면서 위청은 ‘광장유(廣長榆)’하였는데, 이는 유계새(榆溪塞)를 補綴했다는 말이다. 유계새는 대규모 느릅나무를 심어 일종의 변새를 만든 것이다.

레 길이 1,100m 규모로서, 판축으로 쌓은 성장(城牆)이 있고 한대 도편(陶片)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 성 북쪽으로 약 1,000m 떨어진 산비탈에 진 장성 유지가 있으며 성의 서북쪽에는 한대 봉수 유지가 있다. 이렇게 음산 근처 조 장성과 진 장성 부근에 한대 성·장과 봉수 유지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한 무제 때 조 장성을 비롯한 진 장성을 수보하고 인근에 성·장과 봉수를 설치하여 병사를 주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²⁴

한편 호화호특(呼和浩特)에서 동쪽에 위치한 진 장성 부근에서도 한대 성·장 및 봉수 유지가 발견되었다. 성·장 유지를 보면 일부는 전국시대 조 혹은 진의 고성을 이용하였고, 일부는 한대 새로 건설한 것이다. 하북성 풍녕(豐寧) 등지에서 발견된 봉대(烽臺)는 2km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성장은 보이지 않는다. 이 봉대는 동북으로 승덕현(承德縣)까지 뻗어 있고, 소오달맹(昭烏達盟) 영성현(寧城縣)으로 연결되어 다시 요녕성(遼寧省) 건평현(建平縣) 중부 방향으로 향하여 오한기(敖漢旗) 노호산(老虎山) 아래 장성과 연결된다. 그 중 소오달맹과 요서에서 발견된 장성 유지는 약 250km 길이로서, 주향이 분명하고 120곳의 봉대가 발견되었다. 비록 사료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한 무제 원삭 2년에 조양 땅을 흉노에게 내어 준 이후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⁵

특히 하북(河北) 승덕, 내몽고 적봉(赤峰) 및 통요(通遼) 지역의 연 장성과 진 장성 역시 한대에 수보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주요 유지는 적성(赤城)·풍녕(豐寧)·승덕현을 들 수 있는데, 우선 적성현에서는 용문(龍門) 부근 산 위에 높이 1m 정도의 장성 유지가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봉수 유지와 한대 도편이 발견되었다. 적성현(赤城縣)의 동북과 풍녕현(豐寧縣)은 서로 접

24 景愛(2006), 앞의 책, 181~183쪽.

25 趙化成, 「中國早期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 247쪽.

하는데, 풍녕현 동남부에서도 장성 유지가 발견되었다. 이 유지의 장성은 길이 12,500m로서 돌을 쌓아 만들었으며 장성 주변에 한대 봉수 유지와 유물이 발견되었다. 풍녕현 동쪽으로 승덕현에서도 옛 장성 유지가 발견되었는데, 길이 15km로 흙을 다져서 판축하여 만들었으며 장성 부근에 돈대(墩臺)가 확인된다. 발굴 조사자는 이 유지를 한 장성 유지로 보았다. 1943년 이문신(李文信)은 적봉 북부에서 연 장성을 조사하면서 많은 한대 유물을 발견하고서, 한대 연 장성을 연용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한대 연 장성을 수보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²⁶ 한 장성의 동단은 연·진 장성의 동단을 수보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2) 변세의 확충과 장성의 신축

1979년 ‘장성보호연구공작 좌담회’에서는 역사 문헌과 고고 현지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중국 역사상의 장성 중 진 장성, 한 장성, 명(明) 장성이 만 리 이상이었다고 정리하였다. 물론 장성의 길이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진 장성과 명 장성이 대략 5,000km인 반면 한 장성은 10,0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대로라면 한 장성이 역대 장성 중 가장 길다.²⁸ 한 장성은 진 장성을 수보하였을 뿐 아니라 새롭게 건설하기도 하였는데, 장성의 신축은 대부분 무제 시기에 진행되었다.

무제 시기 신축한 장성은 하서주랑 및 소록하(疏勒河) 유역을 포함한 하서

26 『史記』卷115「朝鮮列傳」, 2985쪽, “秦滅燕, 屬遼東外徼。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涇水爲界, 屬燕。”

27 景愛(2006), 앞의 책, 184~186쪽. 한편 적성현 용문(龍門)의 한 장성은 아마도 풍녕현, 승덕현의 장성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각 현 사이에서 장성 유지가 발견되지 않았고 약간의 봉수만이 확인된 상태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8 張榮芳·王川(1995), 앞의 글, 105쪽.

지역, 새외 장성이 세워졌던 내몽고 지역에 위치하였다. 특히 하서 지역 장성 유지는 자세한 고고 조사가 이루어져 장성의 대략적인 형태와 노선이 확인되었다. 다만, 정확한 축조 시기와 일부 지역 변새를 장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하서 지역 변새는 지리 조건에 따라 그 구조가 다르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하서 동쪽 지역 변새다. 이 지역에는 오초령(烏鞘嶺) 동쪽으로 지세가 험악한 황토고원이 있고 산지와 하곡(河谷)이 펼쳐져 있다. 오초령 서쪽 지역은 비록 황토층이 얇아지긴 하나, 자갈과 모래로 된 거친 벌판이 넓게 펼쳐져 있어 주로 참호 위주로 방어 설비를 만들었다. 둘째, 하서 서쪽 지역 변새다. 이 지역은 최소 200m 이상이 되는 높은 지대인 북산(北山)과 자갈 사막[戈壁] 및 모래로 된 거친 벌판이 넓게 분포한다. 변새의 형태는 중간에 호(壕)를 파고 양측에 두령을 만들어 참호를 만드는 방법 외에 참호와 담장을 결합하는 식으로 만들었다. 하류(河流)를 따라 연안의 소택(沼澤)·호택(湖澤) 등을 이용하여 참호를 만들기도 하였고, 참호 외부에 갈대·버드나무[紅柳]·자갈 등을 층층이 쌓아 담장을 만들었는데 담장의 재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주천(酒泉) 북쪽 지역 변새다. 이 지역은 가운데 흑하(黑河)가 있고 동으로 파단길림(巴丹吉林) 사막이 있으며, 서쪽으로 자갈 사막이 있기 때문에, 남북의 역도(驛道)를 따라서는 별도의 새를 쌓지 않았다. 견수도위(肩水都尉) 관할지역은 흑하 양쪽의 둔전 구역에 참호를 만들어 새내(塞內)를 둘러쌌다. 거연도위(居延都尉) 관할구는 참호를 만들고 액제납하(額濟納河) 하류 삼각주를 이용하여 새내를 둘러쌌다. 다만, 갑거후관(甲渠候官) 치소인 장(障) 이남 지역 봉수는 흙이나 돌을 이용하여 인공 참호를 만들었다. 대체로 자연 지형을 활용하되, 중요한 지역에 인공 참호와 담장을 만드는 형태로 변새를 만들었다.²⁹

무제 때 신축한 장성의 축조 시기와 주요 유지 관련 문헌 기록 및 고고 조

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영거-주천'에 이르는 새

영거새(令居塞)는 영거(令居)에서 주천에 이르는 새다. 영거현(令居縣)은 기원전 115년에 설치되었는데, 영거새는 이후 원정(元鼎) 6년(기원전 111년)에 축조되었다.³⁰ 다음은 영거새 축조에 관한 기록이다.

[가-②]: 한이 발흥하여 효무(孝武)의 시대에 이르러 사이(四夷)를 정벌함에 힘쓰고 위덕(威德)을 넓혔으며, 장건(張騫)은 서역으로 가는 길을 처음으로 개통했다. 그 후 표기장군(驃騎將軍)이 흉노의 우지(右地)를 공격하여 혼사왕(渾邪王)과 휴도왕(休屠王)을 항복시키고 마침내 그 지역에서(흉노를) 몰아낸 뒤 비로서 영거의 서쪽에 (성을) 쌓았다. 처음으로 주천군(酒泉郡)을 설치했고 그 후에 차츰 사민시켜서 그곳을 충실하게 채웠다.³¹

영거새는 흉노를 공격하여 위덕과 휴도왕을 항복시키고 새롭게 차지한 땅을 지키기 위해 영거현 및 주천군 등을 설치한 이후 세운 변새다. 영거새를 쌓은 후 서북(西北)과 통하게 되었다는 기록은³² 영거새 설치 목적이 서북 지역과

29 吳初驤(2005), 앞의 책, 184~185쪽. 이하 하서 지역 고고 조사 결과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모두 이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그림 1~6, 8>역시 이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30 吳初驤(2005), 위의 책, 17쪽.

31 『漢書』 卷96上「西域傳」, 3873쪽, “漢興至於孝武, 事征四夷, 廣威德, 而張騫始開西域之迹. 其後驃騎將軍擊破匈奴右地, 降渾邪·休屠王, 遂空其地, 始築令居以西, 初置酒泉郡, 後稍發徙民充實之.”

32 『漢書』 卷61「張騫傳」, 2693~2694쪽, “而漢始築令居以西, 初置酒泉郡, 以通西北國.”; 『史記』 卷123「大宛列傳」, 3170쪽, “而漢始築令居以西, 初置酒泉郡以通西北國.”

의 교통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일찍이 진몽가(陳夢家)는 영거새의 위치를 영거 북쪽으로 장액(張掖)·휴도(休屠)·무위(武威)를 지나 서쪽으로는 산단(山丹)을 거쳐 용수산(龍首山) 남쪽을 새로 삼고 감주하(甘州河)에서 모목(毛目)까지 강을 새로 삼았다고 보았다. 1930년대 서북과학고찰단(西北科學考察團)의 조사에서는 진이(鎭夷)에서 모목까지 감주하에 연하여 동쪽 연안에 봉대가 있으며 모목 남쪽 약 5~12km 사이에 봉대 외에 새장(塞牆) 유적이 있다고 하였다.³³ 『한서(漢書)』 기록에 따르면 영거새는 영거에서 시작하여 휴도성(休屠城)·택색곡(澤索谷)을 거쳐 주천까지 이르는 변새인데, 문헌 기록과 고고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금의 난주시(蘭州市) 황하(黃河) 북쪽 연안에서 영등현(永登縣), 천북장족자치현(天祝藏族自治縣), 고랑현(古浪縣), 무위시(武威市), 영창현(永昌縣), 산단현(山丹縣), 장액시(張掖市), 임택현(臨澤縣), 고대현(高台縣)을 거쳐 오늘날 주천시(酒泉市) 북쪽 대하(大河) 동쪽 연안까지 이른다고 하겠다. 1982년, 1984년에 걸쳐 진행된 주요 현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거새가 시작하는 난주시의 유지다. 이 지역의 새는 아마도 진대에 만든 새와 접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명대에 이르면 진의 새 위에 장성을 증건하였다. 고희강(顧頡剛)은 난주(蘭州)에서 조사할 당시 황하 남쪽 연안에 위치한 명대 장성을 진의 장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명대 장성 유지 아래 진대의 장성 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난주시 하구의 황하 북쪽 연안에는 한대 변새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록 인공 건축물은 없지만, 영거새는 이 지역의 자연 지형인 함수하(咸水河)·대홍산(大紅山)·황하 등을 이용하여 변새의 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인공으로 만든 참호는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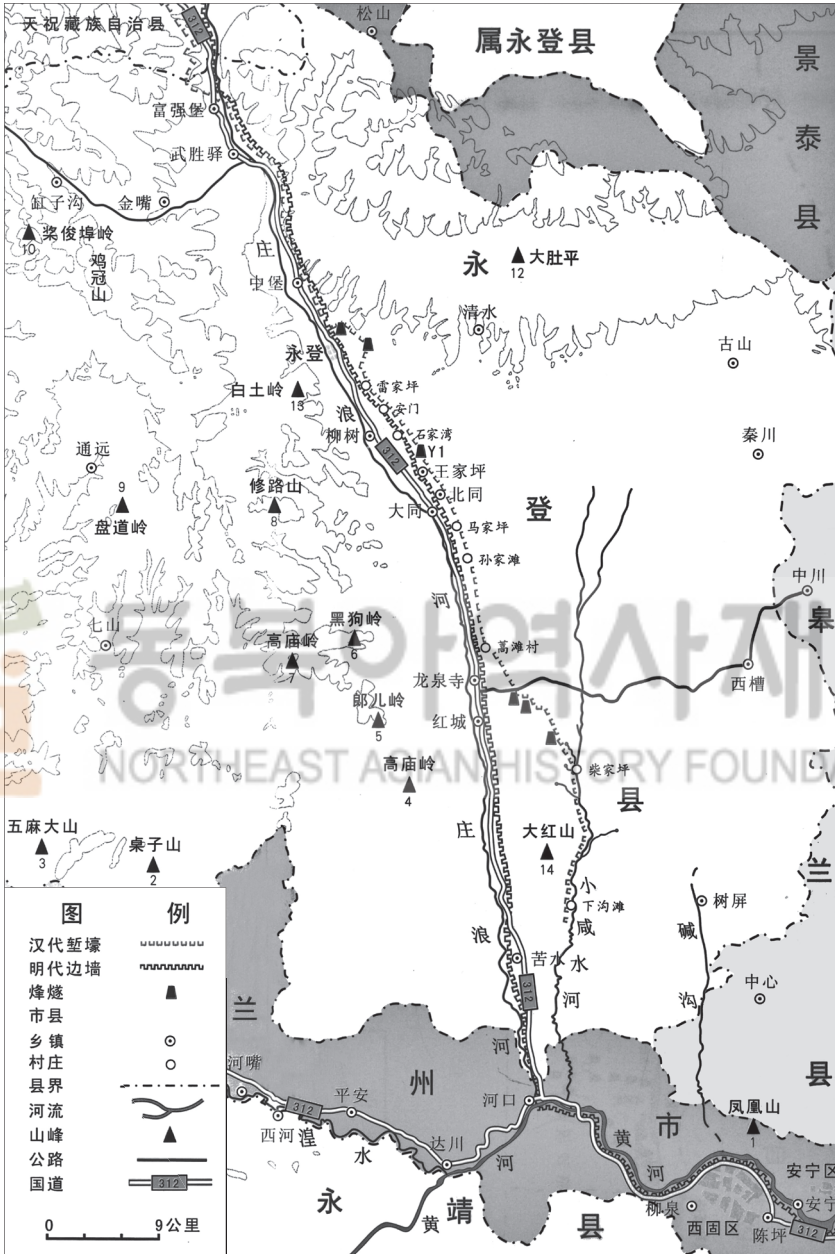
33 趙化成(1995), 앞의 글, 244쪽.

지만, 영거새의 기점은 바로 황하의 북쪽 연안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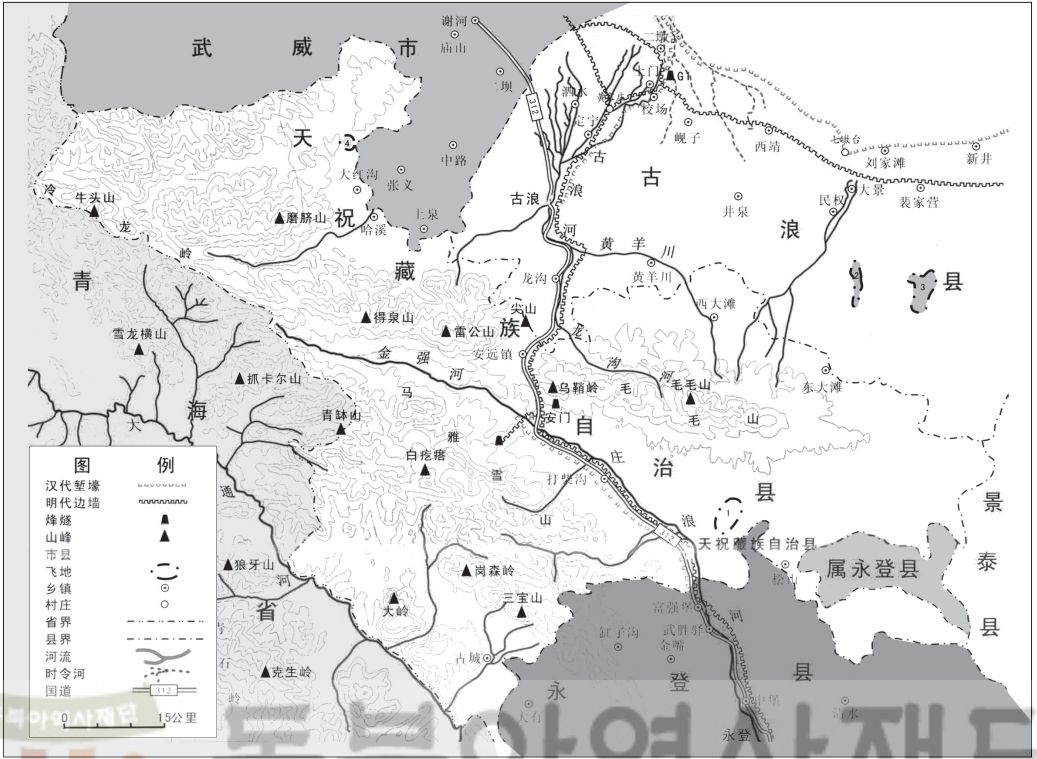
다음으로 영등현 부근의 유지다. 이 지역 변새는 주로 참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형상의 특징과 역도의 방향을 고려하여 대체로 산비탈에 참호를 만들었다. 현재 남아 있는 참호 유지는 보통 너비가 위 6~8m, 아래 1.5~2.5m, 깊이 0.5~2m 정도이며, 일부 지역은 산천·하류 등의 자연 지형을 이용하였고, 인공 제방은 만들지 않았다.

영거새는 영등현을 지나 천북장족자치현과 고량현을 지난다. 천북장족자치현의 변새는 영등현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부분 참호로 이루어져 있다. 한대 참호와 명대 담장으로 된 장성 유지는 두 갈래로 나란히 이어지다가 오초령구(烏鞘岭隘口) 남쪽 약 1.7km의 대둔(大墩)에서 하나로 합쳐져 북쪽 고랑협구(古浪峡口)의 오초령 지역에 이른다. 한대 이 지역에 만든 참호는 명대 온전히 복구하여 증축하였으며 장성의 담장을 쌓을 때 이 지역에 원래 존재하던 참호를 없애지 않고 더 깊이 파거나 돈대를 만들어 이용하면서 별도의 담장을 쌓는 형태로 장성을 건설하였다. 고량현의 한대 참호 역시 산세를 이용하여 만들었으며, 명대에도 그대로 이용하였다. 한대 참호는 두가장촌(杜家庄村)에서 산기슭을 따라 동북을 향하고 다시 북으로 토문진(土門鎮) 동쪽을 거쳐 태자육대(太子六隊)에 이르는데, 그 주향은 명대 장성 유지와 긴밀하게 엮여 있다.

다음으로 무위시에서 장액시에 이르는 구간의 유지다. 무위시에 세운 변새는 동남쪽으로 지금의 고량현 한대 참호 유지와 접하며, 송합수[松陝水, 현재 고량하(古浪河)]에서 시작하여 칠둔자(七墩子)·팔둔자(八墩子)·양권호(羊圈毫)를 거쳐 구둔자(九墩子)에 이르고 영창현의 참호 유지로 이어진다. 이 지역 변새의 구조는 참호에 해당하는데, 일부에서는 이 곳 명 장성은 한 장성을 이용하였고 봉수 역시 대부분 명대 보수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의견으로 한대 영거새는 대부분 참호 형태이므로 이 지역 역시



〈그림 1〉 영등현 부근 유지



〈그림 2〉 천북장족자치현 부근 유지(위)

담장을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발견된 둔대의 형태 역시 한대 봉수의 특징을 띠고 있지 않다. 다만, 서쪽 변세에서는 지형을 이용하여 장벽으로 삼았고, 그 주변으로 봉수나 장·오(塙) 등의 부대시설을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창현의 변세는 무위시 쌍성향(雙城鄉) 고두구촌(高頭溝村) 북쪽으로 북하(北河)가 굽이쳐 흐르는 곳에서 시작하여 산단현 경내로 들어간다. 이 지역에서는 한대 봉수 및 참호 유지가 발견되었고, 비록 동단(東端)이 소실되어 분명치 않으나 참호 형태의 변세였을 것으로 보인다. 명 중엽 장성을 축조할 때 한대 변세 유지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금천협(金川峽) 부근의 경우 명대에도 담장을 쌓지 않고 한대와 같이 협곡을 장벽으로 삼았다. 영창현의 변세는 다시 산단현으로 이어지는데, 정羌묘보(定羌廟堡) 동쪽 2.6km에 있는 영창현과의



〈그림 3〉 고려현 부근 유지(아래)

경계에서 시작하여 장액시 유지로 연결된다. 이 지역 변새 역시 참호 위주로 만들었고 참호 유지를 따라 봉수 유지 12좌(座)가 발견되었다. 다만, 산단현 성 서쪽에서 동악향(東樂鄉) 서둔촌(西屯村)까지 산단하(山丹河)를 따라서는 한대 참호 유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산단하를 천연 장벽으로 삼아 한대 참호를 만들지 않았거나 혹은 명 장성을 쌓으면서 개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무위사에서 장액시로 연결되는 영거새는 이후 서북쪽 주천시까지 연결된다. 장액시의 변새 유지 동단은 동대산(東大山) 동남 기슭의 연동구(烟洞口)에서 멈추고, 서단(西端)은 북대산(北大山) 정상 동쪽의 소구자(小口子)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흑하 연안을 향하여 임택현으로 이어진다. 즉, 장액시 유지의 경우 지금의 용수산(龍首山)을 중심으로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방비하였을 뿐 인

공 제방이나 참호를 만들지 않았다. 임택현의 유지 역시 참호 위주로 되어 있다. 한대 이 지역에는 남북으로 두 갈래의 새를 만들었는데, 남쪽 새의 경우 주요 방어선으로서 흑하를 끼고 봉수 유지가 밀집되어 있다. 이후 고대현 육파향(六垓鄉) 오파촌(五垓村)으로 연결되는 변새는 흑하를 따라 주천시까지 이어진다. 고대현에서 발견되는 변새 또한 주로 참호 형태다. 흑하 주변으로 남·북 방향의 새를 만들었는데, 그 중 남쪽 새의 참호와 봉수는 대부분 훼손되었고 북쪽 새의 경우 대부분 지형을 이용하였고 주변으로 봉수선이 확인된다. 영거새의 종점인 주천시에 남아 있는 변새도 참호 형태다. 명 초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이곳의 한대 참호를 이용하였고 봉수 역시 수보하여 사용하였다.

(2) '주천-옥문관'에 이르는 새

주천에서 옥문관(玉門關)까지의 새는 하서 4군(郡) 설치 이후 원봉(元鳳) 4년(기원전 107년)에 축조된 장성이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가-③] 그 다음해 고사(姑師)를 공격하였는데 파노(破奴)와 경기(輕騎) 700여 명이 먼저 도착하여 누란왕(樓蘭王)을 포로로 잡고 마침내 고사를 격파하였다. 이어서 군대의 위세로써 오손(烏孫)·대완(大宛) 등의 나라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귀환하자 파노는 착야후(泥野侯)에 봉해졌다. (원봉 3년) 왕희(王恢)는 여러 차례 사신으로 갔다가 누란에게 고통을 받았고, 이를 천자(天子)에게 아뢰자 천자는 군대를 보내어 왕희에게 파노를 보좌하여 그들을 격파하도록 하였다. 왕희는 호후(浩侯)에 봉해졌다. (원봉 4년) 이때에 주천의 정(亭)·장(鄣)이 옥문까지 연결되게 되었다.³⁴

34 『史記』 卷123 「大宛列傳」, 3171~3172쪽, “其明年, 擊姑師, 破奴與輕騎七百餘先

즉, 위의 『사기』 「대완열전(大宛列傳)」이나 『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주천에서 옥문관³⁵까지의 새를 축조한 시기는 왕희를 호후에 봉했을 때다.³⁶ 한 무제가 종표후(從驃侯) 파노를 파견한 이유는 서역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누란과 고사에서 한의 사신을 위협하거나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흉노의 기병들이 자주 나타나서 서역으로 가는 사신들을 가로막고 공격하기도 하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제는 파노를 중심으로 속국과 각 군의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흉노를 치게 하였던 것이다. 왕희는 서역으로 여러 차례 사행을 다녀오면서 누란의 방해로 고통을 겪었고 그 고충을 황제에게 고하였다. 이런 점에서 주천에서 옥문관까지의 새는 흉노의 기습을 막고 서역으로 가는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장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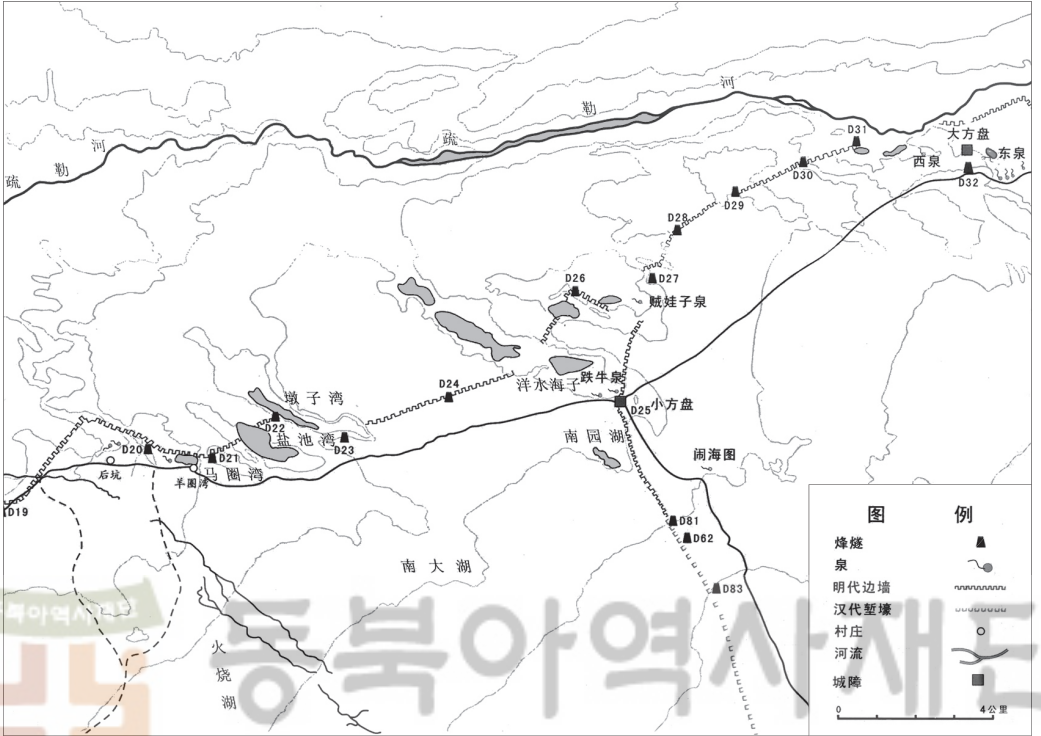
주천에서 옥문관에 이르는 변새 유지는 하서 지역 한 장성 유지 중 비교적 보전이 잘되었고, 참호가 아니라 담장을 쌓은 형태의 변새다. 이 지역 장성 유지는 이미 여러 차례 고고 조사가 진행되어 그 실체가 자세히 밝혀졌다. 발굴 조사는 20세기 초부터 주로 둔황(敦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찍이 영국의 스타인은 1906~1918년, 1913~1915년에 걸쳐 두 차례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장성 봉수 유지에서 한대 간독 789매를 발견하기도 하였다.³⁷ 이후 1944

至，虜樓蘭王，遂破姑師。因舉兵威以困烏孫·大宛之屬。還，封破奴爲浞野侯。王恢數使，爲樓蘭所苦，言天子，天子發兵令恢佐破奴擊破之，封恢爲浩侯。於是酒泉列亭鄣至玉門矣。”

35 여기서 옥문은 옥문현이 아니라 옥문관을 말한다. 한대 옥문현은 오늘날 옥문시 寬灘山 남쪽 赤金綠洲에 위치하였고 한대 장·새 유지는 寬灘山 북쪽의 花海綠洲 북쪽에 위치하였다. 吳初驥(2005), 앞의 책, 16~17쪽.

36 『漢書』 卷61 「張騫傳」, 2695쪽, “明年，擊破姑師，虜樓蘭王。酒泉列亭鄣至玉門矣.”; 『漢書』 卷96上 「西域傳」 鄯善國, 3876쪽, “還，封破奴爲浞野侯，恢爲浩侯。於是漢列亭障至玉門矣。”

37 스타인은 1907년 제2차 중앙아시아 조사를 하면서 한대 유적을 발견하였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다. 1914년에는 제3차 중앙아시아 조사를 하면서 둔황 근처 한대 유적과 소륙



〈그림 4〉 돈황시 소방반성(小方盤城) 부근 유지

년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중앙박물관(中央博物院), 북경대학(北京大學) 문과연구소(文科研究所)는 연합하여 서북과학고찰단 역사고고조(歷史考古組)를 조직하고 해서 지역 고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 조사단은 하내(夏鼐)·염문유의(閔文儒)의 인도하에 돈황에서 출발하여 소방반성(小方盤城)에 이르렀고 이후 돈황과 안서(安西) 교계 지역에서 한새와 봉수 유지를 조사하였다. 1979년 감숙성(甘肅)

하 유역을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발견한 문서는 프랑스 한학자 E. 샤반이 연구하였다.



〈그림 5〉 속북몽고족자거현(肃北蒙古族自治县) 부근 유지

省) 문물공작대[文物工作隊, 감숙성 문물고고연구소(文物考古研究所)의 전신]와 둔황현 문화관은 둔황현에 속한 변새와 봉수 유지를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궐만(馬圈灣) 봉수 유지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1979년 이후 감숙성 문물고고연구소에서는 각지의 박물관과 연계하여 안서현(安西縣)·옥문시(玉門市)·금탑현(金塔縣)의 변새 유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오늘날 둔황시는 한대 용록현(龍勒縣)·둔황현, 옥문·중부(中部)·양관도위(陽關都尉), 언천후관(假泉候官)·유곡후관(柳谷候官)의 관할구역을 대체로 포괄한다. 이 지역의 장성은 남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북쪽 장성의 경우 옥문도위

(玉門都尉) 대전도후관(大煎都候官)과 옥문후관(玉門候官) 및 중부도위(中部都尉) 관할지역의 변세 유지가 확인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옥문도위 대전도후관 소속 변세의 서단은 우수천분지(榆樹泉盆地)의 호박(湖泊)과 소택을 천연 장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공 담장을 쌓지 않았고 참호 유지만 발견되었다. 동단과 북단에서는 모두 담장이 발견되었는데, 북단 담장의 경우 갈대를 3층으로 쌓아 만들었다. 옥문후관 관할구역에 속한 장성 유지에서는 인공 담장이 발견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총길이는 13km다. 중부도위 소속 장성 유지의 경우 소택이나 호수가 있었던 곳에는 인공 담장을 쌓지 않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담장을 쌓았다. 장성의 서쪽은 대방반성(大方盤城) 서북의 소록하 남쪽 연안에서 시작하여 호탄(湖灘)을 거쳐 조호수(條湖水) 가에 이르며 현재 남아 있는 길이는 약 3.9km다. 조호(條湖)·파나호(波羅湖)·소유토호탄(酥油土湖灘)은 소록하의 하도(河道)에 있는 호수로서 한대에는 통행이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서쪽의 조호에서 소유토호탄 가에 이르기까지 약 10km에는 인공 담장을 쌓지 않았다. 소유토호탄의 동쪽으로 인공 담장 유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길이는 약 4.2km이다. 다음으로 남쪽 장성의 경우 양관도위의 관할구역에 속하였다. 양관도위 소속 봉수 유지는 아직 본격적인 고고 발굴이 진행되지 않았고 출토 자료 역시 많지 않다. 북쪽 지역 장성이 인공 담장을 쌓아 만든 것과 달리 양관도위 소속의 변세는 주로 참호로 되어 있다.

돈황시 이외 지역에서도 인공 담장 형태의 장성 유지가 발견되었다. 오늘날 안서현은 한대의 효곡현(效谷縣) 북쪽 경계와 광지현(廣至縣), 명안현(冥安縣), 연천현(淵泉縣)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화도위(宜禾都尉) 관할구역에서 봉수 유지 17곳, 장·오 유지 1곳 및 돈황시의 장성과 연결되는 장성 유지가 확인되었다. 지금의 옥문시는 한대 간제현(干齊縣) 지역으로서, 이곳에서도 판축하여 쌓은 장성 유지가 발견되었다. 아울러 한대 회수현(會水縣)

관할구역인 오늘날 금탑현에서도 장성 유지가 확인되었는데, 이곳 장성은 고산(高山)·심곡(深谷)과 같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되 주요 통로에 인공 담장을 쌓은 형태다.

(3) ‘옥문-염택’ 사이의 새

돈황 서쪽에서 염택(鹽澤)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변새로서, 이광리(李廣利)가 대만을 정벌한 이후인 천한(天漢) 초 기원전 100년~기원전 99년에 세워졌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가-④] 이사장군(貳師將軍)이 대완(大宛)을 정벌한 뒤 서역이 두려움에 떨었고 많은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헌상했으며, 한에서 서역으로 사신을 갔던 사람들은 더욱 더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돈황에서 서쪽으로 염택에 이르기까지 자주 정(亭)을 세웠다. 또한 윤대(輪臺)와 거리(渠犂)에는 전졸(田卒) 수백 명이 있어 사자교위(使者校尉)를 두고 (그들을) 지휘·보호하면서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생산되는 식량을) 지급하게 했다.³⁸

[가-⑤] 한이 대완을 정벌한 뒤 매채(昧蔡)를 대완의 왕으로 세우고 떠났다. …… 한은 10여 차례 사신단을 대완의 서쪽 여러 외국에 보내어 진기한 물건을 구하고 대완을 정벌한 위덕을 과시하였다. 또한 돈황에 주천도위(酒

38 『漢書』卷96上「西域傳」, 3873쪽, “自貳師將軍伐大宛之後, 西域震懼, 多遣使來貢獻, 漢使西域者益得職, 於是自敦煌西至鹽澤, 往往起亭, 而輪臺·渠犂皆有田卒數百人, 置使者校尉領護, 以給使外國者.”

泉都尉)를 설치하고 서쪽으로 염수(鹽水)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정(亭)이 있었다. 윤두(侖頭)에는 둔전의 사졸 수백 명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사자를 두어서 둔전과 쌓인 곡식을 보호하고 외국에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³⁹⁾

위의 기록을 보면 이곳의 변새를 설치한 목적은 서역으로 가는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기』·『한서』의 기록 모두 둔황에서 서쪽으로 염택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이 있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수비 시설인 정을 연결해서 설치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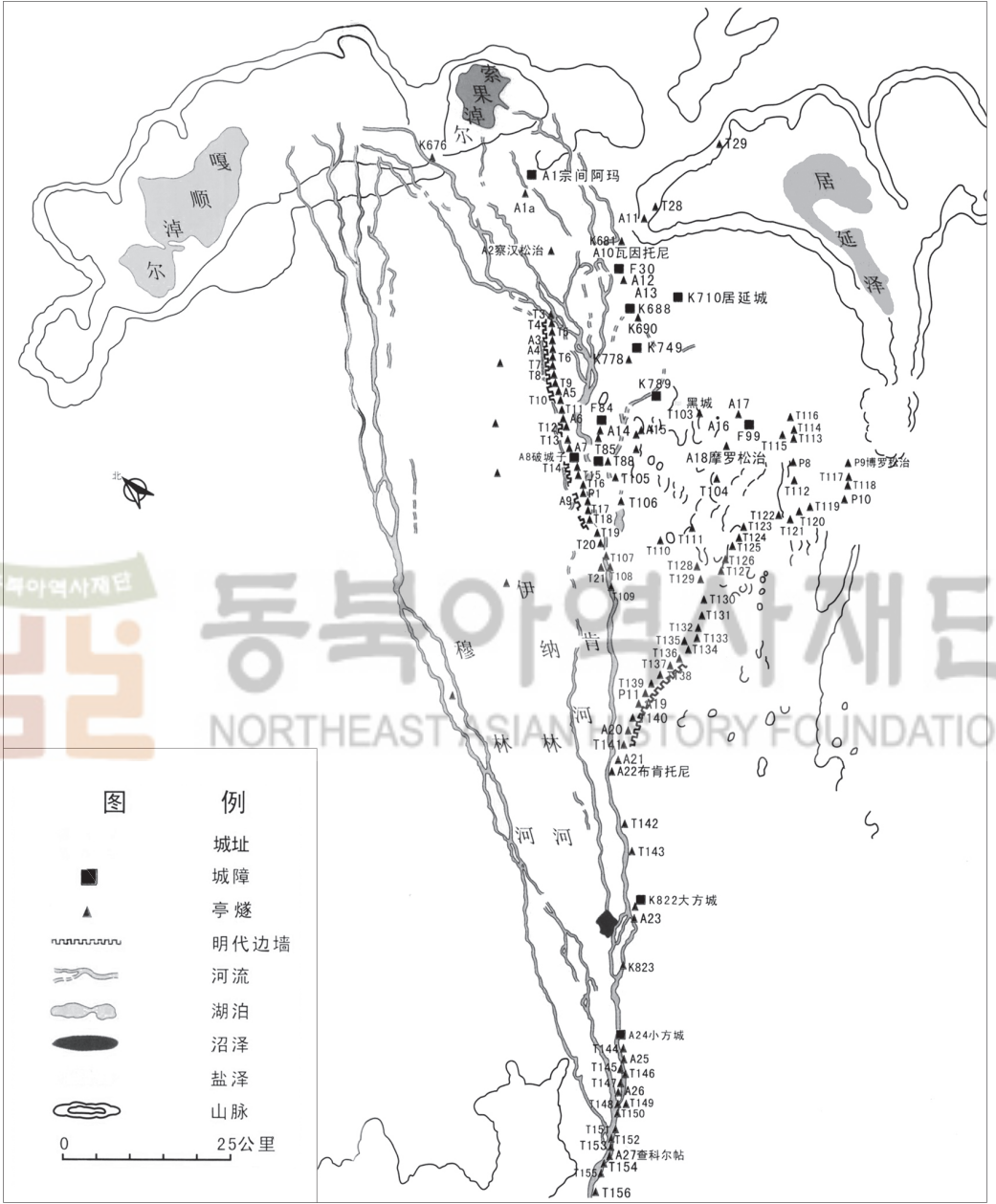
이 유지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930~1934년 서북과학고찰단의 조사에서 황문필(黃文弼)은 한대 봉대 유지에서 간독 70매를 발견하였다. 한간(漢簡)에서 확인된 연호는 한 선제(宣帝) 황룡(黃龍) 원년에서 성제(成帝) 주천 5년(기원전 8년) 사이로서, 성제 때까지 이곳이 계속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⁴⁰⁾ 문물 조사 결과 둔황 서북쪽에서 성·장과 봉수 유지 및 이들을 연결하는 인공 담장 유지가 확인되었다.

(4) '주천-거연'까지의 새

다음으로 장액에서 거연택(居延澤)까지 쌓은 변새다. 일찍이 진몽가는 축조 시기를 태초(太初) 3년(기원전 102년)으로 보았는데, 이는 다음의 기록에 근거하였다.

39 『史記』 卷123 「大宛列傳」, 3179쪽, “漢已伐宛, 立昧蔡爲宛王而去, …… 而漢發使十餘輩至宛西諸外國, 求奇物, 因風覽以伐宛之威德, 而敦煌置酒泉都尉, 西至鹽水, 往往有亭, 而侖頭有田卒數百人, 因置使者護田積粟, 以給使外國者.”

40 趙化成(1995), 앞의 글, 246쪽.



(그림 6) 액제납하(額濟納河) 유역 유지

[가-⑥] 아단우(兒單於)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었다. 그 이들의 나이가 어렸다. 흉노에서는 그의 숙부이자 오유단우(烏維單於)의 동생인 우현왕(右賢王) 구리호(嚠犁湖)를 선우로 세웠다. 이 해가 태초 3년(기원전 102년)이었다. 구리호단우(嚠犁湖單於)가 즉위하자 한에서는 광록훈(光祿勳) 서자위(徐自爲)를 시켜 오원새(五原塞)에서 수백 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멀리 천여 리에 걸쳐 성·장·열정(列亭)을 쌓아 (흉노의 영역인) 여구(廬胸(山))까지 연결하게 했다. 유격장군(游擊將軍) 한설(韓說)과 장평후(長平侯) 위항(衛伉)을 그 근방에 주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노도위(疆弩都尉) 노박덕(路博德)을 거연택 근처에 (요새를) 쌓고 거주하게 했다. 그 해 가을 흉노가 정양군(定襄郡)·운중군(雲中郡)으로 대거 (침입해) 들어와 수천 명을 죽이거나 잡아갔다. 이천 석(의 고관) 몇 명이 (이끄는 군사들) 격파한 뒤, 돌아가면서 광록훈 서자위가 구축한 성·열정·장마저 파괴하였다.⁴¹

위의 『사기』 「흉노열전(匈奴列傳)」에 따르면 한 무제는 태초 3년에 광록훈 서자위를 시켜 장·정을 일렬로 연결하여 쌓게 하였다. 『한서』에 보면 태초 3년(기원전 102년)에 강노도위 노박덕이 거연을 쌓았다고 하는데,⁴² 『한서』 「지리지(地理志)」에 대한 안사고(顔師古)의 주(注)에 따르면 이는 무제가 노박덕을 시켜

41 『史記』 卷110 「匈奴列傳」, 2916쪽, “兒單於立三歲而死, 子年少, 匈奴乃立其季父烏維單於弟右賢王嚠犁湖爲單於, 是歲太初三年也, 嚠犁湖單於立, 漢使光祿徐自爲出五原塞數百里, 遠者千餘里, 築城鄣列亭至廬胸, 而使游擊將軍韓說·長平侯衛伉屯其旁, 使疆弩都尉路博德築居延澤上, 其秋, 匈奴大入定襄·雲中, 殺略數千人, 敗數二千石而去, 行破壞光祿所築城列亭鄣.”

42 『漢書』 卷94上 「匈奴傳」, 3776쪽, “句黎湖單於立, 漢使光祿徐自爲出五原塞數百里, 遠者千里, 築城障列亭至廬胸, 而使游擊將軍韓說·長平侯衛伉屯其旁, 使強弩都尉路博德築居延澤上.”

거연성(居延城)에 장을 쌓게 한 일을 말한다.⁴³ 한의 군대가 거연을 취하고 성을 쌓아 공고히 한 까닭은 흉노의 침입 노선을 통제하기 위해서였고, 거연은 흉노와 강족(羌族)의 교통로를 끊기 위해 장악해야 했던 중요한 지역 중 하나였다.⁴⁴

거연새(居延塞)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1930년 4월~1931년까지 중국·스웨덴 연합 중국 서북과학고찰단은 지금의 내몽고자치구 액제납기(額濟納旗)와 감숙성 금탑현(金塔縣) 경내의 액제납하(額濟納河) 유역에서 고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대 새·장·오·정·수(燧) 유지를 발견하였다. 1972년에는 감숙성 박물관·주천지구(酒泉地區) 문교국조성(文教局組成) 거연고대(居延考古隊)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1973~1974년에는 견수금관(肩水金關)이나 신거후관 및 제4봉수 유지를 차례로 발굴·조사하였고 아울러 2만 매에 달하는 한간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거연새는 거연택의 서쪽에서 시작하여 색과뇨이남(索果洮爾南) 액제납하(약수(弱水))를 따라 서남쪽으로 비스듬하게 모목까지 이르는 변새로서 길이는 약 900리다. 대부분 하천을 이용하여 새로 심었는데 강 연안의 정·장은 대부분 토괴(土壤)로 만들었고 일부는 판축하여 인공으로 세우기도 하였다. 봉대의 간격은 약 1,300~2,000m이며 봉대 사이는 담장으로 연결되었다.⁴⁵

거연도위가 관할하였던 지역은 방향에 따라 북쪽의 진북새(珍北塞), 남쪽의 책정새(冊井塞), 서쪽의 갑거새(甲渠塞)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갑거새의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새의 담장은 모래·잘게 부순 돌·풀 등을 섞어서 쌓

43 『漢書』 卷28下「地理志」張掖郡, 1613쪽, “居延, 居延澤在東北.”

44 張榮芳·王川(1995), 앞의 글, 106~107쪽.

45 趙化成(1995), 앞의 글, 106~107쪽.

았는데, 관측하지 않았고 높이 역시 매우 낮다. 거연새는 거연성을 중심으로 성·장 및 봉수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방어 체계 형태를 띠고 있지만, 변새를 구성하는 담장이 매우 낮아 이를 장성의 일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외 견수도위 관할지역의 변새나, 북부도위(北部都尉)가 관할하였던 변새 역시 그 유지가 불분명하고 담장의 높이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거연도위, 견수도위, 북부도위, 동부도위(東部都尉) 관할 지역 변새를 장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⁴⁶

그러나 이 지역 변새는 담장의 높이가 낮더라도 장성의 기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제국의 북변 경계로서 국경의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 변새는 한 장성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한 장성의 범주를 정할 때 현재 남아 있는 변새의 형태만을 근거로 장성 여부를 판정하기보다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였고 인식되었는가를 고려하여 그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

(5) 새외 장성

앞서 [가-①]에 인용한 전한(前漢) 원제(元帝) 시기 낭중(郎中)이었던 후응(侯應)은 무제 때 축조한 변경 수비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⑦] (한의 변새) 밖으로 음산(산백)이 있는데 동서로 천여 리이며 초목이 무성하고 짐승들이 많습니다. 본래 모돈단우(冒頓單於)는 그 안에 기대어 머물면서 활과 화살을 만들고 밖으로 나와 노략질하였습니다. 이는 (흉노의) 안마당입니다. 무제의 치세에 이르러 군대를 출동시켜 정벌하여 이 지역을 열어 빼앗고 (흉노를) 사막 북쪽으로 몰아냈습니다. 새·요(徼)를 건설하

46 景愛(2006), 앞의 책, 193~198쪽.

고 정과 수(隧)를 만들었으며 (요새 밖에) 외성(外城)을 쌓고 주둔군을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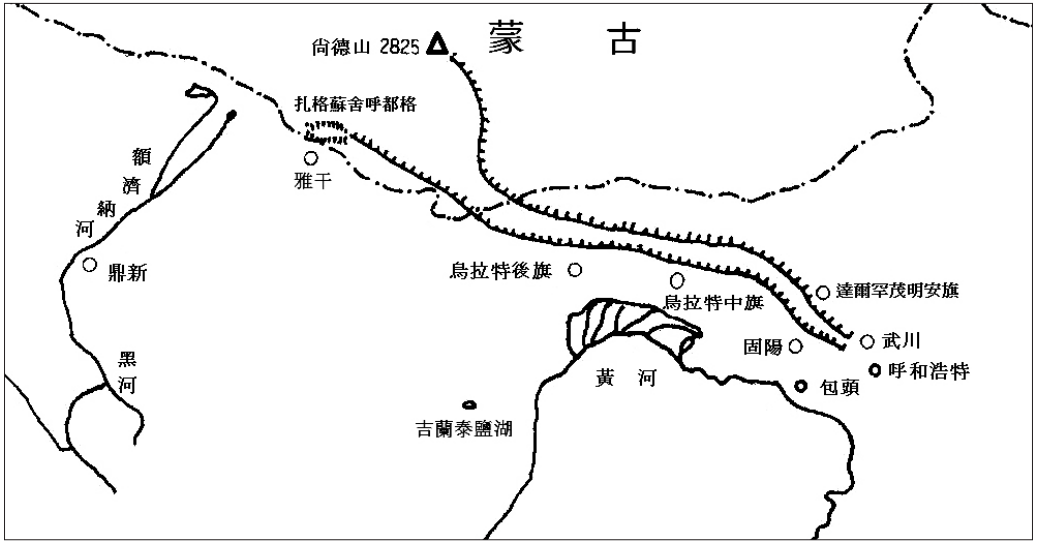
후응의 설명에 따르면 한 무제 시기 요새 밖에 외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시켜 수비하기 시작하였다. 후응이 말한 변새 밖의 외성은 바로 광록훈 서자위 가 축조한 오원새 이북의 장성을 의미한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가-⑧] 구려호단우(句黎湖單於)가 즉위하자 한에서는 광록훈(光祿勳) 서자위(徐自爲)를 시켜 오원새에서 수백 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멀리 천여 리에 걸쳐 성·장·열정을 쌓아 (흥노의 영역인) 노구산(盧胸山)까지 연결하게 했다. 유격장군(游擊將軍) 한설(韓說)과 장평후(長平侯) 위항(衛伉)을 그 옆에 주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노도위 노박덕을 거연택 주변에 (요새를) 쌓고 거주하게 하였다.⁴⁸

여기서 오원새는 한대 오원군(五原郡) 안의 변새로서 음산 남북의 전국 조장성과 진 장성을 말한다. 이 새외 장성은 태초 3년(기원전 102년) 음산 이북에 쌓은 장성으로서, 오원새 밖으로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노구산에 이른다고 하였다.

47 『漢書』卷94下「匈奴傳」, 3803쪽, “應曰, 周秦以來, 匈奴暴桀, 寇侵邊境, 漢興, 尤被其害, 臣聞北邊塞至遼東, 外有陰山, 東西千餘里, 草木茂盛, 多禽獸, 本冒頓單於依阻其中, 治作弓矢, 來出爲寇, 是其苑囿也, 至孝武世, 出師征伐, 斥奪此地, 攘之於幕北, 建塞徼, 起亭隧, 築外城, 設屯戍, 以守之。”

48 『漢書』卷94上「匈奴傳」, 3776쪽, “句黎湖單於立, 漢使光祿徐自爲出五原塞數百里, 遠者千里, 築城障列亭至盧胸, 而使游擊將軍韓說·長平侯衛伉屯其旁, 使強弩都尉路博德築居延澤上。”



〈그림 7〉 한대 새외 장성

1970년대 이후 고고학자들은 서자위가 수축한 새외 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하여 남·북 양 갈래로 평행한 장성을 발견하였다. 1975~1976년 내몽고 문물공작대는 조격기(潮格旗) 오력길공사(烏力吉公社) 서북쪽 50km 떨어진 곳에서 한 무제 시기 축조한 성을 발견하였다. 이곳의 지명은 ‘조노고륜(朝魯庫倫)’인데, 이는 석성(石城)이라는 뜻이다. 이 성 동쪽으로 한대 돌로 쌓은 양 갈래의 장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자위가 축조한 것이다. 조노고륜 동북의 작은 산이 장성을 두 갈래로 나누는데, 북면 장성에 연이어 고성(高城)이 분포하고 이후 아이태(阿爾泰) 산맥까지 뻗어 있다고 한다. 남쪽에는 다수의 성·장과 봉대가 확인되는데, 성·장의 간격은 대체로 10km 간격이며 조노고륜 역시 그 중 하나다.⁴⁹

49 張榮芳·王川(1995), 앞의 글, 107쪽.

새외 장성의 주향⁵⁰은 우선 북장성의 경우 무천현(武川縣)에서 시작하여 서북 방향으로 오랍특중기(烏拉特中旗), 오랍특후기(烏拉特後旗), 남과벽성(南戈壁省)을 지나 파언달뢰(巴彥達賴) 부근의 상덕산(尙德山)까지 연결되며 총길이는 약 577km이다. [가-⑧]의 기록에서 새외 장성을 흉노의 영역인 노구산까지 연결시켰다고 하는데, ‘노구’는 안사고(顔師古)의 설명과 같이 산 이름이며 오늘날 상덕산에 해당한다. 즉, 북장성은 동쪽의 음산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노구산에 이르는 것이다. 북장성의 형태는 대개는 흙을 판축하여 담장을 쌓았으며, 돌을 쌓아 올린 곳도 있다. 담장의 기단은 너비 3~6m이고 현재 남아 있는 높이는 0.5~3m이다. 다음으로 남장성은 북장성과 마찬가지로 무천현에서 시작하여 고양현(固陽縣), 달이한무명안기(達爾罕茂明安旗), 오랍특중기, 오랍특후기를 지나 서쪽으로 몽골의 남과벽성에까지 연결된다. 총길이는 808km이고 찰격소사호도격(扎格蘇舍呼都格) 부근이 종점이다. 남장성의 무천현·고양현 등지 담장은 흙이나 돌을 쌓아 만들었고, 자갈로 된 사막[戈壁] 지역은 모두 돌을 쌓아 만들었다. 담장 기단의 너비는 3~4m이고, 현재 남아 있는 높이는 약 0.5~3m이다. 남장성에 부속된 성·장·봉수의 수는 북장성에 비해 많은데, 장성 근처에 설치된 성보(城堡)는 한대 병사들의 주둔지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3) 무제 이후 장성 관리

사실 한 장성의 신축은 무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이후 시기는 부분적으로 장성을 보수하거나 장성 주변에 수비 시설을 확충하여 방어를 강화하였을 뿐 새로운 지역에 장성을 세우지는 않았다. 물론 일부에서는 요동(遼

50 <그림 7>은 景愛(2006), 앞의 책, 189쪽에서 인용.

東) 현토성(玄菟城) 수축 기록을⁵¹ 근거로 기원전 75년인 소제(昭帝) 재위 기간에 동쪽 장성을 수축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⁵² 이 기록을 장성 수축 기록으로 보기는 힘들다.

아울러 선제 시기 염택 이서(以西) 지역에서 고차(庫車)에 이르는 곳에 장성을 쌓았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문헌 기록에는 이 지역 장성 축조에 대한 기록이 없다. 특히 무제 또한 이 지역에 일련의 정(列亭)을 설치하자는 상홍양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⁵³ 문헌에 이 지역 장성 수축 관련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봉수를 비롯한 수비 시설 유지가 발견되면서 무제 이후 이곳에 장성이 세워졌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1920~1930년대 황문필은 서북과학고찰단을 따라 나포박(羅布泊) 북쪽의 공작하(孔雀河) 하류 봉수 유지에서 여러 매의 한간을 발견하였다. 그는 한간에서 확인된 연호 중 가장 이른 시기가 선제 황룡 원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 지역 변사는 신작(神爵) 2년(기원전 60년) 서역도호(西域都護) 설치 후 수축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스타인 역시 영반(營盤) 서북 지역, 공작하 북쪽 등지를 조사하면서 100리 이상으로 연결된 봉대를 발견하였는데, 이들 봉대는 신강성(新疆省) 고차 서북 지역까지 이른다. 또한 이곳에서 발견된 봉대의 구조는 하서 지역에 세워진 한대 봉대와 같은 형태이다. 후자는 선제 때 염택 이서 지역까지 장성이 확장되었음을 근거로 선제 초 장성의 동단은 패수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옥문관 이서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때 한 장성은 최소 11,500여 리에

51 『漢書』卷7「昭帝紀」元鳳 6年, 232쪽, “六年春正月, 募郡國徒築遼東玄菟城.”

52 張榮芳·王川(1995), 앞의 글, 108쪽.

53 『漢書』卷96下「西域傳」, “自武帝初通西域 …… 而搜粟都尉桑弘羊與丞相御史奏言, ‘…… 田一歲, 有積穀, 募民壯健有累重敢徙者詣田所, 就畜積爲本業, 益墾溉田, 稍築列亭, 連城而西, 以威西國, 輔烏孫, 爲便…….’”

달하는 규모를 갖추게 되어 장성 방어선의 최전성기를 맞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⁵⁴

그러나 염택 이서 지역까지 장성의 노선을 확장시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 기록 및 관련 고고 유지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비록 염택 이서 지역에서 한대 봉수나 기타 수비 시설 유지가 발견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근거로 제국의 국경 기능을 하였던 장성이 염택 이서 지역까지 확장되어 설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무제 이후 전한 시기 및 후한 시기에도 장성을 수보하거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등의 작업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건무(建武) 연간에 흉노가 계속적으로 북변을 공격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변경에 수비 시설을 확충하였다. 건무 연간 초 팽충(彭寵)이 어양군(漁陽郡)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선우는 그와 함께 연합하였고, 이를 계기로 세력을 회복하여 노방(盧芳)을 중심으로 오원군으로 들어와 거점을 삼았다. 건무 13년 흉노가 하동군(河東郡)을 침입하여 조정에서는 유(幽)·병주(并州)의 연변 사람들을 상산관(常山關)·거용관(居庸關) 동쪽으로 옮겼다. 그리고 연변의 병사들과 군민 등 수천 명을 동원하여 정·장을 세우고 봉수를 수리하는 등 변경 방어 시설을 정비하였다.⁵⁵ 즉,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두무(杜茂)를 보내어 형도 6천여 명을 동원하여 북변에 정·장을 세우고 봉수를 수리하게 한 것이다.⁵⁶ 이 때 정·장은 돌을 쌓고 흙으로 덮는

54 張榮芳·王川(1995), 앞의 글, 108쪽.

55 『後漢書』卷89「南匈奴列傳」, 2940쪽, “建武初, 彭寵反畔於漁陽, 單於與共連兵, 因復權立盧芳, 使入居五原, ……十三年, 遂寇河東, 州郡不能禁. 於是漸徙幽·并邊人於常山關·居庸關已東, ……朝廷患之, 增緣邊兵郡數千人, 大築亭候, 修烽火.”

56 『後漢書』卷1下「光武帝紀」建武 12年, 60쪽, “遣驃騎大將軍杜茂將眾郡施刑屯北邊, 築亭候, 修烽燧.”; 『後漢書』卷22 杜茂傳, 777쪽, “十二年, 遣謁者段忠將眾郡刑配茂, 鎮守北邊, 因發邊卒築亭候, 修烽火.” 驃騎大將軍 杜茂를 파견한 해가 건무

방법으로 만들었고, 길이는 300여 리로서 대군(代郡)에서 평성(平城)에 이르렀다.⁵⁷ 정·장 및 봉수는 일반적으로 한 장성에 부속된 시설이므로 이 때 북변 장성을 수보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변경 지역 이외 서하(西河)·안읍(安邑)·태원(太原) 및 업(鄴) 등에도 모두 보벽(保壁)을 쌓고 봉수를 만들어 방비하였던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⁵⁸ 북변에 설치한 수비 시설이 담장을 쌓아 연결한 장성의 형태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후한 순제(順帝) 시기 삭방군 이서 지역의 장·새를 수보하지 않아 선비(鮮卑)가 자주 남흉노 거주 지역을 침입하였다. 이에 남흉노 선우는 장·새의 복구를 건의하였고, 그의 건의에 따라 당시 변방 수비 병사들이 확충되어 수비가 강화되었다.⁵⁹ 그러나 무제 때와 같이 장성을 신축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후한 시기 북변 방어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대변한다. 무제 이후 장성 축조가 더 이상 시도되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남흉노를 비롯한 주변 민족이 북속해 오는 등 북변 방어의 필요성이 점차 약해졌기 때문이었다.⁶⁰ 이렇게

12년인지 13년인지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다. 『後漢書』 「南匈奴列傳」과 「王霸傳」에는 건무 13년 흉노의 침입 이후의 일로 기록되어 있고, 『後漢書』 「光武帝紀」와 「杜茂傳」에는 건무 12년으로 되어 있다. 이 글은 『後漢書』 「南匈奴列傳」 기사를 먼저 서술하였으므로, 일단 건무 13년으로 상정하였다.

- 57 『後漢書』 卷20 「王霸傳」, 737쪽, “十三年 …… 是時, 盧芳與匈奴·烏桓連兵, 寇盜尤數, 緣邊愁苦. 詔霸將刑徒六千餘人, 與杜茂治飛狐道, 堆石布土, 築起亭障, 自代至平城三百餘里.”; (注2) “飛狐道在今蔚州飛狐縣, 北通媯州懷戎縣, 卽古之飛狐口也.”
- 58 『後漢書』 卷22 「馬成傳」, 779쪽, “十四年, 屯常山、中山以備北邊, 并領建義大將軍朱祐營. 又代驃騎大將軍杜茂繕治障塞, 自西河至渭橋, 河上至安邑, 太原至井陘, 中山至鄴, 皆築保壁, 起烽燧, 十里一候.”
- 59 『後漢書』 卷89 「南匈奴列傳」, 2959쪽, “先是朔方以西障塞多不脩復, 鮮卑因此數寇南部, 殺漸將王. 單於憂恐, 上言求復障塞, 順帝從之. …… 增置緣邊諸郡兵, 列屯塞下, 教習戰射.”
- 60 『後漢書』 卷88 「西域傳」, 2912쪽, “至於宣·元之世, 遂備蕃臣, 關徼不閉, 羽檄不行.”;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建武 22年, 74~75쪽, “是歲 …… 匈奴莫韃日逐

볼 때 한 장성은 진 장성의 노선에 무제 시기 신축한 장성 노선을 더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2. 한 장성 연구의 문제점

중국에서 장성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3년 정부 9개 부서가 공동으로 장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지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이후 2005년 ‘장성보호공정(2005~2014년) 총체공작방안’이 만들어지면서 장성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수립되었고, 2006년 9월 <장성보호조례>가 상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성보호공정방안이 법률적 효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장성 보호공정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1단계는 ‘국가발전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 동안으로서 현재 완료되었다. 2단계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에 해당된다. 특히 1단계 사업이 끝난 후 중국 국가문물국에서는 역대 장성의 길이를 21,196km로 발표하였는데, 이 역대 장성에는 고구려와 발해 유지에 속하는 노변강토(老邊崗土) 장성과 목단강(牧丹江) 변장도 포함되어 있다.⁶¹ 중국 역대 장성의 노선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고구려 및 발해의 유지까지 중국 장성의 일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국내 학계의 심한 반발을 야기하였다.⁶²

王比遣使詣漁陽請和親，使中郎將李茂報命。烏桓擊破匈奴，匈奴北徙，幕南地空，詔罷諸邊郡亭候吏卒。”

61 이종수(2012), 「中國의 “長城保護工程”과 高句麗·渤海長城 現況 및 對應方案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제44집.

62 이에 관한 전반적인 비판은 이종수, 위의 글 및 남의현(2012), 「중국의 장성공정」, 『민족연구』 52 참조. 요동 지역 연·진·한 장성과 관련한 중국 측 연구의 문제점과 그 비판

1단계 사업의 결과로서 국가문물국이 역대 장성의 길이를 확정하여 발표한 사실은 한 장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 중국 학계에서도 한 장성의 개념 정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둘째 한대 서북변 변세 유지를 모두 한 장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한 장성의 개념 정의와 범주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오늘날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장성 공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⁶³

1) 한 장성의 개념 정의

중국 역대 장성에 대한 국가적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각 시대 장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시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한 장성의 경우, 문헌 기록과 장성 관련 유지 조사 결과만으로 한 장성 전체 주향(走向)과 노선을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대 문헌에 한 장성은 ‘장성’이 아니라, 변세의 일종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전국시대 변경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각국에서 변경에 장성을 쌓아 수비를 위한 방어선으로 삼고, 인접국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⁶⁴ 진 통일 이후 진시황은 임조에서 요동까지 약 만여 리에 달하는 장성을 쌓아 변

은 이종수(2011), 「遼東地域 燕秦漢 長城 調査現況 및 問題點 檢討」, 『한국사학보』 43; 오강원(2010), 「戰國時代 燕나라 燕北長城 동쪽 구간의 構造的 實體와 東端」, 『선사와 고대』 33 참조.

63 장성을 연속된 담장으로 이해하지 않고 거점과 거점의 연결로 이해하면서, 요동 지역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돈대와 전국시대 유물 출토지도 장성선의 주향을 밝히는 근거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장성의 동단을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한 복잡한 논쟁은 홍승현(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 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총』 35, 동북아역사재단, 365~371쪽.

64 송진(2014), 「春秋·戰國時代 國의 境界와 그 성격 변화」, 『中國古中世史研究』 31, 86~88쪽.

경의 수비 시설을 정비하였다. 『사기』 「몽염열전(蒙恬列傳)」에 따르면, 진시황은 몽염(蒙恬) 장군에게 명하여 장성을 쌓았다. 당시 장성은 황하를 비롯한 험한 지형을 이용하거나 돌로 성을 쌓고 나무를 심어[樹榆] 새를 만드는 등⁶⁵ 지형에 따라 요새를 연이어 만든 서북변의 수비 시설이었다.

진 멸망 이후 진 장성은 대체로 한 장성으로 계승되었다. 한 문제(文帝)는 흉노에 보내는 문서에 황제를 장성 안쪽 ‘관대지실(冠帶之室)’을 다스리는 군주로, 흉노의 선우를 장성 북쪽 ‘인궁지국(引弓之國)’을 통치하는 군주라고 표현하였다.⁶⁶ 이는 한 초에도 북변 장성은 흉노와 맞닿아 있는 제국의 국경으로 여겨졌음을 뜻한다. 다만, 문헌 기록에 전국시대 및 진의 장성은 ‘장성’으로 표기된 반면, 한 장성은 변세의 일종으로서 ‘새(塞)’ 혹은 ‘장(障)’으로 표기되어 있다. 예컨대 후한 영제 때 채옹(蔡邕)이 주변 민족과 제국을 구분하는 경계에 대해 진은 장성을 쌓았으며 한은 ‘새원(塞垣)’을 축조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한대 새원이 곧 진 장성과 동일한 기능을 하였음을 말한다.⁶⁷ 다음에 인용한 전한 성제 시기 낭중 후옹의 발언에는 한대 변세의 형태와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나-①] 성제 즉위 해 경녕(竟寧) 원년(기원전 33년)에 선우가 다시 입조하

65 『史記』 卷88 「蒙恬列傳」 28, 2565~2566쪽, “秦已并天下, 乃使蒙恬將三十萬衆北逐戎狄, 收河南, 築長城, 因地形, 用制險塞, 起臨洮, 至遼東, 延袤萬餘里.”; 『漢書』 卷52 韓安國傳, 2401쪽, “恢曰, ‘…… 及後蒙恬爲秦侵胡, 辟數千里, 以河爲竟, 累石爲城, 樹榆爲塞, 匈奴不敢飲馬於河, 置然後敢牧馬.’”

66 『史記』 卷110 「匈奴列傳」, 2902쪽, “孝文帝後二年, 使使遣匈奴書曰, ‘…… 先帝制, 長城以北, 引弓之國, 受命單於, 長城以內, 冠帶之室, 朕亦制之, …….’”

67 『後漢書』 卷90 「烏桓鮮卑列傳」, 2992쪽, “天設山河, 天設山河, 秦築長城, 漢起塞垣, 所以別內外, 異殊俗也, …….”

였다. …… 낭중 후응은 변경의 일에 익숙하였는데 그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천자는 사정에 대해 물었다. 후응은 말하였다. “…… 한이 흥성한 뒤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신이 듣건대 북방의 변새는 요동에 이릅니다. 밖으로 음산(산맥)이 있는데 동서로 천여 리이며 초목이 무성하고 짐승들이 많습니다. …… 무제의 치세에 이르러 군대를 출동시켜 정벌하여 이 지역을 열어 빼앗고 (흉노를) 사막 북쪽으로 몰아냈습니다. 요새[塞]와 울타리[徼]를 건설하고 감시 초소[亭]와 방어용 소로[隧]를 만들었으며 (요새 밖에) 외성을 쌓고 주둔군을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변경은 다소 안정을 바랄 수 있었습니다. …… 변새를 세운 지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요새는 모두 흙담을 세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산의 암석이나 잡목들이 부러졌거나 말라 죽어 쓰러진 곳, 계곡의 수문(水門) 등을 어느 정도 평탄하게 만들어 이용하기도 합니다. ……”⁶⁸

후응이 묘사한 한 초 북방 변새는 요동까지 이르렀고, 흉노를 방어하기 위한 변방 시설이었다. 이는 바로 진 장성을 계승한 한 초의 북방 변새다. 그리고 무제 때 흉노의 근거지를 빼앗은 후 그 북변에 설치한 새·요 및 정·수 등은 무제 때 신축한 한 장성을 말한다. 특히 후응은 무제 때 세운 변새를 설명하면서 모두 흙담으로 쌓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즉, 흙담을 쌓기도 하였지만, 때로 산의 암석이나 잡목 및 계곡의 수문 등을 적절하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68 『漢書』卷94下「匈奴傳」, 3803~3804쪽, “竟寧元年, 單於復入朝 …… 郎中侯應習邊事, 以爲不可許, 上問狀, 應曰, ‘…… 漢興, 尤被其害, 臣聞北邊塞至遼東, 外有陰山, 東西千餘里, 草木茂盛, 多禽獸 …… 至孝武世, 出師征伐, 斥奪此地, 攘之於幕北, 建塞徼, 起亭障, 築外城, 設屯戍, 以守之, 然後邊境得用少安. …… 起塞以來百有餘年, 非皆以土垣也, 或因山巖石, 木柴僵落, 谿谷水門, 稍稍平之 …….’”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장성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한 장성은 변세의 일종으로 인식되었고 또한 지칭되었다. 둘째, 한 장성의 형태는 연속된 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 장성과 같이 지형에 따라 고산·협곡을 이용하여거나 하류를 따라 목책·수문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한대 변경이나 주요 거점에는 요·정·장 및 관(關)·양(梁)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방어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장·오·수·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변경 방어 시설을 ‘새(塞)’라 칭하였고, 장성 역시 변세의 일종으로 인식되었다. 일반적으로 새에는 장·오·수·관 등이 부속 설치되었다. ‘장’은 모든 새의 요처에 세운 성으로서 ‘후성(候城)’이라 칭하였고,⁶⁹ 도위부(都尉府)나 후관(候官)의 치소(治所)를 말한다. 예컨대 돈황군 옥문도위가 주둔하였던 소방방성 유지는 장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오’는 대개 장보다 규모가 작으며, ‘소성(小城)’ 혹은 ‘비성(庫城)’이라 불리었다.⁷⁰ 오의 규모는 주둔하는 군사 기구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었고, 오의 외부에는 ‘호락(虎落(疆落))’을 설치하여 외부의 침입을 감시하였다. ‘수’는 문헌에 ‘정’, ‘정수(亭燧)’, ‘봉수’, ‘정장(亭鄣)’, ‘정후(亭候)’, ‘정요(亭徼)’ 등으로 표기되었고, 출토된 한간에서는 ‘정’, ‘수’, ‘정수’, ‘정장’ 등으로 불렸다. 변경에 설치된 정수는 기능에 따라 군사 계통의 봉수, 우역(郵驛) 계통의 우정(郵亭)·도정(都亭), 둔전(屯田) 계통의 농정(農亭), 치안 계통의 향정(鄉亭)·시정(市亭), 경위(警衛) 계통의 성정(城亭)·문정(門亭) 등으로 구분된다. 끝으로 변경에 설치된 ‘관’은 변경 지역 통행자를 검험(檢驗)하는 시설로서 주요

69 『史記』卷110「匈奴列傳」, 2916쪽, “築城鄣列亭”(注2)『正義』顧胤云, “鄣, 山中小城.”; 『史記』卷122「酷吏列傳」, 3141쪽, “復曰, 居一障間?”(注1)『正義』, “障謂塞上要險之處別築城, 置吏士守之, 以扞寇盜也.”; 『漢書』卷6「武帝紀」, 201쪽, “師古曰, 漢制, 每塞要處別築爲城, 置人鎮守, 謂之候城, 此卽障也.”

70 『後漢書』卷24「馬援傳」, 836쪽, “(注6)字林曰, 塢, 小障也, 一曰小城.”; 『後漢書』卷65「皇甫規傳」, “(注2)說文曰, 塢, 小障也, 一曰庫城也.”

교통로에 설치되었다.⁷¹ 이처럼 한대 문헌에 장성을 포함한 변경 수비 시설을 ‘새’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문헌 기록만으로 장·오·수·정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변새 중 장성만을 구분하여 파악하기는 어렵다.⁷² 따라서 한 장성은 변새에 대한 문헌 기록과 고고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그 위치와 주향을 추적해야 한다.

그런데 한대 변새의 구조와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서 지역 변새 유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길게 이어진 담장 형태로 새를 만들었지만 참호나 천전(天田)을 만들거나 산봉(山峰)·하류·소택·사막 등의 자연 지형을 장벽으로 삼기도 하는 등 그 형태가 다르다. 담장 역시 흙을 판축하여 쌓는 방법 외에 갈대·버드나무·자갈 등을 쌓아 담을 만들거나 심지어는 끈이나 책란(柵欄)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변새 중 한 장성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일은 사실 장성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장성의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가령 팽曦(彭曦)는 성장·봉수·장새가 장성의 필수 요소이며,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장성이 아니라고 보았다. 성장에 대해 그는 높은 지대에 흙을 다져서 성을 쌓거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깎거나 파서 성을 만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하였다.⁷³ 이에 비해 경애(景愛)는 장성의 필수 요소로서 5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경애의 정의에 따르면 장성은 ㉠ 연속되는 높은 성장이고, ㉡ 흙·돌·벽돌을 쌓아 만들

71 吳祜驤(2005), 앞의 책, 186~190쪽 참조. 새에 부속된 장·오·수·관의 자세한 형태와 구조는 홍승현(2012), 앞의 글, 348~352쪽 참조.

72 張維華(1941), 앞의 글, 56~57쪽.

73 彭曦(1995), 「十年來考察與研究長城的主要發現與思考」,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77쪽. 물론 흙을 다져서 쌓되 일부 돌이나 자갈을 쌓아 성을 만들거나 자연 지형을 이용한 참호 형태의 성을 만들되 부분적으로 흙이나 돌로 성을 쌓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었으며, ㉔ 적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시설이고, ㉕ 변경 지역에 수축되었으며, ㉖ 고대 건축물이다. 특히 그는 장성이 연속되는 담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장성이 갖는 연속성은 일반 정보와 구분되는 주요 특징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 개념 정의는 대체로 장성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팽희의 정의에 비해 경애는 인공적으로 쌓은 연속된 성장의 존재를 보다 강조하였다.

전술한대로 현재 중국 학계에서 한 장성으로 분류되는 유지는 크게 네 지역이다. 첫째 진 장성을 계승하여 진 장성과 노선이 겹치는 지역, 둘째 하서주량을 포함한 하서 지역, 셋째 ‘옥문-염택’ 사이의 새가 설치되었던 지역, 넷째 새외 장성이 세워졌던 내몽고 지역이다. 그중 하서 지역은 다시 ① ‘영거-주천’에 이르는 새 ② ‘주천-옥문관’에 이르는 새 ③ ‘주천-거연’까지의 새로 구분된다.

각 지역 장성 유지에서는 팽희가 언급한 필수 요소인 성장·봉수·장새가 모두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성장은 남아 있지 않고 기타 부속 시설이나 해당 시기 유물만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새를 축조한 방법 역시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가령 하서 지역에 설치된 영거새의 경우 주로 참호를 만들거나 험준한 산이나 하천을 이용하여 새를 만들었고 일부 지역에 흙을 사용하여 담을 쌓았다. 영거새의 총길이는 700km인데, 그중 약 216km에만 인공 담장을 쌓았고 나머지 지역은 참호나 자연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영거새 유지 근처에는 후대 세워진 명 장성 유지가 남아 있는데, 명 장성의 경우 한대 참호를 팠던 지역에도 담장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경애는 명 장성과 달리 참호나 자연 지형 위주로 구성된 영거새를 장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다.⁷⁴ 하서 지역 변새 발굴 조사 결과 보고서나,⁷⁵ 담기양(譚其驥)이 주편한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에도 영거

새의 일부는 장성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하서 지역 변새 유지를 발굴 조사한 팀은 한 장성의 위치와 주향만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림 8>에서 보듯이 담장과 참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였고, <그림 9>의 담기양 주편, 『중국역사지도집』에도 영거새를 연속된 장성으로 표시하지 않고 성장이 위치한 지역에만 장성 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경애는 담기양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게 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⁷⁶ 경애는 또한 거연새 역시 장성으로 칭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거연새에 장과 봉수가 부속되어 있고 방어를 위한 담장을 만들었으므로 변새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지만, 거연새 유지에서 발견된 담장은 흙을 다져서 쌓지 않은 데다 담장의 높이 역시 매우 낮아 연속된 높은 성장의 형태인 장성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⁷⁷

이렇게 장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는 중국 장성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한 장성의 범위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2012년 6월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발표한 역대 중국 장성의 길이에 대해서는 장성 자체의 성벽은 물론 참호나 보루 같은 시설물을 포함한 43,721곳을 모두 합한 수치라고 한다.⁷⁸ 중국에서 발표한 역대 장성 길이인 21,196km에는 한 장성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재고의 여지가 있는 변경 수비 시설의 길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실 현재 남아 있는 한 장성 유지 중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한 장성의 대부분은 문

74 景愛(2006), 앞의 책, 208~212쪽.

75 吳初驥(2005), 앞의 책, 〈地圖 1 河西漢塞走向示意圖〉 참조.

76 景愛(2006), 위의 책, 18쪽.

77 景愛(2006), 위의 책, 193~198쪽.

78 禹成旼(2012), 앞의 책, 100쪽.

헌 기록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그 대략적인 주향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한 장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한 장성의 노선과 범위는 크게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역대 장성 노선은 중국 학계에서조차 장성의 개념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다소 무리한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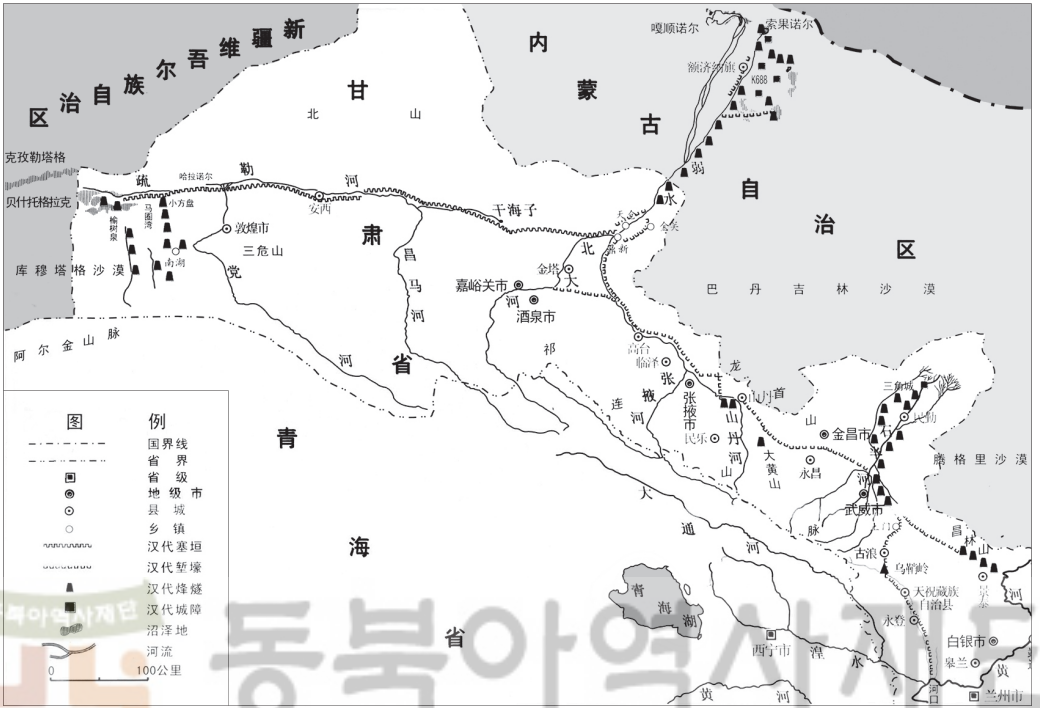
2) 한 장성의 범주

현재 중국 학계에서 한 장성으로 분류하고 있는 유지에는 ① 진 장성과 노선이 겹치는 지역, ② 하서주량을 포함한 하서 지역, ③ ‘옥문-염택’ 사이의 새가 설치되었던 지역, ④ 새외 장성이 세워졌던 내몽고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하서 지역 장성 유지인 ㉠ ‘영거-주천’에 이르는 새 ㉡ ‘주천-옥문관’에 이르는 새 ㉢ ‘주천-거연’까지의 새도 모두 한 장성의 일부로 분류된다.

그런데 한 장성 유지로 분류된 변새 중 일부는 한 장성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우선 ‘옥문-염택’ 사이의 새는 한대 변새에 속하기는 했으나, 장성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옥문-염택’ 사이의 새는 성·장과 여러 개의 정이 담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⁷⁹⁾ 이 수비 시설을 장성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옥문-염택’ 사이의 새는 길게 뻗은 인공 담장이 장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⁰⁾ 그러나 아래 기록을 보면 당시 사람들

79 중국 역대 장성을 개괄하여 서술한 경애(景愛)는 한대 장성을 설명하면서 소록하(疏勒河) 유역 장성까지만 언급하였을 뿐 옥문관 이서 지역의 변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景愛(2006), 앞의 책, 181~212쪽. 반면 白音查干은 한 장성의 축조 시기를 설명하면서 옥문관에서 염택까지의 변새 건설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한장성시지도(漢長城示意圖)>에도 서북 장성의 중점을 염택으로 설정하여 장성을 표시하였다. 白音查干(1987), 앞의 책, 97~9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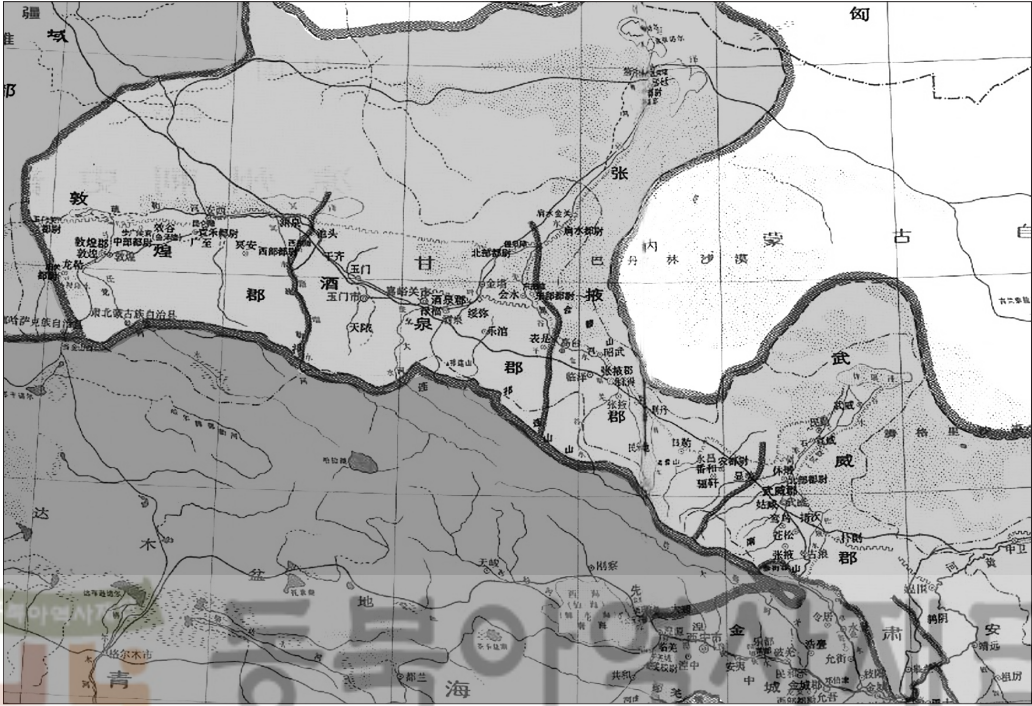
80 張榮芳·王川(1995), 앞의 글, 106~107쪽.



〈그림 8〉 하서한새주향시의도(河西漢塞走向示意圖)

은 이 변새를 장성과 다르게 인식하였다.

[나-②] 한 무제가 사이(四夷)를 침에 따라 땅을 개척하고 영토를 넓혀 나가니 북쪽으로는 흉노를 물리치고 서쪽으로는 여러 강족을 쫓아내었다. 황하와 황수(滄水)를 건널 즈음에는 영거현에 새를 쌓으니 처음으로 하서를 개척하고 4군을 설치하여 옥문관과 통하게 해서 강호(羌胡)를 막아서 끊어버리니 남북은 서로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장·새·정·수가 장성 밖 수천 리에 설치되었다.



〈그림 9〉 담기양 주변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즉, 옥문관 밖에 설치한 장·새·정·수에 대해 장성 밖에 설치된 방어 시설이라고 서술한 것이다. 이는 옥문관 서쪽에 설치된 시설을 장성과 구분하여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전술한대로 문헌 기록만으로 당시 장성으로 인식되었던 방어 시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실상 한제국의 국문(國門)으로 여겨졌던 옥문관·양관(陽關) 이서 지역의 수비 시설까지 제국의

81 『後漢書』卷87「西羌傳」, 2876쪽, “及武帝征伐四夷, 開地廣境, 北卻匈奴, 西逐諸羌, 乃度河·湟, 築令居塞, 初開河西, 列置四郡, 通道玉門, 隔絕羌胡, 使南北不得交關, 於是障塞亭燧出長城外數千里.”

국경 기능을 했던 장성의 일부로 파악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내몽고 지역 및 오늘날 몽골까지 이르는 새외 장성 역시 한 장성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에 따르면 새외 장성의 담장은 비록 흙이나 돌을 쌓아 만든 인공 담장이지만, 높이는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북변 요새 밖에 축조된 새외 장성을 과연 국경 기능을 했던 장성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새외 장성을 한 장성의 일부로 보는 입장에서는 장성 안쪽 지역에 성보가 밀집되어 있고 담장과 성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성과 마찬가지로 방어 기능을 충분히 감당했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한 장성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⁸² 또 일부에서는 서자위가 축조한 새외 장성은 거연새의 방어선과 오원새의 방어선을 연결한 것으로 설명한다.⁸³ 1962~1963년 내몽고 문물공작대에서 진행한 액제납기(額濟納旗) 조사에 따르면 그 노선이 내몽고 조격기(潮格旗) 오력길공사(烏力吉公社)를 가로지르는 중국과 몽골의 경계에 있으며 몽골에서 남쪽으로 꺾어져 거연 지역의 새외 장성 유지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외 장성 중 남장성 유지는 거연새까지 최소 약 130km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 지역에서 장성 유지로 볼 수 있는 성·장·색장 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새외 장성을 국경 기능을 하였던 한 장성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는 사실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 조사가 진행된 이후 문헌 기록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한 장성은 문헌 기록에 변새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 선으로 연결된 수비 시설 유지가 확인되더라도 당시 사회에서 장성으로 인식되었는가를 다

82 景愛(2006), 앞의 책, 186~193쪽.

83 張榮芳·王川(1995), 앞의 글, 107쪽.

시금 검토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 장성의 개념을 종래 통상적으로 이해하였던 ‘연결된 성벽’에서 성벽, 성보, 관애, 봉화대 등까지 포함하는 수비 시설로 확대 해석하면서, 성벽, 성보, 관애, 봉화대 등의 유적이 발견되면 그 지역 역시 장성 노선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만약 오늘날 중국 정부에서 정한 역대 장성의 개념에 따라 한 장성을 이해할 경우, 한대 장성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변경 수비 시설까지 한 장성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진 장성을 수보하여 사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한 장성 동단의 경우 연장성의 노선을 연장시켜 이해하는 입장과 연결되어, 명확한 근거 없이 한 장성의 노선을 연장시키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2009년 6월 길림성은 진한 장성 조사를 위한 공작대를 조직하여 6월에서 9월까지 진한 장성 유적 11곳을 발견하였고, 이 중 길림성 통화현(通化縣)에서 발견한 ‘남태자고성지(南台子古城址)’는 진한 장성의 최동단으로서 이 발견으로 진한 장성의 동단을 동쪽으로 10.9km 연장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⁸⁴ 조사대는 이 유지에서 마제석도(磨制石刀), 석촉(石鏃) 및 도기 파편 등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서 발견된 도기는 모두 한대 중원 지역 도기의 특징을 띠고 있으므로 이곳은 한대 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남태자고성지(南台子古城址)’ 동쪽으로 27.9km 떨어진 곳에 길림성 통화현 적백송(赤柏松) 한성(漢城) 유지가 있으므로, 이 유지는 적백송 한성 방어 체계의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이해하였다. 비록 유지에서 한대 유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을 한 장성의 일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서술한대로 현재 문헌 기록에서 확인되는 한 장성의 신축은

84 禹成旼(2012), 「중국 역사학계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진단학보』 제116호, 99쪽.

무제 시기 하서 지역에 집중되었고, 동쪽 변경에 장성을 증축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만약 이 유지가 한 장성의 일부라면 유일한 설명 논리는 진 장성의 일부였고, 한대 이를 수보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진 장성의 노선을 이곳까지 연장시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III. 국경으로서 한 장성과 그 관리

종래 장성에 관한 연구는 장성이 세워진 위치와 형태를 확인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리고 장성 축조 관련 기록이 문헌에 분명하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고고 현지 조사를 통해 그 실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한대 진 장성을 수보하여 북방 수비 시설을 정비하였을 뿐 아니라, 무제 때는 서북 변경에 장성을 신축하였다.

한 장성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성의 외형적인 특징 뿐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갖는 기능 역시 검토해야 한다. 한 장성은 기본적으로 제국의 국경으로서 변경에 설치된 일종의 변새였다. 물론 전국시대에는 내지에 설치된 장성도 있었다. 가령 제(齊) 장성의 경우 초와 접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내지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진 통일 이후 장성은 변경에만 위치하였다. 한 장성은 북변에 설치되었던 진 장성을 계승하되, 하서 지역을 비롯한 서북 변경에 일부 장성을 신축하였다. 그렇다면 제국의 서북 변경에 설치되었던 장성은 어떤 특징을 가졌으며, 그 관리 방법은 어떠하였을까?

이 장에서는 우선 다른 변경 수비 시설과 비교할 때 장성이 갖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국경으로서 장성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성 역시 변새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변경 수비와 변경의 출입자 관리 방법을 검토

하고 과연 장성의 수비와 출입 관리는 어떠하였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국의 국경과 장성

전국시대 각국의 변경에는 새·정·장 등의 각종 수비 시설이 설치되었고, 요소마다 상비병을 두어 방비하였다. 진이 천하를 통일한 후 전국시대 각국의 변경 수비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분명치 않지만, 흉노에 대한 변경 수비는 물론 관중(關中) 지방을 둘러싼 주요 거점과 관·진에 대한 방비는 계속되었다.⁸⁵ 진시황이 육국(六國)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했을 때 진의 강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임조(臨洮)와⁸⁶ 강중(羌中),⁸⁷ 남쪽으로 북향호(北嚮戶),⁸⁸ 북쪽으로는 황하를 근거로 만든 새를 기준으로 요동까지를 그 대체적인 범위로 삼았다.⁸⁹ 이후 진시황 33년(기원전 214년)에 몽염을 시켜 흉노와 서북변 이민족을 공격하게 한 결과, 고궐(高闕)·양산(陽山)·북가(北假) 일대를 차지하게 되면서 제국의 외연은 확대되었다. 그리고 새로 확보한 지역에는 군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진의 행정 구역으로 재편하였기 때문에 진의 국경은 기본적

85 『史記』 卷6 「秦始皇本紀」, 276쪽, “太史公曰 …… (賈生)曰, ‘秦并兼諸侯山東三十餘郡, 繕津關, 據險塞, 修甲兵而守之.’”

86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1610쪽, “(隴西郡) 臨洮, 洮水出西羌中, 北至抱罕東入(西)河”

87 『漢書』 卷28上 「地理志」 8上, 1534쪽, “道河積石, 至於龍門.” (注3) “師古曰, 積石山在河關西羌中.” 적석산(積石山)의 위치를 강중(羌中)이라 설명하였듯이 당시 강족들이 거하였던 중국 서북부 지역을 가리킨다.

88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1630쪽, “日南郡, 故秦象郡, 武帝元鼎六年開, 更名.”; (注1) “師古曰, 言其在日之南, 所謂開北戶以向日者.”

89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始皇 26年, 240쪽, “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洮·羌中, 南至北嚮戶, 北據河爲塞, 竝陰山至遼東.”

으로 정·장 등의 수비 시설을 갖춘⁹⁰ 변군(邊郡)의 경계를 연결한 형태였다.

전국시대 각국의 경계는 서로 인접하고 있었지만, 진이 통일한 이후 제국의 국경이 새롭게 정비되었다. 진은 전국을 통일한 후 임조에서 요동까지 약 만여 리에 달하는 장성을 쌓아 변경의 수비 시설을 정비하였다. 만리장성을 쌓아 서북변의 국경을 정비함과 동시에 동해상에 비석을 세워 진의 동문을 표시하였는데,⁹¹ 이는 동해를 제국의 동쪽 국경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진시황이 동문을 설치한 곳은 동해부 구현(胸縣)의 관할구역[界中]에 속한 해상으로서 「박물기(博物記)」의 설명에 따르면 현의 동북 해안에 진에서 세워 동문을 삼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⁹² 즉, 천하통일 이후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아 서북변의 경계를 획정하고 동해를 제국의 동쪽 경계로 삼아 제국의 국경을 획정하였다.

한대에도 흉노 및 강족 지역과 접하는 서북 변경의 방비는 무엇보다 중요하였고, 장성의 수보와 신축은 바로 이런 필요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대 장성의 위치나 변군이 설치된 지역은 진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장성을 비롯하여 각종 수비 시설이 설치된 변군의 외연을 연결한 경계가 곧 한 제국의 국경에 해당하였던 점은 진과 동일하다.

한 제국의 강역이 확장되면서 각 변경에는 여러 수비 시설이 설치되었고, 장성을 비롯한 변경의 수비 시설은 곧 제국의 방어선이자 국경에 해당하였다.

90 『史記』卷6, 「秦始皇本紀」始皇 33年, 253쪽, “西北斥逐匈奴 …… 城河上爲塞, 又使蒙恬渡河取高闕·(陶)[陽]山·北假中, 築亭障以逐戎人.”

91 『史記』卷6, 「秦始皇本紀」始皇 35年, 256쪽, “於是立石東海上胸界中, 以爲秦東門.”

92 『後漢書』卷30 「郡國志」3 徐州 東海郡, 3458쪽, “東海郡 …… 威胸”; (注3) “『山海經』曰, ‘都州在海中.’ 郭璞曰, ‘在縣界. 世俗傳此山在蒼梧徙來, 上皆有南方樹木.’ 「博物記」, ‘縣東北海邊植石, 秦所立之東門.’”

변경에는 장성과 그에 부속된 정·장⁹³ 및 봉수를 세우거나 거점에 요를 설치하여 방비하였다. 그런데 변경에 설치한 수비 시설은 방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서북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장성을 쌓아 방어선을 구축하였지만, 서남이(西南夷)와 접하는 남쪽 변경의 경우 요를 설치하여 방비하였다.

예컨대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서남이를 평정하고 설치한 변경 수비 시설은 서쪽에는 변관(邊關)인데 반해, 남쪽의 장가강(牂柯江)에는 요로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마상여가 서이(西夷)를 평정한 후 공(邛)·작(笮)·염(冉)·방(駝)·사유(斯榆)의 군장(君長)이 내신(內臣)을 칭하게 되면서 서남이와 접하는 변경은 확대되었다. 이에 원래 서남 지역에 있던 변관은 없애고 서쪽으로 말수(沫水)와 약수(若水)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변관을 설치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장가강까지 확장하여 요를 설치하였다.⁹⁴ 또한 파(巴)·촉(蜀)의 서남쪽 야랑(夜郎)·진(滇)·공도(邛都) 등과 파·촉 지역이 접하는 지역에도 요를 설치하였다. 전이 망한 후 서남이 세력들은 한 이전에 설치한 요를 다시 개통하여 파·촉 사람들과 교류하였다고 하는데, 진대 이 지역에 오척도(五尺道)가 개통되고 이(史)가 설치되었던 점으로 보아⁹⁵ 촉의 옛 요는 진대에 설치되었던 변경 시설일 것이다.

진의 통일 이후 내지의 장성이 철폐되면서 장성은 북변에만 존재하는 변새

93 『漢書』卷6「武帝紀」, 太初 3年, 201쪽, “遣光祿勳徐自爲築五原塞外列城”(注1) “師古曰, 漢制, 每塞要處別築爲城, 置人鎮守, 謂之候城, 此卽障也.”

94 『史記』卷117「司馬相如列傳」, 3048쪽, “司馬長卿使略定西夷, 邛·笮·冉·駝·斯榆之君皆請爲內臣, 除邊關, 關益斥, 西至沫·若水, 南至牂柯爲徼……” 『史記』卷117, 「司馬相如列傳」, 3051쪽, “四面風德, 二方之君鱗集仰流, 願得受號者以億計, 故乃關沫·若, 徼牂柯, 鏤零山, 梁孫原.”

95 『史記』卷116, 「西南夷列傳」, 2993쪽, “秦時常頌略通五尺道, 諸此國頗置吏焉, 十餘歲, 湮滅, 及漢興, 皆棄此國而開蜀故徼, 巴蜀民或竊出商賈, 取其笮馬·犍僮·髦牛, 以此巴蜀殷富.”

였다. 이는 다른 변경 지역과 달리 북변이 갖는 방위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한대 변경의 경우에도 흉노와 접하고 있는 서북 변경에만 장성을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한 장성 역시 선의 방어가 필요한 북변 방어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설치된 변새로 볼 수 있다.

장성이 설치된 서북 변경은 방어선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변경과 형태상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각 변경은 모두 제국의 안위를 위해 철저한 방비가 필요한 국경이었다. 방어 시설의 형태 면에서 장성이 갖는 특수성은 변경의 관리 제도 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까? 즉, 방어선 형태의 장성은 여타 변경과 달리 특별 관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장성이 갖는 관리 제도상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이하 변경의 출입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 보자.

2. 장성의 출입 관리와 그 특징

한대 기록에 장성은 변새의 일종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장성의 출입 관리 제도를 검토할 때도 우선 당시 변새의 출입 관리 방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 장성은 제국의 서북 변새였고, 이런 점에서 서북 변새의 출입 관리는 곧 장성의 출입 관리에 해당하였다. 장성과 같이 담장이나 참호를 만들어 방어선 형태를 띤 변새의 경우 주요 통로에 관·진을 설치하여 사람이나 물자를 통하게 하였다. 가령 소록하 유역에 설치된 장성에는 옥문관과 양관을 설치하여 서역과 교통하는 국문으로 삼았다.

한대 서북 변경의 출입은 기본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한대 내지에서 이동할 때도 주요 경계 지점에서 통행자를 검토했기 때문에⁹⁶ 국방상 중요한 변새의 출입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었다. 고후(高

后) 2년(기원전 186년)에 반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가산한간(張家山漢簡) 『이년율령(二年律令)』 「진관령(津關令)」에는 내지의 관·진은 물론 변세의 관·진을 출입할 때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즉,

[다-①] □. 상국(相國)·어사(御史)가 (다음과 같은 영을 제정하기를) 청하였다. “관과 새에 속하여 있는 현·도의 군도·도적 및 망인(亡人)이 관소(關所)의 원(垣)·이파(籬笆(籬落))·호구[塹]·봉(封)·간(刊)을 넘어 새의 경계를 출입한 경우, 이졸(吏卒)로서 추격하는 자는 (그들이) 출입한 행적을 따라 끝까지 쫓아가 체포할 수 있다. 장리(將吏)로 하여금 출입한 이졸의 명적(名籍)을 작성하게 하고, 오인(伍人)이 검열한 후 명적의 부분(副本)을 현정(縣廷)에 보고하게 한다. 임무가 끝나면 통로를 따라 출입할 수 있으며,⁹⁷ 나간 사람이 5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인이 장리에게 말하지 않거나 장리가 진상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모두 ‘월새령(越塞令)’에 따라 논한다.”⁹⁸

- 96 宋眞(2012), 「前漢時期 帝國의 內部 境界와 그 出入 管理」, 『東洋史學研究』 121 참조.
- 97 『이년율령여주얼서(二年律令與奏讞書)』의 석문은 ‘得道出入所出人(入)’로서 ‘人’을 ‘入’의 오기로 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 추격한 이졸이 출입했던 곳으로 다시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어지는 ‘盈五日不反(返)’ 구절이 가리키는 대상이 불분명해진다. 대신 ‘人’을 ‘入’의 오기로 보지 않고 ‘得道出入, 所出人, 盈五日不反(返)’으로 구두할 경우 보다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楊建(2010), 『西漢初期津關制度研究』, 『附錄: 《津關令》簡釋(訂補)』, 上海古籍出版社, 189쪽.
- 98 『二年律令』 「津關令」, 310쪽, “□. 相國·御史請緣關塞縣道群盜·盜賊及亡人越關垣·離(籬)格(落)·塹·封·刊, 出入塞界, 吏卒追逐者得隨出入服跡窮追捕. 令(494)將吏爲吏卒出入者名籍, 伍人閱具, 上籍副縣廷. 事已, 得道出入所出人(入), 盈五日不反(返), 伍人弗言將吏, 將吏弗劾, 皆以越塞令論之.(495)” 간문(簡文)인용 중 괄호 안의 숫자는 간(簡)번호, ‘□’은 석독불능, ‘▣’은 단간(斷簡)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차자는 (), 오자는 < >, 탈자는 【 】로 각각 표기하였다.

[다-①]은 변경과 접하고 있는 현·도에서 범죄자가 변관의 원·이파·호구·봉·간을 넘어 변세의 경계를 벗어난 경우 관리들 역시 뒤따라 추적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이때 변관의 원·이파·호구·봉·간은 변세의 다양한 형태를 가리킨다. 원은 낮은 담장[矮牆]이고, 이락(籬落)은 ‘이파’라고도 하며 갈대나 나뭇가지 등을 엮어 만든 울타리[柵欄]를 의미한다.⁹⁹ 간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간’이 한대 비문에 보이는 ‘간석수비(刊石樹碑)’, ‘간석록명(刊石勒銘)’에서와 같이 비석을 만들기 위해 돌을 깎는 행위나 ‘간목(刊木)’처럼 벌목을 의미하므로 간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 세워 둔 계한(界限)의 표지로 짐작된다. 이렇게 한대 변세는 봉강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호구·봉을 만드는 것 외에 담장·울타리를 만들거나 나무·돌 등의 표지를 세우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전술한 대로 한 장성 역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축조된 변세에 해당하였다. [다-①]의 규정은 바로 장성과 같은 변세의 출입은 도적을 체포하는 수졸(戍卒)의 경우에도 그 출입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해야 할 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조문 역시 변세의 출입을 관리하는 규정이다.

[다-②] 一. 어사가 아뢰기를, “새를 넘거나 무단으로 관을 출입한 자를 논할 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영을 제정하기를) 청합니다. “새의 진·관을 무단으로 출입한 자는 경위성단용(驚爲城旦舂), 새를 넘은 자는 참좌지성단(斬左趾城旦)에 처한다. 이졸이나 담당 관리가 잡지 못하였을 때는 속내(贖耐), 영(令)·승(丞)·영사(令史)는 벌금 4량에 처한다. (관리가) 그 사정을 알면서 출입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符)·전(傳)을

99 楊建(2010), 앞의 책, 188쪽.

빌려주어 무단출입하게 한 경우도 동일한 죄로 논한다. (내용 불분명) 제멋대로 전을 만들어 진·관을 출입한 경우에는 …… 전으로 무단출입하게 한 영으로 논하고¹⁰⁰ 전을 만든 자도 (같은 죄로 논한다.) 새에 연하여 있는¹⁰¹ 현·읍 및 비새도위(備塞都尉)·관리(關吏)·관속(官屬), 군(軍)의 이졸로서 새의 수비를 맡은 자는 □弩·마(馬)·우(牛)를 (가지고 새를) 나가는 것을 금[禁(?)]하고, 전지(田地)·제방(堤防)·원유[苑囿(?)]·목지(牧地)와 (관련된 자들과) 새를 수선하거나 우(郵)와 문정(門亭)의 문서를 전달하는 자는 부(符)로서 (새를) 출입할 수 있다.”·제(制)하기를 “좋다” 하였다.¹⁰²

[다-③] 二. 어사대부(御史大夫)에게 (다음과 같이) 제조(制詔)하였다. “우관(扞關)¹⁰³·운관(鄖關)·무관(武關)·함곡(關)[函谷(關)]·임진관(臨晉關)

100 ‘以□(489)傳令關令論’에 대해 『二年律令與奏讞書』에서는 ‘以□傳令·關令論’으로 구두하였으나, 내용상 앞에서 언급한 다른 사람의 부·전을 빌려 주어 무단출입하게 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두를 달리하였다. 이럴 경우 ‘以□傳令關令論’ 중 판독하지 못한 글자를 ‘가(假)’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楊建(2010), 앞의 책, 184쪽.

101 ‘縣邑傳塞’에 대해 교토대학 연구회에서는 앞의 문장과 연결하여 “(만들어진 전은) 현·읍에서 새에 전달한다.”라고 해석하였으나[富谷 至 編(2006),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研究報告: 譯注篇 江陵張家山二四七號墓出土漢律令の研究』, 朋友書店], ‘縣邑傳塞’는 뒤의 ‘及備塞都尉’ 이하 문장과 연결된다. 『二年律令與奏讞書』에서는 ‘전(傳)’이 ‘부(傳)’의 오기로 보아 ‘부(附)’의 의미로 보았고, 진율(秦律) 중에도 ‘부(傳)’가 ‘근(近)’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있기 때문에[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1990), 『睡虎地秦墓竹簡』, 「秦律十八種」 徭律, 文物出版社, 47쪽, “縣所葆禁苑之傳山·遠山”] 이 글에서는 ‘인접하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102 『二年律令』 「津關令」, 305쪽, “一. 御史言, 越塞關關, 論未有令·請關出入塞之津關, 黥爲城旦舂; 越塞, 斬左止(趾)爲城旦; 吏卒主者弗得, 贖耐; 令·(488)丞·令史罰金四兩. 智(知)其請(情)而出入之, 及假予人符傳, 令以關出入者, 與同罪. 非其所□爲□而擅爲傳出入津關, 以□(489)傳令·關令論, 及所爲傳者, 縣邑傳塞, 及備塞都尉·關吏·官屬·軍吏卒乘塞者, 禁(?)其□弩·馬·牛出, 田·波(陂)·苑(?)·牧, 繕治(490)塞, 郵·門亭行書者得以符出入·制曰: 可.(491)”

및 모든 새의 하진(河津)에서는 황금과 모든 황금으로 상감한 기물 및 동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금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¹⁰⁴

[다-②]는 새의 출입 관리 관련 규정이다. 여기서 새는 비새도위·관리가
배치되고 군의 이졸이 수비를 담당하는 시설로서, 내지의 일반 진·관과는 구
별된다.¹⁰⁵ 우선 새의 진·관을 무단으로 출입하면 ‘경위성단용(黥爲城旦春)’, 새
를 출입하는 정식 통로인 진·관을 통하지 않고 새를 넘어서 출입하면 ‘참좌
지성단(斬左趾城旦)’으로 각각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새의 진·관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부·전을 소지해야 했고, 만약 불법적으로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전을 빌려서 사용하면 모두 처벌을 받았고 그 연루자 역시 같은 죄로 처
벌을 받았다. 이처럼 한대 초기 변새를 통행할 때는 반드시 부·전을 발급 받
은 후 진·관의 검험을 거쳐야 했다. 거연한간(居延漢簡) 중 시형도(施刑徒)들의
명단 중 이전에 거연에 살던 수졸이었으나, 무단으로 변새를 통행하였다가 그

103 扜關은 巴郡에 위치한 江關(『漢書』卷28上「地理志」, 1603쪽, “巴郡 …… 魚復, 江關, 都尉治.”)으로서 오늘날 四川 奉節 동쪽에 위치하였다.

104 『二年律令』 「津關令」, 307쪽, “二. 制詔御史, 其令扜關·郎關·武關·函谷【關】·臨晉關, 及諸其塞之河津, 禁毋出黃金·諸奠黃金器及銅, 有犯令.(492)” 한편 『二年律令與奏讞書』에서는 492간(簡) 뒤에 「均輸律」에 속해 있는 226간(“諸口津關所索得雖未出, 皆坐臧(贓)爲盜, 皆索弗得, 戍邊二歲.”)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26간의 내용을 이어서 이해한다면, 금령을 어긴 자가 진·관에서 수색하여 잡힌 경우 비록 진·관을 나가지 않았어도 모두 장물(贓物)을 훔친 죄로 처벌하며, 이후 단간이기는 하지만 금령을 어긴 자를 수색하여 잡지 못한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였다고 볼 수 있다.

105 종래 「진관령」에 관한 연구는 관중 혹은 京畿政策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陳偉(2006), 「張家山漢簡《津關令》“越塞關關”諸令考釋」, 『簡帛研究 2006』, 廣西師範大學出版社에서는 적외선 판독 이후 기존의 석문을 수정한 후 「진관령」이 내지의 진·관 이외에 변새 출입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었다. 다만, 새는 모두 변새로서 내지에 있는 일반 진·관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하였다.

죄로 원제 초원(初元) 4년(기원전 45년)에 완성단(完城旦)과 벌금 약 만 전의 형벌을 받은 사람의 기록이 있는데,¹⁰⁶ 이는 원제 시기에도 변세의 무단출입은 엄격하게 금하여 중벌로 처벌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③]의 규정에서 보듯이 ‘관중’을 둘러싸는 주요 관소를 비롯하여 모든 새의 하진에서는 황금은 물론 황금으로 상감한 기물이나 동까지도 반출하지 못하였다. 즉, 패물·황금¹⁰⁷이나 독화살¹¹²과 같은 특수 물자는 변세 밖으로 반출할 수 없었다. 경제(景帝) 때 등통(鄧通)이 변경 밖으로 전을 몰래 반출했다가 적발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하였던 일은¹⁰⁹ 경제 시기에도 [다-③]과 유사한 금령이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흉노를 비롯한 외국과의 사적인 상거래도 금지되었는데,¹¹⁰ 무제 때 흉노 위덕이 무리를 이끌고 내항(來降)한 후 장안(長安)의 상인들이 그들과 더불어 장사하였다가 500여 명이 사형에 처해졌



106 『居延漢簡釋文合校』[謝桂華·李均明·朱國韶(1987), 文物出版社. 이하 『合校』] 227.8 “……完城旦錢萬年, 坐蘭渡塞, 初元四年十一月丙申論, 初元五年八月戊申以詔書施刑. 故戍卒居延廣□…….”(띄어쓰기-필자) 원래 형벌은 ‘完城旦’에 ‘錢萬年’이라는 벌금형이었는데, ‘年’은 해석이 안 되는 글자이므로 일단 벌금 만 전으로 추정하였다.

107 『二年律令』「盜律」, 120쪽, “盜出黃金邊關徼, 吏·卒徒部主者智(知)而出及弗索, 與同罪. 弗智(知), 索弗得, 戍邊二歲.(76)”

108 『二年律令』「賊律」, 97쪽, “軍吏·緣邊縣道, 得和爲毒, 毒矢謹臧(臧). 節(即)追外蠻夷盜, 以假之, 事已輒收臧. 匿及弗歸, 盈五日, 以律論.”(19) 이 조항은 軍吏와 변경에 있는 현·도의 관리가 독을 제조하여 독화살을 만들었을 때는 잘 보관해야 하며, 蠻夷를 추격하기 위해 독화살을 빌린 경우 임무가 끝나면 바로 반납해야 하고 5일 이상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율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독극물이 변경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한 규정이다.

109 『史記』卷125 「鄧通傳」, 3193쪽, “人有告鄧通盜出徼外鑄錢, 下吏驗問, 頗有之, 遂竟案, 盡沒入鄧通家, 尚負責數巨萬.”

110 『漢書』卷16 「高惠高后功臣表」, 588쪽, “(宋子惠侯 許憲 孫)孝文十年, 侯九嗣, 二十二年, 孝景中二年, 坐寄使匈奴買塞外禁物, 免.”

던 일은¹¹¹ 국가에서 사적인 국외(國外) 상거래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통제하였는가를 대변한다.

사사로운 국외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변세의 통행은 사신의 사행이나 군대의 출전, 서역도호부와 같이 변경 밖의 기구와 관계된 업무 등 공적인 출입이 주를 이루었다. 공무 수행을 위해 변세를 통행할 때에도 황제나 관청에서 받은 부(符)·절(節)을 소지해야 했고,¹¹² 사신이 공무상 재물을 반출할 때에도 반드시 증명 문서를 소지하고 확인을 거쳐야 했다.

국내·외 사람들의 변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변세의 수졸들은 관할구역에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는¹¹³ 등과 같이 변세 수비상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보고해야 했다. 장성과 같은 변세 주위에는 불법 침입자를 파악하기 위한 천전이 설치되었고, 수졸은 매일 천전을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¹¹⁴ 만약 수졸이 새를 불법적으로 출입한 흔적을 발견하였

111 『史記』卷120, 「汲鄭列傳」汲黯傳, 3109~3110쪽, “及渾邪至, 賈人與市者, 坐當死者五百餘人, 黯詰問, 見高門, 曰, ‘……渾邪率數萬之衆來降, 虛府庫賞賜, 發良民侍養, 譬若奉驕子. 愚民安知市買長安中物而文吏繼以爲闢出財物於邊關乎? ……」上默然, 不許.” 장안의 상인 500명이 사형에 처해지자 汲黯은 무제를 만나 사람들이 장안에서 외국인과 거래한 것을 관리가 불법으로 변관을 통해 재물을 유출하는 죄와 같을 줄 어찌 알았겠느냐며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무제는 허락하지 않았다.

112 大庭脩(1982), 『秦漢法制史の研究』, 「後漢の將軍と將軍假節」, 創文社. 참조. 한편 출전 시 절 외에 부전과 같은 통행증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통행증을 하나로 합하기도 하였다. 『後漢書』卷23 「竇融列傳」, 810쪽, “明年(空間 認識17년), 復出玉門擊西域, 詔耿秉及騎都尉劉張皆去符傳以屬固.”

113 『合校』89.23, “十五日謹□捕廋索, 無陰密□不知何男子賊過留界中者. 敢言之.”

114 거연한간이나 거연신간(居延新簡)에는 천전에 관한 日迹簿 자료가 많은데, 대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담당 구역 내에 사람이나 말이 무단으로 새나 천전을 넘어 출입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 자료다.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甘肅省博物館·中國文物研究所·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1994), 『居延新簡-甲渠候官』, 中華書局 E.P.T4: 62, “……□□南界北盡第廿四 北界毋人馬蘭越塞天田出入.” 천전은 매일 순찰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천전의 구획이 분명하도록 관리해야 했고, 候長은 각 부를 순찰하

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였다.¹¹⁵

특히 새외의 강족·호로(胡虜)¹¹⁶ 및 흉노의 출입 사실은 변경 방위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소 특별하게 취급되었다. 흉노가 장성을 포함한 변새를 침입한 경우 후의 이(吏)는 격문으로 사실을 보고해야 했고,¹¹⁷ 봉화품약(烽火品約)에 맞추어 흉노의 침입 사실에 대해 봉화로 알려야 했다.¹¹⁸ 현재 발견된 흉노 침입 시의 봉화품약을 보면 흉노가 침입한 때와 장소 및 규모에 따라 신호를 구분하였고, 새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새 위에서 흉노를 관찰할 수 있을 때나¹¹⁹ 밤에 흉노나 말의 소리가 들릴 때도 각각 해당 신호가 정해져 있다.¹²⁰ 그리고 만약 흉노가 새 안으로 들어 왔는데 기상 악화로 봉화를

며 천전을 명확하게 획정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만약 천전에 출입자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상부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居延新簡』 E.P.T5: 59, “候長等各循行部叢告吏卒明晝天田謹 候常.”; 『居延新簡』 E.P.T51: 411, “日迹行廿三里, 久視天田中, 目玄, 有亡人越塞出入□/它部界中, 候長·候史直日迹, 卒坐匿不言迹 □.”

115 『合校』 123.60, “從迹入塞及出塞, 各踵迹窮追, 以檄□.” 사람뿐 아니라 기마가 새를 넘어 나간 일이나 낙타가 변새를 출입한 일 등 동물의 변새 및 천전 출입까지 일일이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居延新簡』 E.P.T 68: 27, “革囊一, 盛糒三斗, 米五斗. 騎馬蘭越(隊)南塞天田出, 西南去, 以此知而”; 『居延新簡』 E.P.T 65: 59, “行可十里所, 豪佗迹從塞外西南來, 入收虜天□.”

116 『居延新簡』 E.P.T 5: 149, “·甲渠言毋羌人入塞 買兵鐵器者”는 羌인이 새에 들어와 兵器와 鐵器를 구입한 일이 없었음을 보고한 내용이며, 『居延新簡』 E.P.T 68: 83, “乃今月十一日辛巳日且入時, 胡虜入甲渠木中.”은 무슨 용무인지 모르겠지만 호로가 들어온 일시와 장소를 기록한 내용이다.

117 『合校』 163.4, “·匈奴人入塞, 候尉吏以檄言匈奴人入犯入□□.”

118 『合校』 288.7, “匈奴人入塞及金關以北, 塞外亭(燧)見匈奴人, 舉蓬·燔積薪, 五百人以上, □舉二蓬.”

119 『居延新簡』 E.P.F 16: 10, “·塞上亭見匈奴人在塞外各舉部 如品毋燔薪其誤亟下滅火候尉吏以檄馳言府.”

120 『居延新簡』 E.P.F 16: 11, “·夜即聞匈奴人及馬聲若日且入時見匈奴人在塞外各舉部 次亭晦不和夜入舉一苜火毋絕盡日夜滅火.”

올리지 못할 경우 격문을 작성하여 급행 문서로 알려야 했다.¹²¹ 흉노가 침입한 사실을 격문이나 봉수 신호로 전달받은 후에는 관할 변경 시설을 순행하여 천전을 분명히 하고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했다.¹²² 이렇게 흉노 및 강족과 대치하고 있던 서북 변경, 곧 장성에서는 말과 낙타의 출입까지도 일일이 기록하여 보고할 만큼 그 출입을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였다.¹²³

한 장성은 흉노와 대치하였던 서북 변경의 방어선이었고, 살펴본 대로 출입 내역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보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그렇지만 철통 같은 방어선이라고 해서 일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장벽만은 아니었다. 장성 인근 현·도에 속한 거민들에게 장성은 때로 생활공간의 일부였고, 작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왕래하기도 했다. [다-②]의 규정을 보면 새외 지역에서 경

- 121 『居延新簡』 E.P.F 16: 16, “·匈奴人入塞天大風風及降雨不具蓬火者亟傳檄告人走馬馳以急疾爲□.”
- 122 『合校』 278.7A, “十二月辛未, 甲渠候長安·候史個人敢言之, 蚤食時, 臨木隧卒□□□□□□□□□□□□舉蓬, 燔一積薪, 虜即西北去, 毋所失亡, 敢言之, 十二月辛未, 將兵護民田官居延都尉謂城倉長禹·兼行[丞事](觚)(第一面)廣田以次傳行至望遠止. ▣(第二面上端) 寫移, 疑虜有大眾不去, 欲竝入爲寇, 檄到, 循行部界中, 嚴教吏卒, 驚烽火, 明天田, 謹迹候候望, 禁止往來行者, 定蓬火輩送, 便兵戰鬥具, 毋爲虜所萃槩, 已先聞知, 失亡重事, 毋忽, 如律令. 十二月壬申, 殄北·甲[渠](第二面)”; 『合校』 278.7B, “候長(纒)·V未央·候史包·(隧)長崎等: 疑虜有大眾欲并入爲寇, 檄到, (纒)等各循行部界中, 嚴教吏卒, 定蓬火輩送, 便兵戰鬥具, 毋爲虜所萃槩, 已先聞知, 失亡重事, 毋忽, 如律令. (第三面)” 이는 다면체에 흉노 침입 후의 처리 문제를 기록한 문서로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 123 그리고 변경 관리들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관할지역 내의 불법 출입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했다. 『주언서』 案例 8에서 노(奴)인 의(宜)가 새를 넘어 도망갔는데 당시 수비를 담당하고 있던 수졸·官大夫가 체포하지 못하자 결국 속내(贖耐)에 처해졌던 일은 좋은 예다. 『주언서』[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2007),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古籍出版社] 案例 8, 347쪽, “·北地守, 灑(讞): 奴宜亡, 越塞, 道戍卒官大夫有署出, 弗得, 疑罪, ·廷報: “有當贖耐.”

작이나 가축 방목을 하는 사람들은 변새를 상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고, 제방이나 새의 보수 작업을 맡은 자들도 변새를 출입하며 일하였다. 즉, 삼엄한 경계가 유지되었던 장성일지라도 정해진 작업을 맡은 주변 거민들에게 장성은 일상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의 일부였다. 그 밖에 문서 전달 업무를 맡은 사람들 역시 상시적으로 변새를 출입할 수 있었고, [다-②]에서 보듯이 치안을 담당하는 이졸도 필요한 경우 새외로 나가 범죄자 수색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일상적으로 변새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미리 변관을 통행할 때 필요한 통행증을 발급 받아 소지해야 했다. 다음의 『이년율령』 「진관령」 규정을 보자.

[다-④] □·상국이 다음과 같은 내사(內史)의 서(書)를 올려 아뢰었다.

“청컨대 무릇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부·전을 빌려 새의 진·관을 출입하려던 자가 출입하기 전에 잡혔다면 모두 속성단용(贖城旦舂)으로 처벌하고, 장리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같은 죄로 처벌하기를 원합니다.”·어사가 이를 아뢰자 황제가 제(制)하여 “좋다. (진·관을) 무단으로 출입한 죄로 처벌하라.”고 하였다.¹²⁴

[다-④]는 내사가 건의하여 정해진 규정으로서, 다른 사람의 부·전을 빌려 새의 진·관을 출입하면 해당자를 처벌하고 관리가 연루되었을 경우 같은 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점은 부·전이 있으면 변새 역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년율령』 「도율(盜律)」의 조문을 보면 변관·요

124 『二年律令』 「津關令」, 311쪽, “□, 相國上內史書言, 請諸詐(詐)襲人符傳出入塞之津關, 未出入而得, 皆贖城旦舂; 將吏智(知)其請(情), 與同罪. 御史以聞. 制(496)曰: 可, 以關論之.(497)”

밖으로의 재물 반출은 금지되었지만, 사자가 부(符)와 수하물의 내역을 적은 치(敎)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하였다.¹²⁵ 부는 일정한 지역을 왕복할 때 사용하거나 특정한 임무를 맡은 관리가 출입증으로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통행증이다.¹²⁶ [다-②]에서 상시적으로 변새를 출입할 때 부를 증빙으로 삼았다 고 하였는데,¹²⁷ 새외에서 일상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거민이나 문서 전달 업무를 맡은 사람들은 아마 부를 발급 받아 휴대했을 것으로 보인다.¹²⁸

거연을 비롯한 하서 지역 변새 이외 황하가 굽이쳐 흐르는 북변인 사방·오원군 지역 장성의 경우 황하의 협곡 부근에는 인공 담장을 쌓지 않고 지형을 장벽으로 삼았다. 이 지역 변새의 경우에도 철저한 방비가 이루어졌겠지만, 황하를 오르내리며 상시적으로 물자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통행증을 발급 받

125 『二年律令』「盜律」, 119쪽, “盜出財物於邊關徼, 及吏部主智(知)而出者, 皆與盜同法, 弗智(知), 罰金四兩, 使者所以出, 必有符致, 毋符致, (74) 吏智(知)而出之, 亦與盜同法. (75)”

126 일반적으로 부는 각치(刻齒)를 만들어 상호 맞추어 보아 신의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통행증으로 사용되었던 부 역시 각치가 있다. 다만, 부 역시 봉인을 하였다는 점에서 각치를 만들어 증빙으로 삼는 부와 각치 없이 봉인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구분하기도 한다. 아울러 후자의 경우 관소를 통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한 관리의 외출·통행 허가증으로 설명하는데[[鷹取祐司·富谷至 編(2003), 『漢簡所見文書考-書·檄·記·符-』, 『邊境出土木簡の研究』, 朋友書店, 146~153쪽], 이는 기록 중 봉인하는 부가 있고 통행증은 관·진에서만 검사하였다는 것에 근거한 추론이다. 그런데 관소에서 사용하는 부와 그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부가 다르게 존재하였는가는 현재 실물로서 확인하기 어렵고, 이 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진 이외 ‘過所’에서도 통행증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127 陳偉(2006), 앞의 글, 154쪽에서도 ‘越塞關關’ 관련 조문에 통행증으로 부가 언급된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128 北部候長 당(當)이 새 부근을 왕래한 사람의 내역과 이민족에 의해 축산 등의 피해가 없었음을 보고하는 문서를 보면(『合校』 306.12, “□北部候長當言之, 爰書: 隴長蓋之等, 乃辛酉日出時, /□長移往來行塞下者, 及畜產皆毋爲虜所殺略者, 證之審.”), 새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변새 지역을 왕래하였을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행인들의 내역과 가축의 현황까지 문서로 보고하였던 점은 오히려 변새 지역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철저한 통제 속에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 왕래하였다. 다음의 조문을 보자.

[다-⑤] 23·승상(丞相)이 (다음과 같은) 비새도위의 문서를 올렸다. “황하의 협곡(夾谿河)에 관소를 설치하고, 황하를 오르내리며 조운(漕運)하는 경우 모두 (이 관소에서) 전을 발급하고, 황하의 북쪽에 있는 현에 정을 설치하여 협곡에 설치된 관(夾谿關)과 대치시키기를 청합니다.”·(승상이 또 이뢰기를)¹²⁹ “(협곡의 관소를) 불법적으로 출입하거나[關出入] 그것을 넘은 자 및 담당 이졸에 대해서는¹³⁰ 모두 ‘월새란관령(越塞關關令)’에 비부(比附)하도록 합니다.”라고 하였다.·승상·어사가 이를 아뢰니, (황제가) 제하기를, “좋다” 하였다.¹³¹

[다-⑤]는 비새도위가 건의한 내용에 승상의 요청이 추가된 규정이다. 다만, ‘협계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한다. 장가산한묘죽간정리소조(張家山漢墓竹簡整理小組)는 협계관이 오늘날 섬현(陝縣)을 가리키며 하북현 역시 고유 명사로서 흥농군(弘農郡)에 있던 현 명으로 설명하였다.¹³² 이에 대해 조문

129 전체 조문을 승상이 올린 비새도위의 문서로 보기보다, 단락을 구분하는 ‘·’ 부호가 있다는 점에서 이하 내용은 비새도위의 문서가 아니라丞相이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상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0 사실상 이 부분 사이에 내용이 추가되어야 의미가 자연스럽다. 즉, 담당 이졸이 ‘關出入’ 혹은 ‘越塞’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알면서 고의로 그들을 통행시켰을 경우와 같은 내용이 첨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131 『二年律令』「津關令」, 324쪽, “廿三·丞相上備塞都尉書, 請爲夾谿河置關, 諸漕上下河中者, 皆發傳, 及令河北縣爲亭, 與夾谿關相直, ·關出入·越之, 及吏(523)卒主者, 皆比越塞關關令, ·丞相·御史以聞, 制曰: 可.(524)”

132 센슈대학[專修大學] 연구회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備塞都尉가 동방 제후국에 대치하여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건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專修大學『二年律令』研究會(2009), 「張家山漢簡『二年律令』譯注(12)-津關令-」, 『專修史學』 46.

을 건의한 비새도위는 주로 변경 관련 직무를 맡았고, 조향을 어긴 자를 ‘월새란관령’에 비부하여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는 변새에 진·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다룬 규정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¹³³ 사실 이 규정은 비새도위가 건의하였고 ‘월새란관령’과 관련된 조향이라는 점에서 함곡관 부근 섬현에 관소를 설치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황하의 수로 중 황토고원과 만나 심한 협곡을 이루는 구간은 관중의 북쪽 지역이자 흉노의 세력과도 인접한 변경의 주요 수비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로 혹은 육로로 이동하는 통행자를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다-⑤]는 황하의 협곡 구간에 위치한 관소와 정을 양방향으로 설치하여 이 지역을 오고가는 사람과 물자의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¹³⁴ [다-⑤]는 기본적으로 황하의 협곡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되었지만, 한편으로 황하를 상시적으로 오르내리며 조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변새를 수시로 출입하였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장성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방목하였던 사람들 외에 황하의 협곡 사이를 오가며 물자를 운반했던 사람들 역시 통행증을 발급 받아 장성을 일상적으로 왕래하였던 것이다.

한편 장성을 비롯한 변새의 관소는 접하고 있는 국가와 대치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침입을 막고 왕래를 통제해야 하는 일종의 방어기지이지만,¹³⁵ 통교(通交)가 시작되는 순간 양국 외교관계의 문호(門戶) 역할을 하였다.¹³⁶ 제국에

133 楊建(2010), 앞의 책, 199쪽. 그는 ‘夾谿河’를 支流가 河口로 들어오는 곳으로 이해하였고, ‘夾谿關’은 변새 지역의 지류가 황하로 들어와 만나는 지점에 진·관을 설치하는 문제로 추정하였다.

134 陳偉(2006), 앞의 글, 152~153쪽.

135 『史記』卷109「李將軍列傳」, 2867쪽, “孝文帝十四年, 匈奴大入蕭關.” 흉노를 방어해야 하는 한 제국으로서는 공격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변관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했다.

136 南越國에서 內屬을 청하여 3년에 한 번 入朝하는 조공 관계를 수립하자, 한에서 변관

속한 사람의 경우 통행증을 발급 받아 변새를 출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변 국의 사신 역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새를 왕래하였다.

최근 하서 지역에서 발견된 한간 자료에는 서역과의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역에서 온 사신들은 옥문관이나 양관을 거쳐 돈황에 도착하였고, 돈황의 태수부에서는 그들이 봉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파견하여 행재소(行在所)까지 호송하였다. 현천지(懸泉置)에서 발견된 한간 중 당시 사용했던 전신(傳信)의 사본이 발견되었는데,¹³⁷ 전신 중에는 다음과 같이 서역인들의 호송을 위해 사용했던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다-⑥] “오봉(五鳳) 4년(기원전 54년) 6월 27일,¹³⁸ 사주객산기광록대부(使主客散騎光祿大夫) 전부위(田扶韋)(가 제조어사의 명을 받들기를): ‘운중태수(雲中太守) 안국(安國) …… (의미 불분명) …… 로 하여금 차사왕(車師王)·오손(烏孫) 제국(諸國)의 객을 호송하게 하며, 군후(軍候)¹³⁹ 주충국(周充國)도 함께 선구(先俱)를 실게 한다. 2마(馬) 초전(軺傳)을 발급하며, 두 사람이 함께 타게 한다.’ 어사대부 두연년(杜延年)이¹⁴⁰ [부풍구(扶風廐)에

을 첩폐하였던 일은 좋은 예다. 『史記』 卷113 「南越列傳」, 2967쪽, “漢十一年, 遣陸賈因立佗爲南越王, 與剖符通使, 和集百越, 毋爲南邊患害, 與長沙接境. …… 元鼎四年 …… 太后恐亂起, 亦欲倚漢威, 數勸王及羣臣求內屬. 卽因使者上書, 請比內諸侯, 三歲一朝, 除邊關.”

137 이 글에서 분석한懸泉漢簡 傳信簡은 胡平生·張德芳 編撰(2001), 『敦煌懸泉漢簡釋粹』, 上海古籍出版社(이하 『懸泉釋粹』로 약칭) 및 張德芳(2005), 「懸泉漢簡中的“傳信簡”考述」, 『出土文獻研究』 7輯에 소개된 자료다.

138 ‘五鳳四年六月丙寅’은 선제 오봉 4년(기원전 54년) 6월 27일에 해당한다. 『懸泉釋粹』 151쪽 註釋1 참조.

139 『後漢書』 「百官志」 將軍, 3564쪽, “其領軍皆有部曲 …… 部下有曲, 曲有軍候一人, 比六百石.”

140 『漢書』 卷19 「百官公卿表」, 810쪽, “(五鳳3年) 六月辛酉, 西河太守杜延年爲御史

명하니? 문서에 따라 순차에 맞게 (수레를) 타게 하고, 전사(傳舍)에 대한 규정은 올령에 따라 처리하라. (전면)¹⁴¹

[다-⑦] 홍가(鴻嘉) 3년(기원전 18년) 정월 임진일(壬辰日)에 태수속(太守屬) 전충(田忠)을 보내어 스스로 찾아온 선선왕(鄯善王)의 부사(副使) 고체(姑歲)와 산왕(山王) 부사 조불전(鳥不豚)을 호송하여 행재소에 이르러 봉헌(奉獻)하게 하였다. 승전(乘傳) 한 대를 사용한다. 태수의 업무를 대행하는 둔황장사(敦煌長史) 충국(充國)과 승(丞) 안(晏)이 둔황 지역에 보내니 가(駕)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사 및 군의 저(邸)에 관해서는 올령에 따라 처리하라. 6월 신유(辛酉)일 서(西).”¹⁴²

[다-⑧] 건평 5년(기원전 2년) 11월 경신일(庚申日)에 졸사(卒史) 조평(趙平)을 보내어 스스로 찾아온 대완(大宛)의 사자(使者) 후릉(侯陵)을 호송하여 □□에 이르러 봉헌하도록 ……(이하 불분명).¹⁴³

大夫，三年以病賜安車駟馬免。”

- 141 『懸泉釋粹』 II 0113③: 122, 151쪽, “二一五. 五鳳四年六月丙寅, 使主客散騎光祿大夫田扶韋, 制詔御史曰: 使雲中太守安國·故□未央倉龍□衛司馬蘇□武彊, 使送車師王·烏孫諸國客, 與軍候周充國載先俱, 爲駕二封軺傳, 二人共載, 御史大夫延年□□□承書以次爲駕, 當舍傳舍, 如律令.” (前面) 한편 ‘御史大夫延年□□□□’ 부분을 ‘張德芳(2005)」簡19’에서는 ‘御史大夫延年□□□□’를 ‘御史大夫延年下扶風廡’로 석독하였다. 그리고 배면의 내용은 전면의 기록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 142 『懸泉釋粹』 II 0214②: 78, 108쪽, “一四三 鴻嘉三年正月壬辰, 遣守屬田忠送自來鄯善王副使姑歲·山王副使鳥不豚, 奉獻詣行在所, 爲駕一乘傳. 敦煌長史充國行太守事·丞晏謂敦煌, 爲駕, 當舍傳舍·郡邸, 如律令, 六月辛酉西.”
- 143 『懸泉釋粹』 II 0114④: 57, 113쪽, “一四八 建平五年十一月庚申, 遣卒史趙平, 送自來大宛使者侯陵奉獻, 詣□□以 ……”

[다-⑥]는 비록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오봉 4년(기원전 54년) 6월에 사주객인 전부위가 차사왕·오손 제국의 객을 호송하게 하는데 사용한 전신으로서 당시 어사대부였던 두연년이 발급하였다. 서역인의 호송을 맡은 사주객은 대홍려(大鴻臚)의 속관으로서, 주로 ‘호객(胡客)’의 관리를 담당하였다.¹⁴⁴ 현천한간 『강거왕사자책(康居王使者冊)』에서도 사주객 강거왕(康居王)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였다.¹⁴⁵ [다-⑦]은 스스로 찾아온 선선왕의 부사 고채와 산왕 부사 조불전을 호송하여 행재소로 가는 임무를 맡은 태수속 전충이 발급 받은 전신으로서, 서역의 사자들은 돈황 태수가 보낸 호송 관리와 함께 행재소에 이르러 봉헌하였다.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다-⑧] 역시 스스로 찾아온 대완의 사자 후릉을 호송하는 출사 조평이 사용한 전신으로서 대완의 사자는 호송 관리와 함께 봉헌을 하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전신은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특수한 문서로서,¹⁴⁶ 문헌 기록에는 어사대부의 인으로 봉인한다고 하였다.¹⁴⁷ 그런데 현재 공개된 전신 자료 중에는 돈황 태수의 권한하에 서역인들을 호송하기 위해 발급된 전신도 있다. 현천한간에 포함된 전신 중 돈황 태수가 발급한¹⁴⁸ 사례에는 모두 영에

144 『漢書』 卷68 「金日磾傳,附 金安上傳, 2963쪽, “上召岑, 拜爲使主客.” “(注) 服虔曰, ‘官名, 屬鴻臚, 主胡客也.’”

145 『懸泉釋粹』 155(II0216②): 877~883) 참조.

146 전신은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였는데, 임무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반환해야 했고 만일 잃어버렸을 때는 각지에 문서를 보내어 전신을 찾는 데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일반 백성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게 하였다.懸泉 한간 중 잃어버린 전신을 찾기 위해 각 지역에 문서를 보내어 조치를 취하는 내용인 「失亡傳信冊」(『懸泉釋粹』 II 0216②866-869, 29쪽)은 좋은 예다.

147 『漢書』 卷12 「平帝紀」, 359쪽, “如淳曰, ‘律, 諸當乘傳及發駕置傳者, 皆持尺五寸木傳信, 封以御史大夫印章, 其乘傳參封之.’”

148 『懸泉釋粹』V1311③: 315, 142쪽, “二〇一, 使烏孫長羅侯惠遣斥候恭, 上書詣行在所, 以令爲駕一乘傳, 甘露二年二月甲戌, 敦煌騎司馬充行大守事, 庫令賀賀兼行

따라 교통수단을 사용하게 하라는 구절[以令爲駕]이 적혀 있다.¹⁴⁹ 이는 문헌 기록과 달리 돈황 태수와 같은 군 태수 역시 영에 따라 전신을 발급할 수 있었고, 변새가 있는 군의 태수는 관할지역에 속한 변관을 통해 외국 사신이 왔을 경우 관리에게 전신을 발급하여 호송을 담당하게 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외국 사신이 변경에 도착하면 서역 사신들의 경우와 같이 변군 태수가 그들의 출입이나 왕래 문제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서역의 경우 반드시 공식 사신들만 왔던 것은 아니며, 때로 왕이 보낸 사자 없이 ‘귀인(貴人)’¹⁵⁰이나 ‘후인(侯人)’¹⁵¹만 오기도 하였다. 비록 이들의 출입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왕의 사자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방문일 가능성이 높다. 공식 사절단이 아닌 경우에도 위와 같이 관리를 파견하여 호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丞事，謂敦煌以次爲，當舍傳舍，如律令。” 이 역시 돈황 태수의 권한 대행자가 발급한 전신이다.

- 149 비록 일부 내용만 남아 있지만 다음의 간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다. 「張德芳」(2005) 簡31, II90DXT0314②: 121, “使大宛車騎將軍長史尊使庠侯□ 行在所以令爲駕一乘傳□”; 「張德芳」(2005) 簡32, V92DXT1311③: 146, “尉頭蒲離匿皆奉獻詣 行在所以令爲駕四乘傳.”
- 150 예를 들어 “一四二 大宛貴人烏莫塞獻橐他一匹，黃，乘，須兩耳，絮一丈，死縣(懸)泉置 ……”(『懸泉釋粹』 II 0214②: 53, 108쪽)은 大宛의 ‘貴人’ 烏莫塞가 바친 낙타에 대한 기록이고, “二一八 出米四升·肉二斤·酒半斗，以食烏孫貴姑代一食，西.”(『懸泉釋粹』 II 0314②: 355, 154쪽)는 烏孫의 ‘貴人’ 姑代的 식사에 지출된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 151 예를 들어 “二五七 出粟一斗八升，以食守屬蕭嘉送西罕侯封調，積六食，食三升.”(『懸泉釋粹』 II 0111①: 174, 174쪽)은 속리 蕭嘉를 시켜 西罕侯 封調를 호송하도록 한 것과 소요된 식사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서 西罕侯는 강족의 侯로 볼 수 있는데(『懸泉釋粹』, 174쪽, 주석 1), 懸泉 한간 중 ‘侯人’은 왕의 使者나 ‘貴人’과 다르며 서역 각국에 ‘輔國侯’(『漢書』 卷96上 「西域傳」, 3875~3925쪽)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관리로 보인다.

[다-⑨] 돈황 태수 쾌(快)가 수속(守屬) 충국(充國)으로 하여금 뇌강(牢羌)·□□강(羌) 후인 12명을 호송하게 하였다. 신작 2년(기원전 60년) 11월 계묘삭(癸卯朔) …… (불분명). 영에 따라 승전(乘傳) 2대를 타게 하라. 11월 신미일(辛未日)에 모두 파(罷)한다. 전사를 사용하는 일과 종자(從者)는 율령에 따라 처리하라.¹⁵²

이는 돈황 태수인 쾌가 신작 2년(기원전 60년) 11월에 뇌광·□□강의 ‘후인’ 12명을 호송하는 대수속 충국을 위해 발급한 전신이다. 뇌광·낭하강(琅何羌)은 모두 강족의 일종인데, 이들은 사자라는 언급 대신 ‘후인’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비록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다-⑨]는 공식 사자의 신분이 아닌 외부의 ‘후인’들 역시 변새를 통과하여 내지에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전한 말, 성제 시기 두흠(杜欽)은 계빈국(罽賓國)의 사신이 돌아갈 때 관리를 파견하여 호송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특히 그는 계빈국의 사신은 왕의 친속이나 귀인은 하나도 없고 헌물을 바치는 자들은 모두 장사하는 미천한 자들로서 물자를 교환하고 장사하려고 할 뿐 헌납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¹⁵³ 이는 당시 헌납을 바치러 왔던 서역인들이 사실상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대변한다.

현천한간 중 「강거왕사자책(康居王使者冊)」은 그 좋은 예다. 이 문서는 영광

152 『懸泉釋粹』 I 0210③: 6, 162쪽, “二三四. 敦煌太守快使守屬充國送牢羌·□□羌侯人十二. 神爵二年十一月癸卯朔 …… 琅何羌□□疆藏□□□行在所, 以令爲駕二乘傳, 十一月辛未皆罷. 當舍傳舍, 從者如律令.”

153 『漢書』卷96上「西域傳」罽賓國, 3886쪽, “成帝時, 復遣使獻謝罪, 漢欲遣使者報送其使, 杜欽說大將軍王鳳曰, ‘…… 今悔過來, 而無親屬貴人, 奉獻者皆行賈賤人, 欲通貨市買, 以獻爲名, 故煩使者送至縣度, 恐失實見欺, …….’”

(永光) 5년(기원전 39년) 강거왕(康居王)과 소해왕(蘇蠡王)의 사신과 귀인들이 태수부 관리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항의한 일을 다루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항의하였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종래 전식(傳食)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었다.¹⁵⁴ 이에 대해 상부에서는 그들에게 전식의 비용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원래 공식 외국 사신이 방문할 경우 그들의 식사는 변경이나 해당 관청에서 제공하였는데,¹⁵⁵ 이 문서에 보이는 강거왕·소해왕의 사신이나 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라는 결정은 이들을 공식 사신으로 대우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은 국내에 들어와 돈황 태수부에서 낙타를 바치고 그에 대한 값을 매겨 받았으며, 이후 주천으로 옮겨가 거기서도 낙타를 바치고 값을 매겨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서역인들이 ‘헌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지로 들어왔으나 실제로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두흙의 지적처럼 이들 또한 일종의 ‘서역 상인’이었다.¹⁵⁶ 즉, 서역에서 온 ‘상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황제에게 헌물을 바치러 왔다는 명분을 내세웠을 경우 변세를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⁵⁷ 이러한 대외 교류의 형식은 서역뿐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의 경우에도

154 「康居王使者冊」에 대한 종래 석독의 오류 수정이나 한대 서역인들의 중국 내지 여행의 사례와 성격에 대해서는 'Byung-joon, Kim(2010), "Trade and Tribute along the Silk Road before 3C A. D.", *Journal of Central Eurasian Studies* 2, 7~20쪽 참조.

155 黎虎(1998), 『漢唐外交制度史』, 蘭州大學出版社, 86~89쪽.

156 康居國이 사자(侍子)를 보낸 이유도 사실상 상업적 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漢書』 卷96上 「西域傳」 康居國, 3893쪽, “何故遣子入侍? 其欲賈市爲好, 辭之詐也.”).

157 그렇다고 서역에서 온 모든 자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 太和년간 돈황 태수로 부임한 倉慈는 매일 서역의 상인들이 헌납하러 찾아오자 洛陽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通衢中[過所]을 발급해 주고 돈황군에서 돌아가길 원하는 자는 군에서 값을 매겨 헌납을 받은 후 군의 관부가 보유한 물건으로 거래하게 하였다. 倉慈의 이

유사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즉, 국방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주변국의 사람들이 헌납을 명분 삼아 찾아왔을 때 변군 태수의 관할하에 변세 출입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 장성은 삼엄한 경계가 유지되었던 서북변의 방어선이었지만, 한편으로 인근 거민들의 생활공간이자 외국 사신은 물론 헌납을 명분 삼은 ‘상인’까지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왕래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다.

IV. 맺음말

한 장성은 서북변경에 흙·돌 등을 이용하여 인공 담장을 만들거나 참호를 파는 등의 방법으로 만든 방어선이었다. 현재 남아 있는 한 장성 유지를 살펴보면, 대개는 흙을 다져서 쌓는 판축기법을 이용하여 인공 담장을 쌓았지만, 거연이나 소록하 유역과 같이 진흙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자갈·돌·갈대·버드나무 등을 이용하여 쌓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산·협곡이 있는 지역은 인공 담장이나 참호를 만들지 않고 자연 지형을 장성의 일부로 삼았다. 장성을 축조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장성에 장·오 및 봉수를 부대시설로서 설치하고 수졸을 배치하여 상비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 한 장성 유지로 언급되는 지역은 크게 네 지역으로 나

런 행동은 매일 찾아와 통상을 요구하는 서역 상인들에 대한 매우 호의적 행동이었다. 『三國志』 卷16 「倉慈傳」, 512쪽, “倉慈字孝仁, 淮南人也, …… 又常日西域雜胡欲來貢獻, …… 胡常怨望, 慈皆勞之. 欲詣洛者, 爲封過所, 欲從郡還者, 官爲平取, 輒以府見物與共交市, 使吏民護送道路, 由是民夷翕然稱其德惠.” 이 경우 서역인들이 변세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헌납한다는 명분이라도 내세워야 했다.

는다. 첫째 진 장성을 계승하여 진 장성과 노선이 겹치는 지역, 둘째 하서주랑을 포함한 하서 지역, 셋째 ‘옥문-염택’ 사이의 새가 설치되었던 옥문관 이서 지역, 넷째 새외 장성이 세워졌던 내몽고 지역이다. 한 장성의 북변은 대체로 진 장성의 노선을 계승한 것이고, 나머지 하서 지역 장성과 새외 장성은 현대 신축한 것이다. 특히 한 무제 시기 흉노와의 원정이 시작되면서 진 장성에 대한 수보는 물론 하서를 비롯한 서북 변경 지역 장성 축조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사실 한 장성 중 진 장성을 계승한 노선을 제외한 여타 지역 장성은 모두 무제 때 신축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 장성의 건축과 수보 작업은 흉노와의 관계 양상이 중요한 변수였다.

문헌 기록에 한 장성은 변세의 일종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한 장성을 이해할 때는 무엇을 장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전술한 대로 팽희는 장성의 필수 요소로서 성장·봉수·장새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경애는 장성은 연속되는 높은 성장으로서 흙·돌·벽돌을 쌓아 만들었으며, 변경에 수축한 적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시설이라고 정의하였다. 경애의 경우 각 시대 장성을 검토하면서 장성은 연속되는 담장 형태를 띠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노선의 대부분이 인공 참호나 자연 지형을 이용한 형태로 이루어진 영거새나 담장의 높이가 낮은 거연새의 경우 장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장성의 초기 형태인 진 장성의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 인공 담장을 쌓지 않았고 지역에 따라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장성을 구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 제국의 국경에 해당하는 방어선 기능을 한다면, 비록 담장의 높이가 낮거나 참호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넓은 의미에서 한 장성의 일부로 포함시켜 이해하였다.

그런데 장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모든 수비 시설을 한 장성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옥문관에서 염택까지 이르는 지역에 설치되었던 수

비 시설을 한 장성의 일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물론 옥문관에서 염택까지 장·새·정·수가 설치되었다는 문헌 기록이 있고 실제 관련 유지가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후한서』 「서강전(西羌傳)」에서는 이를 장성 밖에 설치된 시설로서 장성과 구분하였고 당시 제국의 국문으로 여겨졌던 옥문관·양관 이서 지역까지 국경선의 기능을 하였던 장성의 일부로 파악할 수는 없다. 즉, 한 장성은 당시 제국의 직접 지배 범위의 외연에 위치한 방어선으로서, 제국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수비 시설까지 장성의 일부로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은 새외 장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새외 장성이 거연새의 방어선과 오원새의 방어선을 잇는 최북단 방어선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무제 때로 그 시기를 한정할 경우 새외 장성을 제국의 북변이자 한 장성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새외 장성 이내 지역이 제국의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제국의 국경으로서 한 장성의 일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중국의 장성 연구 중 많은 부분은 장성의 동단을 어디로 규정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논의할 때도 과연 그 지역이 제국의 실제 지배 범위에 속했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장성에 부속 시설인 성·장 및 봉수 유지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장성의 노선을 확정할 수는 없다. 한 장성의 동단은 사실 그 축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한 장성은 진 장성의 동단을 계승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진 장성의 동단은 또한 연 장성의 동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당 유지의 시기를 비정하는 문제나 진 장성 동쪽 노선에 대한 문헌상의 오류¹⁵⁸까지 맞

158 『太康地理志』를 비롯한 중국 문헌에 진 장성의 동단을 한반도 북부, 즉 樂浪郡 遂城

물려 현재 학계에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¹⁵⁹ 장성을 구성하는 부대시설의 유무는 장성의 개념을 정의할 때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장성의 형태적 특징 이외 당시 사회에서 제국의 방어선으로서 실제 기능하였는지도 장성을 파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한 장성 서단의 경우 옥문관과 양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볼 수 있고, 그 서쪽 염택까지 이르는 지역에 장·새·정·수 등의 수비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국의 국경으로 포함시켜 이해할 수는 없다. 한 제국의 국경은 기본적으로 변군의 관할 범위를 나타내는 군계(郡界)의 집적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한 장성은 그것이 세워진 변군의 경계에 해당하여야 될 것이다.

한 장성은 서북 변경의 선으로 이루어진 방어 시설이었고 장성의 출입은 매우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그렇다고 한 장성이 철통처럼 수비하였던 막힌 장벽만은 아니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경작이나 가축 방목을 위해 상시적으로 장성을 넘나들었고 장성 지역의 문서 전달과 물자 운송을 맡은 자들 역시 통행증을 소지하고 장성을 수시로 왕래하였다. 주변국의 사신 역시 변군 관리의 관할하에 내지로 출입하였고 공식 사신을 빙자한 ‘상인’들 역시 헌납을 명분으로 내세워 변관을 출입하였다. 이는 한 장성이 철통 수비선이기도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자 대외 교역의 통로이기도 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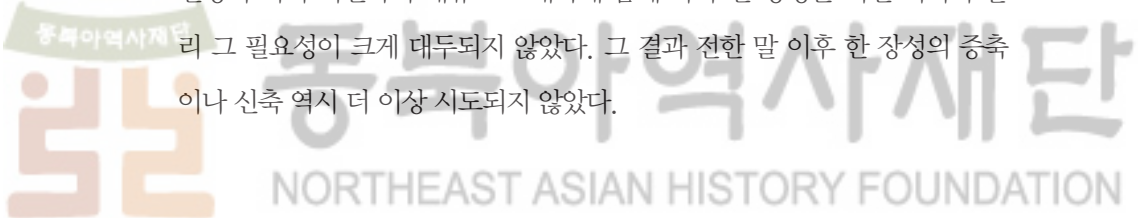
한 장성은 무제 이후 증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전과 같이 철통 방어가 이루어졌던 방어선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한 장성의 노선을 사실상 확장하였던 무제 역시 인정했던 한계이기도 했다. 무제 말년에 내린 조칙

縣으로 서술하게 된 배경과 그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李成珪(2005),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 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최소자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참조.

159 이에 대한 연구 동향은 홍승현(2012), 앞의 글, 354~371쪽 참조.

을 보면 당시 변방의 관문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마음대로 새외로 나가는 일을 금하지 못하는 데다, 변방의 봉화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며 문제가 있어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고, 흉노로 투항하는 사람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흉노의 투항자가 와서 여러 사정을 알려 주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당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¹⁶⁴

이처럼 변경 수비는 무제 시기에 이미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게다가 수차례의 대외 원정 결과 무제 시기부터 주변 민족이 내속(內屬)하기 시작하여, 전한 말부터 후한 시기까지 흉노는 물론 여러 주변 민족이 제국 내부로 편입되었다. 진 장성 이래 한 장성은 주로 흉노와의 대치 관계 속에서 수보·신축되었다. 따라서 전한 말 이후 흉노 세력이 약화되고 강족을 비롯한 서북 변경의 여러 이민족이 대규모로 내속해 오며 따라 한 장성은 이전 시기와 달리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 결과 전한 말 이후 한 장성의 증축이나 신축 역시 더 이상 시도되지 않았다.



160 『漢書』 卷96下 「西域傳」, “上乃下詔, 深陳既往之悔, 曰, ‘…… 且匈奴得漢降者, 常提掖搜索, 問以所聞. 今邊塞未正, 闌出不禁, 障候長吏使卒獵獸, 以皮肉爲利, 卒苦而火乏, 失亦上集不得, 後降者來, 若捕生口虜, 乃知之. …….’”

자료

- 동북아역사재단 편(2009·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1~3), 동북아역사재단.
-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甘肅省博物館·中國文物研究所·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1994), 『居延新簡-甲渠候官』, 中華書局.
- 『史記』,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謝桂華·李均明·朱國炤(1987), 『居延漢簡釋文合校』, 文物出版社.
- [西漢]劉向 集錄, 范祥雍 箋證, 范邦瑾 協校(2006), 『戰國策箋證』, 上海古籍出版社.
-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1990), 『睡虎地秦墓竹簡』, 文物出版社.
- 楊伯峻 編著(1981), 『春秋左傳注』, 中華書局.
-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2001), 『張家山漢墓竹簡』, 文物出版社.
- 陳偉 主編(2012), 『里耶秦簡牘校釋』 第1卷, 武漢大學出版社.
- [清]王先慎 撰, 鍾哲 點校(1998), 『韓非子集解』, 中華書局.
- 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2007),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古籍出版社.
- 『漢書』,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2012), 『里耶秦簡(壹)』, 文物出版社.
- 胡平生·張德芳 編撰(2001), 『敦煌懸泉漢簡釋粹』, 上海古籍出版社.
- 『後漢書』,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저서

- 岳邦湖·鍾聖祖 著·甘肅省文物局 編(2001), 『疏勒河流域漢代長城考察報告』, 文物出版社.
- 景愛(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 楊建(2010), 『西漢初期津關制度研究』, 上海古籍出版社.
- 黎虎(1998), 『漢唐外交制度史』, 蘭州大學出版社.
- 吳勛驥(2005), 『河西漢塞調查與研究』, 文物出版社.
- 彭曦(1990), 『戰國秦長城考察與研究』, 西安: 西北大學出版社.

- 黃麟書(1971), 『秦皇長城考』, 造陽文學社.
- 靱山明(1999), 『漢帝國의 邊境社會』, 東京: 中央公論新社.
- 富谷至 編(2006),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研究報告: 譯注篇) 江陵張家山二四七號墓出土漢律令の研究』, 朋友書店.
- 青木富太郎(1972), 『萬里の長城』, 東京: 近藤出版.
- 阪倉篤秀(2004), 『長城の中國史-中華vs遊牧六千キロの攻防』, 東京: 講談社.
- Waldron, Arthur(1990), *The Great Wall of China: from history to myth*, Canto ed. (Cambridge studies in Chinese history, literature and institutions), Cambridge [England]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 宋眞(2012), 「戰國時代 邊境의 出入管理와 符節」, 『中國古中世史研究』 27.
- 宋眞(2012), 「前漢時期 帝國의 內部 境界와 그 出入 管理」, 『東洋史學研究』 121.
- 李成珪(2005), 「4세기 이후의 낙랑교군과 낙랑유민」, 『동아시아 역사속의 중국과 한국』, 최소자교수 정년기념논문총 간행위원회.
- 홍승현(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총』 35, 동북아역사재단.
- 蓋山林·陸思賢(1980), 「內蒙古境內戰國秦漢長城遺迹」, 『中國考古學會 第一次年會論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 蓋山林·陸思賢(1981), 「潮格旗朝魯庫倫漢代石城及其附近的長城」,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出版社.
- A·A·科瓦列夫 外(2008), 「蒙古國南戈壁省西夏長城與漢受降城有關問題的再探討」, 『內蒙古文物考古』 2.
- 甌燕(1987), 「我國早期的長城」, 『北方文物』 2.
- 甌燕(1995), 「我國長城的考古發現與研究」,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羅哲文·董耀會(1995), 「長城學的幾個基本理論問題」,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譚其驤(1991), 『中國歷史地圖集(元始社會·夏·商·西周·春秋·戰國時期)』, 三聯出版社.

- 唐曉峰(1977),「內蒙古西北部秦漢長城調查記」,『文物』5.
- 馬雍(1990),「西漢時期的玉門關和敦煌郡的西境」,『西域史地文物叢考』,北京:文物出版社.
- 莫任南(1992),「匈奴對漢王朝的政策」,『中國邊疆史地研究』4.
- 白音查干(1987),「漢長城考察與研究」,『內蒙古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1.
- 白音查干(1998),「長城與漢匈關係」,『內蒙古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6.
- 徐衛民(2012),「秦始皇長城研究綜論」,『秦漢研究』第6輯.
- 舒振邦(1988),「前漢時期長城內外的民族關係」,『內蒙古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4.
- 蕭景全(2000),「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北方文物』63.
- 辛德勇(2005),「陰山高闕與陽山高闕辨析-並論秦始皇萬里長城西段走向以及長城之起源諸問題」,『文史』3.
- 吳勗驤(1990),「河西漢塞」,『文物』12.
- 王子今(1995),「漢代河西長城與西北邊地貿易」,『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長春:吉林人民出版社.
- 劉子敏(1996),「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社會科學戰線』5.
- 李慶發·張克舉(1987),「遼寧西部漢代長城調查報告」,『北方文物』2.
- 李并成(1994a),「河西走廊中部漢長城遺跡考」,『敦煌學輯刊』1.
- 李并成(1994b),「河西走廊東部漢長城遺跡考」,『西北史地』3.
- 李并成(1995),「河西走廊西部漢長城遺跡及其相關問題考」,『敦煌研究』2.
- 李并成(1996),「河西走廊東部新發現的一條漢長城-漢才胥次縣至媯圍縣段長城勘察」,『敦煌研究』4.
- 李逸友(1984),「漢光祿城的考察」,『內蒙古文物考古』3.
- 李逸友(2001),「中國北方長城考述」,『內蒙古文物考古』24.
- 張德芳(2005),「懸泉漢簡中的“傳信簡”考述」,『出土文獻研究』7輯.
- 張榮芳·王川(1995),「漢長城的修繕及其意義」,『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長春:吉林人民出版社.
- 張維華(1941),「漢置邊塞考略」,『齊魯學報』1.
- 鄭紹宗(1981),「河北省戰國·秦·漢時期古長城和城障遺址」,『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北京:文物出版社.

- 趙化成(1995), 「中國早期長城的考古調查與研究」,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陳江(1995), 「秦漢長城的建築與漢民族的形成」, 『東南文化』 1.
- 陳偉 著·卜憲群·楊振紅 主編(2006), 「張家山漢簡《津關令》“越塞關闕”諸令考釋」, 『簡帛研究 2006』,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彭曦(1995), 「十年來考察與研究長城的主要發現與思考」,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大庭脩(1982), 『秦漢法制史の研究』 「後漢の將軍と將軍假節」, 創文社.
- 橋本增吉(1926a), 「支那古代の長城に就いて(一)」, 『史學』 5-2.
- 橋本增吉(1926b), 「支那古代の長城に就いて(二)」, 『史學』 5-4.
- 橋本增吉(1926c), 「支那古代の長城に就いて(三)」, 『史學』 6-1.
- 富谷至(1990), 「漢代邊境の關所-玉門關の所在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48-4.
- 鷹取祐司 著·富谷至 編(2003), 「漢簡所見文書考-書·檄·記·符-」, 『邊境出土木簡の研究』, 朋友書店.
- 專修大學『二年律令』研究會(2009), 「張家山漢簡『二年律令』譯注(12)-津關令-」, 『專修史學』 46.
- 村田治郎(1943), 「秦·漢の北長城東端」, 『建築學會論文集』 30.
- 塚本靖(1933), 「萬里の長城に就いて」, 『建築學報』 昭和 8-7.
- 片野龍太郎 著·籾山明·佐藤信 編(2011), 「漢代邊境の都尉府と防衛線-長城防衛線遺構の基礎的研究」, 『文獻と遺物の境界-中國出土簡牘史料の生態的研究』, 東京外國語大學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鶴間和幸(1997), 「秦長城建設とその歴史的背景」, 『學習院史學』 35.
- Kim, Byung-joon(2010), “Trade and Tribute along the Silk Road before 3C A.D.”, *Journal of Central Eurasian Studies* 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조 장성 축조와 그 배경

I. 북조 시대 장성 연구사

II. 북위 시대 장성 축조의 배경

III. 동위 북제 시대 장성 축조의 배경

IV. 서위 북주의 장성 축조 부진과 그 배경

V. 맺음말 - 이민족 왕조의 장성 축조의 의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진열(崔珍烈)

중국중세사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대표논저: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201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北魏後期 洛陽거주 胡人들의 생활과 문화-孝文帝의 '漢化政策'의 재검토」(2010, 『중국고중세사연구』 24), 「孝文帝 시기 皇室 通婚의 성격-孝文帝와 諸弟 通婚 가문 등급의 분석을 중심으로」(2012, 『동양사학연구』 121), 「西魏北周 華州(同州)의 政治·軍事的 지위와 역할」(2014, 『중국고중세사연구』 31) 등.

북조 장성 축조와 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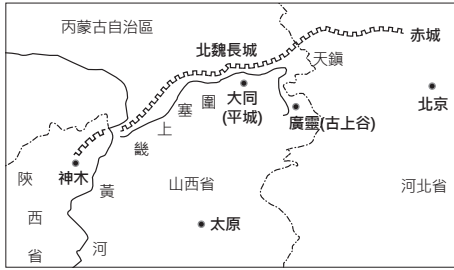
I. 북조 시대 장성 연구사

1. 북조 장성 연구사

1) 유금주의 북조 장성 서술

유금주(劉金柱)는 『만리장성(萬里長城)』¹에서 북조(北朝) 시대 장성(長城)을 개설적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북위(北魏)의 장성이다. 북위를 건국한 도무제(道武帝)의 뒤를 이어 즉위한 명원제(明元帝)는 423년 북방 변경에 장성 2천여 리를 수축하고 수진(戍鎭)을 두어 유연(柔然)의 침입을 방어하였다. 『위서(魏書)』 「태종기(太宗紀)」에 따르면, 태상(泰常) 8년(423년) 유연이 침입하자 이월 무진일 적성(赤城)에서 시작해서 장천(長川)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오원(五原)으로 이어지는 장성을 축조하였다.² 이 장성은 동쪽에서 하북(河北) 적성에서 시작하여 산서성

1 劉金柱(1985), 『萬里長城』,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이하 본문에서 인용주를 일일이 달지 않으며 이 책에서 참조했음을 밝힌다.



〈지도 1〉 북위 장성 지도³⁾

(山西省) 북변(北邊)을 거쳐 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오원현에 이른다. 북위 태무제(太武帝) 시기는 북위의 무력이 가장 강성한 시기였다. 태무제는 황하 유역의 통일 전쟁을 완성하고 북방의 강

적 유연을 물리쳤으며, 장성 이북의 방어에 유리한 지역에 무천(武川), 무명(撫冥), 회삭(懷朔), 유현(柔玄), 어이(禦夷) 등 6개 중진(重鎮)을 설치하여 평성(平城)을 외곽에서 지키도록 하였다.

태무제는 태평진군(太平眞君) 7년(446년) 유월 “병술, 사(司)·유(幽)·정(定)·기(冀) 4주(州)의 10만 인⁴⁾을 징발하여 기상새위(畿上塞圍)를 쌓았다. 상곡(上谷)으로부터 서쪽으로 황하에 이르기까지 너비와 길이 모두 천 리였다.”⁵⁾라고 하였다. 이른바 ‘새위(塞圍)’는 장성보다 높이가 낮고 두께가 얇은 흙벽이며 장성의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 새위는 수도인 평성을 보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새위는 동쪽으로 현재의 산서성 광령(廣靈) 서쪽 상곡(上穀)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산서성과 하북성의 경계를 따라 현재의 산서성 천진현(天鎮縣) 부근에 이르러 서쪽으로 꺾어 대동시(大同市)를 돌아 황하 동안에 도달하였다.

동위(東魏) 시대에는 무정(武定) 원년(543년) 장성을 쌓았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양(梁) 대동(大同) 9년(동위 무정 원년, 543년)에 “승상(丞相) 고환(高歡)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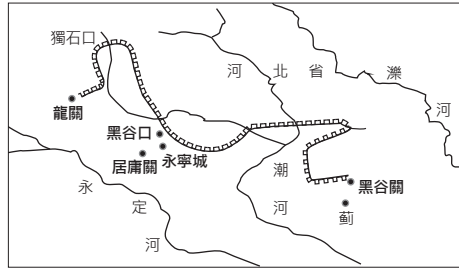
2 『魏書』 卷3「太宗紀」泰常八年二月戊辰條, 63쪽.
 3 劉金柱(1985), 앞의 책, 「圖 2-9 北魏長城示意圖」.
 4 『資治通鑑』에서는 “兵十萬人”이라 함.
 5 『魏書』 卷4下「世祖紀」太平眞君七年條, 101쪽.

주(肆州) 북산에 장성을 쌓았는데, 서쪽으로 마릉(馬陵)에서 동쪽으로 토등(土垆)에 이르렀으며, 40일 만에 파하였다.”⁶라고 하였다. 오른쪽 <지도 2>에서 보듯이 이 장성은 현재의 산서성 정곽현(靜樂縣)에서 순양진(淳陽鎭)에 이르는 선에 해당하며 길이 약 150여 리에 달한다.

북제(北齊) 시대에는 여러 차례 장성을 쌓았다. 특히 문선제(文宣帝)는 북방 변방과 서쪽 북주(北周)의 방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후 여러 차례 장성을 대규모로 축조하였다. 북제가 쌓은 장성의 규모는 진(秦) 장성 다음으로 컸다.

첫째, 문선제는 552년 서북 변경에 장성을 쌓았다. 남쪽으로 현재의 산서성 이석현(離石縣) 서북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산서성 삭현(朔縣) 서쪽에 이르기까지 길이 약 4백여 리였다(<지도 3> 참조).

둘째, 555년 문선제는 북쪽 변경에 대규모로 장성을 쌓았다. 북위 시대에



<지도 2> 동위 무정 원년(543년) 쌓은 장성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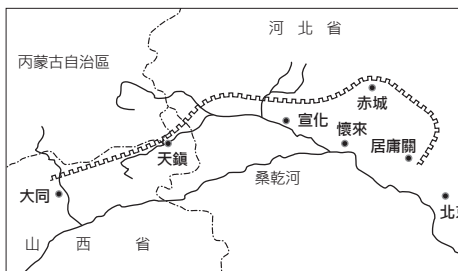


<지도 3> 북제 문선제 천보 3년(552년)⁸

6 『資治通鑒』 卷158「梁紀」14 武帝大同九年條, 4919쪽.

7 劉金柱(1985), 앞의 책, 「圖 2-10 東魏長城示意圖」.

8 劉金柱(1985), 위의 책, 「圖 2-11 北齊長城示意圖(一)」.



〈지도 4〉 북제 문선제 천보 6년(555년) 장성¹¹

쌓은 장성이 간단하고 누추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거나 수십 년의 비바람 때문에 파괴된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이때는 원래의 북위 장성선을 따라 증축하고 수리하였다. 『북제서(北齊書)』

에는 천보 6년 삼월 “이달에 과부를 징발하여 장성을 축조하는 군사들에게 짝지워 주었다.”⁹라고 기록하였다. 또 천보 6년(555년) 유월 부(夫) 180만 인을 징발하여 유주(幽州) 북하구(北夏口)에서 항주(恒州)까지 구백여 리(450km)의 장성을 쌓았다.¹⁰ 북하구는 현재의 거용관(居庸關)의 남구(南口) 부근이며, 항주는 현재의 산서성 대동시에 이르렀다(〈지도 4〉 참조).

셋째, 북제 문선제는 556년 대구모로 장성을 또 축조하였다. 552년과 555년 수축한 두 장성을 증축함과 동시에 동쪽으로 장성을 신축하였다. 이 장성은 현재의 산해관(山海關) 해변에 이르렀으며, 동서로 길이가 3천여 리에 달했다. 약 10리마다 1수(戍)를 두었고, 중요한 곳에는 주진(州鎮) 25소(所)를 설치하였다.¹² 이 장성의 길이는 진·한 장성 다음으로 길다(〈지도 5〉 참조).

넷째, 문선제는 천보 8년(557년) 장성 안쪽에 두 번째 방어선에 해당하는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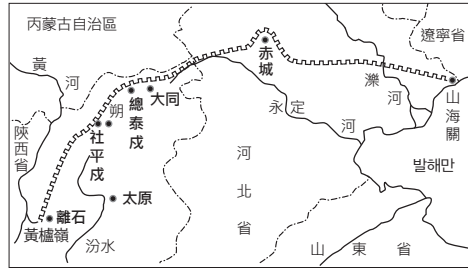
9 『北史』 卷7 「齊本紀·顯祖文宣帝紀」 天保六年三月條, 252쪽, “是月, 發寡婦以配軍士築長城.”

10 『北齊書』 卷4 「文宣紀」 天保六年條, 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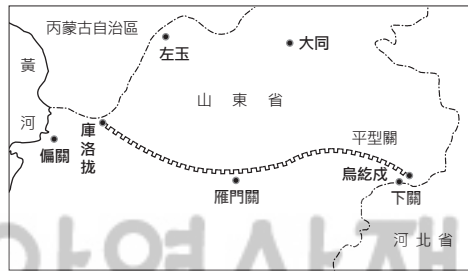
11 劉金柱(1985), 앞의 책, 「圖 2-12 北齊長城示意圖(二)」.

12 『北齊書』 卷4 「文宣紀」 天保七年條, 63쪽.

성을 쌓았다. 문선제는 천보 8년(557년) 십이월 장성안 고락발(庫洛拔)에서 동쪽으로 오흘수(塢紇戍)에 이르는 4백여 리의 또 다른 장성을 쌓았다.¹³ 아래의 <지도 6>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내장선(內長城)은 현재의 산서성 편관(偏關) 동쪽의 노영(老營) 부근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안문관(雁門關)·평형관(平型關)을 거쳐 산서성 하관(下關) 부근에 이르렀다.



<지도 5> 북제 문선제 천보 7년(556년) 장성¹⁴



<지도 6> 북제 문선제 천보 8년(557년) 장성¹⁵

다섯째, 무성제(武帝)는 563년 현재의 산서(山西) 허북 교계처(交界處)에서 태행산(太行山)을 따라 장성을 쌓았다. 『자치통감』에는 하청(河淸) 2년(563년) “사공(司空) 곡률광(斛律光)에게 보병과 기병 2만을 이끌고 지관(軹關)에 훈장성(勳掌城)을 쌓도록 조서를 내려 명령하였다. 이에 장성 2백 리를 쌓고 12수를 설치하였다.”¹⁶라고 하였다. 이 북장성(北長城)은 현재의 태행산 전시(顛時)에서 발견된다.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부분은 현재의 허북 용천관(龍泉關) 이서에

13 『北齊書』卷4「文宣紀」天保八年十二月條, 64쪽.

14 劉金柱(1985), 앞의 책, 「圖 2-13 北齊長城示意圖(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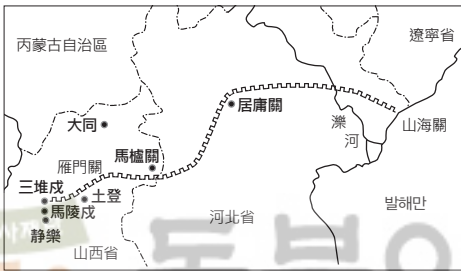
15 劉金柱(1985), 위의 책, 「圖 2-14 北齊長城示意圖(四)」.

16 『資治通鑒』卷169「陳紀」3 文帝天嘉四年條, 5231쪽.



〈지도 7〉 북제 무성제 하청 2년(563년) 장성¹⁷

서 하북 건평현(建平縣) 하구진(下口鎮) 이서에 이르렀다. 낭자관(娘子關) 남쪽에서 마령관(馬嶺關)을 거쳐 황양관(黃洋關)에 이르는 장성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지도 7〉 참조).



〈지도 8〉 북제 무성제 천통 연간 장성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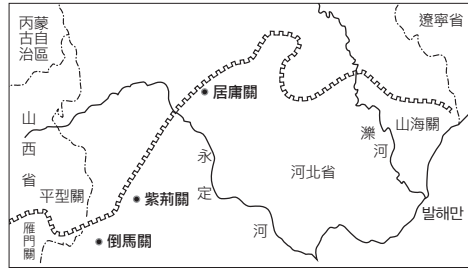
여섯째, 무성제는 하청 2년(563년) 돌궐(突厥)의 20만 병민(兵民)이 침입하여 장성을 훼손하고 항주(瓊州)를 공격하자 이에 565년에 원래 동위 시대에 쌓았던 옛 장성을 증축하였다. 이 장성은 안문관에 이르렀다.

또 567년에 이전의 내장성을 보수하고 개축하였다. 산서성 하관 부근에서 삽전령(插箭嶺)·부도육(浮圖峪)·자형관(紫荊關)·마수구(馬水口)를 거쳐 동쪽으로 거용관에 이르는 장성이었다. 거용관에서 산해관에 이르는 장성도 손질하고 개축하였다. 유주자사(幽州刺史) 곡률선(斛律羨)은 “천통(天統) 원년(565년) 고퇴수(庫堆戍)에서 동쪽으로 바다까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산을 깎아 성을 쌓거나 골짜기를 막아 장(障)을 설치하여 모두 수라(戍邏) 50여 소를 두었다.”¹⁹라고 하였다(〈지도 8〉 참조).

17 劉金柱(1985), 앞의 책, 「圖 2-15 北齊長城示意圖(五)」.

18 劉金柱(1985), 위의 책, 「圖 2-16 北齊長城示意圖(六)」.

북주는 처음에는 북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돌궐과 화친정책을 취하여 후방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이후 돌궐이 여러 차례 북변을 범하자 북주 선제(宣帝)



〈지도 9〉 북주 장성²⁰

는 579년 원래의 북제 장성

을 대규모로 수축하였다. 『주서(周書)』 「선제기(宣帝紀)」에는 산둥(山東) 주민을 징발하여 장성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보인다.²¹ 『자치통감』 호주(胡註)에서는 “북제가 쌓은 장성을 수리한 것이다(修齊所築長城也).”²²라고 하였다. 『일지록(日知錄)』에는 이 장성의 위치를 “서쪽으로 안문(雁門)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갈석(碣石)에 이른다(西自雁門, 東至碣石).”²³라고 기록하였다(〈지도 9〉 참조).

2) 주대위의 장성 연구

주대위(朱大渭)는 「북조역사건치장성급기군사전략지위(北朝歷史建置長城及其軍事戰略地位)」²⁴에서 북위와 동위 북제, 수(隋)의 장성 축조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19 劉金柱(1985), 앞의 책, 「圖 2-17 北周長城示意圖(六)」.

20 『北齊書』 卷17 「斛律金傳附羨傳」, 227쪽. 주대위는 이 방어 시설을 북제의 일곱 번째 장성이라고 보았다. 朱大渭(2007), 「北朝歷史建置長城及其軍事戰略地位」, 『六朝史論續編』, 北京: 學苑出版社(原載: 朱大渭(2006) 『中國史研究』 2), 276쪽.

21 “發山東諸州民, 修長城.” 『周書』 卷7 「宣帝紀」 大象元年六月條, 120쪽.

22 『資治通鑑』 卷173 「陳紀」7 宣帝太建十一年條, 5398쪽.

23 『日知錄』[顧炎武 著·黃汝成 集釋(1996), 『日知錄集釋』, 長沙: 岳麓書社] 卷31 長城條, 1133쪽, “周宣帝大象元年六月, 發山東諸州民修長城, 立亭郭, 西自雁門, 東至碣石.”

24 朱大渭(2007), 위의 글.

북위 시대 장성 축조에 대해 살펴보자.

북위는 장성 설치에 앞서 태상 7년(422년) 구월에 길이 32리의 평성 외곽성을 설치하였다.²⁵ 그리고 다음 해(423년) 이월 적성에서 시작해서 장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오원으로 이어지는 장성을 축조하였다.²⁶ 장성이 시작된 적성은 지금의 하북성 적성현이지만, 오원의 위치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북위 시대 오원은 두 개 있었다. 한대 구원군(九原郡)의 이름을 바꾼 오원군의 치소(治所) 오원현이었다. 다른 하나는 북위 말 건의(建義) 원년(528년) 병주(并州) 향군(鄉郡) 동계현(銅鞮縣)을 나누어 설치한 오원현이었다. 북위 장성의 종점은 전한(前漢) 오원군의 치소 오원현이며 현재 내몽고 포두시(包頭市) 서북 20여km였다. 오원은 북위 경기(京畿) 전북(甸服)의 서북 종점이며 북위 초 서북단 군사상 남북의 주요 교통로였다. 따라서 도무제는 네 차례, 명월제는 세 차례, 태무제는 네 차례 오원을 방문하였다. 이는 양한(兩漢) 오원 고지(故地)와 부합하며 북위 서북쪽 군사·경제 중심지였다. 따라서 장성 서쪽의 종점이 하투(河套) 북안의 오원이었다.²⁷ 또 이 장성의 동쪽 끝인 적성은 육진(六鎭)의 가장 동쪽인 어진보다 남쪽 10km에 있었다. 종점인 오원은 회삭진과 옥야진(沃野鎭) 사이였다. 장성의 남쪽은 장천수의 남쪽이 아니라 장천성의 남쪽을 가리킨다. 이 장성은 신가(神慶) 2년(429년) 시월 막남목장(漠南牧場)의 건립에 따라 세운 육진보다 조금 북쪽에 있었다. 장성의 기점과 육진의 동쪽과 서쪽 끝이 접근하였고 육진이 군사 전략 방어상 세운 것을 보면 육진은 장성을 보충한 것이다. 이상의 고증을 정리하면 이 장성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의 하북성 적성현에

25 『魏書』卷3「太宗紀」泰常七年秋九月條, 62쪽.

26 『魏書』卷3「太宗紀」泰常八年二月戊辰條, 63쪽.

27 朱大渭(2007), 앞의 글, 265~267쪽.

서 하북성 장북현(張北縣)과 내몽고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 무천현을 거쳐 최후로 내몽고 오원현에 이르렀다. 전체 길이는 약 750km였다.²⁸

명원제는 태상 7년(422년) 시월 해근(奚斤)이 공격하는 유송(劉宋) 하남 지역으로 남순(南巡)하였고, 십일월 태자 탁발도(拓跋焘)는 육군(六軍)을 이끌고 새상(塞上)으로 출진하였다.²⁹ 명원제가 태상 8년(423년) 오월에 돌아와 안문(雁門)을 거쳐갈 때 탁발도는 새상에서 유대(留臺) 왕공을 이끌고 명원제를 마중 나갔다. 태상 8년(423년) 이월 장성을 쌓을 때 장손한(長孫翰)과 태자 탁발도는 각각 중병(重兵)을 거느리고 막남(漠南)과 새상에 주둔하였다. 장손한은 막남 동단에, 탁발도는 막남 서단의 새상에 있었다.³⁰ 후자는 두 사람이 거느린 병사들이 쌓았다고 한다.³¹

다음으로 태무제는 태평진군 7년(446년) 유월 “병술, 사(司)·유(幽)·정(定)·기(冀) 4주(冀) 4주만 인³²을 징발하여 기상새위를 쌓았다. 상곡으로부터 서쪽으로 하(河(水))에 이르기까지 너비와 길이 모두 천 리였다.”³³ 그리고 태평진군 9년(448년) “이월 계묘일 정주(定州)를 방문하였다. 산동민이 굶주리자 창(倉)을 열어 진휼(賑恤)하게 하였다. 새위의 작(作)을 파하였다.”³⁴ 이 두 기사를 보면 기상새위를 축조하는 데 1년 9개월이 걸렸다.³⁵

28 朱大渭(2007), 앞의 글, 267쪽.

29 “十有一月，泰平王親統六軍出鎮塞上，安定王彌與北新公安同居守。”『魏書』卷3「太宗紀」泰常七年條, 62쪽.

30 朱大渭(2007), 위의 글, 267~268쪽.

31 艾沖(1995), 「北朝諸國長城新考」,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吉林人民出版社. 애충은 탁발도가 장성 축조를 감독했다고 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32 『資治通鑑』에서는 “兵十萬人”이라 함.

33 『魏書』卷4下「世祖紀」太平眞君七年條, 101쪽.

34 『魏書』卷4下「世祖紀」下 太平眞君九年條, 102쪽, “二月癸卯，行幸定州，山東民飢，啓倉賑之，罷塞圍作.”

35 朱大渭(2007), 위의 글, 268쪽.

‘기상새위’의 위치에 대해 여러 학설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평성 주위를 따라서 황하 동안에 이르며 동서남북 모두 약 천 리라는 주장이다.³⁶ 다른 설은 이 성은 아마 거용(居庸)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영구(靈丘)에 이르고 서쪽으로 평형(平刑)·북루(北樓)·안문·영무(寧武)·편두(偏頭) 제 관을 거쳐 하곡(河曲)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는 평성 동남 지역에 축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³⁷

주대위에 따르면, 기상새위의 ‘기’는 평성 경기 지역을 지칭한다. ‘새’는 축조한 장성 ‘복새’를 지칭한다. ‘위’는 평성 경기 범위를 가리키며 동·북·서 삼면에 형성된 포위망이다. ‘서지우하(西至于河)’의 ‘하’는 북선 ‘새위’가 서쪽으로 향하는 종점이었다. 기상새위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상곡 거용관[현재의 북경 시 연경현(延慶縣)]에서 서쪽으로 연주(燕州) 광녕군[廣寧郡, 현재의 하북성 탁록현(涿鹿縣)]을 거쳐 우연수(于延水)의 지류[현재의 하북성 장가구시(張家口市) 선화현(宣化縣) 남양하(南洋河)]를 따라 다시 서북쪽으로 대녕군[大寧郡, 현재의 하북성 회안현(懷安縣)]을 거쳐 북쪽으로 참합포[參合陂, 현재의 내몽고 양성현(涼城縣) 동쪽에 이르러 경기 북부를 에워쌌다. 이어서 서북쪽으로 성락(盛樂) 구경[舊京, 현재의 내몽고 화림격이(和林格爾)]을 에워싸고 다시 황하 하투의 동쪽으로 굽어지고 황하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여 이석진[離石鎮, 현재의 산서 이석현, 병주 치소 진양(晉陽)의 서쪽에 이르렀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900리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900리였다. 『위서』의 ‘광무개천리(廣袤皆千里)’를 『자치통감』에서는 ‘광종천리(廣縱千里)’³⁸라고 기록하였다. ‘광종천리’는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각각 1,000리를 지칭하며 ‘개(皆)’ 자가 생략

36 王國良(1982), 『中國長城沿革考』, 臺北: 明文書局; 李文信(1979), 「中國北方長城沿革考」下, 『社會科學輯刊』 2.

37 壽鵬飛(1982), 『歷代長城新考』, 臺北: 明文書局; 艾沖(1995), 앞의 글.

38 『資治通鑑』 卷124 「宋紀」6 文帝元嘉二十三年條, 3927쪽, “甲申, 魏發冀·相·定三州兵二萬人屯長安南山諸谷, 以備蓋吳竄逸, 丙戌, 又發司·幽·定·冀四州兵十萬人築畿上塞圍, 起上谷, 西至河, 廣縱千里.”

되었다. 동서남북에 새위를 쌓았다면 ‘상(上)’ 자를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 10만 병사를 징발하여 새위를 쌓았다면 1년 9개월 동안 800여 리의 장성을 쌓지 못했을 것이다. 기상새위를 축조했을 시점은 북위가 북방을 통일한 지 8년이 지나 그 전략은 북방 유연에 타격을 준 후 지키는 전략이었으며, 주요 공격 방향은 남조(南朝) 유송이었다. 태무제가 기상새위를 완공[태평진군 9년(448년) 이월]한 지 2년 후[태평진군 11년(450년) 십이월]에 자칭 백만을 이끌고 남벌하여 유송 6주의 땅을 침입하여 장강 북안의 과보(瓜步)까지 진격하였다. 당시 남북의 형세를 비교하면 유송은 북위에 어떤 위협이 되지 못했고 경기 남부에 장성을 쌓아 스스로의 손발을 묶을 수는 없었다. 기상새위를 쌓을 때 관중(關中)에서 노수호(盧水胡) 개오(蓋吳)가 지휘하는 저(氐)·강(羌)·도각(屠各)·축(蜀)·한 각 족 수십만의 반란이 일어났고, 유송과 연합하니 관중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태평진군 7년(446년) 유월 북위 조정은 장안 부근에 중병을 주둔시켜 개오의 공격에 대비하게 하였다. 같은 달 10만 병사를 징발하여 기상새위를 쌓았다. 따라서 기상새위의 축조는 동서쪽으로 북방 유연을 겨냥한 것이고, 그 남북 방향은 관중 개오 반란을 겨냥하여 하서 지역의 칙륵(敕勒)·계호(稽胡)와 관중의 관계를 끊어 개오의 반란 영향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경기를 보호하고 남진에 주력하는 것은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이었다.³⁹

다음으로 동위 북제 장성에 대해 살펴보자.

동위 북제 시대에 군사상 서위(西魏) 북주와 겨뤄야 했다. 그러나 북쪽에는 유연·고막해(庫莫奚) 외에 거란(契丹)과 돌궐이 흥기하였다. 서위 북주와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장성을 쌓아 북방 소수민족의 남침을 막으

39 朱大渭(2007), 앞의 글, 268~270쪽.

려 하였다.⁴⁰

첫 번째 장성은 동위 무정 원년(543년)에 쌓았다. 승상 고훈은 동위 무정 원년(543년) 십일월 무정 원년에 5만 명을 동원하여 40일 동안 사주 북산에 성을 쌓았다. 이 성은 서쪽의 마릉수(馬陵戍)에서 동쪽으로 토등에 이르렀다.⁴¹ 『자치통감』에서는 “승상 고훈은 사주 북산에 장성을 쌓았는데, 서쪽으로 마릉에서 동쪽으로 토등에 이르렀으며, 40일 만에 파하였다.”⁴²라고 하였다. 동쪽 끝인 토등은 송왕존(宋王存)의 『구역지(九域志)』에 따르면 “대주 광현에 토등새가 있다(代州崢縣有土塏塞).”라고 하였다.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권40 「산서(山西)·대주(代州)·광현(崢縣)」조에는 토등채(土塏寨)가 현의 서북에 있다고 기록하였다.⁴³ 마릉수는 『자치통감』 호주에서 “마음은 아마도 동위가 수를 설치한 땅일 것이다(馬陵蓋東魏置戍之地).”라고 하였지만 위치는 상세하지 않다. 『독사방여기요』 권40 「산서·태원부(太原府)·정락현(靜樂縣)」조에는 마릉수가 현의 북쪽에 있다고 기록하여⁴⁴ 동위 무정 원년(543년) 축조한 장성의 마릉수임을 지적하였다. 이 장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산서성 평원시(平原市) 북쪽에서 지금의 산서성 정락현 북쪽까지 약 300리에 달한다. 이는 고훈의 본거지인 태원

40 朱大渭(2007), 앞의 글, 270쪽.

41 『魏書』卷12「孝靜紀」武定元年條, 306쪽, “是月, 齊獻武王召夫五萬於肆州北山築城, 西自馬陵戍, 東至土塏, 四十日罷.” 『北齊書』卷1「神武紀」下와 『北史』卷6「神武紀」, 『魏書』卷12「孝靜紀」는 모두 8월의 일로 기록하였다. 『資治通鑑』卷158「梁紀」大同九年條에는 11월의 기사로 기록하였다. 당연히 근거가 있을 것이다. 『九域志』와 『資治通鑑』은 등(塏)을 ‘등(塏)’으로 기록하였다.

42 『資治通鑑』卷158「梁紀」大同九年條, 4919쪽, “丞相歡築長城於肆州北山, 西自馬陵, 東至土塏(胡注: 馬陵蓋東魏置戍之地, 九域志: 代州崢縣塞, ‘塏’北史作‘帶’, 音丁鄧翻), 四十日罷.”

43 『讀史方輿紀要』[顧祖禹 撰·賀次君 등 點校(2006), 北京: 中華書局] 卷40「山西」2太原府·靜樂縣·土塏寨條, 1861쪽, “土塏在縣西北.”

44 『讀史方輿紀要』卷40「山西」2太原府·靜樂縣·馬陵戍條, 1835쪽, “在縣北.”

서북쪽을 막는 병장(屏障)이 되었다.⁴⁵

두 번째 장성 축조는 무정 3년(545년)에 있었다. 무정 3년(545년) “시월 정묘 일 신무(神武(고환))는 유·안·정 3주가 북쪽으로 해(奚)·연연(蠕蠕)과 접하고 있어 험요(險要)에 성수(城戍)를 세워 막도록 하자고 상언(上言)하였다. 그리고 몸소 스스로 성수에 임하여 살펴보니 매우 견고했다.”⁴⁶ 유주의 치소는 현재의 북경시 남쪽, 정주의 치소는 현재의 하북성 정주시였다. 안주의 치소 광양군(廣陽郡, 현재의 하북성 용화현(融化縣))은 천평(天平) 연간(534~537년) 함락되어 동위 원상(元象) 연간(538년) 유주 북계(현재의 북경시 밀운현(密雲縣) 동북쪽)에 기치(寄治)하였다. 유주·정주의 북쪽은 원래 연주였으나 북위 말 각 족의 인민 봉기 때 함락되어 동위 천평 연간 유만을 안치하여 유주 군도성에 기치하였다. 따라서 유주·정주 2주는 동위 초 실제로 북경 소수민족 구역과 인접하였다. 이때의 축조는 북쪽 변경의 군민을 징발하여 성수를 축조하였다.⁴⁷

세 번째 장성 축조는 북제 천보 3년(552년)이었다. 문선제는 북제 천보 3년(552년) 동(冬) 시월 을미일에 황로령(黃樓嶺)에 이르러 북쪽으로 사간수(社干戍)까지 사백여 리에 걸쳐 장성을 쌓고 36수를 설치하였다.⁴⁸ 호주에는 “이 장성은 당 석주(石州)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무주지경(武州之境)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당대 석주의 치소는 현재의 산서성 이석현이었다. ‘무주지경’은 『독사방어기요』 권42 「산서(山西)」4 분주부(汾州府)·영덕주(永寧州)·황로령조에는 ‘두평(杜平)은 제기(齊記)에는 두자(杜子)’라고 기록하였으며 아마도 현재 삭주(朔州)의

45 朱大渭(2007), 앞의 글, 270~271쪽.

46 『北齊書』卷2「神武紀」下 武定三年十月丁卯條, 22쪽, “十月丁卯, 神武上言, 幽·安·定三州北接奚·蠕蠕, 請於險要修立城戍以防之, 躬自臨履, 莫不嚴固.”

47 朱大渭(2007), 위의 글, 271쪽.

48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三年條, 56쪽.

폐무주계(廢武州界)에 있다.”⁴⁹라고 기록하였다. 같은 책 권44 「삭주·무주성」 조에는 이 성이 삭주 서쪽 150리, 즉 고무주새(古武州塞)에 있다고 하였다.⁵⁰ 한대 무주현(武周縣)의 치소가 이 성이었고 안문군에 속했으며, 북위 무주현은 대군(代郡)에 속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이 장성은 남쪽으로 현재의 산서성 이석현에서 시작하여 여량산맥(呂梁山脈)을 따라서 북쪽으로 현재의 산서성 삭주시 서쪽에 이르렀고 남북 길이가 약 200km에 달하였다.⁵¹

네 번째 장성 축조는 천보 5년(554년)에 있었다. 문선제는 천보 5년(554년) 문선제가 달속령(達速嶺)까지 북순(北巡)하여 산천의 험요를 관찰하고 장성 축조를 계획하였다.⁵² 『독사방여기요』 권44 「산서」6 대동부(大同府)·대동현(大同縣)·달속령(達速嶺)조에는 달속령이 대동부의 서북경에 있다고 하였다.⁵³ 북제 시대 항주의 치소는 현재의 대동이니, 문선제는 항주 서북쪽에 이르러 지형을 관찰한 후 장성을 쌓을 준비를 하였다. 천보 6년(555년) 삼월 북제 조정은 “이 달에 과부를 징발하여 장성을 축조하는 군사들에게 짚지어 주었다.”⁵⁴ 과부를 짚지어 주는 것은 병사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장성을 축조하는 병사들을 격려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천보 6년(555년) 유월 북제 조정은 조서를 내려 부(夫) 180만 인을 징발하여 유주 북하구에서 항주까지 구백여 리(450km)의 장성을 쌓았다.⁵⁵ 장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용관(현재 북경시 연경현)에서 서쪽으로

49 『讀史方輿紀要』 卷42 「山西」4 汾州府·永寧州·黃墟嶺條, 1954쪽, “杜平, 齊記作‘杜子’, 蓋在今朔州之廢武州界.”

50 『讀史方輿紀要』 卷44 「山西」6 大同府·朔州·武州城條, 2037쪽, “州西百五十里, 南去崑崙州百十里.”

51 朱大渭(2007), 앞의 글, 271~272쪽.

52 『北齊書』 卷4 「文宣紀」 天保五年十二月庚申條, 59쪽.

53 『讀史方輿紀要』 卷44 「山西」6 大同府·大同縣·達速嶺條, 2008쪽, “在府西北境.”

54 『北史』 卷7 「齊本紀·顯祖文宣帝紀」 天保六年三月條, 252쪽, “是月, 發寡婦以配軍士築長城.”

로 북연주(치소는 현재 하북성 탁록현)를 거쳐 서쪽으로 항주(현재의 산서성 대동시) 서북쪽 달속령에 이르렀다. 길이는 450km에 달하였다. 이 장성의 위치는 대체로 북위 기상새위를 따랐으며, 서쪽 말단은 남쪽으로 수축되었다. 천보 7년(556년) 5월 “산동 과부 2,600인을 징발하여 군사에게 짊지어 주었다.”⁵⁶ 이는 전년에 장성 축조에 동원된 군사들을 격려하는 조치였다.⁵⁷

다섯 번째 장성 축조는 천보 7년(556년)에 있었다. 천보 7년(556년)까지 서하의 총진수(總秦戍)에서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동서 3천여 리에 달하는 장성을 쌓고 10리마다 1수를 설치하고 요해처에 25개의 주진(州鎭)을 설치하였다.⁵⁸ 『자치통감』의 이 구절⁵⁹ 고이(考異)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이미 장성을 축조했는데, 지명과 장·단이 다르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인지, 두 개의 사건인지 알 수 없다. 『북제서』와 『북사(北史)』는 모두 그렇게 보았다. 현재 둘로 존재한다.”⁶⁰라고 기록하였다. 이 구절 때문에 장성이 1회, 2회, 3회라는 설이 부분하다. 그러나 이것은 『자치통감』의 작자가 이 앞의 문자가 천보 3년과 6년, 7년 세 차례의 장성 축조 기록을 종합하여 서술한 것임을 몰라 생긴 오해다.⁶¹

여섯 번째 장성 축조는 천보 8년(557년)에 있었다. 문선제는 천보 8년(557년)

55 『北齊書』卷4「文宣紀」天保六年條, 61쪽.

56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七年冬十月條, 62쪽.

57 朱大渭(2007), 앞의 글, 272~273쪽.

58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七年十二月條, 63쪽, “先是, 自西河總秦戍築長城東至於海, 前後所築東西凡三千餘里, 率十里一戍, 其要害置州鎭, 凡二十五所.”

59 『資治通鑑』卷166「梁紀」22 敬帝太平元年條, 5156쪽, “齊自西河總秦戍築長城, 東至於海, 前後所築東西凡三千餘里, 率十里一戍, 其要害置州鎭, 凡二十五所.”

60 『資治通鑑』卷166「梁紀」22 敬帝太平元年條 胡註, 5156쪽, “考異曰: 去歲六月己云築長城, 而地名, 長·短不同, 不知與此爲一事爲二事. 北齊書·北史皆然, 今兩存之.”

61 朱大渭(2007), 위의 글, 273~274쪽.

십이월 장성 안에 고락밭에서 동쪽으로 오홀수에 이르는 사백여 리의 또 다른 장성을 쌓았다.⁶² 오홀수(烏紇戍)는 현재의 산서성 영구현 서쪽 평형관(平刑關) 동북쪽이다.⁶³ 고락밭은 현재의 산서성 대동과 우옥현(右玉縣) 사이의 땅이거나⁶⁴ 산서성 편관과 삭주시 사이의 땅⁶⁵일 것이다. 병주와 사주 2주의 북쪽에 중성(重城)을 쌓아 북위가 기상새위를 축조한 것처럼 방어선을 하나 늘려 태원을 보호하고 멀리서 업성(鄴城)을 통제하며 그 주력으로 북주에 대항하려고 하였다.⁶⁶

일곱 번째 장성 축조는 하청 2년(563년)에 일어났다. 북제 조정은 하청 2년(563년) 삼월 사공(司空) 곡률광(斛律光)에게 보기 2만 명을 동원하여 지관 서쪽에 혼장성을 쌓고 200리의 장성을 축조하고 13수를 설치하게 하였다.⁶⁷ 지관은 낙양(洛陽)의 서북에 위치하여 산서성과 하남성을 오갈 때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다. 지관에서 북제의 자령(子嶺)을 행하여 황하 북안에 이르기까지 장성 200리를 쌓아 낙양 서북의 병장으로 삼아 낙양 서남의 벌악(伐惡)·신성(新城)·엄성(嚴城)·하남 등 4성[천보 5년(554년) 팔월에 축조함]과 함께 북주 군대를 막으려고 하였다.⁶⁸

여덟 번째 장성 축조는 하청 3년(564년)에 있었다. 곡률선은 하청 3년(564년) 사지절(使持節) 도독(都督) 유·안·평·남·북영·동연 육주 제군사 유주자사에 임명되어 가을 돌궐 10여만의 침입을 막아 냈다. 천통 원년(565년) 하오월(夏五

62 『北齊書』卷4「文宣紀」天保八年十二月條, 64쪽.

63 壽鵬飛(1982), 앞의 책.

64 壽鵬飛(1982), 위의 책.

65 王國良(1982), 앞의 책.

66 朱大渭(2007), 앞의 글, 275쪽.

67 『北齊書』卷17「斛律金傳附子光傳」, 223쪽.

68 朱大渭(2007), 위의 글, 275~276쪽.

用) 돌곶은 곡률선의 굳건한 수비를 보고 북제와 통교하였다. 곡률선은 돌곶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퇴수 동쪽에서 바다까지 산과 골짜기를 따라 2천여 리에 달하는 장성을 쌓았다. 그 사이 2백 리의 험요한 곳에 산을 잘라 성을 쌓거나 골짜기를 끊어 수비시설을 만들었으며 수라 50여 소를 설치하였다.⁶⁹ 고퇴수는 기록 부족으로 고증할 수 없지만, 곡률선의 관직으로 보아 대략 유주 북부에서 동연주[유주 군도성(軍都城)에 기치(寄治)]를 거쳐 평주[하북성 천안현(遷安縣)]에 이르고, 다시 북영주[北營州, 요녕성(遼寧省) 조양시(朝陽市)]에 이르는 선까지 투수[渝水, 현재의 금주시(錦州市) 동북]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곳까지 험요한 곳에 성과 장을 쌓고 수라를 세웠다.⁷⁰

요컨대 동위 북제는 무정 원년(543년)부터 하청 2년(563년)까지 20년 동안 장성을 8회 수축하였다. 장성은 북부 변경 항주 서부 달속령에서 동쪽 산해관까지 이르렀으며, 여기에 내지의 장성을 포함하면 총길이는 3,800리에 달하였다.⁷¹

다음으로 북주의 장성에 대해 살펴보자. 북주 정제(靜帝) 대상(大象) 원년(579년) 돌곶이 병주를 범하자 “산동 각 주의 민을 징발하여 장성을 수리하였다.”⁷² 하였다. 『자치통감』 호주에서는 “제(齊)가 쌓은 장성이다.”⁷³라고 하였다. 호씨(胡氏)의 말은 민을 만할 것이다.⁷⁴

마지막으로 수대 장성 축조에 대해 살펴보자. 개황(開皇) 원년(581년) 사월 “이

69 『北齊書』 卷17 「斛律金傳附羨傳」, 227쪽.

70 朱大渭(2007), 앞의 글, 276쪽.

71 朱大渭(2007), 위의 글, 276쪽.

72 『周書』 卷7 「宣帝紀」 大象元年條, 120쪽.

73 『資治通鑑』 卷173 「陳紀」7 宣帝太建十一年條, 5398쪽, “六月, 周發山東諸民脩長城(胡註: 脩齊所築長城也, 齊築長城, 見百六十六卷梁敬帝太平元年.)”

74 朱大渭(2007), 위의 글, 276쪽.

달에 계호를 징발하여 장성을 수축하고 20일 만에 파하였다.”⁷⁵ 이어서 개황 5년(585년) 십이월 수문제는 사농소경(司農少卿) 최중방(崔仲方)에게 “정(丁) 3만을 징발하여 삭방(朔方)·영무(靈武)에 장성을 축조하도록 명령하였다. 동쪽으로 황하, 서쪽으로 수주(綏州), 남쪽으로 발출령(勃出嶺)에 이르렀으며, 길이는 7백 리였다.”⁷⁶ 이 장성은 영하(寧夏) 영무현(靈武縣)에서 섬서성(陝西省) 횡산현(橫山縣)에 이르러 동남으로 수덕현(綏德縣)으로 꺾어질 때까지 350km에 달하였다.⁷⁷ 이 장성을 완공한 후 수문제는 또 최중방에게 “다음 해 상은 다시 최중방에게 정 15만을 징발하여 삭방 이동(巳東)의 연변(緣邊) 험요에 수십 성을 쌓도록 명령하여 호구(胡寇)를 막도록 하였다.”⁷⁸ 또 수문제는 개황 6년(586년)과 7년(587년) 두 해 2월에 전후 정남(丁男) 11만과 10여 만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다.⁷⁹

이어서 수양제(隋煬帝) 대업(大業) 3년(607년) 칠월 정남 100여 만을 징발하여 장성을 쌓았다. 서쪽으로 유림(榆林), 동쪽으로 자하(紫河)에 이르렀으며 열흘 만에 파하였다.⁸⁰ 이 장성은 유림군(榆林郡)에서 대동시 서북 새외(塞外)까지 250km에 달하였다. 이 장성은 대부분 북제의 서쪽 장성을 이어받고 서쪽으로 늘린 것이다. 또 양제는 대업 4년(608년) 7월 신사일 정남 20여 만을 징발하

75 『隋書』卷1「高祖紀」上 開皇元年條, 15쪽, “是月, 發稽胡修築長城, 二旬而罷.”

76 『隋書』卷60「崔仲方傳」, 1448쪽, “令發丁三萬, 於朔方·靈武築長城, 東至黃河, 西拒綏州, 南至勃出嶺, 縣亘七百里.”

77 朱大渭(2007), 앞의 글, 278쪽.

78 『隋書』卷60「崔仲方傳」, 1448쪽, “明年, 上復令仲方發丁十五萬, 於朔方已東緣邊險要築數十城, 以遏胡寇.”

79 『隋書』卷1「高祖紀」上 開皇六年二月條, 23쪽, “丁亥, 發丁男十一萬修築長城, 二旬而罷.”; 『隋書』卷1「高祖紀」上 開皇七年二月條, 25쪽, “是月, 發丁男十萬餘修築長城, 二旬而罷.”

80 『隋書』卷3「煬帝紀」上 大業三年條, 70쪽, “發丁男百餘萬築長城, 西距榆林, 東至紫河, 一旬而罷.”

여, 유곡(楡谷)부터 동쪽에 이르는 장성을 쌓았다.⁸¹ 이 장성은 가장 서쪽 장성으로 길이 450km였다.⁸²

요컨대 수대 개황 원년(581년)부터 대업 4년(608년)까지 27년 동안 모두 7차례 장성을 신축하거나 복제 장성을 수리하였다. 새로 쌓은 장성은 2,100여 리에 해당하였다.⁸³

북조 시대 장성 축조 기사를 종합하면, 북위와 동위 복제 때 쌓은 장성은 7,800여 리였다. 그리고 북조 시대(수대를 합하여) 쌓은 장성은 9,900여 리에 달했다. 이 수치는 3차례(북제 1회, 수 2회) 쌓은 장성의 길이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⁸⁴

3) 승전동실의 기상새위 연구

승전동실(勝烟冬實)은 「北魏の郊甸と‘畿上塞圍’-胡族政權による長城建築の意義」⁸⁵에서 태무제 시대 기상새위의 축조 이유를 북위의 경기 정책과 대외 정책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1장에서 기내(畿內)의 전(田)과 교전(郊甸)의 설정 문제를 다루었다. 승전동실에 따르면 북위의 경기 정책은 “수도 → 기내 → 교전[=전복; 기내의 전 밖 방(方) 천 리]”으로 동심원처럼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수도 평성 부근은 피정복국의 민(民)과 북위에 필요한 한인(漢人), 기술자 등을 이주시켜 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성 주변 기내(畿內)의 땅에 건

81 『隋書』卷3「楊帝紀」上 大業四年條, 71쪽, “秋七月辛巳, 發丁男二十餘萬築長城, 自楡谷而東.”

82 朱大渭(2007), 앞의 글, 279~280쪽.

83 朱大渭(2007), 위의 글, 280쪽.

84 朱大渭(2007), 위의 글, 280쪽.

85 勝烟冬實(1995), 「北魏の郊甸と‘畿上塞圍’-胡族政權による長城建築の意義」, 『東方學』90.

국 초기부터 내속했던 선비계와 흉노계(匈奴系)인 하란부(賀蘭部)·토돌린부(吐突隣部)·홀해부(紇奚部), 사적월두권[庫狄越豆眷, 선무(善無)] 등의 유목민 제 부를 그 경계에 거주하게 하였다. 기내 박인 교전(郊甸)에는 북족(北族, 호인(胡人), 유목민)이 거주하였다. 예컨대 칙록은 오원지북, 삭방 위지부(尉遲部)는 운중(雲中), 월근배니(越勤倍泥) 부락은 대녕(大寧), 이주씨(余朱氏)는 수용(秀容)에 거주하게 하였다. 승전동실은 다른 논문에서 ‘기내의 전’과 ‘교전’의 경계에 북족을 이주시킨 것은 북위 초기 부족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았다. 도무제와 명원제는 내향한 북족을 북위의 수도·기내·교전의 경계선에 방목 구획을 정하여 거주시켰다. ‘기내의 전’의 경계, ‘교전’의 경계 등 북족의 혈통, 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⁸⁶

승전동실은 화북 통일 전후 북위는 두 차례 장성을 축조했다고 보았다. 명원제 말기 태상 8년(423년)에 적성부터 오원까지 장성을 축조하였다. 태무제 태평진군 7년(446년)에 “병술일 사·유·정·기 4주의 10만 인을 징발하여 기상새위를 쌓았다. 상곡으로부터 서쪽으로 하수(潢河)에 이르기까지 너비와 길이 모두 천 리였다.”⁸⁷라고 하여 두 번째로 장성을 축조하였다. 즉 명원제 시기에는 북변에, 태무제 시기에는 남변에 장성을 축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⁸⁸ 승전동실이 추정한 장성과 기상새위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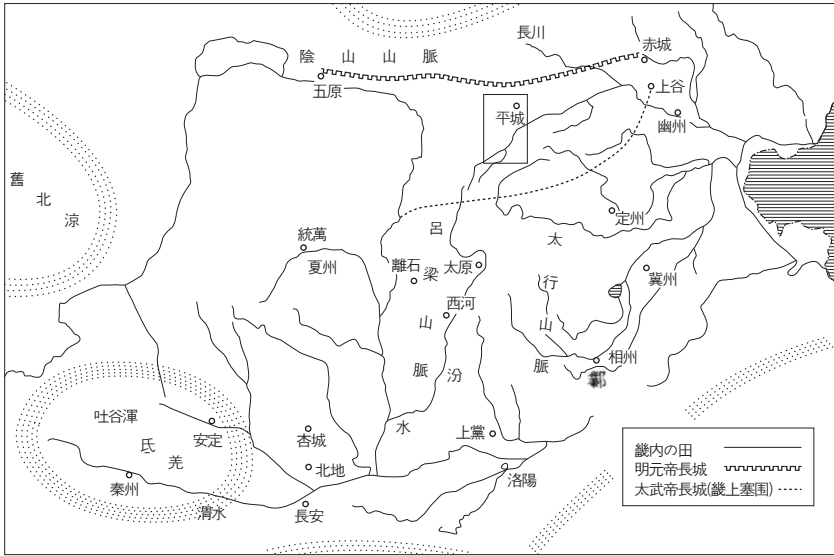
<지도 10>을 보면 명원제 시기의 장성과 태무제 시기의 기상새위는 평성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여 평성을 둘러싸는 형상을 취하였다. 이는 ‘유송(劉宋) - 유연-하(夏) 혹은 개오’의 포위망 때문에 북변(명원제)과 남변(태무제)에 장성을

86 勝畑冬實(1995), 앞의 글, 34~36쪽.

87 『魏書』卷4下「世祖紀」下 太平眞君七年六月丙戌條, 101쪽.

88 勝畑冬實(1995), 위의 글, 36~37쪽.

89 勝畑冬實(1995), 위의 글, 38쪽.



(지도 10) 북위의 장성과 기상새위⁸⁹⁾

축조한 것이다. 즉 남북 협공 위험성에 대처하고 수도 방위 강화를 위해 기상 새위를 축조한 것이다. 유송은 진지에 거주하는 저·강·토욕혼(吐谷渾)과 적극적으로 결맹하였다. 당시 진지[관릉(關隴) 지역]에 북위의 지배가 공고하지 못하고 반란이 빈발하였다. 이 가운데 개오의 난은 대규모였고, 하동의 설영종(薛永宗), 강·저에도 영향을 주었다. 개오의 배후에는 유송이 있었다. 진지(秦地: 관릉)를 둘러싼 북위·송의 투쟁은 태평진군 7년(446년) 8월 개오가 하인에게 살해된 후에도 태평진군 9년(448년) 북위가 송과 연결된 구지저(仇池氏) 추장 양문덕(楊文德)을 토벌할 때까지 계속되었다.⁹⁰⁾

요컨대 북위 도무제는 평성으로 천도하여 기내의 전, 교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명원제 말기 관중을 지배한 후진(後秦)이 멸망하고 유송이 건국되었다.

90 勝畑冬實(1995), 앞의 글, 39~41쪽.

그리고 진지(관룡)를 둘러싼 송(宋)·북위의 전쟁이 일어났다. 특히 유송은 진지의 저·강·토욕혼과 연결하였고 유연과도 통교했다. 명원제는 이러한 위협을 감지하고 북변에 장성을 수축하였고, 태무제는 유송과 연결된 개오의 반란에 위기감을 느끼고 교전의 동·남변에 장성으로 보강하였다. 따라서 북위의 교전은 완전히 새(塞)로 둘러싸였다(=새위). 기마군단을 보유한 북위군은 교전을 근거지로 기동성이 풍부한 군사력을 지니고 화북(華北) 평원의 한인을 압박하고 한인으로부터 비단을 징수하여 국제 무역에 활용하였다. 이처럼 북위의 교전은 태무제 시기까지 국가의 중핵 지역이었다.⁹¹

4) 장민의 장성 연구

장민(張敏)은 「논북위장성-군진방어체계적건립(論北魏長城-軍鎮防禦體系的建立)」⁹²에서 북위 시대 장성 축조와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장민은 먼저 장성 축조의 배경을 북위와 유연의 외교·군사 대치에서 찾았다. 명원제 시기 장성 축조 이전에 북위는 유연의 압박을 받았다. 도무제가 천흥(天興) 5년(402년) 7월 후진을 공격하자 유연의 사륜(社崙)은 그 허점을 이용하여 참합피로 쳐들어와 남쪽으로 시산(豺山)과 선무(善無) 북택(北澤)까지 진격하였다.⁹³ 도무제는 연연의 공격을 격정하여 회군하였다. 이처럼 유연은 남진하여 새를 침범하여 북위를 습격하니 심복지환(心腹之患)이 되었다.

명원제 영흥(永興) 원년(409년) 십이월 유연은 도무제의 사망과 북위 내란을 틈타 대거 남침하였다. 다음 해(410년) 정월 장손송(長孫嵩)이 북벌했으나 오일

91 勝畑冬實(1995), 앞의 글, 44~45쪽.

92 張敏(2003), 「論北魏長城-軍鎮防禦體系的建立-」, 『中國邊疆史地研究』 13-2.

93 “天興五年, 社崙聞太祖征姚興, 遂犯塞, 入參合陂, 南至豺山及善無北澤.” 『魏書』 卷24 「崔玄伯傳附僧淵傳」, 2291쪽.

에 유연의 우천(牛川)에서 포위당했다. 명원제가 대군을 이끌고 가자 포위가 풀렸다.⁹⁴ 따라서 최호(崔浩)는 태무제에게 여름에 유연(蠕蠕)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진격하면 유연을 파멸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연이 가을에 다시 남하하여 쳐들어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⁵ 이후 명원제와 태무제 시기에 북위는 유연에 여러 차례 공세를 취해 큰 성과를 얻었다. 특히 태무제 신가 2년(429년) 대구모로 공격하였고 유연은 대비하지 못했다.⁹⁶ 이 북정(北征)으로 유연을 멸망시키지 못했으나 유연이 받은 타격은 컸고 북위에 위협이 되지 못했다.

이외에 유연가한(柔然可汗) 오제(吳提)는 사신을 보내 북위에 조공하여 화친하였다. 이후 십 년 사이에 북위는 북쪽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고, 드디어 하[夏, 혁련하(赫連夏)]·북연(北燕)·서진(西秦)·북량(北凉) 제국을 멸망시켜 북방을 통일하였다. 이후 태무제는 태평진군 4년(443년)과 5년(444년), 10년(449년) 3차례에 걸쳐 대거 유연을 친정하여 막북(漠北)까지 공격하였다. 이 중 마지막 친정(親征)⁹⁷은 유연에 큰 타격을 주었다.⁹⁸

94 『魏書』卷3「太宗紀」永興二年條, 50쪽, “二年春正月甲寅朔, 詔南平公長孫嵩等北伐蠕蠕, …… 夏五月, 長孫嵩等自大漠還, 蠕蠕追圍之於牛川, 壬申, 帝北伐, 蠕蠕聞而遁走, 車駕還幸參合陁.”

95 『魏書』卷35「崔浩傳」, 817쪽, “且蠕蠕往數入國, 民吏震驚, 今夏不乘虛掩進, 破滅其國, 至秋復來, 不得安臥, 自太宗之世, 迄於今日, 無歲不驚, 豈不汲汲乎哉!”

96 『魏書』卷35「崔浩傳」, 818쪽, “及軍入其境, 蠕蠕先不設備, 民畜布野, 驚怖四奔, 莫相收攝, 於是分軍搜討, 東西五千里, 南北三千里, 凡所俘虜及獲畜產車廬, 彌漫山澤, 蓋數百萬, 高車殺蠕蠕種類, 歸降者三十餘萬落, 虜遂散亂矣.”

97 『魏書』卷103「蠕蠕傳」, 2295쪽, “九月, 車駕北伐, 高涼王那出東道, 略陽王羯兒出中道, 與諸軍期會於地弗池, 吐賀眞悉國精銳, 軍資甚盛, 圍那數十重, 那掘長圍堅守, 相持數日, 吐賀眞數挑戰, 輒不利, 以那衆少而固, 疑大軍將至, 解圍夜遁, 那引軍追之, 九日九夜, 吐賀眞益懼, 棄輜重, 踰穹隆嶺遠遁, 那收其輜重, 引軍還, 與車駕會於廣澤, 略陽王羯兒盡收其人戶畜產百餘萬, 自是吐賀眞遂單弱, 遠竄, 邊疆息警矣, 太安四年, 車駕北征, 騎十萬, 車十五萬兩, 旌旗千里, 遂渡大漠, 吐賀眞遠遁,

그러나 북위와 유연의 전쟁은 순조롭지 못했다. 먼저 북위와 유연의 전쟁 지역은 기본적으로 사막이었기 때문에 군수, 특히 음료수와 양초(糧草) 공급이 곤란하였다. 다음으로 사막은 넓고 인구가 적었다. 유연은 이 점을 이용하여 도망감으로써 북위 북벌의 타격을 피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위의 군사 타격을 피하기 위해 유연은 서역으로 발전을 도모하였다. 덕분에 유연이 북위의 타격을 받은 이후 재기할 수 있었다. 유연은 서역 경영을 중시하여 원래 흉노가 통제하던 비단길을 따라 서쪽으로 발전하였고 알타이산맥을 넘어 천산(天山) 북록(北麓)과 마나스강 유역까지 확대하였다.⁹⁹

이러한 군사·외교적 상황에서 유연의 남침을 막기 위해 도무제 시기부터 북위는 전후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장성을 수축하였다. 장성의 수축은 북위의 전략 중심이 새북(塞北)에서 중원(中原)으로 옮겨지고 북쪽에 대해 수세(守勢), 남쪽에 대해 공세(攻勢)를 취했음을 보여준다.¹⁰⁰

명원제 태상 8년(423년)에 처음으로 장성을 쌓았다.

(태상 8년) 2월 무진, 장천지남(長川之南)에 장성을 쌓았다. (동쪽의) 적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오월에 이르기까지 길이 이천여 리로 늘어났으며, 수비를 위해 수위(戍衛)를 설치하였다.¹⁰¹

위의 인용문은 『위서』 권105 「천상지(天象志)」에도 보인다.¹⁰² 『위서』 권4下

其莫弗烏朱駕頽 率衆數千落來降, 乃刊石記功而還, 世祖征伐之後, 意存休息, 蠕蠕亦怖威北竄, 不敢復南.”

98 張敏(2003), 위의 글, 14쪽.

99 張敏(2003), 위의 글, 14~15쪽.

100 張敏(2003), 위의 글, 13쪽~16쪽.

101 『魏書』卷3「太宗紀」泰常八年二月戊辰條, 63쪽.

「세조기(世祖紀)」 태평진군 칠년 유월 병술조에 같은 기록이 있다.

(태평진군 7년 유월) 병술일 사·유·정·기 4주의 10만 인을 징발하여 기상새
위를 쌓았다. 상곡으로부터 서쪽으로 하[水]에 이르기까지 너비와 길이 모
두 천 리였다.¹⁰³

또 『통전(通典)·변방전(邊防典)』에 정남장군(征南將軍) 조웅(刁雍)이 헌문제(獻
文帝) 황흥(皇興) 연간에 올린 표(表)가 있다.¹⁰⁴ 이 표에서 황흥 연간 북위가 장
성을 중수했음을 보여준다. 이 상표문(上表文)은 『위서』 「조웅전(刁雍傳)」에는
기록되지 않고 본기에도 단편적인 구절조차 없다. 그러나 『위서』 「고려전(高
閭傳)」에는 고려(高閭)가 태화(太和) 연간 상서(尙書) 중서감(中書監)으로 승진했을
때 변방의 일을 상표(上表)했을 때 육진의 북쪽에 장성을 수축하자하는 건의가
보인다. 이는¹⁰⁵ 『통전』 「변방전」의 기록과 비슷하다. 『자치통감』은 『위서』의
기록 거의 전문을 실었다. 이는 사마광이 고려가 올린 표를 지지했음을 보여
준다. 이 문장이 누구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5세기 후반 북위가 대대적
으로 장성을 쌓았음은 분명하다.¹⁰⁶

장성의 주요 건축은 성벽이다. 성벽을 세운 곳은 산척(山脊)과 분수령뿐만
아니라 초원과 사막, 과벽탄(戈壁灘)도 있었다.¹⁰⁷ 고왕(高旺)은 내몽고 소하(召

102 『魏書』 卷103之3 「天象志」1 星變上, 2400쪽, “八年春, 築長城, 距五原二千餘里, 置守卒, 以備蠕蠕.”

103 『魏書』 卷4下 「世祖紀」 太平眞君七年條, 101쪽.

104 『通典·邊防典』 卷196 「邊防」12 蠕蠕條, 5379~5381쪽.

105 『魏書』 卷54 「高閭傳」, 1200~1202쪽.

106 張敏(2003), 앞의 글, 16쪽.

107 張敏(2003), 앞의 글, 16쪽.

河) 북위장성을 고찰하여 “희랍목인소목(希拉穆仁蘇木)의 북위장성은 달무연합기(達茂聯合旗) 동남쪽 소하 서북 4km 밖에 위치하였다. 이 초원상의 토롱변장(土壘邊牆)은 너비 3m, 높이 1.5~2척의 장성선이었다. 그러나 마면(馬面)과 봉화대는 없고 북쪽으로 소하를 넘어 사왕자기(四王子旗)로 들어가며 찰우중기(察右中旗) 고륜소목(庫倫蘇木) 격이합도(格爾合陶)를 거쳐 서남의 무천으로 들어가며 고양(固陽) 경내로 나온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대동 경내의 장성 봉화대는 모두 황토로 항축(夯築)한 것이다.”¹⁰⁸ 장민이 2001년 8월 대동시에서 개최한 중국 위진남북조사학회 제7계 연회(年會) 때에 현장을 답사하고 확실히 책의 서술과 같음을 알았다. 이외에 봉화대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아서 유사시 봉화 연기를 피우면 경사(京師) 성 안에서 매우 빨리 알 수 있었다.¹⁰⁹

시간 상 북위는 둔전을 먼저 실시하고 장성을 나중에 축조하였다. “연변 성수(城守)의 땅에 간척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모두 둔전을 운영하여 도사(都使)와 자사(子使)를 설치하여 통할하도록 하였다.”¹¹⁰ 라는 구절은 『수서(隋書)』 「식화지(食貨志)」에서 북제 둔전 정책을 서술한 것이지만 북위 시대에도 이러한 방법이 이용되었을 것이다.¹¹¹

5) 관건중의 태상 8년 장성 연구

곽건중(郭建中)은 「북위태상팔년정성삼중(北魏泰常八年長城尋踪)」에서 탁발선비(拓跋鮮卑)가 북위 정권을 세운 후 세 차례에 걸쳐 북방에 장성을 쌓았다고 주장하

108 高旺(1991b), 『長城訪古萬里行』,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71·47쪽.

109 張敏(2003), 위의 글, 16쪽.

110 “緣邊城守之地, 堪墾食者, 皆營屯田, 置都使子使以統之.” 『隋書』 卷24 「食貨志」 678쪽.

111 張敏(2003), 위의 글, 18쪽.

였다.

북위는 명원제 태상 8년(423년)에 처음으로 장성을 쌓았다.

(태상 8년) 이월 무진, 장천지남에 장성을 쌓았다. (동쪽의) 적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오원에 이르기까지 길이 이천여 리로 늘어났으며, 수비를 위해 수위를 설치하였다.¹¹²

두 번째는 고려의 건의로 육진 일대에 세웠다. 고려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육진의 북쪽에 장성을 쌓아 북로(北虜)를 방어하면, 비록 잠깐 동안 수고로운 일이 있지만 곧 오랫동안 이익을 보니 이처럼 된다면 혜택이 백세에 미칠 것입니다.¹¹³

이 두 장성은 음산산맥과 동서 방향으로 나 있다.¹¹⁴ 세 번째는 태화 8년 장성은 음산 이북에 수축하였다. 이일우(李逸友)는 「중국북방장성고술(中國北方長城考述)」에서 이미 이 장성의 존재를 증명하였다.¹¹⁵

이 가운데 태상 8년의 장성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장성이 거쳐 가는 ‘장천’과 서쪽에 이르는 오원의 존재다. 둘째는 장성 유적의 위치를

112 『魏書』 卷3 「太宗紀」 泰常八年二月戊辰條, 63쪽.

113 『魏書』 卷54 「高閔傳」, 1201쪽, “今宜依故於六鎮之北築長城, 以禦北虜, 雖有暫勞之勤, 乃有永逸之益, 如其一成, 惠及百世.”

114 郭建中(2006), 「北魏泰常八年長城尋踪」, 『內蒙古文物考古』 1, 42쪽.

115 李逸友(2001), 「中國北方長城考述」, 『內蒙古文物考古』 1; 郭建中(2006), 위의 글, 42쪽.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¹¹⁶ 곽건중은 이 가운데 음산 남북 장성을 살펴보고 근년의 고고 발굴 자료를 참조하여 태상 8년(423년) 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¹¹⁷ 왕국량(王國良)은 1931년 「중국장성연혁고(中國長城沿革考)」에서 적성은 지금의 하북성 적성현, 장천은 지금의 하북성 양하(洋河), 오원은 섬서성 신목(神木)이라고 고증하였다. 북위장성이 서쪽에서 서남쪽으로 섬서성 경내까지 이어졌다고 보았다.¹¹⁸ 그러나 『위서』의 ‘장천’은 하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하안(河岸)에 있는 장천성을 지칭한다. 오원은 황하 북안에 있으므로 황하 이남의 신목이라고 보는 것은 오류다. 세 개의 지명 가운데 두 곳이 틀렸으므로 장성의 위치는 자연히 옳지 못하다. 북위 태상 8년(423년) 장성 연구에서 적성이 현재의 하북성 적성현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원과 장천은 논란이 있다.¹¹⁹

장천은 태상 8년(423년) 장성 중에 유일하게 경유한다고 기록된 지명이다. 『위서』 「서기」에는 219년에 “시조[역미(力微)]는 통솔한 부를 북쪽으로 장천에 거할 것을 청하니, 두빈(竇賓)은 이를 존중하며 따랐다.”¹²⁰ 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장천성이 이미 북위 건국 160여 년 전에 존재했음을 보여주며, 선비 탁발부(拓跋部)가 가장 먼저 세운 창업의 기지였다. 북위 건국 후에 장천은 여전히 전략의 요지였다. 역대 황제들은 장천을 순행했으며 유연 공격의 출발점이었다.¹²¹ 또 시광(始光) 3년(426년)에 장천에 마사대(馬射臺)를 쌓기도 했

116 郭建中(2006), 앞의 글, 42쪽.

117 郭建中(2006) 위의 글, 42쪽.

118 王國良(1931), 『中國長城沿革考』, 上海: 商務印書館; 郭建中(2006), 앞의 글, 42쪽

119 郭建中(2006), 위의 글, 42쪽.

120 『魏書』卷1「序紀」神元帝力微條, 3쪽, “始祖請率所部北居長川, 賓乃敬從.”

121 『魏書』卷2「太祖紀」天興二年春正月庚午條, 34쪽, “庚午, 車駕北巡, 分命諸將大襲高車, 大將軍·常山王遵等三軍從東道出長川, 鎮北將軍高涼王樂眞等七軍從西

다.¹²² 이처럼 기록상의 ‘장천’은 하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지명 장천성을 지칭한다. 『수경주(水經注)』에서는 장천성이 북위 육진 유현진 서쪽에 있었다고 기록하였다.¹²³ 『수원통지고(綏遠通志考)』의 기록을 보자.

장천은 또 위(魏) 탁발(拓跋) 열제(列帝)가 늘 순행하던 성이며 땅은 우연수 발원처에 해당한다. 성이 있어 장천이라는 이름을 취하였다.¹²⁴

상겸(常謙)은 실지 조사와 사료 분석을 통해 흥화현(興和縣) 토성자고성(土城子古城)이 북위의 장천성 고지(故址)였음을 고증하였다.¹²⁵ 장천성의 확인은 태상 8년 장성의 위치 파악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¹²⁶

그리고 『위서』 「지형지(地形志)」에 따르면 오원은 삭주 부화군(附化郡)의 속현 4현의 하나였다. 북위의 삭주는 대체로 한대 오원군에 해당한다. 오원은 오원군과 삭주에 설치된 현이 있었다. 『위서』 「역도원전(鄴道元傳)」의 해당 기록을 보자.

숙종(肅宗)은 옥야(沃野)·회삭·박골률(薄骨律)·무천·무명·유현·회황(懷

道出牛川，車駕親勒六軍從中道自駮髡水西北。”

122 『魏書』卷4上「世祖紀」上 始光三年條，71쪽，“秋七月，築馬射臺于長川，帝親登臺觀走馬。”

123 『水經注』(段熙仲 點校·陳橋驛 復校, 『水經注疏』,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89) 卷13 灑水條, 1174쪽, “灑水又東, 左得于延水口, 于延水出塞外柔玄鎮西長川城南小山。”

124 『綏遠通志考』:郭建中(2006), 앞의 글, 43쪽, “長川, 亦魏拓跋列帝常巡之城, 地當于延水發源處, 有城即爲長川之名。”

125 常謙(1998), 「烏盟興和縣北魏長川古城遺址考略」, 『內蒙古文物考古』1.

126 郭建中(2006), 위의 글, 42~43쪽.

荒)·어이 제 진(鎭)을 주로 바꾸었고, 그 군현수(郡縣戍)의 이름은 고성읍(古城邑)에 따르도록 명령하였다.¹²⁷

북위 오원은 한대 현의 명칭을 따른 것이며, 성지(城址)도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 오원은 포두시(包頭市) 서쪽의 합덕문구고성(哈德門溝古城) 유지이며, 오원 현 고성과 비교적 들어맞는다.¹²⁸ 합덕문구고성은 포두시 서쪽 오랍산(烏拉山) 합덕문구 남구 동안 산파(山城) 위에 있었으며, 동쪽으로 시구에서 15km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하투평원 동단에 임하며 구북(溝北)은 음산 복지(腹地) 명안천(明安川)과 서로 통한다. 고성은 산세에 의지해 세웠으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낙차는 30m다. 고성 평면은 불규칙한 장방형이며 동쪽의 성장은 183도, 길이 291m, 서쪽 성장은 170도, 길이 212m, 남쪽 성장은 95도, 길이 197m, 북쪽 성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단식으로 확대되며 길이 360m다. 동쪽 성장이 파괴된 후 측량한 결과 너비 14.2m이며, 장체항층(牆體夯層)은 8~9cm였다. 고성 안 서북은 산체에서 뺀어 나온 대지(臺地)이고, 상면(上面)에 남북 57m, 동서 45m의 장방형 내성이 있다.¹²⁹

합덕문구고성이 오원현 고성이라는 증거는 세 가지다.

첫째, 1960년대 고고 조사에서 성보에서 많은 승문도편(繩紋陶片)과 소수의 수파문도편(水波紋陶片) 등이 발견되어 당시에 한대 성보라고 확증하였다.¹³⁰ 1999년 7월 고성이 파괴된 후 진행된 고고 발굴 결과 북위 문화의 특징이 뚜

127 『魏書』卷89「酷吏·鄴元傳」, 1925쪽, “肅宗以沃野·懷朔·薄骨律·武川·撫冥·柔玄·懷荒·禦夷諸鎭並改爲州, 其郡縣戍名令準古城邑。”

128 郭建中(2006), 앞의 글, 43쪽.

129 郭建中(2006), 위의 글, 43쪽.

130 李逸友(1964), 「烏拉特前旗哈德門溝口漢代城堡」, 『內蒙古文物資料選輯』, 內蒙古人民出版社.

렸한 출토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에는 한대 도편(陶片) 이외에도 화초문(花草紋)과 기하문(幾何紋)이 있는 잔전(殘磚), 북위의 오수전(五銖錢), 각종 수파문(水波紋), 능형문(菱形紋), 밀격식망문(密格式網紋) 등 도편, 각종 전족(箭鏃), 철병기(鐵兵器) 등이 있었다. 고고 조사와 발굴 상황을 보면 합덕문구고성은 한대와 북위에 모두 사용된 고성지였다.¹³¹

둘째, 『수경주』 「하수삼(河水三)」의 지리적 서술은 서쪽에서 포두(包頭)와 오랍특전기(烏拉特前旗) 교계처이며, 동쪽으로 포두시 마지향(麻池鄉) 길이 35km의 지단(地段)이다. 이 지단 주변에는 황하 남북의 한대 고성 세 개, 즉 삼정장방고성(三頂帳房古城), 이구만고성[二狗灣古城, 소군매고성(昭君塚古城)이라고도 함], 합덕문구고성과 마지고성(麻池古城) 등이다. 합덕문구고성의 서남쪽은 삼정장방고성, 동남은 마지고성이다. 이 세 고성의 방위와 거리는 ‘오원서남육십리(五原西南六十里)’와 ‘서북접대일성(西北接對一城)’의 방위와 들어맞는다.¹³²

셋째, 『위서』 「태조기(太祖紀)」 등국(登國) 6년(391년) 흉노 유위진(劉衛辰)이 아들 직력제(直力鞮)를 보내 북위를 공격하자 역습하여 열발성(悅跋城)까지 추격하였다. 사서(史記)에서는 추격 노선을 “오원 금진(金津)에서 남쪽으로 황하를 건넜다(自五原金津南渡河).”¹³³라고 기록하였다. 금진(金津)의 ‘진’은 지류(支流)의 뜻이다. 『자치통감』 호삼성주(胡三省註)에서는 “군진은 마땅히 오원군 의량(宜梁)

131 郭建中(2006), 앞의 글, 43~44쪽.

132 郭建中(2006), 위의 글, 44쪽.

133 『魏書』 卷2 「太祖紀」 登國六年, 24쪽, “十有一月戊辰, 還幸紐垵川. 戊寅, 衛辰遣子直力鞮寇南部. 己卯, 車駕出討. 壬午, 大破直力鞮軍於鐵歧山南, 獲其器械輜重, 牛羊二十餘萬. 戊子, 自五原金津南渡河. 辛卯, 次其所居悅跋城, 衛辰父子奔遁. 壬辰, 詔諸將追之, 擒直力鞮. 十有二月, 獲衛辰尸, 斬以徇, 遂滅之. 語在衛辰傳. 衛辰少子屈丐, 亡奔薛干部. 車駕次于鹽池, 自河已南, 諸部悉平. 簿其珍寶畜產, 名馬三十餘萬匹, 牛羊四百餘萬頭, 班賜大臣各有差. 收衛辰子弟宗黨無少長五千餘人, 盡殺之. 山胡酋大幡頽·業易于等率三千餘家降附, 出居于馬邑.”

과 구원(九原) 2현 사이에 있다.”¹³⁴고 하였다. 금진은 강수량이 적어 말라서 『수경주』에서는 기록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금진에서 황하를 건너 곳은 오원과 금진 남쪽의 황하 연안에서 소군매(昭君冢) 도구(渡口)가 ‘도하(渡河)’ 장소에 부합할 것이다.¹³⁵

태상 8년 장성은 북쪽에, 육진은 그 남쪽에 있었다. 고왕은 태상 8년(423년) 장성이 “동쪽에서 하북성 적성에서 시작되어 독석구(獨石口)를 돌아 서쪽으로 장북(張北)에 이르며, 계속 서행하여 내몽고 초원을 거쳐 고양 북쪽에 도달했으며 다시 고양의 북쪽에서 음산으로 향한다.”¹³⁶ 라고 서술하였다. 그가 인식한 북위 태상 8년(423년) 장성의 많은 지단이 이일우가 「중국북방장성고술」에서 살펴본 태화 8년 장성과 일치한다. 이 장성의 방위와 고려가 건의한 육진의 북쪽에 쌓은 장성과 일치한다.¹³⁷

태상 8년(423년) 장성을 축조한 다음에도 근본적으로 유연의 남하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북위는 유연에게 여러 차례 군사적 타격을 가하였다. 시광 원년(424년) 태무제가 즉위한 후 팔월 유연이 태상 8년(423년)의 장성을 넘어 6만 기(騎)가 운중을 침입하여 이민을 죽이고 약탈하였다.¹³⁸ 424년과 425년에 북위는 두 차례 출병하여 유연을 공격하였고 신가 2년(429) 태무제는 유연을 공격하여 큰 타격을 가하였다.¹³⁹ 북위와 유연의 전쟁은 매번 유연이 패배했지

134 『資治通鑑』 卷107 「晉紀」29 孝武帝太元十六年條胡註, 3402쪽, “金津當在五原郡宜梁·九原二縣間.”

135 郭建中(2006), 앞의 글, 44~46쪽.

136 高旺(1991a), 『內蒙古長城史話』, 內蒙古人民出版社.

137 郭建中(2006), 위의 글, 46~47쪽.

138 『魏書』 卷4上 「世祖紀」上 始光元年條, 69쪽, “八月, 蠕蠕率六萬騎入雲中, 殺掠吏民, 攻陷盛樂宮.”

139 『魏書』 卷103 「蠕蠕傳」, 2293쪽, “二年四月, 世祖練兵于南郊, 將襲大檀, 公卿大臣皆不願行, 術士張淵·徐辯以天文說止世祖, 世祖從崔浩計而行, 會江南使還,

만 북위 통치지는 태상 8년(423년)에 쌓은 장성이 방어에 역할을 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¹⁴⁰

회삭진고성(懷朔鎮古城) 유지를 실측한 결과 고성의 동쪽 성벽 방향은 170도, 길이 949.5m, 남쪽 성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75.65.90도, 길이 1,427m, 서쪽 성벽은 180도, 길이 1,322m, 북쪽 성벽은 95.85도, 길이 1,206m였다. 고성은 비교적 평탄한 곳에 위치하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서북쪽은 고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회삭고성은 육진 가운데 가장 큰 군사 성진(城鎮)이며, 군현이 설치된 유일한 진이었다. 『위서』의 육진 기술을 보면 연화(延和) 2년 십이월에 완성되었다.¹⁴¹

명원제 태상 8년(423년)에 장성을 쌓은 이유는 유연의 북위 침입이고, 시간은 ‘정월 병진’이다. 장성을 쌓은 시간은 ‘이월 무진’¹⁴²이다. ‘이월 무진’은 장성 축조의 준공일이 아니라 개시일이다.¹⁴³ 태상 8년(423년) 장성 축조 기사의 마지막 구절 ‘비치수위(備置戍衛)’는 『자치통감』에서는 ‘비치수졸(備置戍卒)’이라

稱劉義隆欲犯河南，謂行人曰：“汝疾還告魏主，歸我河南地，即當罷兵，不然盡我將士之力。”世祖聞而大笑，告公卿曰：“龜鼈小豎，自救不暇，何能爲也，就使能來，若不先滅蠕蠕，便是坐待寇至，腹背受敵，非上策也，吾行決矣。”於是車駕出東道向黑山，平陽王長孫翰從西道向大娥山，同會賊庭。五月，次于沙漠南，舍輜重輕襲之，至栗水，大檀衆西奔，弟匹黎先典東落，將赴大檀，遇翰軍，翰縱騎擊之，殺其大人數百，大檀聞之震怖，將其族黨，焚燒廬舍，絕跡西走，莫知所至。於是國落四散，竄伏山谷，畜產布野，無人收視。世祖緣栗水西行，過漠將竇憲故壘。六月，車駕次於兔園水，去平城三千七百里。分軍搜討，東至瀚海，西接張掖水，北渡燕然山，東西五千餘里，南北三千里。高車諸部殺大檀種類，前後歸降三十餘萬，俘獲首虜及戎馬百餘萬匹。八月，世祖聞東部高車屯巴尼陂，人畜甚衆，去官軍千餘里，遂遣左僕射安原等往討之。暨巴尼陂，高車諸部望軍降者數十萬。”

140 郭建中(2006), 앞의 글, 47쪽.

141 郭建中(2006), 위의 글, 48쪽.

142 『魏書』卷3「太宗紀」泰常八年二月戊辰條, 63쪽.

143 郭建中(2006), 앞의 글, 49~50쪽.

기록하여 전자의 ‘위’를 후자에서는 ‘졸’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위’는 ‘위소(衛所)’의 약칭이었다.¹⁴⁴

곽건중은 2004년 포두시 북쪽 조(趙) 장성을 조사하였다. 포두시 북쪽 색기만촌(色氣灣村) 동쪽의 유지에서 합덕문구고성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수파문과 기하문 도편이 발견되었다. 색기만촌 유지에서 북위 시대 건축과 생활 유물이 발견되었다. 곽건중은 북위 태상 8년(423년) 장성은 전국 조 장성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¹⁴⁵ 북위가 음산 남록(南麓)의 조 장성을 선택하고 음산 중척(中脊)의 진한 장성을 태상 8년(423년)의 장성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북위 상황 때문이었다. 첫째, 태상 8년(423년) 장성은 경계선이 아니었다. 장성은 장천 이남에 있었지만, 북위는 장천성의 관리와 이용을 방기할 수 없었다. 장성을 쌓은 이후인 시광 3년(426년)에 태무제는 마사대를 장천에 만들었다.¹⁴⁶ 마사대는 강무교전(講武交戰)의 장소이므로 장성이 국경선[邊界]이었다면 이곳에서 강무(講武)하지 않았을 것이다. 태상 8년(423년) 장성은 성락과 금릉(金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선이었고, 태평진군 7년(446년)에 쌓은 기상새위와 같은 기능이 있었다.¹⁴⁷ 둘째, 조 장성은 음산산맥의 남록에 위치하여 배후에 50여km의 음산산맥이 병장이 되어 천연 장벽이 되었다. 음산과 장성의 결합은 구도(舊都)와 금릉의 보호에 유리하였다.¹⁴⁸ 장성 이남은 토묵특천(土默特川)과 하투평원으로 교통과 보급에 유리하였다. 장성과 평성은 200km이고, 구도 성락과는 80여km였다. 긴급한 일이 있으면 최단 시간 안에 조정에 정보

144 郭建中(2006), 앞의 글, 50쪽.

145 郭建中(2006), 위의 글, 50쪽.

146 『魏書』卷4上「世祖紀」上 始光三年條, 71쪽, “秋七月, 築馬射臺于長川, 帝親登臺觀走馬.”

147 郭建中(2006), 위의 글, 50~51쪽.

148 郭建中(2006), 위의 글, 51쪽.

를 전달하였다. 음산 남록의 조 장성은 권의지계(權宜之計)를 잃지 않았다.¹⁴⁹

6) 은헌의 기상새위 연구

은헌(殷憲)은 「북위기상새위고변(北魏畿上塞圍考辨)」에서 기상새위에 대해 논증하였다. 기상새위에 대해 “(태평진군 7년 유월) 병술일, 사·유·정·기 4주의 10만 인을 징발하여 기상새위를 쌓았다. 상곡으로부터 서쪽으로 해[水]에 이르기까지 너비와 길이가 모두 천 리였다.”¹⁵⁰라고 하였다. 태평진군 9년(448년)에 “이월 계묘일, 정주에 행행하였다. 산동민이 굶주리자 창을 열어 진휼하였다. 새위 건설을 마쳤다.”¹⁵¹라고 하였다. 『북사』의 기록은 『위서』와 같다. 『자치통감』 권124 「송기(宋紀)」 6 문제 원가 이십삼년조(文帝元嘉二十三年條)의 기사를 보자.

(유월) 갑진일 위는 기·상·정 3주병 2만 인을 징발하여 장안(長安) 남산(南山) 제 곡(谷)에 주둔하여 개오의 찬일(竄逸)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병수일 또 사·유·정·기 4주병 10만 인을 징발하여 기상새위를 쌓았는데 상곡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황하에 이르렀으며 길이 천 리였다.¹⁵²

『자치통감』 권125 「송기」 7 문제 원가 이십오년조에는 “이월 계묘일 위주는 정주에 가고 새위 역자(役者)를 파하도록 하였다.”¹⁵³라고 하였다.

149 郭建中(2006), 앞의 글, 51쪽.

150 『魏書』卷4下「世祖紀」太平眞君七年條, 101쪽.

151 『魏書』卷4下「世祖紀」下太平眞君九年條, 102쪽.

152 『資治通鑑』卷124「宋紀」6文帝元嘉二十三年條, 3927쪽, “甲申, 魏發冀·相·定三州兵二萬人屯長安南山諸谷, 以備蓋吳竄逸. 丙戌, 又發司·幽·定·冀四州兵十萬人築畿上塞圍, 起上谷, 西至河, 廣縱千里.”

기상새위는 태평진군 7년(446년) 유월 사일(양력 7월 13일) 시작하여 태평진군 9년(448년) 이월에 그쳤다. 이는 태무제 중후기에 해당한다.¹⁵⁴ 태무제는 기상새위 방어 공사를 함과 동시에 병력을 투입하여 유연을 경계하였다. 동시에 백성에게 유연과 가까운 지역에서 목축하도록 하여 유연을 유인하고 공격하려고 하였다.¹⁵⁵ 『위서』 권 3 「태종기(太宗紀)」 태상 팔년 이월 무진조에는 장성 축조의 기사가 있다.

(태상 8년) 이월 무진일, 장천지남에 장성을 쌓았다. (동쪽의) 적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오월에 이르기까지 길이 이천여 리로 늘어났으며, 수비를 위해 수위를 설치하였다.¹⁵⁶

인용문을 분석해 보면 유연에 대한 대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성은 북부 방어선이었고, 기상새위는 안쪽에 위치하여 평성의 방어선이었다.¹⁵⁷

기상새위의 ‘기(畿)’는 경기였다. 『위서』 권110 「식화지(食貨志)」에 따르면 “천흥 초에 경읍(京邑)을 제정하였다. 동쪽으로 대군, 서쪽으로 선무, 남쪽으로 음관(陰館), 북쪽으로 참합(參合)에 이르는 지역을 기내지전(畿內之田)으로 삼았다.”¹⁵⁸ 대군, 선무, 음관, 참합 지명을 살펴보면 대동 북경의 외장성에 해당

153 『資治通鑑』 卷125 「宋紀」7 文帝元嘉二十五年條, 3932쪽, “二月, 癸卯, 魏主定州, 罷塞圍役者.”

154 殷憲(2012), 「北魏畿上塞圍考辨」, 『平城史稿』, 北京: 科學出版社, 115쪽.

155 殷憲(2012), 위의 글, 116쪽.

156 『魏書』 卷3 「太宗紀」 泰常八年二月戊辰條, 63쪽.

157 殷憲(2012), 위의 글, 116쪽.

158 『魏書』 卷110 「食貨志」, 2850쪽, “天興初, 制定京邑, 東至代郡, 西及善無, 南極陰館, 北盡參合, 爲畿內之田; 其外四方四維置八部帥以監之, 勸課農耕, 量校收入, 以爲殿最.”

한다. 이 새위 역시 청(淸) 옹정(雍正) 5년 이전의 대동부이며, 대략 현재의 안북(雁北) 지구에 해당한다.¹⁵⁹ 동쪽은 상곡에서 시작하고 하에 이른다고 하였고 남쪽으로 음관에, 북쪽으로 참합에 이른다는 말이 없었다. 이 새위는 반포위(半包圍)이고 완전한 포위는 아니었다. 새위의 북쪽 부분은 유연, 남쪽 부분은 유송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새위의 주요 목적은 유연에 대비한 것이므로 북부에 있었다.¹⁶⁰

기상새위의 ‘상(上)’은 방위사다. 새상·새하(塞下)처럼 북쪽을 ‘상’, 남쪽을 ‘하’라고 하였다. 혹은 상은 밖, 하는 안을 지칭한다. 새상·새하는 새외·새내라고도 한다. 따라서 기상(畿上)은 당연히 경기의 북부다. 기하(畿下)는 없는가? 있다. 『송사』 권317 「소항전(邵亢傳)」에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지개봉부(知開封府)로 승진하였다. …… 이(吏)가 폐정(廢停)하여 하나라도 범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옮겨서 처벌하니 기하(畿下)의 소송이 줄어들다가 마침내 없어졌다.”¹⁶¹ 라고 하였다. 기상새위가 평성 남쪽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징발한 민부(民夫)와 새위 경유지역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새위가 거용관·도마관(倒馬關)·지형관·안문관·누번관(樓煩關)·편두관 일선의 내장성과 중합된다면 왜 사주와 병주의 민부가 동원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태평진군 9년(448년) 이월 태무제는 정주를 시찰한 이후 기상새위(畿上塞圍)의 공사를 결정하였다.¹⁶²

요컨대 북위의 기상새위는 평성 경기 지구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거용관

159 殷憲(2012), 앞의 글, 117쪽.

160 殷憲(2012), 위의 글, 118쪽.

161 『宋史』卷317「邵亢傳」, 10337쪽, “進樞密直學士·知開封府。……與吏之廢停者, 一有所犯, 皆遷處之, 畿下門訟爲之衰止。”

162 殷憲(2012), 앞의 글, 118쪽.

과 하북성 북부를 거쳐 산서성 북부, 내몽고 남부, 황하에 이르는 명대 외장성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¹⁶³

7) 왕진방의 장성 관련 논저

왕진방(王振芳)은 「논태원재동위북제시기적전략지위(論太原在東魏北齊時期的戰略地位)」¹⁶⁴에서 동위 북제의 장성 축조 의도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왕진방은 이 논문에서 동위 북제의 실질적인 수도였던 태원(진양)의 전략적인 지위를 분석하였다. 고훈은 이주조(尙朱兆)를 물리친 후 태원에 자리 잡고 그 땅을 “사방이 막혔으므로 대승상부(大丞相府)를 세워 태원에 거하였다.”¹⁶⁵라 하였다. 호삼성주에서도 태원의 지형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태원군의 땅은 동쪽으로 태행(太行)·상산(常山)이 떨어져 있고 서쪽에는 몽산(蒙山), 남쪽에는 곽태산(霍太山)·고벽령(高壁嶺), 북쪽으로 동형(東陁)·서형관(西陁關)으로 막혔기 때문에 사색지지(四塞之地)라 한다.¹⁶⁶

다음으로 고훈은 3주(항주·연주·운주[雲州]) 6진의 선비인을 태원 주변에 이주

163 殷憲(2012), 위의 글, 119쪽.

164 王振芳(1991), 「論太原在東魏北齊時期的戰略地位」, 『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4.

165 『資治通鑑』 卷155 「梁紀」11 武帝中大通四年七月壬寅條, 4826쪽, “壬寅, 魏丞相歡引兵入滏口, 大都督庫狄干入井陘, 擊爾朱兆. 庚戌, 魏主使驃騎大將軍·儀同三司高隆之帥步騎十萬會丞相歡于太原, 因以隆之爲丞相軍司, 歡軍於武鄉, 爾朱兆大掠晉陽, 北走秀容. 并州平. 歡以晉陽四塞, 乃建大丞相府而居之(胡註: 自此至于高齊建國, 遂以晉陽爲陪都).”

166 『資治通鑑』 卷155 「梁紀」11 武帝中大通四年七月壬寅條 胡註, 4826쪽, “太原郡之地, 東阻太行·常山, 西有蒙山, 南有霍太山·高壁嶺, 北陁東陁·西陁關, 故亦以爲四塞之地.”

시키고 항주·연주·운주·삭주·현주(顯州)·울주(蔚州) 등 6주를 교치(僑置)하였다. 이 3주 6진의 선비를 육주선비(六州鮮卑)라 개칭하였다. 또 고환이 태원을 군사중진(軍事重鎮)으로 경영하였고 태원이 실제 동위의 정치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업성(鄴省)의 황제는 괴뢰였다.¹⁶⁷

왕진방은 장성 축조의 전략적 지위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였다. 먼저 고환은 무정 원년(543년)에 5만 명을 동원하여 40일 동안 사주 북산에 성을 쌓았다. 이 성은 서쪽의 마릉수에서 동쪽으로 토등에 이르렀다.¹⁶⁸ 사주는 지리 위치를 보면 태원 북쪽의 보호막이었으며 이 장성은 태원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태원은 당시 북방 민족을 방어하는 전략기지였다.¹⁶⁹

왕진방은 문선제 천보 3년(552년)에 쌓은 장성은 산호(山胡)의 방어를 위해 쌓았다고 주장하였다. 동위 북제 시대에 현재의 산서 지역은 민족의 잡거 지역이었고 그중 산호가 험한 산지를 점거하여 불시에 동위를 공격하였다. 북제는 산호를 막는 장성을 쌓았다. 문선제는 북제 천보 3년(552년) 동시월(冬十月) 을미일에 황로령에 이르러 북쪽으로 사간수까지 사백여 리에 걸쳐 장성을 쌓고 36수를 설치하였다.¹⁷⁰ 이 장성은 태원의 서쪽에 위치하였고 태원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인 방어로 산호의 소요를 막을 수 없었다. 산호의 새 공격을 당하자 북제는 군사 토벌을 진행하였다. 『북사』 「제·문선제기(齊·文宣帝紀)」에는 “산호가 이석수(離石戍)를 포위하자 (문선)제는 친히 산

167 王振芳(1991), 앞의 글, 53·55쪽.

168 『魏書』卷12「孝靜紀」武定元年條, 306쪽. 『北齊書』卷1「神武紀」下와 『北史』卷6「神武紀」, 『魏書』卷12「孝靜紀」는 모두 8월의 일로 기록하였다. 『資治通鑑』卷158「梁紀」大同九年條에는 11월의 기사로 기록하였다. 당연히 근거가 있을 것이다. 『九域志』와 『資治通鑑』은 등(陞)을 ‘등(塏)’으로 기록하였다.

169 王振芳(1991), 위의 글, 56쪽.

170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三年條, 56쪽.

호를 토벌하려고 하였다. (북제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산호의 군대가) 달아났다(山胡圍離石戍, 帝親討之, 未至而逃).¹⁷¹라고 하였고 다음 해 “천보 5년 춘정월 계축일에 (문선)제는 산호를 토벌하여 대파하였다. 12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참하였고 여자와 어리거나 약한 사람은 군사들에게 상으로 나눠주었다. 결국 석루(石樓)를 평정하였다. 석루는 매우 험하여 (북)위시대에 미치지 못했던 곳이다. 이때 원근의 산호는 모두 두려워하여 복종하였다(五年春正月癸丑, 帝討山胡大破之, 男子十二已上皆斬, 女子及幼弱以賞軍士, 遂平石樓, 石樓絕險, 自魏代所不能至, 於是遠近山胡, 莫不懾伏).¹⁷²라고 하였다. 북제는 두 차례 출병하여 산호를 토벌하였다. 모두 문선제의 친정이었다.¹⁷³

8) 상형의 북제 장성 연구

상형(尙形)은 북제 장성의 위치와 북위·동위 장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상형은 북제의 장성을 서선(西線) 장성, 외선서단(外線西段) 장성, 내선 장성, 남선(南線) 장성, 외선동단(外線東段) 장성의 다섯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특색에 따라 상형의 연구를 지명 고증과 다른 왕조의 장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장성의 양 지점 지명에 대한 고증을 살펴보자.

먼저 천보 3년 장성이다. 문선제는 북제 천보 3년(552년) 동시월(冬十月) 을미일에 황로령에 이르러 북쪽으로 사간수까지 400여 리에 걸쳐 장성을 쌓고

171 『北史』 卷7 「齊本紀·文宣帝紀」 天保四年春正月丙子條, 249~250쪽, “四年春正月丙子, 山胡圍離石戍, 帝親討之, 未至而逃, 因巡三堆戍, 大狩而旋.”

172 『北史』 卷7 「齊本紀·文宣帝紀」 天保五年春正月癸丑條, 250쪽, “五年春正月癸丑, 帝討山胡大破之, 男子十二已上皆斬, 女子及幼弱以賞軍士, 遂平石樓, 石樓絕險, 自魏代所不能至, 於是遠近山胡, 莫不懾伏.”

173 王振芳(1991), 앞의 글, 57쪽.

36수를 설치하였다.¹⁷⁴ 이 장성의 남쪽 끝 황로령은 현재의 이석시(離石市) 오성진(吳城鎭) 사과리촌(舍科里村) 동남쪽의 황로산(黃樓山)이다. 사간수의 고지는 현재의 산서 남현(嵐縣) 동북 16km에 있는 사안촌(社安村)이었다. 혼주(忻州)의 고고발굴 담당자는 오채현성(五寨縣城) 남쪽 1,000m에 있는 산 위에서 장성 유적을 발견하였다. 사석루체(砂石壘砌)는 남아 있는 길이가 약 1,500m, 기반은 2~5m, 남아 있는 높이 1~4m였다.¹⁷⁵ 이 장성은 북제 천보 3년(552년)에 쌓은 장성으로 추정된다.¹⁷⁶

다음으로 천보 6년(555년) 장성이다. 북제는 천보 6년(555년) 유월 성인 남성 180만 인을 징발하여 유주 북하구에서 항주까지 구백여 리(450km)의 장성을 쌓았다.¹⁷⁷ 이 장성은 동쪽의 북경 창평(昌平) 남구 부근의 산령에서 북경 연경, 장가구 적성·승례(崇禮)·장북·강보(康保) 등지를 거쳐 내몽고 오란찰포맹(烏蘭察布盟) 화덕(化德), 상도(商都), 찰합이우익후기(察哈爾右翼後旗), 찰합이우익중기(察哈爾右翼中旗), 사자왕기(四子王旗), 포두시 달이한무명안연합기(遼寧罕茂明安聯合旗), 호화호특시 무천현 등 지역으로 진입하였다.¹⁷⁸

이어서 서남쪽의 장성이다. 『북제서』에는 “하칭 2년(563년) 삼월 을축일 사공 곡률광에게 5영(五營) 군사를 지휘하여 지관에 수를 쌓도록 명령하였

174 『資治通鑑』 卷164 「梁紀」20 元帝承聖元年條, 5092쪽, “冬十月乙未, 至黃樓嶺, 仍起長城, 北至社干戌四百餘里, 立三十六戌.”; 『北齊書』 卷4 「文宣紀」 天保三年條, 56쪽, “冬, 十月, 齊主自晉陽如離石, 自黃樓嶺起長城, 北至社平戌, 四百餘里, 置三十六戌.”

175 國家文物局 主編(2007), 『中國文物地圖集·山西分冊』 上冊, 中國地圖出版社.

176 尙珩(2012), 「北齊長城考」, 『文物春秋』 1, 46~47쪽.

177 『北史』 卷6 「齊本紀」 中, 253쪽.

178 國家文物局 主編(2003), 『中國文物地圖集·內蒙古分冊』 上冊, 西安地圖出版社; 尙珩(2012), 위의 글, 47·48쪽.

다.”¹⁷⁹라고 하여 지관 일대에 수라는 방어 시설을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 『북제서』에 따르면, 곡률광이 하청 2년(563년) 보기 2만 명을 동원하여 지관 서쪽에 훈장성을 쌓고 200리의 장성을 축조하고 13수를 설치하였다.¹⁸⁰ 지관은 태행팔형(太行八陁)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제1형이며 현재의 하남성 제원현(濟源縣) 서북과 산서성 양성현(陽城縣) 경계선에 위치한다. 훈장성의 고지는 현재의 제원현 서북이며 산서성의 경계와 가깝다. 이 장성은 대체로 동서 방향이며 현재의 하남성 제원현과 산서성 탁주현(澤州縣) 경계의 태행산구에 이르렀고,¹⁸¹ 약 7.5km마다 1개의 수보를 세웠다. 실지 조사를 통해 북제의 지관 장성 유지임을 발견하였다. 현재 이 장성 유지는 산서성 탁주현 진묘포진(晉廟鋪鎮) 반구령촌(斑鳩嶺村) 남쪽 약 1km에서 시작하여 동북으로 약 3km 이어지고 산곡을 넘어 배천촌(背泉村) 서쪽 100m의 석애상(石崖上)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배천촌과 대구촌(大口村)을 거쳐 5km 이어져 만안령(滿安嶺) 단애(斷崖)에 이른다. 대체로 동서 방향이며 전체 길이는 약 9km다.¹⁸²

마지막으로 동북쪽의 장성이다. 북제는 천통 원년(565년) 고퇴수에서 바다까지 장성을 쌓았다. 『북제서』의 기록에 따르면 곡률선은 하청 3년(564년) 사지절 도독 유·안·평·남·북영·동연육주 제군사 유주자사가 되어 가을 돌궐 10여 만의 침입을 막아냈다. 돌궐은 천통 원년(565년) 하오월(夏五月) 곡률선의 굳건한 수비를 보고 북제와 통교하였다. 곡률선은 돌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퇴수 동쪽에서 바다까지 산과 골짜기를 따라 2천여 리에 이르렀고 그 사이

179 『北齊書』卷7「武成帝紀」, 91쪽.

180 『北齊書』卷17「斛律金傳附子光傳」, 223쪽.

181 艾冲(2007), 「北朝拓跋魏·高齊·宇文周諸國長城再探索-兼与朱大渭先生商榷」, 『社會科學評論』3.

182 尙珩(2012), 앞의 글, 51쪽.

2백 리 험요한 곳에 산을 잘라 성을 쌓거나 골짜기를 끊어 장(障)을 만들었으며 수라 50여 소를 만들었다.¹⁸³ 고추수(庫推戍)의 ‘고추(庫推)’는 ‘고퇴(庫堆)’라고도 하는데 ‘퇴(堆)’는 ‘추(推)’ 자의 결필이며 ‘고추(庫推)’가 옳다. ‘고추(庫推)’는 후에 ‘호북(虎北)’으로 와전되었고 후에 다시 ‘고북(古北)’으로 와전되었으니 현재의 북경 고북구(古北口)다.¹⁸⁴ ‘산의 굴곡을 따라 2천여 리에 이르렀다(隨山屈曲二千餘里)’는 장성이 이곳에서 동쪽으로 향함을 설명하며, 연산주맥(燕山主脈)의 주세는 해변에 이르렀으나, 오늘날의 산해관은 아니었다. 한 학자는 동쪽은 요녕 장자리촌(牆子里村)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하북 무녕현(撫寧縣) 장조장(張趙莊) 서산 일선에 이르기까지 북조 장성 유적을 발견하였다.¹⁸⁵ 이는 이 장성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 요녕성 수중현(綏中縣) 만가향(萬家鄉) 장자리촌 부근의 해안임을 보여준다. 이곳은 산해관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해안이다.¹⁸⁶

북제 장성과 이전 왕조의 장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천보 6년(555년) 장성¹⁸⁷은 대체로 북위 태상 8년(423년) 수축했던 적성~오원의 장성과 태화 8년(484년) 고려가 수축한 ‘육진 장성’의 구기(舊基)였다.¹⁸⁸ 이 장성은 천보 6년(555년) 축조하여 1년간의 창건과 보수를 거쳐 천보 7년(556년) 완공하였으며, 항주를 설치하여 진수하게 하였다.¹⁸⁹ 또 천보 7년(556년) “이전에 서하 총진수부터 장성을 쌓아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렀으며 전후 축조한 장성이 동서로 3천여 리에

183 『北齊書』卷17「斛律金傳附羨傳」, 227쪽.

184 艾冲(2007), 앞의 글.

185 康群(1990), 「秦皇島市境內古長城考」, 『遼海文物學刊』 2.

186 尙珩(2012), 앞의 글, 52쪽.

187 『北史』卷6「齊本紀」中, 253쪽.

188 景愛(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226쪽.

189 尙珩(2012), 앞의 글, 47·48쪽.

이르렀고, 60리마다 1수를 두었으며 요해(要害)에 주진 25소를 두었다.”¹⁹⁰라고 하였다. “전후 축조한 장성이 동서로 3천여 리에 달했다(前後所築, 東西凡三千餘里).”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성은 한 번에 완공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수축한 것이다.¹⁹¹ 천보 7년(556년)에 만든 장성은 그중 약 1/3을 완성한 것이다. 우선 이 장성은 북위 시대 기상새위¹⁹²의 동단과 서단과 동위의 장성¹⁹³을 이용하였다. 방어 시설의 완비 때문에 이 장성은 천보 6년(555년)의 북하구~항주 사이의 장성과 서로 이어져 완비되었다.¹⁹⁴ ‘옛 장성’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장성의 건설 속도는 매우 빨랐다.¹⁹⁵

무성제 하청 2년(563년)에 지관 일대에 쌓은 장성(지관 장성)¹⁹⁶은 북제 시대에 처음 만든 것이 아니며 북제 건국 초에 이미 수축한 바 있다. 『북제서』 권15 「반악전(潘樂傳)」에는 반악이 지관의 방어를 위해 수리하고 무기와 병력을 늘렸다.¹⁹⁷ 평감(平監)동 지관에 성을 쌓아 방어하자 상주하여 조정의 허락을 얻어냈다.¹⁹⁸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관 장성은 북제 초에 이미 건설되었고 당시에 서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다. 북제는 이를 개보수하여 북주

190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七年條, 63쪽.

191 尙珩(2012), 위의 글, 48쪽.

192 『魏書』卷4下「世祖紀」太平眞君七年條, 101쪽.

193 『北齊書』卷2「神武紀」下 武定元年八月條, 22쪽.

194 艾冲(2007), 앞의 글.

195 尙珩(2012), 위의 글, 49쪽.

196 『北齊書』卷7「武成帝紀」, 91쪽.

197 『北齊書』卷15「潘樂傳」, 201쪽, “文宣嗣事, 鎮河陽, 破西將楊標等. 時帝以懷州刺史平鑿等所築城深入敵境, 欲棄之. 樂以軹關要害, 必須防固, 乃更修理, 增置兵將, 而還鎮河陽. 拜司空. 齊受禪, 樂進璽綬. 進封河東郡王, 遷司徒. 周文東至崤, 陝, 遣其行臺侯莫陳崇自齊子嶺趣軹關, 儀同楊標卜寸從鼓鐘道出建州, 陷孤公戍, 詔樂總大眾禦之.”

198 『北齊書』卷26「平鑿傳」, 374쪽, “鑿奏請於州西故軹道築城以防遏西寇, 朝廷從之.”

를 막는 데 이용하였다.¹⁹⁹

마지막으로 동북쪽의 장성이다. 북제는 천통 원년(565년) 고퇴수에서 바다까지 장성을 쌓았다. 장성은 북경에서 시작하여 하북성으로 진입한 후 연산주 맥을 거쳐 동쪽으로 향하며 그중 대부분의 성벽은 명이 쌓은 장성에 이용되었다. 또 장성의 일부가 명 장성의 내·외측에 위치하였다. 이는 현재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 주요 원인의 하나다. 그러나 현재 진황도(秦皇島)의 산해관·무녕현 지구는 북제 장성 유지가 발견되어 그 방향을 알 수 있다.²⁰⁰

요컨대 북제의 강역은 대체로 북위·동위에 해당하며 그 주변 적국과 소수민족 군사 집단의 형세도 이전 왕조와 대체로 비슷하였고 이전 왕조와 시간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군사 요새와 중진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점 지구였다. 북제 통치자는 전 왕조의 방어 시설을 이용하여 중수·중축·재이용하였다. 이후 북제의 내선·외선 장성도 후세에 북주·수조에 이용되었고, 명조에 이르러 계진(薊鎮)·선부진(宣府鎮)·대동진·산서진의 장성을 축조할 때 이용되었다.²⁰¹

9) 판창독수의 북조·수대 장성 서술

판창독수(阪倉篤秀)는 『長城の中國史-中華vs.遊牧六千キロの攻防』에서 북조와 수대의 장성을 서술하였다.²⁰³ 북위는 남방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방을 지킬 대책으로 장성 수축을 고려하였다. 도무제가 평성 방위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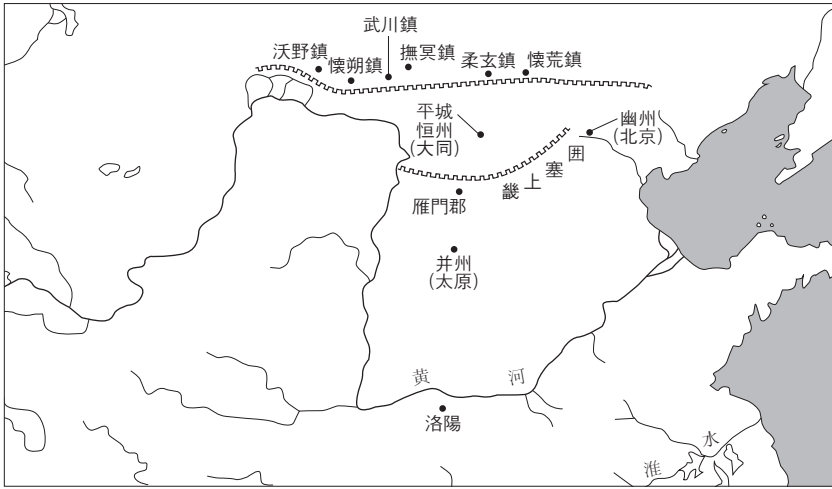
199 尙珩(2012), 앞의 글, 51쪽.

200 尙珩(2012), 위의 글, 52쪽.

201 尙珩(2012), 위의 글, 52쪽.

202 阪倉篤秀(2004), 앞의 책, 75쪽, 北魏の六鎮と畿上塞圍.

203 阪倉篤秀(2004), 『長城の中國史-中華vs.遊牧六千キロの攻防』, 東京: 講談社.



〈지도 11〉 북위 기상새위와 육진²⁰²

해 이전의 장성을 수선하기 시작하였으나 명원제는 적극적으로 장성선까지 시찰을 나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북경 북쪽 적성에서 서쪽으로 만곡부(彎曲部) 황하 북쪽까지 장성을 강화하였다. 태무제도 이를 답습하였다. 당시 북위와 유연의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았고 북위의 강역은 북쪽으로 확대되었으나, 이 장성은 진 이후의 옛 장성선을 기초로 하였다. 이는 북변의 방어보다 새로 수중에 넣은 중화의 땅을 방위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이를 위해 태무제 시기에는 육진을 두어 장성선에 따라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옥야진, 회삭진, 무천진, 무명진, 유현진, 회황진이 설치되었다. 태무제는 태평진군 7년(446년) 현재의 북경 서북에 있는 거용관에서 서쪽으로 향해 안문·영무를 경유하여 황하까지 이르며, 명대 내장성의 원형이 되는 장성의 수축을 계획하였다. 이를 기상새위라고 부르며, 앞에서 축조한 장성과 합쳐 수도 평성의 방위를 강화할 의도로 만들었다. 기상새위는 국력의 충실을 배경으로 화북통일(華北統一)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저해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완성할 필요가 없

었다. 그러나 북방의 장성은 유연에 대해 유효하여 효문제(孝文帝) 태화 8년(484년) 육진의 병사 등 6만 인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²⁰⁴

북위는 534년 동서로 분열되었다. 동위는 현재의 태원 서북쪽에 70km의 방어선을 쌓았다. 동위의 뒤를 이은 북제는 장성 축조를 이어받아 문선제(제위 550~559년)는 네 차례 장성을 수축하였다. 최초로 쌓았던 태원 서부에 남북 200km에 달하는 장성은 동위의 장성을 보강하였고, 서위 북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제2기의 공사는 문선제가 북변을 시찰하고 유주의 북쪽 하구에서 항주에 이르는 900여 리였다. 현재의 산서성 대동시에서 북경시까지의 장성이 수축되었다. 900리는 당시의 척도로는 약 400km였는데, 대동·북경 사이의 직선거리가 200km 정도였다. 이 장성은 북쪽으로 크게 활처럼 굽어져 곡선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진 이래의 옛 장성선과 중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하의 총진수에서 장성을 쌓아 동쪽으로 동해에 이르렀고 전후 동서 3천여 리에 달하는 제3기 장성은 황하부터 동해까지 이어졌으며, 제1기와 제2기 공사의 일부를 포함하고 옛 장성을 보강·수선하였으며, 본래의 목적인 유연, 후에는 돌궐 등 북방 유목민의 침공에 대비하는 역할이 부활하였다. 제4기는 제1기의 북단부터 동쪽으로 향하여 영구(營丘)의 서쪽에 달하였으며, 북위가 계획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했던 기상새위의 재판인 이중 장성선이었다. 북제는 이후에도 서쪽으로 북주, 북쪽으로 돌궐에 대항하기 위해 문선제 시기 장성을 보수하였다. 이는 강한 외압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돌궐의 강성함 때문에 577년 북제를 병합한 북주도 북쪽의 장성 보강에 노력하였다.²⁰⁵

수문제는 북제, 북주와 달리 돌궐에 비단과 중국의 물산을 주지 않았다. 돌

204 阪倉篤秀(2004), 앞의 책, 73쪽.

205 阪倉篤秀(2004), 앞의 책, 76~77쪽.

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방어를 맡게 하는 한편 장성선의 강화를 도모하고 개황 원년(581년) 산서 북부의 장성을 보완하였다. 다행히 돌궐은 개황 3년(583년) 동서로 분열되었다. 수는 동돌궐과 결탁하여 산서 북쪽의 안정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개황 5~6년(585~586년)의 제2기와 제3기 공사는 서돌궐의 방어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은천(銀川)부터 수덕(綏德)까지 하투(오르도스) 중부를 동서로 이어지는 장성이 수축되었다. 문제(文帝) 시기에는 개황 7년(587년) 장성을 수축하였다. 정남 10만여 인을 징발하여 장성을 수축하여 2순(旬) 만에 파하였다. 그 장소는 명확하지 않다. 이 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고 제3기 공사까지 북변의 안정은 확보되었다고 판정되어 남조 진 정벌에 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문제는 북변에 한계를 설정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여 안정을 꾀하였다. 이후 문제는 장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수양제는 대업 3년(607년) 유림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장성을 수축하였다. 산서에서 하남에 이르는 참호도 이 가운데 포함된다.²⁰⁶

10) 장울의 북위장성과 금계호 비교 연구

장울(張蔚)은 북위의 장성과 금계호를 비교하여 양자의 유사성에 주목하였다.²⁰⁷ 대부분의 중원 왕조가 북방 유목·수렵 민족을 막기 위해 장성을 세웠던 반면 이민족 왕조인 북위와 금(金)도 대규모 장성을 수축하였다. 북위와 금의 주체인 선비와 여진(女眞)은 현재의 호룬패이(呼倫貝爾) 초원과 송눈(松嫩) 평원 일대의 유목(수렵)민족이었으며, 대막(大漠)을 따라 남하하여 화북 평원 북부에 수도를 정하였다. 북위는 전후 성락과 평성에, 금은 남경(南京)에 정도(定

206 阪倉篤秀(2004), 위의 책, 78~79쪽과 80~82쪽.

207 張蔚(2012), 「北魏長城與金界壕對比研究」, 『東北史地』 6.

郡)하였다. 중원을 점령한 후 북위는 낙양, 금은 개봉(開封)으로 각각 천도하였다. 북위와 금이 장성을 축조한 이유는 북방의 유목민 유연과 몽골 때문이었다. 유연과 몽골은 내몽고 고원 이북의 대막에서 활약하였고 ‘중원화’한 이민족 왕조와 이웃하였다. 유연과 몽골은 모두 유목민족으로 수초를 따라 이동하는 유동성을 지녔고, 유목경제와 함께 약탈 경제가 주요 생산 방식이었다.²⁰⁷ 사서에 유연과 몽골이 남하하여 중원을 약탈한 기록이 빈번하였다. 따라서 북위와 금은 북쪽의 유목민 방어가 필요하였다. 또 북위와 금은 남쪽으로 발전할 의사를 가졌고 전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북방에 대해 수세 위주의 정책을 폈다. 북방에 대한 수세 운용의 시기와 방식, 효과는 차이가 있지만 남공북수(南攻北守)는 두 나라의 공통된 전략이었다.²⁰⁹

장울은 북위의 장성을 북위의 장성은 태상 8년의 장성,²¹⁰ 태평진군 7년 수축한 기상새위,²¹¹ 태화 연간 수축한 장성으로 나누었다. 태화 연간 수축한 장성을 육진 이북의 장성²¹²과 광장참(廣長塹)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육진 이북의 장성은 『위서』 권54 「고려전(高閭傳)」과 『북사』 「고려전(高閭傳)」과 『자치통감』 「제기(齊紀)」2에 보인다. 육진 이북의 장성은 문헌에는 고려의 상주(上奏)와 건의로 당시 황제가 “정중하게 조서를 내려 그의 상주에 답했다(優詔答之).”라고 했을 뿐 실제로 건축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성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지만,²¹³ 1990년대 학자들의 실지 조사를 통해 이 장성의

208 王明珂(2008), 『遊牧人的抉擇』, 南寧: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35쪽.

209 張蔚(2012), 앞의 글, 12~14쪽.

210 『魏書』卷3 「太宗紀」泰常八年二月戊辰條, 63쪽.

211 『魏書』卷4下 世祖紀 太平眞君七年條, 101쪽.

212 『魏書』卷54 「高閭傳」, 1201~1202쪽.

213 艾沖(2009), 「再論北魏長城的位置與走向-與李逸友先生商榷-」, 『陝西師範大學繼續教育學報』3, 38~41쪽.

존재가 인정되었다.²¹⁴

『수경주(水經注)·포구수(鮑丘水)』에 보이는²¹⁵ 광장참은 현재의 풍녕(豐寧)·난평현(灤平縣)에 있었다.²¹⁶ 또 『북제서』에 북제 문선제가 천보 4년(553년) 평주(平州)에서 서도를 따라 장참(長塹)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다.²¹⁷ 이 기사와 장참 소재지는 위에서 기록한 곳과 대체도 동일한 지역이다.²¹⁸ 광장참은 서쪽으로 육진 장성에 접하고 대체로 현재의 독석구 북쪽에서 난하원(灤河源) 일대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아마도 난하(灤河)를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¹⁹ 애충(艾沖)은 광장참이 서쪽으로 독석(獨石)에서 시작하여 요녕(遼寧) 경내에서 ‘적남(赤南) 장성’²²⁰으로 이용되었고 동쪽으로 요수(遼水) 서안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²²¹ 두 주장은 크게 어긋나지만 두 설 모두 서쪽 기점을 독석구 북쪽으로 본 점은 일치한다. 이 지역에서 명확한 장참 유적은 보이지 않는다.²²² 주의할 점은 광장참이 『위서』와 『북사』에는 기록이 없고 『수경주』에 기록되어 사람들이 이 장성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찬 사서가 반드시 장성 축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²²³

214 李逸友(2001), 앞의 글, 2001

215 『水經注·鮑丘水』[段熙仲 點校·陳橋驛 復校(1989), 『水經注疏』,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卷14 鮑丘水條, 1217~1219쪽.

216 艾沖(1995), 앞의 글, 134~142쪽.

217 『北齊書』 卷4 「文宣紀」 天保四年條, 57쪽, “九月, 契丹犯塞, 壬午, 帝北巡冀·定·幽·安, 仍北討契丹. 冬十月丁酉, 帝至平州, 遂從西道趣長塹.”

218 李文信(1979), 앞의 글, 128~140쪽.

219 李文信(1979), 위의 글, 128~140쪽.

220 項春松(1981),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出版社, 6~20쪽.

221 艾沖(1995), 앞의 글, 134~142쪽.

222 鄭紹宗(2009), 「河北古代長城沿革考略(上)」, 『文物春秋』 3, 30~40쪽.

223 張蔚(2012), 앞의 글, 12~13쪽.

육진 이북의 장성은 동서 양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단은 무천현 오란불량향(烏蘭不浪鄉) 수천촌(水泉村) 북쪽에서 시작하여 달무기(達茂旗), 사왕자기, 찰우중기, 찰우후기(察右後旗)를 거쳐 상도현 이급노이촌(二級淖爾村) 동쪽에 이른다. 동단은 서쪽에서 태복시기(太僕寺旗)와 정람기(正藍旗) 교계의 낙타산(駱駝山)에서 시작하여 난하와 고원현(固原縣)·다룬현(多倫縣) 계선(界線), 풍녕현을 거쳐 만성영향(萬誠永鄉) 오손토로파(烏孫吐魯琪)에 이른다. 동서 양단의 길이는 약 557km이며, 전체는 동서 방향으로 내몽고 고원 남부를 따라 수축되었다.²²⁴

문헌 기록과 실지 조사를 종합하면 북위의 세 장성 가운데 태상 8년 장성과 기상새위는 산구(山區)에 위치하며 주로 돌로 만들었고, 육진 이북 장성은 흙으로 축조한 장성이다. 육진 이북 장성의 성벽은 향토(夯土)로 건축되었고 자연과 인위적인 침식으로 파괴되어 지표에 1m, 너비 3~6m 남아 있다. 금계호는 장체와 호참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떤 장체 외측은凸자로 돌출한 마면이 있다. 북위 태화 연간 축조한 광장참과 금계호의 관계는 밀접하다. 광장참의 정확한 형제(形制)를 확정할 수 없지만, 자면(字面)으로 보면 장참은 곧 장호이고 호구(壕溝) 형식의 향토 장성일 것이며, 모양은 금계호와 유사할 것이다. 금계호도 ‘장참’, ‘호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왕국유(王國維)는 금계호가 북위 장성을 본받았다고 지적하였다.²²⁵ 이는 장성 형제에도 해당한다.²²⁶

224 李逸友(2001), 앞의 글, 1~51쪽.

225 王國維(2003), 『金界壕考』, 『觀堂集林』,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357~368쪽.

226 張蔚(2012), 앞의 글, 13쪽.

2. 북조 장성 연구의 분석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위 시대 장성 연구는 장성 축조 횟수와 위치 등에 집중되었다.

먼저, 북위 시대 건설된 장성의 횟수다. 장민은 명원제 태상 8년(423년)과 태무제 태평진군 7년(446년), 현문제 황흥 연간 등 세 차례에 걸쳐 장성이 축조되었다고 보았다.²²⁷ 반면 곽건중은 명원제 태상 8년(423년)과 효문제 태화 연간 고려의 건의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장성을 축조했다고 보았다.²²⁸ 주대위와 승전동실은 북위 시대 명원제 태상 8년(423년)과 태무제 태평진군 7년(446년) 두 차례에 걸쳐 장성을 축조했다고 보았다.²²⁹

기본적으로 명원제 태상 8년(423년)에 축조된 장성에 대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나머지 장성 축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 먼저 명원제 태상 8년(423년) 장성 위치에 대해 살펴보자.

[태상 8년(423년)] 2월 무진, 장천지남에 장성을 쌓았다. 동쪽의 적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오원에 이르기까지 길이 이천여 리로 늘어났으며, 수비를 위해 수위를 설치하였다.²³⁰

이 사료에서 장성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장천, 적성, 오원이다. 왕국량은 1931년 「중국장성연혁고」에서 적성은 지금의 하북성 적성현, 장천은 지

227 張敏(2003), 앞의 글, 16쪽.

228 郭建中(2006), 앞의 글, 42쪽.

229 朱大渭(2007), 앞의 글, 265~270쪽; 勝畑冬實(1995), 앞의 글, 36~37쪽.

230 『魏書』卷3「太宗紀」泰常八年二月戊辰條, 63쪽.

금의 하북성 양하, 오원은 섬서성 신목이라고 고증하였다.²³¹ 북위 태상 8년(423년) 장성 연구에서 적성이 현재의 하북성 적성현이라고 보였다. 그러나 왕국량의 적성과 오원 비정은 오류다. 장천은 하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천성을 지칭한다.²³² 오원은 전한 오원군의 치소 오원현이며 현재 내몽고 포두시 서북 20여km 떨어진 곳이다.²³³ 상겸은 실지 조사와 사료 분석을 통해 홍화현 토성자고성이 북위의 장천성 고지였음을 고증하였다.²³⁴ 곽건중은 오원이 포두시구 서쪽의 합덕문구 고성 유지로 비정하였다.²³⁵

주대위는 태상 8년(423년)에 축조한 장성은 지금의 하북성 적성현에서 하북성 장북현과 내몽고 호화호특시 무천현을 거쳐 최후로 내몽고 오원현에 이르렀고 전체 길이는 약 750km에 달하였다고 보았다.²³⁶ 곽건중은 북위 장성은 음산 남쪽에 위치한 전국 조 장성을 대체로 계승했다고 보았다.²³⁷

다음으로 태무제 태평진군 7년(446년)에 만들기 시작한 기상새위의 지역적 범위를 살펴보자. ‘기상새위’ 네 글자는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 학설이 제기되었다. 왕국량과 이문신은 평성을 둘러서 황하 동안에 이르며 동서남북 모두 약 천 리라고 주장하였다.²³⁸ 수봉비(壽鵬飛)와 애충은 거용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영구에 이르고 서쪽으로 평형·북루·안문·영무두 등 여러 관을 거쳐 하곡에 이른다고 보았다. 이는 평성 동남 지역에 축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²³⁹

231 王國良(1931), 앞의 책; 郭建中(2006), 앞의 글, 42쪽.

232 郭建中(2006), 앞의 글, 42쪽; 朱大渭(2007), 앞의 글, 267쪽.

233 郭建中(2006), 위의 글, 43쪽; 朱大渭(2007), 위의 글, 266~267쪽.

234 常謙(1998), 앞의 글.

235 郭建中(2006), 위의 글, 43~46쪽.

236 朱大渭(2007), 위의 글 267쪽.

237 郭建中(2006), 위의 글, 50~51쪽.

238 王國良(1982a), 앞의 책; 李文信(1979), 앞의 글.

239 壽鵬飛(1982), 앞의 책; 艾沖(1995), 앞의 글.

주대위는 기상새위의 지리적 범위를 상곡 거용관(현재의 북경시 연경현), 연주 광녕군(현재의 하북성 탁록현), 우연수의 지류(현재의 하북성 장가구시 선화현 남양하), 대녕군(현재의 하북성 회안현), 참합피(현재의 내몽고 양성현 동쪽), 경기 북부와 성락 구경(현재의 내몽고 화랍격이), 황하 하투의 동쪽, 이석진(현재의 산서 이석현, 병주 치소 진양의 서쪽)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보았다.²⁴⁰ 또 은현은 북위의 기상새위는 평성 경기 지구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거용관과 하북성 북부를 거쳐 산서성 북부, 내몽고 남부, 황하에 이르는 명대 외장성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았다. 은현은 ‘상(上)’이 방향을 지칭하는 단어로 북쪽을 지칭하기 때문에 기상은 경기의 북부라고 해석하였다.²⁴¹ 반면 승전동실은 기상새위가 평성의 남쪽에 축조되었다고 보았다.²⁴² 판창독수 역시 승전동실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요컨대 왕국량, 이문신, 주대위, 은현은 기상새위가 평성 북쪽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수봉비, 애충, 승전동실, 판창독수는 평성의 남쪽에 있다고 보았다.

장울은 태화 연간 수축한 장성과 광장참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그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²⁴³ 태화 연간 장성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장울은 다른 학자들과 달리 광장참의 존재에 주목하였다. 장울은 광장참을 장성과 구분하였지만, 광장참의 일부가 금계호에 이용되었고 형제 등이 금계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성 설치 목적을 정리해 보자. 대부분의 연구가 유연 혹은 유송의 침입을 막기 위해 태상 8년 장성을 축조하였다고 보았다.²⁴⁴ 그러나 북

240 朱大渭(2007), 앞의 글, 268~270쪽.

241 殷憲(2012), 앞의 글, 118~119쪽.

242 勝焄冬實(1995), 앞의 글, 37~41쪽.

243 李逸友(2001), 앞의 글.

244 勝焄冬實(1995), 앞의 글, 37~41쪽; 張敏(2003), 앞의 글; 郭建中(2006), 앞의 글; 朱大渭(2007), 앞의 글.

위가 장성을 축조한 이후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연을 공격하였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태무제 424년과 425년에 북위는 두 차례 출병하여 유연을 공격하였고 신가 2년(429년) 태무제는 유연을 공격하여 큰 타격을 가하였다.²⁴⁵ 이는 기존의 설과 달리 장성 축조가 방어만을 고려한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기상새위 축조 목적에 대해 주대위는 북방 유연과 관중 개오 반란을 겨냥하여 하서 지역의 칙록·계호와 관중의 관계를 끊어 개오의 반란 영향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고 보았다.²⁴⁶ 승전동실은 ‘유유-유연-하 혹은 개오’의 포위망 때문에 북변(명원제)와 남변(태무제)에 장성을 축조하여 남북 협공 위험성에 대처하고 수도 방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축조했다고 주장하였다.²⁴⁷ 은현은 기상새위가 안쪽에 위치하여 평성을 방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²⁴⁸

3. 중국 학계의 장성관

최근 중국 학계의 장성 연구는 장성의 지리적 확대, 고구려 등 다른 나라의 장성을 ‘만리장성’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장성 공정(工程)’이라 불릴 정도로 주관적이며 자의적이다. 그러나 북조 시대 고구려의 장성을 자국의 장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 당시 고구려가 북위·북제와 국경선을 맞댄 상태였고, 이 시대에는 장성을 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왕은 북조, 특히 북제 장성의 동쪽 끝을 요녕 장자리촌이라고 보았다.²⁴⁹ 이는 이 장성이 바다로 들

245 郭建中(2006), 위의 글, 47쪽.

246 朱大渭(2007), 위의 글, 268~270쪽.

247 勝畑冬實(1995), 위의 글, 37~41쪽.

248 殷憲(2012), 앞의 글, 116쪽.

여기는 곳이 요녕성 수중현 만가향 장자리촌 부근의 해안임을 보여준다. 이곳은 산해관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해안이다.²⁵⁰

북조 시대 중국학자 혹은 중국 학계의 장성관은 장성의 문헌 고증과 대의 관계 등의 고증에 치우쳤다. 일부 학자들이 현지 조사, 혹은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장성의 위치를 고증하였다.²⁵¹ 문헌 기록과 현지 조사를 종합하면 북위의 세 장성 가운데 태상 8년 장성과 기상새위는 산구에 위치하며 주로 돌로 만들었고, 육진 이북 장성은 흙으로 축조하였다. 태화 연간에 축조되었다는 육진 이북 장성의 장체는 향토로 건축되었고 자연과 인위적인 침식으로 파괴되어 지표에 1m, 너비는 3~6m 남아 있다.²⁵² 이 고고 답사의 결과를 보면 북위 시대 장성은 돌이나 흙으로 쌓은 긴 성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학자들은 긴 성벽만을 장성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학자들의 장성관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북위 효문제 태화 연간에 만든 광장참과 북제 무성제 천통 원년(565년) 북제의 북변에 쌓은 방어물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유하(大榆河)는 또 동남쪽으로 협곡을 나가서, 안주(安州)의 구어양군(舊漁陽郡) 활염현(滑鹽縣) 남쪽을 지나 왼쪽으로 현의 북계수(北溪水)와 합한다. 수는 현 북쪽의 광장참 남쪽으로 나가는데, 태화 연간에 이곳을 파서 북

249 高旺(1991b), 앞의 책.

250 尙珩(2012), 앞의 글, 52쪽.

251 李逸友(1964), 「烏拉特前旗哈德門溝口漢代城堡」, 『內蒙古文物資料選輯』, 內蒙古人民出版社; 劉金柱(1985), 앞의 책; 康群(1990), 앞의 글; 高旺(1991b), 위의 책; 李逸友(2001), 앞의 글; 艾沖(2007a), 앞의 글; 艾沖(2009), 앞의 글.

252 張蔚(2012), 앞의 글, 13쪽.

적(北狄)을 막았다.²⁵³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수경주』가 쓰인 북위 후기에는 안주 어양군 활염현 북쪽에 광장참이 있었다. 이 광장참은 효문제 태화 연간에 굴착하였으며, 북적, 즉 유연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애충의 고증에 따르면 이 광장참은 현재의 풍녕·난평현에 있었다.²⁵⁴ 이문신에 따르면, 광장참은 서쪽으로 육진 장성에 접하고 대체로 현재의 독석구 북쪽에서 난하원 일대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아마도 난하를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⁵⁵ 한편 애충은 광장참이 서쪽으로 독석에서 시작하여 요녕 경내에서 ‘적남 장성’²⁵⁶으로 이용되었고 동쪽으로 요수 서안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²⁵⁷ 위의 인용문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광장참은 땅을 파서 만든 방어 시설이었다. 장울은 이 참호도 장성으로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북제 무성제 천통 원년(565년) 축조한 방어 시설을 살펴보자. 이는 『북제서』 권17 「곡률금전부선전(斛律金傳附羨傳)」에 보인다.

곡률선은 북로가 여러 차례 변경을 침범하자 마땅히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퇴수에서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산의 굴곡 2천여 리를 따라 그 사이 200리 가운데 험요한 곳이 있으면 산을 깎아 성을

253 『水經注·鮑丘水』 卷14 鮑丘水條, 1219쪽, “大榆河又東南出峽, 徑安州舊漁陽郡之滑鹽縣南, 左合縣之北溪水。水出縣北廣長塹南, 太和中, 掘此以防北狄。”

254 艾沖(1995), 앞의 글, 134~142쪽.

255 李文信(1979), 앞의 글, 128~140쪽.

256 項春松(1981), 앞의 글, 6~20쪽.

257 艾沖(1995), 위의 글, 134~142쪽.

쌓거나 골짜기를 막아 장을 설치하였다. 모두 수라 50여 소를 두었다.²⁵⁸

행대복야(行臺僕射) 유주자사 곡률선은 고퇴수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지역에 장과 수라를 설치하였다. 위 인용문을 보면 험한 산세를 이용하여 2천여 리 모두에 성과 장 등 방어 시설을 쌓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험한 지세를 이용하고 빈틈에 성이나 장 등 방어 시설을 쌓았던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유금주,²⁵⁹ 주대위,²⁶⁰ 상형²⁶¹ 등은 이를 장성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주대위는 이 방어 시설을 북제의 일곱 번째 장성이라고 보았다.²⁶² 북위와 북제의 다른 장성은 단순히 장성을 쌓았다는 기록만 있는 데 비하여 곡률선이 만든 방어 시설은 비교적 구체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중국학자의 장성관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북조를 연구하는 중국학자들은 명대 장성처럼 하나로 이어진 성벽만을 장성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천연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고 중간에 성·장·수 등을 설치한 방어 요새도 장성으로 인식하였다.

요컨대 북조 장성 연구자들은 성벽뿐만 아니라 천연의 험한 산세에 점점이 박혀 있는 성·장·수나 긴 참호도 장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 시설이 고구려 등 우리의 역사 무대와 관련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장성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에서 제외되었다.

258 『北齊書』卷17「斛律金傳附羨傳」, 227쪽, “羨以北虜屢犯邊, 須備不虞, 自庫堆戍東拒於海, 隨山屈曲二千餘里, 其間二百里中凡有險要, 或斬山築城, 或斷谷起障, 並置立戍邏五十餘所.”

259 劉金柱(1985), 앞의 책.

260 朱大渭(2007), 앞의 글, 276쪽.

261 尙珩(2012), 앞의 글, 52쪽.

262 朱大渭(2007), 위의 글, 276쪽.

II. 북위 시대 장성 축조의 배경

1. 유연의 방어와 선제 공격

북위는 명원제 태상 8년(423년)에 처음으로 장성을 쌓았다.

[1] (태상 8년) 이월 무진일, 장천지남에 장성을 쌓았다. (동쪽의) 적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오원에 이르기까지 길이 이천여 리로 늘어났으며, 수비를 위해 수위를 설치하였다.²⁶³

[2] (태상) 8년 봄에, 장성을 쌓았다. 오원으로부터 이천여 리 떨어진 곳(까지 이어졌으며), 수줄을 두어 연연[柔然]을 막도록 하였다.²⁶⁴

[1]은 『위서』 권3 「태종기」 태상 팔년 이월 무진조 기사이며, [2]는 『위서』 권105 「천상지」 기사다. [2]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태상 8년 장성 축조의 목적은 유연 방어에 있었다.

다음으로 태무제 태평진군 7년(446년) 유월 병술일 기사를 보자.

(태평진군 7년 유월) 병술, 사·유·정·기 4주의 10만 인을 징발하여 기상새위를 쌓았다. 상곡으로부터 서쪽으로 하[水]에 이르기까지 너비와 길이 모

263 『魏書』卷3「太宗紀」泰常八年二月戊辰條, 63쪽, “二月戊辰, 築長城於長川之南, 起自赤城, 西至五原, 延袤二千餘里, 備置戍衛.”

264 『魏書』卷103之3「天象志」1 星變上, 2400쪽, “八年春, 築長城, 距五原二千餘里, 置守卒, 以備蠕蠕.”

두 천 리였다.²⁶⁵

위의 기사에서 기상새위를 축조했음을 기록하였다. 또 장민의 고중에 따르면 현문제 황흥 연간에도 장성을 축조하였다. 이는 『통전·변방전』에 실린 조웅의 상소와 현문제의 대응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²⁶⁶ 비록 『위서』 「조웅전」에는 기록되지 않고 본기에도 단편적인 구절조차 없지만 고려

265 『魏書』卷4下「世祖紀」太平眞君七年條, 101쪽, “丙戌, 發司·幽·定·冀四州十萬人築畿上塞圍, 起上谷, 西至于河, 廣袤皆千里.”

266 『通典』卷196「邊防」12 蠕蠕條, 5379~5381쪽, “獻文帝皇興中, 其主予成(吐賀眞之子)犯塞, 征南將軍刁雍上表曰: 臣聞北狄悍愚, 同於禽獸, 所長者野戰, 所短者攻城, 若以所短, 奪其所長, 則雖衆不能成患, 雖來不能內逼, 又狄散居野澤, 隨逐水草, 戰則與家產并至, 奔則與畜牧俱逃, 不資資糧而飲食足, 是以古人伐北方, 攘其侵掠而已, 歷代爲邊患者, 良由倏忽无常故也, 六鎮勢分, 倍衆不斗, 互相圍逼, 難以制之, 昔周命南仲, 城彼朔方, 趙靈·秦始, 長城是筑, 漢之孝武, 又踵其事, 此四代之君, 皆帝王之雄杰, 所以皆同此役者, 非智術之不長, 兵衆之不足, 乃防狄之要事, 其理宜然故也, 易稱‘天險, 不可升; 地險, 山川丘陵, 王公設險, 以守其國, 長城之謂歟! 今宜依故於六鎮之北筑長城, 以御北虜, 雖有暫勞之勤, 乃有永逸之益, 卽於要害, 往往開門, 造小城於其側, 因地卻敵, 多置弓弩, 狄來有城可守, 有兵可捍, 既不攻城, 野掠無獲, 草盡則走, 終必懲艾, 宜發近州武勇四萬人, 及京師二萬人, 合六萬人, 爲武士, 於苑內立征北大將軍府, 選忠勇有志幹者以充其選, 下置官屬, 分爲三軍, 二萬人專習弓射, 二萬人專習刀楯, 二萬人專習騎禦, 修立戰場, 十日一習, 采諸葛亮八陣之法, 爲平地御寇之方, 使其解兵家之宜, 識旌旗之節, 器械精堅, 必堪御寇, 使將有定兵, 兵有常主, 上下相信, 晝夜如一, 七月發六部兵萬人, 各備戎作之具, 敕台北諸屯, 隨近作米供送六鎮, 至八月, 征北部率所鎮與六鎮之兵, 直至磧南, 揚威漠北, 狄若來拒, 與之決戰, 若其不來, 然後分散其地, 以筑長城, 計六鎮東西不過千里, (六鎮并在今馬邑·云中·單于界, 后魏宣帝正始中, 尙書源思禮撫巡北蕃, 以跋野置鎮, 居南, 與六鎮不齊, 更立三戍, 亦在馬邑等郡界。)若一夫一月之功當三步之地, 三百人三里, 三千人三十里, 三萬人三百里, 千里之地, 強弱相兼, 計十萬人一月必就, 運糧一月, 不足爲多, 人懷永逸, 勞而无怨, 計筑長城其利有五: 罷游防之苦, 其利一也; 北部放牧, 無抄掠之患, 其利二也; 登城觀敵, 以逸待勞, 其利三也; 省境防之虞, 息無時之備, 其利四也; 歲常遲運, 永得不匱, 其利五也, 帝從之, 邊境獲其利, 后帝又北討, 大敗之, 斬首五萬級, 降者萬餘, 戎馬器械不可稱計, 追奔逐北旬有九日, 往返六千餘里, 改女水曰武川.”

가 태화 연간 상서 중서감으로 승진하여 변방의 일을 상표했을 때 육진의 북쪽에 장성을 수축하지는 건의가 『위서』 「고려전」에 보인다.²⁶⁷ 이는 『통전·변방전』의 기록과 같다. 또 『자치통감』은 『위서』의 상표 거의 대부분을 실었다. 이는 사마광이 고려가 올린 표의 내용을 사실로 간주했음을 시사한다. 장민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5세기 후반 북위가 대대적으로 장성을 쌓았다고 보

267 『魏書』卷54 「高閻傳」, 1200~1202쪽, “閻後上表曰: 臣聞爲國之道, 其要有五: 一曰文德, 二曰武功, 三曰法度, 四曰防固, 五曰刑賞, 故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荒狡放命, 則播武功以威之; 民未知戰, 則制法度以齊之; 暴敵輕侵, 則設防固以禦之; 臨事制勝, 則明刑賞以勸之. 用能關國寧方, 征伐四克. 北狄悍愚, 同於禽獸, 所長者野戰, 所短者攻城. 若以狄之所短, 奪其所長, 則雖衆不能成患, 雖來不能內逼. 又狄散居野澤, 隨逐水草, 戰則與家產並至, 奔則與畜牧俱逃, 不齎資糧而飲食足. 是以古人伐北方, 攘其侵掠而已, 歷代爲邊患者, 良以倏忽無常故也. 六鎮勢分, 倍衆不鬥, 互相圍逼, 難以制之. 昔周命南仲, 城彼朔方; 趙靈·秦始, 長城是築; 漢之孝武, 踵其前事. 此四代之君, 皆帝王之雄傑, 所以同此役者, 非智術之不長, 兵衆之不足, 乃防狄之要事, 其理宜然故也. 易稱天險不可升, 地險山川丘陵, 王公設險以守其國, 長城之謂歟? 今宜依故於六鎮之北築長城, 以禦北虜, 雖有暫勞之勤, 乃有永逸之益, 如其一成, 惠及百世. 卽於要害, 往往開門, 造小城於其側, 因地却敵, 多有弓弩, 狄來有城可守, 其兵可捍. 既不攻城, 野掠無獲, 草盡則走, 終必懲艾. 宜發近州武勇四萬人及京師二萬人, 合六萬人爲武士, 於苑內立征北大將軍府, 選忠勇有志幹者以充其選. 下置官屬, 分爲三軍, 二萬人專習弓射, 二萬人專習戈盾, 二萬人專習騎稍, 修立戰場, 十日一習, 採諸葛亮八陣之法, 爲平地禦寇之方, 使其解兵革之宜, 識旌旗之節, 器械精堅, 必堪禦寇. 使將有定兵, 兵有常主, 上下相信, 晝夜如一. 七月發六部兵六萬人, 各備戎作之具, 敕臺北諸屯倉庫, 隨近作米, 俱送北鎮. 至八月, 征北部率所領與六鎮之兵, 直至磧南, 揚威漠北. 狄若來拒, 與之決戰, 若其不來, 然後散分其地, 以築長城. 計六鎮東西不過千里, 若一夫一月之功, 當三步之地, 三百人三里, 三千人三十里, 三萬人三百里, 則千里之地, 強弱相兼, 計十萬人一月必就, 運糧一月不足爲多. 人懷永逸, 勞而無怨. 計築長城, 其利有五: 罷遊防之苦, 其利一也; 北部放牧, 無抄掠之患, 其利二也; 登城觀敵, 以逸待勞, 其利三也; 省境防之虞, 息無時之備, 其利四也; 歲常遊運, 永得不匱, 其利五也. 又任將之道, 特須委信, 遣之以禮, 恕之以情, 關外之事, 有利輒決, 赦其小過, 要其大功, 足其兵力, 資其給用, 君臣相體, 若身之使臂, 然後忠勇可立, 制勝可果. 是以忠臣盡其心, 征將竭其力, 雖三敗而踰榮, 雖三背而彌寵. 詔曰: 「覽表, 具卿安邊之策, 比當與卿面論一二.」”

았다.²⁶⁸

또 이일우는 「중국북방장성고술」에서 태화 8년 장성은 음산 이북에 수축하였다고 증명하였다.²⁶⁹ 육진 이북의 장성은 동서 양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단은 무천현 오란불량향 수천촌 북쪽에서 시작하여 달무기, 사왕자기, 찰우중기, 찰우후기(察右後旗)를 거쳐 상도현 이급노이촌 동쪽에 이른다. 동단은 서쪽에서 태복사기와 정람기 교계의 낙타산에서 시작하여 난하와 고원현·다륜현 계선, 풍녕현을 거쳐 만성영향 오손토로파에 이른다. 동서 양단의 길이는 약 557km이며, 전체는 동서 방향으로 내몽고 고원 남부를 따라 수축되었다.²⁷⁰

이밖에 장성은 아니지만 광장참의 존재가 주목된다. 『수경주·포구수』에 따르면, 광장참은 현재의 풍녕·난평현에 있었다.²⁷¹ 또 『북제서』에 북제 문선제가 천보 4년(553년) 평주에서 서도를 따라 장참으로 향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⁷² 이 기사와 장참 소재지는 위에서 기록한 곳과 대체로 동일한 지역이다.²⁷³ 광장참은 서쪽으로 육진 장성에 접하고 대체로 현재의 독석구 북쪽

268 張敏(2003), 앞의 글, 16쪽.

269 李逸友(2001), 앞의 글; 郭建中(2006), 앞의 글, 42쪽.

270 李逸友(2001), 위의 글, 1~51쪽.

271 『水經注·鮑丘水』 卷14 鮑丘水條, 1217~1219쪽, “鮑丘水從塞外來, 南過漁陽縣東, 鮑丘水出禦夷北塞中, 南流徑九莊嶺東, 俗謂之大榆河. 又南徑鎮東南九十裏西密雲戍西, 又南, 左合道人溪水, 水出北川, 南流徑孔山西, 又曆密雲戍東, 左合孟廣水, 水出下, 甚層峻, 峨峨冠衆山之表. 其水西徑孔山南, 上有洞穴開明, 故土俗以孔山流稱. 水又西南至密雲戍東, 西注道人水, 亂流西南徑密雲戍城南, 右會大榆河, 有東密雲, 故是城言西矣. 大榆河又東南流, 白楊泉水注之, 北發白楊溪望離, 右注大榆河. 又東南, 龍芻溪水自坎注之, 大榆河又東南出峽, 徑安州舊漁陽郡之滑鹽縣南, 左合縣之北溪水, 水出縣北廣長塹南. 太和中, 掘此以防北狄.”

272 『北齊書』 卷4 「文宣紀」 天保四年條, 57쪽, “九月, 契丹犯塞. 壬午, 帝北巡冀·定·幽·安, 仍北討契丹. 冬十月丁酉, 帝至平州, 遂從西道趣長塹.”

273 李文信(1979), 앞의 글, 128~140쪽.

에서 난하원 일대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아마도 난하를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⁷⁴ 애충은 광장참이 서쪽으로 독석에서 시작하여 요녕 경내에서 ‘적남 장성’²⁷⁵으로 이용되었고 동쪽으로 요수 서안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²⁷⁶ 두 주장은 크게 어긋나지만 두 설 모두 서쪽 기점을 독석구 북쪽으로 본 점은 일치한다. 광장참은 유연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²⁷⁷

여러 기사와 학자들의 기록을 종합하면 북위는 모두 3~4회에 걸쳐 장성을 쌓았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장성 축조 횟수는 다르다. 곽건중은 명원제 태상 8년(423년)과 고려의 건의로 육진 일대에 세운 장성²⁷⁸ 2회로 보았다.²⁷⁹ 호옥춘(胡玉春)과 승전동실도 북위의 장성 축조 횟수를 2회로 보았지만, 명원제 태상 8년 장성 축조 기사와 함께 태무제 태평진군 7년(446년)의 기상새위 축조 기록을 장성 축조로 보아 곽건중의 견해와 다르다.²⁸⁰ 장민은 명원제 태상 8년(423년)과 태무제 태평진군 7년(446년), 현문제 황흥 연간 세 차례 장성을 축조했다고 보았다.²⁸¹

『위서』 「천상지」에서 태상 8년(423년)의 장성 설치 목적을 유연의 방어²⁸²라

274李文信(1979), 위의 글, 128~140쪽.

275項春松(1981), 앞의 글, 6~20쪽.

276艾冲(1995), 앞의 글, 134~142쪽.

277張蔚(2012), 앞의 글, 12~13쪽.

278『魏書』卷54「高閭傳」, 1201쪽, “今宜依故於六鎮之北築長城, 以禦北虜, 雖有暫勞之勤, 乃有永逸之益, 如其一成, 惠及百世.”

279郭建中(2006), 앞의 글, 42쪽.

280勝畑冬實(1995), 앞의 글, 36~37쪽; 朱大渭(2007), 앞의 글, 268~270쪽; 胡玉春(2012), 「從柔然汗國與北魏的關係看北魏北邊防務的興衰」,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33-4, 73쪽.

281張敏(2003), 앞의 글, 16쪽.

282『魏書』卷103之3「天象志」1 星變上, 2400쪽, “八年春, 築長城, 距五原二千餘里, 置守卒, 以備蠕蠕.”

고 명기한 것처럼 북위의 장성 축조 목적은 유연의 남침 방어였다. 장금룡(張金龍)은 장성 축조 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장성 축조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즉 명원제가 태상 7년(422년) 시월 남순할 때 유연의 침략을 막기 위해 태자 탁발도에게 육군을 이끌고 새상으로 출진하도록 하였다.²⁸³ 다음 해 정월 유연이 북위의 변경을 범하자, 북위는 바로 이월 장천의 남쪽에 장성을 쌓았다고 보았다.²⁸⁴ 즉 태상 7~8년(422~423년) 유연의 남침 및 그 조짐 때문에 장성을 쌓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장성 축조를 북위의 군사·외교 전략 변화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장민에 따르면 장성의 축조는 북위의 전략 중심이 새 북에서 중원으로 옮겨지고 북쪽에 대해 수세, 남쪽에 대해 공세를 취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²⁸⁵ 이는 명원제가 주로 국내의 농상(農桑) 장려와 목축업 발전에 힘썼고 대규모의 대외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반면 『위서』 「연연전」의 기록에 따르면 유연한국은 전기(402~487년)에 북위와 10차례 전쟁을 벌였다. 따라서 명원제 태상 8년(423년)의 장성 축조는 유연에 대한 수세를 반영한다.²⁸⁶

물론 유연의 남침 위협이 명원제 시기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하덕장(何德章)에 따르면 음산 일대에 있던 선비의 제부가 평성 주변으로 옮긴 이유는 유연의 위협 때문이었다고 한다.²⁸⁷ 바꾸어 말하면 유연의 위협 때문에 북위 황제들이 경기의 북쪽 경계 바깥 지역부터 음산까지의 지역으로 순행하지 못했

283 『魏書』 卷3 「太宗紀」 泰常七年條, 62쪽, “十有一月, 泰平王親統六軍出鎮塞上, 安定王彌與北新公安同居守.”

284 張金龍(2002), 「北魏前期的北邊防務及其與柔然的征戰關係」, 『北魏政治與制度論稿』, 蘭州: 甘肅教育出版社(原載: 張金龍(1989), 『西北史地』 4), 178쪽.

285 張敏(2003), 위의 글, 16쪽.

286 胡玉春(2012), 위의 글, 73쪽.

287 何德章(1993), 「陰山却霜」之俗解,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12, 103쪽.

음을 뜻한다. 또 『위서』 권24 「최현백전부승연전(崔玄伯傳附僧淵傳)」에 따르면, 도무제가 천흥 5년(402년) 칠월 후진을 공격하자 유연의 사륜이 남침하여 참합 피로 들어가 남쪽으로 시산과 선무 북택까지 진격하였다.²⁸⁸ 도무제는 유연의 공격을 걱정하여 회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유연은 남진하여 새를 침범하여 북위를 습격하였기 때문에 북위의 근심거리였다.²⁸⁹ 유연은 명원제 영흥 원년(409년) 십이월 도무제의 사망과 북위 내란을 틈타 대거 남침하였다. 장손승이 다음 해(410년) 정월 북벌했으나 오월에 유연의 군대에 우천에서 포위당했다. 명원제가 대군을 이끌고 가자 겨우 포위가 풀렸다.²⁹⁰ 이처럼 동서남북으로 적국에 포위된 북위 초부터 강적 유연의 남침에 대비해야 했을 것이다. 이처럼 유연의 위협은 북위 황제의 순행 지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도무제 천사(天賜) 연간부터 명원제 시기까지 북순 지역은 평성 기내의 북부와 평성의 동북과 서북이었고, 예외적으로 천사 3년(406년)과 명원제 태상 2년(417년), 태상 4년(419년)에만 대막(大漠)으로 순행하였다. 이처럼 도무제와 명원제의 순행 지역이 경기에 국한된 것은 유연의 위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⁹¹

그러나 북위가 유연을 막기 위해 장성을 축조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린 것은 아니었다. 명원제와 태무제 시기에 북위는 유연에 여러 차례 공세를 취해 큰 성과를 얻었다. 424년과 425년에 북위는 두 차례 출병하여 유연을 공격하였고 신가 2년(429년) 태무제는 유연을 공격하여 큰 타격을 가하였

288 『魏書』卷24「崔玄伯傳附僧淵傳」, 2291쪽, “天興五年, 社崙聞太祖征姚興, 遂犯塞, 入參合陂, 南至豺山及善無北澤.”

289 張敏(2003), 앞의 글, 13쪽.

290 『魏書』卷3「太宗紀」永興二年條, 50쪽, “二年春正月甲寅朔, 詔南平公長孫嵩等北伐蠕蠕. …… 夏五月, 長孫嵩等自大漠還, 蠕蠕追圍之於牛川. 壬申, 帝北伐, 蠕蠕聞而遁走, 車駕還幸參合陂.”

291 何德章(1993), 앞의 글, 105쪽.

다.²⁹² 태무제는 시광 3년(426년)부터 북위의 숙적 하를 공격하였으며, 다음 해인 시광 4년(427년) 하의 수도 통만성(統萬城)을 점령하였다. 신가(神麤) 4년(431년) 하의 잔여 세력을 이끌던 혁련창(赫連昌)이 토욕혼에게 사로잡히고 북위에 넘겨짐으로써 하는 망하였다. 이후 태무제는 태연(太延) 2년(436년) 북연을, 태연 5년(439년) 북량을 멸하여 북위는 화북을 통일하였다. 또 태무제는 시광 원년(424년)부터 신가 2년(429년)까지 유연에 공세를 취하면서 음산의 남쪽과 북쪽 지역이 북위의 세력 범위에 들어왔다. 이후 음산 이북에 장기 거주하며 유연을 견제하였다.²⁹³

특히 태무제는 신가 2년(429년) 유연을 대규모 공격하였다. 이 북정으로 유연을 멸망시키지 못했으나 유연이 받은 타격은 컸다.²⁹⁴ 따라서 유연은 이후 북위에 위협이 되지 못했다. 이외에 유연가한 오제는 사신을 보내 북위에 조공하여 화친하였다. 이후 십 년 사이에 북위는 북쪽을 돌아볼 필요가 없었고,

292 『魏書』卷103「蠕蠕傳」, 2293쪽, “二年四月, 世祖練兵于南郊, 將襲大檀, 公卿大臣皆不願行, 術士張淵·徐辯以天文說止世祖, 世祖從崔浩計而行, 會江南使還, 稱劉義隆欲犯河南, 謂行人曰: “汝疾還告魏主, 歸我河南地, 即當罷兵, 不然盡我將士之力.” 世祖聞而大笑, 告公卿曰: “龜鼈小豎, 自救不暇, 何能爲也. 就使能來, 若不先滅蠕蠕, 便是坐待寇至, 腹背受敵, 非上策也. 吾行決矣.” 於是車駕出東道向黑山, 平陽王長孫翰從西道向大娥山, 同會賊庭, 五月, 次于沙漠南, 舍輜重輕襲之, 至栗水, 大檀衆西奔, 弟匹黎先典東落, 將赴大檀, 遇翰軍, 翰縱騎擊之, 殺其大人數百, 大檀聞之震怖, 將其族黨, 焚燒廬舍, 絕跡西走, 莫知所至, 於是國落四散, 竄伏山谷, 畜產布野, 無人收視, 世祖緣栗水西行, 過漠將賓憲故壘, 六月, 車駕次于兔園水, 去平城三千七百里, 分軍搜討, 東至瀚海, 西接張掖水, 北渡燕然山, 東西五千餘里, 南北三千里, 高車諸部殺大檀種類, 前後歸降三十餘萬, 俘獲首虜及戎馬百餘萬匹, 八月, 世祖聞東部高車屯已尼陂, 人畜甚衆, 去官軍千餘里, 遂遣左僕射安原等往討之, 暨已尼陂, 高車諸部望軍降者數十萬.”

293 何德章(1993), 앞의 글, 107~109쪽.

294 『魏書』卷35「崔浩傳」, 818쪽, “及軍入其境, 蠕蠕先不設備, 民畜布野, 驚怖四奔, 莫相收攝, 於是分軍搜討, 東西五千里, 南北三千里, 凡所俘虜及獲畜產車廬, 彌漫山澤, 蓋數百萬, 高車殺蠕蠕種類, 歸降者三十餘萬落, 虜遂散亂矣.”

〈표 1〉 북위 전기 유연과의 관계 표²⁹⁸

	유연의 침입	북위의 공격	유연의 건사·조공	유연의 투항
도무제(368~409년)	2	3		1
명원제(409~424년)	3	4		1
태무제(424~452년)	4	13	4	2
합계(386~452년)	9	20	4	4

드디어 혁련하·북연·서진·북량 제국을 멸망시켜 북방을 통일하였다.²⁹⁵ 이후 태무제는 태평진군 4년(443년)과 5년(444년), 10년(449년) 세 차례에 걸쳐 대거 유연을 친정하여 막북까지 공격하였다. 이 중 태평진군 10년(449년) 마지막 친정²⁹⁶은 유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²⁹⁷

이처럼 태무제 시기 유연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는 위의 표에서 확인된다.

〈표 1〉을 보면 수세였다가 명원제조차 유연을 4차례 공격하였던 반면 세 차례 남침을 당했다. 태무제 시기에는 북위의 유연 공격이 유연의 남침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무제가 즉위한(424년) 후 북위의 대외 정책은 적극적인 전쟁으로 바뀌었다. 이때 북방 지역에는 하·북량·북연·서진이 남았다. 태무제는 이들을 정복함과 동시에 유연에 군사적 타격을

295 張敏(2003), 앞의 글, 14쪽.

296 『魏書』卷103「蠕蠕傳」, 2295쪽, “九月, 車駕北伐, 高涼王那出東道, 略陽 王羯兒出中道, 與諸軍期會於地弗池. 吐賀眞悉國精銳, 軍資甚盛, 圍那數十重, 那掘長圍堅守, 相持數日. 吐賀眞數挑戰, 輒不利, 以那衆少而固, 疑大軍將至, 解圍夜遁. 那引軍 追之, 九日九夜, 吐賀眞益懼, 棄輜重, 踰穹隆嶺遠遁. 那收其輜重, 引軍還, 與車駕會於廣澤. 略陽王羯兒盡收其人戶畜產百餘萬. 自是吐賀眞遂單弱, 遠竄, 邊疆息警矣. 太安四年, 車駕北征, 騎十萬, 車十五萬兩, 旌旗千里, 遂渡大漠. 吐賀眞遠遁, 其莫弗烏朱駕顏 率衆數千落來降, 乃刊石記功而還. 世祖征伐之後, 意存休息, 蠕蠕亦怖威北竄, 不敢復南.”

297 張敏(2003), 앞의 글, 14쪽.

298 張金龍(2002), 앞의 글, 187쪽.

주었다. 이 시기 북위의 대유연 전쟁의 주요 목적은 유연에 대한 경제적 약탈에 있었다. 『위서』 「연연전」을 보면 유연한국 전기에 북위는 9차례 유연으로 출병하여 4회는 돌아왔고 5회는 주요 출격이었으며 유연에서 약탈한 가축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유연한국 전기에 “마축정비(馬畜丁肥)”라는 표현처럼 목축업이 발달하였다. 『위서』 권25 「장손송전(長孫嵩傳)」에 따르면 태무제 시기 출병하여 혁련발발(赫連勃勃)과 유연 가운데 누구를 공격할지 논의하는 가운데 북위 군신들은 “유연을 공격하면 그들의 가축을 거두어들여 나라를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及則收其畜產, 足以富國).”²⁹⁹ 하며 먼저 유연의 공격을 주장하였다. 이는 유연의 목축이 북위 입장에서 흡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429년 북위가 유연으로 출병하여 용마(戎馬) 백여 만 필을 얻었고 449년 출병하여 유연의 가축 백여 만 등을 얻었다.³⁰⁰

앞에서 장성 축조 기사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장성 축조의 목적을 살펴보았다. 북위는 유연의 남침을 막기 위해 장성을 축조하였다. 그러나 장성을 축조했다고 해서 북위가 유연과의 군사적 관계에서 일방적인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니었다. 명원제 다음에 즉위한 태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연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장성 축조의 목적이 단순히 유연의 남침 방어에만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2절과 3절에서는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자.

2. 호인의 통제와 도망 방지

북위는 피정복민을 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시켰다. 도무제는 등국 3~5

299 『魏書』 卷25 「長孫嵩傳」, 644쪽, “及則收其畜產, 足以富國.”

300 胡玉春(2012), 앞의 글, 73~74쪽.

년(388~340년)까지 해마다 대규모 고차(高車) 정토(征討)를 감행하여 이를 사민(徙民)시켰고 고차의 사람과 가축을 노획하였다. 또 고차 제부가 내속해 오면 그들은 운중에서 상건하(桑乾河) 상류 지역에 두었다.³⁰¹ 특히 도무제는 후연(後燕)의 수도 중산성(中山城)을 함락한 후 천흥 원년(398년) 산동 6주의 민(民)·이(吏)와 도하[徒何, 모용부(慕容部) 치하 유목민, 고려(高句麗), 잡이(雜夷) 36만, 백공기교(百工伎巧) 10여만 구(口)를 경사로 옮겼다.³⁰² 『위서』 「식화지(食貨志)」에 따르면 경도(京都), 즉 평성으로 옮긴 이들에게 경우(耕牛)를 나눠 주고 계구수전(計口受田)을 실시하였다.³⁰³ 이후 북위는 오호 제국을 멸망시킬 때마다 피정복민을 평성을 포함한 경기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는 ‘행대(行臺) 혹은 진 설치 → 사민 → 토착 세력의 포섭 → 세역(稅役) 징수 체제로의 편입 → 황제의 순행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의 표방’의 5단계 과정의 일부였다.³⁰⁴

북위 전기의 경기는 대군·선무·음관·참함을 동서남북의 경계로 하는 ‘기내 지전’과 상곡군도관(上谷軍都關), 황하, 중산 애문새(中山隘門塞), 오원의 안쪽 지역인 전복의 중층 구조로 구성된다.³⁰⁶ 그리고 경기 지역은 지형상 대군·상

301 前田正名(1979), 『平城の歴史地理學的研究』, 東京: 風間書房, 70~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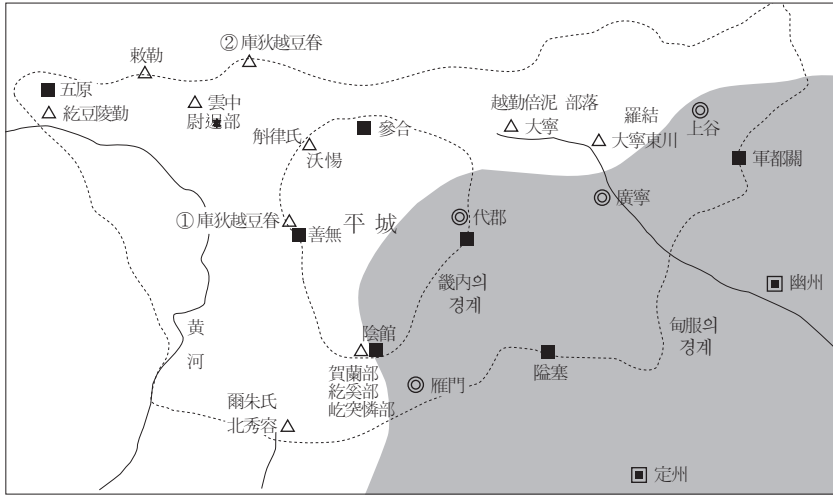
302 『魏書』 卷2 「太祖紀」 天興元年春正月條, 31~32쪽, “辛酉, 車駕發自中山, 至于望都堯山, 徙山東六州民吏及徒何·高麗雜夷三十六萬, 百工伎巧十萬餘口, 以充京師, 車駕次于恒山之陽.”

303 『魏書』 卷110 「食貨志」, 2849~2850쪽, “既定中山, 分徙吏民及徒何種人·工伎巧十萬餘家以充京都, 各給耕牛, 計口授田.”

304 崔珍烈(2005), 「北魏의 地域支配方式과 그 性格-華北지역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2, 118~128쪽.

305 崔珍烈(2002), 「北魏의 華北支配와 그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문학석사학위논문, 8·6쪽. <지도 1> 北魏 초기 京畿지역 模式圖.

306 嚴耕望(1963), 『中國地方行政制度史』 上編中卷, 臺北: 商務印書館, 420~422쪽; 周一良(1998a), 「北朝의 民族問題與民族政策」, 『周一良集』, 第壹卷 魏晉南北朝史論,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200쪽; 陳連慶(1999), 『魏書·食貨志』校注,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32~233쪽; 勝畑冬實(1995), 앞의 글, 34쪽; 川本芳昭(1998),



〈지도 12〉 북위 초기 경기 지역 모식도³⁰⁵

【범례】 1. 각 기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주 ◎ 군 ■ 기내와 전복의 사방 끝지점 △ 분토정거(分土定居)된 지역

2. 짙게 칠해진 지역은 농경·군현 편제 지역이다.

곡·광녕·안문 4군의 동·남부 군현 지역(대개 농경 지역)과 팔부대부(八部大夫)·영민추장(領民酋長)·호군(護軍)이 통치하는 서북부 지역(대개 유목 지역)으로 구분된다.³⁰⁷ 전전정명(前田正名)은 태무제 시기 활발한 대외 원정으로 통만성·용성(龍城)·고장(姑臧)·송의 포로 5만여 가를 근기(近畿)로 이주시켜 태무제 시기 평성은 50여만 내외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⁰⁸ 북위는 이러한 경기로 천사(遷徙)한 대규모 인구를 어떻게 관리했을까?

〈지도 12〉는 북위 전기 경기 지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지도 12〉에서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東京: 汲古書院, 127~128쪽.

307 嚴耕望(1963), 위의 책, 420~425쪽; 堀敏一(1975), 「北魏における均田制の成立」, 『均田制の研究』, 岩波書店, 110쪽.

308 前田正名(1979), 앞의 책, 89쪽.

알 수 있듯이 북위 초기 경기는 “평성 → 기내 → 전북”의 동심원 구조였다. 경기 지역의 인적 배치는 평성 주변에는 피정복지로부터 북위에 필요한 한인, 기술자 등이 사민되었고, 기내의 전과 교전의 경계 상에는 선비·흉노·고차 등이 거주하는 형태였다.³⁰⁹ 여기에서 전북의 경계 상에 위치하는 칙륙이 주목된다. 전북 북쪽의 육진에는 동부·서부·북부 칙륙이 분포하였기 때문에³¹⁰ 육진민의 상당수는 칙륙, 즉 고차였을 것이다. 이들의 지리적 위치나 육진민의 내원을 보면³¹¹ 이들은 주로 북위와 유연 사이에서 유연의 침입을 막는 방패막 역할을 했을 것이다.³¹²

경기의 북부와 서부는 대개 유목 혹은 목축 지역이었다. 기내 지역은 팔부 대부가 통치하고, 교전 지역은 대개 영민추장 등이 한정된 목지 안에서 부락 조직을 유지하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³¹³ 도무제부터 4대 문성제(文成帝)

309 勝畑冬實(1995), 앞의 글, 34~36쪽.

310 白翠琴(1996), 『魏晉南北朝民族史』, 成都: 四川民族出版社, 363~364쪽.

311 일반적으로 육진민은 선비인, 유연인, 한인 강종자제(強宗子弟)와 양가자, 유형 온 범 죄자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楊耀坤(1978), 「北魏末年北鎮暴動分析」, 『歷史研究』 11, 63~66쪽; 谷川道雄(1998), 『(增補)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209~210쪽; 濱口重國(1966), 「正光四年の交に於ける後魏の兵制に就いて」,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20~135쪽·142~146쪽 참조. 그러나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사민 정책이 흔히 취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강종자제나 양가자는 북위에 반항하여 육진 지역으로 천사했을 것이다. 따라서 유형자처럼 격리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고차가 거칠고 사납다는 이유로 ‘부락 해산’ 조치에서 제외되어 부락 조직을 온존할 수 있었다는 『魏書』 高車傳의 기록은(『魏書』 卷103 高車傳, 2309쪽, “太祖時 分散諸部 唯高車以類粗獷 不任使役 故得別爲部落.”) 고차가 일반 선비에 비해 다루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북위는 이러한 고차나 귀부한 유연·범죄자·강종자제 등을 전북의 북쪽 외곽에 배치하여 기내나 전북을 유연으로부터 방어·보호하는 임무를 맡겼을 것이다(이상 정사류와 『資治通鑑』은 北京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의거함).

312 崔珍烈(2005), 앞의 글, 5~6쪽.

313 周一良(1998b), 「領民酋長與六州都督」, 『周一良集』 第壹卷, 魏晉南北朝史論,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224~238쪽; 高敏(2000), 「北魏의 兵戶制及其演變」, 『魏晉南

까지 북위 황제들은 유목·목축 지역을 끊임없이 순행하며 수렵하고 다른 호족 부락을 토벌하여 목민과 말·소·양 등 가축류를 확보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였다.³¹⁴ 명원제는 영흥 4년(412년) 서북 지역 호족 부락을 순행하며 증백(縉帛) 등을 거수(渠帥) 등에게 사여하였다. 이는 북위 황제가 비단 등의 생산과 수취를 독점하고 일부를 호족들에게 나눠 주면서 호족들을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³¹⁵ 북위에 복속된 호인 집단은 말과 소 등을 바치고³¹⁶ 주로 전쟁에 동원되었다.³¹⁷

평성 동부와 남부의 군현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도무제는 후연 정복 후 중산에서 천사한 이들에게 경우를 지급하고 계구수전을 행하였다.³¹⁸ 이후 경기 지방의 농업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³¹⁹ 경기 지역의 성읍이 평성과 중원 지구의 교통간선, 즉 평성-계(薊, 유주),

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301~302쪽; 古賀昭岑(1980), 「北魏の部族解散について」, 『東方學』 59, 68~70쪽; 勝畑冬實(1995), 앞의 글, 34~36쪽; 川本芳昭(1998), 앞의 글, 120~140쪽.

314 佐藤智水(1984), 「北魏皇帝の行幸について」, 『岡山大・文・紀要』 5 通卷45, 41~44쪽

315 유목 군주의 군주권과 물자의 획득 및 재분배의 관계에 관해서는 朴漢濟(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150~162쪽; 金浩東·서울大東洋史學研究室 編(1989),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 II, 知識産業社, 277~278쪽; 金洪東·東洋史學會 編(1993),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東亞史上의 王權』, 도서출판 한울, 137~152쪽 참조.

316 『魏書』 卷3 「太宗紀」 天賜五年春正月乙酉條, 52쪽, “詔諸州六十戶出戎馬一匹.”; 『魏書』 卷3 太宗紀 泰常六年二月條, 61쪽, “調民二十戶輸戎馬一匹, 大牛一頭.”; 『魏書』 卷3 太宗紀 泰常六年三月乙亥條, 61쪽, “制六部民 羊滿百口輸戎馬一匹.”

317 崔珍烈(2005), 앞의 글, 6쪽.

318 『魏書』 卷113 「食貨志」, 2849~2850쪽, “既定中山 分徙吏民及徙何種人, 工伎巧十萬餘家以充京都 各給耕牛 計口授田.”

319 堀敏一은 사민은 사군 지역에 정착했으며 남부의 왕령지(王領地=사군)에서 농업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堀敏一(1975), 앞의 책, 104·110쪽).

평성-중산, 평성-태원 축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³²⁰ 그 주변에 농경지가 존재했을 것이다. 북위는 대국(代國) 시대 이래 모사(謀士)로 활약한 한인 허겸(許謙)과 허겸의 아들들을 경기 동부·남부 군현 지역인 안문·광녕·상곡군의 태수로 임명하였다.³²¹

위에서 북위 전기 경기의 주민 구성과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았다. <지도 12>에서 주목할 점은 경기 북부에 월근배니, 칙륙, 사적부(庫狄部), 질라부(叱羅部), 곡률부(斛律部), 흘두릉(紇豆陵) 등 각종 유목민이 거주하였다. 도무제는 ‘분토정지(分土定居), 불청천사(不聽遷徙)’ 정책을 취하여 이들에게 방목 구역을 지정하여 거주지로 정하고 그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지만 유목 생활은 보장하였다.³²² 그런데 이들이 위치한 경기 북부는 태상 8년(423년)에 쌓은 장성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태상 8년(423년) 장성의 지점 가운데 장천은 하천이 아니라 북위 육진 동진 서쪽에 위치한 장천성을 지칭한다.³²³ 상점은 실지 조사와 사료 분석을 통해 흥화현 토성자고성이 북위의 장천성 고지였음을 고증하였다.³²⁴ 또 오원은 한대 설치된 군현명이며, 현재 내몽고자치구 포두시구 서쪽의 합덕문구 고성유지로 지정된다.³²⁵ 선행연구의 지명 고증과 담기양(譚其驥)이 주편한 『중국역사지도집(中國歷史地圖集)』과 비교하면³²⁶ 적성과 장천은 북

320 李凭(2000), 『道武帝時期的大移民與雁北的開發』,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344~345쪽.

321 崔珍烈(2005), 앞의 글, 5~9쪽.

322 勝畑冬實(1994), 「拓跋珪の「部族解散」と初期北魏政權の性格」, 『早稻田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哲學·史學篇』 別冊 20集, 144~145쪽.

323 郭建中(2006), 앞의 글, 42~43쪽.

324 常謙(1998), 앞의 글.

325 郭建中(2006), 앞의 글, 43쪽.

326 『中國歷史地圖集』[譚其驥 主編(1982), 北京: 地圖出版社] 第四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期, 50~53쪽.

위 후기 육진과 연주·항주·삭주 사이의 경계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장성이 훗날 육진과 경기(연주·항주·삭주)의 경계와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장성이 경기 지방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기 북부에 위치한 각종 유목민들이 유연의 약탈로 끌려가거나 가축을 빼앗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각종 유목민의 보호와 함께 장성은 유목민의 도망과 감시의 기능도 겸하였다. 북위 시대는 아니지만 전한 원제 시대의 관료 후응(侯應)은 장성의 필요성을 10가지 언급하면서 유목민의 도망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일찍부터 중국은 관문과 교량을 세워 제후를 제어하였습니다. 신하의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새요를 세우고 둔수를 배치한 것은 흉노만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속국의 항민(降民)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본래 과거 흉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를 생각해 도망칠까 두렵습니다. 선우(單于)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³²⁷

위의 인용문에서 필자의 추론처럼 전한 시대 장성 축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속국에 편제된 흉노 항인(降人)들의 도망 방지였다. 전한 시대보다 평성 일대에 많은 유목민과 피정복민들이 거주한 상황에서 이들의 도주 문제는 북위로서는 전한 시대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 실제 유목민 집단의 도망은 북위 초부터 보인다. 예컨대 도무제 등국 7년(392년)에 서부 읍려대인(泣黎大人)이

327 『漢書』 卷94下「匈奴傳」下, 3804쪽, “自中國尚建關梁以制諸侯, 所以絕臣下之覬欲也. 設塞徼, 置屯戍, 非獨爲匈奴而已, 亦爲諸屬國降民, 本故匈奴之人, 恐其思舊逃亡, 四也.”

반주(叛走)하자 남부대인(南部大人) 장손숭이 대파한 기록이 있다.³²⁸ 이어 북위에 복속된 유연이 도주하다가 장손숭과 장손비(長孫肥)의 토벌군에 격파되어 항복하였다.³²⁹ 그러나 등국 9년(394년) 갈다한(曷多汗)과 사륜(社崙)이 북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막북으로 도주하였고 사륜이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다.³³⁰

이러한 유목민 집단의 이탈과 반란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천흥 원년에는 이석호(離石胡)와 서하호(西河胡)가 내사(內徙)를 원하지 않아 반란을 일으켰다.³³¹ 천사 6년(409년) 칠월에는 모용지속(慕容支屬) 100여 가(家)가 도망가려고 모의하다가 적발되어 삼백여 명이 살해되었다.³³² 태무제 신가 3년(430년)에는 운중과 하서(河西) 칙록 천여 가가 도망가다가 상서령(尙書令) 유결(劉潔)에게 토

- 328 『魏書』卷2「太祖紀」登國七年三月甲子條, 25쪽, “西部泣黎大人茂鮮叛走, 遣南部大人長孫嵩追討, 大破之.”
- 329 『魏書』卷103「蠕蠕傳」, 2289~2290쪽, “蠕蠕移部遁走, 追之, 及於大磧南林山下, 大破之, 虜其半部, 匹候跋及部帥屋擊各收餘落遁走, 遣長孫嵩及長孫肥追之, 渡磧, 嵩至平望川, 大破屋擊, 禽之, 斬以徇, 肥至涿邪山, 及匹候跋, 跋學落請降, 獲縑紇提子曷多汗及曷多汗 兄詰歸之·社崙·斛律等并宗黨數百人, 分配諸部, 縑紇提西遁, 將歸衛辰, 太祖追之, 至跋那山, 縑紇提復降, 太祖撫慰如舊.”
- 330 『魏書』卷103「蠕蠕傳」, 2290쪽, “[登國]九年, 曷多汗與社崙率部衆棄其父西走, 長孫肥輕騎追之, 至上郡跋那山, 斬曷多汗, 盡殪其衆, 社崙與數百人奔匹候跋, 匹候跋處之南鄙, 去其庭五百里, 令其子四人監之. 既而社崙率其私屬執匹候跋四子而叛, 襲匹候跋, 諸子收餘衆, 亡依高車斛律部, 社崙兇狡 有權變, 月餘, 乃釋匹候跋, 歸其諸子, 欲聚而讎之. 密舉兵襲匹候跋, 殺匹候跋, 子啓拔·吳頡等十五人歸于太祖, 社崙既殺匹候跋, 懼王師討之, 乃掠五原以西諸部, 北度大漠, 太祖以拔·頡爲安遠將軍·平棘侯. 社崙與姚興和親, 太祖遣材官將軍和突襲黜弗·素古延諸部, 社崙遣騎救素古延, 突逆擊破之.”
- 331 『魏書』卷2「太祖紀」天興元年三月條, 32쪽, “三月, 離石胡帥呼延鐵·西河胡帥張崇等聚黨數千人叛, 詔安遠將軍庾岳討平之.”; 『魏書』卷28「庾業延傳」, 684쪽, “離石胡帥呼延鐵·西河胡帥張崇等不樂內徙, 聚黨反叛, 岳率騎三千, 討破之, 斬鐵擒崇, 搜山窮討, 散其餘黨.”
- 332 『魏書』卷2「太祖紀」天賜六年秋七月條, 44쪽, “秋七月, 慕容支屬百餘家, 謀欲外奔, 發覺, 伏誅, 死者三百餘人.”

별되었다.³³³ 『위서』 권28 「유결전(劉潔傳)」에 따르면 유결은 칙록 3만여 락(落)을 하서, 즉 오르도스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을 주청하여 관철시켰다. 이에 놀란 칙록은 자신들을 하서에 가둬 두어 장차 자신들을 죽이려는 의도임을 알고 북쪽으로 달아났으나 식량이 부족하여 굶어 죽었다.³³⁴ 같은 해 4월 칙록 만여 가가 반주(叛走)하자 상서 봉철(封鐵)이 추격하여 토멸하였다.³³⁵ 하의 망주 혁련창은 진왕에 봉해지는 등 후한 대우를 받았으나, 연화 3년(434년) 도망가서 재기를 도모하였다가 발각되어 살해되고 그의 형제 역시 모두 주살되었다.³³⁶ 태무제 태평진군 5년(444년) 유월 북부민이 입의장군(立義將軍) 형양공(衡陽公) 막고(莫孤)를 죽이고 5천여 락을 이끌고 북쪽으로 달아났다. 북위군은 이들을 추격하여 막남에서 거수를 죽이고 나머지 무리는 기·상·정 3주로 옮겨 영호(營戶)로 삼았다.³³⁷ 효문제 연흥(延興) 2년(471년) 시월 정해일에 옥야·통만(統萬) 2진

- 333 『魏書』 卷4上 「世祖紀」上 神䴥三年三月癸卯條, 75쪽, “癸卯, 雲中·河西敕勒千餘家叛, 尙書令劉潔追滅之.”
- 334 『魏書』 卷28 「劉潔傳」, 687쪽, “世祖破蠕蠕大檀于雲中, 潔言於世祖曰: ‘大檀恃衆, 雖破膽奔北, 恐不懼往敗, 將復送死, 請收田訖, 復一大舉, 東西並進, 爲二道討之.’ 世祖然其言, 後大議征討, 潔言宜先平 馮跋, 世祖不從, 敕勒新民以將吏侵奪, 咸出怨言, 期牛馬飽草, 當赴漠北, 潔與左僕射安原奏, 欲及河冰未解, 徙之河西, 冰解之後, 不得北遁, 世祖曰: ‘不然, 此等習俗, 放散日久, 有似園中之鹿, 急則衝突, 緩之則定, 吾自處之有道, 不煩徙也.’ 潔等固執, 乃聽分徙 三萬餘落於河西, 西至白鹽池, 新民驚駭, 皆曰: ‘圈我於河西之中, 是將殺我也’, 欲西走涼州, 潔與侍中古弼屯五原河北, 左僕射安原屯悅拔城北, 備之, 旣而新民數千騎北走, 潔追討之, 走者糧絕, 相枕而死.”
- 335 『魏書』 卷4上 「世祖紀」上 神䴥三年夏四月甲子條, 75쪽, “夏四月甲子, 行幸雲中, 敕勒萬餘落叛走, 詔尙書封鐵追討滅之.”
- 336 『魏書』 卷4上 「世祖紀」上 延和三年閏月條, 83~84쪽, “閏月甲戌 秦王赫連昌叛走丙子 河西候將格殺之, 驗其謀反 羣弟皆伏誅.”
- 337 『魏書』 卷4下 「世祖紀」下 太平眞君五年六月條, 97쪽, “六月, 北部民殺立義將軍·衡陽公莫孤, 率五千餘落北走, 追擊于漠南, 殺其渠帥, 餘徙居冀·相·定三州爲營戶.”

의 칙령이 반란을 일으키자 태위(太尉) 농서왕(隴西王) 원하(源賀)가 추격하여 포한(枹罕)에서 공격하여 삼만여 급(級)을 참수하고 나머지는 기·정·상 3주로 옮겨 영호로 삼았다.³³⁸ 연흥 2년(471년)에는 동부칙령이 유연의 남침에 호응하여 유연으로 달아났다. 이때 태상황제 헌문제가 직접 추격했으나 사로잡거나 격파하는 데 실패하였다.³³⁹ 다음 해에도 유연이 남침하자 유현진의 2부 칙령이 반란하여 유연에 호응하였다.³⁴⁰

위에서 도무제부터 효문제까지 북위 치하의 칙령과 각종 유목민들이 도망갔던 기사를 살펴보았다. 유현진 등 장성 이북의 유목민에게는 해당이 없지만, 장성 이남의 유목민들에게 장성은 이들이 막남 혹은 막북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장성 사이에 있는 수위와 수졸들은 이들의 도망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³⁴¹

3. 평성 일대의 목축 경제 보호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성과 경기 북쪽과 서쪽은 유목민이 거주하며 목축

338 『魏書』卷7上「高祖紀」上 延興元年十月丁亥條, 135쪽, “冬十月丁亥 沃野·統萬二鎮敕勒叛, 詔太尉·隴西王源賀追擊, 至枹罕, 滅之, 斬首三萬餘級; 徙其遺迸於冀·定·相三州爲營戶.”

339 『魏書』卷7上「高祖紀」上 延興二年條, 136쪽, “蠕蠕犯塞, 太上皇帝次于北郊, 詔諸將討之, 虜遁走, 其別帥阿大千率千餘落來降, 東部敕勒叛奔蠕蠕, 太上皇帝追之, 至石碛, 不及而還.”

340 『魏書』卷7上「高祖紀」上 延興三年十二月壬子條, 140쪽, “壬子, 蠕蠕犯邊, 柔玄鎮二部敕勒叛應之.”

341 하의 망주 혁련창이 도망갈 때 하서 후장(候將)이 혁련창을 살해하였다(『魏書』卷4上「世祖紀」上 延和三年閏月條, 83~84쪽, “閏月甲戌, 秦王赫連昌叛走, 丙子, 河西候將格殺之.”). 이 기사에서 북위의 수비망이 엄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서뿐만 아니라 장성과 그 연변에도 해당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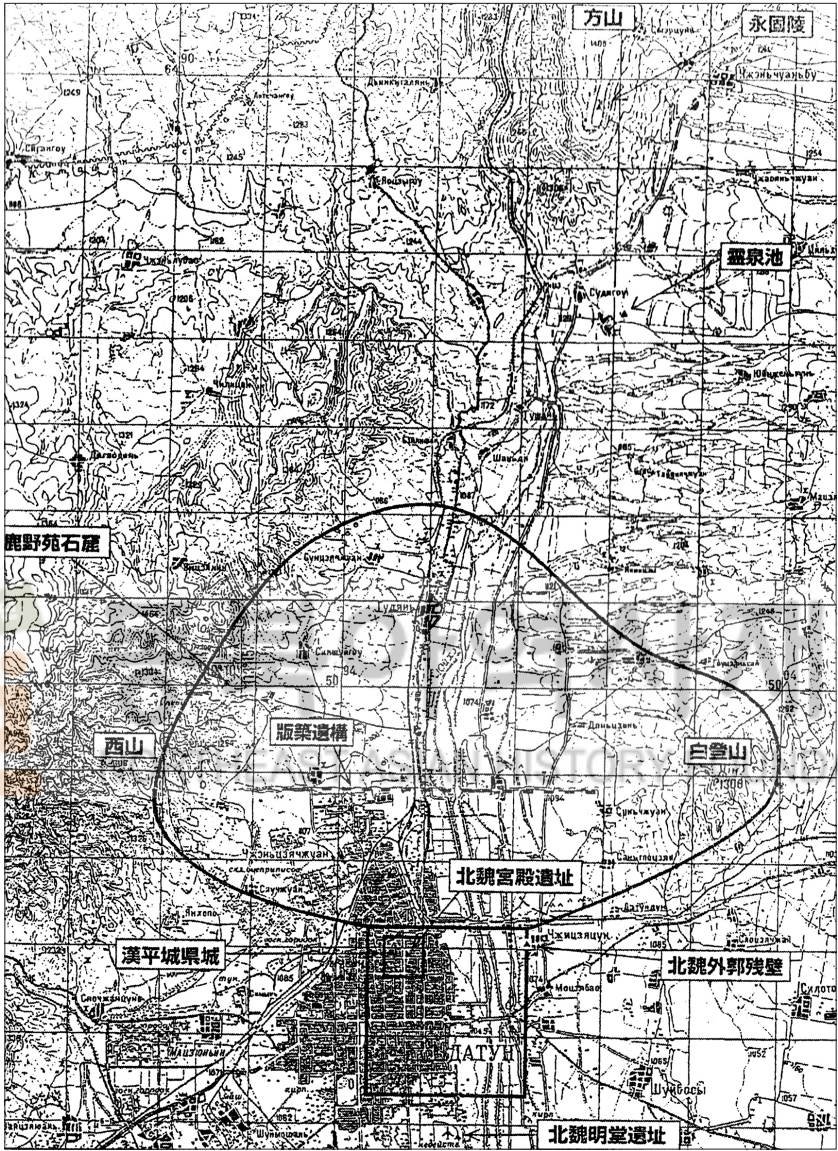
이 주요 산업이었다. 목축의 중요성은 북위 전기 관명(官名) 가운데 목축과 관련된 관명이 다양하게 존재했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북위에서는 전통적으로 황제의 거마(車馬)와 가축을 관장한 태복경(太僕卿)이라는 중국 고유의 관직 이외에도 가부상서(駕部尙書), 목조상서(牧曹尙書), 도목(都牧)·가부이조급사중(駕部二曹給事中), 용목조주사중산(龍牧曹奏事中散), 용목조(龍牧曹), 목관중랑장(牧官中郎將), 가부교위(駕部校尉), 타우도위(駝牛都尉), 좌목령(左牧令), 전마령(典馬令)·도목령(都牧令)·도목주(都牧主) 등 목축을 관장하는 관직이 많았다.³⁴² 또 근시관(近侍官)인 내행장(內行長)과 내시장(內侍長) 역시 목축 업무에 종사하였다.³⁴³ 그러나 순행 중의 사냥 기사는 빈출하지만 목축과 관련된 기사는 적다. 『위서』 본기에서 목축과 관련된 기사는 대개 녹원(鹿苑) 등 원유(苑囿)와 목장, 혹은 목지의 조성에 관한 기록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도무제는 천흥 2년(399년) 고차 원정에 나서 고차 잡종 30여 부(部)를 격파하였고, 위왕(衛王) 의(儀)는 7부를 격파하였다. 도무제는 회군하며 우천 남쪽에서 대규모 사냥을 벌이고 고차기(高車騎)에게 700여 리에 걸쳐 에워싸게 하여 짐승들을 몰고 평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고차인들을 동원하여 남쪽으로 대음(臺陰), 북쪽으로 장성, 동쪽으로 백등(白登), 서쪽으로 서산 안쪽 지역에 녹원을 만들었다.³⁴⁴ 최근 녹원의 위치와 기능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342 朱大渭(1998), 「北魏의國營畜牧業經濟」, 『六朝史論』, 中華書局, 349~450쪽.

343 崔珍烈(2003), 「北魏의 種族政策」, 『魏晉隋唐史研究』 10, 67~68쪽.

344 『魏書』 卷2 「太祖紀」 天興二年(399)二月條, 34쪽, “二月丁亥朔, 諸軍同會, 破高車雜種三十餘部, 獲七萬餘口, 馬三十餘萬匹, 牛羊百四十餘萬, 驃騎大將軍, 衛王儀督三萬騎別從西北絕漠千餘里, 破其遺迸七部, 獲二萬餘口, 馬五萬餘匹, 牛羊二十餘萬頭, 高車二十餘萬乘, 并服玩諸物. 還次牛川及薄山, 並刻石記功, 班賜從臣各有差. 庚戌, 征虜將軍庾岳破張超於勃海, 超走平原, 爲其黨所殺. 以所獲高車衆起鹿苑, 南因臺陰, 北距長城, 東包白登, 屬之西山, 廣輪數十里, 鑿渠引武川水注之苑中, 疏爲三溝, 分流宮城內外. 又穿鴻雁池.”; 『魏書』 卷103 「高車傳」, 2308



(지도 13) 북위 녹원 추정도³⁴⁵

<지도 13>의 둥근 실선 안의 부분이 현재 녹원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지명으로는 산서성 대동시 조장성(操場城) 북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뇌공산(雷公山) 동쪽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마포산(馬鋪山)을 포함하며 북쪽으로는 장성에 이르는 지역이라고 한다. 녹원은 종교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북위 황제와 신하들의 사냥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가을에 가축을 방목하거나 가축들이 겨울을 보내는 월동지(越冬地)의 기능도 담당하였다.³⁴⁶ 즉 녹원은 평성의 북쪽, 즉 도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목장이었다.³⁴⁷

명원제는 태상 4년 십이월 계해일(420년 1월 8일) 운중에 순행하여 옥고산(辱孤山)에서 야생마를 포획하였다. 이어서 오르도스의 설림산(薛林山)에서 사냥하였고,³⁴⁸ 다음 해 정월 갑술일(420년 1월 19일)에 옥두성(屋竇城)에서 장사들에게 잔치를 열고 이 사냥감을 하사한 후 기해일(2월 13일)에 환궁하였다.³⁴⁹ 이 기사에서 태상 5년(420년) 옥두성에서 하사한 금수는 설림산에서 포획한 사냥물 이외에 전년도 옥고산에서 포획한 야생마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 야생마 가운데

쪽, “後徙於鹿渾海西北百餘里, 部落强大, 常與蠕蠕爲敵, 亦每侵盜于國家. 太祖親襲之, 大破其諸部. 後太祖復度弱洛水, 西行至鹿渾海, 停駕簡輕騎, 西北行百餘里, 襲破之, 虜獲生口馬牛羊二十餘萬. 復討其餘種於狼山, 大破之. 車駕巡幸, 分命諸將爲東西二道, 太祖親勒六軍從中道, 自駁鞮水西北, 徇略其部, 諸軍同時雲合, 破其雜種三十餘落. 衛王儀別督將從西北絕漠千餘里, 復破其遺迸七部. 於是高車大懼, 諸部震駭. 太祖自牛川南引, 大校獵, 以高車衛圍, 騎徒遮列, 周七百餘里, 聚雜獸於其中. 因驅至平城, 卽以高車衆起鹿苑, 南因臺陰, 北距長城, 東包白登, 屬之西山.”

345 佐川英治(2007), 「遊牧と農耕の間 - 北魏平城의 鹿苑의 機能とその 變遷」, 『岡山大學文學部紀要』 47, 51쪽.

346 佐川英治(2007), 앞의 글, 50~65쪽.

347 최진열(2011),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24쪽.

348 『魏書』 卷3 「太宗紀」 泰常四年(419)冬十有二月癸亥條, 60쪽, “西巡, 至雲中, 踰白道, 北獵野馬於辱孤山. 至于黃河, 從君子津西渡, 大狩於薛林山.”

349 『魏書』 卷3 「太宗紀」 泰常五年(420)春正月丙戌朔條, 60쪽, “自薛林東還, 至于屋竇城, 饗勞將士, 大酺二日, 班禽獸以賜之. 己亥, 車駕還宮.”

명원제의 몫도 있었을 것이며 명원제는 이를 끌고 환궁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영 목장인 기내 목장에서 각종 전쟁에서 약탈한 가축들을 길렀으므로³⁵⁰ 이 들 야생마는 기내 목장이나 각종 원유³⁵¹에서 사육되었을 것이다.³⁵²

태무제 시기에는 야마원(野馬苑)과 ‘막남 목장’을 조성하였다. 태무제는 태연 2년(426년) 십일월 기유일(11월 25일) 고양(柵楊)에 행행하여 야생마를 운중으로 몰아 야마원을 설치하였다.³⁵³ 야생마를 포획한 점은 명원제 태상 4~5년(419~420년) 기사와 비슷하지만, 명원제와 달리 태무제는 야생마를 사육하는 원유를 만들었다. 또, 태무제는 신가 2년(429년) 유연을 친정하여 유연과 고차를 격파하고 유연 30여만 인과 고차 수십만 인을 사로잡았다.³⁵⁴ 그리고 이들을 막남, 구체

350 朱大渭(1998), 앞의 글, 341쪽.

351 평성 일대에는 평성 녹원·야마원·호권·류남궁 원유·북원·서원·동원, 산북원 등 원유가 있었다. 黎虎(1999), 「北魏前期的狩獵經濟」, 『魏晉南北朝史論』, 北京: 學苑出版社, 150~153쪽(原載: 黎虎(1992), 『歷史研究』 1).

352 최진열(2011), 앞의 글, 124~125쪽.

353 『魏書』卷4上「世祖紀」上 太延二年(426)冬十一月己酉條, 87쪽, “行幸柵楊, 驪野馬於雲中, 置野馬苑, 閏月壬子, 車駕還宮.”

354 『魏書』卷4上「世祖紀」上 神䴥二年(429)條, 75쪽, “[夏四月]庚寅, 車駕北伐, 以太尉·北平王長孫高, 衛尉·廣陵公樓伏連留守京師, 從東道與長孫翰等期會於賊庭. 五月丁未, 次于沙漠, 舍輜重, 輕騎兼馬, 至栗水, 蠕蠕震怖, 焚燒廬舍, 絕跡西走. 事具蠕蠕傳. 八月, 帝以東部高車屯巴尼陂, 詔左僕射安原率騎萬餘討之, 事具蠕蠕傳.”; 『魏書』卷103「蠕蠕傳」, 2293쪽, “[神䴥]二年四月, 世祖練兵于南郊, 將襲大檀. 公卿大臣皆不願行, 術士張淵·徐辯以天文說止世祖, 世祖從崔浩計而行. 會江南使還, 稱劉義隆欲犯河南, 謂行人曰: ‘汝疾還告魏主, 歸我河南地, 即當罷兵, 不然盡我將士之力.’ 世祖聞而大笑, 告公卿曰: ‘龜鼈小堅, 自救不暇, 何能爲也. 就使能來, 若不先滅蠕蠕 便是坐待寇至, 腹背受敵, 非上策也, 吾行決矣.’ 於是車駕出東道向黑山, 平陽王長孫翰從西道向大娥山, 同會賊庭. 五月, 次于沙漠南, 舍輜重輕襲之, 至栗水, 大檀衆西奔. 弟匹黎先典東落, 將赴大檀, 遇翰軍 翰縱騎擊之, 殺其大人數百. 大檀聞之震怖, 將其族黨, 焚燒廬舍, 絕跡西走, 莫知所至. 於是國落四散, 竄伏山谷, 畜產布野, 無人收視. 世祖緣栗水西行, 過漢將竇憲故壘. 六月, 車駕次于兔園水, 去平城三千七百里. 分軍搜討, 東至瀚海, 西接張掖水, 北渡燕然山, 東西五千餘里, 南北三千里. 高車諸部殺大檀種類, 前後歸降三十餘萬,

적으로 동쪽의 유원(濡源)에서 서쪽으로 오원과 음산에 이르는 3천 리에 분산·거주하게 하고 장손한·안원(安原)·유결·고필(古弼) 등을 보내 진무(鎭撫)하게 하였다.³⁵⁵ 이를 ‘막남 목장’이라 칭하기도 한다.³⁵⁶ 당시 상황을 보면 울타리 등이 있는 목장이라기보다 목지로 칭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³⁵⁷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무제와 태무제 시기 친정 혹은 순행 중 포획한 짐승으로 녹원이나 아마원 같은 원유를 만들거나 생포한 유연인과 고차인을 막남의 목지에 거주시켜 목축에 종사하게 하였다. 명원제의 경우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포획한 야생마를 평성 일대의 목지나 원유에서 기르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북위 황제가 목축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³⁵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위 전기 대표적인 목장, 혹은 목지는 기내 목장·막남 목장·하서 목장의 3대 목장이다.³⁵⁹ 이밖에 경기 일대와 병주·사주·분주(汾州)·하주(夏州) 등지에도 소규모 목장, 혹은 목지가 있었다. 경기 일대에는 평성 녹원, 아마원, 호권(虎圈), 류남궁(漚南宮) 원유, 북원(北苑), 서원(西苑), 동원(東苑), 산북원(山北苑) 등의 원유가 있어 각종 짐승을 길렀다.³⁶¹ 이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고증한 목장 혹은 목지를 지도로 표시하면 위와 같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위 황제들이 음산과 하서에 순행한 후 팔월 말·구월

俘獲首虜及戎馬百餘萬匹。八月，世祖聞東部高車屯已尼陂，人畜甚衆，去官軍千餘里，遂遣左僕射安原等往討之，暨已尼陂，高車諸部望軍降者數十萬。”

355 『魏書』卷4上「世祖紀」上 神龜二年(429)冬十月條, 75쪽, “振旅凱旋于京師, 告於宗廟, 列置新民於漠南, 東至濡源, 西暨五原·陰山, 竟三千里, 詔司徒平陽王長孫翰·尚書令劉潔, 左僕射安原·侍中古弼鎭撫之。”

356 朱大渭(1998), 앞의 글, 344~3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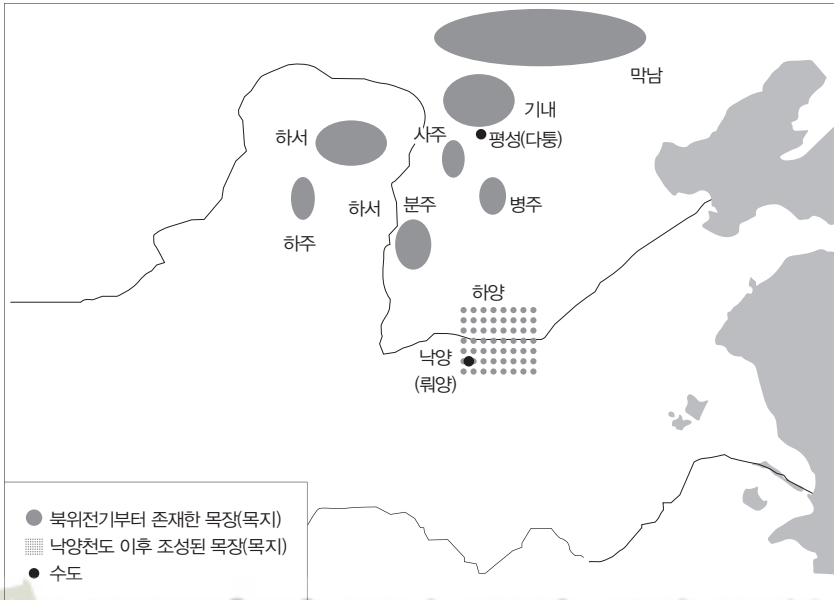
357 최진열(2011), 앞의 글, 125~126쪽.

358 최진열(2011), 위의 글, 122~126쪽.

359 朱大渭(1998), 위의 글, 342쪽.

360 최진열(2011), 앞의 글, 127쪽. <지도 19> 주요 목장(목지) 분포도.

361 黎虎(1999), 앞의 글, 150~153쪽.



(지도 14) 북위 목장과 목지³⁶⁰

초에 동부 고차 등이 바친 가축을 몰고 평성으로 돌아와 이를 녹원에 모았다고 한다. 물론 녹원에는 황제 일행이 데려온 가축 이외에도 각지의 유목·목축 지역에서 기른 가축들도 모여들었다. 이후 황제는 백등산(白登山)에 올라 가축의 수를 헤아리고 그해 가축의 번식과 수렵의 성과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녹원에서 조상신과 천신에게 감사하고 가축들이 무사히 겨울을 넘기도록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는 선비의 추제(秋祭)를 연상시키며, 흉노의 팔월용사(八月龍祠)와 거란의 춘추(春秋) 제산의(祭山儀), 몽골의 춘추 제례, 만주인들의 제대신의(祭大神儀) 등 아시아 유목민 혹은 수렵 채취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례다.³⁶² 또 십익간(什翼犍, 소성제(昭成帝))의 부하인 연봉(燕

362 江上波夫(1948), 「匈奴の祭祀」, 『ユーラシア古代北方文化-匈奴文化論考』, 東

鳳)이 부견(苻堅)에게 한 말을 살펴보자.

운중천(雲中川)은 (동서로) 동산에서 서하에 이르는 2백 리이며, (남북으로) 북산에서 남산에 이르는 1백여 리입니다. 매년 맹추(孟秋)에 늘 말들을 대거 모아놓으니 대략 (운중)천을 채울 정도로 많습니다.³⁶³

위에서 서술된 십익건 시기에 운중에서 초가을에 유목민들의 말을 모아 놓았던 광경은 북위 황제가 백등산 위에 올라가서 말들의 수를 점검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즉 후자는 ‘서기(序紀) 시대’부터 지속된 행사라는 것이다.³⁶⁴

북위 후기의 예이지만, 효문제 태화 연간 평성 남쪽인 사주 북수용(北秀容)의 계호(契胡) 추장 이주신흥(尙朱新興)은 소·양·낙타·말을 색깔별로 무리를 짓고 골짜기 숫자로 셀 정도로 많은 가축을 소유하였다. 이주신흥은 전쟁 때마다 사마(私馬)와 자량(資糧)을 바쳤고 제 왕공과 대신들에게도 명마를 바쳤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처자와 함께 천택(川澤)에서 가축 수를 세고 수렵하는 생활을 즐겼다.³⁶⁵ 『북제서』와 『북사』에 따르면 이주신흥의 아들 이주영(尙朱榮)이 소유한 말이 12개 골짜기에 들어차고 색깔별로 무리를 지을 정도로 많았

京：全國書房，237~240쪽.

363 『魏書』卷24「燕鳳傳」，610쪽，“[燕]鳳曰：「雲中川自東山至西河二百里，北山至南山百有餘里，每歲孟秋，馬常大集，略爲滿川。……。」”

364 佐川英治(2007)，앞의 글，58~59쪽.

365 『魏書』卷74「尙朱榮傳」，1644쪽，“父[尙朱]新興，太和中，繼爲酋長。家世豪擅，財貨豐贏，曾行馬羣，見一白蛇，頭有兩角，遊於馬前。[尙朱]新興異之，謂曰‘爾若有神，令我畜牧蕃息。’自是之後，日覺滋盛，牛羊駝馬，色別爲羣，谷量而已。朝廷每有征討，輒獻私馬，兼備資糧，助裨軍用。高祖嘉之，除右將軍·光祿大夫，及遷洛後，特聽冬朝京師，夏歸部落。每入朝，諸王公朝貴競以珍玩遺之，[尙朱]新興亦報以名馬。轉散騎常侍·平北將軍·秀容第一領民酋長。[尙朱]新興每春秋二時，恒與妻子閱畜牧於川澤，射獵自娛。”

다.³⁶⁶ 효명제 때 항주자사였던 원심(元深)은 사가의 말 1천 필 가운데 1백 필을 사취(詐取)하였다.³⁶⁷ 이 기사를 보면 북위 말 항주에 천 필 이상 말을 사육하는 호인(유목민)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³⁶⁸ 또 누소(婁昭)의 조(祖) 누제(婁提)는 우마를 골짜기 수로 셀 정도로 가축이 많았고 가동(家僮)은 천을 헤아렸다.³⁶⁹ 이는 북위 후기의 예이지만, 이들은 선조 때부터 목축에 종사했으므로 북위 전기에도 경기를 비롯한 북위의 북변에는 유목민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북위의 북변을 침입하는 유연은 유목민과 가축을 노략하는 것이 남침의 주요 목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연의 남침을 막기 위해 세운 장성은 유목민과 그들이 키운 가축들의 유출을 막는 역할도 함께 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 366 『北史』 卷6 「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11쪽; 『北齊書』 卷1 「神武紀」上, 3쪽, “神武曰: 「聞公有馬十二谷, 色別爲羣, 將此竟何用也?」”
- 367 『魏書』 卷18 「太武五王·廣陽王建傳附深傳」, 429쪽, “肅宗初, 拜肆州刺史. 預行恩信, 胡人使之, 劫盜止息. 後爲恒州刺史, 在州多所受納, 政以賄成, 私家有馬千匹者必取百匹, 以此爲恒.”
- 368 古賀昭岑(1980), 「北魏の部族解散について」, 『東方學』 59, 67쪽.
- 369 『北齊書』 卷15 「婁昭傳」, 196쪽, “婁昭, 字菩薩, 代郡平城人也. 武明皇后之母弟也. 祖父提, 雄傑有識度, 家僮千數, 牛馬以谷量. 惟好周給, 士多歸附之. 魏太武時, 以功封眞定侯.”

III. 동위 북제 시대 장성 축조의 배경

1. 장성 축조의 군사적·외교적 배경

1) 동위 북제와 유연·돌궐의 대치

동위 북제가 업(鄴)과 태원(진양)의 양도(兩都) 체제로 운영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위 북제의 공식적인 수도는 업도였지만 태원은 별도(別都),³⁷⁰ 배도(陪都),³⁷¹ 하도(下都)³⁷²로 지칭되었다. 또 수도 업의 상서성(尙書省), 즉 경성(京省) 혹은 업성과 별도로 태원에는 ‘병성(并省)’³⁷³이라 불리는 상서성을 두었다. 업성과 병성, 즉 두 개의 상서성의 양립은 몽원제국(蒙元帝國)의 중서성(中書省)과 행중서성(行中書省)처럼 특수한 현상이었다.³⁷⁴

이처럼 수도 업처럼 특별한 지위를 지닌 태원에 대한 관심과 증시는 고환·고징(高澄)과 북제 황제들의 활동에서 확인된다. 그들은 태원과 업도 사이를

370 『周書』卷40「宇文神舉傳」, 715쪽, “及高祖東伐, 詔神舉從軍. 并州平, 卽授并州刺史, 加上開府儀同大將軍. 州旣齊氏 別都, 控帶要重.”

371 『資治通鑑』卷155「梁紀」11 武帝中大通四年七月壬寅條, 4826쪽, “歡以晉陽四塞, 乃建大丞相府而居之(胡註: 自此至于高齊建國, 遂以晉陽爲陪都).”

372 『太平御覽』(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卷155「州郡部」1 敍京都上, 312쪽, “東魏禪北齊, 高洋以鄴爲上都, 晉陽爲下都.”

373 『資治通鑑』卷167「陳紀」1 武帝永定元年條, 5162~5163쪽, “齊以太師斛律公爲右丞相, 前大將軍可朱渾道元爲太傅, 開府儀同三司賀拔仁爲太保, 尙書令常山王演爲司空, 錄尙書事長廣王湛爲尙書令, 右僕射楊愔爲左僕射, 仍加開府儀同三司, 并首尙書右僕射崔暹爲左僕射, 上黨王渙錄尙書事(胡註: 自高歡居陽, 并州有行臺尙書令·僕等官, 及齊顯祖受魏禪, 遂以并州行臺爲并省, 位任亞於鄴省).”

374 주일량과 진림국은 양성의 지위는 비슷하지만 병성이 업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周一良(1998c), 「北齊書札記·各立一省條」, 『魏晉南北朝史札記』,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408쪽; 陳琳國(1994), 『魏晉南北朝政治制度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38쪽], 엄요중은 병성이 우위에 있었다고 보았다. 嚴耀中(1990), 「北齊政治與尙書并省」, 『上海師範大學學報(哲社版)』4, 36·38쪽.

왕래하였다. 고환·고징과 북제 황제들은 동위 천평 원년(534년)부터 북제 승광(承光) 원년(577년)까지 43년 사이에 37회 왕래하였다. 그리고 태원에 머무른 기간이 약 29년, 업도에 머물렀던 시간이 14년으로 태원에 있던 기간이 업도에 있던 기간의 배다. 문선제를 제외한 폐제(廢帝, 고은(高殷))와 효소제(孝昭帝, 고연(高演)), 무성제(高澄(高湛)), 후주(後主, 고위(高緯))는 모두 태원에서 즉위하였고, 만약 계승자가 태원에 없을 때는 태원으로 이동한 뒤 즉위하였다.³⁷⁵ 따라서 고환·고징과 북제 황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태원은 실질적인 수도였고 정치 중심의 소재지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³⁷⁶ 동위 북제의 실질적인 수도 태원이 북쪽 변경과 가까웠기 때문에 고환·고징과 북제 황제들은 북쪽 유목 국가의 정세에 민감하였다.

몽골 고원의 유연도 동위 북제의 변경을 공격했지만, 권력 다툼에서 패한 집단이 동위 북제에 항복하려 왔다. 고환은 원상 2년(539년) 아지라(阿至羅)의 별부의 항복을 받으려 직접 무주새(武州塞)를 나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사냥하고 돌아왔다.³⁷⁷ 돌궐의 공격을 받은 유연이 남쪽으로 도망하자 문선제는 천보 4년(553년) 십이월 계해일에 태원에서 돌궐 친정에 나서며 유연을 받아들여 유연의 여중(餘衆)을 마읍천(馬邑川)에 안치하였다. 이때 문선제는 유연을 추격한 돌궐을 공격하여 삭주까지 추격하였고, 이에 돌궐이 항복을 청하자 허락하고

375 毛漢光(2002), 「北魏東魏北齊之核心集團與核心區」, 『中國中古政治史論』,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97~98쪽; 朴漢濟·서울大學東洋史學研究室 編(1998),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諸相』, 知識産業社, 162쪽; 崔彥華(2010), 「“鄴-晉陽”兩都體制與東魏北齊政治」, 『社會科學戰線』 7, 244~245쪽.

376 崔彥華(2010), 앞의 글, 245쪽.

377 『北史』 卷6 「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27쪽, “[元象]二年十二月, 阿至羅別部遣使請降, 神武帥衆迎之, 出武州塞, 不見, 大獵而還.”; 『北齊書』 卷2 「神武紀」 下, 21쪽.

돌아왔다.³⁷⁸ 문선제는 다음 해인 천보 5년(554년) 유연 암라진(菴羅辰)을 친정하여 대파하였다.³⁷⁹ 같은 해 사월 유연이 사주를 공격하자 문선제가 태원에서 친정하여 항주의 황과퇴(黃瓜堆)에 이르렀지만 유연은 도망갔다. 문선제는 천여 기를 거느리고 있다가 유연 별부 수만에게 포위되었지만, 이를 물리치고 추격하여 암라진의 처자와 생구(生口) 3만여 인을 사로잡았다.³⁸⁰ 문선제는 같은 해 오월과 유월 두 차례 유연을 친정하여 격파하였다.³⁸¹ 문선제는 천보 6년(555년) 유연을 친정하여 사적곡(庫狄谷)으로 진격하였다.³⁸² 문선제는 같은 해 7월에 경기(輕騎) 5천을 이끌고 유연을 추격하여 회삭진에서 대파하고 옥야진에서 사리(俟利) 애언력루아제(藹焉力婁阿帝)와 토두발(吐頭發) 옥구려상연(郁久闞狀延) 등을 사로잡고 구(口) 2만여, 소·양 수십만 마리를 획득하였다. 이때 사리 옥구려리가제(郁久闞李家提)가 수백 인을 이끌고 항복하였다.³⁸³ 이상의 내용

- 378 『北齊書』卷4「文宣紀」天保四年十二月條, 58쪽, “十二月己未, 突厥復攻茹茹, 茹茹學國南奔. 癸亥, 帝自晉陽北討突厥, 迎納茹茹, 乃廢其主庫提, 立阿那瓌子菴羅辰爲主, 置之馬邑川, 給其粟饌繒帛. 親追突厥於朔州, 突厥請降, 許之而還. 於是貢獻相繼.”
- 379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五年三月條, 58쪽, “三月, 茹茹菴羅辰叛, 帝親討, 大破之, 辰父子北遁.”
- 380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五年夏四月條, 58쪽, “夏四月, 茹茹寇肆州. 丁巳, 帝自晉陽討之, 至恒州黃瓜堆, 虜騎走. 時大軍已還, 帝率麾下千餘騎, 遇茹茹別部數萬, 四面圍逼, 帝神色自若, 指畫形勢, 虜衆披靡, 遂縱兵潰圍而出. 虜乃退走, 追擊之, 伏尸二十里, 獲菴羅辰妻子及生口三萬餘人.”
- 381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五年條, 58쪽, “[五月]丁未, 北討茹茹, 大破之. 六月, 茹茹率部衆東徙, 將南侵. 帝率輕騎於金山下邀擊之, 茹茹聞而遠遁.”
- 382 『北齊書』卷4「文宣紀」天保六年夏六月丁卯條, 60쪽, “丁卯, 帝如晉陽. 壬申, 親討茹茹. 甲戌, 諸軍大會於祁連池. 乙亥, 出塞, 至庫狄谷, 百餘里內無水泉, 六軍渴乏, 俄而大雨.”
- 383 『北齊書』卷4「文宣紀」天保六年秋七月條, 60쪽, “秋七月己卯, 帝頓白道, 留輜重, 親率輕騎五千追茹茹. 壬午, 及於懷朔鎮. 帝躬當矢石, 頻大破之, 遂至沃野, 獲其俟利藹焉力婁阿帝·吐頭發郁久闞狀延等, 並口二萬餘, 牛羊數十萬頭. 茹茹俟利郁久闞李家提率部人數百降.”

을 정리하면 문선제는 북제의 북쪽 변경에 침입한 유연을 친정하여 격파하고 사람과 소·양 등 가축을 노획하였다. 이는 북제 군사력의 근간인 기병의 병력 자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는 컸다.³⁸⁴

문선제는 유연뿐만 아니라 고막해와 거란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 문선제는 천보 3년(552년) 대군에서 고막해를 친정하여 대파하고 잡축 10여 만 마리를 획득하여 장사들에게 차등 분배하였다. 그리고 해인(奚人)을 산동으로 옮겼다.³⁸⁵ 또 문성제는 천보 4년(553년) 거란이 침입하자 기주·정주·유주·안주를 거쳐 거란을 토벌하였다.³⁸⁶ 문선제는 시월 계묘일에 양사수(陽師水)에 이르러 거란을 습격하여 격파한 후 10만여 구를 노획하고 잡축 수십만 마리를 노획하였다.³⁸⁷ 또 문선제의 아우 효소제는 즉위한 황건(皇建) 원년(560년) 고막해를 친정하여 격파하고 우마를 획득하여 진양궁에 편입시켰다.³⁸⁸ 『북제서』 「기련맹전(基連猛傳)」에 따르면 황건 2년 숙중(효소제)을 따라 해(奚)를 격파하고 말 2천

- 384 崔珍烈(2013a), 「東魏北齊의 華北 지배와 그 한계」, 『東洋史學研究』 125, 101~105쪽.
- 385 『北齊書』 卷17 「斛律金傳附光傳」, 223쪽, “三年春正月丙申, 帝親討庫莫奚於代郡, 大破之, 獲雜畜十餘萬, 分賞將士各有差, 以奚口付山東爲民.”; 『北齊書』 卷4 「文宣紀」 天保三年春正月丙申條, 56쪽, “天保三年, 從征出塞, 光先驅破敵, 多斬首虜, 並獲雜畜.”
- 386 『北齊書』 卷4 「文宣紀」 天保四年九月條, 57쪽, “九月, 契丹犯塞, 壬午, 帝北巡冀·定·幽·安, 仍北討契丹.”
- 387 『北齊書』 卷4 「文宣紀」 天保四年條, 57쪽, “冬十月丁酉, 帝至平州, 遂從西道趣長壘, 詔司徒潘相樂率精騎五千自東道趣青山, 辛丑, 至白狼城, 壬寅, 經昌黎城, 復詔安德王韓軌率精騎四千東趣, 斷契丹走路, 癸卯, 至陽師水, 倍道兼行, 掩襲契丹, 甲辰, 帝親踰山嶺, 爲士卒先, 指麾奮擊, 大破之, 虜獲十萬餘口·雜畜數十萬頭, 樂又於青山大破契丹別部, 所虜生口皆分置諸州, 是行也, 帝露頭袒膊, 晝夜不息, 行千餘里, 唯食肉飲水, 壯氣彌厲, 丁未, 至營州, 丁巳, 登碣石山, 臨滄海.”
- 388 『北史』 卷7 「齊本紀中·孝昭帝紀」 皇建元年十一月條, 264쪽, “是月, 帝親戎北討庫莫奚, 出長城, 虜奔遁, 分兵致討, 大獲牛馬, 括總入晉陽宮.”; 『北齊書』 卷6 「孝昭帝紀」, 82쪽.

필과 소·양 3만 마리를 획득하였다.³⁸⁹ 무성제도 하청 3년(564년) 곡률광을 보내 돌궐을 공격하니 말 천여 필을 획득하였다.³⁹⁰ 이처럼 문선제와 효소제는 고막해와 거란을 공격하여 유목민과 가축을 사로잡아 북제 영토 안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다.³⁹¹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환·고징·문선제·효소제는 비야두(費也頭)·산호·유연·고막해·거란·돌궐 등 유목 집단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유목민과 가축을 사로잡은 후 북제 정내로 이주시켰다. 이들은 기사(騎射)에 능했기 때문에 북제 기병의 병력원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동위와 북제의 실력자와 황제들은 태원 주변의 산호부터 국경 밖의 유연·고막해·거란·돌궐 등 유목민 집단에 관심을 가졌고 친정했다. 이때 태원은 유목민 집단을 공격하는 출발점이었다.

또 고환·고징·문선제는 태원을 거점으로 북방을 순수(巡狩)하였다. 예컨대 고환은 흥화(興和) 3년(541년) 북쪽 변경을 순수하고 사신을 보내 연연(유연)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³⁹² 고징도 무정 4년(546년) 유월 북변의 성수를 순수하였다.³⁹³ 문선제는 천보 3년(552년) 북변을 순시하여 황로령에 이르러 장성 축조를 명령하였다. 이때 장성은 북으로 사간수(『자치통감』에는 사평수(社平戍))까지 400여 리에 이르렀고 36수를 세웠다.³⁹⁴ 문선제는 천보 5년(554년) 문선제가 달속

389 『北齊書』卷41「慕容紹宗傳」, 541쪽, “[皇建]二年, 除領左右大將軍, 從肅宗討奚賊, 大捷, 獲馬二千疋, 牛羊三萬頭.”

390 『北齊書』卷17「斛律金傳附光傳」, 223쪽, “[河清三年]四月, 率騎北討突厥, 獲馬千餘匹.”

391 崔珍烈(2013a), 앞의 글, 105~106쪽.

392 『北史』卷6「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27쪽, “[興和]三年五月, 神武巡北境, 使使與蠕蠕通和.”; 『北齊書』卷2「神武紀」下, 21쪽.

393 『北史』卷6「齊本紀上·世宗文襄帝紀」, 234쪽, “[武定四年]六月, 文襄巡北邊城戍, 振賜各有差.”; 『北齊書』卷3「文襄紀」, 37쪽.

394 『資治通鑑』卷164「梁紀」20 元帝承聖元年條, 5092쪽, “冬十月乙未, 至黃櫨嶺, 仍起長城, 北至社干戍四百餘里, 立三十六戍.”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三年條,

령까지 복순하여 산천의 험요를 관찰하고 장성 축조를 계획하였다.³⁹⁵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원에 사실상 ‘정거(定居)’한 동위의 실력자 고환·고징과 북제의 황제들은 태원 주변 유목민 산호 등을 복속시키고 유연·고막해·거란·돌궐 등 유목민 집단의 복속과 평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북제서』와 『북사』에 기록된 고환·고징과 북제 황제들의 동선을 분석하면 산호·유연·고막해·거란·돌궐 등의 공격 기사가 빈출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태원을 ‘용마지지(戎馬之地)’라고 기록한 것은 허언이 아니었다. 동위의 실력자와 북제 황제들이 태원을 거점으로 삼은 이상 유목민 혹은 호족들에게 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³⁹⁶

그러나 동위 북제의 선제적 공세는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동위 북제의 실력자나 황제들은 유연·거란·고막해 등 유목민 집단이나 유목 국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유연의 뒤를 이어 몽골 고원을 지배한 돌궐을 제압하지 못하였다. 북주와 북제가 북방에서 대치할 때 북방에서는 돌궐이 북주·북제와 병립하였고 세력이 나날이 커갔으며 북주·북제의 갈등을 이용하여 수많은 물자를 획득하였다. 『주서』 권50 「이역하(異域下)·돌궐전(突厥傳)」에는 이러한 상황이 잘 기록되었다.³⁹⁷

56쪽; “冬, 十月, 齊主自晉陽如離石, 自黃櫨嶺起長城, 北至社平戍, 四百餘里, 置三十六戍.”

395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五年十二月庚申條, 59쪽, “十二月庚申, 帝北巡至達速嶺, 覽山川險要, 將起長城.”

396 崔珍烈(2013a), 앞의 글, 106~107쪽.

397 『周書』卷50「異域下·突厥傳」, 911쪽, “俟斤死, 弟他鉢可汗立. 自俟斤以來, 其國富彊, 有凌轢中夏志, 朝廷既與和親, 歲給繒絮錦綵十萬段, 突厥在京師者, 又待以優禮, 衣錦食肉者, 常以千數, 齊人懼其寇掠, 亦傾府藏以給之. 他鉢彌復驕傲, 至乃率其徒屬曰:「但使我在南兩箇兒孝順, 何憂無物邪.」”

돌궐은 여여(茹茹(유연))를 멸한 후에 새표(塞表)의 땅을 모두 점유하였으며 활시위를 당길 수 있는 군사가 수십만이나 있었다. 따라서 중하(中夏)를 깔 보았다.³⁹⁸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강성한 돌궐과의 연합이 동위 북제나 서위 북주 양자에게 모두 중요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돌궐은 결국 후자를 택하였다. 따라서 우문태(宇文泰)는 돌궐과 연합하여 북제에 대항하였다. 북주 무제(武帝)도 돌궐과 혼인 동맹을 맺었고 사신을 자주 주고 받았다. 천화(天和) 3년(568년) 돌궐의 황후가 도달하자 친영의 예를 행하여 경중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양보로 돌궐의 군사상 지지를 얻었고 북제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³⁹⁹ 이러한 상황에서 북제의 공세는 돌궐에게 통하지 않았다.

도리어 북제는 북주와 돌궐의 협공을 받았다. 북주와 돌궐이 연합하여 북제를 공격하였다.⁴⁰⁰ 쌍방은 태원에서 대회전(大會戰)을 벌였다. 다음 해 정월 북제는 북주와 돌궐 연합군을 태원성 아래에서 대파하였다.⁴⁰¹ 이로써 북제는 겨우 한숨을 돌렸지만, 북쪽의 돌궐, 서쪽의 북주, 남쪽의 진(陳)의 삼각 포위

398 『周書』 卷9 「皇后·武帝阿史那皇后傳」, 143쪽, “突厥滅茹茹之後, 盡有塞表之地, 控弦數十萬, 志陵中夏.”

399 楊翠微(1998), 「周武帝滅齊統一北方可能性探析」, 『求是學刊』 3, 86쪽.

400 『資治通鑑』 卷169 「陳紀」3 文帝天嘉四年條, 5236~5237쪽, “戊子, 遣忠將步騎一萬, 與突厥自北道伐齊, 又遣大將軍達奚武帥步騎三萬, 自南道出平陽, 期會於晉陽. …… 周楊忠拔齊二十餘城, 齊人守陁嶺之隘, 忠擊破之. 突厥木杆·地頭·步離三可汗以十萬騎會之. …… 己丑, 自恆州三道具入, 時大雪數旬, 南北千餘里, 平地數尺, 齊主自鄴倍道赴之, 戊午, 至晉陽. 斛律光將步兵三萬屯平陽. 己未, 周師及突厥逼晉陽. 齊主畏其強, 戎服帥宮人欲東走避之. 趙郡王叔·河間王孝琬叩馬諫, 孝琬請委叡部分, 必得嚴整. 帝從之, 命六軍進止皆取叡節度, 而使并州刺史段韶總之.”

401 王振芳(1991), 앞의 글, 57쪽.

망에 둘러싸인 채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북주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였다.⁴⁰²

2) 동위 북제의 방어 체계와 장성

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군사력의 주축인 구 육진 출신 선비인들이 거주하였다. 동위 북제는 이들의 군사력과 황하 중하류의 경제력을 두 축으로 화북을 통치하였다. 군사적으로도 군사력의 주력인 선비인과 한인 군사를 차등으로 배치하였다. 『수서』 권24 「식화지」에는 북제의 군사 배치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문선[文宣(帝)]이 선양(禪讓)을 받아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뀐 바가 많았다.

내지로 이주한 육방 사람들은 더욱 훈련을 시켰고 한 사람이 반드시 백 인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그가 진에 임하게 하여 반드시 죽을 각오로 싸우면 그 후에 취하였다. 이를 백보선비(百保鮮卑)라 한다. 또 용력(勇力)이 절륜(絶倫)한 화인(華人)을 뽑아 용사라 칭하고, 변방의 요충지를 방어하도록 하였다.⁴⁰³

『자치통감』의 호삼성주에 따르면 ‘육방’은 숙위 군사 육군(六軍)을 육방의

402 양취미(楊翠微)는 태건 9년(북제 건덕 6년; 577년) 정월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킨 중요한 원인은 태건 5년 이래 진 선제가 군대를 보내 북제와 전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북주가 북제를 멸망할 당시 진장(陳將) 오명철(吳明徹)은 회북에서 작전하였다. 북주의 북제 평정은 실제로 북제가 해마다 전쟁했던 기초 위에 진행된 것이다. 북제의 멸망은 진과 북주 양국의 연합 진공 때문이었다. 楊翠微(1998), 앞의 글, 85쪽.

403 『隋書』卷24「食貨志」, 676쪽, “及文宣受禪, 多所創革. 六坊之內徙者, 更加簡練, 每一人必當百人, 任其臨陣必死, 然後取之, 謂之百保鮮卑. 又簡華人之勇力絕倫者, 謂之勇士, 以備邊要.”

로 나누어 생긴 명칭이라고 한다. ‘백보’는 그 용맹함이 한 사람이 백 인의 군인들을 감당함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며 동위 복제는 위사(衛士)를 모두 선비인으로 충당했다고 한다.⁴⁰⁴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선비인을 최정에 부대로 훈련시키고 전쟁에 투입했던 반면, 한인 군사들은 변방의 요지를 지키는 데 투입하였다. 복제를 세운 문선제의 아버지 고훈은 태원을 용마지지로 여겨 태원에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정비하여 태원에서 수도 업의 조정을 원격 조정했다.⁴⁰⁵ 이처럼 이들은 고훈 집권 시기부터 태원과 그 부근에 주둔하고 훈련하며 전쟁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동위 복제는 주력인 선비 군사들은 평소에 군사 훈련을 시키다가 유사시에 전쟁에 투입하였지만 한인 군사들은 변방 수비를 맡겨 양자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였다.⁴⁰⁶

동위 복제는 북쪽의 유연과 돌궐, 서쪽의 서위 북주, 남쪽의 남조 양·진에 삼면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북방과 서방의 강적을 막기 위해 장성이나 방어 시설을 만들었다. 고훈은 무정 원년(543년)에 5만 명을 동원하여 사주 북산에 성을 쌓았다. 이 성은 서쪽의 마릉수에서 동쪽으로 토등에 이르렀다.⁴⁰⁷ 무정 3년(545년)에는 해·연연(유연)과의 접경 지역인 유주·안주·정주에 방어시설

404 『資治通鑑』 卷163 「梁紀」19 簡文帝大寶元年條, 5051쪽, “齊主簡練六坊之人, 每一人必當百人, 任其臨陳必死(魏·齊之間, 六軍宿衛之士, 分爲六坊, 任, 保任也), 然後取之, 謂之‘百保鮮卑’(百保, 言其勇可保一人當百人也, 高氏以鮮卑創業, 當時號爲健鬪, 故衛士皆用鮮卑, 猶今北人謂勇士爲霸都魯也), 又簡華人之勇力絕倫者, 謂之‘勇士’, 以備邊要(邊要, 邊上要害之地).”

405 『北齊書』 卷18 「司馬子如傳」, 242쪽, “高祖以晉陽戎馬之地, 霸圖攸屬, 治兵訓旅, 遙制朝權, 京臺機務, 情寄深遠.”

406 崔珍烈(2013b), 「東魏北齊의 軍事 중심 太原의 전략적 限界-군사배치와 방어체계로 본 멸망」, 『동아시아문화연구』 55, 252~259쪽.

407 『魏書』 卷12 「孝靜紀」 武定元年八月條, 306쪽, “是月, 齊獻武王召夫五萬於肆州北山築城, 西自馬陵戍, 東至土障, 四十日罷.”; 『資治通鑑』 卷158 「梁紀」 大同九年條, 4919쪽, “丞相歡築長城於肆州北山, 西自馬陵, 東至土障, 四十日罷.”

을 설치하였다.⁴⁰⁸ 문선제는 북제 천보 3년(552년) 동시월 을미일에 황로령에 이르러 북쪽으로 사간수까지 사백여 리에 걸쳐 장성을 쌓고 36수를 설치하였다.⁴⁰⁹ 주대위의 고증에 따르면 이 장성은 남쪽으로 현재의 산서성 이석현에서 시작하여 여량산맥을 따라서 북쪽으로 현재의 산서성 삭주시 서쪽에 이르렀다. 그리고 장성의 남북 길이가 약 200km에 달하였다.⁴¹⁰ 또 문선제는 천보 5년(554년) 십이월 경신일 복순하여 달속령에 이르러 산천의 험요한 곳을 살펴본 후 장성 축조를 계획하였다.⁴¹¹ 그리고 천보 6년(555년) 유월 성인 남성[夫] 180만 인을 징발하여 유주 북하구에서 항주까지 구백여 리(450km)의 장성을 쌓았다.⁴¹² 『북제서』 권4 「문선기(文宣紀)」 천보 칠년 십이월조의 기록에 따르면 천보 7년까지 서하의 충진수에서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까지 동서 3천여 리에 달하는 장성을 쌓고 10리마다 1수를 설치하고 요해처에 25개의 주진을 설치하였다.⁴¹³ 문선제는 천보 8년(557년) 십이월 장성 안에 고락발에서 동쪽으

408 『北史』卷6「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29쪽, “[武定三年]十月丁卯, 神武上言, 幽·安·定三州北接奚·蠕蠕, 請於險要修立城戍以防之, 躬自臨履, 莫不嚴固。”; 『北齊書』卷2「神武紀」下, 22쪽.

409 『資治通鑑』卷164「梁紀」20 元帝承聖元年條, 5092쪽, “冬十月乙未, 至黃檀嶺, 仍起長城, 北至社干戍四百餘里, 立三十六戍.”;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三年條, 56쪽, “冬, 十月, 齊主自晉陽如離石, 自黃檀嶺起長城, 北至社平戍, 四百餘里, 置三十六戍.”

410 朱大渭(2007), 앞의 글, 271~272쪽. 왕진방은 문선제 천보 3년에 쌓은 장성은 산호의 방어를 위해 쌓았다고 주장하였다. 동위 북제 시대에 현재의 산서 지역은 민족의 잡거 지역이었고 그중 산호가 험한 산지를 점거하여 불시에 동위를 공격하였다. 따라서 북제는 산호를 막는 장성을 쌓았다는 것이다. 王振芳(1991), 앞의 글, 57쪽.

411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五年條, 59쪽, “十二月庚申, 帝北巡至達速嶺, 覽山川險要, 將起長城.”

412 『北齊書』卷4「文宣紀」天保六年條, 61쪽, “是年, 發夫一百八十萬人築長城, 自幽州北夏口至恒州九百餘里.”

413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七年十二月條, 63쪽, “先是, 自西河總秦戍築長城東至於海, 前後所築東西凡三千餘里, 率十里一戍, 其要害置州鎮, 凡二十五所.”

로 오홀수에 이르는 사백여 리의 또 다른 장성을 쌓았다.⁴¹⁴ 이밖에 곡률선은 하청 3년(564년) 가을 돌궐의 10여 만이 유주를 침입하자 다음 해인 천통 원년(565년) 고퇴수에서 동쪽으로 바다까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산을 깎아 성을 쌓거나 골짜기를 막아 장을 설치하여 모두 수라 50여 소를 두었다.⁴¹⁵ 위에서 살펴본 장성이나 각종 방어 시설의 위치는 태원 북쪽이나 북쪽 변경이었기 때문에 북방의 유목 국가 유연이나 돌궐을 막으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⁴¹⁶

동위 북제는 북방뿐만 아니라 서쪽의 서위 북주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장성과 방어 시설을 만들었다. 문선제는 천보 5년 팔월 상산왕(常山王) 연(演), 상당왕(上黨王) 환(渙), 청하왕(清河王) 악(岳), 평원왕(平原王) 단소(段韶) 등에게 명하여 낙양 서남쪽에 별악성·신성·엄성·하남성을 축조하도록 하였다.⁴¹⁷ 곡률광은 천보 10년(559년) 북주의 개부(開府) 조회공(曹迴公)을 격파하고 백곡성(栢谷城)과 문후진(文侯鎭)을 점령한 후 수(戍)와 책(柵)을 설치하였다.⁴¹⁸

414 『北齊書』卷4「文宣紀」天保八年十二月條, 64쪽, “是年, 於長城內築重城, 自庫洛拔而東至於塢紇戍, 凡四百餘里.”

415 『北齊書』卷17「斛律金傳附羨傳」, 227쪽, “河清三年, 轉使持節, 都督幽·安·平南·北營 東燕六州諸軍事, 幽州刺史, 其年秋, 突厥衆十餘萬來寇州境, 羨總率諸將禦之, 突厥望見軍威甚整, 遂不敢戰, 卽遣使求款, 慮其有詐, 且諭之曰: ‘爾輩此行, 本非朝貢, 見機始變, 未是宿心, 若有實誠, 宜速歸巢穴, 別遣使來.’ 於是退走, 天統元年夏五月, 突厥木汗遣使請朝獻, 羨始以聞, 自是朝貢歲時不絕, 羨有力焉, 詔加行臺僕射, 羨以北虜屢犯邊, 須備不虞, 自庫堆戍東拒於海, 隨山屈曲二千餘里, 其間二百里中凡有險要, 或斬山築城, 或斷谷起障, 並置立戍邏五十餘所.” 주대위는 이 방어 시설을 북제의 일곱 번째 장성이라고 보았다. 朱大渭(2007), 앞의 글, 276쪽.

416 崔珍烈(2013b), 앞의 글, 256~257쪽.

417 『北齊書』卷4「文宣紀」天保五年八月條, 59쪽, “是月, 詔常山王演·上黨王渙·清河王岳·平原王段韶等率衆於洛陽西南築伐惡城·新城·嚴城·河南城.”

418 『北齊書』卷17「斛律金傳附光傳」, 223쪽, “[天保]十年, 除特進·開府儀同三司, 二月, 率騎一萬討周開府曹迴公, 斬之, 栢谷城主儀同薛禹生棄城奔遁, 遂取文侯鎭, 立戍置柵而還.”

곡률광은 북주와의 접경 지역에도 수와 책을 설치한 것이다. 왕준(王峻)은 황건 연간(560년) 낙양 서쪽에 장참 300리를 만들고 성수를 두어 간첩을 방지하였다.⁴¹⁹ 또 무성제는 하청 2년(563년) 삼월 을축일 곡률광이 5명의 군사를 동원해 지관에 수를 축조하도록 명령하였다.⁴²⁰ 『북제서』 「곡률금전부광전(斛律金傳附光傳)」에 따르면 삼월이 아닌 사월에 곡률광이 보기 2만 명을 동원하여 지관 서쪽에 훈장성을 쌓고 200리의 장성을 축조하고 13수를 설치하였다.⁴²¹ 낙양과 백곡성과 문후진 일대에 설치한 성·수·책은 서위 북주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청 2년(563년) 지관 일대에 장성과 성·수를 쌓은 것도 북주의 공격을 막기 위한 포석처럼 보인다. 지도에서 지관과 훈장성, 장성의 위치를 보면 황하와 그 지류인 심수(沁水) 일대에 있었다. 이는 북주의 군대가 황하를 따라 업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위 북제는 유연·돌궐과 접경한 북쪽과 서위 북주와 국경을 마주한 서쪽 변경에는 장성과 성, 참 등 방어 시설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주로 한인 군인들을 배치하였다. 한인 군인들은 수비와 함께 둔전에 종사하였다. 『수서』 권24 「식화지」의 기록을 보자.

폐제 건명(乾明) 연간(560년)에 상서좌승(尙書左丞) 소진지(蘇珍芝)는 석별(石鰲) 등 둔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해마다 수만 석을 수확하였

419 『北齊書』卷25 「王峻傳」, 364쪽, “皇建中, 詔於洛州西界掘長塹三百里, 置城戍以防間諜.”

420 『北史』卷7 「齊本紀中·世祖武成帝紀」河清二年三月乙丑條, 283쪽, “三月乙丑, 詔司空斛律光督五營軍士築戍於軹關.”; 『北齊書』卷7 「武成帝紀」, 91쪽.

421 『北齊書』卷17 「斛律金傳附光傳」, 223쪽, “河清二年四月, 光率步騎二萬築勳掌城於軹關西, 仍築長城二百里, 置十三戍.”

다. 이후 회남(淮南)의 군방(軍防)은 식량창고가 넉넉해졌다. 효소제 황건연간(561년)에 평주 자사 해엽(嵇曄)의 건의로 유주 독항구피(督亢舊陂)를 열어 장성 좌우영둔(左右營屯)을 설치하여 해마다 도속(稻粟) 수십만 석을 얻었으니, 북경은 식량이 충족되었다. 또 하내(河內)에 회의(懷義) 등 둔을 두어 하남의 비용을 공급하였다. 이후 점차 전수(轉輸)의 수고로움이 없어졌다.⁴²²

위의 인용문을 보면 황건연간(560~561년)에 회남에 둔전을 설치하여 남방에 주둔하는 군대에 공급하였다. 같은 해에 유주 독항(督亢)의 관개 시설을 확충하여 장성 좌우영에 둔전을 설치하여 북쪽 변경에 주둔하는 군사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 하내에 둔전을 설치하여 서쪽 변경인 하남 일대에 주둔하는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다. 즉 북제 초 북쪽과 서쪽, 남쪽 변경에 둔전을 설치한 것은 운송비를 줄이고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시도였다.⁴²³ 그리고 변방의 둔전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도사와 자사를 설치하였다.⁴²⁴ 유주자사 곡률선은 천통 원년(565년) 고퇴수로부터 동쪽으로 2천여 리 가운데 2백 리 험요한 곳에 산을 매워 성을 쌓거나 골짜기를 끊고 장을 세워 수라 50여 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량수(高粱水)를 끌어들이어 관개시설을 만들었고 변경에 곡식을 저축

422 『隋書』卷24「食貨志」, 676~677쪽, “廢帝乾明中, 尚書左丞蘇珍芝議修石陂等屯, 歲收數萬石, 自是淮南軍防, 糧廩充足. 孝昭皇建中, 平州刺史嵇曄建議, 開幽州督亢舊陂, 長城左右營屯, 歲收稻粟數十萬石, 北境得以周贍. 又於河內置懷義等屯, 以給河南之費, 自是稍止轉輸之勞.”

423 崔珍烈(2013b), 앞의 글, 257~258쪽.

424 『隋書』卷24「食貨志」, 678쪽, “緣邊城守之地, 堪墾食者, 皆營屯田, 署都使子使以統之, 一子使當田五十頃, 歲終考其所入, 以論褒貶.”

하여 조운(漕運)의 비용을 줄였다.⁴²⁵ 이 기사에서도 북쪽 변경의 방어와 둔전을 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변경의 방수(防守)와 병행하여 둔전을 경작한 군인들은 농경에 익숙한 한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즉 한인 군인들은 변방의 방어와 함께 둔전 경작을 통한 식량 생산에 종사하였다.

2. 선비·고차와 가축의 보호

1) 장성 이남에 거주한 선비·고차

『위서』 「지형지」는 북위 시대가 아닌 동위 효정제(孝靜帝) 시기 무정 연간(543~550년)의 행정구역과 호구를 기재하였다. 이는 영안(永安) 말 전란으로 관청의 문서와 장부가 흩어졌기 때문이다.⁴²⁶ 따라서 『위서』 「지형지」는 동위 시대의 행정구역과 호구를 파악하는 1차 사료다. 그런데 『위서』 「지형지」를 통람하면 동일한 주군현 명칭이 중복되었으며, 일부 주군현은 호수조차 기록되지 않았다.

항주부터 아래의 10주는 영안 연간 이후 금려(禁旅)가 나오는 곳이므로 호구의 수는 알 수 없다.⁴²⁷

425 『北齊書』 卷17 「斛律金傳附羨傳」, 227쪽, “羨以北虜屢犯邊, 須備不虞, 自庫堆戍東拒於海, 隨山屈曲二千餘里, 其間二百里中凡有險要, 或斬山築城, 或斷谷起障, 並置立戍邏五十餘所. 又導高梁水北合易京, 東會於潞, 因以灌田, 邊儲歲積, 轉漕用省, 公私獲利焉.”

426 『魏書』 卷106上 「地形志」上, 2455쪽, “永安末年, 胡賊入洛, 官司文簿, 散棄者多, 往時編戶, 全無追訪, 今錄武定之世以爲志焉. 州郡創改, 隨而注之, 不知則闕.”

427 『魏書』 卷106上 「地形志」上, 2504쪽, “前自恒州已下十州, 永安已後, 禁旅所出, 戶口之數, 並不得知.”

『위서』 「지형지」를 보면 항주 이하 10주는 항주·삭주·운주·울주·현주·곽주·무주·서하주·영주(寧州)·영주(靈州)였다.⁴²⁸ 『위서』 권106 상 「지형지」의 또 다른 기사를 보자.

전건에 양주(陽州) 이하 23주는 모두 연변의 신부(新附)한 주로 험원한 곳에 거하였다. 따라서 군현의 호구는 이때에 누락되었다.⁴²⁹

이밖에 『위서』 「지형지」 하에 기록된 관룡 지역의 용주(雍州) 이하 주군현의 호구는 기록되지 않았다.⁴³⁰ 이 지역은 서위 북주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 글에 서는 논하지 않는다.

위 인용문에서 양주 이하 23주, 즉 양주·남사주(南司州)·초주(楚州)·합주(合州)·곽주(霍州)·휴주(睢州)·남정주(南定州)·서초주(西楚州)·채주(蔡州)·서회주(西淮州)·초주(譙州)·양주(揚州)·회주(淮州)·인주(仁州)·광주(光州)·남삭주·남건주(南建州)·남영주(南郢州)·사주(沙州)·북강주(北江州)·상주(湘州)·변주(汴州)·재주(財州) 등의 호구가 누락되었다.⁴³¹ 담기양이 주편한 『중국역사지도집』 제4책 동진십육국(東晉十六國)·남북조 시기 동위 강역도에는 동위의 남쪽 경계선이 회수(淮水) 이북에 설정되었지만, 양주 이하 23주의 위치를 양의 강역에서 검색해 보면 대부분 회수 이남에 있었다. 『수서』 「식화지」에도 후경(侯景)이 양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고징이 행대 신술(辛術)을 보내 회남을 차지했다고 기

428 『魏書』 卷106上 「地形志」上, 2497~2504쪽.

429 『魏書』 卷106上 「地形志」中, 2593쪽, “前件自陽州已下二十三州並緣邊新附, 地居險遠, 故郡縣戶口有時而闕.”

430 『魏書』 卷106下 「地形志」下, 2607~2643쪽.

431 『魏書』 卷106上 「地形志」中, 2567~2593쪽.

록하였다.⁴³² 그리고 북제 시대에는 장강 북쪽 지역을 점유하였다. 회남은 북제 문선제 시기 정복되어 하북·하남·회북(淮北)과는 왕래가 차단되었고 경세(輕稅)를 징수하는 별도의 경제권역이었다.⁴³³

왕중락(王仲犛)의 고증에 따르면 북위·동위는 전후 병주·시주·분주에 육주를 교치(僑置)하였고 육주 선비 군사를 거주시켰다. 육주는 항주[수용군성에 기치, 현재의 산서성 원평현(原平縣)], 연주[현재의 산서성 수양현(壽陽縣)에 기치], 운주[현재의 산서성 문수현(文水縣)에 기치], 삭주[현재의 산서성 개휴현(介休縣)에 기치], 울주[병주 오현(鄜縣)에 기치, 현재의 산서성 평遙현(平遙縣)], 현주[분주 육벽성(六壁城)에 기치, 현재의 산서성 효의현(孝義縣)]이다.⁴³⁴ 이 가운데 연주를 제외한 5주가 『위서』 「지형지」의 항주 이하 10주와 일치한다. 고침(高琛)은 동위 고환 집정시기에 병사분(并肆汾) 대행대복야에 임명되고 육주구추장대도독(九酋長大都督)을 겸하였다.⁴³⁵ 6주는 병주·시주·분주에 설치한 항주·연주·운주·삭주·울주·현주를 지칭하며, 9추장은 영민추장을 지칭한다. 따라서 고침은 영육주구추장대도독(領六州九酋長大都督)이 되어 옛 육진 지역의 선비 군사들을 지휘하였다.⁴³⁶

또 『북제서』 「손견전(孫寯傳)」의 기사를 보자.

432 『隋書』卷24「食貨志」, 676쪽, “及文襄嗣業, 侯景北叛, 河南之地, 困於兵革, 尋而侯景亂梁, 乃命行臺辛術, 略有淮南之地.”

433 『隋書』卷24「食貨志」, 676쪽, “尋而侯景亂梁, 乃命行臺辛術, 略有淮南之地, 其新附州郡, 羈縻輕稅而已.”

434 王仲犛(1980), 「東西魏北齊北周僑置六州考略」, 『北周地理志』, 北京: 中華書局(2007重印), 1149~1152쪽.

435 『北齊書』卷13「趙郡王琛傳」, 169쪽, “及斛斯椿等變結, 高祖將謀內討, 以晉陽根本, 召琛留掌後事, 以爲并·肆·汾大行臺僕射, 領六州九酋長大都督, 其相府政事琛悉決之.”

436 毛漢光(2002), 앞의 글, 96~97쪽.

이때 연·항·운·삭·현·울·이하주·고평·평량 민의 호구를 대거 조사하여 군사로 삼았다. 이때 도망가서 숨은 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인(主人)·삼장(三長)·수령(守令)도 대벽(大辟)으로 죄를 내려 그 가를 몰입(沒入)하도록 하였다. 이때 획득한 군사가 매우 많았다. 이는 손견(孫堅)의 계책 덕분이었다.⁴³⁷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동위 시대 연·항·운·삭·현·울·이하주·고평·평량의 민을 군사로 삼았다. 연·항·운·삭·현·울 6주는 태원 부근에 교치된 지역이었지만, 이하·고평·평량은 당시 동위의 영토가 아니었다. 천평 3년 고헌은 사적간(庫狄干) 등 만 기를 거느리고 서위의 하주를 공격하여 자사 비야두 곡밭아미돌(斛拔俄彌突)을 사로잡고 부락 5천 호를 데리고 돌아왔다.⁴³⁸

그러나 하주 자사 임명된 장경(張瓊)은 우문태의 공격을 받아 하주를 빼앗겼다.⁴³⁹ 따라서 동위가 하주를 점령한 것은 천평 3년 무렵으로 그 기간은 매우 짧았다. 서하주도 이때 잠시 점령한 것으로 보인다.⁴⁴⁰ 고평(高平)과 평량(平涼)은 황하 상류에 있던 지역으로 넓은 의미로 오르도스를 포함하는 하서⁴⁴¹에 속

437 『北齊書』卷24「孫堅傳」, 342쪽, “時又大括燕·恒·雲·朔·顯·蔚·二夏州·高平·平涼之民以爲軍士, 逃隱者身及主人·三長·守令罪以大辟, 沒入其家. 於是所獲甚衆, 堅之計也.”

438 『北史』卷6「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25쪽, “[天平]三年正月甲子, 神武帥庫狄干等萬騎襲西魏夏州. 身不火食, 四日而至, 縛稍爲梯, 夜入其城, 擒其刺史費也頭斛拔俄彌突, 因而用之. 留都督張瓊以鎮守, 遷其部落五千戶以歸”; 『北齊書』卷2「神武紀」下, 18쪽.

439 『北齊書』卷20「張瓊傳」, 265쪽, “天平中, 高祖襲克夏州, 以爲慰勞大使, 仍留鎮之, 尋爲周文帝所陷, 卒.”

440 『魏書』卷12「孝靜紀」天平三年春正月戊申條, 300쪽, “齊獻武王襲寶炬西夏州, 克之.” 『魏書』에서는 고헌이 천평 3년 서위의 서하주를 점령했다고 기록하였다.

441 『魏書』에 언급된 하서는 평성의 서쪽인 오르도스 지역과 하서회랑을 모두 뜻하기 때

한다. 고평과 평양의 민은 아마도 천평 원년⁴⁴²이나 천평 3년⁴⁴³ 고평이 하서의 비아두를 정복하고 끌려온 사람들로 추정된다. 6주는 태원 주변에 거주하였고,⁴⁴⁴ 고평과 평양의 민도 6주의 교민과 비슷한 지역에 거주했을 것이다.⁴⁴⁵

모지명에서도 태원과 그 주변에 선비를 비롯한 유목민들이 거주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한예(韓裔)는 천보 원년(550년) 이후 삼각(三角) 영민정도독(領民正都督)에 임명되었다.⁴⁴⁶ 삼각 영민정도독의 삼각은 『원화군현도지(元和郡縣圖志)』에 따르면 태원 서북쪽 19리에 있었으며, 도인성(徒人城)이라고도 불렸다.⁴⁴⁷ 고적락(庫狄洛)은 북제 문선제 시기에 이석(離石) 대도독과 가남(尙嵐) 영민도독, 흑수(黑水) 영민도독을 역임하였다.⁴⁴⁸ 이석은 북위 시대의 분주 이석진, 동위 북제 시대의 서분주 회정군(懷政郡)이었다. 가남은 북삭주 광안군(廣

문)에 하서의 위치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康樂, 『從西郊到南郊』, 부록 「北魏의 “河西”」, 283~288쪽). 그러나 북위 시대 오르도스 지방을 하서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오르도스를 하서로 보는 견해는 前田正名(1979), 앞의 책, 297쪽과 321~322쪽의 주 30; 李并成(1996), 「〈魏書·食貨志〉“河西”地望考辨」, 李并成·李春元(1996), 『瓜沙史地研究』, 甘肅文化出版社, 74~84쪽[侯甬堅(2004), 「北魏時期鄂爾多斯高原의 自然-人文景觀」, 『歷史地理學探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32쪽에서 재인용 참조] 왕천순은 북위 시대 오르도스 지방(하투)을 하서로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서술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서 지역임을 알 수 있다[王天順(2006), 『河套史』, 北京: 人民出版社, 231~235쪽].

442 『北史』卷6「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19쪽.

443 『北史』卷6「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25쪽; 『北齊書』卷2「神武紀」下, 18쪽.

444 毛漢光(2002), 앞의 글, 96~97쪽.

445 崔珍烈(2013b), 앞의 글, 252~254쪽.

446 趙超(1992), 「君諱裔(韓裔)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436쪽, “天保元年, 除開府儀同三司, 別封康城縣開國子, 使持節涼州諸軍事涼州刺史, 遷三角領民正都督, 又遷新城正都督, 除使持節建州諸軍本將軍建州刺史.”

447 『元和郡縣圖志』(李吉甫撰·賀次君點校(1983), 北京: 中華書局) 卷13「河東道」2河東節度使·太原府·晉陽縣條, 365쪽, “三角城, 在縣西北十九里, 一名徒人城.”

448 「庫狄洛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 415쪽, “高祖受禪, 以王佐命元勳, 啓弼王室, 除開府儀同三司, 別封東燕縣開國子·領兼中□, 除使持節都督建州諸軍事·建州刺史, 轉離石大都督·尙嵐領民都督·黑水領民都督.”

安郡)의 속현이며, 현재의 산서성 북부 훈주 남현(嵐縣)에 해당한다.⁴⁴⁹ 흑수는 현재의 산서성 수양현 남쪽의 백마하(白馬河),⁴⁵⁰ 혹은 산서성 임분시(臨汾市) 북쪽의 노수(潞水),⁴⁵¹ 산서성 익성현(翼城縣) 북쪽을 흐르는 회수(滄水)의 지류⁴⁵²로 비정된다.⁴⁵³ 어떤 경우건 태원 주변이며 현재의 산서성 중부에 해당한다. 적담(狄湛)은 천보 6년(555년) 원구(原仇) 영민부도독, 천보 10년(559년) 백마(白馬) 영민도독에 임명되었다.⁴⁵⁴ 원구는 『원화군현도지(元和郡縣圖志)』에 따르면, 태원부 우현(孟縣)에 있는 원구산(原仇山) 혹은 현성의 본명인 원구성으로 추정된다. 수문제 개황 16년에는 현명으로 사용되었다.⁴⁵⁵ 현재의 산서성 우현에 해당된다. 백마는 원구와 같이 우현에 속한 백마산,⁴⁵⁶ 혹은 북위 말·동위 진주(晉州)의 치소 백마성,⁴⁵⁷ 분주 오성군(五城郡) 평창현(平昌縣)의 백마곡(白馬谷)⁴⁵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당시 영민도독은 영민추장처럼 선비·칙록·흉노·계호

- 449 王仲華(1980), 앞의 책(卷9「河北」上 北朔州·廣安郡·崑嵐縣條), 890~893쪽.
- 450 『水經·洞過水注』, “黑水西出山, 三源合舍, 同歸一川, 東流南屈, 徑受陽縣故城東, 其水又西南入洞過水.”
- 451 『水經·汾水注』, “黑水出黑山, 西徑楊城南, 又西與巢山水會, ……亂流謠北徑高梁城北, 西流入于汾水.”
- 452 『水經·滄水注』, “(黑)水導源東北黑水谷, 西南流徑翼城北, 右引北川水, 水出平川, 南流注之, 亂流西南入滄水.”
- 453 史爲樂 主編(2005),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454 羅新·葉煒(2005), 「狄湛墓誌」,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 北京: 中華書局, 172~173쪽, “至[天保]六年, 除原仇領民副都督, ……十年, 除白馬領民都督.”
- 455 『元和郡縣圖志』卷13「河東道」2 河東節度使·太原府·晉陽縣條, 375쪽, “隋開皇十六年分石艾縣置原仇縣, 屬遼州. ……原仇山, 在縣北三十里, 出人參·鐵羅, 縣取此山爲名, ……縣城, 本名原仇城, 亦名仇由城.”
- 456 『元和郡縣圖志』卷13「河東道」2 河東節度使·太原府·晉陽縣條, 375쪽, “白馬山, 在縣東北六十里.”
- 457 『魏書』卷106上「地形志」上, 晉州條細注, 2477쪽, “孝昌中置唐州, 建義元年改, 治白馬城.”
- 458 『魏書』卷106上「地形志」上, 汾州·五城郡·平昌縣條細注, 2484쪽, “世祖名刑軍, 太和二十一年改, 有白馬谷.”

등 유목민을 지휘하였음을 고려하면,⁴⁵⁹ 영민도독, 영민정도독, 영민부도독 앞에 붙은 지명인 삼각, 이석, 가남, 흑수, 원구, 백마가 태원 혹은 그 주변 지역에 비정되므로(현재의 산서성 중북부) 구 육진 출신의 선비인이나 고차인 등 유목민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⁴⁶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원의 북쪽과 남쪽 주변 지역은 군사들의 병력 공급지였고 북제 말까지 지속되었다. 북제 멸망 당시 북삭주는 중진이었고 용사가 많이 모여 있었다.⁴⁶¹ 천보 9년(558년) 삭주자사에 임명된 곡률광은 1만 기를 이끌고 북주의 조회공과 싸웠다.⁴⁶² 이는 삭주에 기병 1만이 주둔하였고 이를 지탱할 전마를 사육했음을 보여준다. 이 두 사례에서 태원 북쪽의 삭주와 북삭주에 다수의 군대가 주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삭주·북삭주나 태원 주변에 교치되었던 육주 출신의 군사들이었을 것이다.⁴⁶³

2) 장성 이남의 목축 경제

『북제서』와 『북사』, 『위서』를 보면 태원은 용마지지, 즉 용무(用武)의 땅이었다. 주지하듯이 용마지지 태원은 한대와 당대 농업과 목축의 접이시대였다.

그러나 위진남북조 시대 기온이 1~3°C 하강했기 때문에⁴⁶⁴ 농경과 목축의 경

459 周一良(1998b), 앞의 책, 239~246쪽.

460 崔珍烈(2013a), 앞의 글, 90~92쪽.

461 『北史』卷52 「齊宗室諸王下·文宣諸子·范陽王紹義傳」, 1884쪽, “周武帝克并州, 以封輔相爲北朔州總管. 此地齊之重鎮, 諸勇士多聚焉.”

462 『北齊書』卷17 「斛律金傳附光傳」, 223쪽, “除朔州刺史. 十年, 除特進·開府儀同三司. 二月, 率騎一萬討周開府曹迴公, 斬之. 栢谷城主儀同薛禹生棄城奔遁, 遂取文侯鎮, 立戍置柵而還.”

463 崔珍烈(2013a), 위의 글, 92~94쪽.

464 張丕遠 主編(1996), 『中國歷史气候變化』, 濟南: 山東科學技術出版社; 竺可楨 著·葛劍雄·華林甫 編(2002), 「中國近五千年來氣候變遷」, 『歷史地理研究』,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61쪽[原載: 竺可楨(1972), 『考古學報』1]; 布雷特·辛斯基 編

계선이 분수(汾水)와 태원을 잇는 선보다 남쪽으로 후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⁶⁵ 이미 북위 시대에 막남·하서·기내의 3대 목장뿐만 아니라⁴⁶⁶ 병주·사주·분주·하주 등지에도 소규모 목장, 혹은 목지가 있었다.⁴⁶⁷ 사주 북수용에 거주했던 이주영이 소유한 말이 12개 골짜기에 들어찼고 색깔별로 무리를 지을 정도로 많았다.⁴⁶⁸ 낙양 천도 이후 하서의 목장에서 기른 용마는 병주로 옮겨 기르다가 말이 풍토에 익숙해지면 낙양 부근의 하양(河陽) 목장으로 옮기도록 하였다.⁴⁶⁹ 이처럼 병주의 소재지인 진양과 북쪽의 사주, 남쪽의 분주는 북위 후기까지 전마의 생산지로 유명하였다.⁴⁷⁰

북제 시대에도 진양에 전마를 길렀던 증거가 발견된다. 『북제서』 「곡률금전부광전」의 기사를 보자.

제(후주)가 [목(穆)]제파(提婆)에게 진양의 전을 하사하려고 하자, (곡률)광은 조경에서 “이 전은 신무제(神武帝) 이후 늘 화(禾)를 심어 말 수천 필을 먹여

(2003), 『氣候變遷和中國歷史』, 『中國歷史地理論叢』 2, 59쪽; 徐勝一(2003), 『北魏孝文帝遷都洛陽與氣候變化之研究』, 『臺灣師大地理研究報告』 38, 1~12쪽; 劉昭民 저·박기수·차경애 역(2005), 『기후의 반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59~62쪽·134~146쪽; 吳宏岐(2006), 『西安歷史地理研究』, 西安: 西安地圖出版社, 99~104쪽.

465 최진열(2011), 앞의 글, 410~414쪽.

466 朱大渭(1998), 앞의 글, 342쪽.

467 黎虎(1999), 앞의 글, 150~153쪽.

468 『北史』 卷6 「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11쪽, “神武曰: 「聞公有馬十二谷, 色別爲羣, 將此竟何用也?」”; 『北齊書』 卷1 「神武紀」上, 3쪽.

469 『魏書』 卷113 「食貨志」, 2857쪽, “世祖之平統萬, 定秦隴, 以河西水草善, 乃以爲牧地, 畜產滋息, 馬至二百餘萬匹, 橐駝將半之, 牛羊則無數, 高祖卽位之後, 復以河陽爲牧場, 恒置戎馬十萬匹, 以擬京師軍警之備, 每歲自河西徙牧於并州, 以漸南轉, 欲其習水土而無死傷也, 而河西之牧彌滋矣, 正光以後, 天下喪亂, 遂爲羣寇所盜掠焉.”

470 崔珍烈(2013a), 앞의 글, 95쪽.

서 구난(寇難)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제파에게 하사한
 다면 군무(軍務)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하였다.⁴⁷¹

이 글에서 곡률광이 후주의 태원(진양)의 전 하사에 반대하며 목제파에게 주
 려고 한 전에 화를 심어 말 수천 필을 먹었다는 이유를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즉 전마가 야생풀이 아닌 화를 먹었음을 알 수 있다. 후주 때 화사개(和土開)
 를 제거하는 낭야왕(琅邪王) 고엄(高儼)의 반란에 가담했다 죽은 사적복련(庫狄伏
 連)⁴⁷²의 집에서는 말에게 콩을 사료로 지급했었다.⁴⁷³ 또 북위 후기 태복경이
 관할하는 종목전(種牧田)⁴⁷⁴이 업 주변의 마장의 전지에 속하였다.⁴⁷⁵ ‘종목전’
 이란 표현을 보아 북위 후기나 북제 시대 마장에서 말이나 가축에게 곡물의
 줄기를 사료로 먹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예를 종합하면 태원에서는
 재배한 작물을 사료로 전마를 사육했음을⁴⁷⁶ 알 수 있다.⁴⁷⁷

- 471 『北齊書』卷17「斛律金傳附光傳」, 225쪽, “帝賜提婆晉陽之田, 光言於朝曰:「此田, 神武帝以來常種禾, 飼馬數千匹, 以擬寇難, 今賜提婆, 無乃闕軍務也?」”
- 472 『北史』卷8「齊本紀下·後主紀」武平元年七月條, 293쪽, “秋七月庚午, 太保·琅邪王儼矯詔殺錄尚書事和士開於南臺, 即日誅領軍大將軍庫狄伏連·書侍御史王子宣等, 尚書右僕射馮子琮賜死殿中. …… 庚午, 殺太保·琅邪王儼.”; 『北齊書』卷8「後主紀」, 104쪽.
- 473 『北齊書』卷20「慕容儼傳附庫狄伏連傳」, 283쪽, “伏連家口有百數, 盛夏之日, 料以倉米二升, 不給鹽菜, 常有饑色, 冬至之日, 親表稱賀, 其妻爲設豆餅, 伏連問此豆因何而得, 妻對向於食馬豆中分減充用, 伏連大怒, 典馬·掌食之人並加杖罰, 積年賜物, 藏在別庫, 遣侍婢一人專掌管籥, 每入庫檢閱, 必語妻子云: ‘此是官物, 不得輒用.’ 至是簿錄, 並歸天府.”
- 474 『魏書』卷58「楊播傳附椿傳」, 1286~1287쪽, “在州, 爲廷尉奏椿前爲太僕卿日, 招引細人, 盜種牧田三百四十頃, 依律處刑五歲.”
- 475 周一良(1998d), 「馬場」, 『周一良集』第貳卷 魏晉南北朝史札記,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565~566쪽.
- 476 당대에도 말들에게 먹일 추말(芻秣)을 재배하거나 전이 배정되었던 예가 보인다. 예컨대 당대 당태종·고종 시기 장안의 서쪽 기주·빈주·경주 등지 천 리에 팔방(八坊)을

태원 북쪽에서도 말을 길렀던 예가 발견된다. 하청 3년(564년) 돌궐이 침입하자 백건(白建)은 대주(代州)와 혼주의 말 1만 필을 오대산(五臺山) 북백곡(北栢谷)으로 숨겼다.⁴⁷⁸ 이 사례를 보면 당시 대주와 혼주에서 최소 1만 필의 말을 길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주와 혼주는 태원 북쪽에 위치한 주였다. 혼주는 북위 후기 사주였으며 이주영의 목축지가 있었던 북수용 일대에 설치된 주였다. 이는 혼주(사주)가 북제 시대까지 목축이 흥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또 동위의 실력자 고환이 천평 원년(534년) 비야두의 우두머리 흘두릉이 리(紇豆陵伊利)를 하서에서 공격하여 멸하고 비야두 무리를 하동, 즉 황하 동쪽으로 옮겼다.⁴⁷⁹ 이들을 옮긴 ‘하동’의 위치를 명확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현재의 산서성에 해당하는 황하와 분수 유역으로 추정된다. 비야두는 본래 목축에 종사했던 유목민 집단이었으므로 이들은 황하 동쪽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목축에 종사했을 것이다.⁴⁸⁰

또 왕중락의 고증에 따르면 북제는 운대(雲代) 지역에 북변 육주, 즉 북삭주

설치하고 1,230경의 팔방지전(八坊之田)을 말에게 제공할 추말을 재배하는 데 사용하였다. 『新唐書』卷50「兵志」, 1337쪽, “自貞觀至麟德四十年間, 馬七十萬六千置八坊岐·邠·涇·寧間, 地廣千里, 一曰保樂, 二曰甘露, 三曰南善閭, 四曰北善閭, 五曰岐陽, 六曰太平, 七曰宜祿, 八曰安定. 八坊之田, 千二百三十頃, 募民耕之, 以給芻秣. 八坊之馬爲四十八監, 而馬多地狹不能容, 又析八監列布河西豐曠之野.” 현종 원화 14년(819) 襄州(양주[襄陽])에 임한감(臨漢監)을 설치하여 말 3,200필을 길렀으며, 전 400경이 소요되었다. 『新唐書』卷50「兵志」, 1339쪽, “(元和)十四年置臨漢監於襄州 牧馬三千二百 費田四百頃.”

477 崔珍烈(2013a), 앞의 글, 95~96쪽.

478 『北齊書』卷40「白建傳」, 532~533쪽, “河清三年, 突厥入境, 代·忻二牧悉是細馬, 合數萬匹, 在五臺山北栢谷中避賊. 賊退後, 勅建就彼檢校, 續使人詣建間領馬, 送定州付民養飼. 建以馬久不得食, 瘦弱, 遠送恐多死損, 遂違勅以便宜從事, 隨近散付軍人, 啓知, 勅許焉, 戎乘無損, 建有力焉.”

479 『北史』卷6「齊本紀上·高祖神武帝紀」, 219쪽, “天平元年正月壬辰, 神武西伐費也頭虜紇豆陵伊利於河西, 滅之, 遷其部落於河東.”; 『北齊書』卷2「神武紀」下, 13쪽.

480 崔珍烈(2013a), 앞의 글, 96~97쪽.

[치소는 마읍성(馬邑城), 현재의 산서성 삭현], 북연주[치소는 회용(懷戎), 현재의 하북성 탁록현], 북울주[치소는 영구, 현재의 산서성 영구현], 북항주[치소는 평성, 현재의 산서성 대동시], 북현주[치소는 석성(石城), 현재의 산서성 원평현], 북영주[北靈州, 치소는 무주성, 현재의 산서성 번치현(繁峙縣)]을 교치하였다.⁴⁸¹ 『북제서』 권12 「문선사왕(文宣四王)·범양왕소의전(范陽王紹義傳)」에서 북삭주의 전략적 지위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이 땅은 제의 중진으로 용사들이 다수 모여 있는 곳이다.⁴⁸²

이 6주는 태원 부근에 설치한 6주와는 달리 변방에 위치하였다. 북제 시대에 교치된 이 6주에도 북위 말에 구 육진 출신의 유목민들이 배치되었으므로 이들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 생활을 영위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원과 그 주변은 육진 출신과 각종 유목민이 모인 지역이었다. 이들은 목축 생활을 하며 동위 북제의 육주선비군사라 불리는 군사력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들 군사력을 지휘한 선비 훈귀(鮮卑勳貴)의 거주지이자 제2의 고향이었다.⁴⁸³ 태원과 그 주변에 강력한 군사력의 원천인 소위 육진선비가 있었기 때문에 동위의 고향·고징과 북제 황제들은 태원에 장기 주둔하며 이들을 통제해야 했다.⁴⁸⁴ 한편으로 태원은 황제들이 장기 체류하고 대군이 주둔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산동 지역에서 물자를 운송하여 재정 지출에 충당하였다.⁴⁸⁵ 이처럼 태원과 그 주변 지역은 각종 유목민과 그들이 기

481 王仲榮(1980), 앞의 책, 1152~1153쪽.

482 『北齊書』 卷12 「文宣四王·范陽王紹義傳」, 156쪽, “周武帝克并州, 以封輔相爲北朔州總管. 此地齊之重鎮, 諸勇士多聚焉.”

483 谷川道雄(1998), 앞의 책, 400쪽.

484 毛漢光(2002), 앞의 글, 117쪽.

485 『北史』 卷47 「祖瑩傳附瑒傳」, 1736~1737쪽, “瑒性疏率, 不能廉慎守道. 倉曹雖

르는 가축이 밀집하였다. 그리고 그 북쪽은 유연이나 돌궐과 국경선을 마주하였다. 따라서 동위 북제는 그들의 주요 병력원과 이를 지탱하는 목축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태원 북쪽에 장성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장성 축조의 효과는 보정(保定) 3년(563년) 돌궐의 침입으로 사라졌다. 『주서』 권19 「양충전(楊忠傳)」의 기사를 보자.

돌궐은 이때 군사를 풀어 대거 약탈하니 진양부터 평성에 이르는 칠백여 리에 사람과 가축은 남아 있지 않았고 사로잡히거나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⁴⁸⁶

위의 인용문에서 보정 3년(563년) 돌궐과 북주가 북제 공격할 때 태원(진양)~평성 사이 700여 리 지역이 돌궐의 약탈로 크게 피해를 입었음을 기록하였다. 이는 북제가 장성을 축조한 주요 목적, 즉 동위 북제의 군사력의 근간인 유목민(선비)과 그들의 경제적 근간인 가축을 보호하려는 장성 축조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云州局，及受山東課輸，由此大有受納，豐於財產。” 노용은 병주 일대에 흉년이 들자 산동의 향조(鄉租)를 운반하였다. 『北齊書』卷22 「盧文偉傳附勇傳」, 322쪽, “高祖署勇丞相主簿，屬山西霜儉，運山東鄉租輸，皆令載實，違者治罪，令勇典其事，琅邪公主虛僦千餘車，勇繩劾之。” 흉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산동 지역의 물자를 병주(진양) 일대로 수송했던 것은 진양이 정치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다.

486 『周書』卷19 「楊忠傳」, 318쪽, “突厥於是縱兵大掠，自晉陽至(變)[平]城七百餘里，人畜無孑遺，俘斬甚衆。”

IV. 서위 북주의 장성 축조 부진과 그 배경

1. 서위 북주와 돌궐의 화의

서위 북주의 장성 기사는 거의 없다. 서위의 실력자 우문태는 대통(大統) 14년(548) 서위 태자와 서쪽 지역을 순무하였다. 우문태 일행은 안정군을 출발하여 농산(隴山)에 오르고 안양(安陽)과 원주(原州)에 이르러 장성 일대를 순시한 후 오원을 방문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포천(蒲川)에서 서위 문제의 질병 소식을 듣고 귀환하였다.⁴⁸⁷ 우문태의 일정 가운데 장성 순시가 보이는 것은 북쪽의 유목 국가인 유연·돌궐에 대한 방어 시설로 장성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위 북주는 북제가 망할 때까지 북쪽 변경에 장성을 축조하지 않았다. 북주가 장성을 축조한 것은 화북을 통일한 이후인 선제 대상 원년(579년)이었다. 『주서』 「선제기(宣帝紀)」에는 산둥 제주(諸州)의 백성들을 징발하여 장성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보인다.⁴⁸⁸ 원문은 ‘수(修)’로 표기되었다. 『자치통감』 호주에서는 “북제가 쌓은 장성을 수리한 것이다(修齊所築長城也).”⁴⁸⁹ 라는 주석을 단 것을 보면 장성을 새로 축조한 것이 아니라 동위 북제의 장성을 개 보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서』 권30 「우익전(于翼傳)」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487 『周書』卷2「文帝紀」下 大統十四年夏五月條, 31쪽, “夏五月, 進授太祖太師. 太祖奉魏太子巡撫西境, 自新平出安定, 登隴, 刻石紀事, 下安陽, 至原州, 歷北長城, 大狩, 將東趣五原, 至蒲川, 聞魏帝不豫, 遂還.”

488 『周書』卷7「宣帝紀」大象元年六月條, 120쪽, “發山東諸州民, 修長城.”

489 『資治通鑑』卷173「陳紀」7 宣帝太建十一年條, 5398쪽, “六月, 周發山東諸民脩長城(胡註: 脩齊所築長城也. 齊築長城, 見百六十六卷梁敬帝太平元年).”

대상 초에 대사도(大司徒)에 임명되었다. [선제(宣帝)는] 조서를 내려 우익(于翼)에게 장성을 순시하고 정장(亭鄣)을 세울 것을 명령했다. 우익은 서쪽의 안문(鴈門)으로부터 동쪽의 갈석(碣石)에 이르기까지 새로 만들고 옛것을 고쳤으니 모두 그 요해를 얻었다고 말한다.⁴⁹⁰

위의 기록을 보면 현재의 산서성 북부에서 하북성 북부에 해당하는 안문~갈석 사이의 지역에 방어 시설인 정·장을 설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위 북주는 선제 대상 원년에 처음으로 장성을 축조하였다. 그러면 서위 북주가 장기간 장성을 축조하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위 북주와 유연·돌궐의 연합 덕분이다. 우문태는 서위 문제 대통 원년에 유연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주서』 권33 「양천전(楊荐傳)」의 기사를 보자.

위 대통 원년(535년), 연연(유연)은 화친을 청하였다. 문제(우문태)는 양천(楊荐)과 양관(楊寬)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우문태와 유연 사이의) 결혼을 결정하고 돌아왔다. 작위가 후(侯)로 승격되었다. 또 문제는 양천에게 연연에게 납폐(納幣)하도록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문제의 옥구려(郁久閼) 황후가 죽은 후, 문제는 북야(僕射) 조선(趙善)을 연연에 사신으로 보내 다시 혼인을 청하도록 하였다. 조선이 하주에 이르러 연연이 동위 편으로 기울어지고 사자(使者)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선은 두려워하여 서위로 돌아왔다. 문제는 이에 양천을 사신으로 보내며 황금 10근과 잡채(雜彩)

490 『周書』 卷30 「于翼傳」, 526쪽, “大象初, 徵拜大司徒, 詔翼巡長城, 立亭鄣, 西自鴈門, 東至碣石, 創新改舊, 咸得其要害云.”

3백 필을 하사하였다. 양천은 연연에 이르러 연연이 배신하고 약속을 어긴 점을 질책하며 아울러 결혼의 뜻을 논하였다. 연연은 깨닫고 사신을 보내 양천을 따라 서위로 가서 문제에게 연연의 입장을 보고하도록 하였다.⁴⁹¹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서위는 대통 원년(535년) 유연(연연)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 서위 문제는 황후 옥구려씨가 죽은 후 다시 유연과 혼인 동맹을 맺으려고 하였다. 이때 유연은 서위를 배신하고 동위와 연합하려고 하였다. 이때 양천은 황금 10근과 잡채 3백 필을 가지고 유연에 가서 서위와의 혼인 동맹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서위는 대유연 외교에서 동위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서위 우문태가 대통 16년(550년) 동위를 공격할 때 유연이 허를 찔러 침입할 것을 두려워하여 양천을 유연에 보내 화친하였다.⁴⁹² 동위와 서위가 싸우는 틈을 타고 유연이 변경에 침입하자 사적치(庫狄峙)가 유연에 파견되어 침입을 그치게 하였다.⁴⁹³ 북제(동위)가 양창(楊暢)을 유연에 보내 화친하자 우문태는 하약의(賀若誼)를 보내 후리(厚利)로 유연을 설득하여 유연이 서위와 화친하였다.⁴⁹⁴ 이러한 예에서 서위가 유연과 화친하려는 이유가 동위를 공격할 때

491 『周書』卷33「楊荐傳」, 571쪽, “魏大統元年, 蠕蠕請和親. 文帝遣荐與楊寬使, 並結婚而還. 進爵爲侯. 又使荐納幣於蠕蠕. 魏文帝郁久閭后崩, 文帝遣僕射趙善使蠕蠕更請婚. 善至夏州, 聞蠕蠕貳於東魏, 欲執使者. 善懼, 乃還. 文帝乃使荐往, 賜黃金十斤·雜彩三百疋. 荐至蠕蠕, 責其背惠食言, 並論結婚之意, 蠕蠕感悟, 乃遣使隨荐報命焉.”

492 『周書』卷33「楊荐傳」, 571쪽, “十六年, 大軍東討. 文帝恐蠕蠕乘虛寇掠, 乃遣荐往更論和好, 以安慰之.”

493 『周書』卷33「庫狄峙傳」, 569쪽, “時與東魏爭衡, 戎馬不息, 蠕蠕乘虛, 屢爲邊患. 朝議欲結和親, 乃使峙往. 峙狀貌魁梧, 善於辭令, 蠕蠕主雅信重之, 自是不復爲寇.”

494 『隋書』卷39「賀若誼傳」, 1159쪽, “齊遣其舍人楊暢結好於茹茹, 太祖恐其並力, 爲邊境之患, 使誼聘茹茹. 誼因啖以厚利, 茹茹信之, 遂與周連和, 執暢付誼.”

배후에서 습격 받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유연의 지배를 받았던 돌궐의 토문가한(土門可汗)이 대통 12년(546년) 유연의 아나괴(阿那瓌)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서위에 구혼하였고 우문태는 이를 허락하였다. 대통 17년(551년) 서위의 장락공주(長樂公主)를 토문가한의 처로 보냈다.⁴⁹⁵ 돌궐이 폐제 원년(552년) 유연을 정복하자⁴⁹⁶ 외교의 주요 대상은 유연에서 돌궐로 바뀌었다. 우문태는 돌궐이 서위뿐만 아니라 동위와도 통교하자 공제(恭帝) 원년(554년) 사적치를 돌궐에 파견하여 서위의 편에 서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북제 사신을 잡아서 돌아왔다.⁴⁹⁷ 그러나 돌궐은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서위 북주와 동위 북제 모두와 화친하는 전략을 썼다. 서위 북주는 이러한 돌궐과 혼인 동맹을 맺으려고 애썼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서』 권33 「양천전」에 보인다.

효민제(孝閔帝)의 즉위 이후 어백대부(御伯大夫)에 제수되고 요곡현공(姚谷縣公)으로 작위가 올라갔다. 이에 돌궐에 혼인을 맺도록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돌궐 가한(可汗)의 아우 지두가한(地頭可汗) 아사나고두(阿史那庫頭)는 동면에 거하여 제와 화친하여 그의 형에게 선약을 배신하라고 꼬셨다. 계모(計謀)가 이미 정해지고 양천 등을 제로 보내려고 하였다. 양천은

495 『周書』卷50「異域下·突厥傳」, 908쪽, “十二年, 土門遂遣使獻方物。時鐵勒將伐茹茹, 土門率所部邀擊, 破之, 盡降其衆五萬餘落。恃其強盛, 乃求婚於茹茹。茹茹主阿那瓌大怒, 使人罵辱之曰: ‘爾是我鍛奴, 何敢發是言也?’ 土門亦怒, 殺其使者, 遂與之絕, 而求婚於我。太祖許之。十七年六月, 以魏長樂公主妻之。”

496 『周書』卷50「異域下·突厥傳」, 909쪽, “魏廢帝元年正月, 土門發兵擊茹茹, 大破之於懷荒北。阿那瓌自殺, 其子庵羅辰奔齊, 餘衆復立阿那瓌叔父鄧叔子爲主。土門遂自號伊利可汗, 猶古之單于也。號其妻爲可賀敦, 亦猶古之闕氏也。”

497 『周書』卷33「庫狄峙傳」, 570쪽, “恭帝元年, 征拜侍中。蠕蠕滅後, 突厥強盛, 雖與文帝通好, 而外連齊氏。太祖又令峙銜命喻之。突厥感悟, 卽執齊使, 歸諸京師。”

그 의도를 알고 정색하여 돌궐 가한을 질책했는데, 말의 기운이 강개(慷慨) 하였으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가한은 애처롭게 생각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행히 의심할 바가 없으니 당연히 함께 동적(東賊)을 평정한 연후에 내 딸을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양천을 먼저 보내 보고하게 하고 동토(東討)를 청하게 하였다. 사신으로 수행한 것이 황제의 뜻에 부합하여 대장군으로 승진하였다. 보정 4년(564년) 돌궐에 남폐하리 파견되었다. 돌아와서 소사마(小司馬)에 임명되었고 대사도를 대행하였다. 진공(陳公) 순(純) 등을 따라 돌궐에 가서 가한의 딸을 데려왔으며 남안군공(南安郡公)으로 작위가 승격되었다.⁴⁹⁸

위의 인용문을 보면 당시 돌궐의 지두가한 아사나고두는 북제와 화친하도록 형에게 선악을 어기라고 권하였다. 양천은 이 사실 알고 질책하여 혼인 동맹을 맺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위의 인용문처럼 평탄하지 않았다. 『주서』 「돌궐전(突厥傳)」을 보자.

보정 원년(561년)에 다시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내 그 토산물을 바쳤다. 북주는 이때 북제와 서로 싸우고 군대를 매년 움직였기 때문에 돌궐과 연결하여 외부의 지원세력으로 삼았다. 처음에 서위 공제 때에 사근(俟斤)이 북주 문제(우문태)에게 딸을 바칠 것을 허락하였으나 약속하기 전에 북주 문

498 『周書』卷33「楊荐傳」, 571쪽, “孝閔帝踐阼, 除御伯大夫, 進爵姚谷縣公, 仍使突厥結婚, 突厥可汗弟地頭可汗阿史那庫頭居東面, 與齊通和, 說其兄欲背先約, 計謀已定, 將以荐等送齊, 荐知其意, 乃正色責之, 辭氣慷慨, 涕泗橫流, 可汗慘然良久曰: ‘幸無所疑, 當共平東賊, 然後發遣我女.’ 乃令荐先報命, 仍請東討, 以奉使稱旨, 遷大將軍, 保定四年, 又納幣於突厥, 還, 行小司馬, 又行大司徒, 從陳公純等逆女於突厥, 進爵南安郡公.”

제(우문태)가 죽었다. 얼마 되지 않아 사근이 다시 무제에게 그의 다른 딸을 바치는 것에 대해 허락하였으나 아직 납채(納采)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제에서 역시 사신을 보내 구혼하자 사근이 그의 재물이 더 많음을 탐하고 나중에 북주에 청혼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에 이르자 무제가 조칙을 내려 양주자사 양천과 무백(武伯) 왕경(王慶) 등을 보내 결혼 문제를 담판하도록 했다. 왕경 등이 도착하여 신의로서 사근을 타이르니 사근이 마침내 북제와의 사신 관계를 끊고 혼인을 결정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동쪽으로 북제 정벌을 청하였다. [보정 3년(563년)에] 조칙을 내려 수공(隨公) 양충(楊忠)에게 1만을 거느리고 돌궐과 함께 북제를 공격하게 했다. 양충의 군대가 형령(陁嶺)을 넘으니 사근이 이끄는 기병 10만이 와서 만났다. 다음 해(564년) 정월에 태원에서 북제의 황제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사근이 마침 제멋대로 군대를 부려 크게 약탈하고 돌아가 버렸다. 양충이 돌아와 무제에게 말하였다. “돌궐 군대는 나쁩니다. 작(爵)과 상(賞)을 가볍게 여기고 수령이 많고 법령이 없으니 무엇으로도 제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사신들이 허황되게 돌궐의 강성함을 말하고 나라가 돌궐의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하면서 사신이 몸소 가서 이중으로 보상을 얻으려 합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거짓말만 듣고 장군과 사졸들은 돌궐의 기세를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랑캐가 용맹하게 보이는 것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다루기 쉽습니다. 이제 신이 전후 사정을 보아하니 전후의 사신들은 모두 참해야 마땅합니다.” 무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해에 사근이 다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며 다시 동쪽의 정벌을 청하였다. 양충에게 조칙을 내려 병사를 거느리고 옥야진을 나아가자 진공(晉公) 우문호(宇文護)가 낙양으로 진격하여 호응하였다. 마침 진공 우문호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사근이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 버렸다. (보정) 5년(565년)

에 조칙을 내려 진공 우문순과 대사도 우문귀(宇文貴), 신무공(神武公) 두의(竇毅), 남안공(南安公) 양천 등이 가서 사근의 딸을 맞이하도록 했다. 천화 2년(567년)에 사근이 다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진공 우문순(宇文純) 등이 돌궐에 도착했을 때 사근이 다시 북제와 내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자 바로 진공 우문순 등이 황후[아사나씨(阿史那氏)]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⁴⁹⁹

위의 글을 보면 『주서』 「양천전」의 기록과 조금 다르다. 돌궐가한(突厥可汗) 사근은 북제가 더 많은 재물을 주며 혼인 동맹을 청하자 북주와의 통혼 허락을 후회하였다. 이때 양천과 왕경이 설득하여 사근은 혼인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주서』 「왕경전(王慶傳)」에 따르면 돌궐가한이 북제가 우문호 생모 돌려보낸 일로 두 나라가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오인하자⁵⁰⁰ 왕경이 돌궐에 가서 설

499 『周書』卷50「異域下·突厥傳」, 911쪽, “保定元年, 又遣三輩, 貢其方物, 時與齊人交爭, 戎車歲動, 故連結之, 以爲外援. 初, 恭帝時, 侯斤許進女於周文帝, 契未定而周文崩, 尋而侯斤又以他女許武帝, 未及結納, 齊人亦遣求婚, 侯斤貪其幣厚, 將悔之. 至是, 武帝詔遣涼州刺史楊荐·武伯王慶等往結之. 慶等至, 諭以信義, 侯斤遂絕齊使而定婚焉. 仍請舉國東伐, 於是詔隨公楊忠率衆一萬與突厥伐齊. 忠軍度陁嶺, 侯斤率騎十萬來會. 明年正月, 攻齊主於晉陽, 不剋, 侯斤遂縱兵大掠而還. 忠還, 言於武帝曰:「突厥甲兵惡, 賞罰輕, 首領多而無法令, 何謂難制馭? 由比者使人妄道其強盛, 欲令國家厚其使者, 身往重取其報. 朝廷受其虛言, 將士望風畏懼, 但虜態詐健, 而實易與耳. 今以臣觀之, 前後使人皆可斬也.」武帝不納. 是歲, 侯斤復遣使來獻, 更請東伐. 詔楊忠率兵出沃野, 晉公護趣洛陽以應之. 會護戰不利, 侯斤引還. 五年, 詔陳公純·大司徒宇文貴·神武公竇毅·南安公楊荐往逆女. 天和二年, 侯斤又遣使來獻, 陳公純等至, 侯斤復貳於齊. 會有雷風變, 乃許純等以后歸.”

500 『周書』卷11「晉蕩公護傳」, 169쪽, “初, 太祖創業, 卽與突厥和親, 謀爲倚角, 共圖高氏. 是年, 乃遣柱國楊忠與突厥東伐, 破齊長城, 至并州而還. 期後年更舉, 南北相應. 齊主大懼. 先是, 護母閭姬與皇第四姑及諸戚屬, 並沒在齊, 皆被幽繫. 護居宰相之後, 每遣間使尋求, 莫知音息. 至是, 並許還朝, 且請和好. 四年, 皇姑先至.

득하니 사근이 다시 마음을 돌려 북주와 화친하였다.⁵⁰¹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돌궐의 가한은 돌궐과 북주가 북제를 함께 공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돌궐과 북주는 보정 4년(564년) 정월⁵⁰²과 팔월⁵⁰³ 두 차례에 걸쳐 함께 북제를 공격하였다. 이후 북주는 다음 해에 돌궐에 혼인 동맹을 위해 진국공(陳國公) 우문순, 우문귀, 두의, 양천 등을 보냈다.⁵⁰⁴ 그러나 양자의 혼인 동맹은 순조롭지 않았다. 북주의 사신이 가한의 딸을 데려온 시기는 천화 3년(568년)이었다.⁵⁰⁵ 북주 무제가 황후 아사나씨를 데려오기까지 보정 원년(561년)부터 천화 3년(568년)까지 7여 년이 걸렸다. 북주와 북제가 돌궐가한과 혼인 동맹을 맺으려고 애를 쓴 것은 두 나라가 서로 싸울 때 돌궐의 지지가 승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북주는 돌궐과 혼인 동맹을 맺고 돌궐의 지지를 얻어 북제와의 전쟁에서 외교적·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주가 돌궐을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데 들인 경제적 비용은 상당했다. 『주서』 권50 「이역하·돌궐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잘 기록되었다.

齊主以護既當權重，乃留其母，以爲後圖。”

- 501 『周書』卷33 「王慶傳」, 575쪽, “是歲, 遂興入並之役, 慶乃引突厥騎, 與隨公楊忠至太原而還, 以齊人許送皇姑及世母, 朝廷遂與通和, 突厥聞之, 復致疑阻, 於是又遣慶往諭之, 可汗感悅, 結好如初, 五年, 復與宇文貴使突厥逆女, 自此, 以慶信著北蕃, 頻歲出使.”
- 502 『周書』卷5 「武帝紀」上 保定四年春正月庚申條, 69쪽, “四年春正月庚申, 楊忠破齊長城, 至晉陽而還.”
- 503 『周書』卷5 「武帝紀」上 保定四年八月丁亥朔條, 70쪽, “詔柱國楊忠率師與突厥東伐, 至北河而還.”
- 504 『周書』卷5 「武帝紀」上 保定五年二月辛酉條, 71쪽, “二月辛酉, 詔陳國公純·柱國許國公宇文貴·神武公竇毅·南安公楊(薦)[荐]等, 如突厥逆女.”
- 505 『周書』卷5 「武帝紀」上 天和三年三月癸卯條, 75쪽, “三月癸卯, 皇后阿史那氏至自突厥.”

사근이 죽고 아우 타스파르 카간[他鉢可汗, Taspar Qaghan]이 즉위하였다. 사근 이래에 그 나라는 부강하였고 중하를 능력(凌轡)할 뜻을 지녔다. 북주 조정은 이미 돌궐과 화친하여 해마다 증(繒)·서(絮)·금(錦)·채(綵) 십만 단을 돌궐에 주었다. 북주 경사에 있는 돌궐인들은 또 좋은 대접을 받았고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 자들은 늘 1천 인을 헤아렸다. 북제 사람들은 돌궐이 침입하여 약탈할 것을 두려워하여 또 창고의 재물을 돌궐에게 주었다. 타발(他鉢)은 곧이어 다시 교만해져서 그 도속(徒屬)에게 ‘남쪽에 있는 두 아이들이 내게 효순(孝順)하니 물자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⁵⁰⁶

북주는 돌궐에 증·서·금·채 10만 단을 바쳤고⁵⁰⁷ 수도 장안에 1천 인 이상의 돌궐인의 체류와 접대비용을 부담하였다. 이는 북주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돈과 물자로 산 평화 덕분에 북주는 북제처럼 돌궐을 막기 위해 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

506 『周書』卷50「異域下·突厥傳」, 911쪽, “侯斤死, 弟他鉢可汗立. 自侯斤以來, 其國富彊, 有凌轡中夏志. 朝廷既與和親, 歲給繒絮錦綵十萬段. 突厥在京師者, 又待以優禮, 衣錦食肉者, 常以千數. 齊人懼其寇掠, 亦傾府藏以給之. 他鉢彌復驕傲, 至乃率其徒屬曰: 但使我在南兩箇兒孝順, 何憂無物邪.”

507 『隋書』卷46「元暉傳」에서는 돌궐의 침입과 약탈을 막기 위해 원휘(元暉)에게 금채(錦綵) 10만을 가지고 돌궐을 설득하도록 하여 결국 성공하였다. 『隋書』卷46「元暉傳」, 1256쪽, “于時突厥屢爲寇患, 朝廷將結和親, 令暉齎錦彩十萬, 使於突厥. 暉說以利害, 申國厚禮, 可汗大悅, 遣其名王隨獻方物.”

2. 북주 통일 이후 돌궐의 침입과 장성 축조

북주와 돌궐의 평화는 북주의 북제 정복과 화북 통일 이후 깨졌다. 북주 무제가 건덕(建德) 6년(577년) 업에서 체포된 북제 후주를 맞이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북제 행대와 주진의 항복을 받아 북제 정복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북제의 범양왕(范陽王) 고소의(高紹義)는 돌궐로 도망갔다.⁵⁰⁸ 또 구 북제 지역에서 반란이 빈발하였다. 예컨대 건덕 6년 십이월에 고보녕(高寶寧)의 반란이 일어났다.⁵⁰⁹ 이어서 선정(宣政) 원년 윤월 을해일에 유주 사람 노창기(盧昌期)·조영백(祖英伯)·송호(宋護) 등이 범양(范陽)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북주의 의동삼사(儀同三司)에 임명되었다가 모친상을 당해 고향에 온 노사도(盧思道)도 가담하였다.⁵¹⁰ 노씨와 조씨는 범양군의 대표적인 토착 세력이자 문벌이었으므로 이 반란은 범양군의 토착호족이 북주에 반기를 든 것이다. 북주는 우문신거(宇文神舉)에게 토벌하게 하였다.⁵¹¹ 이 두 반란의 배후에는 북삭주에서 부흥 운동을 펼치다가 돌궐로 도망간 고소의가 있었다. 고소는는 돌궐로 망명한 북제 사람들을 거느리고 평주를 점령하였으며, 영주(營州)의 고보녕 및 노창기와 연락을 취하였다. 이에 고무된 돌궐의 타스파르 카간은 북주를 공격하려고 하였

508 『周書』卷6「武帝紀」下 建德六年條, 101쪽, “二月丙午, 論定諸軍功勳, 置酒於齊太極殿, 會軍士以上, 班賜有差. 丁未, 齊主至, 帝降自阼階, 以賓主之禮相見. 高潛冀州擁兵未下, 遣上柱國·齊王憲與柱國·隨公楊堅率軍討平之. 齊定州刺史·范陽王高紹義叛入突厥, 齊諸行臺州鎮悉降, 關東平.”

509 『周書』卷6「武帝紀」下 建德六年十二月條, 105쪽, “是月, 北營州刺史高寶寧據州反.”

510 『隋書』卷57「盧思道傳」, 1398쪽, “周武帝平齊, 授儀同三司, 追赴長安, 與同輩陽休之等數人作聽蟬鳴篇, …… 未幾, 以母疾還鄉, 遇同郡祖英伯及從兄昌期·宋護等舉兵作亂, 思道預焉.”

511 『周書』卷7「宣帝紀」宣政元年閏月乙亥條, 116쪽, “是月, 幽州人盧昌期據范陽反, 詔柱國·東平公宇文神舉帥衆討平之.”

다. 후에 고보녕의 제군(齊軍)은 우문신거가 보낸 우문은(宇文恩)의 군대를 격파하였다.⁵¹²

고소의를 배후 조종한 돌궐은 북주의 변경을 침입하였다. 돌궐은 선정 원년(578년) 하 사월 임자일에 유주를 침입하여 약탈하였다.⁵¹³ 돌궐의 약탈은 피해자들에게 1년의 조세와 요역을 면제해야 할 정도로⁵¹⁴ 피해가 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돌궐의 침입은 북제의 부흥운동과 관련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변경 약탈이 아니었다. 이를 간파한 무제는 돌궐 친정을 결정하고 오월 기축일에 장안을 출발하였지만 계사일에 병에 걸려 운양궁(雲陽宮)에 머물렀고 공격을 정지시켰다.⁵¹⁵ 그리고 유월 정유일에 장안으로 돌아오던 도중 사망하였다.⁵¹⁶

무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돌궐의 침입과 약탈은 그치지 않았다.⁵¹⁷ 무제

512 『北史』卷52「齊宗室諸王下·文宣諸子·范陽王紹義傳」, 1885쪽, “突厥他鉢可汗謂文宣爲英雄天子, 以紹義重蹀似之, 甚見愛重, 凡齊人在北者, 悉隸紹義, 高寶寧在營州, 表上尊號, 紹義遂即皇帝位, 稱武平元年以趙穆爲天水王, 他鉢聞寶寧得平州, 亦招諸部, 各舉兵南向, 云共立范陽王作齊帝, 爲其報讎, 周武帝大集兵於雲陽, 將親北伐, 遇疾暴崩, 紹義聞之, 以爲天贊已, 盧昌期據范陽, 亦表迎紹義, 俄而周將宇文神舉攻滅昌期, 其日, 紹義適至幽州, 聞周總管出兵于外, 欲乘虛取薊城, 列天子旌旗, 登燕昭王冢, 乘高望遠, 部分兵衆, 神舉遣大將軍宇文恩將四千人馳救幽州, 半爲齊軍所殺.”

513 『周書』卷6「武帝紀」下 宣政元年夏四月壬子條, 106쪽, “庚申, 突厥入寇幽州, 殺掠吏民, 議將討之.”

514 『周書』卷7「宣帝紀」宣政元年閏月乙亥條, 115쪽, “閏月乙亥, 詔山東流民新復業者, 及突厥侵掠家口破亡不能存濟者, 並給復一年.”

515 『周書』卷6「武帝紀」下 宣政元年五月條, 106쪽, “五月己丑, 帝總戎北伐, 遣柱國原公姬願·東平公宇文神舉等率軍, 五道俱入, 發關中公私驢馬, 悉從軍, 癸巳, 帝不豫, 止于雲陽宮, 丙申, 詔停諸軍事.”

516 『周書』卷6「武帝紀」下 宣政元年六月丁酉條, 106쪽, “六月丁酉, 帝疾甚, 還京, 其夜, 崩於乘輿, 時年三十六.”

517 『周書』卷7「宣帝紀」宣政元年十一月條, 117쪽, “是月, 突厥寇邊, 圍酒泉, 殺掠吏民.”

가 죽은 선정 원년(578년) 십일월에 돌궐은 주천(酒泉) 지역을 약탈하였다. 대상 원년(579년) 오월 돌궐은 다시 병주를 침입하였다.⁵¹⁸ 선제는 이러한 돌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같은 해 유월에 앞에서 언급한 장성을 축조한 것이다.⁵¹⁹

북주는 돌궐의 침입을 막기 위해 양면책을 사용하였다. 북주 무제가 돌궐을 친정하러 가다가 죽은 이후 대대적인 공격은 포기하였지만, 장성을 수축하고 변방의 방어를 강화하였다. 장성 축조 책임을 맡은 우익은⁵²⁰ 유주총관이 되어 유주·정주 등 7주 6진의 군사를 감독하였다. 우익은 척후를 두고 방비하니 돌궐은 변방을 침입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⁵²¹

한편 북주는 돌궐의 침입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상 원년(579년) 이월 계해일에 조왕(趙王) 우문초(宇文招)의 딸을 돌궐에 보내기로 하였고,⁵²² 다음 해(580년) 춘 이월 무오일에 천금공주(千金公主, 우문초의 딸)를 보냈다.⁵²³ 북주는 천금공주를 돌궐에 보내며 막대한 재물을 바쳤을 것이다. 또 북주는 돌궐의 타스파르 카간을 매수하여 고소의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다.⁵²⁴

518 『周書』卷7「宣帝紀」大象元年五月條, 120쪽, “是月, 遣使簡視京兆及諸州土民之女, 充選後宮. 突厥寇并州.”

519 『周書』卷7「宣帝紀」大象元年六月條, 120쪽, “是月, 咸陽有池水變爲血. 發山東諸州民, 修長城.”

520 『周書』卷30「于翼傳」, 526쪽, “大象初, 徵拜大司徒, 詔翼巡長城, 立亭鄣. 西自鴈門, 東至碣石, 創新改舊, 咸得其要害云.”

521 『周書』卷30「于翼傳」, 526쪽, “仍除幽定七州六鎮諸軍事·幽州總管. 先是, 突厥屢爲寇掠, 居民失業, 翼素有威武, 兼明斥候, 自是不敢犯塞, 百姓安之.”

522 『周書』卷7「宣帝紀」大象元年二月癸亥條, 118쪽, “以趙王招女爲千金公主, 嫁於突厥.”

523 『周書』卷7「宣帝紀」大象二年春二月戊午條, 122쪽, “戊午, 突厥遣使獻方物, 且逆千金公主.”

524 『周書』卷8「靜帝紀」大象二年秋七月甲申條, 132쪽, “周人購之於他鉢, 又使賀若誼往說之. 他鉢猶不忍, 遂僞與紹義獵於南境, 使誼執之, 流于蜀.” 『周書』에서

요컨대 서위 북주의 장성 축조는 북아시아의 유목 국가 유연·돌궐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서위 북주와 유연·돌궐이 평화 관계일 때는 장성이 필요 없었지만 양자가 적대 관계로 돌아선 후 돌궐의 침입과 약탈을 막기 위해 장성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V. 맺음말 - 이민족 왕조의 장성 축조의 의의

2~4장에서 북위와 동위 북제의 장성 축조 과정과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북위와 동위 북제가 장성을 축조한 가장 큰 이유는 북아시아 몽골 고원을 지배한 유연과 돌궐 등 유목 국가의 남침과 약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필자는 북위가 방어 목적 이외에 장성이 북위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호인들의 도망을 방지하는 기능과 수도 평성과 그 북쪽·서쪽에 위치한 호인들과 가축들의 약탈을 막으려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음을 추론하였다. 동위 북제도 실질적인 수도였던 태원(진양)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호인 및 그 가축을 보호하는 목적도 장성 축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았다. 다만 서위 북주는 장성을 거의 축조하지 않았다.

북조 여러 나라의 장성 축조에 차이가 보이는 것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북위는 장성을 축조하였지만 유연에 대해 수비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유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유연의 백성과 가축을 노획하였다. 따

는 돌궐이 북추(北秋) 칠월 갑신일에 돌궐에 항복한 북제의 종실 고소의(高紹義)를 돌려보냈다고 기록하였다. 『北史』 卷52 「齊宗室諸王下·文宣諸子·范陽王紹義傳」, 1885쪽, (“秋七月甲申, 突厥送齊范陽王高紹義.”)

라서 장성은 방어보다 북위 치하 호인의 도망과 가축 보호 목적이 더 강하였다. 반면 동위 북제는 패망한 유연과 거란·고막해 등에는 공세를 취하였지만, 유연을 멸하고 북아시아 초원 지대를 지배한 돌궐에는 저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장성 축조의 목적은 동위 북제의 지배층이자 병력의 공급원이었던 호인(육진선비)과 그 가축의 보호와 함께 국경선의 방어도 있었다. 그래서 북제는 북변뿐만 아니라 서위 북주를 방어하기 위해 서쪽 국경선에 각종 방어 시설을 축조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서위 북주는 유연·돌궐과 연합하여 동위 북주에 대항하는 외교·군사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약탈의 위험성이 적었다. 따라서 서위 북주는 장성 축조의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화북 통일 이후 돌궐이 북쪽 변경을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상 원년(578년) 장성 개보수는 이러한 돌궐의 약탈을 막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이민족 왕조인 북조 시대에도 장성을 축조하였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제 보정 4년(564년) 북주는 돌궐과 연합하여 북제를 공격하였다. 이때 양충이 북제의 장성을 ‘파(破)’한 후 북제의 실질적인 수도이자 군사적 중심지인 태원까지 진격하였다.⁵²⁵ ‘파’가 단순한 장성의 돌파인지 장성의 물리적인 파괴인지 알 수 없으나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음은 확실하다.

이 글에서 살펴본 북조 시대 장성 축조와 그 기능은 몽골제국[몽원(蒙元) 혹은 원(元)], 청과 달랐다. 중국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배한 이민족 왕조를 침투 왕조와 정복 왕조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몽골 고원과 중국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배한 이민족 왕조인 몽골 및 청과 중국의 일부를 지배한 오호제국·

525 『周書』卷5「武帝紀」上 保定四年春正月庚申條, 69쪽, “四年春正月庚申, 楊忠破齊長城, 至晉陽而還.”

북조·금은 장성의 필요성 여부가 달랐다. 즉 전자의 이민족 왕조는 장성이 필요 없었으나 후자의 이민족 왕조는 몽골 고원에 웅거한 유목 국가의 남침과 약탈을 막기 위해 장성이 필요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본 북조 시대는 물론 후자에 속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

- 國家文物局 主編(2007), 『中國文物地圖集·山西分冊』上册, 中國地圖出版社.
- 國家文物局 主編(2003), 『中國文物地圖集·內蒙古分冊』上册, 西安地圖出版社.
- 『讀史方輿紀要』[顧祖禹 撰·賀次君 等 點校(2006), 北京: 中華書局].
- 『北史』.
- 『北齊書』.
- 史爲樂 主編(2005),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水经·洞过水注』.
- 『水经·汾水注』.
- 『水經注·鮑丘水』[段熙仲 點校·陳橋驛 復校(1989), 『水經注疏』,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 『水经·滄水注』.
- 『隋書』.
- 嚴耕望(1963), 『中國地方行政制度史』上編 中卷,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 『元和郡縣圖志』[李吉甫 撰·賀次君 點校(1983), 北京: 中華書局].
- 『日知錄』[顧炎武 著·黃汝成 集釋(1996), 『日知錄集釋』, 長沙: 岳麓書社].
- 『資治通鑑』(標點校勘本, 北京中華書局).
- 张丕远 主編(1996), 『中国历史气候变化』, 濟南: 山东科学技术出版社.
- 『周書』.
- 『中國歷史地圖集』[譚其驤 主編(1982), 北京: 地圖出版社].
- 『魏書』.
- 『通典』.
- 『太平御覽』(1994),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저서

- 金浩東·서울대東洋史學研究室 編(1989),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

- 史』Ⅱ, 知識産業社.
- 김호동·東洋史學會 編(1993),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東亞史上的 王權』, 도서출판 한울.
- 朴漢濟(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 朴漢濟 著·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編(1998),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的 展開」,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諸相』, 知識産業社.
- 劉昭民 著·박기수·차경애 역(2005), 『기후의 반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康樂(1995), 『從西郊到南郊』, 臺北: 稻禾出版社.
- 景愛(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 高旺(1991a), 『內蒙古長城史話』, 內蒙古人民出版社.
- 高旺(1991b), 『長城訪古萬里行』,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 羅新·葉焯(2005), 「狄湛墓誌」,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 北京: 中華書局.
- 白翠琴(1996), 『魏晉南北朝民族史』, 成都: 四川民族出版社.
- 壽鵬飛(1982), 『歷代長城新考』, 臺北: 明文書局.
- 吳宏岐(2006), 『西安歷史地理研究』, 西安: 西安地圖出版社.
- 王國良(1931), 『中國長城沿革考』, 上海: 商務印書館.
- 王國良(1982), 『中國長城沿革考』, 臺北: 明文書局.
- 王明珂(2008), 『遊牧人的抉擇』, 南寧: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王天順(2006), 『河套史』, 北京: 人民出版社.
- 劉金柱(1985), 『萬里長城』,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 李凭(2000), 『道武帝時期的大移民與雁北的開發』,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 陳連慶(1999), 『《魏書·食貨志》校注』,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 陳琳國(1994), 『魏晉南北朝政治制度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 谷川道雄(1998), 『(增補)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 堀敏一(1975), 「北魏における 均田制の成立」, 『均田制の研究』, 岩波書店.
- 前田正名(1979), 『平城の歷史地理學的研究』, 東京: 風間書房.
- 佐藤智水(1984), 「北魏皇帝の行幸について」, 『岡山大·文·紀要』5 通卷45.
- 川本芳昭(1998),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東京: 汲古書院.
- 阪倉篤秀(2004), 『長城の中國史-中華vs.遊牧六千キロの攻防』, 東京: 講談社.

논문

- 崔珍烈(2002), 「北魏의 華北支配와 그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문학 석사학위논문.
- 崔珍烈(2003), 「北魏의 種族政策」, 『魏晉隋唐史研究』 10.
- 崔珍烈(2005), 「北魏의 地域支配方式과 그 性格 - 華北지역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2.
- 최진열(2011),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崔珍烈(2013a), 「東魏北齊의 華北 지배와 그 한계」, 『東洋史學研究』 125.
- 崔珍烈(2013b), 「東魏北齊의 軍事 중심 太原의 전략적 限界 - 군사배치와 방어체제로 본 멸망」, 『동아시아 문화연구』 55.
- 康群(1990), 「秦皇島市境内古长城考」, 『辽海文物學刊』 2.
- 郭建中(2006), 「北魏泰常八年長城尋踪」, 『內蒙古文物考古』 1.
- 毛漢光(2002), 「北魏東魏北齊之核心集團與核心區」, 『中國中古政治史論』,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 高敏(2000), 「北魏의 兵戶制及其演變」, 『魏晉南北朝兵制研究』, 鄭州: 大象出版社.
- 黎虎(1999), 「北魏前期的狩獵經濟」, 『魏晉南北朝史論』, 北京: 學苑出版社.
- 常謙(1998), 「烏盟興和縣北魏長川古城遺址考略」, 『內蒙古文物考古』 1.
- 尚珩(2012), 「北齐长城考」, 『文物春秋』 1.
- 艾冲(1995), 「北朝諸國長城新考」, 『長城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艾冲(2007), 「北朝拓跋魏·高齐·宇文周諸國長城再探索 - 兼与朱大渭先生商榷」, 『社会科学评论』 3.
- 艾冲(2009), 「再論北魏長城的位置與走向 - 與李逸友先生商榷」, 『陝西師範大學繼續教育學報』 3.
- 徐勝一(2003), 「北魏孝文帝遷都洛陽與氣候變化之研究」, 『臺灣師大地理研究報告』 38.
- 楊耀坤(1978), 「北魏末年北鎮暴動分析」, 『歷史研究』 11.
- 楊翠微(1998), 「周武帝滅齊統一北方可能性探析」, 『求是學刊』 3.

- 嚴耀中(1990),「北齊政治與尚書并省」,『上海師範大學學報(哲社版)』4.
- 王國維(2003),「金界壕考」,『觀堂集林』,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
- 王仲犛(1980),『北周地理志』,北京:中華書局(2007重印).
- 王振芳(1991),「論太原在東魏北齊時期的戰略地位」,『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4.
- 殷憲(2012),「北魏畿上塞圍考辨」,『平城史稿』,北京:科學出版社.
- 李文信(1979),「中國北方長城沿革考」下,『社會科學輯刊』2.
- 李并成(1996),「〈魏書·食貨志〉“河西”地望考辨」,北京:社會科學出版社.
- 李并成·李春元(1996),『瓜沙史地研究』,甘肅文化出版社.
- 李逸友(1964),「烏拉特前旗哈德門溝口漢代城堡」,『內蒙古文物資料選輯』,內蒙古人民出版社.
- 李逸友(2001),「中國北方長城考述」,『內蒙古文物考古』1.
- 張金龍(2002),「北魏前期的北邊防務及其與柔然的征戰關係」,『北魏政治與制度論稿』,蘭州:甘肅教育出版社.
- 張敏(2003),「論北魏長城-軍鎮防禦體系的建立」,『中國邊疆史地研究』13-2.
- 張蔚(2012),「北魏長城與金界壕對比研究」,『東北史地』6.
- 鄭紹宗(2009),「河北古代長城沿革考略(上)」,『文物春秋』3.
- 趙超(1992),「君諱裔(韓裔)墓誌」,『漢魏南北朝墓誌彙編』,天津:天津古籍出版社.
- 朱大渭(1998),「北魏的國營畜牧業經濟」,『六朝史論』,中華書局.
- 朱大渭(2007),「北朝歷史建置長城及其軍事戰略地位」,『六朝史論續編』,北京:學苑出版社.
- 周一良(1998a),「北朝的民族問題與民族政策」,『周一良集』第壹卷 魏晉南北朝史論,瀋陽:遼寧教育出版社.
- 周一良(1998b),「領民酋長與六州都督」,『周一良集』第壹卷 魏晉南北朝史論,瀋陽:遼寧教育出版社.
- 周一良(1998c),「北齊書札記·各立一省條」,『魏晉南北朝史札記』,瀋陽:遼寧教育出版社.
- 周一良(1998d),「馬場」,『周一良集』第貳卷 魏晉南北朝史札記,瀋陽:遼寧教育出版社.
- 崔彥華(2010),「“鄴-晉陽”兩都體制與東魏北齊政治」,『社會科學戰線』7.

- 竺可楨 著·葛劍雄·華林甫 編(2002), 「中國近五千年來氣候變遷」, 『歷史地理研究』,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 布雷特·辛斯基 編(2003), 「氣候變遷和中國歷史」, 『中國歷史地理論叢』 2.
- 何德章(1993), 「“陰山却霜”之俗解」,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12.
- 項春松(1981),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查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北京: 文物出版社.
- 胡玉春(2012), 「從柔然汗國與北魏的關係看北魏北邊防務的興衰」,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33-4.
- 侯甬堅(2004), 「北魏時期鄂爾多斯高原的自然-人文景觀」, 『歷史地理學探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江上波夫(1948), 「匈奴の祭祀」, 『ユウラシア古代北方文化-匈奴文化論考』 東京: 全国書房.
- 古賀昭岑(1980), 「北魏の部族解散について」, 『東方學』 59.
- 濱口重國(1966),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大學出版會.
- 勝畑冬實(1994), 「拓跋珪の「部族解散」と初期北魏政權の性格」, 『早稻田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哲學·史學篇』 別冊 20集.
- 勝畑冬實(1995), 「北魏の郊甸と“畿上塞圍”-胡族政權による長城建築の意義」, 『東方學』 90.
- 佐川英治(2007), 「遊牧と農耕の間-北魏平城の鹿苑の機能とその変遷」, 『岡山大学文学部紀要』 47.

금대 계호 연구와 그 내용

I. 머리말

II. 금계호와 연구 성과

III. 금계호의 축설 시기와 설립 목적

IV. 계호 연구의 논쟁점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허인욱(許仁旭)

한국중세사 /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전임연구원

대표논저: 「고려·거란의 境界帶 변화와 그 운용에 관한 연구」(2013, 『역사학연구』 52), 「高麗·後周 관계와 光宗의 영토 확장」(2013, 『전북사학』 43), 「고려 초 남중국 국가와의 교류」(2014, 『국학연구』 24) 등.

금대 계호 연구와 그 내용

I. 머리말

거란[契丹]이나 여진(女眞) 등의 북방 민족이 쌓은 장성(長城)과 같은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거란보다는 금대(金代)의 계호(界壕)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사(遼史)』에 “태조 이율아보기(耶律阿保機) 2년 10월에 진동해구(鎭東海口)에 장성을 쌓았다.”¹는 기록이 보이기는 하지만, 거란대의 방어 건축물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금사』에는 ‘계호’라고 하는 방어 시설과 관련된 기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이라 여겨지는 유적들도 내몽고자치구 경내와 러시아 그리고 몽골 경내에서 확인되고 있어, 큰 주목을 받아왔다. 금이 계호를 준설한 이유는 몽골 여러 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금은 북방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금 계호와 호참(壕塹)

1 『遼史』 卷1, 本紀1 太祖 耶律阿保機 2年, “(冬十月己亥朔) 築長城於鎭東海口.”

인 것이다. 이 방어 시설은 호참·호루(壕壘)·탄루(坦壘)·누참(壘甃)·호장(壕障)·호장(濠牆)·계장(界牆)·변보(邊堡) 등 10여 개의 명칭으로 불린다.²

‘금계호(金界壕)’는 왕국유(王國維)가 「금계호고(金界壕考)」를 발표한 이래 학계에서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금계호’를 장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금장성(金長城)’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성이 땅 위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계호는 도랑을 파서 적의 기병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둔 시설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계호의 설치 연혁과 함께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계호의 설치 시기와 설치 이유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아울러 계호 연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논쟁점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금계호와 연구 성과

1. 금계호의 분포 현황

현재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금대의 변경 방어선은 그 총길이가 5,500km에 달할 만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방어선 유적은 내몽고자치구 경내에 주로 분포하며,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와 몽골 경내에도 존재한다. 방어선의 총 길이는 5,500km이며, 그 가운데 4,600km가 중국에 속해 있다.

현재 치치하얼(齊齊哈爾) 서북 면에서 내몽고 지역에 걸쳐 드러난 계호와 참

2 孫文政(2010), 「金長城研究概述」, 『中國邊疆史地研究』 20卷 1期, 139쪽.

호는 여러 지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대흥안령 산맥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영북선(嶺北線)’과 그 남쪽에 위치한 ‘막남선(漠南線)’ 그리고 ‘영남선(嶺南線)’으로 나눌 수 있다.³ 막남선과 영남선의 두 선은 대체로 동북에서 서남으로 진행되었는데, 대흥안령산맥 이동에서 서쪽 화양산 이북의 초원을 가로지른다.

영북선은 최북단에 위치한 것으로, 대흥안령 서북의 초원 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동쪽 끝은 내몽고자치구 에르구네시[額爾古納市]의 건하[根河] 남안 상고력(上庫力) 하탄(河灘) 소택 지대로부터 러시아를 지나 서쪽으로 몽골의 케를란하와 오르콘하 사이의 초원 위까지 뻗어 있다. 그 끝은 울란바토르 동쪽, 온드르한의 북쪽 궁특산 동남의 삼하 아눈하의 남쪽, 오르콘하의 상류 서쪽에서 그친다. 전체 길이는 1,400km다.

막남선은 단일 선이 아니라, 여러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태다. 막남선은 대흥안령 동남 기슭에 위치한嫩江(嫩江) 서안으로 지금의 내몽고 모린다와[莫力達瓦] 다구르족[達斡爾族] 자치기(自治旗) 전칠가지촌(前七家子村) 부근에서 시작한다. 아룽기[阿榮旗], 자라툰시[扎蘭屯市] 남쪽 경계를 지날 때는 내몽고와 흑룡강성의 분계선을 이룬다. 그리고 계속 서남쪽으로 나가 자로드기[扎賚特旗],

3 금계호는 학자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풍영겸(馮永謙)은 대흥안령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영북선’과 ‘영남선’으로 나뉘었으며, ‘영남선’은 다시 ‘북선’, ‘중선’, ‘남선’으로 구분하였고(馮永謙(2007), 「金長成的考古與發現」, 『東北史地』 3), 장해(長海)는 ‘영북선’, ‘막남선’, ‘남선’으로 나뉘었다. 장해(2012), 「金界壕相關問題的研究」, 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반면 경애(景愛)는 ‘영북선’은 거란이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훌룬보이르(呼倫貝爾) 요변호(遼邊壕)라고 하여 금계호의 범위에는 넣지 않았다. 그는 대흥안령 남쪽에 있는 금대의 계호를 막남변호(漠南邊壕)라 지칭하고 다시 변호간선(邊壕干線)과 변호지선(邊壕支線)으로 구분하였다. 이 글은 연구사를 이해하기 위한 글이므로,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장해의 견해를 따랐다.

코르친[科爾沁] 우익전기(右翼前旗)와 동우짐친기[東烏珠穆沁旗] 등의 북부 지역을 거쳐 몽골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바가기[阿巴嘎旗] 자르갈랑트숨[吉爾嘎郎圖蘇木] 북부에서 다시 내몽고로 들어와 소니드[蘇尼特] 좌익기(左翼旗)와 우익기(右翼旗)를 거쳐 무천현(武川縣) 상묘구촌(上廟溝村)에서 끝난다.

막남선의 지선인 서지선(西支線)의 시작점은 자로드기 바얀올란숨[巴彥烏拉蘇木] 북쪽이다. 바로 이곳에서 주선에서 갈라져 나와 서쪽을 향해 코르친 우익전기 북부를 거쳐 몽골로 진입한 뒤 서북으로 향하다 보이르호 서남방에서 멈춘다. 다른 갈래인 동지선(東支線)은 자르도기 알다르숨[阿拉達爾蘇木]에서 주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서남쪽으로 코르친 우익전기 대석채(大石寨)를 거쳐 나가다 돌천현(突泉縣) 보석향(寶石鄉) 북강촌에 이르러 남선의 주선과 이어진다.

영남선의 동북 기점은 내몽고의 모린다와 다구르족 자치기 칠가자촌의 남쪽으로, 막남선의 동북 기점과 3.5km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 서남으로 뻗어나간다. 영남선은 기점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인 북변장호촌(北邊牆壕村)에서 막남선과 서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나가 아룡기와 자라툰시의 남쪽 지역을 거쳐 서남쪽으로 향한다. 자르도기 북부 지역을 지난 다음 다시 서남으로 뻗어가 코르친 우익전기 만족둔촌에 이르는데, 동북 기점에서 이곳까지는 500km다. 영남선의 이 구역은 원래 앞서 존재했던 막북선을 부분적으로 두 개의 호와 두 개의 담장으로 개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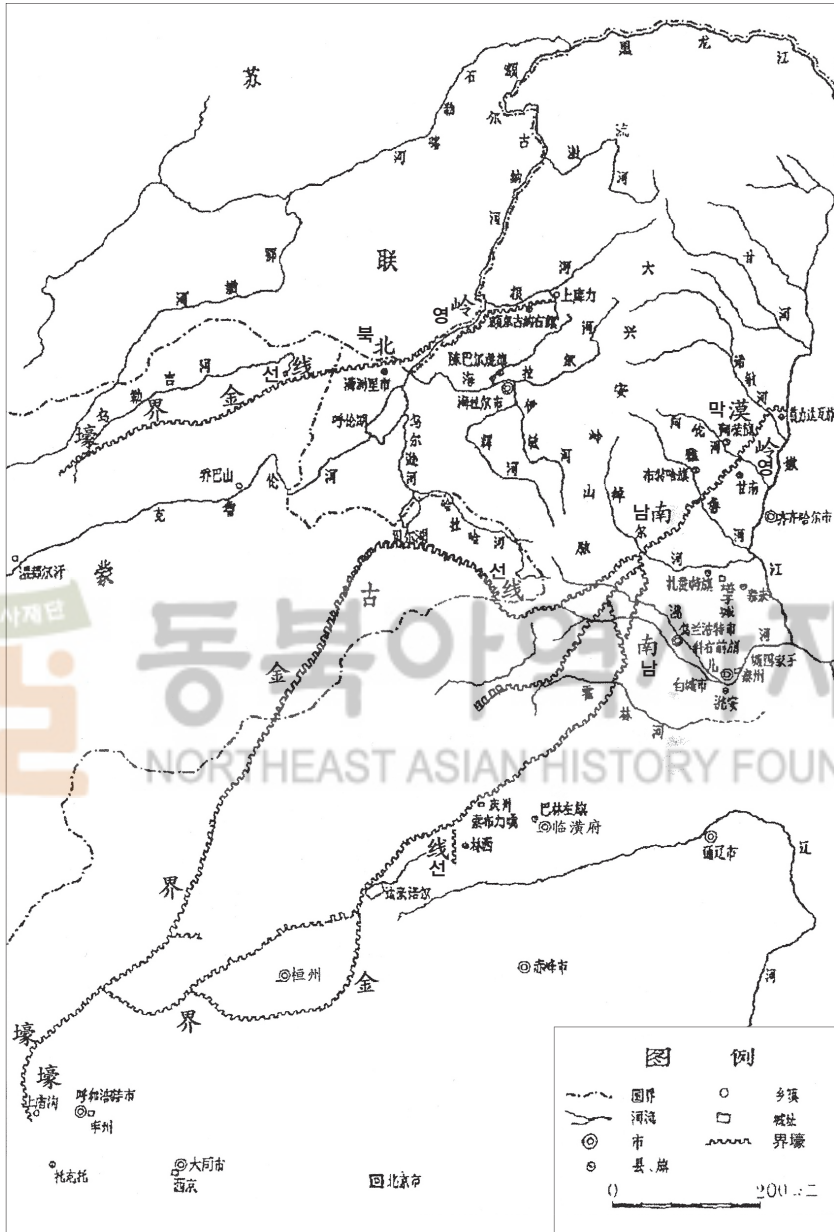
만족둔전에서 서남쪽으로 뻗어나가는 영남선은 코르친 우익전기, 자로드기, 아르코르친기[阿魯科爾沁旗], 바린좌기[巴林左旗], 바린우기[巴林右旗], 임서현(林西縣)의 능가영자(淩家營子)와 판석방자(板石房子), 케식텐기[克什克騰旗] 북부, 정람기(正藍旗), 정양백기(正鑲白旗), 양황기(鑲黃旗), 상도현(商都縣) 북부의 풍가촌(馮家村), 차하르[察哈爾] 우익후기(右翼後旗) 북부, 소니드우기[蘇尼特右旗] 남쪽 지역을 거쳐 사자왕기(四子王旗)에서 북선과 만난다. 그리고 계속 서행하다가

다르한무밍간기[達爾罕茂明安聯合旗] 에르네데오보[額爾登敖包]에 이르러 서남으로 향한다. 그리고 무천현(武川縣) 삼빈자촌(三份子村)에 이르러 동남으로 방향을 꺾어 나가다가 석배도촌(石背圖村)에 이르러 다시 서남으로 방향을 튼다. 그리고 토성자촌(土城子村)에 이르러 다시 동남으로 향하다 상묘구촌(上廟溝村) 남쪽의 대청산(大靑山) 북쪽 기슭에 이르러 끝난다. 남선의 총길이는 1,652km다.

영남선 가운데에는 복선 지역이 존재한다. 복선 지역의 동북 기점은 내몽고 임서현(林西縣) 능가영자(凌家營子)다. 이곳에서 시작되어 서남으로 향하는 이 복선은 케식텐기, 웡니고드기[翁牛特旗], 적봉(赤峰) 송산구(松山區), 하북성 위장현(圍場縣), 풍녕현(豊寧縣), 내몽골 돌론헌[多倫縣]과 정람기(正藍旗) 남쪽 지역, 타이푸쓰기[太僕寺旗], 하북성 강보현(康保縣)을 거친 뒤 화덕현(化德縣)에서 상도현(商都縣) 풍가촌(馮家村)에 이르러 주선과 만난다. 이 복선의 총길이는 705km다.

계호는 기본적으로 구렁과 담을 이용해 기병이 돌격해 오는 것을 방어하는 군사 방어용 시설로, 바깥 참호, 바깥 장벽, 안 참호, 안 장벽의 4중 구조로 되어 있다. 오늘날 변장은 땅에서 높이 약 2~3m 전후의 흔적만 남아 있으며, 호는 거의 메워져 평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구축 당시 호의 깊이는 보편적으로 10m다. 변장의 높이도 10m 정도인데, 기저부의 넓이는 10m 이상이고 정상 부분의 넓이는 2m 정도다. 또 200m 마다 담장 외측에 반원형 형태의 망대를 만드는데 높이는 30~50m다.

계호를 따라 구축된 토보는 3종류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방어선인 계호나 호장을 이용하여 만든 직경 20~40m 사이의 작은 보(堡)다. 소규모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전방 초소로 수보(戍堡)라고 부른다. 수보는 안 장벽 바깥이나 안쪽에 직접 설치했다. 땅을 다져 세운 원형의 건축물로 직경은 6~10m이고, 보루 꼭대기의 기와는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수보 사이의 간격은 보통 60~70m로 두 보 사이의 수비군이 교대로 화살을 쏠 수 있어



〈그림 1〉 금계호 분포와 진행 방향⁴⁾

적군을 방어하기 용이하게 설치되었다.

두 번째 종류는 남북 교통의 요충에 구축하여 관문을 통제하는 관애(關隘)다. 그 규모는 대략 수보와 같지만 보의 양측이 계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과 북에 문이 있어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이 안을 지나가야 한다. 세 번째 종류는 계호에서 남쪽으로 10~20km 떨어진 곳에 구축된 변보다. 변보는 성벽과 참호 안쪽에 설치한 군대 주둔 방어 시설로, 흙을 틀에 넣고 다져서 외곽선을 만든 해자가 딸린 장방형 토성이다. 한 변의 길이가 대략 500m에 이르는 사각형 형태의 대규모 방어 기지다. 이 방어 지대는 4개의 담장에 전투 시 살상용의 치가 존재한다. 성문은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성내에는 대량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변보는 주변 계호 수십km 구역을 관할하는 지휘 중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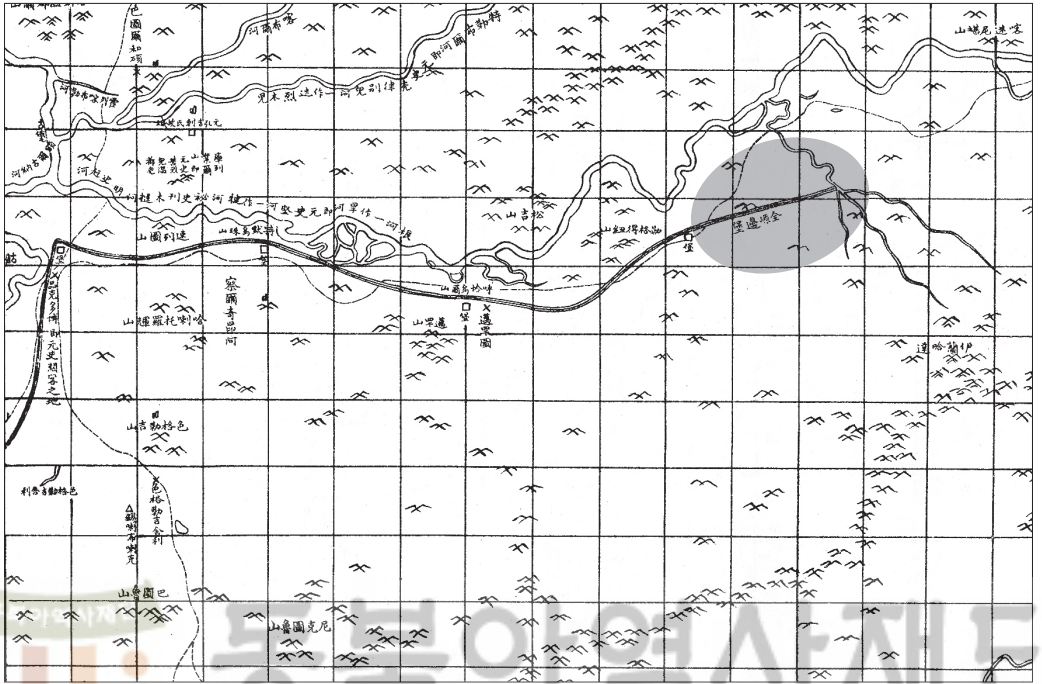
또 계호의 방어 시설물은 승안(承安) 이전(1196년)과 이후(1201년)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지닌다. 1196년 이전에 만들어진 계호는 계호의 선을 따라 망대(望臺), 수보, 관애와 변보가 모두 갖추어진 형태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1201년 이후에 만들어진 서북로와 서남로 변경지대의 계호는 단지 변보만이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⁵

2. 연구 성과

금계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이루어져 왔다. 1920년대에 『금

4 長海(2012), 앞의 글, 25쪽에서 인용.

5 계호의 진행 방향과 분류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는 長海(2012), 위의 글; 景愛·苗天娥(2008), 「遼金邊壕與長城」, 『東北史地』 6; 박원길(2012), 「금나라의 북방방어선과 타타르부」, 『금사(金史)와 북방문화연구(II)』, 단국대부설북방문화연구소를 주로 참조하였다.



〈그림 2〉 「흑룡강여도」에 보이는 금원변보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 등의 문헌을 기본으로 삼아 그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과 그 이후에 현지 조사를 통한 고고학적 발굴에 중심을 둔 방법,⁶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같이 살펴봄,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헌 중심의 연구는 민국(民國)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 시발점은 왕국유(1877~

6 이러한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적인 것이다. 고고학 성과를 언급하는 글들에서도 문헌 기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문헌보다는 고고학적 성과를 서술하는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그렇게 분류하였다.

1927년)였다. 그는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금 계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금계호고」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⁷ 그의 논의는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왕국유 이전에도 계호의 존재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다. 1810년 서청(西淸)이 찬한 『흑룡강외기(黑龍江外記)』 중에서도 “포특합(布特哈)에 토성(土城)이 있는데, 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서쪽으로 수천 리를 가는데, 바로 목란(木蘭)에 도달한다. …… 토인(土人)들은 이를 오이과(烏爾科)라 한다. 유인(流人)들이 갈 때 길을 모르는 자들은 많이들 이곳을 돌아 관(關)으로 들어간다. 고종(高宗) 어제(御製) 문집에 옛 장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⁸라고 하여 금계호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1864년에 러시아의 극노포특금(克魯泡特金)이 금계호에 대한 보고를 하기도 했다. 도기(屠寄, 1850~1916년)가 중심이 되어 1899년에 완성한 「흑룡강여도」에도 ‘금원(金源)⁹ 태주(泰州) 변호’·‘금장춘(金長春) 변보’·‘금원 변보’라는 표식¹⁰가 되어 있기도 하다.

민국 시기에 맹정공(孟定恭)이 찬한 『포특합지략(布特哈志略)』에는 “요금(遼金) 변보는 거리가 서쪽 서포특합(西布特哈)의 옛 총관아문(總管衙門)에서 북쪽 3리쯤에 있다. 눈강의 오른쪽 언덕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이어져 색악(索岳)을 경유하여 길산(吉山)으로 가서 포특합의 경계로 나와 직예(直隸)의 위장(圍場)을 넘어 산서(山西)의 귀화성(歸化城)에 이르는데 장성처럼 높다. 사서에서 일컬

7 王國維(1971), 「金界壕考」, 『觀堂集林』. 이 글에서는 세계서국(世界書局)의 1971년 간행본 『定本觀堂集林』을 이용하였다. 이후로는 『定本觀堂集林』으로 표기하겠다.

8 「布特哈有土城」, 『黑龍江外記』 卷2(1964), 廣文書局, “布特哈有土城 因山起伏 西去數千里 直達木蘭 …… 土人謂之烏爾科 流人亡去 不識途 多循此入關 高宗御製文集有古長城說 卽烏爾科也.”

9 금원 내지는 흑룡강 지역의 금조(金朝)가 흥기한 땅으로, 금 상경회령부(上京會寧府)와 그 인접한 지역을 가리킨다. 譚英傑 외 3인(1991), 「金源內地的遺跡與文物」, 『黑龍江區域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9쪽.

10 「黑龍江輿圖」(『遼海叢書』 附冊, 遼沈書社), 10·17·25·36·37·38쪽.

있던 금 태주의 변보는 바로 금 천보(天輔) 연간 종실인 파로화(婆盧火)가 이곳에 둔병을 동원하여 요의 유민들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달리대석보자(達里帶石堡子)다. 보의 남쪽 의와기(宜臥奇)와 오이과, 사합언(查哈彥) 등지에는 아직도 옛 성 3곳이 있으니 이 당시 대군(大軍)을 주둔했던 곳인 것 같다.”¹¹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왕국유는 『금사』와 앞서 언급한 『흑룡강외기』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금 시대의 계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왕국유는 『금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금대 계호를 동북로(東北路) 계호, 임황로(臨潢路) 계호, 서북로(西北路) 계호, 서남로(西南路) 계호로 구분하였다. 왕국유는 서북로는 승안 2년(1197년)에 완안안국(完顏安國)이, 승안 3~5년까지는 독길사충(獨吉思忠)이 주관하였으며, 임황로는 승안 3년에 완안양(完顏襄), 서남로는 승안 3년에 복산규(僕散揆)가 주관해서 완성시켰다고 봤다. 다만 동북로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기 비정을 하지 않았다.

왕국유에 의해 촉발된 문헌 연구는 김육불(金毓黻)의 『동북통사(東北通史)』¹²와 요종오(姚從吾)의 「요금원시대적장성(遼金元時代的長城)」¹³에서도 이어졌다. 일본 학자 외산군치(外山軍治)도 「명창 초년의 북방경략 논의와 동 3년의 계호 개축 논의(明昌初年の北方經略の議と三年界の壕開築の議)」에서 명창 연간에 북방 민족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벌에 대한 의논이 제기되고 이들을 막기 위해 명창 3년부터 구축된 계호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¹⁴ 팽점걸(彭占傑)도 「금대장성

11 『布特哈志略』 古迹 金遼邊堡(『遼海叢書』4, 遼瀋書社), “遼金邊堡去 西西北布特哈舊總管衙門北三里許 起自嫩江右岸 蜿蜒西南 經索岳而吉山 出布特哈界 越直隸圍場 抵山西歸化城 屹屹若長城 史所稱今之泰州邊堡 卽金天輔年間宗室婆盧火屯兵於斯 爲防遼裔 而起之達里帶石堡也.”

12 金毓黻(1946), 「元代與東北之關係」, 『東北通史』, 樂天書局.

13 姚從吾(1971), 「遼金元時代的長城」, 『姚從吾先生全集』1, 正中出版社.

14 外山軍治(1964), 「明昌初年の北方經略の議と三年界の壕開築の議」, 『金朝史研究』,

초론(金代長城初論) - 겸론(兼論)《금계호고(金界壕考)》에서 왕국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¹⁵

또 다른 연구 흐름은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의 포낙색부(包諾索夫)는 1934년에 동북 지역의 금계호에 대한 3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성길사한변장초보조사(成吉思汗邊牆初步調查)』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계호의 진행 방향과 변보, 마면(馬面) 등과 도자기편 등으로 계호를 몽원(蒙元) 시기로 추정했다가 그 후 「북부오이과고대변장(北部烏爾科古代邊牆)」이라는 글에서 칭기즈칸에게 항거하기 위한 변장으로 보고 금대로 비정했다.¹⁶

1933~1944년에 걸쳐 이문신(李文信)은 3차례에 걸쳐 내몽고의 금대 임황로 근처 150km를 서구의 고고학 방법을 이용하여, 단계별로 현지를 조사하였다.¹⁷ 1950년대 말에는 흑룡강성 박물관의 손수인(孫秀仁) 등이 3차례에 걸쳐 흑룡강의 금계호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금동북로금계호변보조사(金東北路金界壕邊堡調查)」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금 동북로 계호의 배치 정황과 수집된 유물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¹⁸

1980년대에는 방지국(龐志國), 장백충(張伯忠), 철리목맹(哲理木盟) 박물관에 의해 현지 조사와 관련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철리목맹 박물관은 1975년에 내몽고 돌천현, 자로드기, 코르친 우익전기와 코르친 우익중기(右翼中旗)의 임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 15 彭占傑(2001), 「金代長城初論 - 兼論《金界壕考》」, 『遼金史論集』 6.
- 16 B. B. 包諾索夫(1942), 「成吉思汗邊牆初步調查」, 『大陸科學院通報』 5卷 1; B. B. 包諾索夫(1944), 「北部烏爾科古代邊牆」, 『大陸科學院通報』 7卷 2.
- 17 李文信(1947), 「金臨潢路界壕邊堡遺址」, 『遼海引年集』; 李文信(1992), 『李文信考古文集』, 遼寧人民出版社.
- 18 黑龍江省博物館(1961), 「金東北路金界壕邊堡調查」, 『考古』 5.

황로와 동북로 범위 내의 유적을 조사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64곳의 변보와 1곳의 관애가 포함되어 있었다.¹⁹ 내몽고자치구 철리목맹 박물관과 내몽고자치구 문물고공작대(文物古工作隊) 그리고 길림대학교 역사학과고 전공 학생들은 1978년에 공동으로 코르친 우익중기의 곽림하(霍林河) 좌안에 있는 토열모두고성(吐列毛杜古城)에 대한 고고 조사를 시행하면서 부근의 계호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²⁰ 1981년에도 철리목맹 박물관에서 내몽고자치구 곽림하 광구(礦區)의 금대 유적을 조사하였다.²¹ 같은 해에 항춘송(項春松)은 바린좌기 구역의 변보 16곳과 둔군성채(屯軍城寨) 2곳을 실제 답사하고, 임황로 부분의 계호 구조에 대한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²²

하북성(河北省) 시와 현의 문물공작자들은 1978년과 1982년에 하북성 경내의 금대 계호 유적에 대한 실제 답사를 통해 유적의 분포와 진행 방향, 건축 특징을 연구하였는데, 11곳의 군보(軍堡), 1곳의 대형 둔군성(九連城)을 조사하였다. 승덕시(承德市) 문물관리소에서도 여러 차례 시내의 금대 유적을 조사했다.²³ 내몽골자치구 포실시(包實市) 달무기(達茂旗) 문물관리소는 1987년 8월부터 내몽골 달무기 경내의 변보와 계호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마면(수보)이 250곳, 계호 내측에 변보가 10곳, 그중에 4곳은 호보(壕堡)와 접해 있으며, 둔군성은 1곳이라는 보고서를 2000년에 작성하였다.²⁴

풍녕(豐寧) 문물관리소는 1980년에 승덕지구(承德地區) 문관소장성조사조(文

19 龐志國(1981), 「金東北路, 臨潢路吉林省段界壕邊堡遺址」, 『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書』, 文物出版社.

20 張伯忠(1982), 「吐列毛杜古城調查試掘報告-兼論金代東北路界壕」, 『文物』 7.

21 哲理木盟博物館(1984), 「內蒙古霍林河礦區金代界壕邊堡發掘報告」, 『考古』 2.

22 項春松(1987), 「巴林左旗金代臨潢路邊堡界壕踏查記」, 『北方文物』 2.

23 田淑華(1995), 「承德地區金代長城調查與考略」, 『遼金史論叢』.

24 達茂旗文物管理所(2000), 「達茂旗境內的金代邊堡界壕」, 『內蒙古文物考古』 1.

管所長城調查組)와 협력하여 경내의 연·진 장성과 함께 내몽골 돌론현 북쪽의 30km 지점에 있는 금계호 유적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1985~1986년까지 다시 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²⁵ 1988년에 내몽골자치구 케식텐기 박물관도 경내의 금대 유적 조사와 분석을 진행해, 금계호의 전체 길이가 179km이고 부설된 돈대(墩臺, 마면)가 3,200곳, 크고 작은 보성(堡城)이 17곳, 관애가 1곳임을 밝혔다.²⁶

흑룡강성 경내의 변보에 대한 글은 1991년 금주(金鑄)의 「야담흑룡강성경내적금동북로계호변호(也談黑龍江省境內的金東北路界壕邊壕)」가 있는데 간략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²⁷ 담영걸(譚英傑) 등은 동북로 계호의 북쪽 부분에 대한 서술을 흑룡강 유역의 금 유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살짝 언급하기도 하였다.²⁸ 한편 미문평(米文平)은 「금대호룬페이제부금계호(金代呼倫貝爾諸部及界壕)」에서 영북선은 금초에 몽골과의 전쟁을 위한 방어 시설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했다.²⁹

1993년에 내몽고자치구 훈룬보이르맹[呼倫貝爾盟] 문물고고연구소의 조옥명(趙玉明)이 영북선에 해당하는 곳을 조사하고 「영동금대장성조사(嶺東金代長城調查)」를 작성하였다.³⁰ 2010년에는 내몽고 문물고고연구소와 바린 우기 박물관이 바린 우기의 금대 계호를 조사한 후 보고서를 간행하였다.³¹ 2011년에

25 張漢英(1993), 「河北豐寧境內古長城和金代界壕」, 『文物春秋』 1.

26 克什克騰旗博物館(1991), 「克什克騰旗金代界壕邊堡調查」, 『內蒙古文物考古』, 5.

27 金鑄(1991), 「也談黑龍江省境內的金東北路界壕邊壕」, 『黑河學刊』 4.

28 譚英傑 외 3인(1991), 「金源內地的遺跡與文物」, 『黑龍江區域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9 米文平(1991), 「金代呼倫貝爾諸部及界壕」, 『黑河學刊』 4.

30 趙玉明(1993), 「嶺東金代長城調查」, 『內蒙古社會科學』 1.

31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巴林右旗博物館(2010), 「巴林右旗巴根吐金代界壕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1.

조영군(趙永軍)과 이진기(李陳奇)는 흑룡강 지역의 금대 고고학 성과를 거론하면서 계호도 언급을 하였다.³²

고고 조사 연구가 성과를 내면서, 문헌 자료와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비화(李丕華)는 「몽고고원변장고(蒙古高原邊牆考)」에서 『금사』 지리지의 계호는 달리대석보(達里帶石堡)로부터 서쪽으로 향하는 곳이 아니라, 훈분보이르[呼倫貝爾] 초원의 서북부에 있는 영복선이라는 견해를 발표하였다.³³

또한 계호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장성박물관(中國長城博物館)』 2006년 4기에 게재된 글들이 대표적이다. 왕배화(王培華)의 「관우금장성적삼개문제(關於金長城的三介問題)」, 성대림(成大林)의 「신설금계호불시장성(慎說金界壕不是長城)」, 이홍빈(李鴻賓)의 「아대·금계호·여·장성 개념적 이해(我對“金界壕”與“長城”概念的理解)」, 손수인의 「관우금계호 변보적연구여상관문제(關於金界壕邊堡的研究與相關問題)」,³⁴ 황풍기(黃風岐)의 「장성·금대장성척의(長城·金代長城撫議)」· 동요희(董耀會)의 「금장성적건치·수방금후근보장지탐토(金長城的建置·戍防及后勤保障之探討)」, 팽점걸의 「논금동북로장성금금장성선출토지관인(論金東北路長城及金長城綫出土之官印)」 등을 통해 금계호를 장성의 범위 안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점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의 견해들이 논의되기도 했다.

풍영겸(馮永謙)은 2007년에 발표한 「금장성적고고발현(金長城的考古發現)」에서 영남선이 동북로·임항로·서남로·서북로의 4로로 구성되어 있다는 왕국유의 견해에 대해 『대금국지(大金國志)』에 초토사(招討使)가 동북로·서북로·서

32 趙永軍·李陳奇(2011), 「黑龍江金代考古述論」, 『北方文物』 3.

33 李丕華(2004), 「蒙古高原邊牆考」, 『遼金契丹女真史研究』.

34 이 논문은 「關於金長城(邊界邊堡)的研究與相關問題」라는 제목으로 『北方文物』 2에 재수록 되었다.

남로 등 3개 치에만 존재했다는 기록을 들어 3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³⁵

2008년에 경애와 묘천아(苗天娥)는 계호는 장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두 연구자는 대흥안령 남쪽에 있는 계호를 막남변호(漠南邊壕)라고 칭하고 다시 변호간선(邊壕干線)과 변호지선(邊壕支線)으로 구분하였다. 그동안의 이해와 견해를 달리 한다³⁶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 손문정(孫文政)과 손인(孫仁)은 기존의 문헌 연구와 고고학 성과를 이용해, 동북로 계호의 설립 시기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하였다.³⁷

2012년에 장울(張蔚)은 북방 국가인 북위(北魏)의 장성과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소수민족 정권이 방어 수단의 일환으로 장성을 쌓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³⁸ 2011년부터는 금계호와 관련된 학위논문들이 제출되었는데, 김보려(金寶麗)의 「몽고멸금사연구(蒙古滅金史研究)」가, 2012년에는 장해(長海)의 「금계호상관문제적연구(金界壕相關問題的研究)」³⁹와 해단(解丹)의 「금장성군사방어체계급기공간규화포국연구(金長城軍事防禦體系及其空間規劃布局研究)」⁴⁰

35 馮永謙(2007), 「金長城的考古發現」, 『東北史地』 3.

36 景愛·苗天娥(2008), 앞의 글.

두 연구자는 영북선은 금이 아닌 거란이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훈분보이르 요 변호(呼倫貝爾遼邊壕)라고 하여 금계호의 범위에는 넣지 않았다. 그들은 대흥안령 남쪽에 있는 금대의 계호를 막남변호라고 하고 그 안에 변호간선으로 동북로·임황로·서북로·서남로로 구분하고, 변호지선으로 돌천선(突泉線)·영남산북선(嶺南山北線)·과우전기선(科右前旗線)·석림곽특선(錫林郭勒線)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구분은 경애의 『中國長城史』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景愛(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37 孫文政·孫仁(2006), 「金東北路界壕邊堡建築時間考」, 『中國長城博物館』 4. 이 논문은 손문정의 이름으로 『東北史地』 2008년 3기에 다시 게재되었다.

38 張蔚(2012), 「北魏長城與金界壕對比研究」, 『東北史地』 6.

39 長海(2012), 앞의 글.

40 解丹(2012), 「金長城軍事防禦體系及其空間規劃布局研究」, 天津大學博士學位論文.

등이 그것이다. 장해는 2013년에 학위논문 가운데 영북선의 설치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 발표하기도 했으며,⁴¹ 해단도 같은 해 계호가 몽골 기병을 막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방어와 군사 취락 그리고 연락 전달의 세 가지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⁴²

III. 금계호의 축설 시기와 설립 목적

1. 금계호의 축설 시기

앞서 언급한 대로 금계호에 대한 연구는 왕국유가 『금사』 기록 등을 활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금계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사료는 『금사』 지리지의 다음 기록이다.

[가-①] (금의 영토는) 북으로는 포여로(蒲與路)의 북쪽 3천여 리에 있는 화로화탄모극(火魯火曠謀克)을 경계로 삼았는데, 오른쪽으로 돌아 태주의 파로화가 파놓은 계호로 들어가 서쪽으로 가게 되며 임황(臨潢)과 금산(金山)을 거쳐 경주(慶州)·환주(桓州)·무주(撫州)·창주(昌州)·정주(淨州)의 북쪽을 넘어 천산(天山) 밖으로 나가서, 동승(東勝)을 안으로 감싸고 서하

41 長海(2013), 「嶺北金界壕修築時代의 初析」, 『草原文物』 1.

42 解丹(2013), 「金長城界壕防禦工程中壕의 淵源和作用」, 『新建築』 1. 원고 완성 이후에 금 계호에 관한 논문 44편을 엮어 출간된 논문집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이 글에서는 필자가 살피지 못한 부분을 추가하지 못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연구를 하시는 분은 이 논문집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다. 孫文政·王永成(2009), 『金長城研究論集』, 吉林文史出版社.

(西夏)에 접한다.⁴³

[가-①]의 『금사』 지리지에는 당시 금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계호 준설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⁴⁴ 이 기록에는 계호와 관련해 파로화라는 인물이 언급되고 있다.⁴⁵ 파로화가 준설한 계호가 태주에서 임황과 금산을 거쳐 서하에 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금사』의 ‘파로화전(婆盧火傳)’을 보면, 그는 태조(太祖) 천보(天輔) 5년(1121년)에 태조의 명에 의해 여러 노(路)에서 1만여 가(家)를 취하여 태주에 둔전(屯田)하였으며, 희종(熙宗) 천권(天眷) 원년(1138년)에는 주둔하고 있던 오고(烏古)·적렬부(迪烈部) 지역⁴⁶에서 사망하였다.⁴⁷ 파로화가 사망한 1138년 이후에 계호가 축설되지는 않았을 것이다.⁴⁸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계호의 준설은 파로화가 태주에 둔전하는 1121년 이후부터 그가 사망하는 113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도 무방하다.⁴⁹

43 『金史』卷39, 地理志5, “北自蒲與路之北三千餘里 火魯火曠謀克地爲邊 右旋入秦州 婆盧火所浚界壕 而西經臨潢·金山 跨慶·桓·撫·昌·淨州之北 出天山外 包東勝 接西夏.”

44 포여로의 범위는 북쪽은 외흥안령(外興安嶺), 동쪽은 지금의 탕왕하(湯旺河) 유역, 서쪽은 눈강 유역, 남쪽은 송화강(松花江)이었다. 譚英傑 외 3인(1991), 「金源內地的遺跡與文物」, 『黑龍江區域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24쪽.

45 파로화에 대한 정보는 宋德輝(2004), 「婆盧火與金秦州」, 『白城師範學院學報』 18-2 참조.

46 오고·적렬부는 태주의 북쪽에 위치했다. 왕국유는 율전(律田)의 연구를 인용해, 국외의 오고부는 칼가하[喀爾喀河] 유역에, 적렬부는 지금의 오론촌하[烏爾順河] 유역에서 유목한다고 하면서, 지금의 흥안령의 서측이라고 했다. 반면 국내의 오고·적렬부는 흥안령 동쪽에 거주한 것으로 이해했다. 王國維(1971), 「金界壕考」, 『定本觀堂集林』, 世界書局, 720쪽.

47 『金史』卷73, 列傳9 婆盧火.

48 黑龍江省博物館(1961), 「金東北路界壕邊堡調查」, 『考古』 5, 258쪽.

49 금보려(金寶麗)는 태종 천회 7년(1129년)에 파로화가 둔수(屯守)를 늘어놓을 것을 청

이 기록에 나오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구(舊) 태주에 대해 왕국유는 조이하(洮爾河)의 남쪽과 조남현(洮南縣)의 동쪽 어느 지점으로 보았다.⁵⁰ 구 태주라고 한 것은 승안 3년(1198년)에 요대(遼代)의 장춘현(長春縣)으로 태주가 옮겨가기 때문이다.⁵¹ 즉 그 이전의 태주를 구 태주, 이후를 신 태주라고 하여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 파로화가 계호를 준설할 때는 구 태주가 기점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왕국유의 견해를 받아들인 김육불은 『청일통지(淸一通志)』에 보이는 서백성(西伯城)을 구 태주의 소재지로 비정하기도 했다.⁵² 장백충(張柏忠)은 「요대태주고(遼代泰州考)」에서 구 태주는 지금의 흑룡강성 태래현(秦來縣) 자로도기 경내의 탑자성(塔子城)으로, 신 태주는 성사가자고성(城四家子古城)으로 비정했다.⁵³

임황로는 요의 상경임황부성(上京臨潢府城)으로 바린좌기 임동진(林東鎮) 동남쪽으로 비정되며, 금산(金山)은 대흥안령 산맥을 말한다. 경주는 지금의 바린우기 동북부의 백탑자(白塔子)다. 환주는 신·구 두 곳이 있는데, 구 환주는 정람기 둔드호트[敦達浩特] 서남 60리의 흑성자(黑城子), 신 환주는 둔드호트와 강을 두고 마주한 난하(灤河) 북안의 사랑성(四郎城)이다. 창주는 타이푸쓰기[太僕寺旗]의 보창(寶昌) 65리와 장북현(張北縣)에 가까이 있는 구련성(九連城)이고, 정

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이 요청은 일정 수량의 군대가 연변에 일정 시간 주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보루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1129년에 금이 태주 이북 즉, 동북로 일대에 변보와 같은 종류의 건축물을 건설하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金寶麗(2011), 『蒙古灰金史事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27쪽.

50 王國維(1971), 앞의 책, 723쪽.

51 『金史』 卷24, 地理志 上 北京路 泰州.

52 金毓黻(1946), 『東北通史』, 樂天書局, 611쪽.

53 張柏忠(1988), 「遼代泰州考」, 『北方文物』 1, 81~82쪽. 구 태주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에 또한 동일한 입장이다. 景愛(1987), 「遼金泰州考」, 『遼金史論集』 1.

주는 지금의 사지왕기 조란화(烏蘭花) 서북 18km의 복자촌(卜子村) 서쪽이다. 동승주(東勝州)는 지금의 토그토흐현성[托克托縣城] 동측의 황하가 남향으로 굽어 만을 이루는 동쪽 언덕의 높고 평탄한 지역에 해당한다.⁵⁴

왕국유는 ‘파로화전’에는 둔전을 한 기록만 있을 뿐, 계호 준설과 관련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금 희종 초년에는 호참(濠塹)을 세울 계획이 있었던 정도로 본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서술하였다.⁵⁵ 이와 관련해서는 세종 대정(大定) 3년(1163년) 이후에 병부시랑(兵部侍郎)이 된 완안수도(完顔守道)가 서북·서남로에 설치했던 옛 보수(堡戍) 가까이의 내지까지 접근한 이들을 이주시켜 먼 변경에 안치하게 하였더니 태주·임황의 변보와 서로 접하게 되었다⁵⁶는 기록이 도움을 준다. 대정 초에 서북과 서남로에 예전에 쌓은 보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태주와 임황의 변보가 설치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종대의 변보 설치와 관련된 기록이 다른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대정 5년(1165년)에는 태주와 임황의 접경에 변보 70곳을 설치하고 1만 3천 명의 병사를 머무르게 했으며,⁵⁷ 대정 13년(1173년)에는 동북 등 수변의 한군(漢軍)을 내지로 옮겼는데,⁵⁸ 이는 북변 지역의 변방을 지키기 어려운 탓이었다. 이에 세종은 규군(糾軍) 개편과 동시에 변보와 계호를 구축하여 둔전 방식으로 변방을 수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한 배경에는 정릉(正隆) 6년(1161년)에 서북로 초토사 소재지인 지금의 하북성(河北城) 장가구(張家

54 賈洲傑(1979), 「金代長城初議」, 『內蒙古大學學報』 2, 172~173쪽.

55 王國維(1971), 앞의 책, 714쪽.

56 『金史』 卷91, 列傳29 移剌按答.

57 『金史』 卷6, 世宗 大定 5年 正月 乙卯.

58 『金史』 卷44, 志25 兵制 大定 13年.

口)에 위치한 무주에서 거란인 와간(窩幹)·살팔(撒八)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와간은 칭제(稱帝)를 하고 천정(天正)이라는 연호를 사용할 정도였다. 그 반란은 1년 반 동안 지속되다가 세종(世宗) 대정 2년(1162년)에 평정되었다.⁵⁹ 금은 난에 참여했던 이들을 상경(上京)·제주(濟州)·이주(利州) 등 만주 내륙으로 옮겼으며, 난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은 지금의 눈강 서쪽에 위치한 오고리석루부(烏古里石壘部)로 이주시켰다.⁶⁰

금은 대정 8년(1168년)에 초토사 이전을 단행하여 서북로 초토사는 무주에서 내몽골 정랍기에 위치한 환주로, 서남로 초토사는 내몽고 호화호트시[呼和浩特市] 동쪽에 위치한 풍주(豊州)에서 산서성 응현(應縣)의 응주(應州)로, 오고적 열 초토사는 동북로 초토사로 개칭하여 태주로 이전시켰다. 서북변에서 방어선을 후퇴시킨 것은 이 방면의 방어진이 약해졌고 그곳의 방어를 담당했던 거란인들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 상황 때문이었다.⁶¹ 대규모 변보 축조 및 변보 둔병과 임항 및 태주의 수비병을 증강시킨 것은 겉으로는 변방 백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란인의 반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⁶²

그런데 거란인의 이주는 금의 서남북로 방어에 큰 공백을 가져왔다. 이에 금은 가난한 민호들을 영둔군(永屯軍)으로 삼아 영구히 주둔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려 하였다. 『금사』 종서전(宗敘傳)을 보면, 종서가 가난한 민호들을 모집하여 변방을 지키게 하며 둔전을 실행할 것을 청하자, 세종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겼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가, 그 후 다시 종서의 의견을 채택해 태

59 『金史』 卷133, 列傳71 窩幹.

60 『金史』 卷7, 世宗 大定 17年 正月 丙午.

61 外山軍治(1964), 앞의 책, 99~103쪽.

62 箭内互(1966), 『蒙古史研究』, 刀江書院, 186쪽.

주와 임황에 나누어 보루를 설치하고 지키게 했다⁶³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석전(李石傳)에는 대정 17년(1177년)에 세종이 백성들을 보내 참호를 깊이 파서 해마다 있는 침입을 막자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하지만 이석(李石)과 승상(丞相) 흘석렬량필(紇石烈良弼)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첫째는 옛날에 장성을 쌓아 북쪽을 대비하는 것은 백성의 힘을 소모하는 것으로 무익하다는 점, 둘째는 북쪽 유목족들의 습속은 정해진 거처가 없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일정치 않으므로 덕(德)으로 회유해야 한다는 점, 셋째는 참(塹)을 깊게 파고 수를 두어 지킨다 해도 바람이 많은 지역이므로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메워져서 평평해진다는 점이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이득되는 일이 아님을 언급하자, 그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고 한다.⁶⁴

『금사』 병지에도 대정 17년에 세종이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이 해마다 추위와 더위를 감내하고 오고가며 번을 서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농사 시기를 빼앗아 생업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좋은 계책을 마련하도록 시켰는데, 좌승상 흘석렬량필은 변방 땅에서는 농사가 어려워 오랫동안 지킬 수가 없으므로 번상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종은 신하들에게 급무를 말사(末事)로 여긴다고 하며, 둔전을 설치하고 군사를 두자는 참지정사 종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세종은 빈호(貧戶)를 변경에 영원히 주둔하게 하면 가난한 자는 구제를 받고 부호(富戶)는 수자리의 수고를 면제하게 된다는 종서의 말이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양로초토사(兩路招討司) 등에게 오고리석루부족과 임황로 그리고 태주로 등의 보수를 분정

63 『金史』卷71, 列傳9 闡母附 宗紱.

64 『金史』卷86, 列傳24 李石.

(分定)하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서 보고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계획은 자신이 직접 살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⁶⁵ 종서전과 동일한 내용이다. 세종의 계호 설치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했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변방에 주둔하는 병사를 두자는 의견을 종서가 언급한 시기는 그가 참지정사에 재임할 때였다고 한다. 따라서 종서의 관력을 살펴보면,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시기의 추정이 가능하다. 그는 대정 10년(1170년) 3월에 참지정사가 되었으며,⁶⁶ 같은 해 8월에 변경을 순무했다.⁶⁷ 그리고 다음 해인 11년 7월에 사망하였다.⁶⁸ 따라서 계호에 관한 의견을 제안했던 것은 대정 10년 3월 이후부터 11년 7월 이전의 일로 판단된다. 즉, 대정 10년 3월부터 11년 7월 이전에 번상보다는 둔전군을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이 곧바로 시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대정 18년에 규군 등에 명하여 번을 나누어 변경을 지키도록 했다⁶⁹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대 변보 증축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록도 도움을 준다.

[가-②] 대정 21년(1181년) 3월 세종이 동북로 초토사의 태주 경계에 있는 19개의 보와 임황로의 옛 24개 보장(堡障)이 가지런하지 않았으므로大理司直(大理司直) 포찰장가노(蒲察張家奴) 등을 보내 그 처리하는 일을 살피게 하였다. 이에 동북은 달리대석보자에서 학오하(鶴五河) 경계까지, 임황로는 학오하보자에서 살리내(撒里乃)까지 모두 직렬로 보수를 설치하여

65 『金史』 卷44, 志25 兵制 大定 17年.

66 『金史』 卷6, 世宗 大定 10年 3月 戊午.

67 『金史』 卷6, 世宗 大定 10年 8月 壬申.

68 『金史』 卷6, 世宗 大定 11年 7月 甲申.

69 『金史』 卷44, 志25 兵制 大定 18年.

지키게 하였다. 평사(評事) 이랄민(移刺敏)이 말하기를, “동북과 임황부가 설치한 곳은 토지가 척박하고 뿔나무가 없으니 현재 이주시키는 백성들을 우선 수초를 따라 살게 하고 장정들을 나누어 보내고 경영 일이 끝나면 호참을 만들어 지키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상(上)이 수초가 없는 곳에는 관아를 세우고 임황로의 모든 보에는 방면한 양인을 두어 수(戍)를 지키게 하였다. 상서성에게 제의하기를 “임황로는 24보인데 보마다 30호를 두면, 모두 720호가 됩니다. 영(營)을 만드는 일이 끝나면 관에서 1년치의 양식을 지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상이 흉년으로 인해 잠시 그치게 하고 우선 호(壕)를 열어 대비하게 하였다. 4월에 이부랑중(吏部郎中) 해호실해(奚胡失海)를 보내 호참을 구획하고 개척하게 하였는데, 파내면 얼마 안가 모래로 메워져 방어물로 사용하기에 부족하였다. 이에 말하기를 “250개의 보를 세우는 데 보마다 매일 공인 3백을 동원하면 한 달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양식의 비축도 충분하니 변방의 방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주의 9보와 임황의 5보 지역은 소금기가 많아 농사를 지낼 수 없는 땅으로, 관이 집을 건조하는 것을 제외하여, 살리내 이서 19보부터는 옛 수군(戍軍)의 사(舍)가 적으니, 대염락(大鹽瀼)의 관목 3만여 근을 공급하여 사용하게 하고, 더불어 직동보(直東堡) 부근의 산령에서 나무를 구하게 하여 매 가(家)와 관(官)으로 집을 만들어 하나의 서까래에 거처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⁷⁰

70 『金史』 卷24, 地理志 上 北境路 泰州 邊堡, “大定二十一年三月 世宗以東北路招討司十九堡在泰州之境 及臨潢路舊設二十四堡障參差不齊 遣大理司直蒲察張家奴等往視其處置 於是東北 自達里帶石堡子至鶴五河地分 臨潢路自鶴五河堡子至撒里乃 皆取直列置堡戍 評事移刺敏言 東北及臨潢所置 土墉樵絕 當令所徙之民姑逐水草以居 分遣丁壯營畢 開壕塹以備邊 上令無水草地官爲建屋 及臨潢路諸堡皆以放良人戍守 省議 臨潢路二十四堡 堡置戶三十 共爲七百二十 若營建畢 官給一歲之食

[가-③] (대정 21년 4월 무신) 태주와 임황부 등의 노(路)의 변보와 옥우(屋宇)를 증축했다.⁷¹

[가-②]의 기록을 보면, 세종 대정 21년(1181년)에 태주의 경계에 있는 19개 보와 임황로의 옛 24개 보장이 가지런하지 않았으므로 대리사직 포찰장가노 등을 보내 그 처리하는 일을 살피게 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계호 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이 가는 내용이다. 이 대정 21년 4월을 동북로와 임황로에 호참을 개설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가-②]를 보면, 당시 동북로는 달리대석보자에서 학오하 경계까지, 임황로는 학오하보자에서 살리내까지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정 21년에 공사가 있었음은 [가-③]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그런데 [가-③]에는 증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전에 이미 보가 설치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앞서 파로화가 오고(烏古)·적열부(迪烈部)에 주둔하면서 해자를 파는 등 기본적인 작업이 있었고, 세종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옛 터에 의거하여 준설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다.

[가-②]와 [가-③]은 대정 21년(1181년) 3월과 4월에 세종이 동북로 초토사의 태주의 경계에 있는 19개의 보와 임황로의 24개 보장에 대해 대리사직 포찰장가노 등을 보내 변보와 옥우를 증축하게 했는데, 4월에 증축했다는 [가-

上以年飢權寢 姑令開壕爲備 四月遣吏部郎中奚胡失海經畫壕塹 旋爲沙雪埋塞 不足爲禦 乃言 可築二百五十堡 堡日用工三百 計一月可畢 糧亦足備 可爲邊防久計 泰州九堡 臨潢五堡之地斥鹵 官可爲屋外 自撒里乃 以西十九堡 舊戍軍舍少 可令大鹽濬官木三萬餘 與直東堡近嶺求木 每家官爲構室一椽以處之。”

71 『金史』卷8, 世宗 大定 21年 4月 戊申, “增築泰州·臨潢府等路邊堡及屋宇.”

②]의 내용은 구체적인 작업은 4월부터 들어갔던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가-②]에는 보장의 구체적인 수와 보에 배당된 인원이 30호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려 주기도 한다.

이 가운데 살리내 이서에 위치한 대염락 관목과 직동보 부근의 산령에서 나무를 구하게 하였다고 한다. 대염락은 임황의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⁷² 지금의 내몽고 바린좌기의 동우짐친기의 달포소호(達布蘇湖)다. 몽골어로는 여기 노르[額吉諾爾] 또는 다포손노르[達布遜諾爾]라고 한다.⁷³ 직동보는 현재 어느 곳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정 21년 이전에 설치된 변보의 하나로, 임황로 계호가 지나가는 길목에 존재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직동보와 인근 산령에 대한 위치 추정은 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해, 1930년대와 40년대 초에 임황로 유적을 조사한 이문신의 글이 도움을 준다. 임황로 계호 부근에는 적산(赤山)과 흑산(黑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적산은 대염락이 위치하고 있는 동우짐친기로 통하는 요로가 있었다고 한다. 이문신은 당시 부로(父老)의 증언도 함께 그 글에 담았는데, 100년 전의 적산에는 거목이 많았다고 한다.⁷⁴ 변보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재목이 필요했을 것임을 고려하면, 직동보 인근 산령은 적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될 듯하다. 그렇다면 적산과 인접한 곳에 직동보가 위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에 변보와 옥우를 증축하려고 한 것은 대염락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염분이 많아 풀과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곳[가-②]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72 『金史』卷49, 食貨志4 鹽.

73 郭正忠(1997), 『中國鹽業史』(古代編), 人民出版社, 373쪽.

74 李文信(1947), 「金臨潢路界壕邊堡遺址」, 『遼海引年集』; 李文信(1992), 『李文信考古文集』, 遼寧人民出版社, 271~272쪽.

까닭에 그동안 앞선 시점에서 완전한 방어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⁷⁵ 이는 19개의 보와 임항로의 옛 24개 보장이 가지런하지 않았다는 언급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때에 와서 체계적인 방어를 위한 전체 계호에 대한 보완과 수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②]는 계호 준설뿐만 아니라 변보 등을 설치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장종(章宗)대인 명창(明昌) 3년(1192년)에도 계호의 일과 관련해서 다음 기록이 나타난다.

[가-④] (명창 3년 4월) 무오(戊午)에 조(詔)로 백관을 모아 북변(北邊)의 호를 설치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 (5월) 계유(癸酉)에 북변의 개호지역(開壕之役)을 파하였다.⁷⁶

[가-⑤] 처음 명창 연간에 유사(有司)가 건의하기를 “서남과 북서로로부터 임항을 따라 태주에 이르는 호집을 개축하여 대병(大兵)을 대비하려고 하였는데, 일하는 자가 3만 인으로 해를 이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어사대(御史臺)에서 말하기를, “그때그때 왔으나 바람과 모래로 (인해) 평평해지니, (적이 침입해 오는) 모욕을 막는 데는 이득이 없고 헛

75 대정 연간에 대염락이 변보에 포함된 이유는 그곳이 갖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던 듯하다. “대정 초에 조망지(曹望之)가 그곳에 각염(榷鹽)을 관리하는 관청을 두자는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백성으로 쌀과 무역하게 하면, 백성이 모여 취락을 이루고 그곳에 변어(邊圍)를 견고하게 한다면 그 이익이 무궁하다고 하자, 황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고한 기록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金史』 卷92, 列傳30 曹望之.

76 『金史』 卷9, 章宗 明昌 3年, “(4月) 戊午 詔集百官議北邊開壕事 …… (5月) 癸酉 罷北邊開壕之役.”

되이 백성들을 힘쓰게 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가뭄 재해로 인해 만공(萬公)을 불러 물으니 만공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을 수고롭게 한 것이 오래되어 화기를 해칠까 걱정되니, 마땅히 어사대의 말을 좇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일을) 파하여 편안함으로 삼았는데, 후에 승상 양(襄)이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 마침내 개축을 하니, 백성들이 매우 고생스러워했다.⁷⁷

[가-⑥] (명창 4년) 하물며 서·북 2경(京)과 임황의 모든 노(路)가 근년에 곡식이 여물지 않아, 양마(養馬)·첨군(簽軍)·도호(挑壕)의 역이 더해지니, 재력이 크게 곤핍해 유이(流移)하는 것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⁷⁸

[가-④]는 금 조정 내에서 명창 3년(1192년) 4월에 계호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5월에는 그 일을 파하였다고 한다. 명창 3년의 회의는 『금사』 ‘당회영전(黨懷英傳)’에도 “다음 해(명창 3년)에 호참을 설치해 변방을 방어할 것인가 하는 의논이 있었다. 회영(懷英) 등 16인이 그 역을 파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조(詔)로 그 의견을 따랐다.”⁷⁹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가-⑤]는 명창 연간(1190~1195년)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준다. 유사가 서남과 서북로로부터 임황을 거쳐 태주에 달하는 호참을 개축하여 대병을 대비토록 했는데, 동원된 이가 3만이라는 내용은

77 『金史』 卷95, 列傳33 張萬公, “初明昌間 有司建議 自西南·西北路 沿臨潢達泰州 開築壕塹以備大兵 役者三萬人 連年未就 御史臺言 所開旋爲風沙所平 無益於禦侮 而徒勞民 上因旱災 問萬公 所由致 萬公對以 勞民之久 恐傷和氣 宜從御史臺所言 罷之爲便 後丞相襄師還 卒爲開築 民甚苦之.”

78 『金史』 卷95, 列傳33 董師中, “況西·北二京 臨潢諸路 比歲不登 加以民有養馬·簽軍·挑壕之役 財力大困 流移未復.”

79 『金史』 卷125, 列傳 黨懷英, “明年 議開邊防濠塹 懷英等十六人請罷其役 詔從之.”

이때까지 여전히 계호 수축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기 때문이다. 『금사』 ‘패술로덕유전(李術魯德裕傳)’에도 명창 말에 북변의 호참을 수리하고 보새(堡塞)를 세웠다⁸⁰는 기록이 보인다. 장만공은 수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을 말해준다. 장만공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이유는 계호를 준설해 봐야 모래바람이 심해 금방 메워지기 때문에 그리 큰 이점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점도 반대 이유의 하나였다. 이러한 건의가 가능했던 것은 앞서 언급하였지만, 당시 한재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명창 4년에 곡식이 여물지 않은 상태라는 [가-⑥]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백성들에게 역을 과하게 부과해 백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심각함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만든 고통 중의 하나가 호를 파는 ‘도호’였던 것이다.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당시 계호수축 지속을 주장했던 원안양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준설을 감독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⁸¹ 임황로에서 원안양의 군사행동은 명창 6년(1195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우승상 원안양이 부마도위(駙馬都尉) 복산규 등을 거느리고 대염락에 진군하여 병사를 나누어 제영(諸營)을 공격해 취했던 것이다.⁸² 이는 금의 군사 행동과 계호 수축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계호 구축에 대해 일본 학자 외산군치는 저하된 맹안모극(猛安謀克)

80 『金史』 卷101, 列傳39 李術魯德裕.

81 王國維(1971), 앞의 책, 716~717쪽.

82 『金史』 卷10, 章宗 6年 12月.

의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한 금 조정의 소극적 방어 정책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⁸³ 하지만 군사 행동이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적극적인 대외 정책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계호 준설과 관련한 기록은 승안 연간에도 나타난다.

[가-⑦] (승안 3년에 승상 완안양이) 청하여 (임황에) 나아가 보졸들에게 참호를 파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임황(臨潢) 좌계(左界) 북경로(北京路)를 방어선으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 언자(言者)들의 의견이 많이 일치하지 않아, (상이) 조(詔)로 (양에게) 방략을 물었다. (완안)양이 말하기를, “지금 이것을 하는 데 비용은 비록 백만 관(貫)이지만, 일이 한 번 이루어지면 곧 변방이 견고해져 수병(戍兵)이 반으로 줄어 해마다 3백만 관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백성들의 운수하는 수고를 덜게 하여 실로 영원히 이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가하라고 하니 (완안)양이 친히 감독하였다. 군민(軍民)이 함께 일하고 또 기민(饑民)들을 모아 고용하여 일을 하니 50일 만에 일을 마쳤다. 이에 서북·서남로 또한 그의 요청에 따라 새(塞)를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주의 병사들이 적과 접전하였는데 종호(宗浩)가 그 일을 감독하여 죽이고 포로로 잡은 것이 과반이 넘었다. 모든 부(部)가 서로 투항하니 양이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북방이 마침내 안정되었다. 양이 임황에서 돌아오니 둔병 4만, 말 2만 필을 절감하였다. …… 상이 재신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추밀사(樞密使) 양이 변보를 세워 견고하게 완성했으니, 옛날부터 1성, 1읍을 세우는 것은 상을 주었다. 이에 삼공(三公)에 제수하고자 한

83 外山軍治(1964), 앞의 책, 476쪽.

다.”라고 하였다.⁸⁴

[가-⑦]은 승안 3년(1198년)에 승상 완안양이 임황로 좌계의 북경로에 대한 축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완안양이 직접 감독하여서 50일 만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이는 완안양이 임황로 계호를 설치한 인물임을 말해준다. 아울러 이 기록은 서북로와 서남로까지도 축설 작업이 진행된 사실도 더불어 서술되어 있는데, 그의 요청에 따라 새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서북로와 서남로의 축설도 그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임황로 계호를 완안양이 주도하였다고 하여, 그가 모든 변보를 설치하거나 계호를 준설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던 직동보의 사례에 볼 수 있듯이, 완안양은 앞서 설치되었던 변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하나의 방어선으로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태도가 아닌가 한다.

서북로와 서남로와 관련되어서는 다음 기록들이 도움을 준다. 먼저 서북로 계호에 대해 살펴보자.

[가-⑧] (독길사충은) 승안 3년에 흥평군 절도사에 제수되었다가 서북로 초토사로 고쳤다. 초에 서북쪽의 둔수(屯戍)를 수리하고 지켰는데 서쪽으로는 탄설(坦舌)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호열요(胡熱麼)에 이르렀으며 거의 6백 리이다. 중간에 보장이 있는데, 공역(工役)이 촉박하여 비록 장황(牆隍)은 있

84 『金史』 卷94, 列傳32 內族襄, “因請就用步卒穿壕築障 起臨潢左界北京路 以爲阻塞 言者多異同 詔問方略 襄曰 今茲之費雖百萬貫 然功一成則邊防固而戍兵 可減半 歲省三百萬貫 且寬民轉輸之力 實爲永利 詔可 襄親督視之 軍民並役 又募飢民以備卽事 五旬而畢 於是西北·西南路亦治塞如所請 無何 泰州軍與敵接戰 宗浩 督其後 殺獲過半 諸部相率送款 襄納之 自是北陲遂定 襄還臨潢 減屯兵四萬·馬二萬疋 …… 上諭宰臣曰 樞密使 襄築立邊堡完固 古來立一城一邑 尙有賞賚 卽欲拜三公 ……”

지만, 여장(女牆)과 부제(副堤)는 없다. (독길)사충이 늘려서 보수하였는데, 동원된 사람은 75만이었으나 둔수하는 군졸을 이용하는 데에 그치고 역이 백성에게까지 미치지 않았다.⁸⁵

[가-⑨] (승안 5년 9월) 기미(己未)에 상서성(尙書省)에서 주하기를, “서북로 초토사 독길사충이 말하기를 ‘각 노 변보의 상황이 서로는 둔수로부터 동으로는 호렬공(胡烈公)까지 거의 6백 리입니다. 저번에 급하게 쌓아야 해서 여장과 부제는 없습니다. 근래에 수리하여 마쳤는데, 모두 동원된 사람이 75만으로 수군을 부렸을 뿐 민간인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를 마쳤습니다.’”라고 하였다.⁸⁶

[가-⑧]과 [가-⑨]는 승안 3년에 서북로 초토사가 된 독길사충이 탄설부터 호열요[胡熱]까지 6백 리 지역을 승안 5년까지 걸쳐서 서북로 지역의 계호가 수축되고 보수된 사실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당시 서북로 계호의 수축을 담당 한 이는 독길사충이었는데, 두 기록을 통해 승안 3년에는 수축, 승안 5년에는 보축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원된 인원 75만이 승안 3~5년까지의 시간에 동원된 숫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당시 설치된 변보에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낮은 담인 여장과 부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북로 계호의 방어 체계가 완전하게 정비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서북로 계

85 『金史』卷93, 列傳31 獨吉思忠, “初大定間修築西北屯戍 西自坦舌 東至胡烈磨 幾六百里 中間堡障 工役促迫 雖有牆隄 無女牆副堤 思忠增繕 用工七十五萬 止用屯戍軍卒 役不及民.”

86 『金史』卷11, 章宗 承安 5年 9月 己未, “己未 尙書省奏 西北路招討使獨吉思忠言 各路邊堡牆隄 西自坦舌 東至胡烈公 幾六百里 向以起築慮遽 竝無女牆副隄 近令修完 計工七十五萬 止役戍軍 未嘗動民 今已畢功.”

호와 관련해서 왕국유는 다음 기록을 주목했다.

[가-⑩] 승안 2년(1197년)에 (완안안국에게) 변보를 쌓은 공으로 불리 첨추밀원사(簽樞密院事)를 제수하였다. (그에게) 호부(虎符)를 내리고 변방으로 돌려보냈다. 편의에 따라 일을 하였는데, 때에 새를 따라 제 부가 항복하였다.⁸⁷

[가-⑩]은 승안 2년의 완안안국이 변보를 수축한 공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왕국유는 이 『금사』 완안안국전의 기록과 이 내용에 앞서 “그가 공으로 서북로 초토사로 임명되었다(以功遷西北路招討使).”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북로 계호의 축설을 그가 담당한 것으로 이해했다. 기록을 보면, 완안안국이 서북로 초토사에 임명된 것은 명창(明昌) 6년(1195년)이었다.⁸⁸ 따라서 완안안국이 서북로 계호를 준설한 것은 명창 6년부터 승안 2년 사이의 일로 파악된다. 이어 서남로 계호의 수리와 축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도움을 준다.

[가-⑪] 다시 전공으로 서남로 초토사 겸천덕군(兼天德軍) 절도사로 승격하였는데, 금 50냥·중채(重綵) 11단(端)을 하사하였다. …… 마침 한국대장공주(韓國大長公主)가 사망하자, 규(揆)가 (궁궐에) 오니, 상이 타일러 말하기를, “북변의 일은 경이 아니면 주관할 수 없다.”며 전마 2필을 내리고 (그) 날로 돌려보냈다. 규가 변방을 따라 누를 쌓고 참를 파니 이어져 9백 리에

87 『金史』 卷94, 列傳32 完顏安國, “承安二年 以營邊堡功 召簽樞密院事 賜虎符還邊 得以便宜從事 時竝塞諸部降.”

88 『金史』 卷94, 列傳32 完顏安國.

걸쳤다. 영책(營柵)은 서로 바라보이고 봉화는 서로 응하였다. 사람들이 마
음대로 밭 갈고 말과 소를 치니 북변이 마침내 편안해졌다. …… 지흥중부
사(知興中府事) 흘석렬(紇石烈)의 아들 인(仁)으로 대신하게 하였다.⁸⁹

[가-⑫] (승안 4년 2월 신미에) 사공(司空) 양(襄)이 말하기를, “서남로 초
토사 복산규가 변방을 다스림에 있어, 궐로 불러들여 지흥중부사 흘석렬의
아들 인을 대신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⁹⁰

[가-⑩]는 서남로 초토사 복산규가 한국대장공주 사망 후에 변방 900리에
걸쳐 누(壘)를 쌓고 참을 뺐고 그 후에 흘석렬의 자(子) 인과 교체되었다고 한
다. 인과 교대된 시기는 [가-⑫]의 기록에 보듯이 승안 4년(1199년) 2월이었다.
따라서 복산규가 서남로 지역에서 축설 작업을 한 시기는 승안 4년 2월보다
앞선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복산규가 서남로 초토사로 처음 나타나는 시점은
승안 원년(1196년) 9월이고,⁹¹ 승안 2년에는 서남로 초토사 복산규 등이 병사를
거느림에 공이 있다⁹²는 기록이 찾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서남로 지역의 축설
은 1196년 9월과 1199년 2월 사이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⁹³

89 『金史』 卷93, 列傳31 僕散揆, “復以戰功升西南路招討使兼天德軍節度使 賜金五十兩·重綵一十端 …… 會韓國大長公主薨 揆來赴 上諭之曰 北邊之事 非卿不能辦 乃賜戰馬二 即日遣還 揆沿徼築壘穿塹 連亙九百里 營柵相望 烽候相應 人得恣田牧 北邊遂寧 …… 以知興中府事紇石烈子仁代之.”

90 『金史』 卷11, 章宗 承安 4年 2月 乙丑, “司空襄言 西南路招討使僕散揆 治邊有功 召赴闕 以知興中府 事紇石烈子仁代之.”

91 『金史』 卷11, 章宗 承安 4年 2月 乙丑, “司空襄言 西南路招討使僕散揆 治邊有功 召赴闕 以知興中府 事紇石烈子仁代之.”

92 『金史』 卷10, 章宗 承安 2年 10月 壬辰.

93 장해는 서북로와 서남로 계호는 세종 대정 4년에 개시하여 장종 승안 연간에 완성되었는 데, 서북로 계호의 설치는 삼하(三河) 유역의 몽골을 방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

왕국유는 앞서 거론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서북로는 승안 2년(1197년)에 완안국이, 승안 3~5년까지는 독길사충이 주관하였으며, 임항로는 승안 3년에 완안양이, 서남로도 승안 3년에 복산구가 주관해서 완성시켰다고 보았다. 그는 3로 외에 동북로 담당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도 그는 다음 기록을 바탕으로 승안 원년부터 2년에 걸쳐 종호가 수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가-⑬] 장종(章宗)이 즉위 후에 나가 북경유수(北京留守)가 되었다. 3차례 옮겨 동판대목친부사(同判大陸親府事)가 되었다. 북방에 소요가 있자 종호에게 명하여 금호부(金虎符)를 차게 하여 태주에 머무르게 하고 편의에 따라 일하게 했다. …… (종호를) 상서우승상(尙書右丞相)에 올려 제수했는데, 뛰어난 것이 높은 벼슬이었다. 때에 북변이 아직 편안하지 않아 징벌하려 하였는데, 호루를 축성하여 수수(守戍)로 대비하게 하자는 의론이 있었다.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다르고 같음이 많았다. 평장정사(平章政事) 장만공(張萬公)이 힘써 그 불가함을 말하자, 종호가 홀로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 이에 종호에게 명하여 행성사(行省事)로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일이 끝나자, 상이 조를 내려 포상하였는데, 하사품이 매우 두터웠다.⁹⁴

으로 이해했다. 그는 그 지역이 칭기즈칸이 통일한 몽골 고원으로부터 남하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 지점이었다고 봤다. 서남로 계호의 분포는 금과 서하의 변계 상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서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長海(2012), 앞의 글, 34쪽.

94 『金史』 卷93, 列傳31 宗浩, “章宗卽位 出爲北京留守 三轉同判大陸親府事 北方有警 命宗浩佩金虎符駐泰州 便宜從事 …… 時懲北邊不寧 議築壕壘以備守戍 廷臣多異同 平章政事張萬公力言其不可 宗浩獨謂便 乃命宗浩行省事 以督其役 功畢 上賜詔褒 賚甚厚.”

[가-⑬]은 상서우승상 종호가 북면에 호루를 축성한 사실을 담고 있다. 종호가 장종 즉위 후의 어느 시점에 호루를 쌓는 일에 책임을 진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왕국유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호루를 쌓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장만공이 한재(旱災)를 그 이유로 들었다는 것을 근거 삼아 승안 원년과 2년에 축설한 것으로 이해했다.⁹⁵ 그가 그렇게 이해한 것은 한재가 승안 원년에 있었기 때문이다.⁹⁶ 따라서 종호가 태주에 파견되는 승안 3년 [가-⑦] 이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승안 2년에 담당한 것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종호가 행정사가 되어 호루를 쌓는 일을 할 때는 그가 상서우승상이었을 때다. 기록을 살펴보면, 종호가 상서우승상이 된 것은 태화(泰和) 3년(1203년) 정월이었다.⁹⁷ 호루 설치를 반대한 평장정사 장만공은 같은 해 3월에 치사하였다.⁹⁸ 따라서 종호가 축설을 건의하고 장만공이 반대한 시기는 1203년 정월 이후부터 같은 해 3월 사이의 일임은 분명하다.⁹⁹ 따라서 종호의 축설은 1203년 정월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옳바르다.

이상의 『금사』 기록을 종합 검토한 왕국유는 천권(天眷) 연간에 계호의 쌓이었고 대정 연간에 축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명창 연간에 다시 계호 축설이 있었고 승안 연간에 낙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¹⁰⁰ 하지만 이 결론에 오류가 있음은 앞서 언급한 종호의 예에서 알 수 있다. 태화 연간에도 여전히 계호 준설이 행해졌다는 사실은 『대금국지(大金國志)』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95 王國維(1971), 앞의 책, 718~719쪽.

96 『金史』卷10, 章宗 承安 元年 3月 丁酉.

97 『金史』卷11, 章宗 泰和 3年 正月 己卯.

98 『金史』卷11, 章宗 泰和 3年 3月 壬申.

99 孫文政·孫仁(2008), 앞의 글, 69~70쪽.

100 王國維(1971), 앞의 책, 718~719쪽.

[가-⑭] (태화 원년) 겨울에 계호를 준설하였는데 깊이와 너비가 각각 3장이며, 동으로는 고려와 접하고, 서로는 하(夏)의 경계에 이른다. 둔수가 수천 리에 열 지어 있으며, 그들[야율득수(耶律得壽)와 모미(毛尾)의 남은 무리]가 다시 이르는 것을 방지하였다.¹⁰¹

[가-⑮] 태화 원년에 특별히 서남로연안하맹안(西南路延晏河猛安) 겸합찰모극(兼合札謀克)을 제수하여 세습하도록 하였다. 제(帝)가 경녕궁(慶寧宮)에 행차하여, (완안)안국에게 변방의 방어를 엄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¹⁰²

[가-⑭]는 태화 원년(1201년)에 동쪽은 고려와, 서쪽은 하와 접하는 계호 준설과 관련된 기록으로 [가-⑬]과 같이 보면, 태화 원년과 태화 3년에도 축설이 지속되었음을 알려준다. 태화 원년의 계호 준설과 관련해서는 [가-⑮]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화 원년에 장종이 변비를 엄히 할 것을 명했다고 하는 이 기록은, 앞서 언급한 『대금국지』의 서쪽으로 하까지 이른다는 내용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호의 준설 혹은 보수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 내용이다.

문헌에 보이는 계호는 동북로·임황로·서북로·서남로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¹⁰³ 이 계호들이 준설되기 시작한 것은 파로화로부터였다. 그 후 사이사이 계호 준설과 변보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세종대인 대정 연간에 이르러서 동북로와 임황로

101 『大金國志』卷24, 章宗皇帝 泰和 元年.

102 『金史』卷94, 列傳32 完顏安國, “泰和元年 特授世襲西南路延晏河猛安 兼合札謀克 帝幸慶寧宮 命安國嚴飭邊備.”

103 王國維(1971), 앞의 책.

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계호를 준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장종대에 들어와서는 각 노의 준설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계호 재준설 논의는 명창 3년 4월에 이루어졌는데, 승안 연간에까지 걸쳐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서북로는 명창 6년부터 승안 2년까지는 완안안국이 그리고 이어서 승안 3년부터 5년까지는 독길사충이, 임항로는 승안 3년에 완안양이, 서남로도 승안 3년에 복산규가 주관해서 방어 시설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태화 원년에도 계호 준설이 이루어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보수 작업이 수반되었다.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앞서 언급한 각 노에 설치된 계호의 시작점과 종착점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먼저 [가-②]를 보면, 동북로는 달리대석보자에서 학오하 경계까지, 임항로는 학오하보자에서 살리내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가-⑦]과 [가-⑧]을 통해 초에 서북로는 서쪽 탄설에서 동쪽 호열요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호열요는 임항로의 서쪽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로 계호의 시작점과 진행 방향은 『금사』 지리지에 달리대석보자에서부터 학오하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달리대석보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계호 유적이 눈강 서안의 전·후칠가자(前·後七家子)에서 시작되므로 이곳이 문헌에 보이는 달리대석보자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왕국유는 『몽고유목기(蒙古遊牧記)』에 “[북쪽 파음화석(巴音和碩)에 이른다] …… 260리에 학오하(鶴午河)가 있는데 근원이 이극호 파해산(伊克呼巴海山)에서 나와 마자탁산(磨子托山)을 경유하여 동남쪽으로 좌의 전기의 경계로 유입하여 유하(榆河)에서 모인다. …… 유하의 근원은 흥안산(興安山)에서 나온다.”¹⁰⁴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학오하(鶴五河)와 학오하(鶴午河)를

104 『蒙古遊牧記』 卷1, 科爾沁部, “(北巴至音和碩) …… 二百六十里有鶴午河 源出伊

동일한 곳으로 받아들였다.¹⁰⁵

임황로 계호의 학오하에 대해 왕국유는 『몽고유목기』에 보이는 학오하와 동일한 곳으로 간주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위치 비정은 하지 않았다. 후에 흑룡강성 박물관의 조사 보고서나 거주걸(賈洲傑)은 학오하를 지금의 돌천현 남쪽의 광림하로 보았다. 즉, 동북로는 눈강 서안에서 시작하여 광림하 북안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던 것이다.¹⁰⁶

살리내는 거란어로 그 지역이 청량하고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준다는 뜻이라고 한다. 즉 더위를 피하기에 적당한 곳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요사』에는 거란 도종(道宗)이 살리내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¹⁰⁷ 『금사』 지리지에도 살리내 지역에서 희종이 황통(皇統) 9년(1149년)에 더위를 피하였다¹⁰⁸는 기록이 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원대에 외척 쿵기라트[굉길갈(宏吉剌)]부가 달라이노르[達來諾爾]에 응창로(應昌路)를 두고 주하지지(駐夏之地)라고 칭하였다¹⁰⁹는 기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르(Нурь)’는 몽골어로 ‘호수’를 의미한다.¹¹⁰ 응창로고성(應昌路古城)은 달라이노르 남안에 위치하고 있다.¹¹¹ 따라서 살리내는 내몽고 부근의 달라이노르 부근이라 여겨진다. 즉 임황로 계호는 광림하 남안에서 시작하여 달라이노르 서안에 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면 될 듯하다.

克呼巴海山 經磨子托山 東南流入左翼前旗界 榆會河.”

105 王國維(1971), 앞의 책, 726~727쪽.

106 賈洲傑(1979), 「金代長城初議」, 『內蒙古大學學報』 2, 173쪽; 黑龍江省博物館(1961), 「金東北路金界壕邊堡調查」, 『考古』 5, 251쪽.

107 『遼史』 卷26, 道宗 壽隆 2年 6月 辛酉·壽隆 3年 5月 癸亥·壽隆 4年 5月 癸酉.

108 『金史』 卷24, 地理志 上 北京路 臨潢府.

109 『元史』 卷118, 列傳5 特薛禪.

110 余柄茂·姜善花(1994), 『한몽소사전』, 울란바토르 한국어 학교, 183쪽.

111 景愛(2006), 앞의 책, 269쪽.

앞서 서북로 계호는 서쪽 탄설로부터 동쪽 호열요(胡烈麼)에 이른다고 되어 있음은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왕국유는 동쪽의 호열요를 할리노(轄里農) 또는 할리니요(轄里尼要)로 봤다. 그는 ‘노르’의 음사인 니요(尼要)를 노이(淖爾)와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돌룬노르[多倫諾爾] 동북과 달리박(達里泊: 달라이노르)의 남쪽에 활래고륙(活來庫勒)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금의 할리니요라고 이해하기도 했다.¹¹² 경애는 달라이노르이 서남쪽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다약낙이[多若諾爾, 돌룬노르(多倫諾日)]라고 부른다고 하며 이곳이 왕국유가 언급한 활래고륙 즉, 호열요라고 이해했다.¹¹³

서북로 계호의 동쪽인 탄설에 대해, 도기는 지금의 산서 무천청(武川廳) 북쪽의 탑집호도극(塔集呼都克)이라고 보았다. 탑집(塔集)은 판본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대해 왕국유는 그 지역이 서남로초토사(西南路招討司)의 관할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오류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¹¹⁴ 하지만 그도 위치를 정확히 비정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경애는 영남선과 막남선이 만나는 사지왕기 동남부의 파음화알사(巴音花嘎查) 부근을 서북로와 서남로의 경계로 이해했다. 그 곳으로부터 80km 지역에 위치한 길생태향(吉生太鄉) 성북자고성(城卜子古城)이 금대의 정주 천산현(天山縣) 옛 터가 있는데, 『금사』 지리지에 천산현 북쪽으로 경계까지 80리라는 점과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¹¹⁵ 장해는 경애의 견해에 대해 찬동하면서도 두 계호선이 만나는 지점이 백음조극도진(白音朝克圖鎮) 남영자(南營子)라는 현지 조사를 근거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

112 王國維(1971), 앞의 책, 733쪽.

113 景愛(2006), 위의 책, 269쪽.

114 王國維(1971), 위의 책, 732쪽.

115 景愛(2006), 앞의 책, 270쪽.

다.¹¹⁶ 즉 서북로 계호는 달라이노르 서안에서 시작하여 사자왕기 남영자가 종점으로 판단된다.

서남로 계호의 경우에는 끝나는 지점은 고고학 성과를 통해, 무천현 상묘구촌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반면, 시작되는 지점은 『금사』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다만 서남로 초토사의 소재지인 풍주가 지금의 내몽고 호화호트 동쪽의 백탑촌서고성(白塔村西古城)이라는 점과 그 백탑촌서고성 부근에 서북로 계호의 종점인 남영자로부터 이어지는 방어진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남로 계호는 사자왕기 남영자로부터 시작해서 무천현 상묘구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¹¹⁷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동북로 계호는 눈강 서안의 전·후칠가자~곽림하 북안, 임황로 계호는 곽림하 남안~달라이노르 서안, 서북로 계호는 달라이노르~사자왕기 남영자 그리고 서남로 계호는 사자왕기 남영자~무천현 상묘구촌으로 파악된다.

2. 시기별 계호의 설치 의도

앞서 언급한 기록들을 참고하면, 금의 계호 수축은 금 건국 초창기와 세종대인 대정 연간 그리고 장종대인 명창과 승안 연간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각 시기별 계호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금이 계호를 축설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해서는 『집사』의 내용을 참고하자.

116 長海(2012), 앞의 글, 31~32쪽.

117 景愛(2006), 위의 책, 266·270쪽; 長海(2012), 위의 글, 32쪽.

[나-①] 칭기즈칸의 시대와 그 이전에 이 옹구트 종족은 키타이의 군주 알탄 칸의 속민과 군대의 일부를 이루었다. 몽골과는 비슷하지만 독립적인 한 종족이었고 사천 호가 있었다. 알탄 칸이라는 칭호로 불리는 키타이의 군주들은 몽골과 케레이트와 나이만 종족들 및 유목민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그 주변에 방벽(防壁, saddi)을 쌓았는데, 그것을 몽골어로는 ‘옹구(ōngû)’라고 부르고 투르크어로는 ‘요쿠르카(yôqûrqa)’라고 한다. 이것은 주르체 해안에서부터 카라무렌(Qarâ Mûrán) — 키타이와 친·마친 사이를 흐르고 있고, 그 원류는 탕쿠트 지방과 티벳에 있으며, 어느 지점에서든 건널 수 없다 — 에까지 뻗어 있다. 그 방벽의 요충(darband)을 옹구트 종족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그것을 방어하도록 서약하게 했다.¹¹⁸

기본적으로 알탄 칸 즉, 금의 황제가 몽골과 케레이트 그리고 나이만 등의 유목민으로부터 자국 보호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집사』에는 당시 금의 계호 주변에 옹구트가 알탄 칸 즉, 금 황제의 속민과 군대의 일부를 이루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왕국유는 옹구트를 오고부(烏古部)의 이역(異譯)으로 보았다.¹¹⁹ [가-①]의 파로화의 계호 준설을 언급한 『금사』 지리지의 오고(烏古)·적열부(迪烈部)와 연관되는 것이다.

12세기 초 금과 몽골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몽골 내부에서 부족 간의 싸움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들 또한 금의 영역 내로 침입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완안희윤신도비(完顔希尹神道碑)’에는 천

118 라시드 앳 딘 저·김호동 역주(2002), 『부족지』, 사계절, 226~227쪽. 『집사』는 몽골의 지배를 받던 일칸제국의 재산 라시드 앳 딘(?~1319)이 가잔칸의 명을 받아 집대성한 것으로, 김호동이 『부족지』·『칭기스칸기』·『칸의 후예들』로 나누어 번역하였다.

119 王國維(1971), 앞의 책, 732~733쪽.

회(天會) 13년(1135년) 겨울에 “맹고사(萌古斯)가 변방을 어지럽히자, 왕(完顏希尹)과 태사인 종반(宗磐)이 조서를 받들어 가서 정벌하였다.”¹²⁰고 기재되어 있다.¹²¹ 맹고사 즉, 몽골 부족이 변방을 어지럽히니, 이를 정벌하였다는 언급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건염이래계년요록(建炎以來系年要錄)』에도 이해 겨울에 몽골이 반란을 일으키자, 금주(金主)가 영삼성사(領三省事) 송국(宋國)과 왕종반(王宗磐)을 보내 병사를 이끌고 깨트리게 했다¹²²는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해 『집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나-②] (쿠틀라 카안은) 군대를 이끌고 키타이[金國]로 가서 알탄 칸의 군대와 종족들에 대항하여 전투를 벌였고, 그 지방의 일부를 약탈하기도 했다. …… 쿠틀라 카안을 ‘칸’으로 정했다.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 키타이 방면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여 전투를 벌였고 그들은 알탄 칸의 군대를 격파했으며, 수많은 키타이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했다.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¹²³

쿠틀라 칸은 카불 칸의 아들로 암바카이 칸에 이어 칸의 자리에 앉은 인물이다. 그는 암바카이 칸이 타타르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복수를

120 「大金故左丞相金源郡貞憲王完顏公神道碑」 『遼金元石刻文獻全編』 3(2003), 北京圖書館出版社, “萌古斯擾邊 王偕太師宗磐奉詔往徵之.”

121 외산군치는 ‘完顏希尹 神道碑’에 보이는 몽골과 금의 충돌 시기를 천회 13년(1135년) 11월부터 천권 원년(1138년) 7월 이전으로 보고 있다. 外山軍治(1964), 앞의 책, 427~428쪽.

122 『建炎以來系年要錄』 卷96, 紹興 5年.

123 라시디 앳 딘 저·김호동 역주(2003), 『칭기스칸기』, 사계절, 68·70쪽.

시도하였다. 『대금국지』를 보면, 황통 6년(1146년)에 “여진 만호(萬戶) 호사호(湖沙虎)가 북쪽으로 맹골자(盲骨子)를 공격하였다. 식량이 다하여 돌아왔는데, 맹골자의 습격을 받았다. 상경의 서북에 이르렀는데, 해령(海嶺)에서 크게 패배하였다.”¹²⁴고 기록되어 있어,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 전쟁이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해령은 대흥안령 산맥을 가리킨다.¹²⁵ 즉, 금의 상경 부근까지 몽골이 쳐들어 왔음을 말해주는 기록인 것이다. 양 정치체 사이에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나-②]의 『집사』에 쿠툴라 카안이 이끈 군대가 금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리품을 취하여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과 같이 보면, 양 정치체의 전투는 금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듯하다. 금은 이에 화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금국지』의 다음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나-③] (황통 7년) 이 해 몽골국(蒙骨國)이 편안해졌다. 처음 달라(撻懶)가 죽임을 당하자, 그 아들 승화도랑군(勝花都郎君)이라는 자가 그 아버지의 옛 부곡(部曲)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몽골과 통하였다. …… 해를 이어 토벌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황통 6년 8월에 다시 소보수노(蕭保壽奴)를 보내 더불어 화의를 하고 서평하(西平河) 이북 27위채(圍寨)를 나누어 주었다. 해마다 소, 양, 쌀, 콩 또 책을 그 추장 오라패극렬(熬羅孛極烈)에게 보내고 몽보국주(蒙輔國主)로 삼았다. 이때에 비로소 평화롭게 되었다. …… 대금(大金)이 군사를 부려 해를 이었으나, 결국 토벌하지 못했다. 다만 정병

124 『大金國志』卷12, 熙宗 皇統 6年, “女真萬戶湖沙虎北攻盲骨子 糧盡而還 爲盲骨子襲之 至上京之西北 大敗於海嶺.”

125 長海(2012), 앞의 글, 22쪽.

(精兵)을 보내 요해에 나누어 지키게 하고 돌아왔다.¹²⁶

금이 1146년에 몽골에 평화협정을 제안했고 이 협정을 통해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금은 몽골을 위협하던 변경 군사기지에서 철수하고 몽골에 물자를 보내는 것에 동의하면서 변경 지역에 안정을 가져왔다. 즉 1121년 이후부터 1138년까지 파로화의 계호 준설은 몽골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세종대인 대정연간에 가서 다시 계호 수축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대정 연간에 거란족과의 불화가 심해진 탓이었다. 앞서 계호 수축은 몽골 부족에 대한 견제 목적이 컸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때에 와서는 서북로에서 동북의 상경 지대로 옮긴 거란인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듯하다. 『금사』 병지(兵志)를 보면, “대정 초에 와알(窩斡)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이에 거란을 분산시켜 여러 맹안모곡에 예속시켰다.”¹²⁷는 기록이 보인다. 세종 초의 변경 관련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기록이다. 소와 알과의 불화는 대정 2년(1162년) 정월에 우부원수(右副元帥) 완안모연(完顔謀衍)이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소와알을 토벌하도록 했다는 기록에서 처음 보인다. 대정 2년 5월에는 원수(元帥) 좌감군(左監軍) 고충건(高忠建)을 보내 거란을 토벌하도록 하였으며,¹²⁸ 같은 해 9월에는 “을미에 조를 내려, 상서우승 흘석렬량 필이 해(奚)·거란의 반란자들을 편익에 따라 위무하였다. 경자(庚子)에 원수(元

126 『大金國志』卷12, 熙宗 皇統 7年, “是歲濛骨國平 初撻懶既誅 其子勝花都郎君者 率其父故部曲以叛 與濛骨通 …… 連年不能克 皇統之六年 之八月復遣蕭保壽奴與之和議 割西平河以北二十七圍寨與之 歲遺牛·羊·米·豆 且冊其酋長熬羅孛極烈爲濛輔國主 至是始和 …… 大金用兵連年 卒不能討 但遣精兵分據要害而還.”

127 『金史』卷44, 兵志 世宗, “及大定之初 窩斡既平 及散契丹隸諸猛安謀克.”

128 『金史』卷6, 大定 2年 5月 戊戌.

帥) 우도감(右都監) 완안사경(完顏思敬)이 거란 와알을 사로잡으니, 나머지 무리가 모두 평정되었다.”¹²⁹고 기재되어 있다. 대정 2년 9월에 와알의 난은 평정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정 4년에 와알 여당인 포속월(蒲速越)이 복주(伏誅)되었다¹³⁰는 기록이 보여, 거란과의 불화가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정황과 관련하여 대정 4년에 세종이 재신들에게 북경·의주(懿州)·임황 등의 노가 일찍이 거란에게 침략을 당했다¹³¹고 한 언급이 참고가 된다. 앞서 대정 5년에 태주와 임황의 접경에 변보 70곳을 설치하고 변보와 옥우를 증축하게 했다고 하는 기록을 언급하였는데, 당시 계호 수축이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후에도 거란족과의 불화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기록을 보자.

[나-④] (대정) 6년에 좌승상 협곡청신(夾谷淸臣)이 용병(用兵)을 할 때에, 안국을 선봉도통(先鋒都統)으로 삼았다. 마침 임황과 태주에 속한 부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완안안국이 앞서 토벌하여 평정하니, 공으로 본로(서북로) 초토사 겸 위원군절도사(威遠軍節度使)로 옮겼다.¹³²

대정 6년(1166년)에 임황과 태주에 속한 반란 종족들과의 전쟁이 지속되었

129 『金史』卷6, 大定 2年 9月, “乙未 詔尙書右丞紇石烈良弼以便宜招撫奚·契丹之叛者 庚子 元帥右都監完顏思敬獲 契丹窩斡 餘眾悉平長海.”

130 『金史』卷6, 世宗 大定 4年 5月 壬子.

131 『金史』卷6, 世宗 大定 4年 9月 己丑.

132 『金史』卷94, 列傳32 完顏安國, “六年 左丞相夾谷淸臣用兵 以安國爲先鋒都統 適臨潢·泰州屬部叛 安國先討定之 以功遷本路招討使 兼威遠軍節度使.”

음을 말해 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정 9년에 거란 외실랄(外失剌) 등이 모반을 했다가 복주되었다¹³³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금사』 병지를 보면, “대정 17년에 또 서남·서북로 초토사가 거란 여당은 본래 마음이 사납고 악해 다시 말썽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 다른 때에 혹 변방에 틈이 생기면 우리에게 쓰임이 되지 못할까 하여 오고리석루와 상경 땅에 윽기게 하였다”¹³⁴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때까지도 거란과의 불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인 것이다.¹³⁵ 수능전(守能傳)에 보면, “대정 19년에 서북로 초토사가 되었다. 이때 조로 와알 여당을 임황·태주에 윽기게 했다”¹³⁶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이때까지도 와알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금의 경계심이 작용했음을 말해준다.

앞서 언급한 [가-②]와 [가-③]의 대정 21년 기록들, 즉 이 해에 금이 동북로와 임황로 등에 변보와 옥우를 증축한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서술을 정리하면, 동북로와 임황로 금계호의 설치 목적은 서북로부터 동북 지역의 상경 지역으로 윽긴 거란인을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북부 변강 지역의 안정을 더하기 위

133 『金史』 卷6, 世宗 大定 9年 正月 戊寅.

134 『金史』 卷44, 兵志 世宗 大定 17年, “又以西南·西北招討司契丹餘黨心素狼戾 復恐生事 它時或有邊隙 不爲我用 令遷之於烏古里石壘部及上京之地.”

135 금과 거란의 불화는 당시 금이 태종 천회 원년(1123년)부터 서북·서남로 초토사나 초토도감(招討都監)들을 야율회의(耶律懷義) 등의 거란인으로 임명하여 거란족이 몽골 고원 세력을 방비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해릉왕이 남송을 침략하기 위해 병사를 징집하는 과정에서 서북·서남로 방면에 있는 거란족을 대상으로 삼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거란인들은 서하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는데, 징집되어 송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면 서하의 틈을 타서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금 정책에 대한 불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박원길(2012), 앞의 글, 8쪽.

136 『金史』 卷73, 列傳11 守能, “大定十九年爲西北路招討使 是時詔徙窩斡餘黨於臨潢·秦州.”

한 목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금대에 거란 무리를 옹기 후에 계호를 쌓아 감시하고 반란을 방지하여 금의 동북로 변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존재했던 것이다.

이어 계호 수축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장종대인 명창 연간이었다. 앞서 [가-④]에 언급했듯이 명창 3년(1192년) 4월에 북변에 호를 설치하는 논의가 있었고 5월에 파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계호 설치와 관련해서는 『금사』의 다음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나-⑤] 명창 초기로부터 북쪽 변방에 경계할 일이 있었는데, 혹자는 출병하여 적들을 공격할 것을 청하였다.¹³⁷

[나-⑥] 때에 북쪽 변방에 경계할 일이 있었다. (상이) 조로 백관을 모아 상서성에 의론하였다. 태위(太尉) 극녕(克寧)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군사를 부릴 것을 말하니, 익(益)이 천시(天時)가 아직 이롭지 못하다 하고 마땅히 후일을 기다려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다.¹³⁸

[나-⑤]는 명창 초기에 북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충돌과 계호의 축조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나-⑤]의 기록만으로는 명창 초기가 정확히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나-⑥]에 보이는 극녕을 통해 그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가 태위에 임명된 기간은

137 『金史』 卷73, 列傳11 完顏希尹附 完顏守貞, “自明昌初 北邊屢有警 或請出兵擊之.”

138 『金史』 卷97, 列傳35 移剌益, “時北邊有警 詔百官集尙書省議之 太尉克寧 銳意用兵 益言天時未利 宜俟後圖.”

대정 26년 5월이었는데,¹³⁹ 그는 장종이 즉위하는 대정 29년 7월에는 태부(太傅)가 되었기 때문이다.¹⁴⁰ 즉, 이 점을 고려하면, 북쪽 지역의 부족과 불화하는 시기는 대정 26년 5월부터 대정 29년 7월 사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명창 초기라고 했으므로 그 기간은 좀 더 한정이 가능하다. 즉, 장종이 즉위하는 대정 29년 정월부터¹⁴¹ 7월 사이임을 알 수 있다.¹⁴²

이 당시 소요를 일으킨 북방 세력은 훈론히[呼倫湖] 일대의 몽골 부족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사』 중호전에는 “북부의 광길랄(廣吉剌)이라는 것은 더욱 성정이 사나워 여러 차례 여러 부를 위협하여 (금의) 새로 들어오게 했다. …… 합저흔(合底忻)이라는 것은 산지곤(山只昆)이 더불어 모두 북방의 별부(別部)인데, 강함을 믿고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며 속박됨이 없었다. 조복(阻驍)과 광길랄 사이를 왕래하며 해를 이어 변방을 어지럽히니 모두 2부가 시키는 것이다.”¹⁴³ 라는 기록이 도움을 준다. 조복은 타타르, 광길랄은 퉁기라트, 합저흔은 카타킨, 산지곤은 살지우트 부족을 가리킨다.¹⁴⁴ 즉 명창 초기에 이들과 대립을 하였던 것이다.

명창 5년(1194년) 9월에 장종은 상서성에 명을 내려 백관을 소집해 변방의 일에 대해 논의를 하고,¹⁴⁵ 상경 등 9로에 명을 내려 다음 해인 명창 6년 봄을 기다려 병사를 징발한 후 여름에 임황에 모이게 했다.¹⁴⁶ 당시 정벌의 책임을

139 『金史』 卷11, 世宗 大定 26年 5月 甲申.

140 『金史』 卷11, (章宗) 大定 26年 7月 丁卯.

141 『金史』 卷11, (章宗) 大定 26年 正月 癸巳.

142 外山軍治(1964), 앞의 책, 473쪽.

143 『金史』 卷93, 列傳31 宗浩, “北部廣吉剌者尤桀驁 屢脅諸部入塞 …… 合底忻者 與山只昆皆北方別部 恃強中立 無所羈屬 往來阻驍·廣吉剌間 連歲擾邊 皆二部爲之也.”

144 外山軍治(1964), 앞의 책, 479·474~475쪽.

145 『金史』 卷10, 章宗 明昌 5年 9月 戊寅.

맡았던 인물은 협곡청신이었다.¹⁴⁷ 아울러 금은 명창 연간에도 지속적인 방어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금사』 패술로덕유전에도 명창 말에 북변의 호참을 수리하고 보새를 세웠다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¹⁴⁸ 방어 시설 설치와 군사행동에 대해 외산군치는 호참과 같은 방어 시설 설치를 강구하는 한편, 흥안령 서쪽에 나가 변경을 침입하는 부족에 대한 무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진압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⁴⁹ 다음 기록을 보자.

[나-⑦] (명창 6년) 명을 받아 출사하여 임황부의 행상서성사(行尙書省事)가 되었다. (협곡)청신이 사람을 보내 (적의) 허실을 정탐해 알고 경기병 8천으로 선휘사(宣徽使) 이랄민을 명하여 도통(都統)으로 삼고 좌위장군 충과 초토사 완안안국을 좌우익(左右翼)으로 삼아 나누어 전대(前隊)를 거느리고 스스로 선발한 병사 1만으로 후대(後隊)를 맡아 나아가 합록하(合勒河)에 이르렀다. 전대의 (이랄)민 등이 고로락(拷栲瀾)에서 14개 영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대군이 돌아와 맞이하였는데, 속부 사출(斜出)이 그 획득한 양과 말, 물건들을 감추고 돌아오자, (협곡)청신이 사람을 보내 속죄케 했다. 북조 북이 이런 까닭에 배반하고 갔다가 크게 침략하였다. 상이 (협곡)청신을 책하고 우승상(완안)양으로 대신하게 했다. …… (상이 말하기를) “처음 정토에

146 『金史』卷10, 章宗 明昌 5年 9月 甲申.

147 『金史』卷94, 列傳32 夾谷清臣.

148 장해는 동북로와 임황로의 축설은 대정 4년(1164년)에 시작해서 금 장종 명창·승안 연간에 이르기까지 계속 수축되었는데 전후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보인다. 아울러 수축의 주요 목적은 타타르, 옹구트, 카타킨, 살지우트 부락의 침략과 요의 옛 부의 반란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長海(2012), 앞의 글, 31쪽.

149 外山軍治(1964), 위의 책, 476쪽.

대한 의논이 있을 때 (협곡)청신이 그 일을 주관하여 군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비록 여러 차례 승리하였으나 작은 이익을 탐해 마침내 북쪽 변방이 편안해지지 못한 것이 여러 해에 이르렀으니, 천하가 이를 걱정하였다.”라고 하였다.¹⁵⁰

협곡청신이 명창 6년에 임황부 지역에 부임하여 한 군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당시 침구한 부족이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북방 지역의 부족과 충돌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당시 협곡청신이 군사 활동을 한 합륙하는 하일라르하를, 고로락은 훈분호를 가리킨다. 즉, 협곡청신은 임황으로부터 태주 방면으로 나갔다가 흥안령을 서쪽으로 넘어 하일라르 방면으로 진출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⁵¹

하지만 협곡청신은 조복 즉, 타타르의 추장인 사출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인해 타타르의 반발을 일으켰다. 장종은 작은 이익을 탐내 북쪽 변방이 편안해지지 못한 것이 여러 해에 이른다는 말을 할 정도였는데, 이는 협곡청신의 대처가 당시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회유 정책을 쓰던 금의 기미 정책에 반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준다.¹⁵² 이로 인해 북방 지역의 안보 책임은 완안양에게 넘어갔다. 이후 완안양은 같은 해 12월에 타타르를 정벌하는데 힘

150 『金史』 卷94, 列傳32 夾谷清臣, “受命出師 行尚書省事於臨潢府 清臣遣人 偵知虛實 以輕騎八千 令宣徽使移刺敏爲都統 左衛將軍充 招討使完顏安國爲左右翼 分領前隊 自選精兵一萬以當後隊 進至合勒河 前隊敏等於栲栳灤攻營十四 下之 迴迎大軍 屬部斜出掩其所獲羊馬資物以歸 清臣遣人責其賅罰 北阻鞮 由此叛去 大侵掠 上遣責清臣 命右丞相襄代之 …… 初議征討 清臣主其事 既而領軍出征 雖屢獲捷而貪小利 遂致北邊不寧者數歲 天下尤之.”

151 外山軍治(1964), 앞의 책, 478쪽.

152 外山軍治(1964), 위의 책, 479쪽.

을 쏟았다. 그와 같은 사정은 다음의 두 기록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나-⑧] 때에 북조북이 변방의 담장 가까이 왔다. 이웃한 부가 공을 세우고자 하여 상국에 강성함을 과장하고자 하니, 의론이 (완안)안국을 불러 함께 토벌하게 하였다. …… (명창) 6년에 좌승상 협곡청신이 용병함에 (완안)안국으로 선봉도통을 삼았다. 때마침 임황·태주의 속부(屬部)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안국이 앞서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공으로 본로 초토사 겸 위원군절도사로 옮겼다. 승안 원년에 대염락(大鹽瀾)의 전투에서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으니 (상이) 조로 금폐(金幣)를 내렸다. 우승상 (완안)양이 대군은 거느리고 나아가는데, (완안)안국은 양로도통(兩路都統)이 되어 다천자(多泉子)에서 크게 이겼다. 양이 안국을 보내 적을 추격하였는데, …… (완안)안국이 거느리는 부의 만인을 빠르게 몰아 가까이 가니, 그 부장이 항복하였다.¹⁵³

[나-⑨] 때에 좌승상 협곡청신이 북쪽의 변방을 막았다. 처리하는 계책에 어그러진 방법이 있어 변방의 일을 급하게 만들었다. 양에게 명하여 대신해 그 무리를 거느리게 했다. …… 때에 호리규(胡里虬) 또한 반역하였다. 무리를 북경·임황 사이에 불러 모았다. 양이 이르러 사람을 보내 부르니 곧 항복하였다. 나아가 임황에 주둔하였다. 얼마 뒤에 대염락에 군사를 보냈는

153 『金史』 卷94, 列傳32 完顏安國, “時北阻鞮迫近塞垣 隣部欲立功以誇雄上國 議邀安國俱行討之 …… 六年左丞相夾谷清臣用兵 以安國爲先鋒都統 適臨潢·泰州屬部叛 安國先討定之 以功遷本路招討使 兼威遠軍節度使 承安元年 大鹽瀾之戰 殺獲甚眾 詔賜金幣 既而右丞相襄總大軍進 安國爲兩路都統 大捷於多泉子 襄遣安國追敵 …… 安國統所部萬人疾驅以薄之 降其部長 捷聞 進官四級遷左翼都統.”

데, 다시 우위장군(右衛將軍) 완안충(完顏充)을 보내 알로속성(幹魯速城)에 군대를 나아가게 했는데, 둔수하고자 하여, 틈을 기다려 병사를 나아가게 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서북로 초토사 완안안국 등을 다천자에 보내 어 이르도록 하였다. 몰래 조서로 나아가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에 명을 내려 일부 군대는 동쪽 길로 나가게 하고, 양은 서쪽 길로 갔다. 동군이 용구하(龍駒河)에 이르러 조복에게 포위되었는데, 삼 일이 지나도 나가지 못하니, 구원이 매우 급하였다. 후자는 제군이 모이는 것을 기다려 (병사를) 내자고 하였으나, 양이 말하기를, “우리 군이 며칠 동안 포위되어 있는데, 달려가 그들을 구하지 못할까 걱정이거늘 무엇을 더 기다리겠는가.”라고 하며 밤에 북을 울리며 출발하였다. …… 이에 더욱 빨리 달려 새벽이 되어 적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 적군에게 돌격하여 급습하고 그들에게 포위되어 있던 장수를 또한 북을 두드리며 나와서 크게 싸워서 그들의 수레와 장막, 소와 양을 빼앗았다. (적의) 무리들이 모두 알리찰하(幹里札河)로 도망갔는데, (완안안국을 보내 그들을 추격하니, 적군이 흩어져 도망갔다. 때 마침 큰비가 내려 얼어 죽은 자들이 10에 8, 9가 되었다. 부장이 항복했다. …… 9월에 곁에 돌아왔는데, 좌승상·감수국사(監修國史) 상산군왕(常山郡王)에 봉해졌다.¹⁵⁴

154 『金史』 卷94, 列傳32 完顏襄, “時左丞相夾谷清臣北禦邊 措畫乖方 屬邊事急 命襄代將其眾……時胡里乂亦叛 嘯聚北京·臨潢之間 襄至 遣人招之 卽降 遂屯臨潢 頃之出師大鹽濼 復遣右衛將軍完顏充進軍幹魯速城 欲屯守 俟隙進兵 …… 未幾 遣西北路招討使完顏安國等趨多泉子 密詔進討 乃命支軍出東道 襄由西道 而東軍至龍駒河爲阻轡所圍 三日不得出 求援甚急 或請俟諸軍集乃發 卽鳴鼓夜發 …… 乃益疾馳 遲明 距敵近 …… 嚮晨壓敵 突擊之 圍中將士 亦鼓譟出 大戰 獲輿帳牛羊 眾皆奔幹里札河 遣安國追躡之 眾散走 會大雨 凍死者十八九 降其部長 …… 九月 赴闕 拜左丞相·監修國史 封常山郡王.”

완안양이 협곡청신을 대신해 총책임자가 되어 명창 6년 12월부터 이루어진 대염락과 다천자 그리고 용구하와 알리찰하 등에서 타타르 부족과의 전투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대염락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동우짐친기의 달포소호이고, 다천자는 내몽골 보이르호 부근에 가까운 탐삭블라크[塔木察格布拉克]이다.¹⁵⁵ 그리고 용구하는 케룰렌강이고 알리찰하는 지금의 울자강을 가리킨다.¹⁵⁶ 완안안국 등이 참여한 대염락 전투는 승안 원년 정월 4일의 일이었다.¹⁵⁷ 이때 대염락 군목사(軍牧使) 이랄도(移剌攏) 등이 옹기라트부의 병사에게 패해 사망하기도 하였다.¹⁵⁸ 완안양이 같은 해 9월에 궁궐로 돌아와 좌승상에 제수된 것을 고려하면,¹⁵⁹ 이 전쟁은 같은 해 8월 정도에 끝이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던 듯하다. 다음 기록을 보자.

[나-⑩] 10월에 조복이 다시 반란하였다. 양이 나아가 북경에 주둔하였다. 마침 군목(羣牧) 거란의 덕수(德壽)·타쇄(陔鎖) 등이 신주(信州)에 의거해 반란을 일으켰다. 멋대로 건원(建元)하였는데 신성(身聖)이라 하고 무리가 수십만이라고 하였다. 가깝고 먼 곳이 놀랐다. 양이 한가해 하기를 평일처럼 하니, 인심이 이에 편안해졌다. 처음 양이 출진(出鎭)하여 석문진(石門鎭)에 이르렀는데, 은밀히 요속(僚屬)에게 일러 말하기를, “북부가 새를 범하는 것을 어찌 우려할 만하겠는가. 다만 간사한 인간들이 틈을 타서 움직

155 譚其驥(1992), 『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50쪽.

156 外山軍治(1964), 앞의 책, 481~482쪽.

157 『金史』卷94, 列傳32 完顏安國.

158 『金史』卷10, 章宗 承安 元年 正月 甲申.

159 『金史』卷94, 列傳32 內族讓.

일까 두렵구나. 북경의 가까운 지역은 군이 적으니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곧 관리를 보내 상경 등의 군 6천을 발병하여 이곳에 이르게 하니, 진실로 그 쓰임이 있게 되었다. 임횡총관(臨潢總管) 오고론도원(烏古論道遠)·함평총관(咸平總管) 포찰수순(蒲察守純)에게 길을 나누어 나가 토벌하게 하니, 덕수 등을 잡아 경사(京師)에 보냈다. …… 적이 평정되었다.¹⁶⁰

[나-⑩]의 기록에 보듯, 같은 해 10월에 다시 타타르의 반란이 일어났다. 완안양의 정벌이 효과가 크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이다. 아울러 거란인들의 반란이 일어난 사실도 나타난다. 야율덕수의 반란은 『금사』 본기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승안 원년(1196년) 11월이었다. 그 기록을 보면, 특만군목(特滿羣牧) 거란 타쇄와 덕수가 반란을 일으켰지만, 태주군이 쳐서 패배시켰다고 되어 있다.¹⁶¹

완안양은 북쪽 유목민들의 침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란족들의 침입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완안양이 북경 부근에 군사를 주둔시켜 둔 것이 이때에 와서 쓰임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가 지속적으로 거란인들의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가-⑫]에서 언급한 태화 원년(1201년)의 계호 축설과도 관련을 맺는다. 『대금국지』에 동으로는 고

160 『金史』卷94, 列傳32 完顏襄, “十月 阻鞏復叛 襄出屯北京 會羣牧契丹德壽·陀鎖等據信州叛 僞建元曰身聖 眾號數十萬 遠近震駭 襄閑暇如平日 人心乃安 初襄之出鎮也 至石門鎮 密謂僚屬曰 北部犯塞奚足慮 第恐姦人乘隙而動 北京近地軍少 當預爲之備 卽遣官發上京等軍六千 至是果得其用 臨潢總管烏古論道遠·咸平總管蒲察守純分道進討 擒德壽等送京師 …… 不敢奉詔 賊平.”

161 『金史』卷10, 章宗 承安 元年 11月 庚寅.

려, 서로는 하에 이르는 계호를 준설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아을득수가 병사 수만을 모으고 모미를 태사로 삼아 반란을 일으키자, 마흔석열선락(馬紘石烈善樂)을 초토사로 삼아 병사 30만으로 토벌하도록 했는데, 그 무리를 쫓아 초지(草地)까지 갔다고 되어 있으며, 계호를 쌓자 그들이 다시 이르지 못했다¹⁶²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은 강경책과 더불어 회유책도 사용했던 듯하다. 태화 원년에 거란인 호(戶)를 회유하여 여진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명을 내린 사실¹⁶³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완안안국이 변수(邊戍)에 몰래 숨은 자들을 초유(招誘)하자고 하자, 장종이 옹계 여겼다¹⁶⁴고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로는 승안 3년에 내부한 사출이 있다.¹⁶⁵ 그는 명창 6년 협곡청신과의 불화로 인해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과 동일인으로 여겨진다.¹⁶⁶ 금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는 외부 세력과의 충돌을 막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사출과 관련해서는 승안 3년 10월에 할리노에 각장(樵場)을 열 것을 청했다¹⁶⁷는 사실에 눈길이 간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할리노는 서북로 계호의 시작점인 달라이노르이기 때문이다. 할리노에서 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유목민과의 경제 교류를 통해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는 당시 계호가 금과 유목민족 간의 경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⑭]의 『大金國志』 기록을 따른다면, 장종대에 계호 전체에 대한 축설

162 『大金國志』卷24, 章宗皇帝 泰和 元年.

163 『金史』卷11, 泰和 元年 4月 甲辰.

164 『金史』卷94, 列傳32 完顏安國.

165 『金史』卷11, 章宗 承安 3年 2月 丙戌.

166 外山軍治(1964), 앞의 책, 489쪽.

167 『金史』卷94, 列傳32 完顏安國.

혹은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살펴봤듯이 종호의 경우에는 동북로 계호를 담당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따라서 사출이 서북로 계호의 시작점인 할리노에 각장을 열 것을 청했다는 것은 서북로 계호의 축설이나 보수가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앞서 시대별로 계호 수축과 관련된 이유를 살펴봤는데, 계호는 기본적으로 몽골 및 거란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이었다. 희종 황통 6년(1146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몽골 부족과의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한 계호 준설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세종대인 대정 연간에는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이때에 와서는 서북로로부터 동북의 상경 지대로 옮긴 거란인 감시와 제어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 장종대에 들어와서도 북쪽 경계에서 몽골의 여러 부족 그리고 거란과의 충돌은 지속되었다. 명창 초에는 켈렌호 일대의 몽골 부족과 무려 충돌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금에 복속되어 전쟁에 참여했던 거란과 마찰이 불거졌고, 명창 6년부터는 거란과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져 이들과의 전투는 태화 원년까지 지속되기도 하였다. 금은 북쪽 변방에서 몽골과 거란을 막을 대책의 하나로 방어 시설인 계호와 변보를 축설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들에 대한 회유책도 병행하였음은 물론이다.

IV. 계호 연구의 논쟁점

계호 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계호를 장성의 범주에서 논할 것인가 하는 점과 파로화가 언제 계호 준설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준설한 곳이 현재 파악된 계호들 가운데 선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 『대금국지』의 계호 준설이다. 계호가 동쪽으로 고려와 접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1. 계호 혹은 장성

계호 연구와 관련해 가장 주된 관심 중의 하나는 계호를 ‘장성’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한 논쟁의 시작은 앞서 언급한 왕국유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는 「금계호고」에서 변보와 계호에 대해 구분하였는데, 그의 글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금사』 ‘내족양전(內族襄傳)’의 찬(贊)에서 북변에 호를 쌓은 일을 논하면서, 원위(元魏)와 북제(北齊)의 장성인가에 의문을 가졌는데, 후세에 금계호를 기록한 것들은 예를 들어, 조공(趙珙)의 『몽달비록(蒙遼備錄)』과 『원사(元史)』의 ‘수부테이진[速不台傳]’은 모두 이를 장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금대 초에는 ‘장성’의 칭이 없었다. 역사에 보이는 것은 ‘변보’라고 하거나, ‘계호’라고 하였다. 계호는 땅을 파서 도랑과 참호를 만들어 오랑개 말들의 발을 막는 것이며, 변보는 요해처에 성과 보루를 쌓아 지키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는 변경을 방어함에 있어서 각각 단점과 장점이 있다. 변보를 설치할 때에는 수초가 있는 편리한 곳을 취하여 설립하는데 가지런하지 않으면 적의 침략을 방어할 수 없다. 호참은 침략을 막을 수 있지만 공역이 매우 크다. 또한 변방 밖은 바람과 모래가 많으므로 참호를 막게 되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세종 때에 여러 번 관리를 보내 경영하게 하였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장종 때 변방의 재앙이 더욱 급해져 마침내

참호를 만드는 정책을 결정하여 승안 3년(1198년)에 완성하게 된 것이다. 그 참호는 동북쪽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에서 끝나니 거의 3천 리에 이른다. 근고 역사상에 있어서 대공역(大工役)이라고 이를 수 있다.¹⁶⁸

왕국유는 『금사』 등의 기록에 장성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고, 역사서에서 변보 혹은 계호라는 용어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장성 대신 금계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가 양자를 구분한 것은 그는 계호는 땅을 파내어 적의 말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 내는 시설물인 반면, 변보는 성과 보루 등의 인공 구조물을 지상 위에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이해는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쳐, 금계호를 장성의 범주 안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장성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는 측과 장성의 범주에서 얘기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양립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이전의 장성 관련 서적이나,¹⁶⁹ 논문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계호를 장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에 장성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에 중국 정부와 사회가 장성의 보호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부터였다. 중국은 ‘장성 보호 공정(2005~2014년)’을 시작하면서, 장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했던 것이다.

168 王國維(1971), 앞의 책, 712~713쪽, “金史內族襄傳贊 論北邊築壕事 以元魏·北齊之築長城擬之 後世記金界壕者 如趙珙蒙韃備錄·元史速不台傳并謂之長城 然金世初無長城之稱也 其見於史者 曰邊堡 曰界壕 界壕者掘地爲溝塹 以限戎馬之足 邊堡者 於要害處築城堡 以居戍人 二者於防邊各有短長 邊堡之設得擇水草之便利處置之 而參差不齊 無以御敵人之侵軼 濠塹足以禦侵軼矣 而工役絕大 又塞外多風沙 以堙塞爲患 故世宗朝屢遣使經畫 卒不能決 章宗時邊患益亟 乃決界壕之策 卒於承安三年成之.”

169 王國良(1971), 『中國長城治革考』, 商務印書館.

이후 장성의 개념은 연속된 벽에서 요새나 초소와 같은 거점을 포함하는 선으로 변화하였으며, 흔적만 있으면 장성의 범위에 포함되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계호도 장성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하려는 논의들이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인식이 잘 드러난 것이 2006년에 『중국장성박물관(中國長城博物館)』 2006년 4기에 실린 논문들이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도 견해 차이는 있었다. 장성으로 보는 쪽(이홍빈의 「아래 '금계호'에 '장성' 개념적 이해, 손수인의 「관우금계호변보적연구에 상관문제」, 황풍기의 「장성·금대장성척의」)과 그렇지 않는 쪽(성대립의 「신설금계호불시장성」)으로 나뉘었던 것이다.

손수인도 2007년 발표한 글에서 '금계호'는 '금장성'이라고 칭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는 여태까지 금계호를 장성의 범위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¹⁷⁰ 이홍빈도 금계호는 장성에 속하며, 부적합한 것이 없다고 보았다.¹⁷¹ 이러한 논의 이후에 계호를 자연스럽게 장성으로 쓰는 경우가 늘고 있는 형국이다.

금계호를 장성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학자는 경애가 있다. 그는 변호와 장성이 모두 고대의 군사 방어 시설이기는 하지만, 두 가지는 구조상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다. 장성이 지면에 높은 장벽을 쌓아 적의 진입을 막는 인공 건축물인 반면에, 변호는 지하로 해자를 파서 적의 기병이 넘어 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¹⁷²

170 孫秀仁(2007), 「關於金長城(界壕邊堡)的研究與相關問題」, 『北方文物』 2.

171 李鴻賓(2008), 「金界壕與長城」, 『中國邊疆史地研究』 3.

172 景愛(2006), 앞의 책; 景愛·苗天娥(2008), 앞의 글.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장성의 범주에 포괄하여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⁷³ 중국 정부가 장성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여겨진다.

2. 파로화의 계호 준설과 그 위치

파로화의 계호 준설과 관련해서는 왕국유 이후의 많은 학자들은 달리대석보자부터 임황까지의 계호를 그가 수축한 것으로 이해했다. 지금의 대흥안령 남쪽에 위치한 계호로 이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문헌 기록과 고고학 성과의 차이 때문에서 기인한 것이다. 대흥안령 남쪽에 위치한 여러 가닥의 계호는 그동안 문헌과 비교·검토가 가능했지만, 대흥안령 북쪽에 위치한 영북선의 경우에는 문헌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자들 가운데는 문헌에서 그 정체가 확인되지 않는 영북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파로화가 준설한 계호가 그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듯하다. 이러한 논의는 파로화가 준설한 계호를 어디에 비정하느냐에 따라, 영북선을 요 혹은 금이 준설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파로화가 준설한 계호가 영북선임을 주장한 학자로는 미문평, 이비화, 손

173 판창독수(阪倉篤秀)도 참호를 파는 형태가 한대에 서쪽으로 연장시킨 장성의 공법과 동일하며, 명이 건설한 변장이라고 불리는 토벽의 외측에 보강책으로 호를 파는 일이 있으므로, 금의 계호도 넓은 의미에서는 역대 장성에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阪倉篤秀 지음·유재춘·남의현 옮김(2008), 『장성의 중국사』, 강원대학교출판부, 127쪽.

문정과 손인, 장해를 들 수 있다. 미문평은 「금대호륜패이제부금계호(金代呼倫貝爾諸部及界壕)」에서 영복선은 금초에 몽골과의 전쟁을 위한 방어 시설이라는 견해를 제기했으며,¹⁷⁴ 이비화는 『금사』 지리지에 보이는 “右線入泰州婆盧火所浚界浚壕”라는 계호의 서술을 바탕으로, 대흥안령 동쪽으로부터 일어나 눈강 우안에 이르는 변장이 아닌 훈툰보이르 초원에 위치한 서북부의 700여km의 영복선이 파로화가 건설한 계호라는 견해를 제기하였다.¹⁷⁵ 손문정과 손인은 파로화가 준설한 계호를 영복선으로 이해했는데, 그 근거는 파로화가 오고적열지(烏古迪烈地)에서 사망했다는 점이었다. 『금사』 지리지에는 동북로 초토사는 지금의 태래현 탐자성에 위치한 태주의 경내에 두었다는 것을 근거로, 파로화가 오고적열지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대흥안령 북쪽의 하이랄[海拉爾] 부근의 계호를 그가 준설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는 금 초기는 영토 확장기로, 흥안령 동쪽에 계호를 건설해 스스로 확장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했다.¹⁷⁶ 장해는 파로화가 준설한 계호가 금산 즉, 대흥안령을 지나간다는 『금사』 지리지의 언급을 근거로 하여, 대흥안령의 북쪽에 거주하는 타타르나 퉁기라트부가 금 초기에 이미 금에 귀부했으므로, 그곳이 계호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이해했다.¹⁷⁸

이와는 달리 영복선이 거란(요)에 의해 축설되었다고 보는 학자는 손수인,

174 米文平(1991),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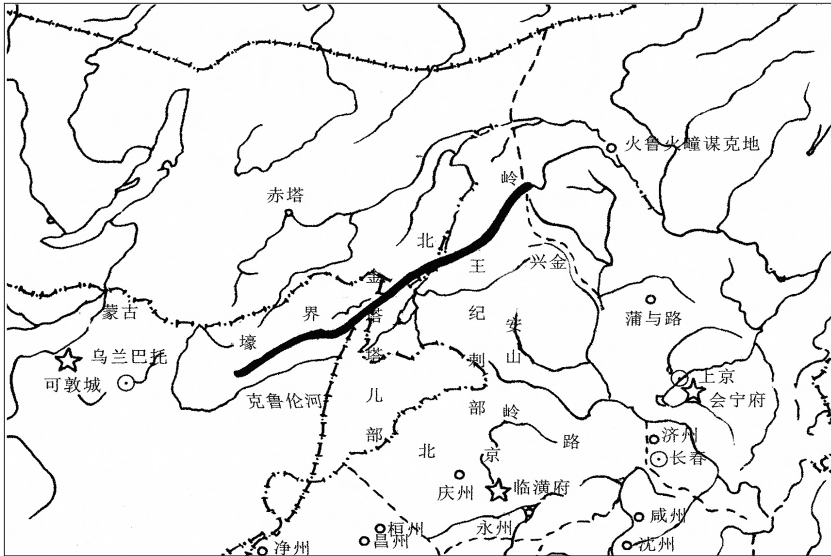
175 李丕華(2004), 앞의 글, 58쪽.

176 孫文政·孫仁(2006), 앞의 글.

177 長海(2013), 앞의 글, 69쪽에서 인용.

178 長海(2012), 앞의 글; 長海(2013), 앞의 글.

장해는 영복선의 축설 목적을 금이 1125년에 거란을 멸망시킨 후, 야율대석(耶律大石)이 막북 지역을 차지하고 금의 후방에 직접 위협을 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1135년 이후 몽골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영복선 계호는 방어 기능이 붕괴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림 3〉 영북선 계호와 그 주변 지역¹⁷⁸

장태상(張泰湘)과 서리력(徐俐力), 경애가 있다. 손수인은 요조 중엽에 돌궐, 실위, 조북 등의 침범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군사 방어 시설이었다고 이해했으며,¹⁷⁹ 장태상과 서리력은 거란이 오고·적열부의 침입을 막고 케를렌하(克魯倫河), 칼카하(哈拉哈河), 하일라르하(海拉爾河)의 농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거란이 창설한 것으로 이해했다.¹⁸⁰

경애도 영북선은 성길사한(成吉思汗) 장성, 금원 변보, 을출(兀朮) 장성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은 민간 전설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금대에 축설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 근거는 『금사』 지리지의 서문에

179 孫秀仁(2006), 「關於金界壕邊堡的研究與相關問題」, 『中國長城博物館』 4.

180 張泰湘·徐俐力(2003), 「遼代邊牆考」, 『北方文物』 1.

금대 변계는 계호 이서의 금산 즉, 대흥안령 산맥이었다고 기록한 것에 있다. 영서 지역은 조복(阻卜) 즉, 타타르인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금의 병력은 여러 차례 영서 지역을 정벌했지만 전쟁이 끝나면 귀환해 홀룬보이르에 주둔하지 않으며, 아울러 여진인들은 농경민족인데, 홀룬보이르 지역은 사막의 초원지역으로 농경에는 맞지 않는 공간으로 여진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보았다. 축설 시기에 대해서는 거란 성종(聖宗) 대에 초피(貂皮) 등의 문제로 오고·적열부가 반발하자,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홀룬보이르에 변호를 수축했다는 주장을 하였다.¹⁸¹

현재 이러한 논의는 어느 쪽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듯하다. 추후 논의가 좀 더 진행된다면 한층 더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3. 연변 지역 변장과 고려

앞서 언급한 『대금국지』 기록을 보면(가-④), 계호가 동쪽으로 고려와 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연변 지역의 변장(邊牆)이라 불리는 유적이 주목된다. 이 유적은 두 곳에 있는데, 두도구벌과 연길벌의 서·북·동 3면을 둘러싸고, 다른 하나는 훈춘별 북부를 에워 쌓았다. 화룡, 용정, 연길 경내의 유적은 서쪽으로는 화룡현의 토산향 동산촌 동쪽산으로부터 시작하며 서성향의 이도촌 서북쪽을 에돌아 용문향의 아동 저수지에 이르고 계속하여 화룡현의 인삼장을 거쳐 용정시 경내의 세린하향 장성촌, 일신촌, 문화촌, 소북촌을

181 景愛(1982), 「關於呼倫貝爾古邊壕的時代」, 『社會科學戰線』, 1; 景愛(1983b) 「關於呼倫貝爾古邊壕的探索」, 『歷史地理』; 景愛·苗天娥(2008), 앞의 글.

182 연변박물관 《연변문화유물략편》 집필소조(1989),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출판사, 74쪽.

꼭대기마다 흙이나 돌로 쌓은 돈대가 있다. 그 직경은 15~25m, 높이는 2~3m이다. 훈춘 경내의 유적은 주로 훈춘별 북쪽산을 에돌면서 쌓았는데, 총 길이는 25km이다. 이곳의 성벽 짜임새와 돈대 설치 방법은 화룡·용정·연길 경내의 유적과 같다. 이 두 곳의 유적이 서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총길이는 400km가 된다.¹⁸³

주목되는 것은 이 유적이 남쪽을 방어하기 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성벽에서 돌출되어 있는 적대가 연결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¹⁸⁴ 연결시 쪽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형태를 보인다. 북쪽에서 남쪽을 막는 형국인 것이다.

하지만 이 성의 수축 연대와 목적에 관해서는 몇 가지 논의가 있다. 먼저 동하국(東夏國) 시기에 서북의 거란족 야율유가(耶律留哥)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것이라는 설과 고구려 시기에 북부 읍루(挾婁)의 남침을 막기 위해 수축한 것으로, 발해와 요·금 시기에 계속 사용했을 것이라는 견해¹⁸⁵ 그리고 금 초기에 여진인이 쌓은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¹⁸⁶ 동하국 시절에 야율유가를 막기 위해 쌓았다는 견해는 야율유가가 대체로 압록강 유역에서 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만강을 바라보는 지역에 변장을 설치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제기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고구려 시기는 변장이 경계 지역보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금 초기에 쌓았

183 鄭永振(1990), 「연변지구의 고구려유적 및 몇 개 문제에 대한 탐구」, 『韓國上古史學報』 4, 303~304쪽.

184 이성제는 적대가 연결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구려 시기의 장성과 무관하게 보았다. 李成制(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運用 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4, 173~174쪽.

185 연변박물관《연변문화유물략편》집필소조(1989), 앞의 책, 83~84쪽.

186 魏聲和(1984), 「琿春古城考」, 『琿春縣文物志』.

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서는 경애도 같은 견해를 표시했다. 고려의 9성에 대해 여진이 갈라전에 쌓은 성에 주목한 것이다.¹⁸⁷

그런데 ‘금 초기’ 설은 고려 예종대 윤관의 여진 정벌과 관련을 맺고 있어 주목된다. 윤관은 예종대에 여진 정벌을 하면서 9성을 쌓은 적이 있었다. 고려가 새로 축성한 성은 함주(咸州), 영주(英州), 복주(福州), 웅주(雄州), 길주(吉州), 통태진(通泰鎭), 공험진(公險鎭), 의주(宜州), 평용진(平戎鎭)이었고, 여진에 돌려준 성은 함주, 영주, 복주, 웅주, 길주, 통태진, 진양진(眞陽鎭), 승녕진(崇寧鎭), 선화진(宣化鎭) 등이었다. 신설한 성과 돌려준 성 사이에는 3성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⁸ 신설한 성 가운데 공험진, 의주, 평용진과 돌려준 성 가운데 진양진, 승녕진, 선화진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는 고려가 갈라전 지역에 위치한 9성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가 예종 14년(1119년)에 고려가 갈라전 지역의 장성을 석 자 더 증축하자, 금이 방해하려 하다가 그만두었다¹⁸⁹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증축이라는 표현은 갈라전 지역을 고려가 이때까지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¹⁹⁰ 이 당시 9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두만강 너머 700리 설이다. 두만강 너머의 700리 지점에 공험진이 존재했다고 한 것이다.¹⁹¹ 따라서 이 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고려가 갈라전에 증축한 장성과 이 연변

187 景愛·苗天娥(2008), 앞의 글, 27쪽.

188 金九鎭(1976), 「公險鎭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189 『金史』 卷2, 太祖 天輔 3년 11월; 『高麗史』 卷14, 睿宗 14年 末尾.

190 허인옥(2012), 「고려 肅宗·睿宗代 女眞정벌과 高句麗舊地 迴復意識」, 『北方文化研究』 3.

191 이에 대해서는 方東仁(1976), 「尹瓘九城再考」, 『白山學報』 21; 金九鎭(1976), 「公險鎭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참조.

지역의 금 변장이 마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듯하지만, 고려와의 관계에서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그 가능성 정도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V. 맺음말

이상의 과정을 거쳐 금계호 준설과 관련된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동북로 계호는 파로화가 준설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보수가 있었으며, 서북로 계호는 명창 6년부터 승안 2년(1195~1197년)까지는 완안안국이, 승안 3년(1198년)부터 5년까지는 독길사충이 주관하였으며, 임황로 계호는 승안 3년에 완안양이, 서남로 계호는 승안 3년에 복산규가 주관해서 방어선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동북로 계호는 흑룡강성 눈강 서안의 전·후칠가자~내몽고자치구 광림하 북안, 임황로 계호는 광림하 남안~달라이노르 서안, 서북로 계호는 달라이노르~사자왕기 남영자, 서남로 계호는 사자왕기 남영자~무천현 상묘구촌까지다.

이 계호들이 준설되기 시작한 것은 파로화로부터였다. 그 후 사이사이 계호 준설과 변보 설치가 이루어졌는데,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설치 작업이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작업은 세종대인 대정 연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는데, 동북로와 임황로부터 체계적인 계획하에 계호를 준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계호 재준설 논의가 장종 명창 3년 4월에 이루어져, 승안 연간에까지 걸쳐 다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서북로는 명창 6년부터 승안 2년까지 완안안국이 이어서 승안 3~5년까지는 독길사충이, 임황로는 승안 3년에 완안양이, 서남로는 승안 3년에 복산규가 주관해서 방어 시설을

완성하였다. 하지만 태화 원년에 계호 준설이 이루어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수축과 보수 작업이 수반되었음은 물론이다.

계호는 기본적으로 몽골 및 거란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시설이었다. 희종 황통 6년(1146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몽골 부족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계호 준설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세종대인 대정 연간에는 거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서북로로부터 동북의 상경 지대로 옮긴 거란인 감시와 제어가 좀 더 비중이 높아졌다. 장종대에 들어와서도 몽골 여러 부족·거란과의 불화는 이어졌다. 명창 초에는 켈렌호 일대의 몽골 부족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에 복속되어 몽골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거란과도 마찰이 생겼고 명창 6년부터는 거란과도 전쟁을 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태화 원년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즉, 금은 계호를 준설하고 변보를 쌓는 등 지속적으로 방어 시설을 보완하여 유목민의 침입을 막고 그들을 제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

- 『부족지』[라시디 앳 딘 저·김호동 역주(2002), 사계절].
『칭기스칸기』[라시디 앳 딘 저·김호동 역주(2003), 사계절].
『建炎以來系年要錄』.
『金史』.
『大金國志』.
『蒙古遊牧記』.
『遼金元石刻文獻全編』(2003), 北京圖書館出版社.
『遼史』.
『元史』.
『布特哈志略』.
『黑龍江外記』.
『黑龍江輿圖』(『遼海叢書』附冊, 遼沈書社).

저서

- 연변박물관《연변문화유물략편》집필소조(1989),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인민출판사.
阪倉篤秀 지음·유재춘·남의현 옮김(2008), 『장성의 중국사』, 강원대학교출판부.
郭正忠(1997), 『中國鹽業史』(古代編), 人民出版社.
景愛(2006), 『中國長城史』, 上海人民出版社.
金毓黻(1946), 『東北通史』, 樂天書局.
譚其驤(1992), 『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王國良(1971), 『中國長城治革考』, 商務印書館.
王國維(1971), 『定本觀堂集林』, 世界書局.
魏聲和(1984), 「琿春古城考」, 『琿春縣文物志』.
李文信(1992), 『李文信考古文集』, 遼寧人民出版社.
箭內互(1966), 『蒙古史研究』, 刀江書院.

外山軍治(1964), 『金朝史研究』,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余柄茂·姜善花(1994), 『한몽소사전』, 울란바토르 한국어 학교.

논문

- 박원길(2012), 「금나라의 북방방어선과 타타르부」, 『금사(金史)와 북방문화연구 (Ⅱ)』, 단국대부설북방문화연구소.
- 李成制(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4.
- 鄭永振(1990), 「연변지구의 고구려유적 및 몇 개 문제에 대한 탐구」, 『韓國上古史學報』 4.
- 허인옥(2012), 「고려 肅宗·睿宗代 女眞정벌과 高句麗舊地回復意識」, 『北方文化研究』 3.
- 賈洲杰(1979), 「金代長城初議」, 『內蒙古大學學報』 2.
- 景愛(1982), 「關於呼倫貝爾古邊壕的時代」, 『社會科學戰線』 1.
- 景愛(1983), 「關於呼倫貝爾古邊壕的探索」, 『歷史地理』.
- 景愛(1987), 「遼金泰州考」, 『遼金史論集』 1.
- 景愛·苗天娥(2008), 「遼金邊壕與長城」, 『東北史地』 6.
- 克什克騰旗博物館(1991), 「克什克騰旗金代界壕邊堡調查」, 『內蒙古文物考古』 5.
- 金九鎮(1976), 「公險鎮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 金寶麗(2011), 『蒙古灰金史事研究』, 中央民族大學 博士學位論文.
- 金鑄(1991), 「也談黑龍江省境內的金東北路界壕邊壕」, 『黑河學刊』 4.
-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巴林右旗博物館(2010), 「巴林右旗巴根吐金代界壕發掘簡報」, 『內蒙古文物考古』 1.
- 達茂旗文物管理所(2000), 「達茂旗境內的金代邊堡界壕」, 『內蒙古文物考古』 1.
- 譚英杰 외 3인(1991), 「金源內地的遺跡與文物」, 『黑龍江區域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米文平(1991), 「金代呼倫貝爾諸部及界壕」, 『黑河學刊』 4.
- 方東仁(1976), 「尹壘九城再考」, 『白山學報』 21.
- 趙玉明(1997), 「嶺東金代長城調查」, 『內蒙古社會科學』 1.
- 宋德輝(2004), 「婆盧火與金泰州」, 『白城師範學院學報』 18-2.

- 李文信(1947),「金臨潢路界壕邊堡遺址」,『遼海引年集』.
- 孫文政(2010),「金長城研究概述」,『中國邊疆史地研究』20卷1期.
- 孫文政·孫仁(2006),「金東北路界壕邊堡建築時間考」,『中国长城博物馆』4.
- 孫秀仁(2006),「關於金界壕邊堡的研究與相關問題」,『中国长城博物馆』4.
- 孫秀仁(2007),「關於金長城(界壕邊堡)的研究與相關問題」,『北方文物』2.
- 李丕華(2004),「蒙古高原邊牆考」,『東北史地』3.
- 李鴻賓(2008),「金界壕與長城」,『中國邊疆史地研究』3.
- 姚從吾(1971),「遼金元時代的長城」,『姚從吾先生全集』1,正中出版社.
- 張伯忠(1982),「吐列毛杜古城調查試掘報告-兼論金代東北路界壕」,『文物』7.
- 張柏忠(1988),「遼代泰州考」,『北方文物』1.
- 張蔚(2012),「北魏長城與金界壕對比研究」,『東北史地』6.
- 張漢英(1993),「河北豐寧境內古長城和金代界壕」,『文物春秋』1.
- 長海(2012),「金界壕相關問題的研究」,內蒙古大學碩士學位論文.
- 長海(2013),「嶺北金界壕修築時代的初析」,『草原文物』1.
- 田淑華(1995),「承德地區金代長城調查與考略」,『遼金史論叢』.
- 趙永軍·李陳奇(2011),「黑龍江金代考古述論」,『北方文物』3.
- 張泰湘·徐俐力(2003),「遼代邊牆考」,『北方文物』1.
- 哲理木盟博物館(1984),「內蒙古霍林河礦區金代界壕邊堡發掘報告」,『考古』2.
- 龐志國(1981),「金東北路,臨潢路吉林省段界壕邊堡遺址」,『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書』,文物出版社.
- 彭占杰(2001),「金代長城初論-兼論《金界壕考》」,『遼金史論集』6.
- 馮永謙(2007),「金長成的考古與發現」,『東北史地』3.
- 項春松(1987),「巴林左旗金代臨潢路邊堡界壕踏查記」,『北方文物』2.
- 解丹(2012),「金長城軍事防禦體系及其空間規劃布局研究」,天津大學博士學位論文.
- 解丹(2013),「金長城界壕防禦工程中壕的淵源和作用」,『新建築』1.
- 黑龍江省博物館(1961),「金東北路金界壕邊堡調查」,『考古』5.
- B. B. 包諾索夫(1942),「成吉思汗邊牆初步調查」,『大陸科學院通報』5卷1.
- B. B. 包諾索夫(1944),「北部烏爾科古代邊牆」,『大陸科學院通報』7卷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장성자원조사 사업과 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I. 머리말

II. 중국의 장성자원조사 사업과 장성보호조례

III. 중국장성학회와 새로운 장성 개념의 창출

IV. 장성의 새로운 정의와 유적의 재해석

V. 맺음말 - 중국의 장성학과 우리의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성제(李成制)

한국고대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2005, 국학자료원), 『중국 소재 高句麗城 사진자료집-吉林省 東部』(편저, 2010),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관계 - 396년 후연의 廣開土王 冊封 문제를 중심으로」(2012, 『한국고대사연구』 68) 등,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麗羅」(2013, 『대구사학』 113), 「廣開土王碑의 性格과 立碑의 意義」(2013, 『선사와 고대』 39),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2014, 『한국고대사연구』 75).

중국 장성자원조사 사업과 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I. 머리말

19세기 서구인들이 중국의 위대한 창조물로 칭송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장성은 맹강녀(孟姜女) 전설로 대변되듯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폭정의 상징이면서 쓸모는 전혀 없는 헛된 구조물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일단 상징하는 이미지가 달라지자, 장성은 중국인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상징으로 변신해 왔다. 중국이 최근에 ‘역대 장성의 총길이’를 발표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지난 2012년 6월 5일 중국의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은 북경 근교의 거용관(居庸關)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물국 부국장은 “국가 공식 조사에서 중국의 15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존재하는 역대 장성의 총 길이가 21,196.18km이며 유적은 모두 43,721곳으로 확인되었다.”고 선언하였다.¹ 이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 우리가 보인 관심은 각별한 것이었다(이하 ‘역대 장

1 “우리나라 최초로 역대 장성의 데이터는 43,721곳이라고 발표(我國首次公布歷代長城

성의 총길이 발표로 칭한다).

중국의 장성 조사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중국이 파악한 장성 유적에 고구려·발해의 성곽이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고구려 천리장성(千里長城)으로 추정되는 노변강토(老邊崗土) 장성과 발해의 장성이라는 목단강(牧丹江) 변장(邊牆) 등이 장성 유적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학계 연구자들의 논평이 뒤따랐다.³ 하지만 고구려·발해 성곽의 포함 여부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매몰된 나머지 중국의 발표가 어떤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며 고구려·발해 성곽을 장성 유적에 포함시킨 중국의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장성 유적을 어떻게 수만 곳으로 셈할 수 있는가 등 정작 중국의 장성 발표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고 중국 학계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내용을 살피고자 하는 노력은 소홀하였다.

필자는 '역대 장성의 총길이' 발표를 통해 장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장성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중국이 다년간 진행해 온 장성 조사와 연구 내용을 파악하여, 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数据 共計43721處”, 『光明日報』(2012년 6월 6일), http://history.gmw.cn/2012-06/06/content_4288927.htm.

2 『黑龍江省長城資源調查-工作簡報』第1期(2008년 8월), 1~2쪽.

3 필자를 포함하여 관련 연구자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룬 발표회가 아래와 같이 열린 바 있다. '중국의 장성 보도관련 전문가 간담회'(2012. 6. 12), 동북아역사재단; 이종수(2012. 10. 5), 「中國의 “長城保護工程”과 高句麗·渤海 長城 現況」, '2012 속초 발해의 꿈 프로젝트 국제학술세미나', 고구려발해학회; 이종수(2012), 「中國의 '長城保護工程'과 高句麗·渤海長城 現況 및 對應方案 檢討」, 『高句麗渤海研究』44; 김홍수(2012. 10. 26), 「중국의 장성자원조사 현황」, 'Asia Archaeology 국제학술심포지엄', 국립문화재연구소.

II. 중국의 장성자원조사 사업과 장성보호조례

2012년 6월 5일자 중국 국가문물국의 발표는 그 명칭이 ‘장성보호선전·장성 자원조사 및 인정사업성과 발표회(長城保護宣傳暨長城資源調查和認定成果發表活動)’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장성자원조사와 인정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장성 자원에 대한 조사와 관정을 시도해 왔다. ‘장성 보호 공정(2005~2014)’이 그것인데, 이 공정은 장성의 전체 면모를 파악하고 관련 법규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장성의 보호와 보수 및 합리적 이용을 해나가겠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작업으로 9개 항목이 설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유적 조사와 데이터 정리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것이다.⁴

즉 장성자원조사 사업은 장성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조사 작업으로 이번 국가문물국의 발표는 중국 당국이 조사한 전체 장성의 데이터인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이 조사한 장성 유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궁금해진다. 일단 2만km가 넘는 장성의 길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만 리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장성보호조례(長城保護條例)>(2006년 10월 11일 공포)와 『장성자

4 “첫째, 장성 유적을 조사하여 전체 장성의 데이터를 정리한다. 둘째, <장성보호총체규획(長城保護總體規畫)>을 작성한다. 셋째, <장성보호관리조례(長城保護管理條例)>를 수립한다. 넷째, 장성 보호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장성 보호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다섯째, 장성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장성 보호를 위한 과학적 연구를 강화하여 ‘장성 및 그 보호 관리 연구’ 과제를 완성한다. 일곱째, 과학적인 장성 보호·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핵심 구간에 대한 보수 방안과 핵심 부위에 대한 긴급 처치 공정을 완성한다. 여덟째, 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성의 파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다. 아홉째, 장성 보호 업무 소요 예산을 확대한다.” 『“長城保護工程(2005~2014)”總體工作方案』,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원조사공작수책(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의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長城資源調查工作總體方案)」(2007년 4월 공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자는 말 그대로 장성 보호를 위해 제정한 행정 법규이며, 후자는 그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특히 현장 조사에 필요한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성 자원 즉, 어떤 것을 장성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 ① 장성 본체: 주로 장성의 성벽과 성벽 위의 시설. 예를 들어, 적대(敵臺), 마면(馬面) 등.
- ② 부속 시설: 장성 방어 체계와 관련이 있는 기타 시설. 예를 들어, 관(關)과 보(堡), 봉화대 등.
- ③ 관련 유적: 주로 장성 성벽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거나 장성 방어 체계와 관련이 있는 유적. 예를 들어, 호구(壕溝), 당마장(擋馬牆), 품자교(品字窰), 역참(驛站), 창고, 거주지, 전와요(磚瓦窯), 채석장, 적신(積薪) 등.⁵

일단 장성 유적의 수효가 43,721곳이라고 파악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장성의 성벽 외에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설까지 장성 자원으로 간주하여 헤아린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장성 본체는 장성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부속 시설과 관련 유적까지 장성 자원에 포함시켜도 좋을지 의문이 든다.⁶

5 「長城資源調查工作總體方案」,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2007. 4). 이것과 <장성보호조례>의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 조례 제2조에는 장성은 장성의 성벽, 성보, 봉화대, 적루(敵樓) 등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어 총체 방안이 규정한 장성의 범위보다 좀 더 한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부속 시설 가운데 봉화대나 보 등은 그 기능상 점점이 이어지는 형태를 띤다. 성벽으로 이어진 선과는 달리 이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설치되었고, 또 그래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물이었다. 장성과 무관하게 세워져 운용될 수 있는 군사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연유인지 이들 유적이 장성 자원으로 간주되었고, 결과적으로 역대 장성의 총 길이를 늘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달리 말해, 2만km를 넘는다는 장성의 길이는 성벽으로 이어진 선의 합만이 아니라 점점으로 떨어져 있는 유적간의 거리까지도 모두 더해져 얻은 수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점점이 이어진 봉수도 성벽과 유사한 방어선으로 파악되며 장성 성벽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것이라면 그 유적 역시 장성 자원이 되는 것이고, 장성선을 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본다. 성벽의 선이 아닌, 점도 장성이 될 수 있다는 이해가 합당한 것인지 선뜻 판단이 서질 않는다. 또한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해도 어떤 유적을 장성의 부속 시설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성과 관계가 있다는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선행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지나치게 장성 자원의 폭을 확대하여 설정해 두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역대 장성의 총길이’ 발표는 장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확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를 실시했음을 보여준다. 조례 제9조는 장성이 소재한 성·자치구·직할시의 정부가 그 행정구역 내의 장성 자원을 조사하고 국무원(國務院) 문물 주관 부처에 보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6 이런 문제 때문인지, 장성자원조사 과정에서 채석장, 전와요, 수졸의 무덤, 거주지, 역참, 비석, 각석, 비각 등 장성 방어 체계와 관련된 유구 유적이 발견되었지만, 장성의 인정 범위에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주1 참조).



〈그림 3〉 중국장성신식망의 장성 지원 검색 화면: 요령성에 소재한 명대(明代) 장성 지원을 검색한 모습이다. 목록에 올라 있는 개별 유적의 사진을 볼 수 있으며, 위성 지도를 통해 그 위치까지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명대 이외의 장성자원에 대해서는 게시하지 않고 있다.

날로부터 1년 내에 성급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5개 지역의 현지 조사가 앞서 살핀 『장성자원조사공작수책』에 제시된 자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문물국은 조사 내용을 통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지에 배포, 각 지역의 조사원들이 여기에 맞춰 개별 유적의 명칭, 크기, 특징, 보존 상태, 현장 사진까지 양식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각지에서 조사한 결과는 국가문물국의 의뢰를 받은 중국문화유산 연구원 장성자원조사 공작 프로젝트팀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심사하고 장

성 자원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틈엔가 장성은 단지 긴 성벽과 웅장한 관문만이 아니라 여타의 관련 시설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종합 시설물이라는 이해가 확정되었고, 이를 통해 장성의 개념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III. 중국장성학회와 새로운 장성 개념의 창출

중국 국가문물국에 따르면 지방에 <장성자원조사 작업에 관한 통지>가 하달된 것은 2006년 12월이었다. 아울러 중국 국가문물국은 국가측회국(國家測繪局)과 공동으로 장성자원조사 업무 기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7년 두 기관은 북경에서 전국 장성자원조사 공작회의를 개최, 명(明) 장성자원조사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명 장성자원조사 작업이 실시되어, 2009년 4월 18일 명 장성의 총길이가 발표되었다. 뒤이어 진한(秦漢)과 기타 시대의 장성자원조사가 실시, 2010년 말에 현지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보고된 이들 자료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쳐 장성자원의 인정 작업이 진행되어 2012년 6월 초에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이로 보아 ‘역대 장성의 총길이’ 발표는 2006년부터의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이며, 장성조사가 명 장성에서 진한과 기타 시대의 장성으로 조사 대상을 전 시대의 장성 유적으로 확대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장성은 북방의 호(湖)를 막기 위한 장벽이라고 보아서는 조사 대상을 전 시대로 넓힐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장성자원조사에 앞서 장성의 새로운 개념이 마련되어 있었고, 어떤 유적을 장성자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세워져 있었던 것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4) 호산(虎山) 장성의 모습: 명 장성자원조사 작업을 통해 동단 기점으로 확정되었다.

이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나 발해의 변장이 중국의 역대 장성에 포함되었던 연유도 여기에 있었다고 보인다.

‘역대 장성의 총길이’ 발표로 장성은 북방의 호인을 막기 위해 세운 방어용 장벽만이 아니라, 한인(漢人)이 세우지 않은 장벽이라 해도 장성 자원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역대 장성의 총길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축조 주체가 호인가 한(漢)인가로 구분하지 않고 현재 중국 영토 위에 역사상 명명했던 제 왕조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며, 언제부터 설정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중국장성학회가 주목된다. 장성을 연구하는 모임을 넘어서 장성과 관련이 있을 성 싶은 모든 분야—역사·지리, 인물, 관련 유적, 관제(官制), 장성 구역의 민족, 역사적 사건, 관련 자료, 관광자원 등—를 연구 대

상으로 삼아 이른바 ‘장성학’을 만들어 관련 연구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중국장성학회는 1979년 중국 국가문물국이 개최한 ‘전국 보호연구장성 공작 좌담회(全國保護研究長城工作座談會)’에서 전국 규모의 학회를 결성하기로 논의되어 1987년 6월 설립되었다. 그리고 1984년 9월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그 유명한 ‘애아중화(愛我中華) 수아장성(修我長城)’ 운동이 제기되었다.

‘애아중화 수아장성’ 운동은 중화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개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중국장성학회의 역할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즉 중국 당국은 중국장성학회에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장성 연구를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이로써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중국장성학회가 발간한 『장성백과전서(長城百科全書)』에서 살필 수 있다.⁷

이에 따르면 중국장성학회의 설립 이전까지 진·한·명 장성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여겨왔을 뿐 장성과 민족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없었다. 그러다가 장성이 민족 방어선이 아니라 민족 융합의 장이었음을 논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고 이 연구들이 대세를 점하기에 이르렀다. 즉, ‘중화민족(中華民族) 다원일체(多元一體)’의 관점에서 장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다.

장성이 중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19세기 서구인들에 의해서였고, 이후 장성은 중국의 위대한 창조물로서 떠받들어져 왔다. 하지만 장성을 예찬한 아마도 최초의 중국인인 쑤원(孫文)조차도 그것의 역사적 의미는 북방 야만족의 침입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한 거대한 장벽이라는 점에 두었다.⁸ 그러나 ‘애아중화 수아장성’ 운동을 통해 장성은 중화민족의 상징으로, 중국 역사상 명멸했던 다양한 민족들이 장성의 공간을 통해 하나의 중화민족

7 長城學會 編(1994), 『長城百科全書』, 吉林人民出版社.

으로 융합되어 왔음을 보여주게 되었다.⁹

이러한 국가적 운동과 짝하여 중국장성학회는 학문적인 뒷받침, 즉 이론의 제기와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중국장성학회가 발간한 『장성백과전서』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장성백과전서』는 1,220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이다. 장성학의 지침서이자 종합적 자료집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 역사상의 장성을 시대별로 정리하여 그 분포 지역과 축조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장성 건축 종술’의 장에서는 변장(邊障)·장(障)·정장(亭障)·성장(城障)·관·구(口)·관성(關城)·새(塞)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장성의 건축 유형’으로 봉수·정(亭)·수(燧)·적대·포방(鋪房) 등을 적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특히 이 책자에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고려장성(高麗長城)’으로 언급되고, 당나라의 고려(고구려) 정권이 세운 장성이라 하여 중국의 역대 장성의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다.¹¹ 장성학 분야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고구려를 중국사의 일부로서 간주하고 고구려인이 세운 군사 시설을 중국 역대 장성의 하나라고 이해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역대 장성의 총길이’ 발표에서 중국 국가문물국이 고구려 천리장성을 당대 장성에 포함시킨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장성백과전서』의 이해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
- 8 줄리아 로벨 지음·김병화 옮김(2007), 『장성, 중국사를 말하다』, 웅진지식하우스, 390쪽.
- 9 이러한 인식의 일단을 “장성의 축조는 중화 민족이 가진 문화적 특징의 하나로 간주된다.”는 지적[馮永謙(2002), 「高句麗千里長城建置辨」, 『社會科學戰線』 1, 184쪽]에서 살필 수 있다.
- 10 이 책에 따르면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비교 연구의 차원에서 그리스 아테네의 장성과 로마제국의 잉글랜드 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었다고 한다.
- 11 長城學會 編, 앞의 책, 83~84쪽.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참고문헌으로 李健才와 馮永謙의 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변강(老邊崗)’을 천리장성의 유적이라고 보는 설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이중화 수이장성’ 운동이나 중국장성학회의 연구는 중국의 장성 연구가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중국의 장성학은 학문 외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중국의 장성 연구가 비합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국의 장성 연구에는 고고학적 조사와 거기에서 확보된 풍부한 자료,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장성 연구는 점재하는 봉수 등의 시설을 장성의 부속 시설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한대 서북 지역의 변경 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다. 진이 장악했던 하서회랑(河西回廊)의 영역을 한무제(漢武帝) 이래 더 북쪽으로 연장하고 거기에 방어 시설을 마련하였는데 그 유적들이 남아서 당시의 변경 방어 시스템을 알려 주고 있다.

이 가운데 둔황(敦煌) 서북의 소록하(疏勒河) 유역에는 작은 성보와 봉수군 유적이 점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둔황한간(敦煌漢簡)이라는 당시의 문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둔황에서 동북으로 700km 거리에 있는 예치나하[額濟納河] 유역에서도 각종 성보와 봉수군 유적이 늘어선 형태로 남아 있고, 거연한간(居延漢簡)의 문서 자료들이 나온 바 있다.¹² 중국 학계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이들 유적과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장성 연구에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서북 지역의 조사와 연구는 봉수 유적의 구조, 봉수군의 기능, 이들과 변경 방어 군사 조직 간의 관계 등을 밝혀내었던

12 한대 서북 지역의 변경 유적과 그 성격, 이를 통해 살필 수 있는 방어선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粗山 明의 연구가 도움을 준다[粗山 明(1999), 『漢帝國と邊境社會-長城の風景』, 中公新書 및 粗山 明(2001), 『漢代エチナ=オアシスにおける開發と防禦線の展開』, 『流沙出土の文字資料-樓蘭·尼雅文書を中心に』, 京都大學學術出版部].



(그림 5) 예치나 지역의 한 장성과 봉수군: 봉수와 장성선이 함께 짝을 이루어 하나의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¹³

것이다.

중국 학계는 서북 지역의 한대 장성 연구와 조사를 통해 장성은 성벽의 선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속하는 봉수 등의 시설물과 조합하는 종합적 군사 시설이라는 이해를 마련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해가 서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이들을 장성의 일부로써 간주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다.

IV. 장성의 새로운 정의와 유적의 재해석

이제 중국장성학회의 활동, 즉 장성을 연구하는 장성학의 성립이 실제의 연구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다. 여기에서는 중국 동북 지역의 장성 연구와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고 또한 ‘역대 장성의 총길이’ 발표에 고구려 천리장성과 발해 변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의 장성 조사와 연구가 고구려와 발해 시대의 유적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중국 국가박물관이 동북 지역의 장성이라고 인정한 유적들이다.

동북 3성의 장성 유적

- ① 요령성: 연 장성, 한 장성, 복제 장성, 요 장성, 명 장성
- ② 길림성: 한 장성, 노변강토 장성(고구려 천리장성), 연변(延邊) 장성

13 靺山 明(1999), 『漢帝國と邊境社會-長城の風景』, 中公新書, 62쪽 도면 전제.

③ 흑룡강성: 목단강 변장(말해 변장), 금계호(金界壕)

이 가운데 요령성과 길림성 두 지역의 장성 유적에 한 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심이 간다. 중국의 장성 보도와 관련하여 요령성과 길림성의 장성 자원으로 한 장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보인 이는 없어 보인다. 아마도 이들 지역에는 한의 군현(郡縣)이 설치되었었고, 군현성(郡縣城) 등의 관련 유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이들이 한 장성선의 일부라고 간주되고 그래서 한 장성선이 요령성의 요하(遼河) 이동 지역과 그 동쪽의 길림성 지역까지 그려진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뒤에서 자세하게 보겠지만 연장되는 한 장성으로 인해 그 안쪽 지역은 자연스럽게 한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여기에 고구려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동북 지역의 장성 연구를 거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연구자라면 손수도(孫守道)가 아닐까 한다. 1992년 그는 한의 요동 장성이 열을 지어 늘어선 봉수선(烽燧線)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요하 이동 지역에서 장성의 성벽 선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¹⁴ 그의 언급에 따르면 '(현대 중국의) 건국 이래 동북 경내에서 옛 장성 유적의 조사는 고고학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다고 한다.

중국 북부의 대부분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연·진·한대 장성의 선이 어찌된 일인지 요하를 건너와서는 그 자취를 남기지 않고 있다. 장성의 성벽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는 장성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좋으련

14 孫守道(1992), 「漢代遼東長城列燧遺迹考-兼論遼東郡三部都尉治及若干近塞縣的定點問題」, 『遼海文物學刊』 2.



〈그림 6〉 고각산(孤脚山) 봉수: 요령성 신빈현 왕청문진 소재. 요령성 동쪽 끝까지 한 장성이 이어졌다는 근거가 되었다. 산 정상부에 흙을 퍼올리고 석재를 돌린 시설이 남아 있다. 대략 원형에 가깝다. 왕청문진의 북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부이강에 면하여 있다.

만, 그럴 수가 없던 동북 지역의 장성 연구에 요하로 흘러드는 혼하(渾河)의 중류 지역에서 발견된 봉수군(烽燧群)은 한대 장성이 여기까지 연장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호재가 되었다.

이 봉수군은 혼하 중류의 심양(瀋陽)과 무순시(撫順市)에서 발견되었는데, 혼하에 면한 산지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3~4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의 선상으로 배열되고 있는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손수도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특징은

『한서(漢書)』가 전하고 있는 장성의 모습 “自敦煌至遼東萬一千五百餘里 乘塞列燧”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봉수군이 한대 장성의 일부임을 보여준다고 한다.

여기에서 짐작했겠지만 혼하 유역의 봉수가 장성 유적의 일부라는 주장은 중국 서북 지역에서 조사된 장성과 봉수 유적으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손수도의 글이 나올 무렵 20여 기에 불과했던 봉수는 장성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노력에 의해 60여 기로 늘어났다. 무순시 동쪽에서 혼하로 흘러드는 소자하(蘇子河) 연안에서도 봉수대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봉수



〈그림 7〉 적백송고성: 적백송고성에서 북쪽으로 쾌대무진의 대무산(大茂山)이 보인다. 상자 안은 성 안과 성벽의 모습이다.

는 신빈현(新濱縣) 왕청문진(旺淸門鎭)까지 전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⁵

한편 새로운 봉수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었지만 그 분포 지역은 요령성 동쪽 끝인 신빈 지역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신빈의 동쪽으로 부이강(富爾江)을 건너면 바로 길림성(吉林省) 경내임에도 불구하고 장성 자원에 있어서 길림성은 공백지였던 셈이다. 하지만 2012년 6월 중국 국가문물국은 길림성에도 한 장성의 유적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다. 아마도 이는 ‘장성 보호 공정’에 따라 길림성이 지방 차원에서 경내의 장성 자원을 조사하고 그 성과를 국가문물국에 보고하여 장성 자원으로 인정받은 결과일 것이다. 중국 국가문물국의 장성 발표에 뒤따라 나온 길림성의 장성 자원에 대한 언론 기사를 통해 그 조사 내

15 蕭景全(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3.



〈그림 8〉 태평구문고성(太平溝門古城): 남대고성지와 짝하여 장성선의 일부를 이룬다고 한다.¹⁶ 둘레 길이가 180m 정도의 작은 성부로, 산 위에는 봉수대 시설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규모로 보아 역참 정도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통화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위치한다. 사진에서 철탑의 좌측으로 두 번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벽의 흔적이다.

용의 대강을 살필 수 있다.¹⁷

길림성 문화청 문물보호처장의 말에 따르면 길림성은 장성자원조사의 결과, 장성 유적을 세 곳 발견하였다. 노변강토 장성, 연변 장성, 한 장성이 그것인데, 앞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 장성은 봉수 12기와 성지(城址) 두 곳의 발견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역적으로는 부이강의 동편, 혼강 연안의 통화현(通化縣) 지역이 중심이 되며, 쾌대무진(快大茂鎮)의 적백송고성(赤柏松古城)이 주

16 “길림성 내 3곳의 장성 유적이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가 되다(吉林省內有3處長城遺跡 被列爲全國重點文保單位).”, 『吉林新聞網』(2012. 6. 7), <http://www.jl.chinanews.com/news.aspx?id=49195>.

17 李樹林·李妍(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 2.

요 거점으로 한 장성 방어 체계의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12기의 봉수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길림성의 한 장성 역시 봉수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 즉 열수(列燧)로서 장성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수는 한 장성의 성벽 선을 찾을 수 없는 요하 이동 지역에서 성벽을 대신하여 봉수선으로 이루어진 장성이 실재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며, 이 지역의 한 장성은 성벽으로 이어진 장성선이 아니라 봉수와 성보(城堡)로 점점이 이어져 하나의 선을 이루는 형태로 세워졌다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열수가 과연 장성의 방어 체계 일부인가, 그것은 한대 서북의 지역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등의 의문은 잠시 접어 두자. 우선은 열수를 장성 방어 체계의 일부라고 보는 이해가 길림성 등 중국 동북 지역의 장성 조사와 연구를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 중국 언론이 길림성의 장성자원조사 과정에서 진·한 장성의 유적으로 ‘남대고성지(南台古城址)’를 발견했다고 전하면서 이로써 장성의 동단 기점은 동쪽으로 10.9km 연장되었다고 보도하였던 일이 떠오른다.¹⁸ 그러던 것이 ‘역대 장성의 총길이’ 발표를 즈음해서는 장성의 동단은 적백송고성이 되고 있음을 본다.¹⁹ 즉 열수의 유적을 찾아냄으로써 장성선은 자연스럽게 연장되었던 것이다. 혼하 연안의 심양~무순 지역의 열수는 장

18 “중국 진한장성의 동단 기점은 길림성 경내에 있다(中國秦漢長城東端起點在吉林境內).”, 『東南網』(2009. 10. 12), http://www.fjsen.com/q/2009-10/12/content_1164786.htm.

19 12개의 봉수와 두 곳의 성보가 어떻게 장성을 구성했는가에 대해서는 국가문물국이 최근 발간한 자료에 적시되고 있다. 吉林省長城資源調查隊 著·國家文物局 編(2013), 「發現與探索-吉林省長城資源調查總覽」, 『長城資源調查工作文集』. 이에 따르면 12개의 봉수와 남대고성지[책자에는 ‘남대자보성(南台子堡城)’으로 기재]가 52km의 봉수선을 이루며 적백송고성이 이 장성선에 연해 있던 군사 성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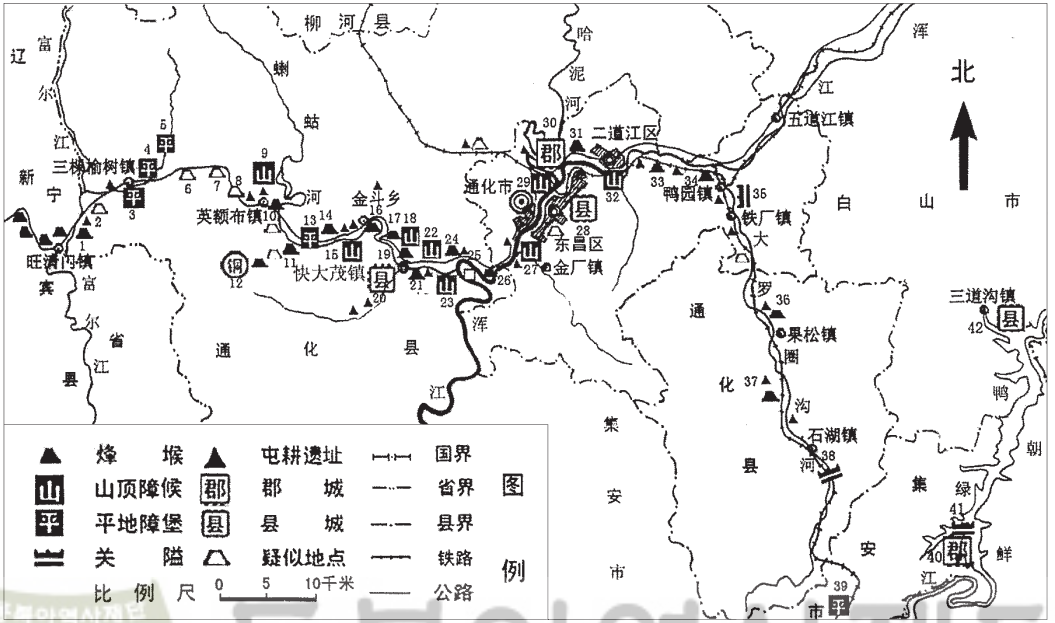
성선을 동쪽으로 확장하였고, 또 다른 열수는 신빈 지역으로 연장해 주었다. 여기에 추가된 통화 지역의 봉수들과 성지는 장성선을 또 다시 동으로 늘렸던 것이다. 선행 연구가 종착 지점이라고 본 유적이 후속의 연구에서는 장성선의 새로운 지점이 되고 있고, 그곳으로부터 후속의 연구가 찾아냈다는 유적까지 장성선을 늘려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제는 남대고성지는 물론이고 적백송고성지가 지금까지 다른 성격의 유적이라고 이해되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대고성지는 고구려의 초소[哨卡]라고 보아왔던 것이고, 적백송고성지는 한 군현의 군현성으로 보아왔던 유적이다. 그러던 것이 장성 선상에 세워졌던 방어 시설이라고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즉 길림성 내에서 한 장성 유적을 찾아냈다고 보고하였지만, 실상 그것은 모르고 있던 유적을 새롭게 찾아낸 결과라기보다는 기왕의 유적들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얻은 결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길림성에서 발견되었다는 한 장성은 장성자원조사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잘 보여 준다. 봉수나 관애, 작은 성보 등은 장성 관련 시설이며 성벽 선이 없다고 해도 장성은 열수나 열성(列城)의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새로운 이해가 지방 차원으로 확산되었고, 현장에서는 그것에 근거하여 유적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장성을 찾아냈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가 길림성 내에서 한 장성을 찾아냈다는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고 싶다. “남대고성지” 보도와 길림성 장성자원조사대의 보고는 장성자원조사의 의도가 장성의 동단을 더 동쪽으로 연장시키려는 데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리고 아래에 소개하는 최근의 연구는 장성 동단의 연장이 계속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길림성이 중앙에 보고하여 인정받은 한 장성은 통화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장성 유적으로 확정된 유적의 수도 성지 두 곳과 12기의 봉수였



(그림 9) 한 장성의 동단을 압록강변까지 연장하고 있는 주장²⁰

다. 그러던 길림성 내 한 장성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²¹ 이에 따르면 한 장성의 동단은 통화시를 지나 집안시(集安市) 동쪽의 압록강변까지 연장되며, 그 연선(沿線)에 위치한 다양한 유적은 모두 한 장성의 방어 체계로 간주된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해당 지역 각각의 유적을 고찰하여 성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장성 방어 체제의 일부라는 시각에서 이들 유

20 李樹林·李妍(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 2에 수록된 분포도 전제.

21 李樹林·李妍(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 2.

적의 성격을 확정짓고 기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고구려의 것이 분명한 유적들조차 한 장성의 방어 시설로 분류하여 장성선의 연장설에 실물 자료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통화시 이도구문관애(二道溝門關隘)와 통화현 석호관애(石湖關隘)는 고구려가 대라권구하(大羅圈溝河) 연안으로 이어지는 왕도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고구려의 차단성임에 분명하지만, 한의 장성 시설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 중국의 장성학과 우리의 과제

이제까지 중국이 내놓은 장성의 새로운 이해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새로운 장성의 개념과 범주는 고구려 천리장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또 다른 역사 왜곡의 문제를 일으켰다. 또한 ‘역대 장성의 총길이’ 발표로 보아 중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²² 우리가 중국의 장성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에 맺음말을 대신하여 중국의 이해에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연구 방향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몇 가지 언급해 두고자 한다.

중국의 장성자원조사 사업은 각 지방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결과물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박물관의 심사를 거쳐 비로소 장성 자원으로 인정하였

22 제작년 말 몇몇 언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정 회의에 참가한 인사의 말을 빌어 고구려 천리장성과 발해 변장이 장성에 등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2만 km로 늘린 만리장성에 고구려·발해산성 포함 안 됐다.”, 『서울신문』(2012. 12. 26), 2면 및 “‘만리장성 길이는 2만km’ 유네스코에 2배 늘려 보고”, 『세계일보』(2012. 12. 26), 2면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고 한다. 현장의 조사와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국가문물국은 장성 자원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다. 특히 ‘역대 장성의 총길이’ 발표는 그러한 인상을 국내외에 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문물국이 장성을 ‘장성의 성벽, 성보, 관애, 봉화대, 적루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유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학문적 객관성을 무시한 채 장성자원조사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드러낸다. 조사를 담당한 지방 역시 중앙의 지시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했을 뿐 학문적 객관성의 확보는 뒷전이었음을 길림성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길림성의 조사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새로운 장성 유적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장성학이 수립한 장성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이루어진 유적의 재해석에 불과하다. 다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장성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향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고구려 천리장성과 발해 변장이 중국의 장성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자. 중국의 장성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들 유적은 장성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는 우리의 반박이 과연 적절한 내용이었을까. 우리는 고구려인과 발해인이 세웠으니 당의 장성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은 장성을 민족 융합의 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 체계에서 우리의 반박은 큰 반향을 일으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중국 측의 반론이 곧바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하여 준다.²³

이 점에서 중국의 논리 자체를 문제 삼아 그 오류를 지적했었다면 어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장성은 고대 중국인과 다른 민족의 경계를 구분 짓고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물로 그 존재 자체가 정치·군사적 경계이자 민족적 경계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술적 검토의 과정을 좀 더 거친 뒤에 대응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의 장성자원조사는 장성학을 구축하고 장성의 새로운 이해를 마련하는 등 다년간의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학술적 검토가 미진했다는 것은 길림성의 연변 장성을 고구려 천리장성과 함께 역사 왜곡의 사례라고 지적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 장성은 토석혼축(土石混築)의 성벽으로 축조된 것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延吉)·용정(龍井)·화룡(和龍) 지역에 남아 있다. 이 성곽의 축조 시기를 4~5세기 무렵이라고 보아 북쪽의 물길(勿吉)이 남침해 오는 것을 막으려고 쌓은 고구려의 장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성벽의 지향 방향이나 고구려 당시의 교통로를 고려하면 고구려가 이 장벽을 축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연변 장성은 그 남쪽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보이기 때문이다.²⁴ 중국 측의 분류처럼 급대의 장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 장성선은 새로운 유적의 발견보다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유적을 재해석하는 연구 방법에 의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성곽들이 한 장성의 관련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이해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성선의 확장을 통해 확정되고 고착화되어 갈 우려가 있는 것이다.

23 “한국의 언론 매체 중국 장성의 길이가 고무줄이라고 비웃어, 전문가들은 한국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韓媒笑中國長城是橡皮筋 專家稱韓無事生非)”, 『環球網』 (2012. 6. 8),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2-06/2797693.html?bsh_bid=98951270.

24 李成制(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운용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延邊地域 분포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겸하여」, 『高句麗渤海研究』 34, 173~175쪽.



〈그림 10〉 연변 장성: 연길시 북쪽, 청다관(淸茶關), 성벽 선이 가장 잘 남아 있다고 하는 곳이다. 성벽 선 전면(사진의 좌측)으로 호의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 이 변장이 연길시 방향에서 북진해 오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성선을 그려 냄으로써 그 안쪽의 영역은 한의 영역이라는 이해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 즉 한 장성선이 현재의 집안시 동쪽인 압록강 중상류까지 이어졌다고 보면 압록강 중상류의 이서 지역은 한의 영역 안에 놓이게 된다. 현재의 환인(桓仁)과 집안을 그 중심지로 삼고 있던 고구려는 한의 지배 아래 있었던 셈이다. 한 장성선의 확장 주장은 고구려가 한의 영토 안에서 건국한 지방 정권이라는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인식을 뒷받침해 줄 이해인 것이다.

이제 중국은 장성이 장성의 성벽만이 아니라 봉수와 성보 등의 부속 시설까지 포괄하는 방어 체제였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 동북 지역에 한 장성이 실재하였는가의 문제는 결국 열수선(列燧線)이 장성 방어 체계의 일부인가

하는 물음으로 귀결된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서북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동북 지역에 남아 있는 봉수선을 장성 방어 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지만, 매우 대담한 이 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난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두 지역의 열수선이 과연 동일한 성격의 군사 시설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중국 동북 지역의 한 장성 조사와 연구는 양자를 동일한 성격의 유적으로 전제한 것이지만, 그것이 타당한가의 여부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혹, 손수도의 연구를 들어 양자의 동질성은 검증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분포 형태와 기능에서 양자의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서북 지역의 봉수선은 군현의 전방에 위치하여 최전선이 되고 있는데 반해 무순 일대의 봉수열은 방어선의 전면에 위치하였다기보다는 군현 내의 현성(縣城)과 현성을 연결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서북 지역에서는 봉수선의 전면에 방벽[塞]이 축조되어 방어선을 이루지만, 무순 일대에서는 새가 발견되지 않는다. 서북 지역의 봉수처럼 최전선의 방어 시설이 아니라 동북 지역의 봉수군은 가도를 따라 설치된 ‘도상수(道上燧)’인 것이다.²⁵ 이처럼 분포 지역과 새를 구비하고 있는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두 지역의 봉수는 결코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유적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손수도의 “요동 장성은 열수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이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의 설을 좇아 그 동단 기점을 연장하고 있는 작업이 대담한 시도라고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25 李成制(2011),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64, 306~312쪽.

[추가]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6일에 열린 한국성곽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로, 대략의 내용은 발표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길림성의 장성 자원으로 소개된 노변강토 장성은 학계의 이해에 따라 고구려 천리장성으로 이해하였으나,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2013년 봄 필자는 윤 좋게도 차용걸(車勇杰) 교수, 김무중(金武重) 선생과 함께 노변강 유적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두 분의 도움을 받아 살핀 유적의 모습은 중국 학계의 보고 내용과는 매우 달랐다. 또한 남아 있는 형태와 위치로 보아 도저히 방어 시설로는 볼 수 없는 유구들이었다. 즉 노변강토 장성은 고구려 천리장성으로 볼 수가 없으며, 천리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자의 이해에 대해서는 영남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광개토왕비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학술회의(2013. 11. 23, 경북대)에서 「高句麗 西邊의 방어체계와 千里長城」의 제목으로 학계에 보고하였다.²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6 발표원고는 학회지 『嶺南學』에 게재되었다[李成制(2014),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장성의 형태와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嶺南學』 25].

자료

- 吉林省長城資源調查隊 著·國家文物局 編(2013), 「發現與探索-吉林省長城資源調查總攬」, 『長城資源調查工作文集』.
- 「長城保護工程(2005~2014)」總體工作方案,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 「長城資源調查工作總體方案」, 『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 長城學會 編(1994), 『長城百科全書』, 吉林人民出版社.
- 『黑龍江省長城資源調查-工作簡報』第1期(2008. 8).

저서

- 줄리아 로벨 지음·김병화 옮김(2007), 『장성, 중국사를 말한다』, 웅진지식하우스.
- 粗山 明(1999), 『漢帝國と邊境社會-長城の風景』, 中公新書.

논문

- 李成制(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運用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延邊地域 分포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겸하여」, 『高句麗渤海研究』 34.
- 李成制(2011),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64.
- 李成制(2014), 「高句麗 千里長城에 대한 기초적 검토-장성의 형태와 성격 논의를 중심으로」, 『嶺南學』 25.
- 이종수(2012), 「中國의 「長城保護工程」과 高句麗·渤海長城 現況 및 對應方案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44.
- 蕭景全(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의 考古學考察研究」, 『北方文物』 3.
- 孫守道(1992), 「漢代遼東長城列遺迹考-兼論遼東郡三部都尉治及若干近塞縣的定點問題」, 『遼海文物學刊』 2.
- 馮永謙(2002), 「高句麗千里長城建置辨」, 『社會科學戰線』 1.
- 李樹林·李妍(2012), 「通化渾江流域燕秦漢遼東長城障塞調查」, 『東北史地』 2.

糸山 明(2001), 「漢代エチナ=オアシスにおける開發と防禦線の展開」, 『流沙出土の文字資料-樓蘭・尼雅文書を中心に』, 京都大學學術出版部.

기타

“2만km로 늘린 만리장성에 고구려 발해산성 포함 안됐다.”, 『서울신문』(2012. 12. 26), 2면.

“中 “만리장성 길이는 2만km” 유네스코에 2배 늘려 보고”, 『세계일보』(2012. 12. 26), 2면.

“吉林省內有3處長城遺跡 被列爲全國重點文保單位.”, 『吉林新聞網』(2012. 6. 7), <http://www.jl.chinanews.com/news.aspx?id=49195>.

“我国首次公布历代长城数据 共计43721处.”, 『光明日報』(2012. 6. 6), http://history.gmw.cn/2012-06/06/content_4288927.htm.

“中國秦漢長城東端起點在吉林境內.”, 『東南網』(2009. 10. 12), http://www.fjse.com/q/2009-10/12/content_1164786.htm.

“韓煤笑中國長城是橡皮筋 專家稱韓無事生非.”, 『環球網』(2012. 6. 8),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2-06/2797693.html?bsh_bid=98951270.



찾아보기

<ㄱ>

- 가부교위(駕部校尉) 244
 가부상서(駕部尙書) 244
 가부이조급사중(駕部二曹給事中) 244
 가주걸(賈洲傑) 336
 갈석산(竭石山) 45
 개봉(開封) 215
 개오(蓋吳) 177
 거란(契丹) 177
 거연새(居延塞) 111
 거연택(居延澤) 108
 거용관 180
 거점 19, 62, 70, 74
 겸자웅보(兼子雄輔) 19
 경애(景愛) 124, 356, 359, 360
 계구수전(計口受田) 235
 계릉전(桂陵戰) 33
 계장(界牆) 300
 계진(蘄鎭) 211
 계호(界壕) 50, 299, 303, 305, 308, 310~313,
 315~317, 320, 322, 324, 325, 327, 330,
 334, 339, 343, 353~356, 358, 361, 365
 계호(稽胡) 177
 고구려 381
 고락발(庫洛拔) 171
 고려(高麗) 191, 361
 고려장성(高麗長城) 383
 고막해(庫莫奚) 177
 고보녕(高寶寧) 286
 『고본죽서기년(古本竹書紀年)』 29
 고소의(高紹義) 286
 고양(桐楊) 247
 고엄(高儼) 273
 고장(姑臧) 236
 고징(高澄) 252
 고차(高車) 235, 244
 고침(高琛) 267
 고퇴수(庫堆成) 172
 고평(古弼) 248
 고훈(高歡) 168
 곡률광(斛律光) 171, 272
 곡률부(斛律部) 239
 곡률신(斛律羨) 172
 공험진(公險鎭) 364
 과보(瓜步) 177
 괘건중(郭建中) 192
 관애(關隘) 47, 305
 관중(關中) 177
 광양군(廣陽郡) 179

광장잡 228
 교전(郊甸) 185
 구원군(九原郡) 174
 구지저(仇池氏) 187
 군보(軍堡) 310
 근시관(近侍官) 244
 금(金) 214
 금계호 214, 300, 305~307, 311~314, 356,
 357, 365
 『금계호고(金界壕考)』 300, 355
 『금사』 299, 306, 308, 312, 314, 315, 318,
 325, 326, 330, 333, 336, 337, 342, 347,
 352, 356, 359, 360
 금장성(金長城) 300, 357
 금주(金鑄) 311
 금진(金津) 197
 기내 목장 247
 기내(畿內) 185
 기내지전(畿內之田) 202
 기상(畿上) 203
 기상새위(畿上塞圍) 168
 길주(吉州) 364
 김보려(金寶麗) 313
 김육불(金毓黻) 308, 316
 <ㄴ>
 낙양(洛陽) 182
 난하(灤河) 216

남경(南京) 214
 내선 장성 41, 44, 45
 노변강토 장성 375, 386, 390
 노사도(盧思道) 286
 노수호(盧水胡) 177
 노창기(盧昌期) 286
 녹원(鹿苑) 244
 농산(隴山) 277
 농서(隴西) 15, 54
 누번(樓煩) 25, 28
 누참(壘塹) 300
 <ㄷ>
 대약나이 337
 달속령(達速嶺) 180
 담기양(譚其驥) 239
 담영걸(譚英傑) 311
 대군(代郡) 180, 202
 『대금국지(大金國志)』 333, 341, 352~355,
 361
 대녕(大寧) 186
 대령강(大寧江) 42, 43
 대녕군(大寧郡) 176
 대동시(大同市) 168
 대동진 211
 대릉하(大凌河) 56, 60
 대승상부(大丞相府) 204
 도목(都牧) 244

도목령(都牧令) 244
 도목주(都牧主) 244
 도무제(道武帝) 167
 도사(都使) 192
 도상수(道上僉) 398
 독길사충(獨吉思忠) 308, 332, 335, 365
 독항(督亢) 264
 돈대 311, 363
 돌궐(突厥) 172
 동단(東端) 16, 36~38, 40
 동부척록 243
 동북로(東北路) 계호 308
 『동북통사(東北通史)』 308
 동연주 183
 동요회(董耀會) 312
 동위 168, 257
 동위 효정제(孝靜帝) 265
 동이(東夷) 지역 20
 동호(東胡) 25, 28, 54, 57, 59, 60, 70
 두빈(賓賓) 194
 두의(賓毅) 283
 두평(杜平) 179
 둔군성[九連城] 310, 311
 둔전 192, 264
 <口>
 마릉(馬陵) 169
 마릉전(馬陵戰) 33

마면 310
 마사대(馬射臺) 194
 마읍천(馬邑川) 253
 막남(漠南) 175
 막남목장(漠南牧場) 174
 막남변호(漠南邊壕) 313
 막남선(漠南線) 301, 302, 337
 만리장성 85
 만번한(滿番汗) 26, 36, 43, 52, 58, 70, 72
 망대(望臺) 303, 305
 맹정공(孟定恭) 307
 명대 외장성 204
 명대(明代) 장성 16
 명도전(明刀錢) 41, 68, 70
 명원제(明元帝) 167
 목관중랑장(牧官中郎將) 244
 목단강(牧丹江) 변장(邊牆) 375, 387
 목장장(木障牆) 47, 50, 73
 목제파 273
 목조상서(牧曹尙書) 244
 몽념(蒙恬) 35
 몽원제국(蒙元帝國) 252
 묘군(墓群) 64, 65
 묘장(墓葬) 60
 무령왕(武靈王) 25, 28, 72
 무명(撫冥) 168
 무성제(武成帝) 171, 253
 무제(武帝) 258

무주새(武州塞) 253
무주현(武周縣) 180
무천(武川) 168
문선제(文宣帝) 169, 259
미문평(米文平) 311, 358

〈ㄷ〉

반악(潘樂) 210
발출령(勃出嶺) 184
백등산(白登山) 249
범양(范陽) 286
변계 361
변군(邊郡) 57
변보(邊堡) 300, 305, 310, 317, 324, 330, 335, 343, 354~356, 365
변새 121
변장(邊牆) 58
변호 357
병성(并省) 252
병주(并州) 174, 288
보새(堡塞) 326
보성(堡城) 311
보수(堡戍) 317
보장 324
복산구(僕散揆) 308, 326, 331, 335, 366
복주(福州) 364
봉수(烽燧) 40, 45, 62
봉수선[列燧線] 387

봉화대(烽火臺) 47
부견(苻堅) 250
부제 330
『북사(北史)』 181
북연(北燕) 189
북연주 181
북위(北魏) 167, 214
북적(北狄) 54
북제(北齊) 169
『북제서(北齊書)』 170
북주(北周) 169
북지(北地) 15, 54
북택(北澤) 188
북하구(北夏口) 170
분주(汾州) 248
분토정지(分土定居) 239
비아두(費也頭) 256

〈ㄸ〉

사간수(社干戍) 179, 256
사공(司空) 182
『사기(史記)』 15, 25, 27, 30, 34, 57, 67
사륜(社崙) 188
사적간(庫狄干) 268
사적복련(庫狄伏連) 273
사적부(庫狄部) 239
사적월두권(庫狄越豆眷) 186
사적치(庫狄峙) 279

사주(肆州) 168
 사출 353
 산동 181
 산서진 211
 산용(山戎) 55, 63
 산해관(山海關) 170
 산협장(山險牆) 47, 50, 73
 산호(山胡) 205
 살리내 336
 『삼국지(三國志)』 25
 상곡(上穀) 15, 25, 53, 59, 203
 상곡군 55
 상군(上郡) 15, 54
 상서성 252
 세상(塞上) 175
 세외 장성 112
 세외(塞外) 184
 서남로(西南路) 계호 308
 서리력(徐俐力) 360
 서북로(西北路) 계호 308
 서역 149
 서위 문제 278
 서진(西秦) 189
 서청(西淸) 307
 서하호(西河胡) 241
 석장(石牆) 47, 49
 석천악언(石川岳彦) 65
 선무(善無) 188, 202
 선부진(宣府鎭) 211
 선우(單于) 240
 선제(宣帝) 173
 선화진(宣化鎭) 364
 설림산(薛林山) 246
 성대림(成大林) 312
 성락(盛樂) 176
 성보(城堡) 44, 47, 52
 성장(城障) 40
 성지(城址) 44
 소룩하(疏勒河) 94
 소릉하(小凌河) 56
 소왕(昭王) 27, 28, 30, 31, 33, 72
 손문정(孫文政) 313, 358
 손수인 312, 357, 359
 손인(孫仁) 313, 359
 송호(宋護) 286
 수(隋) 173
 『수경주(水經注)』 32, 195
 수문제 184
 수보(戍堡) 303, 305
 수양제(隋煬帝) 184
 수용(秀容) 186
 『수서(隋書)』 192
 수주(綏州) 184
 승녕진(崇寧鎭) 364
 승전동실(勝焄冬實) 185
 시산(豸山) 188

신군(新郡) 28, 54
신술(辛術) 266
심수(沁水) 263
십익견(什翼健) 249

〈ㅇ〉

아나괴(阿那瓏) 280
아지라(阿至羅) 253
안문(雁門) 175
안원(安原) 248
알타이산맥 190
알탄 칸 339
암라진(菴羅辰) 254
암바카이 칸 340
애아중화(愛我中華) 수아장성(修我長城)
382, 384
애충 223
아마원 247
야울덕수 352
야울득수 353
야울유가(耶律留哥) 363
양(梁) 168
양도(兩都) 체제 252
양릉전(襄陵戰) 33
양문덕(楊文德) 187
양창(楊暢) 279
양평(襄平) 15, 25, 35, 57, 69, 72
어양(漁陽) 15, 25, 53, 59

어이(禦夷) 168
업(鄴) 252
업성(鄴城) 182, 252
여량산맥(呂梁山脈) 180
여장 330
여진(女眞) 213
역대 장성의 총길이 373, 375, 378, 380, 381,
383, 386, 391, 394, 395
『역대통감집람(歷代通鑑輯覽)』 31
역수(易水) 31, 32
역수장성(易水長城) 31
연 장성 16, 18, 37, 40, 94
연남 장성 31, 34
연변(延邊) 장성 386, 396
연봉(燕鳳) 249
연북 장성 15, 16, 25, 27, 35, 39, 40, 43, 52,
58, 72
연산(燕山) 60, 61
연산주맥 211
연연(蠕蠕) 179
연왕(燕王) 희(喜) 26, 27
연주(燕州) 광녕군(廣寧郡) 176
연진 장성 38, 40
연하도(燕下都) 68, 69
연화시기(燕化時期) 61
열발성(悅跋城) 197
열수(列隧) 391
열수선(列隧線) 397

- 『염철론(鹽鐵論)』 67
- 염택(鹽澤) 107
- 영거새(令居塞) 96
- 영남선(嶺南線) 301~303, 312, 337
- 영민추장(領民酋長) 236
- 영북선(嶺北線) 301, 311, 312, 358~360
- 영주(靈州) 266
- 영주(營州) 286
- 영주(英州) 364
- 예맥(濊貊) 57
- 오대산(五臺山) 274
- 오르두스 246
- 오원(五原) 167
- 오제(吳提) 189
- 오호제국 290
- 오홀수(烏紇戍) 171
- 옥두성(屋寶城) 246
- 옥문관(玉門關) 102
- 옥야진(沃野鎭) 174
- 완안안국(完顏安國) 308, 330, 353
- 완안양(完顏襄) 308, 326~328, 332, 335, 351, 352, 365, 366
- 왕국량(王國良) 194
- 왕배화(王培華) 312
- 왕준(王峻) 263
- 왕중락(王仲榮) 267
- 왕진방(王振芳) 204
- 외산군치(外山軍治) 308, 326
- 외선 장성 41, 45
- 『요금원시대적장성(遼金元時代的長城)』 308
- 요녕식(遼寧式) 동검(銅劍) 64, 69, 70
- 요동 39, 41, 52, 68, 71, 75
- 요동군(遼東郡) 15, 25, 53, 57, 59
- 요동변장(遼東邊牆) 51
- 요동외요(遼東外徼) 35, 62
- 『요사(遼史)』 299, 336
- 요서(遼西) 15, 25, 37, 39, 40, 52, 53, 59, 63, 65, 71, 72
- 요서군 57
- 요종오(姚從吾) 308
- 요하(遼河) 38, 42
- 육고산(辱孤山) 246
- 용목조(龍牧曹) 244
- 용목조주사중산(龍牧曹奏事申散) 244
- 용성(龍城) 236
- 우문귀(宇文貴) 283
- 우문순 283
- 우문신거(宇文神舉) 286
- 우문태(宇文泰) 258
- 우문호(宇文護) 282
- 우북평(右北平) 15, 25, 53, 56, 59
- 우연수(于延水) 176
- 우익(于翼) 278
- 우천(牛川) 189
- 운중(雲中) 186
- 운중천(雲中川) 250

- 응주(雄州) 364
 원심(元深) 251
 원주(原州) 277
 원하(源賀) 243
 월근배니(越勤倍泥) 186
 『위략(魏略)』 25, 34, 57
 위신재(威信財) 64
 『위서(魏書)』 167, 266
 위지부(尉遲部) 186
 유곡(楡谷) 185
 유금주(劉金柱) 167
 유림군(楡林郡) 184
 유송(劉宋) 175
 유연(柔然) 167
 유원(濡源) 248
 유위진(劉衛辰) 197
 유주(幽州) 170
 유현(柔玄) 168
 유현진 243
 육주선비(六州鮮卑) 205
 육진(六鎭) 174
 은현(殷憲) 201
 음관(陰館) 202
 음산 196
 음산산맥 193
 의주(宜州) 364
 이문신(李文信) 27, 309, 323
 이비화(李丕華) 312, 358
 이석호(離石胡) 241
 이일우(李逸友) 193
 이주신흥(尙朱新興) 250
 이주씨(尙朱氏) 186
 이주영(尙朱榮) 250
 이주조(尙朱兆) 204
 이진기(李陳奇) 312
 이홍빈(李鴻賓) 312
 임호(林胡) 25, 28
 『일지록(日知錄)』 173
 임황로 316
 임황로(臨滄路) 계호 308
 〈ㄷ〉
 자사(子使) 192
 자지(子之)의 난(亂) 29, 72
 『자치통감(資治通鑑)』 168
 자하(紫河) 184
 장금룡(張金龍) 230
 장만공 326, 333
 장민(張敏) 188
 장백충(張柏忠) 316
 장새(鄣塞) 26, 35, 36, 46, 52, 58~60, 62
 장성(長城) 41, 94, 120, 299, 312, 313, 319, 357
 장성 공정 120
 장성 보호 공정(長城保護工程) 46, 357
 『장성백과전서(長城百科全書)』 382, 383

장성선 18, 19, 42, 53
 <장성보호조례(長城保護條例)> 17, 47, 73, 376
 장성자원조사 376, 380, 390, 394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長城資源調查工作總體方案)』 47, 73, 377
 『장성자원조사공작수책(長城資源調查工作手冊)』 47, 376, 379
 장성 지대 63
 장손비(長孫肥) 241
 장손숭(長孫嵩) 188
 장손한(長孫翰) 175
 장안 177
 장액 108
 장울(張蔚) 214, 313
 장의(張儀) 30
 장종 353
 장천(長川) 167
 장천지남(長川之南) 190
 장체(牆體) 47
 장태상(張泰湘) 360
 장해(長海) 313, 359
 저(氏) 177
 적남(赤南) 장성 38, 223
 적루(敵樓) 47
 적북(赤北) 장성 38
 적성(赤城) 167
 『전국책(戰國策)』 28, 31, 55
 전마령(典馬令) 244
 전장(甄牆) 47, 49
 전전정명(前田正名) 236
 전한 240
 정제(靜帝) 183
 정주(定州) 175
 제(齊) 29, 32, 33
 조 장성 200
 조북 351
 조북(趙北) 장성 15
 조선(朝鮮) 26, 57, 59, 62, 72
 조양(造陽) 15, 25, 35, 39, 41, 57, 72
 조영군(趙永軍) 312
 조영백(祖英伯) 286
 조옹(刁雍) 191
 종단(終端) 17
 종목전(種牧田) 273
 좌목령(左牧令) 244
 주대위(朱大渭) 173
 『주서』 257
 주천 102
 주향(走向) 16, 21, 25, 37, 39~42, 44, 45, 72
 『중국장성박물관(中國長城博物館)』 312, 357
 『중국장성유적조사보고집(中國長城遺迹調查報告集)』 37
 중국 장성자원조사 사업 373
 중국장성학회 381
 중산국(中山國) 28, 33
 중산성(中山城) 235

증서성(中書省) 252
 중화민족(中華民族) 다원일체(多元一體) 382
 지관(軹關) 171
 「지형지」 266
 직력제(直力靱) 197
 진 214
 「진관령(津關令)」 137
 『집사』 339
 진(秦) 장성 15, 38, 40, 169
 진개(秦開) 25, 27, 58, 60, 70
 진동해구(鎮東海口) 299
 진번(眞番) 26, 58, 62, 72
 진양진(眞陽鎭) 364
 질라부(叱羅部) 239
 <ㄷ>
 참(塹) 319
 참합(參合) 202
 참호(塹壕) 50, 303, 305, 319
 천금공주(千金公主) 288
 천리장성(千里長城) 43, 375, 386, 395
 천산(天山) 190
 청 290
 청목부태랑(靑木富太郎) 16
 『청일통지(淸一通志)』 316
 총진수(總秦戍) 181
 최중방(崔仲方) 184
 최호(崔浩) 189

출입 관리 136
 칙령(敕勒) 177, 186, 242

<ㄴ>

카불 칸 340
 쿠틀라 340

<ㄹ>

타스파르 카간[他鉢可汗, Taspar Qaghan]
 285
 타우도우위(駝牛都尉) 244
 타타르 352
 탁발도(拓跋焘) 175
 탁발부(拓跋部) 194
 탄루(坦壘) 300
 탐집호도크(塔集呼都克) 337
 태무제(太武帝) 168
 태복경(太僕卿) 244
 태원 178
 태원(진양) 252
 태행산(太行山) 171
 토돌린부(吐突隣部) 186
 토등(土墩) 169
 토문가한(土門可汗) 280
 토보 303
 토옥혼(吐谷渾) 187
 토장(土牆) 47, 49
 통만성(統萬城) 232

통일 진 장성 16, 40

『통전』 191

통태진(通泰鎭) 364

통행증 146

<ㅍ>

파로화 314~316, 354, 358, 365

판창독수(阪倉篤秀) 211

팔부대부(八部大夫) 236

팽점결(彭占傑) 308, 312

팽희(彭曦) 124

평간(平鑿) 210

평성(平城) 168

평용진(平戎鎭) 364

평주 183

폐제(廢帝) 253

포낙색부(包諾索夫) 309

『포특합지략(布特哈志略)』 307

포한(枹罕) 243

풍영겸(馮永謙) 312

<ㅎ>

하(夏) 186

하가점상층문화(夏家店上層文化) 56, 64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 64

하란부(賀蘭部) 186

하북성(河北省) 310

하서 목장 248

하서주량 94

하약의(賀若誼) 279

하주(夏州) 248

하투(河套) 174

『한서(漢書)』 67

한(漢) 장성 16, 40, 386, 391~393

함주(咸州) 364

항주(恒州) 168

항춘송(項春松) 310

해(奚) 255

해근(奚斤) 175

해단(解丹) 314

해자 305

행중서성(行中書省) 252

허겸(許謙) 239

헌문제(獻文帝) 191

혁련창(赫連昌) 232

협곡청신 353

호군(護軍) 236

호루(壕壘) 300, 333

호보(壕堡) 310

호옥춘(胡玉春) 229

호장(壕障) 300

호장(壕牆) 300

호참(濠塹, 壕塹) 47, 50, 73, 299, 300, 317,

325, 347

홍산문화(紅山文化) 64

화사개(和土開) 273

황로령(黃樞嶺) 179

황풍기(黃風岐) 312

황하 176

회삭(懷朔) 168

회삭진 174

회삭진고성(懷朔鎭古城) 199

효문제(孝文帝) 213

효소제(孝昭帝) 253

후경(侯景) 266

후연(後燕) 235

후응(侯應) 240

후주(後主) 253

후진(後秦) 187

훈장성(勳掌城) 171

흥노 240

「흑룡강여도」 307

「흑룡강외기(黑龍江外記)」 307~308

흥두릉(紇豆陵) 239

흥해부(紇奚部) 18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62

중국 역대 장성의 연구

초판 1쇄 인쇄 2014년 11월 05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11월 12일

지은이 홍승현 · 송진 · 최진열 · 허인욱 · 이성제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4

ISBN 978-89-6187-349-9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4031018)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